

지식과 교양

Knowledge and Liberal Arts

통권 제20호, 2026년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차례

[지식과 문화]

■ 이정기 ■

대학 비교과 독서모임의 효과에 관한 연구: 독서모임 참여자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중심으로 13

■ 천민경 ■

바로크 플루트 크로스핑거링 음정의 음색 불균질성에 대한 유동·음향
교차 분석 55

■ 김동주 ■

평생독서 확장으로서의 문학비평 활동 연구 87

■ 윤지원 · 김정원 ■

부산지역 바버숍 언어경관 연구 123

[지식과 교육]

■ 안미영 ■

중고등 교육과정의 교양 개념과 교양교육 연속성 고찰: 중등 국어 교
육과정을 중심으로 149

■ 한규은 · 오경은 ■

AI 시대의 ‘상생적 창의성’: 인간-AI 협력적 교수-학습 모델 설계 175

■ 김태진 ■

러시아어 학습자를 위한 인공지능 챗봇 학습 도구 개발 연구 제안 199

Ⅰ 이아람찬 Ⅰ

영국 리버럴아츠와 영화교육: 교양교육의 확장과 영화의 융합적 가능성
..... 225

Ⅰ 라인정 · 엄현숙 Ⅰ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사동 표현의 교수 방안 연구 245

Ⅰ 장미성 Ⅰ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읽기 기반 토론 교육의 재구성: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중심으로 271

Ⅰ 정환희 Ⅰ

대학생 대상 ‘대한민국임시정부’ 융합교양 강좌의 교육적 효과 분석
..... 299

Ⅰ 김남미 Ⅰ

교양글쓰기 수업에서의 자기결정성 강화 319

Ⅰ 정해인 · 김정민 Ⅰ

대학생의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과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 역량 향
상도 간의 관계 - S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351

Ⅰ 백낙천 Ⅰ

한글 교재로서의 『훈민정음』의 특징 385

Ⅰ 박혜준 Ⅰ

개별전공을 고려한 연극이론 교양교육의 실제와 방안 413

Ⅰ 전희정 Ⅰ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을 통해 살펴본 한국어 교사의 역할
..... 447

[지식과 사회]

■ 김명자 ■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 한국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교사
가정·환경 변인 간의 관련성 및 실태 분석: 혼합연구방법을 중심으로
..... 471

■ 한영숙 ■

고통을 마주하는 상담자들의 이야기: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의상과 성장 경험 507

■ 고희숙 · 이하랑 · 김성봉 ■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불안, 스트레스 및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 단일사례연구 533

■ 최보람 ■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 565

■ 임효남 · 김광환 · 강경희 ■

웰에이징을 위한 감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효과 연구: 포
커스 그룹 면담 분석 591

■ 김동현 ■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와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609

■ 채 진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위탁에 대한 기초 연구 633

■ 김창길 ■

학생 교복비 지원 방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
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653

Ⅰ 김유빈 · 김혜균 Ⅰ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전지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685

Ⅰ 김태연 · 남태훈 Ⅰ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 동향: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717

[지식과 과학]

Ⅰ 고유정 · 유지수 Ⅰ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미국 치위생학 연구 동향 분석: Journal of Dental Hygiene(2001-2025) 논문을 중심으로 739

Ⅰ 구재현 Ⅰ

국내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EN 규격 성능시험기준 적용성 연구: 소방펌프의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기준 중심으로 765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투고 규정 79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논문심사 규정 801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연구윤리 규정 805

❖ 교양교육혁신센터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규정 816

Knowledge and Liberal Arts

VOL 20. 2026

Liberal Arts Innovation Center, Mokwon University
DAEJEON, KOREA

TABLE OF CONTENTS

[Knowledge and Culture]

【 Lee, Jeong-Ki 】

Effects of Extracurricular University Book Clubs: Focus on Written Interviews with Book Club Participants 13

【 Chun, Min Kyeong 】

Cross-Analysis of Flow and Acousites for Timbral Non-Uniformity in Baroque Flute Cross-Fingered 55

【 Dongju, Kim 】

Literary Criticism as an Expansion of Lifelong Readings 87

【 Yoon, Ji Won · Kim, Jung won 】

A Study on the Linguistic Landscape of Barbershops in Busan 123

[Knowledge and Education]

【 Ahn, Mi Young 】

A Study on the Concept of Liberal Arts and the Continu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urricula: Focusing on the Secondary Korean Language Curriculum 149

【 Han, Kyueun · Oh, Gyung Eun 】

Synergistic Creativity in the AI Era: Designing a Human-AI Collaborative Teaching-Learning Model 175

■ Kim, Tae Jin ■

Research Proposal on Developing an AI Chatbot Learning Tool for Russian Language Learners 199

■ Lee, Aramchan ■

Liberal Arts Education and Film Studies in the UK: The Expansion of General Education and the Integrative Potential of Film 225

■ Ra, In Joung · Uhm, Hyun Sook ■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Causative Expression using Storytelling 245

■ Jang, Misung ■

A Reconstruction of Classical Text-Centered Discussion Pedagogy In College Education: Plato's *Apology* and *Crito* 271

■ Jeong, Hwanhui ■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Interdisciplinary G.E. Cours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299

■ Kim, Nammee ■

Enhancing Self-Determination in Liberal Arts Writing Courses 319

■ Hai-In Jung · Joungmin Kim ■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Co-curricular Participation Constraints,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ore Competency Development - A Case Study of S University 351

■ Baek, Nak Cheon ■

Characteristics of Hunminjeongeum as Hangeul Materials 385

■ Park, Hye Jun ■

Practice and Strategies of Theatre Theory General Education Considering Individual Majors 413

■ Chun, Hee Chung ■

US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a 'Good' Korean Teacher 447

[Knowledge and Society]

■ Kim, Myung-ja ■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 Home,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ulticultural Policy Kindergartens: Focusing on Mixed Methods 471

■ Han, Yeong Sook ■

Stories of Counselors Facing Pain: Vicarious Trauma and Growth Experiences of Long-Term Counselors for Surviv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507

■ Ko, Hee Suk · Lee, Ha Rang · Kim, Sung Bong ■

Effects of a Non-Face-to-Fac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on Anxiety, Stress, and Well-Being in an Office Worker: A Single Case Study 533

■ Choi, Boram ■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Conflict Management Styles among Paramedic Students 565

■ HyoNam Lim · Kwang-Hwan Kim · Kyung-hee Kang ■

Effects of participation i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for well-aging: A focus group interview analysis 591

■ Kim, Dong Hyun ■

Structure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Emergency Medical Systems in Industrial Sites 609

■ Chae, Jin ■

A Study on Entrusting Safety Education to a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for Multi-Use Facilities 633

■ Kim, Chang Gil ■

A Study on Perceptions of School-Uniform Subsidy Delivery Methods and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Case 653

■ Kim, Yu Been · Kim, Hye Kyun ■

The Effects of SNS Fashion Content Characteristics on Consumers' Perceived Value and Purchase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Prior Knowledge 685

■ Kim, Tae-Yeon · Nam, Tae Hun ■

Research Trend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A Review of Studies Published from 2006 to 2025 717

[Knowledge and Science]

■ Ko, You Jung · Yu, Ji Su ■

Analysis of Trends in American Dental Hygiene Research Using Text Mining: Focusing on Papers in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2001-2025) 739

■ Ku, Jae-Hyun ■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EN Performance Test Standards for Fire Pumps Used in Domestic Fire-fighting Vehicles: Focusing on Water Discharge Performance and Efficiency Test Standards 765

대학 비교과 독서모임의 효과에 관한 연구

: 독서모임 참여자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중심으로*

이 정 기**

목 차

1. 서론
2. 독서모임의 효과에 관한 논의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디지털 미디어에 의한 콘텐츠 소비에 익숙한 20대 대학생의 독서량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는 비단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물론, 최근 ‘텍스트힙(text-hip)’이라는 용어가 인기를 끌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대의 독서량이 증가했다는 논의가 존재한다. 그러나 여전히 20대의 독서량은 타 연령대에 비해 적은 편이다. 예컨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2025)의 ‘2024 독서문화 통계’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독서량은 전체 조사 연령대 중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20대의 평균 종이책 독서량은 4.3권으로 30대 6.4권, 40대 5.6권, 50대 5.7권, 60대 이

* 이 논문은 2025년도 동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2025A036)

** 이정기 동명대학교 미디어대학 광고홍보학과 부교수

상 5.0권에 비해 가장 적었다. 한편, 20대의 전자책 독서량

역시 1.4권으로 30대 1.8권, 40대 1.8권에 비해 다소 적은 편이었다. 특히 2024년 기준 20대의 21%가 종이책을, 52.9%가 전자책을 한 번도 접하지 않았다는 결과는 20대에게 독서가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활동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책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녹아 있다.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과 경험이 담긴 책을 접하는 행위는 인간의 공감 능력과 창의성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즉 독서는 문명 발전과 의미 창조의 기반이자, 지식 획득과 지혜 확장, 초인지적 사고, 교류와 교감, 설득, 창의적 직무 수행, 민주 사회 확립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¹⁾ 독서를 통해 함양되는 지식융합 능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인 소통 역량, 창의력 등을 배양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논의도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²⁾ 그러나 이와 같은 독서의 효과에 대한 논의와는 별개로 대학생들은 여전히 독서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 독서 방법에 대한 코칭을 받은 경험이 없고, 책을 읽을 구조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는 대학생들의 독서 활성화를 막는 원인이 되고 있다.³⁾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독서모임이다.

독서모임은 여럿이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책에 대해 논의하는 활동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꼭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람마다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동기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한편, 이순영 외(2024)의 연구에 따르면 독서모임 중 독서 이유는 독서모임에 참여했기 때문에(51.8%), 다른 사람과의 책

1) 노명완, 「독서의 개념과 기능」, 『새국어생활』 22권4호, 2012, 5-22쪽.

2) 이은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융합의 주체되기: 문학의 리텔링 독서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권3호, 2019, 859-886쪽, 민익식, 『위대한 나를 만드는 독서모임: 4차 산업혁명세상』, 행복에너지, 2022, “[교육이 미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과 질문 능력 키우는 독서교육은 필수.”, <중앙일보>, 2021.07.28., “모범 답안이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찰력’이 경쟁력이다.” <한경잡앤조이>, 2017.08.16

3) 권이은, 「대학생의 독서 실태와 인식 조사」, 『국어교육학연구』 56권 3호, 2021, 5-34쪽.

대화가 즐거워서(41.4%), 독서에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3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모임에 참여하는 과정 자체에서 독서에 관심이 유발될 수 있고, 책을 읽게 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독서모임 참여는 독서를 증진을 강력하게 이끌어내며, 독서모임 참여자는 독서모임 종료 후에도 독자 전환 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독서량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대학생 대상의 독서모임 참여가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해 보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부산 지역 4년제 대학 사회과학 계열 학과의 순수 비교과 독서모임으로 4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서삼독’ 참여자들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독서모임의 효과를 다각도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독서모임 참여자 11명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수행함으로써 독서모임이 어떠한 맥락에서 독서량의 증진과 독서에 대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나아가 독서모임 참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소통 역량, 공감 역량, 비판적 사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대학 비교과 독서모임의 효용성과 발전 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가 대학 비교과 독서모임 활성화, 궁극적으로 대학 내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2. 독서모임의 개념과 효과에 관한 논의

1) 4차 산업혁명 시대, ‘독서’의 의미

독서는 다양한 유형의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고, 독서모임은 “주기적으로 만나서 읽은 책을 주제로 토론하고, 관련된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한다.⁵⁾ 출판사인 민음사(2018)의 ‘함께

4) 이순영 외, 『비독자대상 독서 유인사업 설계 및 실험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하는 독서 모임 가이드북'에 따르면 독서모임은 모임의 주체, 독서의 방식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모임의 주체에 따른 유형은 새로운 사람과의 모임, 익숙한 사람과의 모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독서 방식에 따른 유형은 지정 독서모임(같은 책을 읽는 모임)과 자유 독서모임(서로 다른 책을 읽는 모임)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독서모임은 책 정리 페이지 만들기, 토론용 질문 만들기, 질문(소감 공유 등)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책읽는 사회문화재단 산하의 '독서동아리지원센터(2025)'는 독서모임을 통해 “혼자 읽기와 달리 책에 빚대어 나누는 각자의 경험, 더 풍성한 책에 대한 해석, 새로운 장르의 책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독서모임의 능동적인 독서와 토론이 “시민의 역량을 키우는 사회적 독서 활동”이라는 점에서 그 강점을 찾고 있다. 사회적 독서 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독서모임의 방식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독서모임 참여자는 선택된 책을 비판적으로 읽고 토론 거리를 글로 정리하며, 책 내용을 구성원들과 공유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때로는 다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한편, 독서모임 과정을 통한 경험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과 맥락을 같이한다. 흔히 4C/6C 역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으로 일컬어진다. 여기에서 4C/6C는 의사소통과 협력(Communication & Collaboration), 비판적 사고(Critical Thinking), 공감(Compassion), 융합적 창의성(Convergence & Creativity)으로 정리할 수 있다.⁶⁾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역량을 창의성, 협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으로 정리한 김구종, 노아영, 고유진, 송영수(2022)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한다.⁷⁾ 주목할 만한 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

5) 김지영·이지연,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험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권1호, 2023, 25쪽.

6) 홍석민,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의 개혁 필요성」, 『교양교육연구』 16권2호, 2022, 65-79.

량의 상당 부분이 독서모임 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배양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실제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필수 역량인 지식융합 능력이 감성적 소통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므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함양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⁸⁾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찰력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인문학 독서라는 논의⁹⁾,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인재의 요건인 창의성, 사회성, 의사소통 능력 등을 배양하는 데 독서가 효과적일 수 있다는 논의¹⁰⁾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독서모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역량인 문제해결 역량과 질문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수적이며¹¹⁾, 4차 산업혁명 대응 능력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논의¹²⁾도 존재한다. 이는 디지털 변혁,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아날로그식 독서와 독서모임이 여전히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독서모임의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및 한계

독서모임의 효과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몇몇 연구 결과는 독서모임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독서모임은 참여자의 독서량과 독서흥미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독서모임 참여가 독서에 대한 흥미 유발을 통해 지속적 독자로 유지시킬 가능성을 높

7) 김구종·노아영·고유진·송영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 규명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학계와 산업계 구분에 따른 역량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29권4호, 2022, 1-22쪽.

8) 이은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융합의 주체되기: 문학의 리텔링 독서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권3호, 2019, 859-886쪽.

9) “모범 답안이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찰력’이 경쟁력이다.”, <한경잡앤조이>, 2017.08.16

10)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의 요건, ‘책 속에 답이 있다’: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 독서법’ 김민아 교사가 전하는 독서의 중요성.”, <에듀동아>, 2018.09.17.

11) “[교육이 미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과 질문 능력 키우는 독서교육은 필수.”, <중앙일보>, 2021.07.28.

12) 민익식, 『위대한 나를 만드는 독서모임: 4차 산업혁명세상』, 행복에너지, 2022.

인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순영 외(2014)의 연구에 의하면 독서모임 참여자의 94.9%가 독서모임 이후에 독서량이 증가했고, 독서에 대한 흥미도도 증가했다.¹³⁾ 또한 이순영과 김주환(2025)의 연구에 의하면 시니어 비독자 대상 독서모임은 기본적 독서율 제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⁴⁾, 김지영과 윤수진(2024)의 연구에서도 독서모임은 참여자의 독서습관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⁵⁾ 또한 초등학생 대상 연구에서도 독서모임은 학생들의 독서 능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이상의 결과는 독서모임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독서습관을 길러주는 효과를 가지며, 결과적으로 독서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둘째, 독서모임은 커뮤니케이션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서모임은 책에 대한 이해, 듣기, 말하기와 같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따라서 소통능력(내용 파악, 발표 경청, 의견 표현 등) 증진에 효과적이다¹⁷⁾. 이러한 결과는 독서모임이 참여자의 의사소통 능력 증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¹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독서모임 참여가 참여자의 토론 능력 증진에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¹⁹⁾도 존재한다. 이상의 결과는 독서모임이 참여자들

13) 이순영 외, 『비독자대상 독서 유인사업 설계 및 실험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14) 이순영·김주환, 「시니어 비독자 대상 독서모임 운영의 효과 연구: '전문가 운영 모임'과 '자율 운영 모임'의 결과 비교」, 『리터러시 연구』 16권3호, 2025, 315-344쪽.

15) 김지영·윤수진, 「중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그림책 치료, 독서습관 형성 및 세대교류 경험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권4호, 2024, 211-240쪽.

16) Petrich, N. R. "Book Clubs: Conversations Inspiring Community", I.e. : inquiry in education, vol.7 no.1, 2015, pp.1-13.

17) 안인자·윤석윤, 「독서토론 프로그램 효과성 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권1호, 2021, 377-398쪽.

18) 양성인, 「기술직 공무원 대상 소집단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의사소통능력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19) Petrich, N. R. "Book Clubs: Conversations Inspiring Community", I.e. : inquiry in education, vol.7 no.1, 2015, pp.1-13.

로 하여금 커뮤니케이션 역량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셋째, 독서모임은 공감 능력, 다양성 인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독서모임 경험은 참여자가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삶에 대한 경험을 얻고, 세상에 대한 이해를 얻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또한 대학생과 노년층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모임은 세대 간의 이해, 상호 이해 증진과 편견 감소 등을 이끌어 낸다는 연구 결과²¹⁾, 독서모임이 참여자의 지속적 협력과 존중 기반의 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²²⁾ 독서모임이 혼자가 아니라는 유대감, 자신에 대한 성찰, 다양한 시각을 통한 관점의 확장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²³⁾도 존재한다. 이상의 결과는 독서모임이 참여자들이 타인에 대해 공감하고, 삶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넷째, 독서모임은 비판적 사고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예컨대 북클럽 참여가 대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능력 개발에 효과적이라는 연구²⁴⁾, 독서토론 활동이 유아의 언어 이해력과 비판적 사고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존재한다.²⁵⁾ 또한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참여가 관심 분야의 다양성 확보와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증진에 기여한다는 연구²⁶⁾, 대학생 시기 독서교육이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

20) Banas, J. R, Valley, J. A, Chaudhri, A, & Gershon, S. "The Psychosocial Benefits of Biblioguidance Book Clubs". J Sch Health, vol.94 no.7, 2024, pp.619-630.

21) Vandergriff, C., Neils-Strunjas, J., Plummer, J., & Nguyen, K. "Impact of an Intergenerational Book Club on Cross-Generational Attitudes: A Mixed-Methods Study".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2024, pp.1-18.

22) Petrich, N. R. "Book Clubs: Conversations Inspiring Community", I.e. : inquiry in education, vol.7 no.1, 2015, pp.1-13.

23) 윤수진·김영순, 「성인 독서모임 구성원의 자기치유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6(1), 2023, 59-88쪽.

24) Rusiana, R et al. "Book Clubs as a Pedagogical Tool for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Evidence from an English Education Program in Indonesia", Indonesian Journal on Learning and Advanced Education, vol.6 no.3, 2024, pp.350-364.

25) 위유미, 「독서 토론 활동이 유아의 언어 이해력 및 비판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구²⁷⁾는 독서모임이 참여자들의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독서모임과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회적 독서활동을 핵심으로 하는 독서모임은 기본적으로 독서가 전제가 된다는 측면에서 독서에 대한 관심 증가와 독서량의 증가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독서모임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사회적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증진,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과 다양성 인식의 증진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독서모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필수 역량을 배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한다. 다만, 앞서 제시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가 아니며, 순수 비교과의 형태로 진행된 자발적 독서모임에 대한 결과도 아니며, 독서모임의 효과를 대체로 단편적으로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4년 이상 순수 비교과 형태로 진행된 대학 내 독서모임의 효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이라는 다양한 틀 속에서 분석함으로써 20대 대학생 대상 독서모임의 효과를 다각도로 살펴본 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연구문제 1. 독서모임 참여 전후 참여자들의 독서량, 독서에 대한 인식 (다양성 인식, 중요성 인식)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독서모임 참여 후 참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역량, 공감 역량, 비판 적 사고 역량, 문제해결 역량에는 변화가 있었는가?
변화의 이유는 무엇인가?

26) 신선주, 「중년기 여성의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27) 서기자, 「대학 독서교육이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연구』 45권3호, 2013, 219-238쪽.

3. 연구 방법

1) 독서모임 서삼독의 특징

부산 지역 모 대학 사회과학 계열 학과에서 운영 중인 독서모임 서삼독은 독서와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가진 학과 구성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임이다. 서삼독은 2021년 11월, 대학 전공 글쓰기 수업을 수강 중이었던 한 학생이 독서모임을 제안하고, 7명의 학생과 2명의 교수가 뜻을 같이하면서 시작됐다. 2명의 교수는 모임을 주도하지 않고, 독서모임의 평회원으로만 참여한다.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당시에 학습하고 있던 사회과학 글쓰기 역량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 역량과 창의성, 다양성과 같은 역량 배양에 독서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 아래 모임을 진행했다. 독서모임 서삼독은 매월 1회, 2-3시간씩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즉 구성원들은 매년 12권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경험을 하고 있다.

2025년 12월 현재 50회째 모임이 진행됐다. 50회 모임 동안 읽은 책은 50권이고, 책의 저자를 초청하는 방식의 북 콘서트도 1회 개최했다. 이 모임에서 읽을 책은 구성원들이 직접 선정한다. 그리고 책을 추천한 사람이 독서 토론의 주제를 정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호스트 역할을 담당한다. 읽을 책은 최소 1달 전에 공지되고, 토론 주제는 최소 1주 전에 공유된다. 구성원들이 추천한 모든 책에 대한 토론이 마무리되면, 다시 각자 읽을 책을 추천하고, 토론을 진행하는 시즌제 방식으로 모임이 운영된다. 새 시즌에 맞춰 새로운 회원이 영입되기도 한다. 사회과학, 철학,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책들을 읽고, 저자의 세상과 독자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자유롭게 토론해 나가는 것이 이 모임의 콘셉트이다. 이 모임은 자발적 독서모임으로 회원들이 내야 할 회비는 없다. 다만 구성원들은 자신이 읽을 책을 구매하거나 도서관에서 대여한 후 모임에 참여해야 한다. 학과 내 독서모임이지만 학과에서는 참여자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2025년 12월 현재, 독서모임의 회원은 7명이다. 지금까지 15명의 회원이

활동했고, 최대 10명, 최소 6명의 회원이 꾸준히 활동 중이다. 민음사 (2018)의 ‘함께하는 독서 모임 가이드북’ 분류 기준에 따르면, 독서모임 서삼독은 익숙한 사람과의 독서모임이면서 지정 독서모임의 성격을 가진다.

2) 연구 대상

D대학 사회과학 계열 독서모임 서삼독에는 2025년 12월 현재, 7명이 활동 중이다. 이 모임에는 지금까지 15명의 회원이 함께했고, 매 시즌 최대 11명, 최소 6명의 회원이 꾸준히 활동했다. 이 연구에 참여한 11명의 회원은 최소 2년 이상 활동을 해 온 사람이다. 2025년 12월 현재 활동 중인 7명 전원과 휴학 중인 회원 2명, 졸업생 2명이 2025년 11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면 인터뷰의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응답자 중 남성은 2명(18.18%), 여성은 9명(81.81%)이었고, 20대는 9명(81.81%)이고, 40대는 2명(18.18%)이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6.73세(SD=7.44)였다. 응답자가 독서모임에 참여한 기간 평균은 30.91개월(SD=10.74)이었고, 평균 22권(SD=13.22)의 도서에 대한 모임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연 평균 독서량은 11.55권(SD=6.77)이었다.

[표 1]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특성	구분	응답자 특성
1. 노00	남, 4학년, 활동 약 4년	6. 이00	여, 4학년(휴), 활동 약 2년
2. 손00	여, 3학년, 활동 약 3년	7. 노00	여, 3학년(휴), 활동 약 2년
3. 이00	여, 4학년, 활동 약 3년	8. 고00	여, 활동 약 3년(졸)
4. 이00	남, 교수, 활동 약 4년	9. 김00	여, 활동 약 3년(졸)
5. 황00	여, 교수, 활동 약 4년	10. 박00	여, 활동 약 2년(졸)
		11. 마00	여, 활동 약 2년(졸)

* 졸: 졸업생, 휴: 휴학생.

3) 인터뷰 방법 및 분석 방법

이 연구는 2년 이상 독서모임에 참여한 대학 독서모임 참여자 11명을 대상으로 서면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서면 인터뷰는 독서모임 참여

후의 변화를 양적으로 측정된 후 그렇게 응답한 이유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연구자는 서면 인터뷰 참여자들로 하여금 독서 모임에 참여한 이후 1) 독서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 독서량 증가, 2)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역량, 3) 공감, 다양성 인식, 4) 비판적 사고 역량, 5) 문제해결 역량의 변화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게 했다. 이후 SPSS 21.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paired samples t-test)을 수행함으로써 독서모임 전후의 효과를 확인했다. 독서모임 참여자들이 설문 조사에 응답한 이후, 그러한 변화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 질적으로 서술하도록 응답하게 했다. 질적 자료의 분석은 선행연구²⁸⁾의 연구에 근거하여 서면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질적 자료를 읽고, 유사 응답을 중심으로 자료를 재분류 후 응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함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4. 연구 결과

1) 독서모임 참여 전후 독서량, 독서에 대한 인식 변화

독서모임 참여 전후 독서량, 독서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검정을 수행했다. 그 결과 독서모임 참여 전($M=2.73$, $SD=.90$)과 참여 후($M=4.27$, $SD=.64$)의 독서량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5.49$, $p<.001$). 그리고 독서모임 참여 전($M=2.00$, $SD=.63$)과 참여 후($M=4.73$, $SD=.47$)의 독서의 다양성 인식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3.99$, $p<.001$). 또한 독서모임 참여 전($M=3.82$, $SD=.60$)과 참여 후($M=4.91$, $SD=.30$)의 독서의 중요성 인식

28) 이정기·김정기·김동규, 「지역신문 지원 평가에 따른 지역신문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지역신문 종사자들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6호, 2013, 386-416쪽, 이정기, 「관학협력형 리빙랩 수업(배리어 프리 환경 기획 수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배리어 프리 이해도, 소수자 인권 문제 이해도, 문제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2권3호, 2024, 441-464쪽.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5.16, p<.001$). 이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게 된 후 참여자들의 독서량이 증가했고, 독서 진행 과정에서의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독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음을 보여준다.

[표 2] 독서모임 참여 전후 독서량, 독서에 대한 인식

구분		<i>M(SD)</i>	<i>t</i>	<i>df</i>	<i>p</i>
독서량	모임 참여 전	2.73(.90)	-5.487	10	< .001
	모임 참여 후	4.27(.64)			
독서 다양성	모임 참여 전	2.00(.63)	-13.988	10	< .001
	모임 참여 후	4.73(.47)			
독서 중요성	모임 참여 전	3.82(.60)	-5.164	10	< .001
	모임 참여 후	4.91(.30)			

독서모임 참여 전후 독서량과 독서의 인식 변화는 독서모임 참여가 단순히 독서량의 변화를 넘어 ‘독서에 대한 실천적 동기’의 재편에 영향을 주었음을 의미한다.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독서모임 참여 과정을 통해 ‘타율적 강제성(외부적 약속에 의한 독서)’이 ‘자율적 열망(능동적 필요성에 의한 독서)’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경험하며 독서가 생활화됐다고 말했다. 예컨대 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후 사라진 마음의 여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소 강제성이 있는 독서모임을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2는 “바빠서 여유가 사라진 상황이었지만, 사람들과 한 달에 한 권이라는 약속을 함으로써 독서를 놓지 않을 수 있었다”며 외부적 약속이 개인적 상황을 넘어 독서를 지속시키는 핵심 동력이었음을 진술했고, 참여자 3은 이를 “약속의 힘”이라 명명하며 “혼자라면 덮었을 책도 모임 날짜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읽으며 완독하는 사람으로 변화했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자 8은 21개월간의 정기적인 모임이 독서 패턴을 생활화하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되었음을 언급했고, 참여자 10은 “목적 없이 ‘읽어야지’라고 생각하던 때와 달리 정해진 날짜에 함께 토론한다는 목표가 생기니 틈새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내는 대신 오디오북이나 종이책을 활용해 훨씬 능동적으로 읽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독서모임은 독서의 다양성 측면에서 ‘독서 편식’의 해소와 ‘지식 습득의 다양성’ 증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참여자 6은 “특정 장르에 치우친 편식 독서를 하다가 사회과학, 인문학, 시집 등 평소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분야를 읽으며 독서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고 밝혔다. 타인의 추천이라는 ‘타율적 제안’이 새로운 독서 취향을 발견하는 창구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참여자 11은 “무서운 영화를 싫어해 스릴러 장르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으나, 모임을 계기로 해당 장르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나 스스로를 한정 짓지 않게 된 도전 의식의 확장을 경험했다”고 진술했으며, 참여자 5는 “필요에 의한 전공 서적 위주에서 벗어나 장편소설, 에세이, 그림책 등 광범위한 주제를 접하며 개인의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즉, 응답자들은 “취향 밖의 책을 소화하는 힘이 생기자, 편식을 멈추고 다양한 세계를 탐독하게 되는 힘이 생겼다(참여자 3)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독서모임을 통한 독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게 만들어 주는 창구가 되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4는 “독서가 내 생각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으며, 특히 참여자들의 다양한 해석을 통해 책이 줄 수 있는 공감과 다양성의 가치를 체감했다”고 기술했고, 참여자 3은 “독서는 단순한 교양 쌓기가 아니라 텍스트를 통해 훈련된 논리가 말과 행동을 정돈시키고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확실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으며, 참여자 11은 책을 “같이 읽으며 나누는 경험을 통해 독서가 주는 관점과 사고력의 확장을 실감 나게 경험하며 독서의 중요성을 더 깊이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자 2는 “토론 과정을 거치며 자신이 편협한 시야를 가졌음을 알게 되었고, 나 자신이 가진 확증편향을 스스로 인지하게 된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성찰하며 독서가 자아를 성찰할 수 있게 하는 거울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서삼독이라는 독서모임을 통한 외부 약속이 개인적인 상황을 넘어 독서를 지속하는 데에 확연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서삼독에 참여하고 각자가 선정한 한 권의 책을 읽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생소하거나 어려운 장르도 포기하지 않고 읽게 되었다. 나 혼자만의 약속이 아니고 책을 선정하고 모임을 준비하는 호스트에게 예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어려운 책을 읽게 되더라도 한 달이라는 여유 시간을 가지고 책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를 할 수 있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2-

저는 특정 책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해석과 생각을 듣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책이 줄 수 있는 공감과 다양성의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미디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책을 접하는 수용자마다의 가치관과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책이 생각보다 사람들의 성장에 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4-

평소라면 선택하지 않았을 책들을 읽으며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독서의 폭이 크게 넓어졌습니다... 함께 읽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책의 의미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듣고 나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독서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 사고를 확장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6-

정기적인 모임 일정과 토론 준비가 독서를 기다리게 했습니다... 서삼독은 제가 독서를 더 자주, 그리고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중요한 계기였습니다... 더 나아가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검증하는 경험은 제 내면을 다듬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고, 지금은 독서를 삶의 방향과 자신의 성장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8-

서삼독을 시작하면서 독서에 대한 관점이 달라졌다. 혼자 읽고 생각하는 것에만 머물렀던 이전에 비해 다른 사람과 생각을 나누면서 같은 책을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과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꼈다. 내 의견을 설명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타인의 관점을 듣고 받아들이는 경험은 유익했다. 이렇게 타인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모호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내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이 명확해졌으며,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면서 나의 자아가 더욱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다. -10-

새로운 이야기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서로 다른 의견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책을 읽고 각자의 해석을 공유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독서가 단순히 개인의 사고력 확장에만 기여하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11-

2) 독서모임과 커뮤니케이션 역량의 관련성

독서모임 참여 후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확인했다. 5점 척도(1: 전혀 변화 없음, 5: 매우 큰 변화)를 기준으로 역량 변화 정

도를 확인한 결과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토론 역량($M=4.64$, $SD=.50$), 타인 의견 경청 역량($M=4.36$, $SD=.50$)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 표현 역량($M=4.27$, $SD=.65$), 내용 요약, 정리 역량($M=4.27$, $SD=.79$)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표 3] 독서모임 참여 후 커뮤니케이션 역량 변화

구분	<i>M(SD)</i>	부정	보통	긍정
타인 의견 경청 역량	4.36(.50)	-	-	11(100%)
자신 의견 표현 역량	4.27(.65)	-	1(9.1%)	10(90.9%)
토론 역량	4.64(.50)	-	-	11(100%)
내용 요약, 정리 역량	4.27(.79)	-	2(18.2%)	9(81.8%)

구체적으로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을 통해 ‘수용적 경청’과 ‘단순한 공감의 표명’에서 ‘타인 의견의 이해’와 ‘타인 의견의 능동적 수용’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1은 모임 초기에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않거나 이해되지 않는 타인의 말에 형식적으로 공감하며 넘어가던 참여자들은 모임이 거듭되며 타인에 대해 마음을 열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갔다고 말했고, 참여자 2는 일상에서 마주하기 힘든 다양한 가치관을 대면하며 “확증편향을 인지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게” 되었는데, 이는 온라인상의 휘발성 강한 의견과 달리 “정말 한 사람이 지닌 가치관”으로 타인의 생각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참여자 8은 독서모임 중 서로 다른 해석과 반응을 나누는 과정에서 상대의 의견이 자신의 의견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차분히 비교하는 태도를 배우게 됐다고 말했고, 유사한 맥락에서 참여자 7은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며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으로써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나아가 참여자 11은 “상대방의 예상치 못한 관점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과정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토론하게 된 경험은 커뮤니케

이선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과 토론 훈련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2는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더라도 절대 서로를 틀렸다가거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임 분위기 속”에서 발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주장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참여자 3과 4는 직접 도서를 선정하고 발제하는 ‘호스트’ 경험은 “말하기 실전 훈련”의 장이 되어, 긴장감을 극복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리 있게 의견을 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차이를 인지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해 “주어와 서술어를 명확히 하거나 비유를 활용해 생각을 구조화”하는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습득하게 되었다는 의견(참여자 10), 이러한 역량이 실제 취업 면접과 같은 공적인 상황에서도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참여자 8). 또한 텍스트를 심층적으로 파악, 요약, 정리하고, 논리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리터러시 역량의 증진을 경험하게 됐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호스트로서 토론 질문을 만들기 위해 책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며 핵심 쟁점을 짚어내는 과정(참여자 2, 9),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짜임새 있게 준비하는 과정(참여자 11)에서 자연스럽게 리터러시 역량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예컨대 초기에는 자료 구성에 4~5시간이 걸렸으나 현재는 1~2시간이면 충분하게 됐다는 사례(참여자 4)는 독서모임이 정보의 선별과 구조화 능력의 숙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참여자(참여자 5, 7)는 단순히 작품을 감상하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달하기 위해 답변을 정리하고 고민하는 활동 과정에서 소통 역량의 증진을 경험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결론적으로 독서모임은 텍스트를 매개로 경청과 표현, 요약과 정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역량 강화의 장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자들은 혼자 읽을 때의 평면적 수용에서 벗어나, 타인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자신의 생각을 정교화하고 타인의 관점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러한 학습의 경험은 개인의 내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통 역량의 향상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내 의견이 남들과 다른 의견이면 말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독서모임을 계속하면서 차차 변했습니다. 타인에 대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진정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타인의 관점과 내 관점을 비교하여 새로운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 의견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르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1-

확증편향을 인지하고 나와 다른 의견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서삼독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듣고 드는 의문점을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고민해 봐도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내가 가진 의견을 피력하며 다시 되물어 보았다. 그 과정에서 타인이 가진 또 다른 주장을 들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주고받더라도 절대 서로를 틀렸다고나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모임 분위기 덕분에 표현하는 일에 두려움도 줄일 수 있었다. 모임을 수차례하며 나의 주장을 구체화하는 큰 연습이 되었다. -2-

가장 크게 변한 것은 말하기 능력입니다. 처음에는 친한 사이임에도 토론 자리에서는 유독 긴장하곤 했습니다. 머릿속 생각이 정리되지 않아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변화는 제가 추천한 책이 선정되어 호스트를 맡으며 시작되었습니다. 직접 발제하고 모임을 이끄는 과정 자체가 실전 훈련이었습니다. 덕분에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3-

원래 책이나 영화, 드라마 등 작품을 읽거나 감상해도 내가 혼자 느끼거나 인터넷으로 감상평 같은 걸 찾는 것에 그쳤습니다. 내 느낌이나 감상평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임 전에 미리 질문들을 받을 수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어서도 좋았습니다.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커뮤니케이션 능력, 특히 내 느낌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느는 것도 느껴집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5-

서삼독에 참여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하는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비판적 사고를 기를 수 있었고 나의 생각이 어떠한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타인의 생각을 경청하며 나의 생각과는 다른 생각을 받아들임으로써 생각의 폭이 넓어진 것 같다. -7-

서삼독에서는 한 권의 책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과 반응을 나누다 보니, 타인의 의견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는 경청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을 구조화해 말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정리하고,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생길 때도 있었지만, 그럴수록 상대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질문했고, 내 의견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차분하게 비교하는 태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최근 취업을 준비하면서 면접이나 토

론 면접 상황에서 서삼독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8-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제가 읽은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하고 핵심과 저의 주장을 요약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줄거리를 요약하는 것을 넘어, 토론 쟁점에 대해 내가 왜 이런 해석을 하고 주장을 하는지 그 근거와 내용에 대해 짜임새 있게 정리해보는 역량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준비한 것을 토론을 통해 이야기로 풀어내며, 제 주장을 타인이 이해하고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하는 표현 능력에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삼독에서는 ‘이번 책에서는 또 어떤 예상치 못한 관점이 있을까?’를 미리 상상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 더 집중하고 기대하는 설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경청하는 다른 모임원 분들의 태도를 보며 제가 갖추지 못한 존중과 경청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11-

3) 독서모임과 공감 능력, 창의성 관련성

독서모임 참여 후 공감과 이해 역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5점 척도(1: 전혀 변화 없음, 5: 매우 많이 증가)로 측정했다. 그 결과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세대 간 이해 능력($M=4.82$, $SD=.40$), 세상의 다양성 이해 능력($M=4.55$, $SD=.52$), 다양한 관점 이해 능력($M=4.54$, $SD=.52$)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참여자(10명, 91.9%)들은 타인 관점 공감, 존중 능력($M=4.55$, $SD=.68$)이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이상의 결과는 독서모임이 텍스트 읽기를 넘어, 서로 다른 생애주기와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사회적 공감’의 장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독서모임 참여 후 공감 능력의 변화

구분	M(SD)	부정	보통	긍정
타인 관점 공감, 존중 능력	4.55(.68)	-	1(9.1%)	10(90.9%)
다양한 관점 이해 능력	4.54(.52)	-	-	11(100%)
세대 간 이해 능력	4.82(.40)	-	-	11(100%)
다양성 이해 능력	4.55(.52)	-	-	11(100%)

구체적으로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을 통해 ‘흑백논리의 해체’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독서모임이 “같은 책을 읽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런 차이를 나누고 논의하며 존중하

는 분위기”에서 진행됐고(참여자 10), 이에 “옳고 그름보다는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열린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펼치는 연습”을 하는 과정(참여자 11)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예컨대, 참여자 3은 과거 세상을 흑과 백, 혹은 선과 악으로 나누던 편견에서 벗어나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배웠다고 말했다. 이는 독서모임을 통해 “내가 생각하고 느꼈던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의견(참여자 9), 정치적 이슈와 같이 민감한 주제에서 “나와 다른 의견은 틀린 것”이라 단정하던 태도가 각자의 위치와 입장에 따라 선악이 변할 수 있다는 유연한 사고로 전환되었다는 의견(참여자 2) 등도 제시됐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나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느끼던 정서적 피로도를 줄여주거나(참여자 2), 자신과 타인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해하게 하는 즐거움을 인식하는 단계(참여자 1)로 연결되게 했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다름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참여자 11),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참여자 10)로 이어지게 되기도 했다.

또한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세대의 경계를 허무는 ‘수평적 소통’을 경험했고, 수평적 소통에 기반한 맥락적 공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40대 교수와 20대 학생이 수평적인 입장에서 함께 참여하는 독서모임의 특성은 세대 간 갈등을 배경적 이해로 승화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기성세대 참여자들은 학생들의 “상상할 수 없는 유연한 사고”(참여자 4)를 보며 자신의 보수성을 성찰하고 배움의 자세를 취했으며(참여자 5), 학생들은 교수자를 권위적 존재가 아닌 “동일한 사회 구성원”(참여자 10)으로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공감의 질적 변화로 이어져, 상대방의 발언을 개별적 감정으로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처한 “시대적·사회적 맥락까지 함께 고려하는 깊이 있는 공감”(참여자 8)으로 진화했다. 즉, 독서모임은 세대 차이를 ‘갈등’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이해’로 전환하는 수평적인 공론의 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서모임 참여는 다양한 관점의 충돌과 융합을 통해 ‘창의적 유연

성’을 확장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참여자들은 관심사가 다른 구성원들이 제안한 다양한 장르의 텍스트를 읽으며, 사고와 관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특히 같은 텍스트에 대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석”(참여자 4)을 접할 때 느끼는 지적 충격은 기존의 경직된 사고를 깨뜨리는 창의적 자극(참여자 7)이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나의 질문에 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과 논의를 이어가는 과정은 입체적인 사고를 구조화하는 ‘창의적 훈련’의 기회가 됐다. 예컨대 “내가 생각한 것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참여자 9)은 타인의 삶을 빌려 세상을 바라보는 다각적인 시야를 제공하며 사고의 창의적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결론적으로 독서모임은 참여자들에게 ‘타인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보는 다양한 방법’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참여자들은 “사람은 태어난 환경과 관계가 모두 다르기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명제를 현장에서 직접 체득했다(참여자 10). 이는 독서모임을 통한 다양성 존중과 세대 간의 접점 확장이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모임은 그 좁은 시야를 깨주었습니다. 다양한 나이와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하며,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닐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못한 타인의 삶을 책과 사람을 통해 간접 경험하며, 나와 다름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3-

서삼독 참여는 저에게 배움에 대한 의지를 다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보다 서삼독 구성원들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고 놀랄 때도 많았습니다. 서삼독 구성원들이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저보다 책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갖추고 있어서 놀라곤 합니다. 40대인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책과 저자를 해석하는 과정을 보면서 학생들이 가진 유연한 사고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서삼독에 참여하면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많은데요. 요즘 20대들의 자신과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됩니다. -4-

서삼독 참여자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생각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도 많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이런 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고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교수님과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모임이다 보니 세대와 경험의 차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

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다른 세대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전공이나 관심사가 다른 사람들이 추천한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다양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6-

서삼독에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책을 읽고,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토론을 나누다 보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영향으로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세대적 맥락까지 함께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지점을 책을 매개로 이야기하면서, 세대 차이를 단순한 갈등으로 보지 않고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갖질 수 있었습니다. -8-

나와 다른 관점·생각·연령을 지닌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같은 책을 읽었더라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런 차이를 나누고 논의하며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태도가 생겼다... 교육자로만 알았던 교수님을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학생들과의 입장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지 고민하는 계기도 되었다. -10-

같은 책과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오는 과정을 보며, 생각의 차이나 틀림이 아닌, 다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임에서는 모든 참여자가 선배나 후배 등으로 나뉘지 않고 동일한 모임원의 자격으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옳고 그름보다는 서로 다른 시각에 대한 열린 마음과 넓은 시각으로 의견을 받아들이고 펼치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상치 못한 해석이 있더라도, 서로 그 의견과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

또한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참여 후 관점의 확장 경험($M=4.82$, $SD=.40$)을 경험했다고 응답했고, 대부분의 참여자(10명, 91.9%)들은 창의적 사고 역량의 증진($M=4.73$, $SD=.65$)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독서모임이 텍스트의 입체적인 재구성, 낯선 정보 결합을 통한 창의적 유연성 확장, 성찰적 사고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독서모임 참여 후 창의력의 변화

구분	$M(SD)$	부정	보통	긍정
관점의 확장 경험	4.82(.40)	-	-	11(100%)
창의적 사고 역량 증진	4.73(.65)	-	1(9.1%)	10(91.9%)

먼저, 독서모임은 텍스트의 입체적 재구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혼자 읽을 때의 평면적 해석이 타인의 시선과 만날 때 비

로소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3은 “혼자 읽을 땐 납작했던 텍스트가 토론을 거치며 입체적으로 변했다”며, “타인의 시선이 더해져야 비로소 독서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험은 구체적인 사례로도 확인된다. 참여자 2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읽으며 “나의 관점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등장인물도 타인의 관점에서는 우호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하나의 텍스트를 두고 벌어지는 다채로운 해석이 “하나의 문제를 여러 방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증언했다. 아울러 독서모임 참여자들이 “한 사건을 최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참여자 1)하게 되었고, 일상적인 뉴스나 사건을 대할 때도 “최소한 두세 가지의 관점에서 다시 보려는”(참여자 8) 인지적 습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위한 기본 역량을 함양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이질적이고 낮은 정보의 결합을 통해 ‘창의적 유연성’이 확장되는 경험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창의성을 무(無)에서 유(有)를 만드는 능력이 아닌, “이미 있는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힘”(참여자 3) 혹은 “기존의 생각이나 관점을 조합하는 과정”(참여자 4)으로 정의하고 있었는데,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이 연결의 다양한 재료를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 1은 “평소였다면 읽지 않았을, 나와 완전히 관계없는 책을 읽으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과정이 자연스레 창의적 사고를 키운다”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적 자극은 일부 참여자의 삶의 현장에서 불현듯 나타나기도 했다. 예컨대, 참여자 8은 “심리학 관련 책을 읽고 난 뒤 친구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이론을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보거나, 마케팅 수업에서 이를 활용한 구조를 짜보기도 했다”며 책의 지식을 삶과 연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고 증언했다.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참여자 4 역시 “독서를 통해 얻는 아이디어를 논문이나 책에 적용하거나 강의 현장에 접목”하는 등 실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독서모임 참여는 능동적 사유를 자극하는 성찰적 태도 함양에도 도움이 됐다. 구체적으로 독서모임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수용하던 태도를 능동적으로 변화시켰다. 예컨대, 참여자 2는 박웅현의 『책은 도끼다』를 읽으며 “사소한 모든 것을 곱씹어보고, 기록하고 필사하는 행위가 창의성을 키우는 가장 중요한 역량”임을 깨달았고, 다른 모임원들의 독서기록 방식을 보며 “나만의 기록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고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또한 참여자 11은 호스트로서 질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막연하게 느끼고 있던 부분을 글이나 말을 통해 정리하면서 놓치고 있던 점들을 깨닫고 더 넓게 해석할 수 있었다”며, 발제와 토론 준비 과정 자체가 고도의 창의적 사고 훈련일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게 했다.

결론적으로 독서모임은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융합해 삶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도구’이다. 참여자 4의 언급처럼 “20대와 40대, 한국인과 외국인, 미혼자와 기혼자”라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의견을 나누는 경험”은 개인의 시각을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로 확장하는 촉매가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관점의 확장은 참여자들에게 “나와는 조금 다른 타인의 의견이 내 생각을 보완하여 세상을 보는 시각을 넓혀준다”(참여자 4)는 확신을 주며, 복잡한 사회 문제를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었다.

4) 독서모임과 비판적 사고 능력의 관련성

독서모임 참여 후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5점 척도(1: 전혀 변화 없음, 5: 매우 많이 높아짐)로 측정했다.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독서모임 참여 후 비판적 사고 능력($M=4.64$, $SD=.50$), 사회 문제 관심 증진($M=4.55$, $SD=.52$)을 경험했다고 평가했다.

[표 6] 독서모임 참여 후 비판적 사고 능력 변화

구분	M(SD)	부정	보통	긍정
사회 문제 관심 증진	4.55(.52)	-	-	11(100%)
비판적 사고 능력 증진	4.64(.50)	-	-	11(100%)

독서모임 참여는 ‘나’의 세계에서 ‘공동체’로의 인지적 확장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을 통해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국한되었던 시야를 사회 구조적 문제로 확장하는 경험을 했다. 예컨대 참여자 3은 “과거에는 내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반응했으나, 모임을 통해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인의 삶이나 구조적 문제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함을 배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참여자 2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으며 나치 역사를 “단순히 역사적 비극으로만 바라보던 태도에서 한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 문제로 생각을 확장”하게 되었으며, 참여자 4 역시 국가 폭력이나 성폭력 등 “대학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기 어려운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세상의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정립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독서모임 참여는 비판의 개념 재정의의 통해 ‘이성적 성찰의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비판을 공격이 아닌, 더 나은 대안을 찾기 위한 건설적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참여자 8은 “이전에는 비판을 공격적인 태도로 인식했으나, 이제는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임을 배웠다”며, 실생활에서도 감정적 반응 대신 “배경과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9 또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저자의 주장을 고스란히 흡수하기보다 의도적으로 비판적 사고를 해보는 훈련”을 지속하게 됐다고 밝혔고, 참여자 11은 호스트로서 질문을 준비하며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사고해보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독서모임 참여는 편향에 대한 자각과 ‘논리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 예컨대, 참여자 10은 “나의 판단이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서 정보의 신뢰성, 근거의 타당성, 논리적 구조를 이전보다 더 따지며 사고하게 되었다”고 말했고, 참여자 5는 “개인의 제한적 관점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음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찾아본 다음 내 생각을 정리하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독서모임은 참여자들에게 ‘현상을 꿰뚫어 보는 비판적 안목과 사회적 책임감’을 동시에 부여하는 수단으로 판단된다. 참여자 6과 7이 언급했듯, “책 속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 사회와 연결해 생각하는 습관”과 “해결되지 못한 사회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는 독서모임이 제공하는 강력한 교육효과라 할 수 있다. 즉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텍스트라는 거울에 자신과 세상을 비판적으로 비추어 봄으로써, 책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피동적 독자를 넘어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적,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원래도 비판적인 성향이었으나, 그 대상이 좁았습니다. 과거에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의 일, 즉 내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에 대해서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변화는 사회와 사람을 비판적으로 조명한 책들을 함께 읽고 토론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타인의 삶이나 구조적 문제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덕분에 사고의 범위가 나의 세계에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었습니다. -3-

사회 문제와 관련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이전에는 잘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심도 늘었습니다. 단순히 책 속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실 사회와 연결해 생각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이 증진되었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깊어졌습니다. -6-

시대상이 반영되고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는 책을 접함으로써 해당 시대상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서삼독을 통해 사회의 문제, 시대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서삼독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7-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비판이란 단순히 반대하거나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는지,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실생활에서도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보다는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의 배경과 구조를 먼저 생각해 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려는 태도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8-

같은 책을 읽고도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나의 의견이 정말 타당한지 점검하고 논리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 많아졌다. 나의 판단이 편향될 수 있다는 사실도 더 명확히 인지하게 되면서 정보의 신뢰성, 근거의 타당성, 논리적 구조 등을 이전보다 더 따지며 사고해야 함을 깨달았다. -10-

5) 독서모임과 문제해결 역량 증진의 관련성

독서모임 참여 후 문제해결 역량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5점 척도(1: 전혀 변화 없음, 5: 매우 많이 증가)로 측정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참여자(9명, 81.8%)들은 독서모임 참여 후 문제해결 능력($M=4.45$, $SD=.80$)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상의 결과는 독서모임이 단순히 정보와 지식의 습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7] 독서모임 참여 후 문제해결 능력 변화

구분	<i>M(SD)</i>	부정	보통	긍정
문제해결 능력 증진	4.45(.80)	-	2(18.2%)	9(81.8%)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을 통해 ‘관계의 실마리’를 발견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참여자들은 책 속의 인물이나 저자에게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심리적 위안을 얻는 동시에,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참여자 1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 속 인물에 잠깐 빙의했다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나’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참여자 3은 진로 문제로 방

황할 때 『럭키드로우』를 읽으며 “걱정보다는 실행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으로 기회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으며, 가족 문제에 있어서도 ‘나는 울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를 통해 어머니를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동료이자 친구로 바라보게 된 시선의 전환”이 어머니와의 감정을 푸는 실마리가 되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참여자 7 역시 “나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작중 인물들을 보며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덜어냈다”고 응답하여, 독서가 심리적 위안을 주는 수단인 동시에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일 수 있음을 짐작하게 했다.

또한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다양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둘러싼 환경을 고려하는 방식의 복합적인 맥락에서 문제를 이해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예컨대, 참여자 8은 독서모임을 통해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혹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나 구조, 타이밍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참여자 11은 “문제해결과 협동을 위해선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객관적,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독서토론이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해석과 길을 함께 찾아나가는 역량”을 키워주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참여자 4는 구성원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다”며, 새로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나만의 방식으로 급하게 해결하기보다 책 속에서 배운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한다고 말했고, 참여자 2는 “자신들이 처한 문제를 극복한 방법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지침”이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인간관계나 사회적 갈등을 다룬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실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다는 참여자 6의 주장과도 맥락을 같이한다. 비록 독서모임이 문제해결에 미치는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다고 말한 참여자 10조차도 “과거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해결방법이 어땠는지 되돌아보는 시

간”을 가졌다면, 이를 향후 문제해결을 위한 학습의 기회로 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결론적으로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이 ‘삶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제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예컨대, 참여자 9가 ‘미움 받을 용기’를 통해 “나의 고민이 왜 고민이 되었는지, 극복을 위해 어떤 걸 용기 내면 좋을지” 깨닫고 대학 생활의 방향성을 설정한 사례처럼, 독서는 삶의 막막한 순간마다 펼쳐보는 “가장 실용적인 참고서”(참여자 3)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텍스트와 동료의 삶을 경유하여 얻은 통찰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을 함양했고, 더 나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실천적 지혜를 축적해 나가고 있었다.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구체적인 해답을 책에서 찾았습니다. 진로 문제로 방향할 때, <럭키드로우>를 읽으며 상황을 객관적으로 인식했습니다. 걱정보다는 실행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으로 기회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로 고민이 깊었을 때는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를 펴 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엄마를 '엄마'라는 역할이 아닌,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동료이자 친구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꼬인 감정을 푸는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저에게 독서는 삶의 막막한 순간마다 펼쳐보는 가장 실용적인 참고서였습니다. -3-

서삼독에 참여하며 자신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책 속 인물들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더불어 해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구성원들의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그러한 문제해결 방식이 나름대로 저의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에게 어떠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저만의 방식으로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보다 책 속에서 배운 다양한 관점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끔은 나의 해결책이 맞는지 구성원들에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문제해결 과정의 시행착오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합니다. -4-

책을 통해 간접 경험을 쌓으면서 삶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해결책을 찾는 사고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인간관계나 사회적 갈등을 다룬 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실제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습니다. -6-

책 속 인물들이 실수하고 다시 선택하는 모습,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문제점 등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 혹은 “저 사람이 잘못했다”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나 구조, 타이밍 등 여

리 요소를 함께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삼독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와 같이 주인공에게 대입하는 과정은... 특별한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 덕분에 문제해결 관점과 방법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해졌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8-

독서가 문제를 바라보는 폭을 넓혀주긴 했지만, 문제 해결력 자체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준의 변화는 아니었다. 하지만 특정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계획하고 과거에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해결방법이 어땠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능력 증진을 위한 학습의 기회는 되었다고 생각한다. -10-

독서토론을 통해 제 주장과 의견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그에 앞서 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하며, 대화에서는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제 관점과 주장이 변화하는 경험을 하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타인과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해석과 길을 함께 찾아나가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11-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 내 비교과 독서모임의 효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해 보고자 했다. 이를 통해 대학 비교과 독서모임의 효용성과 발전 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한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모임 참여는 참여자들의 독서량 증가와 독서 인식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냈다. 참여자들은 타율적 강제성에서 시작된 독서가 자율적 열망으로 변화하며 독서가 생활화되는 경험을 했고, 지식 습득의 다양성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세상과 연결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의 주체적인 독서 문화를 위해 자율적 독서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대학 도서관, 교수학습지원센터 등이 학과별로 학생들과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비교과 형태의 자율적 독서모임을 공모를 통해 구성한 후 모임 장소, 소정의 저서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독서모임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모임 진행 방법, 독서 토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독서량 증가는 물론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연구의 대상이 된 독서모임의 경우 대학의 어떠한 지원도 받지 않고 운영된

순수 비교과 독서모임이었다는 측면에서 대학은 독서모임을 주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서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방식의 역할에 머무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독서모임은 수용적 경청의 습관을 타인 의견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능동적 수용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독서모임 내에서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커뮤니케이션 불안감 해소와 토론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었다. 만약 대학이 어느 수준 이상의 라포(rapport)를 형성한 학과별, 계열별 학생들 간의 비교과 독서모임 프로그램 운영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설정하여 지원한다면, 전공 교육에서 간과하기 쉬운 인성 함양과 공감적 커뮤니케이션 역량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텍스트를 읽고, 내용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 과정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의 독서모임은 구성원의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역량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능했다. 이는 대학이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독서모임을 지원할 때, 학생들이 다양한 텍스트를 읽기, 텍스트 정리, 상대방 의견 경청, 자신의 의견 표명, 토론을 통한 자신과 사회 성찰이라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요소가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임을 시사한다.

셋째,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에서 다양한 관점의 공유가 ‘흑백논리의 해체’와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경험을 이끌어 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이상의 결과는 극단주의적 속성인 흑백논리와 이항대립적인 사고방식으로 귀결되는 배타성²⁹⁾을 극복하기 위해 필수적인 다양성 확보³⁰⁾에 독서모임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양한 관점의 공유와 타인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견주어 생각해보는 습관을 형성하는

29) 하승찬·유성상, 「극단화 사고의 전환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 개발」, 『국제이해교육연구』 16권3호, 2021, 1-38쪽.

30) 권향원, 「행정이론의 한국화를 위한 연구방법 및 이론화 전략: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극복」, 『한국행정학보』 51권2호, 2017, 1-31쪽.

훈련을 통해 흑백논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다양한 관점의 형성은 다양한 세대, 다양한 국적의 구성원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방식의 독서모임에서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 대상이 되는 독서모임에는 20대 9명과 40대 2명이 참여했고, 이 중 1명은 대만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형태의 독서모임을 통해 세대 간, 국가 간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학이 지원하는 독서모임은 특정 사안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가진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예컨대 학과 소속의 유학생이나 대학원생, 졸업생(직장인) 등이 독서모임에 수평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은 학생들이 대학이라는 우물을 벗어나 조금 더 넓은 세상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문화와 세대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 궁극적으로 다양한 관점이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창의적인 유연성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참여자들이 수평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독서모임 문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등의 노력이 대학 내 비교과 독서모임의 효과를 극대화해 낼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독서모임은 ‘나’의 세계에서 ‘공동체’로의 인지적 확장과 사회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기여했다. 구체적으로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자신에게만 향해 있던 시야를 사회와 공동체로 확장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사회와 구조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함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독서모임이 텍스트 속 지식의 단순 수용자에서 텍스트 이상의 세계를 성찰하게 이끄는 비판적 리터러시 역량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 중심의 전공 교육을 넘어 사회와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주체적 시민 양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 역시 대학이 비교과 영역에서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것

이 학생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진 좋은 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촉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만약 독서모임을 지원하는 대학이 독서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비판 의식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모전 등을 통해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참여자들이 직접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Living Lab)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참여자들은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과 효능감을 두루 갖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복합적인 맥락과 환경을 고려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을 기르고 있었다. 즉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독서모임이 ‘삶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제공하기에 문제해결 역량을 높여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인식했다. 결과적으로 독서는 문제해결 역량을 대학의 핵심 역량으로 고려하고 있는 많은 대학들의 교양 교육 소재로 효과적일 수 있으며, 학내 독서모임 활성화는 학생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일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지역의 모 대학 사회과학 계열 학과에서 4년 이상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비교과 독서모임에 2년 이상 참여한 참여자들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통해 순수 비교과 독서모임의 다양한 효과를 검증하고, 학내 독서모임을 발전 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했다는 측면에 가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는 학내 비교과 독서모임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으로 평가받는 창의성,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능력 향상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학내 독서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학 본부(도서관, 비교과관리센터, 교수학습지원센터 등)는 독서모임의 효용성에 대한 학내 구성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학과별, 계열별, 학내 구성원 등 구성원별 독서모임 형태, 독서모임의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제시한 후,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자율적인 독서모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대학이 책을 읽는 ‘행위’에 대한 물적 지원을 넘어 구성원들의 자율적 독서 행위와 독서모임 참여 동기를 유발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참여자들의 독서모임 과정과 독서모임 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있다. 독서모임에 대한 지원은 대학 교육이 간과하기 쉬운 학생들의 시민성과 미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차별적인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연구는 몇 가지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이 연구에서 활용한 양적 분석은 참여자의 회상에 의존한 사후 측정 방식이었다. 또한 표본이 11개로 제한적이었다는 점도 방법론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활용한 t검정 결과는 통계적 일반화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질적 인터뷰 결과를 보완하고 뒷받침하기 위한 탐색적 기초 자료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에서 논의된 ‘역량의 증진’은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한 결과가 아닌, 참여자들의 주관적 인식과 회상에 기반한 자기 보고(Self-report)의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상 주의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단행본

민의식, 『위대한 나를 만드는 독서모임: 4차 산업혁명세상』, 행복에너지, 2022.
이순영·김주환·권이은·김해인·백원근·김은하·이정수·박신애, 『비독자 대상 독서
유인사업 설계 및 실험 연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24.

논문

권이은, 「대학생의 독서 실태와 인식 조사」, 『국어교육학연구』 56권 3호, 2021, 5-34쪽.
권향원, 「행정이론의 한국화를 위한 연구방법 및 이론화 전략: 보편성과 특수성의
이분법적 흑백논리의 극복」, 『한국행정학보』 51권2호, 2017, 1-31쪽.
김구종·노아영·고유진·송영수, 「4차 산업혁명 시대 역량 규명을 위한 연구 동향
분석: 학계와 산업계 구분에 따른 역량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인
적자원관리연구』 29권4호, 2022, 1-22쪽.
김지영·윤수진, 「중년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그림책 치료, 독서습관 형성
및 세대교류 경험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1권4호, 2024, 211-240쪽.
김지영·이지연, 「노인과 청년이 함께하는 독서모임의 세대교류 및 사회적 독서 경
험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40권1호, 2023, 23-50쪽.
노명완, 「독서의 개념과 기능」, 『새국어생활』 22권4호, 2012, 5-22쪽.
서기자, 「대학 독서교육이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문학연구』
45권3호, 2013, 219-238쪽.
신선주, 「중년기 여성의 공공도서관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참여 경험 연구」, 가톨
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22.
안인자·윤석윤, 「독서토론 프로그램 효과성 요인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권1호, 2021,
377-398쪽.
양성인, 「기술직 공무원 대상 소집단 독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연구: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위유미, 「독서 토론 활동이 유아의 언어 이해력 및 비판적 사고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0.

- 윤수진·김영순, 「성인 독서모임 구성원의 자기치유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66권1호, 2023, 59-88쪽.
- 이순영·김주환, 「시니어 비독자 대상 독서모임 운영의 효과 연구: ‘전문가 운영 모임’과 ‘자율 운영 모임’의 결과 비교」, 『리터러시 연구』 16권3호, 2025, 315-344쪽.
- 이은숙,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 융합의 주체되기: 문학의 리텔링 독서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1권3호, 2019, 859-886쪽.
- 이정기, 「관학협력형 리빙랩 수업(배리어 프리 환경 기획 수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배리어 프리 이해도, 소수자 인권 문제 이해도, 문제해결 역량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2권3호, 2024, 441-464쪽.
- 이정기·김정기·김동규, 「지역신문 지원 평가에 따른 지역신문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지역신문 종사자들에 대한 서면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7권6호, 2013, 386-416쪽.
- 하승천·유성상, 「극단화 사고의 전환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수업 모듈 개발」, 『국제이해교육연구』 16권3호, 2021, 1-38쪽.
- 홍석민, 「4차 산업혁명과 교양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교양교육과정의 개혁 필요성」, 『교양교육연구』 16권2호, 2022, 65-79.
- Banas, J. R, Valley, J. A, Chaudhri, A, & Gershon, S. “The Psychosocial Benefits of Biblioguidance Book Clubs”. J Sch Health, vol.94 no.7, 2024, pp.619-630.
- Petrich, N. R. “Book Clubs: Conversations Inspiring Community”, I.e. : inquiry in education, vol.7 no.1, 2015, pp.1-13.
- Rusiana, R et al. “Book Clubs as a Pedagogical Tool for Developing Critical Thinking: Evidence from an English Education Program in Indonesia”, Indonesian Journal on Learning and Advanced Education, vol.6 no.3, 2024, pp.350-364.
- Vandergriff, C., Neils-Strunjas, J., Plummer, J., & Nguyen, K. “Impact of an Intergenerational Book Club on Cross-Generational Attitudes: A Mixed-Methods Study”. Journal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hips, 2024, pp.1-18.

신문기사

김수진,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인재의 요건, ‘책 속에 답이 있다’: ‘공부가 쉬워지는 초등 독서법’ 김민아 교사가 전하는 독서의 중요성.”, <에듀동아>, 2018.09.17.

김재학, “[교육이 미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문제 해결과 질문 능력 키우는 독서교육은 필수.”, <중앙일보>, 2021.07.28.

이현우, “모범 답안이 사라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통찰력’이 경쟁력이다.”, <한경잡앤조이>, 2017.08.16.

인터넷 사이트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출판독서정책연구소 - 2024년 독서문화 통계,

https://member.kpa21.or.kr/kpa_bbs/2024%eb%85%84-%eb%8f%85%ec%84%9c%eb%ac%b8%ed%99%94-%ed%86%b5%ea%b3%84/, 2025.12.30.

독서동아리지원센터 - 독서동아리를 하면 좋은 점?,

<https://www.readinggroup.or.kr/information/introduce.php?p=5&title=%EB%8F%85%EC%84%9C%EB%8F%99%EC%95%84%EB%A6%AC>, 2025.12.30.

민음사 - 함께하는 독서 모임 가이드북,

<https://minumsa.com/resource/30399/>, 2025.12.30.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순수 비교과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대학 내 독서모임의 효과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역량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해 냄으로써 20대 대학생 대상 독서모임의 효과를 다각도로 살펴본 후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고자 했다. 독서모임 참여자 1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서모임 참여 전후 독서량, 독서에 대한 인식 변화를 확인한 결과, 독서모임을 통한 독서는 참여자들로 하여금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 자신을 성찰하게 하고, 자신과 세상을 연결하게 만들어 주는 창구로 작용했다. 둘째, 독서모임과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역량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독서모임은 텍스트를 매개로 경청과 표현, 요약과 정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적 커뮤니케이션, 리터러시 역량 강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셋째, 독서모임과 공감 능력, 창의성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독서모임은 다양성 존중과 세대 간의 접점 확장을 이루어 내고,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서모임은 ‘서로 다른 삶의 경험을 융합해 삶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넷째, 독서모임과 비판적 사고 능력의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독서모임 참여자들은 텍스트라는 거울에 자신과 세상을 비판적으로 비추어 봄으로써, 책을 통해 단편적인 지식을 쌓는 피동적 독자를 넘어 사회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주체적, 능동적 시민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독서모임은 참여자들에게 ‘삶의 불확실성을 돌파할 수 있는 인지적 자원’을 제공하여 문제해결 역량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대학 비교과 독서모임의 효용성과 발전 전략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 보고자 했다.

주제어 ● 대학 독서모임, 독서 효과, 독서모임 효과, 서면 인터뷰

■ Abstract

Effects of Extracurricular University Book Clubs : Focus on Written Interviews with Book Club Participants

Lee, Jeong-Ki / Tongmyo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multifaceted effects of a university-based book club that has operated as a purely extracurricular program for over four years. By analyzing these effects through the lens of the core competencies required in the Foter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search explores the impact of the book club on university students in their twenties and proposes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The results of written interviews conducted with 11 participants are as follows.

First, an examination of changes in reading volume and perceptions before and after participation revealed that reading through the book club transcends mere acquisition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It serves as a conduit for self-reflection and a bridge connecting the self with the world. Second, regarding the correlation between book clubs and communication and literacy competenci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se clubs function as a venue for integrated capacity building. In this setting, active listening, self-expression, summarization, and organization are organically interlinked through the mediation of texts. Third, in terms of empathy and creativity, the book club was found to foster respect for diversity and expand intergenerational contact, thereby serving as an alternative mechanism for resolving various forms of social conflict. Furthermore, the club is utilized as a cognitive tool that enables participants to re-interpret their lives by fusing disparate lived experiences. Fourth, analysis of critical thinking skills demonstrated that participants evolved from passive readers—who merely accumulate fragmentary knowledge

—into proactive, agentic citizens. By critically reflecting on themselves and society through the "mirror" of the text, they actively contemplate social issues and seek potential solutions. Finally, the book club was found to be effective in enhancing problem-solving capabilities by providing participants with the "cognitive resources" to navigate the uncertainties of life.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s the intrinsic value of book clubs and offers pedagog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ir revitalization.

Keyword • University reading group, Reading effect, Book club effect, Written interview

■ 부록

[표 8] 독서모임 ‘서삼독’ 도서 목록 50권

목록	저서 명(저자)
1	호랑이 사냥(나카지마 아쓰시)
2	지구인만큼 지구를 사랑할 순 없어(정세랑)
3	내일 세상을 떠나도 오늘 꽃에 물을 주세요(히노 오키오)
4	미움받을 용기(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케)
5	사랑의 기술(에리히 프롬)
6	데미안(헤르만 헤세)
7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기욤 뭈소)
8	살아보니, 대만(조영미)
9	한류와 험한 속 한국 이미지의 형성, 변곡, 그리고 반향(황우념)
10	카테일, 러브, 좀비(조예은)
11	아무튼, 여름(김신희)
12	인간 실격(다자이 오사무)
13	음악을 틀면, 이곳은(도쿄다반사)
14	하버드의 마지막 강의(제임스 라이언)
15	스토리텔링 애니멀(조너선 갓셜)
16	럭키드로우(드로우앤드류)
17	연금술사(파울로 코엘료)
18	사람이 온다(김동규)
19	책은 도끼다(박웅현)
20	입 속의 검은 잎(기형도)
21	걷는 듯 천천히(고레에다 히로카즈)
22	좁은 문(앙드레 지드)
23	구의 증명(최진영)
24	밝은 밤(최은영)

25	팡쓰치의 첫사랑 낙원(린이한)
26	이와이 슈운지의 <쓰레기통 극장>(이와이 슈운지)
27	어디서 살 것인가(유현준)
28	가녀장의 시대(이슬아)
29	세이노의 가르침(세이노)
30	소년이 온다(한강)
31	알사탕(백희나)
32	알사탕 제조법(백희나)
33	트러스트(에르난 디아스)
34	죽음의 수용소에서(빅터 프랭클)
35	어떤 어른이 되어야 하나고 묻는 그대에게(홍세화, 이원재)
36	별이 빛나는 밤에(지미 리아오)
37	내게 무해한 사람(최은영)
38	동물농장(조지 오웰)
39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룰루 밀러)
40	나는 올 때마다 엄마 얼굴이 된다(이슬아)
41	수레바퀴 아래서(헤르만 헤세)
42	모순(양귀자)
43	시는 나를 끌고 당신에게로 간다(문학과지성사)
44	이처럼 사소한 것들(클레어 키건)
45	멋진 신세계(올더스 헉슬리)
46	처음처럼(신영복)
47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48	이방인(알베르 카뮈)
49	빛과 실(한강)
50	설득(제인 오스틴)

바로크 플루트 크로스핑거링 음정의 음색 불균질성에 대한 유동·음향 교차 분석*

천 민 경**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바로크 플루트(Baroque flute)는 18세기 유럽 음악 문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목관악기로서, 현대의 금속제 ‘뵘 시스템(Boehm system)’ 플루트와는 구조적 특성과 음향 원리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지닌다. 현대 플루트가 전 음역에서 균질한 음색과 안정적 투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밀한 키(key) 메커니즘을 갖춘 것과 달리, 바로크 플루트는 목재 기반의 원추형 관체와 단일 키 그리고 작은 취구를 갖는 물리적 구조를 갖는다.¹⁾ 이러한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바로크 플루트는 반음계 진행 시 ‘크로스핑거링(Cross-fingering)’이라는 운지법에 의존하게 되며, 이는 필연적으로

* 본 논문은 2026년 상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천민경 성결대학교 융합학부 객원교수

1) Theobald Boehm, *The Flute and Flute-Playing in Acoustical, Technical, and Artistic Aspects*, London: Rudall, Carte and Co., 1871, pp. 1-15.

음정과 음색이 음계 내에서 불균질하게 분포하는 조건을 형성한다.²⁾ 여기서 크로스핑거링은 상부에 열린 지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아래 지공 일부가 닫히는 등 지공 개방 순서를 교란하는 배열을 뜻하며, 이러한 배열은 관내 정재파와 입력 임피던스 조건을 국지적으로 바꾸어 배음 구조와 발진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플루트 계열 악기의 음 생성은 취구 제트가 엷지와 상호작용하며 형성하는 자기여진 메커니즘에 기반하고, 이 과정에서 유동과 관내 공명 피드백의 위상 정합(phase locking)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배음 구조가 재현 가능하게 조직된다.³⁾ 반대로 크로스핑거링에서 임피던스 조건이 불균형해지면 위상 정합이 민감해지고, 그 결과 특정 대역의 감쇠나 배음 분포의 편향처럼 음색 불균질성이 구조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음색적 편차는 바로크 시대의 수사학과 정서 이론이 전제한 표현 관행 속에서 의미화되어 왔다⁴⁾ 는 점에서, 단순 결함 혹은 개선의 이분법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현상은 음향적 결함과 개선의 평가를 넘어, 표현 관행과 조건 변화의 관계 속에서 함께 검토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현대의 연주 환경에서는 특정 크로스핑거링 음정이 “약하고 흐릿한” 음색으로 체감되어 연주 실천의 제약이 존재하다⁵⁾는 선행연구에 따라 음색 편차를 물리적 조건의 언어로 재기술하는 분석 틀이 요구된다.

국내 음악음향학계에서도 플루트 음색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성기영(2020)은 배음 분석을 통해 가상 플루트와 소금의

2) Joe Wolfe & John Smith, “Cutoff Frequencies and Cross Fingerings in Baroque, Classical, and Modern Flut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Vol. 114, No. 4, 2003, pp. 2263-2272.

3) A. Hirschberg, “Aeroacoustics of Confined Jets: With Applications to the Physical Modeling of Recorder-like Instruments”, Ph.D. Dissertation,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1995.

4) Johann Mattheson, *Der vollkommene Capellmeister*, Hamburg: Christian Herold, 1739.

5) Rachel Brown, *The Early Flute: A Prac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pp. 154-172.

음색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하였고, 고수진, 김준(2014)은 대금과 플루트의 배음 구조를 분석하여 색청 현상과의 상관성을 논의하였다. 이처럼 배음 분포나 주파수 특성을 기반으로 음색을 분석하는 연구는 축적되어 왔지만, 바로크 플루트의 크로스핑거링에서 나타나는 음색 불균질을 배음 지표와 제트-엣지 유동 구조의 변화와 함께 분석한 유동-음향 교차 연구는 국내에서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불어 본 연구의 기술적 개입은 HIP(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 담론에서 원전성의 훼손 여부에 대해 어떤 근거에 따라 무엇을 핵심 표지로 보존할 것인가라는 해석학적 및 제도적 선택의 문제로 위치시킨다. 역사 악기는 연주자·공간·제작 공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조건 속에서 형성되어 왔으며, 관행의 재현은 조건 변화 속에서 특정한 청취적 틀과 표현 효과가 어떻게 유지되고 변형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 관점에서 탈부착형 보조 구조로서의 아들러윙(Adler wing)⁶⁾은 악기 자체를 영구적으로 개조하는 장치가 아닌, 정체성 보존과 실천적 효율 사이에서 무엇이 허용 가능한 변형인가를 유동 및 음향 지표에 근거해 서술함으로써, HIP 실천의 문화적 의미와 실증적 분석을 연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바로크 플루트의 크로스핑거링에서 관찰되는 배음 구조의 편향을 음향 지표로 정량화하고, CFD 기반 유동 지표를 통해 제트-엣지 결합 이후 유동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함께 분석한다. 이를 통해 크로스핑거링 음정의 불균질성을 재현할 수 있게 기술하고, 유동-음향 대응 관계를 제시하며, 동일한 개입이 ‘개선’에서 ‘과개입’으로 전이되는 경계를 조건-의존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판정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6) 아들러윙(Adler wing)은 플루트 헤드조인트의 취구 가장자리 상단에 부착되는 얇은 날개형 돌출 구조로, 취구 입술 플레이트 상단에서 수 mm 정도 돌출된 판형 요소이며, 현대 플루트 제작자인 J. R. Lafin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장치는 취구를 통과하는 공기 제트의 흐름을 부분적으로 유도하여 제트-엣지 상호작용을 안정화하고, 그 결과 소리 반응성과 음색 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현대 플루트 헤드조인트에서 사용된다.

는 고악기 분류 및 분석 방식을 넘어, 수치 해석 기법을 활용해 바로크 플루트 고유의 음향 메커니즘을 현대적 언어로 재기술함으로써 음악학 연구의 방법론적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크로스핑거링의 음향적 불안정성과 유동 역학적 상호작용

바로크 플루트에서 크로스핑거링은 관 내부의 공명 조건과 제트-엣지(jet-edge) 상호작용을 동시에 변화시키는 구조적 개입이다. 이 운지 방식은 개방공의 순차적 배열을 의도적으로 교란함으로써 관의 유효 길이와 입력 임피던스 분포를 비선형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결과 음향 형성 과정의 안정 조건을 복합적으로 교란시킬 가능성이 있다.⁷⁾ 이와 같은 악기의 메커니즘에 대해 승경훈(2024)은 플루트 악기의 역사적 발전 과정과 함께 키 메커니즘의 도입이 음향 안정성과 음계 구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지적하며, 플루트 음향 형성 과정이 악기 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⁸⁾

플루트 계열 악기의 음향 원리는 취구를 통과한 공기 제트가 엣지와 주기적으로 상호작용하며 형성되는 자기여진(self-sustained oscillation)에 기반한다. 이때 제트의 위치와 두께, 속도 분포는 관의 입력 임피던스와 강하게 결합하여,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교환이 성립할 때 명확한 음고와 배음 구조가 형성된다. 반대로 개방 조건이 비정상적으로 배열될 경우, 제트가 공명 모드와 동조되는 위상 조건이 민감해지며 발진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관악기의 음색은 배음

7) Wolfe & Smith, op. cit., pp. 2263-2272.

8) 승경훈,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시〉의 플루트를 위한 트랜스크립션 비교 분석: 연주 기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음악 박사학위 논문, 2024.

9) Neville H. Fletcher & Thomas D. Rossing, *The Physics of Musical Instruments*, 2nd ed., New York: Springer, 1998.

구조와 공명 조건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며, 음색의 차이는 배음 분포와 공명 특성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

크로스핑거링은 이러한 민감성을 구조적으로 증폭시키는 대표적 사례이다. 상부 개방공 아래에 폐쇄공이 존재하는 운지 배열은 관 내부 압력 노드(node)/안티노드(antinode)의 분포를 불연속적으로 분절시키며, 입력 임피던스 곡선의 피크 위치와 강도를 국지적으로 재배치한다. 그 결과 특정 공명 모드가 안정적으로 우세해지지 못하거나 인접 모드와의 상호 경쟁이 심화되어 발진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제트-엣지 상호작용 역시 연주자의 미세한 앙부셔 변화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조건으로 이동한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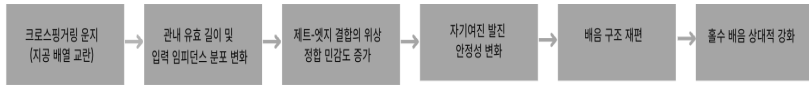
유동역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불안정성은 제트 전단층(shear layer)이 엣지 부근에서 형성하는 와류 구조가 관 내부 음향 피드백과 안정적인 위상 고정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로 설명될 수 있다. 특히 크로스핑거링에서 임피던스 분포가 불균형해질 경우, 와류 방출 주기와 음향 피드백 사이의 위상 정합이 지속적으로 흔들리면서 배음 구조의 결핍이나 특정 대역의 감쇠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진다.¹¹⁾ 또한, 단일 키 구조와 상대적으로 작은 취구는 제트 폭과 위치, 변화에 대한 허용 오차를 좁혀 제트-엣지 상호작용의 안정 영역을 제한하며, 그 결과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는 연주자의 미세한 취구의 변화가 음색과 음정에 과도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보고되어 왔다.¹²⁾ 요컨대 크로스핑거링에서의 임피던스 분포 변화는 공명 모드의 안정적 성장 조건을 교란하고, 제트-엣지 결합의 위상 정합을 약화시켜 공명 효율 저하, 배음 분포의 불균형, 음정 편향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 관계를 정리하면, 크로스핑거링은 지공 배열의 교란을 통해 관내 임피던스 분포를 변화시키

10) Wolfe & Smith, op. cit., pp. 2263-2272.

11) A. Hirschberg, "Aeroacoustics of Confined Jets: With Applications to the Physical Modeling of Recorder-like Instruments", Ph.D. Dissertation,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1995.

12) Brown, op. cit., pp. 154-172.

고, 이로 인해 제트-엣지 결합의 위상 정합 조건이 불안정해지면서 발진 안정성과 배음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1]은 물리적 경로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크로스핑거링에 의해 유도되는 홀수 배음 우세의 발생 경로

2) CFD 기반 제트-엣지 유동 및 음향 지표 분석 방법론

(1) 평균 유동장 접근의 필요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플루트의 음향 형성은 취구 제트-엣지 상호작용과 공명관 음향 모드가 결합된 자기여진 메커니즘에 의해 좌우된다. 이때 음색 안정성은 엣지 인근에서 제트가 만들어내는 전단층의 조직화 정도, 그리고 그 조직화가 공명관 피드백과 맺는 결합 조건(위상 정렬/동기화 가능성)에 의해 민감하게 좌우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은 취구-엣지 접합부에서 형성되는 제트 전단층, 유속 분포의 재편 그리고 엣지 및 내벽 주변의 압력장과 표면 하중 분포를 정량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핵심적인 분석 도구로 활용된다.¹³⁾

유동역학적으로는, 엣지 주변에서 제트 전단층이 만들어내는 와류 구조가 일정한 주기로 이동하고, 이 과정이 공명관으로부터 되돌아오는 음향 피드백과 정합될 때 에너지 교환이 효율적으로 유지된다. 반대로 전단층이 과도하게 비대칭적이거나, 국소적으로 과집중된 코어가 형성되어 유입 구조가 불연속적으로 재편될 경우, 결합은 더 민감한 상태로 이동하며 배음 구조의 균형이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루트

13) Kaykayoglu, Ruhi & Donald Rockwell, “Unstable Jet-Edge Interaction. Part 2: Multiple Frequency Pressure Fields”, Journal of Fluid Mechanics, vol. 169, 1986, pp. 151-172.

음향은 본질적으로 비정상(unsteady)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음색의 재현성과 같은 거시적 특성은 발진 주기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평균 유동 구조를 통해 구조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¹⁴⁾

따라서 CFD 분석은 제트가 엷지 이후 어떤 방식으로 정렬, 가속, 재분포되는지를 평균 유동장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접근을 취한다. 이러한 평균 유동 구조 기반의 분석은 제트 에너지가 국소적인 고속 피크에 집중되는지 혹은 면적 차원에서 보다 두터운 유입 구조를 형성하는지를 구분할 수 있게 하며, 제트-엷지 결합이 안정적인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는 물리적 기준으로 기능한다.¹⁵⁾ 즉, 평균 유동장의 조직화 정도는 음향 발진의 안정성과 재현성을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간주된다.

(2) 유동 지표와 음향 지표를 연결하는 해석적 방법론

플루트 계열 악기에서 유동-음향 연계 해석은, 유동장이 음향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배음 구조와 음색 특성이 형성되는 물리적 조건(변수)들의 집합을 규정한다는 관점에서 전개되어 왔다. Kaykayoglu & Rockwell(1986)은 제트-엷지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다중 주파수 압력장을 유동 구조와 함께 해석함으로써, 제트의 비대칭성과 엷지 주변의 압력 변동 패턴이 음압 수준(SPL)의 차이 및 와류 교번성(alternation of vortices)의 변형과 결부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동 해석이 속도장(velocity field) 자체의 기술에 그치지 않고 압력장(pressure field), 와도장(vorticity field)과 같은 지표를 통해 음향 방사 특성(레벨/스펙트럼)의 방향성을 설명하는 해석 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⁶⁾

특히 후속 연구들은 제트의 도달 기하(각도, 오프셋, 중심선 편향)가 음

14) Yoshikawa, Shigeru, "Vortices on Sound Generation and Dissipation in Musical Flue Instruments", In Vortex Dynamics: Theories and Applications, Springer, 2020.

15) Onogi, Kimie, Hiroshi Yokoyama & Akiyoshi Iida, "Effects of Jet Angle on Harmonic Structure of Sound Radiating from the Flute", Acta Acustica, vol. 5, 2021, Article 11.

16) Kaykayoglu & Rockwell, op. cit., pp. 151-172.

향 결과를 바꾸는 핵심 변수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Onogi et al.(2021)은 제트 오프셋의 증가가 엷지 부근 유동의 대칭성을 붕괴시키고, 주기 내 압력 극성의 체류 시간과 피크 진폭 분포를 재구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음향 에너지 손실 및 SPL 저하와 같은 방사 특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제트 중심선이 한쪽으로 편향될수록, 와류 시트의 생성-성장-대류 과정이 비대칭적으로 전개되고 교번 위상차가 불균형해지며, 이는 곧 공명기 내부로 유입되는 체적 유동의 순간 균형을 교란하는 경로로 정리된다. 이러한 논의는 유동 지표(편향, 분리, 교번성, 와도 패턴)를 음향 지표(SPL, 스펙트럼 왜곡 등)와 대응 관계로 기술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¹⁷⁾ 또한 유동-음향 결합의 효율은 크기뿐만 아니라 위상 관계를 통해 설명되어 왔다. Yoshikawa(2020, 2021)는 PIV 기반 관측을 통해 제트 유량의 시간 변화와 공명기 내부 음향 압력 사이의 위상 정합이 에너지 생성 효율을 좌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고, 이는 헬름홀츠의 부피 유량 기반 음향 소스 모델(Volume-Flow Model)에서 강조되는 바-유동의 주기적 가속과 압력 변동이 결합해 방사가 형성된다는 관점-과도 연결된다.¹⁸⁾ 이러한 논의는 압력 변동과 유량 변동의 동기화 가능성이 라는 동역학적 기준과 함께 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¹⁹⁾ 즉 유동-음향 교차 분석은 제트 편향과 와류 배열이 만드는 공간적 비대칭, 그 비대칭이 유도하는 압력장 및 방사 특성의 변화, 위상 정합이 유지, 붕괴되는 조건을 연동해 기술하는 방식으로 정교화되었다.

한편, 유동 지표를 음향 지표와 연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형상 및 조건의 재현성과 검증 가능성이 전제된다. Celik et al.(2021)은 실물 악기 형상을 CAD 기반으로 재구성하고, 유입 속도 조건을 변화시키며 속도장-압력

17) Onogi, Yokoyama & Iida, op. cit.

18) Hermann Ludwig Ferdinand von Helmholtz, *On the Sensations of Tone as a Physiological Basis for the Theory of Music*, trans. Alexander J. Ellis, Longmans, Green, 1875.

19) Shigeru, op. cit.

장·와류 구조의 전환을 추적한 뒤, 시뮬레이션으로 산출한 음향 출력을 실험과 비교하여 오차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수치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유동 지표를 어떤 방식으로 계량화하고, 음향 지표와 어떤 수준에서 대응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를 교차 검증 가능한 방법론으로 다루는 흐름을 대표한다.²⁰⁾ 정리하면, 선행 연구가 축적해 온 연결 논리는 제트의 도달 기하와 비대칭성(오프셋, 분리, 교번성), 압력장 및 와도장 패턴, 그리고 위상 정합 조건을 유동 측 지표로 설정하고, 이를 SPL 및 스펙트럼 변화와 같은 음향 지표의 방향성과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틀은 유동-음향 관계를 기하, 구조, 위상, 유동 지표 변화 그리고 음향 지표 경향의 연쇄로 설명하는 해석 전략으로 기능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접근 방식 개요

본 연구는 바로크 플루트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나타나는 배음 구조 불균형을 음향 지표(DSPL, 평균(H4-H5))와 유동 지표(plane-9, point-10 등)로 병렬 비교하고, 아들러링 부착 조건(X, S, L)에 따른 변화가 개선인지 과개입인지 판정하기 위해 목표 대역과 동등성 검정(TOST)을 적용한다. 여기서 DSPL은 저차 배음의 짝수와 홀수 배음의 균형을 나타내는 차등 지표로 $DSPL = L(H2) - L(H3)$ [dB]로 정의하며, 평균(H4-H5)은 상·중고역 율곽을 요약하는 지표로 $평균(H4-H5) = (L(H4)+L(H5))/2$ [dB]로 정의한다.

목표 대역은 동일 악기에서 측정한 일반 운지의 이웃 평균 분포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크로스핑거링 조건의 값이 해당 범위로 수렴하는지를 균질성 회복의 운영 기준으로 삼는다. 동등성 평가는 각 조건의 90% 신뢰구

20) H. Kursat Celik, Ali Bedel, Sevilay Gok & Allan E. W. Rennie, “CFD Simulation of Air Flow Behaviour at Different Flow Rates in a Turkish Woodwind Instrument (Turkish Treble Recorder)”, Open Journal of Acoustics 11, no. 1, 2021, pp. 1-16.

간이 목표 대역 내부에 완전히 포함되는지를 TOST($\alpha=0.05$, 90% CI)로 판정한다. 이때 동등성 한계(=목표 대역 폭)는 동일 세션 반복 측정에서 관찰되는 측정 시스템 변동, 청각 최소 변별치(JND $\approx 1\text{dB}$)²¹⁾에 근거한 실용적 해석 단위, 선행 문헌에서 제시된 배음 레벨 변화의 허용 범위를 종합하여 보수적으로 정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동등성이 성립하더라도 실용적 의미를 확보하기 위해 X 대비 변화량이 $|\Delta| \geq 1\text{dB}$ (JND 상회)인 경우에만 “개선 효과”로 해석하도록 보고 규칙을 고정한다. 최종 판정은 ‘충족(동등성 성립)-개선(목표 방향 근접)-보류(미달)-과개입(상한 초과 또는 악화)’로 분류한다.

실험 설계의 강건성을 위해 연주자 변인은 인공블로어(artificial blower)로 통제하였다. 압력·유량은 계측 장치(압력계·유량계·레귤레이터·니들 밸브)를 통해 설정값을 재현할 수 있게 유지하고, 제트 각도, 엷지-제트 거리, 제트 두께는 각도계와 캘리퍼스로 고정하였다. 또한 운지 변동과 누설을 제거하기 위해 해당 지공에는 실리콘 마감(silicone plug)를 삽입하여 동일 운지 조건이 반복 측정에서 유지되도록 하였다. 음향 데이터는 Pro Tools에서 24-bit/48kHz, 음정당 5s로 수음하고, 마이크(AKG C414 XLS)는 엷지 전방 0.80 m에 고정하며, 프리앰프 개인(+40dB)과 수음 레벨(-15~-20dBFS)을 전 조건에서 동일하게 유지한다. 또한 INTUNE 플러그인을 사용해 A=415 기준에서 ± 2 cent 이내로 정렬된 샘플만을 채택하여 음정 요동이 스펙트럼 지표에 교란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녹음은 흡음 처리된 동일 스튜디오 환경에서 동일 세팅으로 하루 단일 세션 수행하고, 조건 간 비교에서 환경 요인이 선택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공통 조건으로 통제한다. 조건별 반복 수는 악기×음정×조건 조합당 $n=30$ 의 반복 측정으로 구성하여, 평균 이동뿐 아니라 분산

21) JND(Just Noticeable Difference)는 두 자극 사이에서 인간이 지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최소 변화량을 의미한다. 음향 연구에서는 음압 수준이나 스펙트럼 성분 변화가 실제 청취에서 의미 있는 차이로 인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인 청취 조건에서 음압 레벨의 지각 최소 차이는 약 1dB 수준으로 보고된다.

및 신뢰구간 폭의 변화를 함께 보고함으로써 재현 가능성을 평가한다.

유동 분석은 ANSYS Fluent 2025 R1을 사용하며, 조건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동일 유량 조건으로 통제한다. 핵심 유동 지표는 엣지 직후 유입 부(edge point), 엣지 전방 +5 mm의 면적 가중 평균 유입 속도(plane-9)와 동일 위치 국소 피크(point-10), 윙 표면 전단층(wing-left/right), 대표 단면 평균 및 출구(outlet)로 구성하여, 제트 코어의 정렬·확산과 전단층 발달 및 에너지 재분배 양상을 비교한다. 다만 본 연구의 CFD는 난류 모형 기반 평균 유동장 접근으로서, 실제 발진의 비정상 와류 방출을 직접 재현하기보다 조건 간 상대 비교를 위한 물리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유동 결과의 해석은 절댓값 예측이 아닌 X 대비 변화(Δ)와 패턴 정합 중심으로 제한한다. 마지막으로 음향-유동 상관 평가는, DSPL과 평균(H4-H5)의 변화가 plane-9/point-10 및 전단층 지표 변화와 동일한 방향으로 병행되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한다. 다음의 [표 1]은 본 연구의 유동 분석 설정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표 1] CFD 해석 설정 요약

구분	설정
소프트웨어 및 모형	ANSYS Fluent 2025 R1, Steady, SST k- ω
유량 조건	Mass Flow Inlet: 8.7791×10^{-5} kg/s ($\approx$ 4.3 L/min)
유체(Fluid) 도메인	원기둥 외부 도메인: $\varnothing 46.5$ mm $\times$ 226.52 mm
경계 조건	Inlet Mass Flow Inlet, Outlet Pressure Outlet, Walls/Wings No-slip, Atmosphere Pressure Outlet
격자	Polyhedral, min 0.2 mm/ max 2.0 mm, growth 1.2, local 0.15 mm(inlet/wings)
메쉬(mesh) 규모	셀 $\sim 1.8 \times 10^5$, 노드 $\sim 6.5 \times 10^5$
수렴	Hybrid Initialization, residual $\leq 1 \times 10^{-5}$, 병렬 6 processes

다음의 [그림 2]에서 상단은 본 연구의 대상인 악기의 전체 조립된 모습을 나타내며, 하단과 우측의 설계 도면은 조건별 아들러윙을 부착한 헤드조인트와 S, L 순으로 나타낸다. 윙의 형상은 크기에 따라 S(아들러윙 비율 적용 모델)와 L(현대 플루트 아들러윙 사이즈)로 구분되며, 특히 S는 현대 플루트인 라팡(J.R. Lafin) 헤드조인트에서 실측한 ‘취구-윙’ 상대 비율을 기준으로, Jan 바로크 플루트의 취구 치수에 그 비율을 적용해 커스터마이징한 모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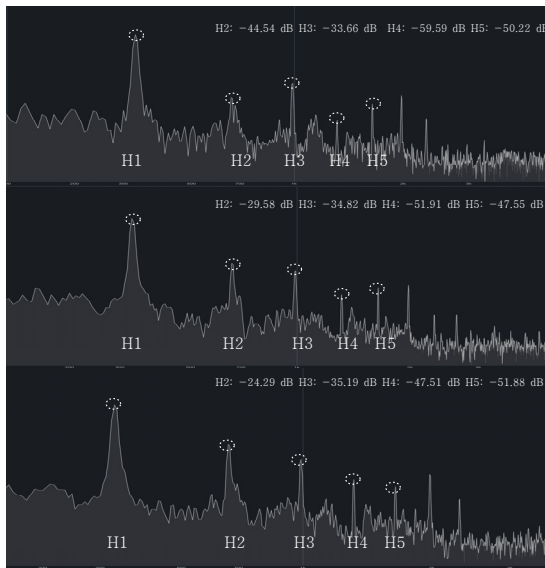
[그림 2] 좌: 바로크 플루트 모델 ‘Jan’ 조립 모습과 아들러윙 S, L이 부착된 헤드조인트, 우: S, L 설계 도면(mm)

2) 음향적 개선 효과 실증

(1) DSPL(=H2-H3) 분석: 배음 균형 기반

DSPL($H_2 - H_3$)은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홀수 배음 우세 현상을 정량화하는 확증 지표로, 저차 배음 구조의 균형이 일반 운지 평균 형상에 수렴했는지를 판단하는 1차 기준으로 사용된다. DSPL 값이 기준 조건(X)에서 낮게 나타날수록 H_3 의 상대적 기여가 커져 음색이 흐릿해지거나 중심감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윙 개입 이후 DSPL이 사전에 설정된 목표 대역으로 이동할 경우 짝수와 홀수 배음의 상대 분포가 정상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동일한 판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음정과 조건에 대해 동등성 검정(TOST, $\alpha = 0.05$)과 90% 신뢰구간을 적용하고, 목표 대역 진입 여부를 기준으로 DSPL의 변화를 충족, 개선(근접), 보류(미달), 과상향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DSPL은 확증지표 가운데 가장 민감하고 일관되게 반응하는 축으로 나타난다. 다수의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기준 조건(X)은 홀수 우세로 인해 DSPL이 목표 대역 하측에 위치하며, 이때 90% 신뢰구간 또한 목표 범위와 명확히 분리되어 동등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윈이 부착된 조건(S, L)에서는 DSPL의 평균값이 일관되게 목표 방향으로 이동하고, 일부 음정에서는 90% 신뢰구간 전체가 목표 대역 내부에 포함되어 동등성(TOST) 조건이 충족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평균 이동이 아닌, 표준편차와 신뢰구간 폭이 동시에 축소되는 경우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어, DSPL의 정상화가 재현 가능한 상태 전환임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뒷받침하는 다음의 [그림 3]은 F4 음정에 대한 X, S, L의 H1~H5 저차 배음의 상대 레벨 분포를 나타내며, DSPL(H2-H3)의 부호 및 크기 변화가 홀수 배음 우세와 균형 정상화, 과상향의 단계적 전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3] F4 음정의 X, S, L의 H1~H5 저차 배음의 상대 레벨 분포

기준 조건(X)에서는 H2가 -44.54 dB, H3가 -33.66 dB로 관측되어, DSPL(H2-H3)은 -10.88 dB로 산출된다. 이는 H3가 H2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한 상태로,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전형적으로 보고되는 홀수 배음 중심 스펙트럼이 뚜렷하게 형성된 경우에 해당한다. 해당 DSPL 값은 사전에 설정된 목표 대역의 하측에 위치하며, 저차 배음 간 균형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를 반영한다.

S 조건에서는 H2가 -29.58 dB, H3가 -34.82 dB로 변화하며, DSPL은 5.24 dB로 산출된다. 이는 기준 조건 대비 16.12 dB의 유의한 상향 이동에 해당하며, DSPL이 목표 대역 내부로 진입함에 따라 짝수-홀수 배음 간 상대 분포가 정상화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즉, S 조건에서는 홀수 배음 우세가 완화되고 저차 배음 균형이 회복되는 전환이 확인된다.

L 조건에서는 H2가 -24.29 dB, H3가 -35.19 dB로 관측되어 DSPL이 10.90 dB로 증가한다. 이는 기준 조건 대비 21.78 dB 상향된 값으로, DSPL이 목표 범위를 넘어 상한을 약 0.60 dB 초과하는 과상향 상태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저차 배음 간 불균형 자체는 해소되었으나, 짝수 배음의 상대적 기여가 과도하게 증폭되어 균형 축이 목표 중심을 지나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예시는 모든 크로스핑거링 음정의 음향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S 조건은 여러 음정에서 DSPL이 목표 대역에 안정적으로 진입하며, 동일 음정 내에서도 신뢰구간이 비교적 좁게 유지되어 과상향 위험이 낮은 정상화 패턴을 보인다. 예컨대 F4, A#4에서는 S 조건의 DSPL이 목표 범위를 충족하고, TOST 기준에서 동등성이 확정된다. 이때 X 대비 S의 변화량은 대부분 지각 최소 변별치($JND \approx 1$ dB)를 충분히 상회하며($p \ll 0.001$), 통계적, 실용적 유의성을 동시에 만족한다. 반면 L 조건은 DSPL을 더 강하게 상향시키는 경향을 보이며, 미달 상태의 음정에서는 개선 폭이 크게 나타나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음정에서는 DSPL이 목표 상한을 초과하는 과상향(과교정)이 발생한다. F4에서 관찰된 L 조건의

DSPL 상한 초과는, 평균값 자체는 목표 중심에 근접하지만 90% 신뢰구간의 일부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동등성 기준을 위반하는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음정별로 보면, DSPL이 목표 대역을 안정적으로 충족하는 집단과 개선(근접)에 머무는 집단이 명확히 구분된다. F4, A#4, Bb4와 같은 음정에서는 링 개입 이후 DSPL이 목표 범위로 진입하여 균형 정상화가 입증되는 반면, G#4와 C5에서는 DSPL이 목표 방향으로 이동함에도 불구하고 절대 대역 진입에는 이르지 못해 개선(근접) 단계로 남는다. 이러한 차이는 DSPL의 교정 가능성이 음정별 구조적 제약—보어 임피던스 분포, 컷오프 주파수, 제트-엣지 위상 정합 조건—에 의해 제한됨을 시사하며, 모든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동일한 수준의 균형 정상화가 기대되기 어렵다는 점을 통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종합하면, DSPL 분석은 아들러 링 개입이 크로스핑거링 음정의 핵심 취약성인 짝수-홀수 배음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교정할 수 있음을 가장 직접적으로 입증한다. 기준 조건(X)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홀수 우세는 S와 L 조건에서 목표 방향으로 이동하며, 특히 S 조건에서는 여러 음정에서 목표 대역 ‘충족’과 동등성이 동시에 성립해 균형 정상화가 확증 수준으로 구현된다. 반면 L 조건은 개선 폭이 크다는 장점과 함께 일부 음정에서 과상향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DSPL을 확증지표로 채택할 경우 정상화(충족)와 과교정(상한 초과)사이의 경계를 관리하는 것이 핵심 운영 변수로 남는다.

(2) 평균(H4-H5) 분석: 소리의 윤곽 및 명료도

평균(H4-H5)은 4차와 5차 배음의 상대 레벨을 요약하는 지표로,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흔히 보고되는 상·중고역의 윤곽 저하를 정량화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평균(H4-H5)가 낮을수록(더 음수로 갈수록) 고차 배음 에너지가 빠르게 감쇠하여 스펙트럼의 외곽선이 흐려지고, 청감상 “윤곽이 무너진(blurred)” 혹은 “명료도가 낮은” 인상이 강화될 가

능성이 높다. 반대로 링 개입 이후 평균(H4-H5)가 목표 대역으로 이동하면 상위대역의 상대 분포가 일반 운지 평균 형상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DSPL 절과 동일한 판정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음정과 조건에 대해 동등성 검정(TOST, $\alpha = 0.05$)과 90% 신뢰구간을 적용하고, 목표 대역 진입 여부를 기준으로 평균(H4-H5)의 변화를 충족, 개선(근접), 보류(미달), 악화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평균(H4-H5)는 DSPL과 달리 음정별 민감도와 조건 효과의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으며, 특히 “균형(DSPL) 축의 정상화”가 곧바로 “윤곽 축의 정상화”로 이어지지 않는 비등방적 패턴을 보인다. 다수 음정에서 X 조건은 목표 대역 하측에 위치하여 상위대역 윤곽이 구조적으로 억제된 상태를 형성하지만, 링 부착 이후의 변화는 음정에 따라 개선과 악화가 교차한다. 또한 평균(H4-H5)는 DSPL에 비해 분산(표준편차)이 증가하는 사례가 관찰되어, 평균 이동이 곧 재현성 향상으로 귀결되기보다는 상위대역이 조건 민감성에 더 크게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Jan 악기에서 평균(H4-H5)의 조건 효과가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사례는 G#4이다. 이 음정에서 X는 -42.56 dB로 하측 이탈이 확인되며, L은 -40.86 dB로 하한에 근소하게 미달하는 경계 수준에 머무는 반면, S는 -38.23 dB로 목표 대역에 90% 신뢰구간 전체가 포함되어 TOST를 통과한다. 즉 Jan G#4에서는 윤곽 축에서 S 조건만이 ‘충족(동등성 성립)’을 달성하며, 동일 음정의 DSPL 및 H2-H1이 여전히 목표 대역 밖에 머무는 상황에서도 상위대역 윤곽은 S에서 우선적으로 정상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링 형상에 따라 상위대역이 선택적으로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적어도 G#4에서 S가 “윤곽 정상화”의 가장 직접적인 해법으로 기능한다. 반대로 A#4에서는 평균(H4-H5)에서 조건 간 상충이 뚜렷하다. X가 -49.30 dB로 목표 대역 하측에 위치하는 가운데, S는 -46.71 dB로 X 대비 +2.58 dB 상승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목표 근접을 보인다($p \ll 0.001$). 그러나 L은 -52.52 dB로 X 대비 -3.23 dB 하향되어($p \ll$

0.001) 윤곽 축에서 실질적 악화가 발생한다. 즉 A#4에서 S는 윤곽을 “완만하게 개선”하는 반면, L은 저차 축(일부 개선)과 달리 상위대역에서는 감쇠를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음색의 외곽선이 더 흐려질 위험을 내포한다. 이 패턴은 DSPL 절에서 강조된 “S의 안정적 정상화, L의 강한 교정”이라는 구도와 달리, 윤곽 축에서는 L이 반드시 이점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오히려 음정에 따라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Bb4에서는 평균(H4-H5)가 X(-45.83 dB)에서 S 조건으로 약 +0.788 dB 상향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며, 목표 중심까지의 거리도 감소한다. 반면 L은 +0.632 dB 상승으로 경향 수준에 머물러 유의성 확보가 제한되어, 윤곽 축에서는 S가 보다 안정적인 개선 조건으로 해석된다. 다만 두 조건 모두 절댓값은 목표 대역에 진입하지 못하므로, Bb4에서의 상위대역 윤곽은 “부분적 근접”에 해당하며, DSPL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윤곽의 절대 회복은 후속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된다.

C5에서는 평균(H4-H5)가 두 링에서 모두 비교적 일관된 개선을 보인다. X가 -56.32 dB로 하측에 깊게 이탈한 상태에서, S(-53.19 dB)와 L(-52.83 dB)은 각각 약 +3.13 dB, +3.48 dB 상승하여 목표 중심까지의 ΔD 를 유의하게 축소한다(각 $p < 0.001$). 이는 고역 음정에서 저차 지표(H2-H1)는 정체되거나 악화될 수 있음에도, 상위대역 윤곽은 링 개입으로 일정 부분 회복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그러나 이 역시 목표 대역의 동등성으로까지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해석상 “개선(근접)”에 머문다.

종합하면, 평균(H4-H5) 분석은 링 개입이 상위대역 윤곽을 항상 동일한 방향으로 교정하지 않으며, 음정별로 “충족이 가능한 경우(G#4의 S)”와 “조건 상충이 발생하는 경우(A#4의 L 악화)”가 뚜렷하게 분리됨을 보여준다. 따라서 평균(H4-H5)은 DSPL처럼 빠른 정상화 지표라기보다, 음정과 형상 조건에 민감한 윤곽 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며, DSPL의 정상화가 확보된 이후에도 평균(H4-H5)를 목표 대역으로 수렴시키

기 위해서는 S와 L 선택을 음정별로 달리 적용하거나, 상위대역에서의 과도한 감쇠 혹은 과도한 상승을 피하는 보수적 미세 조정 전략이 요구된다.

3) 아들러링 부착 조건에 따른 제트-엣지 유동 구조 비교 분석

본 절에서는 Jan 헤드조인트에서 윙 미부착(X)과 부착(S, L) 조건을 비교하여, 제트-엣지 결합 이후 유동 구조의 재편 양상을 정량, 정성적으로 분석한다. CFD는 ANSYS Fluent 기반 정상상태 해석으로 수행하였으며, 유량 조건은 동일한 값으로 고정하여 조건을 통제하였다. 비교는 엣지 직후 유입, 엣지 전방 +5 mm 구간(면 평균/국소 피크), 윙 표면 전단층, 대표 단면, 출구 지표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기준 조건(X)에서는 제트가 엣지에 충돌한 뒤 보어로 유입되면서 좁고 또렷한 축 코어를 유지하는 전형적 패턴이 형성되며, 전방부(+5 mm)에서의 평균 및 국소 유속이 모두 낮아 “코어 유지형”의 기본 상태를 제시한다 (edge point 4.493 m/s, plane-9 0.052 m/s, point-10 1.373 m/s). 반면 윙을 부착한 조건에서는 엣지 직후 유입부의 가속과 전방부 속도 분포의 재조직화가 동시에 관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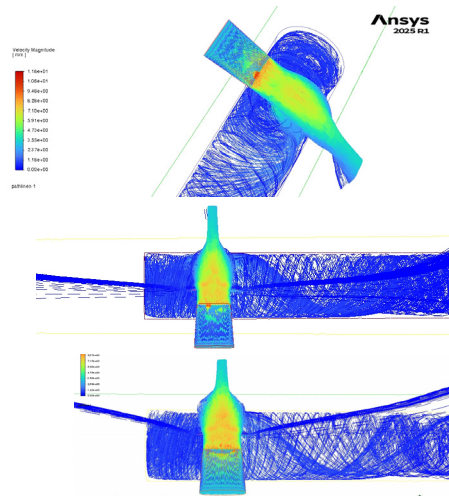
다음의 [표 2]는 Jan 헤드조인트의 주요 위치에서 측정한 유속 지표를 조건별로 요약한 결과이다.

[표 2] 아들러링 부착 조건별 유속 지표 분석 결과

지표	위치	X(m/s)	S(m/s)	L(m/s)
edge point	제트-엣지 타격 지점	4.493	5.578	5.405
outlet	보어 출구	0.069	0.070	0.072
plane-9	엣지 전방 +5 mm 면적	0.052	0.057	0.057
point-10	엣지 전방 +5 mm 지점	1.373	3.034	3.131
wing-left	좌측 윙	0.029	0.130	0.273
wing-right	우측 윙	0.026	0.178	0.224
x축 = -0.01457	윙 부착 외벽 단면	0.063	0.070	0.082
x축 = 0 m	보어 가로 중앙 단면	0.181	0.199	0.195
z축 = 0.1474 m	취구 세로 중앙 단면	0.811	0.885	0.8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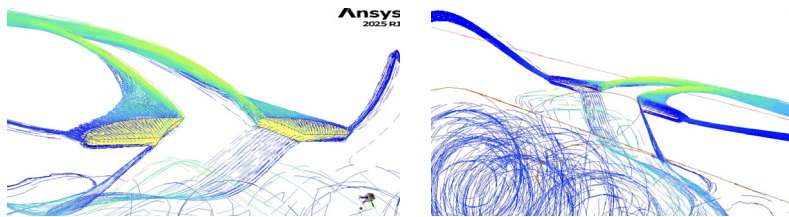
다음 [그림 4]는 윙 미부착(X)과 S, L 조건에서 제트 코어와 전단층의 형성, 그리고 에너지 분산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준다. 기준 조건(X)에서는 제트 코어가 좁고 또렷하게 유지되는 반면, S 조건에서는 코어 정렬과 전단층 유도를 통해 에너지 전달 효율이 증가하고, L 조건에서는 전단층의 강화와 혼합·확산이 두드러지며 유동 에너지의 공간적 재분배가 강화된다.

S 조건은 edge point가 5.578 m/s로 상승(+24.1%)하고 plane-9도 0.057 m/s로 증가(+9.6%)하지만, 특히 point-10이 3.034 m/s로 크게 증폭(+121%)되어 평면 평균의 완만한 상승과 국소 피크의 급증이 결합된 “코어 선택적 강화”의 양상을 보인다. 동시에 윙 표면 속도가 크게 증가(wing-left 0.130 m/s, wing-right 0.178 m/s)하여 엣지-윙 접경부에 전단층이 강화되었음을 뒷받침하며, 단면 평균도 일관되게 상승($x = 0$ m: 0.181→0.199 m/s, $z = 0.1474$ m: 0.811→0.885 m/s)해 국소 가속이 중심축 재집중으로 연쇄적으로 전파되는 경향을 시사한다. L 조건 역시 edge point(5.405 m/s, +20.3%)와 plane-9(0.057 m/s)의 상승이 확인되며, 특히 윙 표면 전단층이 더 강하게 발달한다(wing-left 0.273 m/s, wing-right 0.224 m/s). 또한 윙 부착 외벽 단면($x = -0.01457$ m)에서 0.082 m/s로 가장 큰 값을 보여, 윙 인근 국소 가속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정성적으로는 L에서 윙 표면을 따라 두꺼운 전단층이 길게 유지되고 후류에서 미세 와류가 연속적으로 발생해 혼합과 확산을 촉진하는 반면, S는 전단층의 연속성과 대칭성이 비교적 잘 유지되며 축 코어가 더 빠르게 정돈되는 경향을 보인다. 즉, S와 L은 모두 유입 가속과 전단층 강화를 유도하지만, S는 정렬 및 대칭성 유지 중심, L은 전단층 강화와 혼합·확산 강화 중심으로 재분포 성격이 구분된다.



[그림 4] Wing 미부착(X)과 S, L의 제트 코어, 전단층의 형성, 에너지 분산 양상

다음 [그림 5]는 S와 L 조건의 전단층 구조와 분산 양상을 비교 시각화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L 조건에서는 Wing 표면을 따라 두꺼운 전단층이 길게 발달하고 엣지 후류에서 미세 와류가 연속적으로 형성되어 혼합과 측방 확산이 강화된다. 반면 S 조건에서는 전단층의 연속성과 좌우 대칭성이 상대적으로 잘 유지되며, 축 인근의 고속 코어가 거리 대비 빠르게 정돈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



[그림 5] S와 L 조건의 전단층 구조와 분산 양상

다음은 출구(outlet) 면에 대한 분석 결과로, 평균 속도는 X 0.069 m/s, S 0.070 m/s, L 0.072 m/s로 변화 폭이 작아 전역 배출의 차이는 제한적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윙 부착의 핵심 효과는 출구 평균의 증감보다는, 엿지 직후와 전방(+5 mm), 윙 표면 및 단면 평균에서 일관되게 관측되는 속도 분포의 재조직화(코어/전단층 구조 재배치)로 요약된다.

4) 음향 분석과 제트 유동 분석 간 상관성 평가

본 논의는 역사악기 연주 실천에서 관찰되는 음색 불균질을, 유동장 지표(plane-9/point-10)와 배음 지표(DSPL, 평균(H4,H5)의 대응으로 재서술함으로써 ‘개선-과개입’의 경계를 설명 가능한 판정 기준으로 정리한다. 이를 위해 CFD에서 전방 평면의 면적 가중 평균 유입 속도(plane-9)와 동일 위치의 국소 피크(point-10), 그리고 윙 주변의 전단층 형성(wing 표면 유동)을 원인 변인으로 설정하여, 음향 결과를 단순한 ‘윙 효과’가 아닌 유동 구조 재편에 근거한 상관적 설명으로 제시한다. 또한 공명 주파수 변동(Δf)이 허용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관찰된 음색 변화가 음정의 요동이 아닌 제트-엿지 결합의 재정렬(평탄화, 피크 편향, 전단층 대칭성)에서 기인함을 해석의 기본 조건으로 둔다.

(1) DSPL 과상향 경계와 평균(H4-H5) 보강의 유동학적 조건

F4 음정에서는 DSPL과 point-10 사이의 증가 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즉, 엿지 전방 +5 mm에서의 국소 최고 유속(point-10)이 커질수록 DSPL이 함께 상승하며, 조건별로 $X < S < L$ 의 순서로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 관계는 DSPL을 개선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핵심 경로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과상향(상한 초과)의 위험을 내포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실제로 L 조건은 DSPL이 목표 대역 상한을 초과하여 과개입으로 판정되는 반면, S 조건은 목표 대역 내에서 정상화에 도달한다.

이러한 차이는 유동장 표지에서 설명될 수 있다. F4에서 L은 plane-9(면 평균)의 증가는 제한적인데 비해, point-10의 국소 피크가 증폭하고 윙 인접 전단층이 과도하게 발달하여 제트 코어가 피크 지배적 분포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국소 피크 편향은 유입 파형의 비정현성을 키

워 홀수 성분의 동반 상승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DSPL이 목표 범위를 넘어 밝기 편향으로 치우치게 된다. 반대로 S는 국소 피크의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렬·대칭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DSPL이 목표 대역에 안착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요컨대 F4는 DSPL 상승은 무조건적인 개선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 point-10 기반 상승이 임계점을 넘을 때 과상향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C5에서는 음색 변화가 저차 축의 급격한 이동보다는 평균(H4-H5)의 유의한 상승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는 청감적으로 윤곽과 존재감이 강화되는 방향의 변화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동장에서는 (i) 옛 지 전방 5 mm 평면에서 면적 기반 유입(plane-9)이 완만히 증가해 유입 에너지가 면적 차원에서 두터워지고, (ii) 워 주변에서 전단층이 정돈 및 강화되며 결합 이후 흐름이 보다 균일한 유입 구조로 재배치되는 조합으로 정합된다. 이때 핵심은 고역 윤곽의 상승이 반드시 국소 피크의 급증을 동반하지 않아도 달성될 수 있다는 점이며, 면 평균 기반의 안정적 유입과 더불어, 전단층 정돈이 고역 방사 경로를 균질화해 H4-H5 대역의 윤곽을 선택적으로 보강하는 메커니즘으로 해석된다. 다만 C5는 보여 임피던스, 지공 격자, 컷오프 주파수 등 구조적 제약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할 수 있어, 상위대역 윤곽이 우선 개선되더라도 DSPL의 완전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2) 음향-유동 상관 구조: 국소 피크 지배와 면적 평탄화 경로의 대비

음향-유동 상관은 크게 두 경로로 구분된다. 첫째, 피크 편향 경로는 옛 지 전방 +5 mm에서의 point-10(국소 피크)이 주도적으로 상승하고, 워 인접 전단층이 과도하게 발달하면서 제트 코어가 피크 지배적 분포로 재편될 때 나타난다. 이 경우 DSPL은 뚜렷하게 상승하여 개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으나, 상승 폭이 임계값을 넘으면 목표 상한을 초과하는 과상향 위험이 동반된다(대표적으로 F4의 L). 즉, 국소 피크의 증폭이 DSPL 상승의 주요 구동 요인으로 작동하는 동시에, 유입 파형의 비정현성 증가 및

홀수 성분의 동반 상승을 통해 짝-홀 균형을 밝기 편향 쪽으로 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와 위험이 결합된 경로로 해석된다. 반대로 S와 같이 전단층의 대칭성과 정렬이 비교적 유지되는 조건에서는 DSPL이 상승하더라도 목표 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할 여지가 커, 피크 편향 경로의 임계 관리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둘째, 평탄화·정돈 경로는 plane-9(면 평균) 기반 유입이 완만히 증가하고, 전단층이 연속적·대칭적으로 정돈되면서 유입 에너지가 특정 협류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고 면적 차원에서 두터워지는 방향으로 재분배될 때 나타난다. 이때 핵심은, 국소 피크의 과증가 없이도 평균(H4-H5)이 유의하게 상승하여 윤곽과 존재감이 안정적으로 보강될 수 있다는 점이다(대표적으로 C5). 다시 말해, 고역 윤곽의 강화는 point-10의 급격한 증폭이 아니라 면 평균 기반의 유입 안정화와 전단층의 정돈을 통해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청감적으로 날카로움의 과증폭 없이 윤곽만을 선택적으로 끌어올리는 보수적 개선 경로로 해석된다. 다만 C5와 같이 구조적 제약(임피던스, 컷오프, 지공 격자 등)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음정에서는, 고역 윤곽이 우선 개선되는 반면 DSPL의 완전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양상이 남을 수 있다.

따라서 아들러링의 효과는 보어의 출구 평균과 같은 단일 지표의 증감으로 대표되기보다, 전방 평면에서의 면 평균과 국소 피크의 상대적 균형, 그리고 윙 주변 전단층의 정돈과 과발달 여부에 의해 DSPL과 상위대역 윤곽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조되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히 동일한 유량 조건에서도 국소 피크 중심의 강화는 DSPL을 빠르게 이동시키되 과상향 위험을 키우는 반면, 면적 기반의 평탄화는 고역 윤곽을 안정적으로 보강하면서 음색 편향을 상대적으로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4. 연구의 결과

본 연구의 결과는 바로크 플루트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나타나는 배

음 구조의 편향이, 아들러링의 부착 여부로 단순 환원되기보다 제트-엣지 결합 이후 유동 구조가 어떻게 재편되는지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성과 임계 거동을 보인다는 점으로 요약된다. 음향 분석에서 DSPL은 홀수 배음 우세 경향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하는 축으로 나타났고, 기준 조건(X)에서 목표 대역 하측에 위치하던 값이 윈 부착 조건(S, L)에서 목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다수 음정에서 확인되었다. 다만 이 이동은 항상 “개선”으로 귀결되지 않았으며, F4에서처럼 S 조건은 목표 대역에 안착해 정상화 양상을 보인 반면 L 조건은 목표 상한을 초과하는 과상향으로 전이되어, 동일한 교정 방향의 누적이 특정 임계점을 넘을 경우 ‘개선-과개입’의 경계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상위대역 윤곽을 반영하는 평균(H4-H5)은 DSPL처럼 방향성이 일관되지 않았고, 음정별로 개선과 악화가 교차하는 비등방적 패턴이 두드러졌다. 예컨대 G#4에서는 S 조건이 목표 대역에 진입해 정상화가 확인된 반면, A#4에서는 L 조건이 윤곽 축에서 악화 방향으로 이동하는 상충이 관찰되었고, C5에서는 두 조건 모두 윤곽 축에서 개선 경향을 보이되 동등성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는 저차 배음 균형의 회복이 곧바로 상위대역 윤곽의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음정별 구조적 제약과 조건 민감성이 결과에 강하게 개입함을 시사한다.

유동 분석에서 윈 부착의 효과는 출구 평균 속도 같은 전역 지표보다, 엣지 직후 및 엣지 전방(+5 mm) 영역에서 속도 분포가 재조직화되는 양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준 조건(X)은 제트 코어가 비교적 좁게 유지되는 “코어 유지형” 상태를 보인 반면, S와 L 조건에서는 엣지 직후 유입 부 가속과 전방부 분포 재편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특히 S 조건은 전방면 평균(plane-9)의 완만한 증가와 국소 피크(point-10)의 뚜렷한 상승이 결합되면서도 전단층의 연속성과 좌우 대칭성이 비교적 유지되어 코어가 빠르게 정돈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L 조건은 윈 표면을 따라 전단층이 더 두텁고 길게 발달하고 후류에서 미세 와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혼합과 측방 확산이 강화되어, 동일 유량 조건에서도 유동 에너지의 재

분배 성격이 S(정렬, 대칭성 유지 중심)와 L(전단층 강화, 혼합 및 확산 중심)로 구분됨이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음향 결과와 병렬로 놓으면, 음색 변화는 유동장이 배음 구조와 윤곽 특성이 형성될 물리적 조건을 어떻게 재구성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즉, 국소 피크가 우세해 지고 전단층이 과도하게 발달하는 재편은 DSPL을 빠르게 이동시키는 동시에 과상향 위험을 키우는 경로가 될 수 있는 반면, 면 평균 기반 유입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전단층이 정돈되는 재편은 국소 피크의 급증 없이도 상위대역 윤곽 축의 보강이 나타날 수 있는 경로로 해석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바로크 플루트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관찰되는 음색적 편차를, 개입이 유동-음향 결합 조건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결과를 개선과 과개입을 재현 가능한 판정 기준으로 서술 가능하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둔다. 결론적으로, 바로크 플루트에 아들러링의 적용은 특정 음정에서 배음 구조의 편향을 완화하는 잠재력을 갖지만, 그 효과는 선형적이지 않으며 유동 구조의 재편 양상이 임계 수준을 넘는 순간 동일 방향의 변화가 곧바로 과개입으로 전이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바로크 플루트에 대한 물리적 보조 장치의 평가는 이분법적인 해석보다, 어떤 유동 재편이 어떤 음향 경향을 촉발하는지를 조건-의존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이 타당하다.

또한 본 연구는 역사악기 설계와 운용 논의가 흔히 ‘원전성의 보존’과 ‘현대적 효율의 개선’이라는 대립 구도에 머무르기 쉬운 점을 고려할 때, 그 중간 지점에서 적용 가능한 서술 전략을 제안한다. 즉, 개입의 범위를 규정하고 한계를 명시하는 설명 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악기의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물리적 개입을 논의할 수 있는 최소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크로스핑거링을 ‘결함’으로만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현대 연주 환경에서 문제로 지목되는 음향적 불안정성을 설명 가

능한 언어로 다루게 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연주 실천의 측면에서도 일정한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예컨대 크로스퍼킹 음정에서 나타나는 반응 지연이나 음색 편차를 완화하기 위해, 탈부착형 보조 구조를 활용하여 제트-엣지 결합 조건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접근이 실험적으로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는 연주자가 악기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특정 음정에서의 반응성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실천적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제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향후 연구에서는 개입 조건을 “크기”의 연속선상에서만 확장하기보다, 전단층의 정돈과 비대칭, 국소 집중과 면적 분배를 구분하는 잉의 곡률, 두께, 엣지 상대 위치 등과 같은 형상 변수를 중심으로 설계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과개입이 더 큰 개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 특정 형상 혹은 위치 조합에서 결합 조건이 급격히 바뀌는 임계 구조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특히 이러한 형상 변수 중심의 접근은 향후 바로크 플루트뿐 아니라 다양한 목관악기에서 적용 가능한 보조 장치 설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유동 구조를 고려한 악기 설계 및 음향 조정 전략을 탐색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유동-음향 연계의 판정 기준 제안을 강화하기 위해, 동일 조건에서의 반복 측정뿐 아니라 재료와 제작 공차, 취구 미세 형상과 같은 현실 변인을 포함한 재현성 검증이 요구된다. 역사악기는 개체차가 큰 만큼, 한 개체에서 도출된 판정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건성 또한 함께 제시해야 한다. 셋째, 음향 지표의 변화가 실제 청취 경험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에 대한 후속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시한 판정 기준은 정량적 설명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주자와 청자의 판단 기준이 어떤 지표 변화에 민감한지, 그리고 그 기준이 공연장과 레퍼토리 맥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포함해, 판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확장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론은 아들러윙이 특정 음정의 음향적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보다, 그 가능성을 어떤 유동 재편이 어떤 음향 경향을 낳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역사 악기에서의 물리적 개입을 미학적 판단이나 경험적 평가에만 의존하지 않고, 조건 및 의존적 경계와 한계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유동-음향 대응 분석 틀은 리코더, 휘슬, 오르간 파이프와 같이 공기 제트와 엷지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음향이 형성되는 flue 계열 악기 연구로도 확장될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접근은 향후 보조 장치 설계와 음향 조정 전략을 비교 가능한 분석 단위로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 Boehm, Theobald. *The Flute and Flute-Playing in Acoustical, Technical, and Artistic Aspects*, London: Rudall, Carte and Co., 1871.
- Brown, Rachel. *The Early Flute: A Practical Guid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Fletcher, Neville H. & Thomas D. Rossing. *The Physics of Musical Instruments*, 2nd ed., New York: Springer, 1998.
- Helmholtz, Hermann Ludwig Ferdinand von. *On the Sensations of Tone as a Physiological Basis for the Theory of Music*, trans. Alexander J. Ellis, London: Longmans, Green, 1875.
- Mattheson, Johann. *Der vollkommene Capellmeister*, Hamburg: Christian Herold, 1739.
- Taruskin, Richard. *Text and Act: Essays on Music and Performan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논문

- 고수진·김준, 「대금과 플루트의 배음 구조 비교 분석과 색청 현상 연구」, 『한국음향학회지』 33권 6호, 한국음향학회, 2014, 485-492쪽.
- 성기영, 「배음 분석을 통한 가상악기의 음색비교 - 소금과 플룻을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권 7호,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20, 299-307쪽.
- 승경훈, 「파가니니 <24개의 카프리스>의 플루트를 위한 트랜스크립션 비교 분석: 연주 기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음악학과 음악박사 학위논문, 2024.
- Celik, H. Kursat, Ali Bedel, Sevilay Gok, & Allan E. W. Rennie. "CFD Simulation of Air Flow Behaviour at Different Flow Rates in a Turkish Woodwind Instrument (Turkish Treble Recorder)", *Open Journal of Acoustics*, vol. 11, no. 1, 2021, pp. 1-16.

- Hirschberg, A. "Aeroacoustics of Confined Jets: With Applications to the Physical Modeling of Recorder-like Instruments", Ph.D. Dissertation, Eindhoven University of Technology, 1995.
- Kaykayoglu, Ruhi & Donald Rockwell. "Unstable Jet-Edge Interaction. Part 2: Multiple Frequency Pressure Fields", *Journal of Fluid Mechanics*, vol. 169, 1986, pp. 151-172.
- Onogi, Kimie, Hiroshi Yokoyama, & Akiyoshi Iida. "Effects of Jet Angle on Harmonic Structure of Sound Radiating from the Flute", *Acta Acustica*, vol. 5, 2021, Article 11.
- Wolfe, Joe & John Smith. "Cutoff Frequencies and Cross Fingerings in Baroque, Classical, and Modern Flutes", *The Journal of the Acoustical Society of America*, vol. 114, no. 4, 2003, pp. 2263-2272.
- Yoshikawa, Shigeru. "Vortices on Sound Generation and Dissipation in Musical Flue Instruments", In *Vortex Dynamics: Theories and Applications*, Springer, 202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바로크 플루트 크로스핑거링 음정에서 나타나는 배음 구조 불균질과 음색 불안정성을, 취구 제트-엣지 결합 이후 유동 구조 재편과 연동된 현상으로 해석하고 아들러윙(Adler wing)의 탈부착 개입이 유동-음향 조건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규명하였다. 윙 미부착(X)과 두 부착 조건(S, L)을 비교하였으며, 음향 지표로 DSPL(H2-H3)과 평균(H4-H5)을 설정해 일반 운지 분포 기반 목표 대역에 대한 동등성 검정(TOST, $\alpha = 0.05$)과 90% 신뢰구간으로 개선, 과개입을 판정하였다. 유동 분석은 동일 유량 조건의 CFD(ANSYS Fluent)로 수행하고 edge point, plane-9 (면 평균), point-10(국소 피크), 윙 전단층 등 지표를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DSPL은 다수 음정에서 목표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F4에서 S는 정상화에 도달한 반면 L은 과상향으로 전이되어 임계 거동을 확인하였다. 평균(H4-H5)은 음정별로 개선과 악화가 교차해 저차 균형 회복이 고역 윙곽 회복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유동 결과는 국소 피크 지배적 재편이 DSPL의 빠른 이동과 과개입 위험을 동반하는 반면, 면 평균 기반의 평탄화·정돈은 국소 피크의 급증 없이 상위대역 윙곽 보강 가능성을 갖는 경로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역사악기 보조 장치의 효과를 ‘개선-과개입’ 경계 판정 기준으로 서술 가능한 유동-음향 판정 틀로 제시한다.

주제어 • 바로크 플루트, 크로스핑거링, 아들러윙, 유동 분석, 배음 구조

■ Abstract

Cross-Analysis of Flow and Acousites for Timbral Non-Uniformity in Baroque Flute Cross-Fingered

Chun, Min Kyeong / Sungkyu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imbral instability in Baroque-flute cross-fingered notes as a coupled outcome of post jet-edge flow reorganization and acoustic change, and evaluates a detachable Adler wing intervention. Three conditions were compared: no wing (X) and two wing types (S, L). The acoustic indices were DSPL (H2-H3) and mean(H4-H5), assessed against target bands derived from standard fingering using TOST ($\alpha = 0.05$) with 90% confidence intervals. CFD under identical flow rate quantified edge-point velocity, plane-9 (area-averaged inflow), point-10 (local peak), and wing-induced shear-layer metrics. DSPL generally shifted toward the target range; however, for F4, S achieved normalization while L overshoot, indicating threshold behavior. mean(H4-H5) showed pitch-dependent improvements and degradations, suggesting that low-order balance does not guarantee recovery of upper-band contour. Flow results indicate that local-peak-dominant reorganization accelerates DSPL shifts but increases over-intervention risks, whereas area-averaged flattening with orderly shear layers can enhance upper-band contour without sharp peak growth. The study proposes an interpretable flow-acoustic rule framework to define “improvement-over-intervention” boundaries for historical-instrument auxiliaries.

Keyword • Baroque flute, cross-fingering, Alder wing, CFD, harmonic structure

■ 논문투고일:2026.01.29. ■ 심사완료일:2026.03.10. ■ 게재확정일:2026.03.16. ■

평생독서 확장으로서의 문학비평 활동 연구

김 동 주*

목 차

1. 서론
2. 평생독자와 문학비평
3. 문학비평 활동에 대한 고찰
4. 평생독자의 문학비평 활동 실제와 그 양상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본고는 평생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문학비평 활동을 이론적으로 논구한 후, 실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평생독자’란 생활 속에서 독서 행위를 바탕으로 계속해 발전하는 독자를 뜻한다.¹⁾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평생독자는 문학 활동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매년 노벨문학상 수상자 발표가 이뤄지면 관련 작가와 작품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다. 또한, 성인기의 평생독자들을 대상으로 두는 독서 모임이 형식을 막론하고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²⁾

* 김동주(제1저자, 교신저자) 공주교육대학교 강사

1) 정옥년, 「평생 독자의 성장과 교육적 지원」, 『독서연구』 43호, 한국독서학회, 2017.

2) 박지영, 『성인 유료 독서 모임의 독서 활동 증진 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류보라·백혜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성인 독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권 10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5.

‘문학비평’이란 용어 자체는 문학작품의 가치를 헤아리는 활동을 뜻한다. 누구든지 어떤 문학작품을 독서할 때 그 작품에 대한 나름의 호불호를 갖기 마련이다. 즉, 평생독자는 이미 문학비평에 가까운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문학비평은 평생독자와는 거리가 있는 활동으로 여겨진 경향이 없지 않다. 즉, 대학에서의 학술적 강단비평은 차치하고서라도, 사회적으로 비평은 주로 작가나 문화평론가 등에 의해 이뤄지는 특별한 활동으로 여겨져 온 것이다.

이는 평생독자에 관한 연구 동향에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여전히 수용 중심의 독서 행위에 초점이 두어져 있다. 대학생 독자가 매체에 따른 독서에서 얻는 감정을 분석한 연구³⁾, 성인기 평생독자의 독서 전략에 대한 연구⁴⁾, 평생 독자가 갖춰야 할 독서 습관에 대한 연구⁵⁾, 미디어 시대 교양교육으로서의 문학 읽기에 대한 연구⁶⁾ 등이 최근에 이뤄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동향과 더불어 독서 모임 속에서 사회적 존재로서의 평생독자의 역할을 논의한 연구⁷⁾도 있으나, 이 역시 독서 행위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평생독자가 수용 중심의 독서 행위에 그친다면, 그는 문학작품의 일방적 영향을 받는 수동적 행위자에 머물 것이다. 평생독자가 사회 속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지향하기 위해선, 문학작품에 대한 능동적 행위자로 발전해야 한다. 문학비평이 그러한 필요를 일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

3) 오은하, 「대학생 독자들이 느끼는 매체별 읽기 감정의 특성 분석 - 인쇄 텍스트 읽기와 디지털 텍스트 읽기 비교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185호, 한국어교육학회, 2024.

4) 최영인, 「성인 애독자의 독서 전략으로서의 병렬 독서에 대한 탐색 - 개념과 실천 기제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5권 5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5) 오은하·편지윤·백희정, 「‘완독’의 개념 정립을 위한 토대 연구」, 『독서연구』 77호, 한국독서학회, 2025.

6) 임인화, 「미디어 시대, 교양교육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방안 연구」, 『지식과 교양』 17호,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5, 451-505쪽.

7) 김금내,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과 문학교육적 함의」, 『국어교육학연구』 58권 2호, 국어교육학회, 2023.

다. 왜냐하면 문학비평은 본질적으로 문학작품의 가치를 평생독자가 나름대로 판단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평생독자는 문학비평 과정에서 문학작품에 대한 정교한 의사(意思)를 형성하고 사회적 소통의 바탕을 마련해 준다. 이때 평생독자는 미적 판단과 문학 담당층과의 소통을 모색할 것이기에, 수용 중심의 독서를 넘어서게 된다. 나아가, 평생독자는 그간 전문 영역의 특수한 활동이라 여겨지던 문학비평을 실천함으로써, ‘지식의 대중화’라는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평생독자의 비평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현 상황에서, 일반적인 수준의 논의를 펼치는 것은 설부른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선 문학비평의 실행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논구한 후, 그 사례에서 나타나는 양상에 대한 질적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장에서 평생독자와 문학비평의 관계를 먼저 논한다. 이를 바탕으로 3장에서 문학비평의 본질을 탐구한 후, 이에 따른 평생독자의 문학비평 활동 양상을 4장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2. 평생독자와 문학비평

여기서는 평생독자와 문학비평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둔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평생독자’는 과연 어떤 존재인지 살핀다. 그 다음으로 그러한 평생독자에게 문학비평이 어떤 효용을 갖는지 논한다. 이에 더해, 평생독자의 문학비평이 지향해야 할 지점과 한계점을 함께 살필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평생독자에게 문학비평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평생독자가 실천할 문학비평은 어떤 모습일지 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1) 평생독자의 성격

독서(讀書)란 문자 텍스트를 포함한 정보 매체를 이해(comprehension)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독서를 수행하는 존재가 바로 독자(讀者)이다.⁸⁾

독자는 크게 초중등교육 학령기의 ‘학습독자’와 그 이후 성인기의 ‘평생독자’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학습독자는 독서능력을 학습의 대상과 목표로 삼아 독서를 수행하는 독자를 뜻한다. 이들은 초중등학교의 교실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규정된 교육내용과 성취기준에 따라 독서 활동을 수행한다. 즉, 일반적으로 학습독자의 독서 행위는 자율적인 취미나 여가 활동이라기보단 특정한 교육목표를 향한 과업(課業)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평생독자는 일상 속에서 독서를 지속하는 가운데 전인적인 발전을 보이는 독자를 뜻한다.⁹⁾ 즉, 평생독자는 단지 독서를 취미로 삼는 사람 정도로만 볼 수 없다. 인간의 언어 활동과 의미 작용은 그 자신으로부터 사회적 참조를 지향하는 동안 점차 성장한다는 점¹⁰⁾에서, 평생독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살필 수 있다.

첫째, 독자와 비독자를 오가는 존재이다. 평생독자의 독서는 비연속적 이면서 비계획적이기도 하다¹¹⁾. 일차적으로 초중등교육 시기 이후, 독서에 대한 압력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평생독자 각자마다 독서 능력의 차이 역시 존재한다¹²⁾. 물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독서 이외의 여러 활동을 피할 수 없단 이유도 있을 것이다. 결국 평생독자가 독서를 이어 나가려면 ‘읽을거리’에 대한 흥미와 그에 따른 독서 욕구가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연계를 지속하려 노력하는 존재이다. 보통의 평생독자는 읽을거리를 얻을 때 그에 대한 세평을 참조하는 경향이 있다. 더욱 적극적인 평생독자는 다른 평생독자와 직접 만나 소통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8) 천경록·김혜정·류보라, 『독서 교육론(개정판)』, 역락, 2023.

9) 정옥년, 앞의 논문; 최영인, 앞의 논문.

10) 웅게러, F., 슈미트, H-J. 저,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개론(개정판)』, 태학사, 2010, 143-145쪽, 399-400쪽.

11) 최영인, 앞의 논문.

12) 평생독자 각자의 독서 능력의 차이는 단순히 개인적 인지차로만 치부할 순 없으며, 그 차이의 요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가령, 한 평생독자의 일상 여건이 독서 몰입에 영향을 끼친다면 그 평생독자는 자신의 독서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의 읽을거리는 금전적 값을 지니고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가운데, 독서 행위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여겨지는 것¹³⁾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평생독자는 상업적 유통 환경 속에서 읽을거리에 대한 ‘자신만의’ 값어치를 산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공중의 문화 현상에 참여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자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계속해 발전하는 존재이다. 평생독자는 독서역량을 성장시켜 자신의 삶을 가꿔나간다. 인간의 인지 능력은 특별한 교육적 중재 없이도 성장¹⁴⁾하기에, 비연속적이며 비계획적인 독서 역시 그 역량 향상과 상관이 있다. 또한 인간은 언어 속에서 사회적 활동을 수행하기에, 독서역량이 평생독자의 발전과 직결된다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물론, 평생독자에게 모든 읽을거리가 독서역량 성장과 삶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결국 평생독자는 의미 있는 경험하면서 새로운 경험으로서의 독서를 체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평생독자에 대한 문학비평의 효용

여기서는 앞 절에서 살핀 성격의 평생독자에게 문학비평은 과연 어떤 효용을 지니는지 논할 것이다. 이는 평생독자에 대한 문학비평 논의 필요의 정당성을 확보해 줄 것이다. 다만, 본고의 전개상 아직 문학비평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기에, ‘문학작품의 가치를 헤아리는 활동’이라는 일반적 의미의 문학비평이 지니는 효용을 논한다.

먼저, 문학비평은 평생독자의 흥미와 욕구를 자극해 독서 주기를 길게 유지시킬 수 있다. 어떤 문학작품과 관련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꽤나 원초적인 활동에서부터 시작된다. 즉, 한 작품 속에서 마음에 드는 인물이나 장면을 떠올려보거나 그 작품에 대한 호불호를 가늠해 보는 등의 활동이 바로 문학비평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출발점에서 평생독자는 특별한 계

13) 박지영, 앞의 학위논문.

14) Anderman, E., Anderman, L., & Ormrod, J. *Educational Psychology: Developing Learners*(11th ed.). Hoboken, Pearson, 2024, 25쪽.

획 없이 작품 텍스트의 표면을 따라 읽어나가는 것으로 일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즉, 평생독자는 자신이 독서하는 문학작품의 무엇에 어떠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작품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은 무엇인지 등에 주의해야만 한다. 이때 평생독자는 작품에 흥미를 갖고 비평을 이어가려는 욕구에 따라, 작품 독서의 빈도와 주기를 확장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문학비평은 평생독자 자신만의 관점을 갖추어 독서 문화에 기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 어떤 문학작품에 대해 가치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판단의 ‘관점’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은 평생독자 각각의 개인적 여건이나 인지적 바탕 등에 따라 형성된다. 즉, 가치 판단을 위해 관점은 평생독자 자신의 자아가 투영돼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의 독서 문화는 각자의 자아를 지닌 평생독자 여럿이 모여 형성된다. 이러한 독서문화는 일견 다양한 가치와 의견이 산포(散布)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현안과 공중의 언어 관습 등과 밀접히 관련돼 있기 때문에¹⁵⁾, 독서 문화 역시 평생독자들의 가치와 의견을 원동력으로 창조와 변주를 이루며 조금씩 진일보해 나간다. 즉, 문학비평은 평생독자가 자신의 자아로부터 나름의 관점을 갖추고 독서 문화에 참여해 이것의 진보에 기여하는 계기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학비평은 독서 활동에서 얻는 체험의 폭과 깊이를 확장해 전인적 발전에 이르도록 한다. 문학작품의 가치를 헤아린다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관심은 작품의 표면적 요소나 내용과 같은 객관적 조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독자 자신에게도 향하게 된다. 즉, 자기 자신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특정한 가치를 산정했는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는 수용 중심의 수동적인 독서에서 벗어나 판단과 의미 생성이라는 능동적인 독서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사회인으로서의 평생독자는 일상에서 직장에서

15) 레이코프, G., 존스, M. 저,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박이정, 2006, 251-253쪽.

나 미디어로부터 수많은 의미와 정보를 전달받는 입장에 놓인다. 이때 그것들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역량만을 지닌다면, 그 평생독자는 자신만의 삶을 가꿔나갈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반면, 자신이 마주치는 정보와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의미를 해석한다면, 삶의 주인으로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문학비평은 평생독자가 독서 활동에서 새로운 의미를 구성해 가치 있는 경험을 통해, 전인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3) 평생독자에 대한 문학비평의 지향과 한계

앞선 장에서 간단히 언급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어떤 문학작품에 대한 의견을 형성하고 표명하는 수준의 활동은 이미 실천하고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보이려는 문학비평은 다소 구조화된 활동이라는 점에서 평생독자의 성격과 효용성 확보를 위한 지향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지향과 한계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평생독자를 위한 문학비평의 지평과 그 모습을 설정하는 일종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일단, 문학비평은 문학 독서의 동력으로 기능해야 한다. 즉, 평생독자가 큰 부담이나 인지적 부하를 느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독서하는 문학작품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는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이 평생독자의 연속적인 독서 활동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평생독자의 문학비평은 문학이론을 바탕으로 두거나 평론가들의 평론 구성에까지 이르는 어렵단 한계를 지닌다. 문학이론은 철학적 담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평론가들은 직업상 고도로 전문화된 평론을 작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학비평이 본질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요소를 도출하고, 평생독자가 그 요소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가운데 문학 독서에 대한 흥미와 욕구를 획득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문학비평은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즉, 평생독자는 자신 스스로 문학비평 활동을 수행하긴 하지만, 그 활동을 타인의 입장에서 점검하거나 타인과 공유하는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

이 평생독자가 사회적 독서 문화에 참여해 그의 비평이 사회적으로 인정 받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평생독자의 문학비평은 그 개인 내면에만 침잠해 가거나 반대로 무한히 발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닌다. 지극히 개인적이거나 발산적인 가치판단은 다른 평생독자에게서나 문화적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평생독자의 문학비평은 그 스스로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적인 합리성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학비평은 평생독자의 독자적인 의미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즉, 평생독자는 단지 문학작품에 관한 가치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의견이나 간단한 독후감 등을 표현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가치 판단 결과를 어느 정도의 형태를 갖추어 구체화하는 것은 독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주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평생독자가 나타낼 수 있는 단편적인 감정 표출이나 명료하지 못한 해석 등은 문학비평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어렵단 한계가 따른다. 이러한 일회적인 반응은 문학작품의 극히 일부에만 한정되거나 타당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¹⁶⁾. 따라서, 평생독자의 문학비평은 그의 독자적인 의미가 구체적인 형태로 구성되도록 이뤄져야 한다.

3. 문학비평 활동에 대한 고찰

여기서는 문학비평을 이론적으로 조망하면서 그것의 본질적 요소를 밝히고, 평생독자가 문학비평을 실행하는 방식은 어떠할지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앞선 장들에서 살핀 것처럼, 전문가의 평론이나 평생독자가 부지불식간에 행하는 거친 형태의 가치 판단 등 주위에선 이미 비평과 관련된 여러 사태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비평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려는 이유는, 개별적 사태에 대한 귀납으로부터 문학비평의 일반적이며 본질적인 모습을 얻기 힘들기 때문이다. 물론, 이론적 고찰에서 확인

16) 성은혜, 『내러티브 기반 문학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되는 문학비평의 본질적 모습은 ‘평생독자’와 거리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그러한 본질적 모습을 평생독자가 어떻게 실제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식도 함께 논구할 것이다.

1) 문학비평의 본질적 요소

문학비평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다양하다. 문학작품과 심미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독서활동으로서의 ‘비평’, 그러한 활동의 결과물로서의 ‘비평(문)’, 그 활동이 바탕에 두고 있는 근거 혹은 배경인 ‘비평이론’ 등이 있다.¹⁷⁾ 이 중 본고는 독서활동으로서의 비평에 주목한다. 왜냐하면 이미 앞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본고는 전문적인 평론 작성이나 문학기론 학습이 아닌 평생독자가 문학비평을 직접 실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전문 혹은 학술 이외의 비평에 대한 그간의 논의는 생산론, 구조론, 반영론, 수용론 등 ‘비평이론’에 초점을 맞춰온 경향이 있다.¹⁸⁾ 그러한 비평이론은 “여러 형식의 문학비평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가정이나 가치”를 뜻하므로¹⁹⁾, 이 ‘이론’은 어떤 문학비평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취해진 ‘관점’과 같다. 결국, 관점으로서의 ‘비평이론’만으론 실천적인 문학비평이나 비평의 본질적 모습을 확인하는 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본고는 위와 같은 비평이론보다는 ‘비평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주목하려 한다.

우선, L. 타이슨(Tyson)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비평이 무엇인지 정의한다. 그는 문학비평을 “문학 작품의 의미와 구성, 아름다움 등을 설명하”는 활동이라고 보았다²⁰⁾. 다소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 이 정의 중, “의미와 구성, 아름다움 등”이란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심미적 가치에

17) 타이슨, L. 저, 윤동구 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34-36쪽; 김혜련·김혜숙, 「비평(批評)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국어교육』 147호, 한국어교육학회, 2014.

18) 정재찬 외, 『문학교육개론 I : 이론편』, 역락, 2014, 97쪽.

19) 타이슨, L. 저, 위의 역서, 35쪽.

20) 타이슨, L. 저, 위의 역서, 34쪽.

대한 평가가 이뤄질 때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다. 또한, 이들을 “설명”하려면 앞선 평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합리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비평을 이론적으로 논의한 M. 크리거(Krieger)의 입장은 타이슨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크리거는 비평 행위자의 임무를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과 발견”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과 발견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합리화”하는 활동이 바로 문학비평이라고 보았다²¹⁾. 이러한 문학비평은 문학작품의 ‘가치’로부터 벗어날 수 없으므로²²⁾, ‘분석과 발견’은 그러한 가치를 중심에 둔 평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위 논의들에서 문학비평의 본질적 요소는 크게 두 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요소는 ‘평가’이다. 평가는 타이슨과 크리거의 논의 모두에서 처럼, 문학작품이나 그 속의 여러 측면에 대한 가치를 헤아리는 행위이다. 이를테면, 의미의 적절함, 구성의 수준, 내용의 아름다움 등과 같은 것들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문학비평에서의 ‘평가’는 문학작품의 구조나 의미에 대한 품평에만 그치지 않는다. 비평 행위자의 의식을 정치하게 살피고자 한 G. 폴레(Poulet)는 문학비평의 평가는 궁극적으로 문학작품에 대한 공감적, 의식적 체험과 같다고 본다²³⁾. 즉, 문학비평의 평가는 구조나 의미 같은 작품의 객관적 조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비평 행위자 각자의 가치 체계에 의해 그의 내면에서 이뤄져야 한다.

한편 타이슨과 크리거 모두 이 ‘평가’가 타인에게 설명된다는 점을 전제한다. 타이슨의 논의에서 문학작품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한다는 것은, 비평 행위자가 자신의 ‘평가’를 타인에게 제시하고 공유한다는 것을 뜻한다.

21) 크리거, M. 저, 윤호병 역, 『비평의 이론 - 전통과 그 체계』, 현대미학사, 2005, 26-28쪽.

22) 크리거, M. 저, 위의 역서, 2005, 35쪽.

23) 폴레, G. 저, 조한경·이현진 역, 『비평적 의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426-429쪽.

하지만 비평 행위자의 내면에서 이루어질 ‘평가’가 곧바로 타인에게 설명되리라 보긴 어렵다. 즉, 설명 이전에 ‘평가’와 그 결과에 대한 점검과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만일, 이 점검과 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평가’나 그 결과는 설명을 위한 호소력을 지니기 어려워, 결국 타인과의 대화 역시 시작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문학비평의 두 번째 본질적 요소는 ‘합리화’라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크리거는 이미 ‘합리화’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해 이것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는 비평 행위자의 내면에서 그의 가치 체계를 따르기에, 내재적이고 자의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 크리거는 ‘유아독존주의’라는 용어로 경계한다²⁴⁾. 즉, 문학작품에 대한 평가 행위와 그에 따른 내용은 타인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합리화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래의 문학비평 연구자들은 21세기 들어 관점으로서의 비평이론이 미분화되는 상황에서도 사회성이나 대화적 성격만큼은 각 이론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경향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본다²⁵⁾. 이는 문학비평이 본질적으로 사회적 소통 활동을 지향해야 한다는 점과 각 비평 행위자의 평가와 그 내용이 소통되도록 합리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해 준다.

이상의 고찰에서 문학비평은 “문학작품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합리화’하는 활동”임이 드러났다. ‘평가’는 ‘문학작품 혹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가치를 헤아리는 행위’이고, ‘합리화’는 ‘평가 결과를 소통 가능성 혹은 소통 상황에 비추어 점검, 조정하는 행위’이다. 이 ‘평가’와 ‘합리화’는 ‘비평’의 본질적 요소인 것이다.

2) 문학비평의 실행 방식

앞절의 논의에서 문학비평의 본질적 요소가 ‘평가’와 ‘합리화’ 행위임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평생독자가 문학비평을 수행한다는 것은 평가와

24) 크리거, M. 저, 위의 역서, 2005, 102쪽.

25) Leitch, V., et al. *The Norton Anthology of Theory and Criticism*(3rd edi.). NewYork, Norton & Company., p.6-7.

합리화 행위를 수행한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는 ‘평가’와 ‘합리화’를 중심으로 평생독자가 문학비평을 실행하는 일반적 방식을 보일 것이다.

비평의 본질적 요소인 ‘평가’와 ‘합리화’는 뗄 수 없으면서 다소의 선후 관계를 맺고 있다. 평생독자가 우선 ‘평가’를 행한 후 ‘합리화’를 행할 수 있어, ‘평가’는 ‘합리화’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평가’의 방식을 먼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평가’는 문학작품 혹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의 가치를 헤아리는 행위다. 이는 평생독자가 지닌 ‘기준’에 따라 수행되며 평가 결과를 생성한다. 기준은 평가 결과를 가른다는 점에서, 기준의 성격이 평가 행위나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즉, 평생독자가 어떤 성격의 기준을 택하는지에 따라 ‘평가’의 유형이 좌우된다.

그런데 크리거는 비평 행위자의 내면에 ‘내적 개인(person)’과 ‘시적 자아(Persona)’가 공존한다고 본다. 크리거의 내적 개인은 개인적인 작품 감상 경험에 집중하려는 성격이고, 시적 자아는 사회문화적으로 합의된 행위로서의 비평을 완수하려는 성격이다. 크리거는 이 두 입장이 일종의 경쟁을 벌이며, 더욱 적절한 설명을 추구하는 것이 비평 활동의 관건으로 본다²⁶⁾.

이런 크리거의 논의는 평가를 위한 기준이 평생독자 내·외부와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독서활동에서 내적 개인과 시적 자아 각각의 경쟁은 문학작품을 마주한 평생독자와 독서 문화 속 기대 지평에 속한 평생독자 사이의 경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생독자는 작품 내용과 형식을 즐기려는 내면의 욕망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독서 문화와 같은 일종의 주변 환경의 기대 지평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도 있다. 즉, 평생독자가 택할 평가 기준의 성격은 그의 내면과 환경과 관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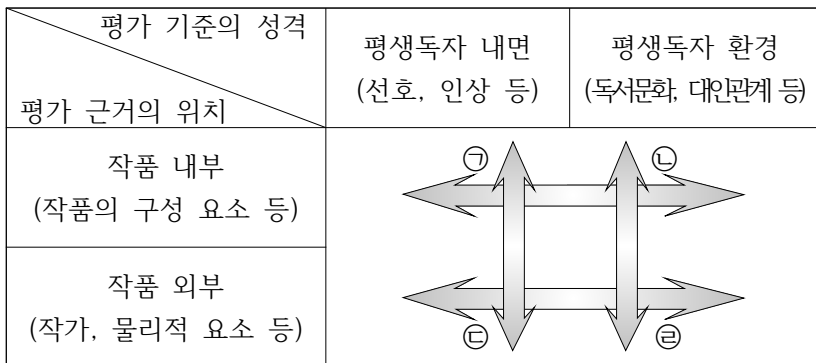
한편, 문학비평의 평가 행위가 타인에 대한 설명력을 지니려면 적절한

26) 크리거, M. 저, 위의 역서, 2005, 105-106쪽.

평가 ‘근거’를 갖춰야 한다. 평가 근거는 평가 기준의 성격과는 어느 정도 독립돼야 한다. 평가 기준은 가치를 헤아리기 위한 바탕이고, 평가 근거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만일, 평가 기준이 근거로까지 혼용된다면, 그러한 평가 행위는 설명력을 갖추기는커녕, 신뢰의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그렇다면 평가 근거는 평가 기준의 성격과 관련된 평생독자와는 독립된 위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평생독자에게서 독립된 위치는 바로 문학작품이다. 문학작품은 문학비평의 대상이면서 독서 상황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평생독자와는 무관히 생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가 근거의 위치를 문학작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문학작품은 다소 물리적인 내부와 맥락적인 외부로 이뤄진다. 즉, 문학작품의 내부란 작품 내용, 구조와 같은 형태를 갖춘 다소 객관적 위치이다. 반대로 문학작품의 외부는 작가에 대한 정보, 용어나 장르 규범 같은 문학지식, 작품의 전달 양태 등 맥락적 위치이다. 결국, 평가 근거의 위치는 이러한 문학작품의 내부 혹은 외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평생독자가 행할 수 있는 ‘평가’의 유형

평생독자의 ‘평가’는 위에서 살핀 평가 기준과 평가 근거의 위치가 결합된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방식에선 평가의 여러 유형이 나타난다. 위의

[그림 1]은 평가 방식과 그 유형을 도기한 것이다.

평가 기준의 성격과 평가 근거의 위치는 분절되기보다 각각 평생독자, 작품과 관련돼 일종의 스펙트럼을 이룬다. 따라서 평생독자는 양단의 한 쪽에 기준이나 근거를 정할 수도 있고 그 사이에서 혼합된 기준이나 근거를 정할 수도 있다.

이러한 두 스펙트럼이 결합해 네 지점의 평가 유형([그림 1]의 ㉠, ㉡, ㉢, ㉣)이 나타난다. 이러한 유형은 ‘합리화’ 행위에 영향을 끼친다. 이를 테면, 평가가 ㉣에 가까운 유형으로 나타났다면, 평생독자는 자신의 외부 환경과 작품 외부에서 합리화의 출발점을 찾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평가’ 이후 이뤄질 ‘합리화’의 실행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합리화’는 평가 결과를 소통 가능성 혹은 소통 상황에 비추어 보아 점검, 조정하는 행위다.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비평은 ‘설명’을 전제로 하는 문학 활동이라는 점에서 ‘합리화’는 내실있는 문학비평의 관건이다.

독서 상황을 상기해보면 ‘합리화’는 두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 첫째로, 평생독자는 수용 중심의 독서를 하더라도 독서 문화를 의식하며 문학 작품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로, 평생독자는 어떤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SNS 게시물이나 대면한 다른 독자 등에게 표현하기도 한다. 즉, ‘합리화’ 역시 소통 가능성을 고려하는 평생독자 자신 수준과 소통 상황을 고려하는 의사소통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평생독자 자신’ 수준은 합리화의 출발점이다. 이 수준의 합리화는 앞서 이뤄진 ‘평가’와 그 내용을 ‘소통 효과(effect)’에 비추어 점검, 조정하는 행위다. 소통 효과란 담화 관습과 밀접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성질이다²⁷⁾. 이 수준에서의 합리화는 평생독자 내면에서 이뤄지긴 하지만, 그가 수행한 평가 행위나 그 결과가 담화관습에 어느 정도로 부합하는지, 독서 문화 속 소통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등이 점검, 조정된다.

27) 웅게러, F., 슈미트, H-J. 저, 앞의 역서, 399-400쪽.

이후의 합리화는 ‘의사소통 수준’에서 이뤄진다. 이전 수준의 합리화가 소통 가능성을 타진한다 하더라도 평생독자의 내면에서 이뤄지기에, 실제 소통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 수준의 합리화는 소통 가능성을 지닌 평가 내용을 ‘소통 효율(efficiency)’에 비추어 다시 점검, 조정하는 행위다. 소통 효율은 의사소통 참여자가 소통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노력 정도와 관련된 성질이다²⁸⁾. 가령, 어떤 설명에 복잡한 부연이 필요해 과도한 인지 자원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소통 상황에 효율적으로 제시될 수 있도록 점검, 조정된다.

위와 같은 ‘평가’와 ‘합리화’의 방식에서 평생독자는 자신과 타인, 독서 문화의 입장을 오가며 독자적 의미로서의 ‘비평 내용’을 구성하게 된다. 물론, 평생독자에 따라 그 내용의 장단(長短)은 다르겠지만, 일정한 기준과 근거에서 비롯됐다는 점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논구한 문학비평의 실행 방식은 평생독자에게 새로운 경험이 되어 전인적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그러면, 이어지는 논의에선 위 방식에 따른 평생독자의 비평 활동에선 실제 어떤 양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4. 평생독자의 문학비평 활동 실재와 그 양상

여기서는 앞서 논구한 문학비평을 실제 평생독자에게 제시하고 이들이 보이는 양상을 질적으로 분석해 논의한다. 이는 평생독자에 대한 문학비평의 실행 가능성과 의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특정한 주제에 초점을 두는 단일 도구적 사례연구 방법을 따른다. 사례연구는 소수의 한정된 사례에 대한 기술과 분석에서도 학술적 결론의 도출이 가능하다고 보는 질적 방법론이다. 다만, 기술과 분석의 대상이 되는 사례는 일정한 한계(parameter)를 지녀야만 한다. 여기서의 한계란 사례가 도출되는 합리적인 여건을 뜻한다.²⁹⁾

28) 웅게러, F., 슈미트, H-J. 저, 앞의 역서, 400-401쪽.

본고의 4장에서는 ‘평생독자에 대한 문학비평의 실행 가능성과 의의’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며, 연구자가 밀접히 교섭할 수 있는 평생독자들을 연구 참여자로 삼고 이들에게 동질적인 문학비평 활동을 제시하여 사례의 한계를 확보한다. 이러한 방법론에 따라 연구자는 다양한 형식의 비평 내용, 면접 녹음물 등을 자료로 회수하고, 자료에 대한 질적 분석을 통해 평생독자가 보이는 문학비평의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초점을 맞춘 위 주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선, 평생독자의 문학비평 수행 과정을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표 1]과 같은 활동을 구성했다.

[표 1] 평생독자에 대한 문학비평 활동 개요

단위	활동	활동 내용
준비	생각과 느낌 정리하기	• 문학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정리하기
평가	평가 기준 정하기	• 평생독자 내면과 환경을 고려해 평가 기준 정하기 • 평가 내용 구상하기
	평가 근거 마련하기	• 작품 내부와 외부를 고려해 평가 근거 찾기 • 평가 내용 정교화하기
합리화	평가 내용 점검하기	• 소통 효과에 비추어 평가 내용 점검하기 • 독서 문화 속 세평과 비교하기
	점검 내용 최적화하기	• 소통 효율에 비추어 점검 내용 조정하기 • 불요불급한 내용 정선하기

기본적으로 문학비평의 본질적 요소인 ‘평가’와 ‘합리화’를 중심으로 이들이 실천되는 방식인 평가 기준과 근거, 합리화의 수준에 따라 활동을 구성했다. 다만, 문학비평 경험을 충분히 지니지 못했을 평생독자를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준비’ 단위를 설정했다.

‘평가’와 ‘합리화’ 단위는 앞 장에서 고찰한 문학비평의 본질적 요소에 따라 각각의 실행 방식이 실천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했다. 특히, 두 단

29) 크레스웰, J., 포스, C. 저, 조흥식 외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21, 140-141쪽.

위에 속하는 활동은 문학비평의 실행 방식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평가 내용 구상하기’나 ‘세평과 비교하기’ 등 평생독자가 특정한 독서 활동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문학비평 활동을 2025. 11.부터 2026. 1.의 기간에 [표 2]의 평생독자 4명에게 적용했다. 앞의 2장에 살핀 바와 같이, 평생독자는 일상에서 사회적인 독서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발전을 도모하는 존재이다. 이에 따라, 연구 실행 현재 일정한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율적인 의지를 갖고 독서 활동을 지속하는 이들을 잠재적 연구 참여자로 보고, 연구자가 연락 가능한 약간 명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타진했다. 참여 의사를 밝혀온 이들 중 연구자와 연구 진행 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할 수 있는 평생독자 4명을 최종적인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왜냐하면 위 활동에 대한 설명, 비평 내용의 회수, 활동 과정에 대한 질문 등이 충실히 이뤄지려면 연구자와 참여자가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표 2] 평생독자의 문학비평 실천 개황

순번	대상	비평 작품	‘평가’ 유형	구성한 비평 내용의 형태
1	참여자 1 (예비 대학생, 남성)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롤링, J.)』 ³⁰⁾	㉠	비평 노트
2	참여자 2 (30대 초반, 남성, 중등교사)	『어느 날 그는(한강)』 ³¹⁾	㉡	비평 노트
3	참여자 3 (20대 중반, 여성, 대학생, A독서모임 참여자)	『밝은 밤(최은영)』 ³²⁾	㉢	SNS 게시물
4	참여자 4 (20대 후반, 여성, 변리사, A독서모임 참여자)		㉣	독서모임 공유를 위한 독후감

30) 롤링, J. 저, 강동혁 역,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4』, 문학수첩, 2020.

31) 한강, 『어느 날 그는』, 문학과지성사, 2018.

한편, 적용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비평 내용이 구성될 수 있도록, 각 참여자가 중점을 둔 ‘평가’ 유형([그림 1]참조)을 배당했다. 이 유형은 각 참여자가 ‘평가’ 행위 시 주로 참고할 지점일 뿐, 비평 활동에선 다른 유형의 평가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즉, 유형에 따라 비평활동 혹은 내용 구성을 제한하진 않았다. 유형 배당은 각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되, 이들의 이해와 협의를 거쳐 이뤄졌다.

‘참여자 1’은 2026학년도 대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대학생으로 새내기 평생독자이다. 참여자 1은 성인으로서의 발돋움에 앞서 학창 시절 즐겨 읽었던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 편인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이하 해리포터)』에 대한 문학비평 활동을 수행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연구자는 참여자 1의 의사를 고려해, 그의 내면과 작품 내부와 관련된 ㉠ 평가 유형에 중점을 둔 비평 활동을 요청했다.

‘참여자 2’는 8년간의 경력을 지닌 일반사회 전공 중등교사로, 평소 독서를 즐기는 평생독자이다. 참여자 2는 202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 한강의 저작들을 찾아 읽던 중, 초기 소설 중 하나인 『어느 날 그는』에 대한 문학비평 활동을 수행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연구자는 참여자 2가 교사로서 학습자의 민주적 시민의식 발전, 사회적 관계 증진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위 환경 및 작품 내부와 관련된 ㉡ 평가 유형에 중점을 둔 비평 활동 수행을 요청했다.

‘참여자 3’과 ‘참여자 4’는 같은 독서모임에서 활동하는 평생독자다. 이들은 A독서모임에서 함께 읽는 『밝은 밤』에 대한 문학비평 활동을 수행하겠단 의사를 밝혔다. 『밝은 밤』은 가족의 치유와 회복을 그린 소설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문학작품으로 평가 받은 바 있다³²⁾. A독서모임에 공히 2년 가량 참여한 참여자 3과 참여자 4는 다소 능숙한 평생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2) 최은영, 『밝은 밤』, 문학동네, 2021.

33) 대산문화재단, 제29회 대산문학상 소설 부문 심사평, https://www.daesan.or.kr/business.html?d_code=3327&uid_h=484&view=history, 2026.01.27.

이 중 ‘참여자 3’은 곧 졸업을 앞둔 도예 및 유리 공예 전공 대학생이다. 연구자는 참여자 3이 내면의 사고와 감정을 자신 외부의 물리적 형태로 형상화하는 예술 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그의 내면 및 작품 외부와 관련된 ㉠ 평가 유형에 중점을 둔 비평 활동 수행을 요청했다.

‘참여자 4’는 본격적인 사회생활 4년 차에 접어든 변리사이다. 연구자는 참여자 4가 자신의 직무에 관한 기술적 문제에 고도의 형식논리를 적용하는 직종에 종사함을 고려해, 주위 환경 및 작품 외부와 관련된 ㉡ 평가 유형에 중점을 두어 비평 활동 수행을 요청했다.

연구자는 위의 각 참여자와 대면뿐 아니라 전화, 화상회의, 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긴밀한 연계를 유지했으며, 참여자 모두에게 식비, 교통비, 도서비 등을 포함한 소정의 연구 사례금을 지급했다.

각 참여자들은 비평 내용을 다양한 형태로 구성했다. 연구자 1과 2는 비교적 간단한 ‘비평 노트’ 형태, 연구자 3은 자신의 개인 SNS상에 어느 정도의 조직을 갖춘 글의 형태, 연구자 4는 A독서모임에서 공유하기 위한 독후감 형태로 비평 내용을 구성했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비평 내용은 물론,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을 회수했다. 연구자는 이러한 자료를 확인한 후, 참여자에게 비평 활동 수행, 비평 내용 구성 과정, 활동 소감 등을 질문했고 그에 대한 응답을 회수, 전사했다. 아래에서는 연구 참여자들로부터 회수한 자료를 질적으로 분석하며, 평생독자가 실천할 수 있는 문학비평 활동의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1) 평가 유형의 비평 관점화

일반적으로 비평 관점은 비평 활동에 필요한 방향과 지향점으로 여겨지며 ‘비평 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살폈듯 일상에서 독서를 하는 평생독자에게 비평 이론 수준의 비평 관점을 선택하고 그에 따라 비평 활동을 수행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평생독자의 비평 활동에선 외부의 비평 이론을 끌어오기보단 그 독자의 인지적

바탕이나 일상 환경 등에 따라 비평 관점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이다.

4명의 평생독자가 구성한 비평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들 모두 자신만의 비평 관점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비평 활동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이들은 평가 유형에 각자 자신 나름의 여건을 대입해 비평 관점을 마련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책은 ①중학교 시절 처음 접한 해리포터 시리즈의 마지막이다. ②원래는 책의 내용에 빠져들어서 신비하고 즐겁고 여운이 남게 읽었지만, 이번 기회에는 ③이 책의 여기저기를 따지듯이 읽었다. (중략) 그 대결은 호그와트 마법학교가 마치 전쟁터로 변하는 것에서 잘 알 수 있다. 겉으로만 보면 전쟁터로 변한 학교에서 ④해리포터의 죽음과 회복은 감동스럽게 보이고 나도 이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런데 ⑤여기서 펼쳐진 선과 악의 대결에는 학교보다도 더 큰 영국 마법정부 전체가 관여한다. ⑥해리포터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는 묘사 같다. (후략) <참여자 1-비평 내용 / 원문자, 밑줄, 강조 표기 - 연구자>

참여자 1은 ⑦평가 유형([그림 1] 참조)에 따라, ‘평생독자 내면’이란 평가 기준의 성격과 ‘작품 내부’란 평가 근거의 위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이는 평생독자가 읽는 문학작품이 선호할 만한 것인지, 그 작품에서 인상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돼 있다. 참여자 1의 비평 내용은 과거 경험과 현재 취한 평가 기준을 결합해 비평 관점을 마련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①과 ②에서 볼 수 있듯 과거의 참여자 1은 『해리포터』를 하나의 오락물로 즐겼을 뿐이다. 하지만 참여자 1이 자신 내면이란 평가 기준의 성격을 고려하자, ③에서처럼 『해리포터』의 ‘여기저기를 따지듯이’ 읽겠단 다짐을 드러내 보인다. 즉, 개인적 호불호나 인상성의 정도를 작품 속에서 근거를 찾아 읽어보겠단 관점을 스스로 마련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본격적인 비평 내용에 잘 반영되어 있다. ⑧에선 참여자 1이 과거와 같이 현재도 인상적으로 느낀 장면이 나타난다. 그런데 참여

자 1은 이에 대해 ㉔처럼 과거와 다른 비평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위와 같은 관점에 따라 ㉔에 나타난 근거를 따져 읽는 과정에서 찾았기 때문일 것이다.

㉔[공감과 배려. 대화와 인내. 요새 어딜 가든 누구에게나 필요한 덕목이라고 들 한다. 심지어는 사회생활에선 성공을 위해서 약간의 **치장된 공감이나 소통**에 대한 친밀함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이다. 우리 생활, 사회 속에서 그러한 요구가 **진짜 그것들을 위한 것일까?** 조금 풀어서 써보자면,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해.”라는 말이 상대방이 정말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해 그 상대방이 나에게 대한 공감을 좀 해줬으면 해.’라는 속마음을 달리 표현한 것일까? 나는 후자일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본다.]

(중략)

㉕[사실 최은영이란 작가의 책은 이 책이 처음이다. 우리 모임 참여자분들이나 인터넷 검색에서 이 작가는 이 책과 비슷한 다른 작품을 여럿 썼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작가는 진정한 대화, 함께 걸어가는 대화를 추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그런 식의 대화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 물론 두 번째 해석이 누군가의 감동을 반감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건 이해한다.]

㉖[하지만 이 두 갈림길은 위에서 처음 제기한 물음과 관련되어 있어서 지나칠 수 없다. 만일 그 작가가 두 번째 해석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은 우리는 아직도 사회적인 성공을 위한 대화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㉕이 책의 가치가 줄어들진 않는다. 치장된 대화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라면, 치장되지 않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더욱 갈망하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자 4-비평 내용 / 원문자, 밑줄, 강조 표기 - 연구자>

참여자 4는 ㉕평가 유형([그림 1] 참조)에 따라, ‘평생독자 환경’이란 평가 기준의 성격과 ‘작품 외부’란 평가 근거의 위치를 중점적으로 고려한 비평 활동을 수행했다. 이는 평생독자가 접하는 독서 문화나 일상에서 맺게 되는 인간관계 등에 비추어 문학작품이 어떠한지 헤아리되 그 근거를 작품 바깥의 작가나 유통환경, 표지 등 물리적 요소에서 찾는 유형이다.

참여자 4의 비평 내용 역시 그가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한 인간관계에 따라 비평 관점을 마련한 것을 보여준다.

참여자 4의 경험담처럼 보이는 ㉞에는 그가 마련한 비평 관점이 잘 담겨 있다. 참여자 4는 ‘치장된 공감이나 소통’이 진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즉, 그 ‘인간관계를 진정성 있게 그리고 있는지?’란 비평 관점을 마련한 것이다.

㉞에선 참여자 4가 마련한 비평 관점이 작가를 비평하는 데 적용된다. 그는 『밝은 밤』의 작가를 진정성 있는 인간관계를 추구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체하는 사람일 수도 있단 내용을 구성한다. 이러한 내용 구성에 비평 관점이 적용된 것은 ㉞에서 “(작가에 대한-연구자 주) 두 갈림길은 위에서 처음 제기한 물음과 관련되어”있다고 기술한 데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이 평생독자 각자가 평가 기준을 규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일견 평생독자의 자의에 좌우되는 활동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앞서 익히 논의했듯 평생독자에게 정치(精緻)한 문예 혹은 학술적 평론의 비평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그보다는 문학비평을 경험하며 평생독서의 확장을 지향하는 것이 평생독자에게 더 큰 효용을 지닐 것이다.

그리고 위 양상에 드러난 것처럼, 각 유형에 따른 ‘평가’ 행위가 평생독자 나름대로 이뤄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비평 관점으로 전환되며 독서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상당히 확보되었다. 즉, 평생독자의 유연한 ‘평가’ 행위는 독서 활동 전반의 든든한 기반이 된 것이다.

가령, 상대적으로 간단한 참여자 1의 비평 내용에선 그가 『해리포터』의 인상적인 부분에 집중은 하지만, 독서가 그러한 부분들이 적절한지 따져보는 과정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참여자 4의 비평 내용에선 그 참여자 나름의 비평 관점이 시종 적용되며, ㉞의 ㉞와 같은 구체적인 결론에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양상은 평생독자가 한 문학작품을 계획적으로 읽어가는

과정으로, 그 독자가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지니며 독서의 주기를 가능한 한 길게 늘어줄 수 있다. 즉, 나름의 비평 관점을 마련하는 문학비평은 평생독자로 하여금 독서의 동력으로 기능한 것이다.

2) 설득력을 갖춘 새로운 의미 조직

익히 살펴본 것처럼, 문학비평은 본질적으로 타인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하는 활동이다. 이는 학술 및 전문적 평론이나 평생독자의 비평 활동에서나 모두 마찬가지다. 후자의 비평 활동이라 할지라도 설명의 가능성을 품지 못한다면 독자 개인의 심사(心事)나 흥취 정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평생독자의 비평 활동 역시 설득력을 갖춰야 한다.

4명의 평생독자가 구성한 비평 내용과 이들의 비평 과정에 대한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이들 모두 다른 독자에의 전달을 전제로 설득력을 갖추고자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비평 과정에서 여러 의미를 취사선택하고 조정하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조직하는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 2가 비평 활동에서 생산한 메모 자료와 비평 내용 결과를 살펴보자.

- 인간관계의 성립과 단절. 그 과정에 가려진 뒷이야기들. 더해서 인물의 내면을 그렸다.
- 남녀관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을 겉으로는 인물 태식의 행동, 심사로 그렸지만, 태식의 거처로도 나타냈다.
- ①태식이 민화를 칼로 찌르는 장면은 충격적이다. 소설 전체 분량으로 볼 때 길지 않다.
- 인간 사이의 애정, 관계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인간인 인물뿐 아니라 장소로도 잘 그렸다고 보임. <참여자 2-활동 메모 자료 / 원문자, 밑줄 표기 - 연구자>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주체성을 가져야 하는 것을 잘 그린 작품이라 생각한다. 인간이 맺는 관계는 그것이 건강한지와는 별개로 다양하고 그 속의 인간

심사는 글로 쓸 수 없을 정도다. 이 작품은 그런 관계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과 함께 관계가 변화하는 데 가려진 뒷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주인공의 내면을 그렸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인간관계를 ‘인물’로만 그리지 않는다. 공간으로도 그린다. 반치하 자취방, 사무실의 소파, 고시원 십호실이 그렇다.

특히 고시원 십호실이 그려지는 마지막 5장은 마무리됐다는 느낌을 안 준다. 그러한 평들이 많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 태식이 “단단한 그림자”가 되어 그 그림자를 스스로 지켜보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태식이 관계에 매몰되는 것, 그 관계에서 겪은 ㉠파탄을 극복하고 홀로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장소가 바로 고시원 십호실인 것 같다.

“어느 날 그는”은 관계 맺음과 주체성이라는 서로 상대되는 지점을 인물에 얹힌 이야기와 장소로 군더더기 없이 그려낸 작품이다. <참여자2-비평 내용/원문자, 밑줄 표기 - 연구자>

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에 해당하는 메모가 비평 내용에선 ㉠처럼 ‘파탄’이라는 한 낱말로 축약돼 있을 뿐이다. 『어느 날 그는』에서 주인공인 태식이 애인 민화를 칼로 십여 차례 찌르는 장면은 작품 전개 측면에서 각 인물의 내면 상태가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인 동시에, 이 작품이 작가 한강의 대표적인 초기작으로 꼽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2는 이 장면을 단 두 음절의 한 낱말로 줄여버렸다. 이에 대해 연구자는 참여자 2에게 설명을 요청했다. 아래는 해당 부분을 전사한 것이다.

연구자: 선생님께서도 작품을 다 읽으셨으니 느끼셨겠지만 주인공 태식이 애인을 칼로 찌르는 장면이 있었죠.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참여자 2: ㉠[그 중간에 태식이가 가게에서 칼을 사는 장면이 있을 때부터 관심이 가긴 했죠. 그리고 한강이라는 작가의 성격상 조금은 예상이 되는 전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이 그 장면으로, 그리고 칼에 찔린 민화가 애인인 태식의 처벌을 원치 않는 장면 약간 클리셰처럼 보이긴 하지만 유명하죠. 비슷한 TV 드라마들도 예전에 있었던 듯 싶고.]

연구자: ㉔[제가 한강 작가의 창작 회고를 좀 찾아보았는데, 90년대 초반 실제로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작가도 그 뉴스를 보고 소설로 옮겨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여자 2: ㉕[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읽으면서 좀 이상했거든요. 아무리 작가여도, 한강이어도 그런 장면을 순전히 상상한다? 그렇다면 너무 비인간적인 것이 아닌지. 아무리 남녀 사이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고 싶어 했다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았어요.]

연구자: ㉖[그런데 보면, 선생님께서도 그 장면이 계속 눈에 밝히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 완성한 비평 노트를 보면 그 장면은 아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참여자 2: ㉗[아, 그렇진 않죠. 그 보면. 아 여기 ‘파탄’. 이게 그 장면을 담은 단어예요.]

연구자: 그래요. 선생님도 꽤 심사를 기울인 그 장면에 대해선 한 단어로, 아니면 그 장면의 내용은 아예 쓰지 않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참여자 2: ㉘[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는』이라는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칼을 사는 것부터 실제 사건이 벌어지는 때까지 그 이후의 병원에서 민화의 태도를 모를 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을 **유쾌하게 읽는 사람은 없겠죠**. 굳이 내가 쓸 비평 노트에도 그걸 반복해야 하나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게 그런 충격적인 장면은 태식이 마치 블랙홀과도 같았던 애인에게서 빠져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 정도라고 까지만 봐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짧게 쓰려다가 더 짧게 한 단어로 한 거죠. **도구에 불과한 충격을 내가 또 반복할 이유는 없는 거죠.**] <참여자 2와의 대화 전사자료 / 원문자, 강조 표기 - 연구자>

위 대화에서 참여자 2는 비평 내용에서 생략한 장면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㉗와 같이 관심이 간다거나 전개를 예상하기도 한 점이 그러하며, 연구자로부터 작가의 창작 경위에 대한 정보(㉔)를 제공받고 난 다음인 ㉕에선 해당 장면에 대해 상당히 깊게 사유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연구자가 해당 장면에 대한 언급이 비평 내용에 아예 없다고 지적하자(㉖), 참여자 2는 그렇지 않다고 바로 반박했다(㉗).

그렇게 주의를 기울인 장면을 스스로 축약한 이유는 ㉘에서 나타난다.

참여자 2는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는 자신 이외의 평생독자를 상정했고, “유쾌하게 읽는 사람은 없겠죠”라며 그들 역시 자신과 비슷한 심사를 얻었을 것이라 예상한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장면을 ‘도구에 불과한 충격’이라 정의하고 그것을 “또 반복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평 내용과 대화에서 참여자 2는 ‘합리화’ 행위에 의해 설득력을 갖춘 의미를 조직하려 했음을 살필 수 있다. 우선, 참여자 2는 자신 수준에서 소통 효과(effect)를 갖추고자 하였다. 위의 비평 내용을 보면 참여자 2는 여러 장소에 주목한다. 참여자 2는 그 내용에 대해 ‘장소는 인물과 사건의 배경이자 그들의 표상이다. 다른 독자들도 장소로부터 인물과 사건을 이해할 것 같다.’는 취지로 답했다. 즉, 참여자 2는 기본적인 문학 소양이나 담화 관습을 참조하는 자신 수준의 합리화 행위에서 비평 내용의 설득력을 갖추려 노력한 것이다.

또한, 참여자 2는 의사소통 수준에서 소통 효율(efficiency)을 확보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명확히 드러났듯, 참여자 2는 해당 장면을 자세히 풀어 놓는 것은 다른 독자 입장에서선 ‘반복’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즉, 그러한 반복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인지적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참여자 2는 의사소통 수준에서의 합리화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조정해 설득력 있는 의미를 조직하려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양상처럼 평생독자가 설득력을 갖춰나가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조직하는 것과 같다. 위에서 살핀 메모 자료, 대화 자료, 비평 내용을 보면, 설득력을 갖추는 것은 평생독자가 다양한 의미를 취사선택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의미는 계속해 변화하고 필요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인간의 언어 활동을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취사선택은 문학 작가의 작업과 매우 유사하다.³⁴⁾ 즉, 설득력을 목표로 의미를 취사선택하는 것은 기존의 의미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 새

34)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3, 200-202쪽.

로운 의미를 조직하는 활동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양상에서 조직되는 설득력을 지닌 새로운 의미는 평생독자가 몸담고 있는 독서 문화로 환류되어 그것의 확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즉, 문학비평 활동은 평생독자가 사회적 연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3) 독서 활동의 확장 모색

사회적으로 ‘비평’이나 ‘평론’이 특별한 활동으로 여겨지는 까닭은 그것이 수용 중심의 독서와는 질적인 차이를 지니기 때문일 것이다. 앞 절에서 보았듯, 평생독자의 비평 활동에는 ‘평가’와 ‘합리화’를 두 축으로 하는 독서 행위가 내재돼 있다. ‘평가’로부터 비평 관점을 마련했고, ‘합리화’를 추구하며 설득력을 갖춘 새로운 의미가 조직됐다. 이처럼 문학비평은 단순히 독서물의 내용을 파악하고 단편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닌 더욱 복합적이며 확장된 독서로 나아가려 한다.

4명의 평생독자가 구성한 비평 내용에서도 수용 중심의 독서로부터 더욱 확장된 양상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통상의 수용 중심 독서와는 꽤 거리가 있는 ㉔, ㉕평가 유형(그림 1] 참조) 중심의 비평 내용에서 그러한 확장이 잘 드러나 보인다. 우선, 참여자 3이 구성한 비평 내용의 일부를 살펴본다.

1. 최은영 작가의 “밝은 밤”은 ①요근래 읽었던 소설을 포함해 모든 책 중에서 ㉔가장 인상 깊고 읽으면서 정말 심금을 울린 책이었다.
2. 이 책은 독서모임에서 함께 읽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㉕최은영 작가의 다른 책들도 읽었는데, “내게 무해한 사람”이나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같은 책도 감수성을 자극하는 책이다. ⑥“밝은 밤”은 그런 감수성을 세대에 걸친 인물들의 이야기로 절절하게 보여준다.
3. 익숙한 최은영 작가의 책인데도 ③“밝은 밤”이란 제목을 처음 보고 어떤 내용일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밤이 밝다는 말도 그렇거니와 ④책의 표지는 새벽이나 노을이 끼기 시작한 때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런 궁금중

을 안고 책을 읽었고 읽는 도중에 ㉠슬픔과 무거움을 마주했지만 책을 다 읽을 때 즈음 “밝은 밤”이 어떤 뜻인지 알게 되었다.

㉠[4. 이 책의 슬픔은 끝없는 애통함이 아니다. 세대 사이 속 슬픔을 관통하는 연대, 그 연대의 도움을 받아 딛고 일어서서 서로 이해하고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다시 말해서 최은영 작가는 각각의 세대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라 이미 다른 작품에서 보여줬던 극복을 위한 하강을 그리는 것이 목표 아니었을까.] (후략) <참여자3-비평 내용 / 원문자, 밑줄, 강조 표기 - 연구자>

참여자 3은 ‘평생독자 내면’이라는 평가 기준과 ‘작품 내부’란 평가 근거의 위치와 관련된 ㉠평가 유형에 따라 『밝은 밤』에 대한 문학비평을 수행했다. 참여자 3은 그 결과를 개인 SNS 계정에 개조식으로 정리해 게시했다.

그러한 문학비평에서 참여자 3은 ‘작품 간’ 독서의 양상을 보인다. ①에서는 최근래에 독서한 책들을, ②에서는 『밝은 밤』의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인 『내게 무해한 사람』과 『아주 희미한 빛으로도』를 상기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자 3은 『밝은 밤』의 바깥에서 『밝은 밤』의 가치를 헤아린다(㉠, ㉡).

또한, 참여자 3은 『밝은 밤』의 물리적인 요소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비평 내용을 구성했다. ③과 ④처럼, 참여자 3은 물리적인 표지에 관심을 두었다. 그리고 이것과 『밝은 밤』의 지배적인 분위기인 “슬픔과 무거움” 간의 관계에 주목하며 ㉡와 같은 나름의 입장을 제시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검토를 참여자 3에게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아래는 해당 부분을 전사한 것이다.

연구자: (검토 내용 설명 이후) 이에 대한 ○○씨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까요? 가령, 기존의 독서 방식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성취가 있었는지.

참여자 3: 사실 독서모임이라는 게 참여 비용도 있고 시간을 내야 하는 것도 있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많은 양의 책을 읽으려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책을 읽으면 그 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는 게 있긴 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뭐

랄까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 그 부분을 의식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이 책 하나만 보면 안 되겠단 생각이 들긴 했어요.

연구자: 그런가요? 만일 평가의 근거를 작품 외부 그러니까 가급적 이 『밤은 밤』 바깥에서 찾아보라고 요구했으니까 그런 것 아닐까요? 만약에 이 책 안에서만 찾아보라고 했으면 어땠을 것 같나요?

참여자 3: ㉠아 그쵸. 다른 유형도 있었죠. 이 책 안에서만 이런 내용들의 근거를 찾으라 해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밤은 밤』이 보여주는 여기에 쓴 ‘극복을 위한 하강’이라는 것은 이 책 안의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뛰어난 것이긴 하지만 ㉡다른 책과의 비교를 해야 더더욱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원래가 이런 소설을 포함해서 예술을 평가한다는 건 다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연구자: 그러면 다시 좀 돌아가서, 평소 ○○씨가 독서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독서모임 이외에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그런 기회를 말해요. 그리고 이런 (문학비평 - 연구자 주) 활동 사이의 차이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참여자 3: ㉢독서모임을 벗어나서 평소에 책을 읽을 때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읽으면 아주 단순하게 뭐가 좋다, 싫다 이런 느낌이 떠오르긴 하는데 확확 지나가버리고 책을 주욱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문학비평 - 연구자 주) 활동에서는 ㉤그런 느낌을 적어두고, ㉥또 단순히 좋다, 싫다만 딱 써 놓을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뭔가를 끌어와서 말해야 하는 느낌? 그런 게 차이인 것 같아요. <참여자 2와의 대화 전사자료 / 원문자, 밑줄 표기 - 연구자>

이 대화에서 문학비평 활동은 수용 중심의 독서보다 질적으로 확장된 활동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첫째, 문학비평 활동은 확산적 독서를 모색한다. 참여자 3은 한 문학작품 내부를 중심으로 비평 활동을 수행한다 해도 다른 작품을 참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그 이유로는 어떤 작품에 대한 가치를 헤아리기 위해선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문학비평이 한 작품으로부터 유관한 다른 작품으로 확장하는 확산적 독서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둘째, 문학비평 활동은 입체적 독서를 모색한다. 참여자 3은 문학비평 활동은 한 문학작품에 대한 간단한 인상이라도 기록을 하고(㉤), 그 근거를 ‘최대한 끌어와서’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즉, 일회적인

감정 표출에 그칠 수 없으며, 그러한 감정의 근거를 작품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까지 끌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비평이 한 작품의 내적 요소에 국한되는 평면적 활동뿐 아니라 그 작품과 관련된 여러 요소를 입체적으로 고려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위 양상처럼 평생독자는 문학비평과 함께 독서의 범위와 능력을 발전시킨다. 단일한 문학작품에 매몰되지 않고 확산적이며 입체적인 확장은 평생독자가 한 작품의 일방적인 영향에서 벗어나는 독서이다. 즉, 문학비평은 평생독자가 어떤 ‘독서거리’를 능동적으로 대하도록 하여,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가꿔나가게 할 수 있다.

5. 결론

본고는 일반적으로 전문 영역이라 인식되는 문학비평을 평생독자가 수행할 수 있는 실천적 활동으로 보이고자 했다. 우선, 평생독자에 대한 문학비평의 효용과 지향 및 한계점을 확인하며, 문학비평을 평생독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고자 했다. 이와 함께, 평생독자가 문학비평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평의 본질적 요소와 그 요소의 실행 방식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그리고선 이러한 고찰에 따른 문학비평 활동을 4명의 평생독자에게 제시하고, 이들로부터 비평 내용 등의 자료를 회수했다. 그 결과 평생독자의 문학비평은 ‘평가 유형의 비평 관점화’, ‘설득력을 갖춘 새로운 의미 조직’, ‘독서 활동의 확장 모색’이란 양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각 양상은 평생독자에게 “일반적이고 계획적인 독서의 기회”, “사회적 연계에 따른 문학 문화 기여의 기회”, “확산적이고 입체적인 독서 속에서 삶을 가꾸는 기회”된다는 것을 논의했다.

본고는 문학비평을 평생독자의 수준에서 재구성하고, 그것을 실행 가능한 활동으로 보였다는 점에서 문학비평에 관한 교양교육과 평생교육 논의에 기초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고가 지니는 다음과 같은 한계는 추수 연구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비평활동의 대상이 현대소설에 국한된 한계가 있다. 다른 문학 장르나 논설문, 에세이 등 비문학적인 글에 대한 비평까지 다뤄지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추수 연구에선 다양한 문종에 대한 평생독자의 비평활동을 다루어, 평생독서의 폭을 더 넓게 조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고의 주제와 연구 방법에도 불구하고, 연구 참여자가 소수에 한정되어 제한된 자료에 대한 논의만 이뤄졌다는 한계가 있다. 결국, 본고에서 보인 가능성이나 양상을 일반화하기 어렵단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추수 연구는 더 많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양적 연구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참고문헌

단행본

- 나병철,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3.
- 레이코프, G., 존스, M. 저, 노양진·나익주 역, 『삶으로서의 은유(수정판)』, 박이정, 2006.
- 롤링, J. 저, 강동혁 역, 『해리포터와 죽음의 성물 1-4』, 문학수첩, 2020.
- 웅게러, F., 슈미트, H-J. 저, 임지룡·김동환 역, 『인지언어학 개론(개정판)』, 태학사, 2010.
- 정재찬·최인자·김근호·염은열·이지영·최미숙·김혜련·박용찬·남민우·김성진·조희정·박기범, 『문학교육개론 1: 이론편』, 역락, 2014.
- 천경록·김혜정·류보라, 『독서 교육론(개정판)』, 역락, 2023.
- 최은영, 『밝은 밤』, 문학동네, 2021.
- 크레스웰, J., 포스, C. 저,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공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21.
- 크리거, M. 저, 윤호병 역, 『비평의 이론 - 전통과 그 체계』, 현대미학사, 2005.
- 타이슨, L. 저, 윤동구 역, 『비평 이론의 모든 것』, 앨피, 2012.
- 풀레, G. 저, 조한경·이현진 역, 『비평적 의식』,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
- 한강, 『어느 날 그는』, 문학과지성사, 2018, 175-240쪽.
- Anderman, E., Anderman, L., & Ormrod, J. *Educational Psychology: Developing Learners(11th edi.)*. Hoboken, Pearson, 2024.
- Leitch, V., Cain, W., Finke, L., McGowan, J., Sharpley-Whiting, T., & Williams, J. *The Norton Anthology of Theory and Criticism(3rd edi.)*. NewYork, Norton & Company.

논문

- 김금내, 「집단 지성 형성 주체로서의 독자 역할과 문학교육적 함의」, 『국어교육학 연구』 58권 2호, 국어교육학회, 2023, 5-41쪽.
- 김혜련·김혜숙, 「‘비평(批評)’이라는 용어에 대한 반성적 고찰」, 『국어교육』 147호, 한국어교육학회, 2014, 267-303쪽.

- 류보라·백혜선,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본 성인 독서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5권 10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5, 449-464쪽.
- 박지영, 『성인 유료 독서 모임의 독서 활동 증진 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성은혜, 『내러티브 기반 문학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오은하, 「대학생 독자들이 느끼는 매체별 읽기 감정의 특성 분석 - 인쇄 텍스트 읽기와 디지털 텍스트 읽기 비교를 중심으로 -」, 『국어교육』 185호, 한국어교육학회, 2024, 33-86쪽.
- 오은하·편지윤·백희정, 「‘완독’의 개념 정립을 위한 토대 연구」, 『독서연구』 77호, 한국독서학회, 2025, 65-97쪽.
- 임인화, 「미디어 시대, 교양교육으로서 향유적 문학 읽기 교육 방안 연구」, 『지식과 교양』 17호, 목원대학교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5, 451-505쪽.
- 정옥년, 「평생 독자의 성장과 교육적 지원」, 『독서연구』 43호, 한국독서학회, 2017, 35-66쪽.
- 최영인, 「성인 애독자의 독서 전략으로서의 병렬 독서에 대한 탐색 - 개념과 실천 기제를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15권 5호, 한국리터러시학회, 2024, 421-461쪽.

인터넷 사이트

- 대산문화재단 - 제29회 대산문학상 소설 부문 심사평. https://www.daesan.or.kr/business.html?d_code=3327&uid_h=484&view=history, 2026.01.27.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평생독자의 비평활동을 논구하고 그 활동의 실제 양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평생독자와 문학비평의 관계를 살폈다. 평생독자는 생활 속에서 독서를 하며 계속 발전하는 독자를 뜻한다. 문학비평은 평생독자에 대해 독서 주기 유지, 독서 문화 참여, 전인적 발전이라는 효용을 지닌다. 이러한 효용의 문학비평은 평생독자가 독서의 동력을 얻고,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토록 하고, 독자적 의미를 형성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 한편, 문학비평은 ‘평가’와 ‘합리화’를 본질적 행위 요소로 지닌다. ‘평가’ 행위는 기준과 근거에 따라 수행될 수 있으며, ‘합리화’ 행위는 평생독자 내면과 실제 소통 수준에서 수행될 수 있다.

이러한 논구에 따른 문학비평 활동을 4명의 평생독자에게 제시하고, 그 활동 양상을 ‘평가 유형의 비평 관점화’, ‘설득력을 갖춘 새로운 의미 조직’, ‘독서 활동의 확장 모색’으로 논의했다. 각 양상은 평생독자에게 “일관적 및 계획적 독서 기회”, “사회적 연계와 문학 문화 기여 기회”, “확산 및 입체적인 독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상의 본고는 평생독자를 위한 비평활동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이 실제 평생독자에 의해 효용성 있게 작동함을 보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주제어 ● 평생독자, 평생독서, 문학비평, 비평교육, 독서교육, 문학교육

■ Abstract

Literary Criticism as an Expansion of Lifelong Readings

Dongju, Kim /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ritical activities of lifelong readers and explores the patterns through which such activities are enacted in practice. Lifelong readers are defined as individuals who continue to develop as readers through sustained engagement with reading in everyday life. The study conceptualizes literary criticism as consisting of two essential acts—evaluation and rationalization—through which lifelong readers form meanings while considering social acceptability and communication.

Based on this framework, literary criticism activities were designed and implemented with four lifelong readers, and the resulting practic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perspectivization of evaluative types, the organization of persuasive meanings, and the expansion of reading practices. These patterns suggest that literary criticism can provide lifelong readers with opportunities for sustained and reflective reading, social connection, and multidimensional literary engag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theoretically conceptualizes critical activities for lifelong readers and demonstrates their practical viability in actual reading contexts.

Keyword • lifelong reader, lifelong reading, literature criticism, criticism education, reading education, literary education

부산지역 바버숍 언어경관 연구*

윤 지 원·김 정 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논의
6. 결론 및 제언

1. 서론

공공 공간에 노출된 언어의 시각적 양상은 안내와 표지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사회 내부의 언어 위계, 문화적 정체성, 집단 간 관계를 드러내는 지표로 작동한다. 언어경관(linguistic landscape) 연구는 거리 표지판, 상업 간판, 공공 안내문 등에 나타난 언어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지역과 도시가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을 해석하는 사회언어학의 주요 연구 영역으로 자리 잡아 왔다(Landry & Bourhis, 1997).

언어경관 연구는 공공 표지의 언어 정책 가시화 문제에서 출발해 상업

* 본 연구는 2025년 한국프로젝트경영학회&한국혁신산업학회 공동학술대회 및 논문 발표회(2025.07.07.~09.,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윤지원(제1저자) 창신대학교 카리스교양대학 교수
김정원(교신저자) 영산대학교 미용예술학과 교수

공간과 일상적 소비 공간으로 분석 대상을 확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상업 간판은 개인·상업 주체의 선택이 비교적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표지 유형으로 주목되어 왔으며, 간판 언어는 정보 전달뿐 아니라 상점의 정체성과 소비자를 상징하는 방식, 나아가 지역의 문화적 분위기를 구성하는 자원으로 다루어져 왔다(Ben-Rafael et al., 2006; Shohamy & Gorter, 2009). 도심 상업지구의 다언어 표지와 영어·로마자 사용의 상징적 기능을 논의한 연구 또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축적되어 왔다(Backhaus, 2007; Cenoz & Gorter, 2006).

다만, 선행연구의 관심은 음식점, 카페, 관광 상점, 대형 상업 시설 등 특정 업종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왔고, 미용업소, 특히 바버숍(barbershop)을 독립적인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언어 선택과 작명 전략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버숍은 개인 서비스 업종이면서도 남성성, 스타일 문화, 장인성과 같은 상징적 의미가 강하게 결합되는 공간으로 인식되어 왔고, 이러한 업종 특성은 상호명과 간판 언어가 구성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동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바버숍은 ‘일상적 생활서비스’로서 업종을 즉시 인지시키려는 요구와, ‘남성성·취향·장인성’이 결합된 스타일 문화로서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요구가 동시에 작동하는 업종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호명에 나타난 언어 선택을 정보성(업종 명시)과 상징성(브랜드/무드)의 조정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국내 언어경관 연구는 대학가, 전통시장, 관광지, 신도심 등 공간 단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부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역사성, 관광화, 소비문화 변화가 간판 언어 선택과 표지 양식에 반영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부산은 항구 도시이자 관광 도시라는 맥락 속에서 주요 연구 사례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져 왔는데(정유리·강은지, 2024; 강은지·김태호, 2024; 강은지, 2024; 강은지, 2025a; 강은지, 2025b 등), 대체로 공간 단위 비교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 동일 도시

내부에서 특정 업종이 상권 맥락에 따라 어떤 언어 전략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본 연구는 부산 지역에 분포한 바버숍을 대상으로 상업 간판(상호명)에 나타난 언어경관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부산 지역 바버숍 상호명은 문자 유형과 언어 조합에서 어떤 분포를 보이는가?

둘째, 상호명에서 업종을 직접 지시하는 표지와 브랜드형(추상형) 명칭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며, 그 선택은 정보성·상징성의 균형과 어떻게 관련되는가?

셋째, 부산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라 바버숍 언어경관 전략은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언어경관 연구의 개념과 분석 관점

언어경관은 공공 공간에 제시된 언어 표지의 가시성(visibility)과 현저성(salience)을 통해 특정 지역의 언어 질서와 사회적 관계를 해석하는 연구 영역으로 정초되었다. Landry & Bourhis(1997)는 공공 도로 표지, 광고판, 거리·지명, 상점 간판, 정부 건물 표지 등 공적 공간에 제시되는 언어 표지를 포괄적으로 언어경관으로 정의하였으며, 이는 언어를 ‘말’이 아니라 ‘공간에 놓인 문자·기호’로 다루는 관점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표지의 언어 선택은 단순한 정보 제공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사회 집단 간 위계와 정체성 경쟁을 드러내는 지표로 작용할 수 있다.

언어경관 연구는 표지에 나타난 언어의 분포를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접근에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는 표지 생산 주체의 사회적 위치, 도시의 정치·경제적 조건, 소비 문화와 결합된 의미 구성 과정까지 분석 대상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상업 간판은 공공 표지와 달리 민간 주체가 시장 논리에 따라 언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언어 선택이 ‘정책 준수’라기보다 ‘브랜드’ 및 ‘고객 호명’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Shohamy & Gorter, 2009).

언어경관을 해석하는 대표적 분석 틀로는 생산 주체에 따른 구분, 언어의 상징 자원화, 장소성과 결합된 정체성 구성이 있다. 첫째, Ben-Rafael 등(2006)은 언어경관을 공적 기관이 만드는 하향식(top-down) 표지와 개인·상업 주체가 만드는 상향식(bottom-up) 표지로 구분하면서 상업 간판이 지역 사회의 언어 선택과 정체성의 ‘일상적 가시화’에 관여한다고 보았다. 둘째, 영어/로마자 등 특정 언어·문자가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대성, 국제성, 고급 이미지’ 같은 상징 의미를 수행할 수 있다는 논의가 축적되어 왔다(Backhaus, 2007). 셋째, 언어경관은 특정 장소의 이용자 구성, 상권의 성격, 관광화 정도와 결합하면서 ‘장소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능한다 (Shohamy & Gorter, 2009; Scollon & Scollon, 2003).

기존 언어경관 연구에서 상업 간판 분석에 자주 활용되어 온 범주는 대체로 문자 유형과 언어 조합, 업종 정보의 제시 방식과 명명 전략, 표지가 놓인 장소의 사회·소비 문화적 조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Landry & Bourhis, 1997; Ben-Rafael et al., 2006; Backhaus, 2007; Shohamy & Gorter, 2009; Scollon & Scollon, 2003). 특히 상업 간판에서는 업종을 직접 지시하는 표지어가 정보 전달성을 강화하는 한편, 브랜드형(추상형) 명칭이 분위기·정체성·콘셉트를 전면화하며 상징성을 구성하는 방식이 병행될 수 있다. 또한 ‘상권의 소비문화적 조건’은 연령대 유동인과 같은 정량 지표 기반의 상권 진단이 아닌 도시 내 공간 기능과 소비문화의 성격(예: 체류형·관광형·생활밀착형)이 언어 선택에 부여하는 제약과 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바버숍 상호명의 언어 전략을 해석하기 위해 문자 유형과 언어 조합, 업종 표지어와 브

랜드형(추상형) 명칭의 관계, 상권의 소비문화적 조건이라는 세 축을 중심 범주로 설정한다.

2) 국외 미용업소 관련 언어경관 연구

국외 언어경관 연구는 다언어 도시의 상업지구, 관광지, 이주민 밀집 지역 등에서 표지의 언어 조합과 문자 선택을 분석하며 발전해 왔다. 이 흐름에서 ‘업종’은 종종 통제 변인처럼 처리되거나(예: 상업 표지 일반), 음식점·관광 상점 등 특정 업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미용업소는 도시의 일상적 소비와 깊게 결합한 업종임에도 언어경관 문헌에서 독립적 업종 단위로는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는 살롱·바버숍을 직접 대상으로 삼은 연구가 확인된다. Francis & Tibategeza(2025)는 탄자니아 Mwanza 지역 Nyamagana 지구에서 살롱과 바버숍 간판의 언어 선택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고객 인식과 접근성 문제를 함께 논의하였다. 단일언어 표지의 배제성 문제와 업종의 ‘성별화된 공간’ 특성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영어/스와힐리어 등 사용 언어, 단일/이중언어 표지, 고객의 이해 가능성과 포용성 이슈를 분석하며, 표지의 언어 선택이 상업 전략과 동시에 ‘포용성’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바버숍에서 영어 단독 사용이 나타날 경우 스와힐리어 우세 화자의 접근이 제약될 수 있음을 논의함으로써, 상업 간판의 언어 선택이 단순한 스타일 선택 이상의 사회적 함의를 지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Francis & Tibategeza, 2025). 또한 살롱과 바버숍이 유사한 서비스 산업으로 묶이면서도 성별 타깃 및 공간 문화에 따라 언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바버숍을 별도 업종으로 떼어 분석할 근거를 제공한다.

한편, Hadiati 등(2023)은 인도네시아와 인도의 뷰티 살롱 간판을 비교하면서 뷰티 소비가 사회적 소속과 구별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으며 표지가 그 정체성 구성을 매개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이 관점은 바

버숍 역시 남성성, 취향 문화, 계층화된 스타일 코드가 작동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 즉, 미용업소 언어경관은 ‘서비스 안내’와 ‘정체성 연출’이 교차하는 장(場)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바버숍 상호명의 업종 표지어 선택과 브랜드형 명칭의 병행 사용을 해석하는 데 유효한 논거가 된다.

이상의 국외 연구는 미용업소 간판의 언어 선택이 정보 전달, 고객 포섭/배제, 정체성 구성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특정 도시(예: 부산)의 바버숍을 대상으로 상호 작명, 문자 유형, 업종 표지어, 상권 특성의 상호작용을 업종 단위로 체계화하여 설명한 연구는 아직 제한적이며, 이를 보완할 분석이 요구된다.

3) 국내 부산 지역의 언어경관 연구

국내 언어경관 연구는 대학가, 전통시장, 신도심, 관광지 등 특정 공간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상업 표지에서 나타나는 문자 선택과 언어 조합, 상호명 표기 방식의 분포를 통해 공간의 사회·문화적 성격을 해석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부산 지역은 항구 도시이자 관광 도시라는 성격, 그리고 상권의 이질성이 공존한다는 점에서 언어경관 연구의 주요 사례로 반복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부산 원도심 상업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간판에서 한글 중심의 표기가 유지되는 동시에, 관광·소비 환경의 변화에 따라 로마자 및 외국어 정보가 보조적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보고된다. 특히 자갈치 시장을 대상으로 동일 점포의 간판을 시계열로 비교한 강은지(2025a)의 연구는 네이버 지도 거리뷰 자료를 활용하여 2010년대 초반과 2024년의 표지를 비교하고, 한글 우세가 유지되면서도 로마자·한자의 보조적 사용이 증가하며, 다언어 주석이 관광객 대상 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대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는 부산의 전통시장 언어경관이 ‘고정된 양식’이라기보다 관광화와 소비문화의 변화에 반응하며 재구성되는 과정

에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주변 대학가를 분석한 강은지·김태호(2024)의 연구는 대학가 문화 및 상권 이용자 구성과 결합하여 간판에서 로마자와 한글의 결합, 명명 방식의 변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전통시장·대학가처럼 자연발생적 상업지구에 집중되던 부산 언어경관 연구가 계획 신도심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센텀시티를 대상으로 한 강은지(2025b)의 연구는 부산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전통시장·대학가·구도심·관광지 등 자연발생 상권에 집중해 온 맥락을 지적하면서 계획 신도심의 언어경관을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를 제기하였다. 이 연구는 센텀시티에서 로마자 사용의 비중과 기능이 업종·브랜드 전략과 결합해 나타나며, 지명(‘센텀’)의 반복을 통해 공간의 집합적 정체성이 구성될 수 있음을 논의한다.

이처럼 부산 지역 선행연구는 전통시장·대학가·신도심 등 서로 다른 상권의 조건에 따라 언어경관의 문자 선택과 언어 조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최근에는 통시적 변화와 계획도시 맥락까지 분석 범위를 넓혀 왔다. 다만, 부산 연구가 강점을 가져온 ‘공간 단위 비교’ 축적에 비해 특정 업종을 분석 단위로 고정하여 업종 내부의 표지어 선택(예: 이용원/맨즈헤어/바버숍), 브랜드형(추상형) 명칭, 문자 선택 전략을 정교하게 해석하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덜 축적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성 타깃, 스타일 문화, 업종 표지어의 관습화가 상호명에 강하게 반영되는 바버숍은 업종 중심 언어경관 분석의 유효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며, 부산이라는 지역 맥락에서 바버숍 상호명의 문자 유형과 명명 전략을 세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바버숍(남성 이발·헤어 서

비스를 표방하는 업소)이며, 분석 자료는 업소의 상호명과 행정동 단위 위치 정보로 구성된다. 자료는 연구자가 2025년 5월 포털 지도 서비스와 네이버 플레이스를 기반으로 부산 지역 바버숍 목록을 조사하여 구축하였다. 자료 수집은 네이버 지도 검색을 중심으로 수행하였으며, “바버숍”, “맨즈헤어”, “이용원”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업소의 상호명과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결과는 엑셀 파일로 정리하였고, 연번, 상호명, 행정동 위치 정보를 기입한 뒤 중복 항목(동일 업소의 중복 노출, 지점명 표기 변이 등)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정제하였다. 정제 후 최종 분석에 포함된 업소는 506개이며, 분석 단위는 상호명이다.

상호명 표기 형식의 확인을 위해 구글 스트리트뷰와 네이버 거리뷰를 활용하여 간판의 실제 표기를 보조적으로 대조하였다. 특히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등록된 상호명만으로 업종 표지가 불명확하거나, 온라인 표기와 간판 표기 사이에 불일치가 의심되는 사례에 한해 거리뷰를 확인하여 표기 형태(문자·로마자·숫자 병기 여부 등)를 재점검하였다. 다만 거리뷰 자료는 촬영 시점 및 갱신 여부에 따라 최신 정보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기 불일치가 확인되는 사례는 동일 업소의 표기 일관성을 추가로 점검한 후 분석에 반영하였다.

2) 분석 기준

본 연구는 상업 간판에 나타난 언어경관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기존 언어경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온 분석 범주를 토대로 분석 기준을 설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상업 간판의 언어경관을 문자 유형과 언어 조합, 표지의 정보성과 상징성, 그리고 표지가 놓인 장소의 사회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해 왔다 (Landry & Bourhis, 1997; Ben-Rafael et al., 2006; Backhaus, 2007; Shohamy & Gorter, 2009; Scollon & Scollon, 2003).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산 지역 바버숍 상호명에 나타난 언어경관을

다음 네 가지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첫째, 문자 유형이다. 상호명에 사용된 문자를 한글, 로마자, 숫자, 또는 이들의 혼합 형태로 분류하여 바버숍 간판에서 문자 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파악하였다. 이는 언어경관 연구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 단위로, 특정 문자가 정보 전달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혹은 상징적 자원으로 선택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Backhaus, 2007).

둘째, 언어 조합 방식이다. 상호명이 단일한 문자 체계(예: 한글만, 로마자만)로 구성되었는지, 복수 문자 체계(예: 한글+로마자, 한글+숫자, 로마자+숫자 등)를 혼합하여 구성되었는지를 구분하였다. 이 기준은 상업 간판에서 다언어·다문자 사용이 실제 의사소통 필요에 따른 것인지, 혹은 이미지·브랜딩 전략과 결합된 선택인지를 해석하는 데 유용하다(Ben-Rafael et al., 2006).

셋째, 업종 표지와 브랜드형(추상형) 명칭의 관계이다. 상호명에 ‘이용원’, ‘이발관’, ‘바버(숍/샵)’, ‘맨즈헤어’ 등 업종을 직접 지시하는 표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혹은 의미가 추상적이거나 브랜드화된 명칭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석 기준은 상업 간판이 업종 정보를 명확히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공간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Shohamy & Gorter, 2009).

넷째, 표지가 위치한 장소의 소비 문화적 조건이다. 본 연구는 지역을 ‘트렌드 소비 상권’, ‘생활밀착 상권’, ‘혼합 상권’으로 유형화하여 언어경관 전략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이 유형화는 각 지역의 공간 기능과 소비문화적 성격(예: 상업·관광 기능의 비중, 생활서비스 업종의 밀집도, 주거지역 인접성, 체류형 소비 공간의 발달 등)을 준거로 한 분석적 범주화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지역 비교는 통계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동일 업종(바버숍) 내부에서 언어 선택이 장소 조건과 어떻게 접속하는지 탐

책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해석적 비교로 한정된다(Scollon & Scollon, 2003).

이와 같은 분석 기준은 상업 간판의 언어를 단순한 문자 배열로 환원하지 않고, 언어 선택-공간 맥락-소비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해석하기 위한 절차적 틀로 기능한다.

3) 분석 절차

자료 분석은 다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먼저 부산 지역 바버숍의 상호명과 위치 정보를 수집하여 목록화한 후, 각 상호명을 대상으로 문자 유형과 언어 조합을 1차 코딩하였다. 이후 업종 표지어 포함 여부와 명칭의 성격(업종 명시형/브랜드형·추상형)을 기준으로 2차 분류를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상권 유형별 분포 차이를 검토하여 동일 업종 내에서 언어 경관 전략이 장소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빈도 분석은 통계적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질적 해석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술적 자료로 사용되었다. 이를 위해 단순히 범주별 비율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빈도 결과를 바탕으로 대표 사례를 규칙에 따라 선정하여 해석을 확장하였다. 대표 사례는 범주별 최빈 패턴(예: 반복적으로 결합되는 업종 표지어 구성), 의미 해석의 경계를 보여주는 경계 사례(예: 업종 표지어 없이 추상·브랜드형으로 구성된 사례), 상권 유형별 특징이 두드러지는 상권 특이 사례를 포함하도록 구성하였다.

사례 해석은 지시성(업종·서비스 정보를 직접 드러내는 정도), 상징성(남성성·품격·전문성·레트로/힙 등 이미지 호출), 장소성(지명·로컬 정체성 표지), 브랜딩 형식(추상어/조어/로마자형/훈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빈도 분포가 지시하는 주요 경향을 ‘왜/어떻게’의 해석으로 연결하고, 바버숍 업종에서 정보성과 상징성이 결합·조정되는 양상을 논의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문자 조합 유형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한 506개의 바버숍 상호명을 문자 조합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부산 지역 바버숍 상호명의 문자 조합 유형 분포

문자 유형	빈도	비율(%)
한글 단독 표기	485	95.8
한글 + 숫자	9	1.8
한글 + 로마자	7	1.4
로마자 단독	3	0.6
로마자 + 숫자	2	0.4
합계	506	100

분석 결과, 부산 지역 바버숍의 언어경관은 한글 기반 상호명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양상을 보였다. 전체의 95.8%가 한글 단독 표기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숫자나 로마자를 병용한 경우는 전체의 4% 내외에 불과하였다.

주목할 점은 외형적으로 서구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바버숍이라는 업종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영어 또는 로마자 표기가 일반적 선택으로 자리 잡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맨즈헤어’, ‘바버샵(숍)’, ‘젠틀맨’ 등과 같이 영어계 기원의 외래어(차용어)가 한글로 전사되어 사용된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는데, 이는 글로벌 이미지를 호출하면서도 지역 소비자의 가독성과 언어적 친숙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업종 표시어의 표기에서 ‘숍/샵’과 같이 동일한 외래어가 상이한 한글 전사 형태로 병행·혼용되는 사례(예: ‘바버숍/바버샵’)가 나타났는데, 이는 상업 간판에서 표기 선택이 완전히 표준화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로마자 단독 또는 로마자와 숫자를 병용한 상호는 극히 소수에 그쳤으며, 이들 역시 정보 전달보다는 상징적·이미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업 간판에서 영어 또는 로마자 사용이 반드시 외국인 독자를 전제한 정보 전달 수단이기보다는 상점의 이미지와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상징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한 선행연구의 논의와 일치한다(Backhaus, 2007; Ben-Rafael et al., 2006).

이러한 해석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로마자 사용 여부 자체 뿐 아니라 상호명이 어떤 문자 체계를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병용하는지에 주목하여 언어 조합 방식을 추가로 검토하였다. 상호명이 단일 문자 체계로 구성되었는지 또는 복수 문자 체계를 병용하였는지(예: 한글+로마자, 한글+숫자 등)를 기준으로 언어 조합 방식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바버숍 상호명은 전반적으로 단일 문자 체계(한글 중심)가 우세하였고, 복수 문자 체계의 병용은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로마자 병용 사례는 업종 정보를 추가로 전달하기보다는 현대성·세련됨과 같은 상징적 이미지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는 바버숍 언어경관에서 다문자 병용이 일반화된 규범이 아니라 특정 상권 또는 특정 명명 전략(브랜드화·감각화)과 결합해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변이적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작명의 특징 분석

부산 지역 바버숍의 상호명은 대체로 특정 접미어나 표현을 활용하여 업종을 명시하거나 반대로 추상적·브랜드화된 명칭을 통해 차별화를 시도하는 양상을 보였다.

먼저 다수의 상호명에서 ‘바버숍(샵)’, ‘맨즈헤어’, ‘이용원’, ‘옴므헤어’, ‘컷트클럽’ 등 업종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명 방식은 소비자에게 해당 공간이 바버숍임을 직관적으로 인지시키

며, 언어경관의 기본적 기능인 정보 전달성과 가시성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상당수 상호명에서 이러한 업종 표시어가 확인되어 바버숍 언어경관에서 업종 명시성이 중요한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용원’이나 ‘이발관’과 같은 표현은 업종 인지의 즉시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정성·전통성·지역적 친숙성을 호출하는 표지로 기능할 수 있으며, ‘맨즈헤어’, ‘옴므헤어’, ‘젠틀맨’, ‘나이스맨’ 등의 표현은 남성 전용 또는 남성 전문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반면, 일부 바버숍 상호는 의미가 추상적이거나 브랜드화된 단어를 사용하여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 표기된 상호명만으로는 업종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하였다. 예컨대 ‘씨유넥스트먼스’, ‘아타르’, ‘알파’, ‘어스하우스’, ‘인앤아웃이스트’ 등의 명칭은 언어경관의 측면에서 심미성과 감각적 인상은 충족하지만, 업종을 직접 지시하는 정보(예: 바버/이용/헤어 등)가 전면화되지 않아 정보 전달성과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사례에서도 실제 점포의 물리적 간판에서는 ‘남성전문’, ‘남성컷 전문점’과 같은 업종 표시 문구가 병기되거나, 바버풀(이용원 표지), 가위 아이콘 등 시각적 단서가 함께 제시되어 업종 인지가 보완되는 경우가 관찰된다. 즉, 업종 인지는 상호명 텍스트 단독이 아니라 간판의 복합 기호(문자+도상)에 의해 강화될 수 있으며, 플랫폼 표기와 오프라인 표지 간 정보량 차이가 ‘업종 인지의 난이도’를 좌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소비자는 해당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방문하거나, 거리뷰, SNS 및 온라인 리뷰 등 외부 정보에 의존해야 한다.

또한 ‘수컷’, ‘부산머스마’, ‘머리빨’과 같이 방언이나 언어유희를 활용한 상호명도 일부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명은 지역적 정서와 친밀감을 활용하여 소비자의 기억에 남도록 하는 전략으로, 언어경관을 통해 특정 문화적 코드와 소비자 취향을 연결하는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3) 지역별 차이에 따른 언어경관의 특징

부산 지역 바버숍의 언어경관은 행정적 공간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 상권의 기능과 소비문화적 특성에 의해 상호명 구성 방식과 언어 전략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바버숍 상호명은 단순한 점포 식별 기능에 그치지 않고, 해당 공간이 어떤 소비 경험을 전면에 두는지(예: 체류형·관광형·생활밀착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고객의 선택을 유도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었다. 지역 유형화는 상업·관광 기능의 비중, 주거지역 인접성, 체류형 소비 공간의 밀집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해석적 구분이다.

(1) 트렌드 소비 상권: 감각적 브랜드화와 추상적 작명

전포동, 서면, 해운대 일대는 카페·패션·뷰티 등 취향 소비 업종이 밀집하고, 방문·체류형 소비가 두드러지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이 지역의 바버숍 상호명은 로마자 표기 또는 영어계 차용어 기반 표현, 의미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추상적 명칭, 브랜드화된 단어 사용 등의 특징을 보였다.

이들 상호는 바버숍임을 전면에 명시하기보다 감각적 이미지와 분위기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언어경관은 정보 전달보다는 공간의 심미성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구성되며, 소비자가 해당 공간을 서비스 제공 장소라기보다 취향과 이미지가 구현된 장소로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언어 전략은 명확한 업종 표기보다는 감성적·상징적 요소를 통해 선택을 유도하는 소비문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생활밀착 상권: 기능 중심의 명확한 작명

부전동, 문현동, 감전동, 범천동 등 주거지역과 인접한 생활밀착형 상권에서는 바버숍 상호명에서도 기능 중심의 명확한 작명 방식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이 지역의 바버숍은 한글 기반 상호명이 주를 이루며, ‘이

용원’, ‘이발관’과 같이 업종이 직관적으로 드러나는 명칭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호명은 시각적 심미성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기보다는 해당 공간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언어경관은 소비자의 즉각적인 이해와 신뢰 형성을 우선시하며, 바버숍이라는 공간이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생활 서비스 공간으로 인식되도록 기능하고 있었다. 이 지역의 언어경관은 ‘표현’보다는 ‘안내’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3) 혼합 상권: 신·구 소비문화의 공존

개금동, 범일동 등은 상업·주거 기능이 혼재되어 전통적 소비문화와 현대적 소비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적 성격을 지닌다. 바버숍 상호명에서도 이러한 중간적 성격이 반영되어 ‘○○맨즈헤어’, ‘○○옴므헤어’, ‘○○이용원’과 같은 명칭이 공존하며, 한글 기반 명확한 업종 표기와 차용어 기반 이미지 강조 전략이 함께 나타났다.

이러한 혼합형 언어 전략은 특정 연령층이나 소비자 집단만을 명시적으로 겨냥하지 않고, 정보성(업종 인지)과 상징성(이미지/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하여 다양한 소비자층의 선택을 포괄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언어경관은 전통성과 현대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지역의 이행적 성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5. 논의

부산 지역 바버숍 간판에서는 한글 기반 상호명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업종을 명시하는 명칭과 브랜드화된 추상적 명칭이 함께 관찰되었다. 또한 전포·서면·해운대권, 부전·문현·감전·범천권, 개금·범일권에서 상호명 구성 방식과 언어 전략이 구별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상업 간판이 정보 전달 장치이면서 동시에 상징적 커뮤니케이션 장치로 기능한다는 언어경관 연구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Ben-Rafael et al., 2006; Shohamy & Gorter, 2009).

1) 한글 중심 표기와 로마자 사용의 제한성

본 연구에서 로마자 단독 및 로마자 병용 표기는 전체에서 소수에 해당하였다. 이는 도시 상업 공간에서 다언어 표기가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실증한 연구들과 비교될 수 있다. 예컨대 Backhaus(2007)는 도쿄의 도시 언어경관에서 일본어 외 언어가 다양한 비율로 출현하며, 특히 상업 간판에서 영어 및 로마자 표기가 반복적으로 관찰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반면, 부산 바버숍 자료에서는 로마자 자체가 일반적 선택으로 확산된 양상이라기보다 특정 상호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영어(로마자)가 상업 간판에서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기존 논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선행연구는 영어 사용이 실제 독자(외국인)를 전제한 정보 전달이라기보다, 세련됨·현대성·국제성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상징 자원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지적해 왔다(Backhaus, 2007; Shohamy & Gorter, 2009). 부산 바버숍의 경우, 상업 간판에서 그러한 상징 자원의 동원이 전면적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한글 중심 표기 체계 속에서 부분적·선별적 표지로 남아 있었다. 이 점은 “상징 자원으로서의 영어”라는 기존 논의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되, 그 작동 방식이 ‘확산’이라기보다 ‘선택적 배치’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변별적이다.

또한, 외래어 기반 표현이 상당수 한글 표기 형태로 구현된 점은 글로벌 이미지를 차용하면서도 지역 소비자의 가독성과 친숙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상업 간판의 언어 선택이 단순한 언어 능력의 반영이라기보다 상점이 상정하는 고객군과 상권의 언어 습관을 반영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점은 언어경관을 사회적 행위자의 선택과 구조화 과정으로 이해하는 관점과도 정합적이다(Ben-Rafael et al., 2006).

2) 업종 명시 표지의 높은 비중과 ‘정보성’의 유지

부산 바버숍 상호명에는 ‘이용원’, ‘이발관’, ‘바버(숍/샵)’, ‘맨즈헤어’ 등 업종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표지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상

업 간판이 상징적 기능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서비스 범주를 즉각적으로 전달하는 안내 기능을 강하게 유지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Shohamy & Gorter(2009)는 언어경관을 상징 자본과 권력 관계의 표출로 해석하면서도, 공공성·가독성·규범이 언어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함께 논의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업종 표지의 빈번한 사용은 바버숍 언어경관이 이미지 중심의 표현으로만 구성되기 어렵고, 생활 서비스 업종으로서의 정보성이 요구되는 조건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동시에 업종 명시 표지의 선택은 ‘바버숍’의 사회문화적 위치와도 관련된다. 바버숍이 새로운 스타일 문화로 소비되는 상권이 존재하는 한편, 일상적 생활서비스로서 기능하는 상권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이 상호명에 반영된 것이다. 이때 ‘이용원/이발관’과 같은 표지는 단순히 업종을 알리는 기능 이상의 안정성·전통성·지역적 친숙성을 호출하는 상징으로도 작동할 수 있다. 상업 간판의 언어가 정보와 상징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주장은 기존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Landry & Bourhis, 1997; Ben-Rafael et al., 2006), 본 연구는 바버숍 업종에서 그 이중 기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특히 정보성의 유지는 상징자원(예: ‘바버/맨즈/젠틀’ 등)과의 연동에서 더 분명해진다. 즉 업종 표지는 서비스 범주를 안내하는 동시에 남성성·품격·전문성 같은 정체성을 구성하는 장치로 작동하며, 브랜드형·추상형 명칭은 무드·컨셉트를 전면화하되 간판의 병기 표지(문자·도상)를 통해 인지 가능성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바버숍 언어경관은 정보와 상징의 긴장 속에서 상권 조건에 따라 전면화되는 기능이 조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브랜드화·추상적 작명과 상징적 정체성 구성

일부 상호는 업종 명시성을 낮추고, 추상적·브랜드화된 단어를 사용하여 ‘바버숍인지 즉시 알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났다. 이 유형은 상업 간판

을 정체성 표출의 장으로 보는 논의와 직접 연결된다. Ben-Rafael 등(2006)은 상업 표지가 사회적 행위자의 자기표현을 수행하며, 언어 선택이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를 시각적으로 구성한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의미가 추상적인 상호는 ‘서비스의 종류’보다 ‘취향·분위기·콘셉트’를 전면 배치하며, 소비자가 공간을 선택하는 기준을 정보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업 공간에서 언어가 소비문화와 결합한다는 관점과도 부합한다. Gorter & Cenoz(2015)는 언어경관을 다언어 실천과 결부하여 논의하면서, 상업 간판에서 언어 선택이 의미 전달 외에도 시각적·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지적한다. 부산 바버숍의 브랜드화 명칭은 로마자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상호 자체의 브랜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영어 표기가 아닌 다른 장치(추상 명칭, 조합형 고유명)로도 상징적 정체성 구성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4) 지역 유형화와 언어 전략의 상관성

전포·서면·해운대권, 부전·문현·감전·범천권, 개금·범일권에서 관찰된 작명 방식과 언어 전략의 차이는 언어경관이 공간 자체의 속성뿐 아니라 상권의 소비문화와 공간 기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언어경관을 단순한 ‘언어 분포’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실천이 반영된 결과로 보는 관점과 연결된다(Ben-Rafael et al., 2006; Shohamy & Gorter, 2009).

트렌드 소비 상권에서 브랜드화·추상적 작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것은 상업 공간이 SNS 기반의 이미지 소비 및 취향 기반 선택과 결합한 맥락을 반영한다. 이 경우 상호명은 업종을 즉각적으로 지시하기보다 공간의 분위기와 감각적 정체성을 선행 제시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반대로 생활밀착 상권에서 업종 명시성이 강한 상호가 두드러지는 양상은 일상적 서비스 선택에서 요구되는 즉시 인지와 신뢰 형성이 간판 언어 선택의 중

요한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혼합 상권에서 두 전략이 공존하는 양상은 상권이 혼재된 조건에서 정보성(업종 인지)과 상징성(이미지/정체성)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언어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유형화는 기존 부산 언어경관 연구들이 주로 공간 단위(대학가/관광지/시장/신도심 등)로 차이를 설명해 온 방식과 연결되며, 본 연구는 그 차이를 “업종 단위(바버숍) 내부에서 관찰되는 전략 차이”로 구체화한다. 즉, 부산이라는 동일 도시 맥락에서도 업종의 언어경관은 상권 특성에 따라 상이한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는 상업 언어경관 해석에서 지역 맥락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6.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바버숍을 대상으로 상업 간판(상호명)에 나타난 언어경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 지역 바버숍 언어경관은 한글 중심 표기가 뚜렷하였고, 로마자 단독 또는 병용 표기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버숍이 서구적 이미지와 결부되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마자 표기가 일반화된 규범으로 확산되기보다는 특정 이미지(현대성·세련됨 등)를 부가하는 선택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영어계 기원의 차용어가 한글로 전사되어 사용되는 양상은 글로벌 이미지를 호출하면서도 지역 소비자의 가독성과 언어적 친숙성을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작명 방식에서는 ‘이용원’, ‘이발관’, ‘바버(숍/샵)’, ‘맨즈헤어’ 등 업종을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표지어가 폭넓게 사용되는 한편, 의미가 추상적이거나 브랜드화된 단어를 사용하는 상호도 함께 관찰되었다. 전자의 경우 업종의 명시성을 통해 소비자가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 서비스 공간으로서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후자의 경우 상호명은 업종 설명보다 공간의 분위기와 취향을 전면화하여 소비자의 선택 기준을 정보 중심에서 이미지 중심으로 이동시

키는 방식과 연결될 수 있다. 이처럼 바버숍 언어경관은 정보 전달성과 상징적 정체성 구성이라는 두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역별 분석에서는 상권의 공간 기능과 소비문화적 조건에 따라 상호명 구성 방식과 언어 전략이 차이를 보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트렌드 소비 상권에서는 감각적 브랜드화와 추상적 작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생활밀착 상권에서는 한글 기반의 명확한 업종 표기가 중심을 이루었다. 혼합 상권에서는 두 전략이 공존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바버숍 상호명은 단순한 점포 식별 수단이 아니라, 해당 공간이 어떤 소비 경험(체류형·생활밀착형 등)을 전면에 두는지와 결합하여 언어적·상징적 선택이 조정되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특정 도시 공간을 단위로 한 기술에 머무르기보다 바버숍이라는 업종을 분석 단위로 설정하여 상업 언어경관의 미시적 작동 방식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있다. 동일 도시 맥락에서도 업종의 성격과 상권 조건에 따라 언어 선택과 작명 전략이 다르게 조직될 수 있음을 자료 기반으로 제시하였고, 상업 간판에서 영어·로마자 사용의 역할을 ‘확산 여부’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선택되는지’의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성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간판의 언어적 요소, 즉 상호명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각 디자인(색채, 서체, 배치)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 점주의 명명 의도, 소비자의 실제 인식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온라인 지도 및 거리뷰 기반 자료 활용에 따라 촬영 시점과 실제 간판 변경 시점 간의 시간 차가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현장 조사와 점주 인터뷰를 통해 상호명 선택의 의도와 전략을 확인하고, 소비자 인식 조사 또는 SNS·리뷰 자료 분석을 병행하여 상업 언어경관이 선택되는 과정과 수용되는 과정을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일 업종을 대상으로 타 도시 비교를 수행하거나 시간에 따른 변화 양상을 추적한다면, 바버숍 언어경관의 지역성 및 동태성을 더욱 정교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 Backhaus, Peter, *Linguistic Landscapes: A Comparative Study of Urban Multilingualism in Tokyo*, Multilingual Matters, 2007.
- Scollon, Ron & Suzie Wong Scollon, *Discourses in Place: Language in the Material World*, Routledge, 2003.
- Shohamy, Elana & Durk Gorter (eds.), *Linguistic Landscape: Expanding the Scenery*, Routledge, 2009.

논문

- 강은지, 「부산 원(原)도심의 언어 경관: 3대 시장(국제시장, 부평강통시장, 자갈치 시장) 간판의 언어 정보를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제32권 4호, 한국사회언어학회, 2024, 87-121쪽.
- 강은지·김태호, 「부산 지역 대학가 주변의 언어 경관 (linguistic landscape) 고찰: 부산대학교 장전캠퍼스 주변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76권, 우리말학회, 2024, 155-180쪽.
- 강은지, 「부산 자갈치시장의 언어 경관 변천」, 『언어와 언어학』 110권,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25a, 45-74쪽.
- 강은지, 「부산 센텀시티의 언어 경관 연구」, 『인문언어』 제27권 2호, 국제언어인문학회, 2025b, 185-209쪽.
- Ben-Rafael, E., E. Shohamy, M. H. Amara, & N. Trumper-Hecht, "Linguistic Landscape as Symbolic Construction of the Public Space: The Case of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vol. 3, no. 1, 2006, pp. 7-30.
- Cenoz, J. & D. Gorter, "Linguistic Landscape and Minority Languages",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vol. 3, no. 1, 2006, pp. 67-80.
- Landry, R. & R. Y. Bourhis, "Linguistic Landscape and Ethnolinguistic Vitality: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vol. 16, no. 1, 1997, pp. 23-49.

Francis, N. & R. Tibategeza, "Linguistic Landscape of Salon and Barbershop Signages in Nyamagana District: Revelations on Language Choice", *International Journal of Language and Linguistics*, vol. 12, no. 5, 2025, pp. 45-62.

Hadiati, C., E. T. Rahayu, & L. Priya, "Beauty and Identity: A Comparative Study of Linguistic Landscape of Beauty Salon Signage in Indonesia and India", *Proceedings of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Linguistics, and Literature (COLALITE 2023)*, Atlantis Press, 2023, pp. 98-105.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바버숍 상호명에 나타난 언어경관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자료는 연구자가 2025년 5월 네이버 지도·네이버 플레이스를 기반으로 “바버숍”, “맨즈헤어”, “이용원” 등 키워드 검색을 통해 수집·정제한 506개 업소의 상호명과 행정동 위치 정보로 구성하였다. 또한 구글 스트리트뷰와 네이버 거리뷰를 활용하여 간판의 실제 표기 형식을 대조·확인함으로써 표기 언어와 병기 양상에 관한 정보를 보완하였다. 분석은 문자 유형(한글·로마자·숫자 및 혼합), 언어 조합(단일/혼합), 업종 표지와 브랜드형(추상형) 명칭의 관계, 그리고 상권의 소비문화적 조건(트렌드 소비 상권·생활밀착 상권·혼합 상권)에 따른 변이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부산 지역 바버숍 상호명은 한글 표기가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고 로마자 표기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영어계 기원의 차용어가 한글로 전사되어 사용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상호명은 업종 표지를 통해 정보성을 확보하는 유형과 브랜드형(추상형) 명칭을 통해 분위기·취향 이미지를 전면화하는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지역 유형별로는 트렌드 소비 상권에서 로마자 병용 및 추상적 작명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고, 생활밀착 상권에서는 한글 기반의 명확한 업종 표지가 중심을 이루었다. 혼합 상권에서는 두 전략이 공존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바버숍 언어경관이 생활서비스로서의 즉시 인지 요구와 스타일 문화로서의 상징적 정체성 구성이 결합된 조건에서 정보성과 상징성이 조정되는 양상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언어경관, 바버숍, 상호명, 부산, 상업 간판

■ Abstract

A Study on the Linguistic Landscape of Barbershops in Busan

Yoon, Ji Won / Changshin University

Kim, Jung won / Youngs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linguistic landscape reflected in barbershop business names in Busan, South Korea. The dataset consists of 506 barbershop names and their administrative-dong locations, collected and cleaned in May 2025 through keyword searches (e.g., “barbershop,” “men’s hair,” “barber shop,” “barber”) on Naver Map and Naver Place. To supplement information on language choice and co-display patterns, the online listings were cross-checked against the actual signage forms using Google Street View and Naver Road View. The analysis focused on (1) script type (Hangul, Roman alphabet, numerals, and mixed forms), (2) script/language combination (single vs. mixed), (3)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markers and brand-like (abstract) naming, and (4) variation by consumption-cultural retail context (trend-oriented, everyday/locally embedded, and mixed districts). The results show a strong predominance of Hangul-only names, while Roman-alphabet usage was limited. Many English-origin loanwords appeared in Hangul transliteration. Barbershop names were broadly divided into two types: those securing informational clarity through occupational markers and those foregrounding ambience and taste images through brand-like (abstract) naming. By retail context, trend-oriented districts showed relatively more Roman-alphabet mixing and abstract naming, whereas everyday/locally embedded districts favored clear occupational markers in Hangul; mixed districts exhibited the coexistence of both strategies.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linguistic landscape of barbershops is shaped by the interplay between the need for immediate recognizability as an everyday service and the symbolic construction of identity associated with style culture.

Keyword • Linguistic Landscape, Barbershop, Shop Names, Busan, Commercial Signage

중고등 교육과정의 교양 개념과

교양교육 연속성 고찰

: 중등 국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안 미 영**

목 차

1. 서론 : 고등 교육의 교양 개념과 교육과정
2. 중등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양의 개념
3. 중등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양 교과군
4. 결론

1. 서론 : 고등 교육의 교양 개념과 교육과정

중등교육에서도 교양인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군을 두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니와, 2025년 한국교육개발원의 중등교육 교양교육 수준 결과는 중고등 교양교육 전반에 걸쳐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등교육에서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을 개발한 바 있으며¹⁾, 최근에는 OECD 가입국 37개 국가의 15세 학생들의 관련 데이터를 통해 우리나라 중등 학생들의 인문교양교육 현황을 분석했다.²⁾

* 이 논문은 2025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임. 한국교양교육학회 추계전국학술대회(2024.11.23)에서 발표한 글(중등과 고등 교육과정에서 교양의 개념과 교과군 고찰)을 바탕으로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보완한 글입니다.

**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글로벌혁신대학 교수

1) 서예원 외,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모델 개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1.

2) 서무계, 『KEDI BRIEF-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 인간의 품격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 미래 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25. OECD 가입국 37개 국가 대상 중등 학생의 인문교양 교육 수준을 알기 쉽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에 따르면 교과 지식과 학업 역량에서는 우수한 성취를 보인 반면, 타자와의 관계와 주체적 자아 영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이 나왔다. 자기 주도의 가치관과 목표 설정, 다양한 가능성 탐색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자주성에서 취약함을 보였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인문교양 문해력(Liberal Arts and Science Literacy)을 자아 성찰 문해력(Self-Reflective Literacy), 전략적 학습 문해력(Strategic Learning), 관계적 문해력(Relational Literacy)으로 세분화하여 인문교양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있다.³⁾

중등교육과정에서 인문교양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획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기존에 마련된 교양의 개념과 교과군에 대한 검토 및 나아가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양교육 연속성과 내실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중등교육이 보통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교양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나 실제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대학 입학을 위한 입시 중심의 지식교육으로 경도되어 있다.⁴⁾ 교양 영역의 교과군이 제시되어 있으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보면 불분명한 영역 설정으로 인한 교양 교과목의

[표 1] 중등학생들의 인문교양교육의 현황

영역	주요 결과
교과지식	학업성취도 하위 영역 중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읽기) 3위
학습역량	창의적 사고는 33개국 중 9위, 사고표현은 11위, 테크놀로지 활용의 인문교양수준은 29개국 중 5위
타자(인간/비인간)와의 관계	관계형성에 있어 부모, 교우, 교사와의 관계 분석 결과는 각각 12위, 36위, 1위. 공감은 12위, 신뢰는 2위, 협력은 26위
주체적 자아	감정표현은 12위, 회복탄력성은 19위, 주체성은 20위, 독립성은 2위, 자주성은 33위, 일상생활 27위, 여가생활 36위, 진로탐색 29위

3) 위의 자료 참조.

4) 예컨대 문학교육의 경우, 중등교육과정에서 문학은 교과서를 통해 지정된 성취기준에 도달해야 하므로, 문학을 내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학에서 문학 교육은 대학의 인재상과 교육목표 등을 고려하되, 다양한 교수법을 통해 문학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향유할 수 있는 체험을 극대화하여 문학능력을 길러야 한다. (안미영, 「대학의 교양교과로서 '문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교양교육연구』6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55-69쪽.)

적정성 문제⁵⁾,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의 교육 연계성 부족도 제기되었다.⁶⁾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고등학생의 교양 형성에 필요한 내용을 모은 ‘교양학’이라는 새로운 교과 개발도 제기되었다.⁷⁾

교육과정은 ‘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근거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학습 경험,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조직한 교육 계획’⁸⁾으로 한 인간의 성장을 위해 연속성을 지녀야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중등 인문교양교육 현황이 시사하듯, 타자와의 관계 및 주제적 자아 형성을 위한 교양교육이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고등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연계되고 심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중등과 고등의 교육과정에서 교양은 어떠한 개념적 차이가 있으며, 실제 교과군의 검토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려 한다. 일련의 논의는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교양의 연속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중등교육에 제시된 교양의 개념을 살펴보기 앞서, 고등교육에 제시된 교양의 개념과 교과군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등교육(대학)에서 교양교육은 전공교육과 나란히 대학 교육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이하 교기원)에 의하면, ‘교양’(culture/Kultur)이란 ‘경작된 정신의 수확물’로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지도적 시민들이 지녀야 할 지적·정서적·도덕적 자질, 능력, 덕성을 뜻한다.⁹⁾ 교양의 교과군은 ‘교양기초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자유학예교육(인문-사회-자연의 기초학문 분야 탐구 성과), 기초문해교육(언어-정보 문해교육), 체험소양교육(사회적-심미적-신체적 체험)으로 나눈다.

5) 손승남,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양교육 강화 방안」, 『교양교육연구』70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68-81쪽.

6) 홍성연,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관점에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재탐색」, 『교양교육연구』18권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11-30쪽.

7) 여상운, 「고등학교 교양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교과와 교과서연구』4권1호, 교과와 교과서학회, 2024, 1-21쪽.

8)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22, 4쪽.

9)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s://www.konige.kr> 2025.12.24.

대다수 대학의 교양 교육과정은 교기원의 구분에 따라 기초학문, 기초 문해, 체험소양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기원이 제시한 교양기초 교육과정의 의미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

교양기초교육이란 대학 교육과 평생교육 전반에 요구되는 지식의 습득 및 자율적 학문 탐구 능력의 함양을 포함하여,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스스로 확립하는 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학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성을 넘어서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통합적 자유교육이다. 또한 교양기초교육은 초연결·초지능 사회, 다양한 위기의 지속이라는 새로운 시대상을 맞아 객관적 사실 인식을 토대로 하는 비판적·창의적 사고와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민주주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교기원에서는 “인간, 사회, 자연, 예술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관과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는 교육”으로 “모든 학생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통합적 자유교육”을 제안한다. ‘자유교육’에 방점이 놓임으로써 고등교육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교과 대상이 전 학문에 걸쳐 있으며 민주주의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자질, 건전한 시민에게 요청되는 비판적 사고 능력과 판단능력을 갖추려는 것이다. 고등교육에서 교양 교과목의 요건으로는 포괄적 학술성, 대표성, 전인교육을 제시하거나¹⁰⁾ 진리지향성, 인격지향성, 보편지향성, 핵심지향성을 제시하고¹¹⁾ 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고등 교육과정 교양의 개념과 교과군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거니와, 다음 장에서는 중등 교육과정에서 교양의 개념과 교과군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중등 교육과정은 국어과를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과 교육과정총론으로 나누어 접근하려 한다. 2023년도 『창작과비평』에는 중등 교양교육을 성찰하는 단편소설이 게재되었다. 김기태는 단편소설 「보편 교양」에서 중등 교육 현장을 통해 교양의 개념과 교양

10)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s://www.konige.kr> 2025.12.24.

11) 백승수, 「대학 교양 교과목의 성격과 준거」, 『교양교육연구』,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57-74쪽.

교육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교수자 입장에서 교양의 개념과 교양교육의 의의를 천착하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나타난 교양 개념, 교과군과 대비하여 살펴봄으로써 중등과 고등 간의 교양교육 연속성을 제안하려 한다.

2. 중등 교수학습과정에서 교양의 개념

1) 국어과 선택과목 <고전 읽기>에서 교양의 개념

이 장에서는 중등 교수학습 현장을 살펴보기 위해 김기태의 단편 「보편 교양」(『창작과비평』, 2023.9)에 주목하였다. 픽션임에도, 작중 교사와 학생이 2015년 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어과 교사 박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교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고전 읽기> 과목을 개설했다. 작중에 제시된 <고전 읽기>교과의 과목 취지와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교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형성**하며, 학문이나 직업 활동에 필요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읽기는 물론 말하기와 글쓰기 등 **통합적인 국어 능력의 향상**을 꾀한다.¹²⁾

인용문에 제시된 <고전 읽기>교과의 과목 취지와 성취 기준은 중등교육에서 지향하는 ‘교양’ 개념을 시사하고 있다. 소설 형식으로 제시되었지만 동시대 교육현장에서 중등 교사의 ‘교양’에 대한 개념과 가치에 주목하려 한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작중 사건과 갈등의 해결 과정을 천착해야 한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2015년 고교 교육과정은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일반 선택, 진로 선택)으로 구분된다.¹³⁾ 2015년 국어과 교육과정에

12) 김기태, 「보편 교양」, 『창작과비평』 201호, 창작과비평사, 2023.9, 193쪽. 강조는 필자. 이하 작품 인용은 이 텍스트로 하되,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 수만 기입함.

13) 중등교육과정 국어교육을 중심으로 한 교양 논의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있다. 정재

서 <고전 읽기>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표 2] 2015년 국어과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공통 과목	선택중심-일반 선택	선택중심-진로 선택
국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국어>과목은 공통 과목으로서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갖추기 위한 과목으로 수능과 내신에 반영된다. <고전 읽기>는 본인의 진로에 따라 선택하는 과목으로서 주로 인문계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선택한다. 교사는 겨울방학 내내 새로운 교과과목의 수업을 준비했으나, 첫 시간부터 학생의 과반수가 자고 있었다.

깨어 있는 학생들 중 다수도 수업을 외면했다. 고전읽기는 수능 과목이 아니었다. 절대평가 과목이라 상당수의 대학은 내신 성적에 산입하지도 않았다. 담당교사가 기술하는 특기사항은 종합전형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필요가 없었다. 맨 앞에 앉아서 이어폰을 꽂고 ‘확률과 통계’ 문제집을 풀고 있는 학생을 제지할 수 없었다. (197쪽, 강조는 필자)

학생의 다수가 수업을 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다른 과목을 공부한다. 극소수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한다. 선택과목 중에서도 ‘수학’과 ‘과학’의 심화 교과들은 내신에 반영되고 수능시험 교과목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수능시험과 내신성적에서 요구되는 과목이 아니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고전 읽기>를 선택했다면 무엇 때문일까.

즉 ‘고전읽기’에는, 고전을 읽고 싶다고보다 다른 걸 하기 싫은 학생들이 모이기 쉬웠다. 희망 진로 또는 지망 전공을 밝히는 칸에 내심 기대했던 문학이나 사회학은 한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다. 뷰티 매니저, 게임 크리에이터, 실용음악 보컬 ... 절반 이상은 ‘모름’이거나 빈칸이었다.(196쪽, 강조는 필자)

림, 「중등 국어교육에서 교양의 위상과 가치」, 『한국어문교육』,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79-105쪽.

수강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미적분이나 영어는 싫고 그나마 국어라서’라는 답변이 다수였다. 짝은 교육과정표를 꺼내 봤고 맹점을 발견했다. 졸업 요건을 채우기 위해 과목을 조합하다보면 3학년 때 ‘미적분’과 ‘진로영어’ 그리고 ‘고전읽기’를 저울질하게 될 확률이 높았다.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이공계 진학을 선호하는 분위기라 대개 미적분으로 모였을 것이다. (196쪽, 강조는 필자)

이 작품의 갈등은 은재가 마르크스를 읽는 것을 보고 교장과 학부모가 교사에게 이견을 제시한 데서 시작된다. 은재는 고전으로서 마르크스의 저작을 읽어낼 수 있는 독해력을 갖추었다는 것으로 갈등은 종결되었고, 은재가 ‘일반전형’으로 서울대에 합격함으로써 <고전 읽기> 교과와 가치를 입증받게 된다. 은재가 일반전형으로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중요하다. <고전읽기>는 절대평가 과목으로, 내신 성적에 산입되지 않았다. 교과 담당교사가 기술한 특기사항은 종합전형에만 활용되므로, 은재가 선택한 입시 유형인 ‘일반전형’에는 활용되지 않았다.

은재로 인해 후배들은 <고전 읽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 다수의 수강생은 잠을 자고 다른 과목을 공부하겠지만, 일부는 교양을 쌓으며 자기 실현의 꿈을 키울 것이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고전 읽기> 교사가 생각하는 ‘교양’은 무엇이며 어떻게 습득되고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작중의 교사는 <고전 읽기>의 과목 취지를 알고 성취기준에 도달한 은재를 통해 교양이 무엇인지 시사한다.

첫째, 교양은 무엇인가. “은재는 읽고 생각하고 쓸 수 있었다.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흡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성’을 갖고 있었다.” “진정 귀한 것은 지성 그 자체이며 그에 비하면 대학 합격증은 일종의 운전면허증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207쪽) 교양은 지성이다. 지성은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읽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이다.

둘째, 교양은 어떻게 습득할 수 있는가. 학습 주체의 의지와 실천으로 습득된다. 교사와 학교가 환경과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지만, 내면화 여부는 전적으로 학습자 개인의 의지에 달려있다. 교사 짝은 “학생 주체가 자

신의 결정에 따라 배우고 성장할 가능성”을(김기태, 2023, 192쪽) 신뢰하고 가르쳤다.

셋째, 교양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 학교에서 배우는 다른 지식보다 상위에 존재한다. 교양은 학습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체화되므로, 입시 유형과 진로를 결정하는 등 자기 주도적 삶을 이끈다. 교사가 수업 전에 기대한 것처럼, ‘지적 호기심’, ‘주체성’,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영위하려는 꿈과 끼에 대한 믿음’과 같은 형태로 내면화 된다.

요컨대 교사 콕은 ‘읽고 생각하고 쓸 수 있는 지성’을 교양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교양은 자기 주도적 의지와 실천으로 습득할 수 있다. 자기주도적으로 습득된 교양은 인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영위하려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것이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제시한 ‘보편 교양’이다. 이것은 교양에 대한 교사의 개념이기도 하면서, 소설을 쓴 작가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교양의 외연을 넓힌 개념이다.

교사 콕은 바람직한 교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교양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사라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작중 교사가 제시한 ‘교양’의 개념은 ‘전인교육’ 혹은 ‘교육’으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오도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김기태의 「보편 교양」에서 교사 콕이 생각하는 ‘교양’의 개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교육부가 고지한 국어과 교수학습과정에 주목해서 교양의 개념과 교과군의 특성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2) 국어과 <고전 읽기>(2015)에서 교양의 개념

국어과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별책5))에 수록된 <고전 읽기>에 대한 교육부의 고시를 통해 ¹⁴⁾ ‘교양’의 개념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교과 교육과정은 성격, 목표, 내용체계 및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

14)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5. 이하 인용은 이 자료의 것으로 인용한 페이지만 밝힘

가의 방향 등과 같은 항목으로 구조화 되어 있어 있으므로, 각 영역에서 교양의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인용하도록 하겠다. 2015년 국어와 교육과정의 <고전 읽기> 교과에서 ‘교양’이 언급된 영역과 문장을 영역별로 발췌하여 살펴보려 한다. 첫 번째로 교과의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성격

‘고전 읽기’는 초·중·고 공통 ‘국어’에서 학습한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고전을 읽으며 통합적인 국어능력을 기르는 과목으로, 고전을 통해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어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필요한 이해와 소양을 함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166쪽, 강조는 필자)

‘고전 읽기’에서 학습자는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문학 등 다양한 고전과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교양을 형성**하고, 학문 활동이나 직업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 수 있다.(166쪽, 강조는 필자)

교양은 ‘수준 높은 교양’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정성적인 것으로, ‘바람직한 인간’의 덕목이다. 두 번째로 교과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2. 목표

고전 읽기 활동을 통해 통합적인 국어 능력을 신장하고 **교양을 함양하며 바람직한 인성을 기른다**

가. 고전의 가치와 고전을 통한 국어 능력 심화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나. 고전을 제재로 하여 비판적·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고 의사소통 능력과 문화적 소통 능력을 기른다

다. 고전과의 소통을 생활화하여 수준 높고 윤리적인 국어생활을 영위하는 태도를 기른다.(167쪽, 강조는 필자)

교양 함양은 국어 능력 신장, 바람직한 인성 배양과 나란히 놓여있다. 다시 말해 교양은 국어 능력과 인성을 기르는 것과 별개의 영역임을 시사하지만, 하위 항목 가,나,다에서 보듯이 소통능력, 수준높고 윤리적인 국어생활 영위라는 ‘태도’와 관련되어 있다. 세 번째로 내용체계 및 성취기

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내용체계에서 내용 영역은 ‘고전의 가치’, ‘고전의 수용’, ‘고전과 국어 능력’, ‘고전과 삶’으로 나누어지며, 교양이 핵심 개념으로 내재한 영역은 ‘고전의 수용’이다. ‘고전의 수용’ 부분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고전의 수용’의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영역	핵심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고전의 수용	• 정전으로서의 고전 • 고전과 교양	• 고전은 시대, 지역, 문화, 주제 등에 따라 다양하다 • 고전은 재해석과 비판적 평가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획득한다 • 고전 읽기는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과 교양 형성에 기여한다	• 고전의 다양성 • 고전을 통한 자아와 세계의 이해 • 고전에 대한 가치 평가 • 고전을 활용한 문제 해결

‘고전의 수용’에서 ‘일반화된 지식’은 ‘고전’에 대한 개념과 ‘고전 읽기’의 기능으로 구분되는데, 교양은 ‘고전 읽기’ 과정에서 형성된다. ‘내용 요소’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고전 읽기’를 통해 자아와 세계를 이해하고 고전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취기준에서 교양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 고전의 가치

(다)교수학습방법 및 유의사항 : ②고전을 읽은 자신의 경험, 또는 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다른 사람의 글을 토대로 고전 읽기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고전에 대해 오래되고 어려우며 재미없는 책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교양을 넓히기 위해 고전 읽기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도록 한다.

(2) 고전의 수용

“‘고전의 수용’ 성취기준은 고전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가치를 이해하여 수

준 높은 교양을 쌓는데 중점을 두어 설정하였다.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문학 등 여러 분야의 고전을 선택하여 읽고, 고전에 담긴 지혜와 통찰을 수용함으로써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한편, 고전에 대한 재해석과 비판적 평가의 과정에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12고전02-04〕 고전을 통해 알게 된 사실과 깨닫게 된 점을 바탕으로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양을 함양한다.”

(가) 학습 요소 : 분야별 고전, 고전의 시대·지역·문화 요인, 자아와 세계의 이해, 고전의 재해석과 평가, **고전과 교양**(169쪽)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

⑤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교양을 형성**하도록 지도할 때에는 고전 읽기 계획서나 고전 읽기 이력철 등을 작성하게 하여 보다 계획성 있고 체계적인 고전 독서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독서 계획서나 이력철에 너무 많은 항목이 있어 작성 자체가 부담이 되거나, 계획서를 획일적으로 제공하여 자발적인 고전 읽기에 제약을 가하는 역효과를 낳지 않도록 유의한다.(170쪽)

성취기준에서도 교양은 넓히거나 쌓아야 하는 정성적인 영역으로 제시된다. 교양은 넓히고 쌓아나가 이를 바탕으로 자아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교양은 지성과 지혜의 성격을 띄고 있다. 네 번째로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4.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가. 교수·학습 방향

2) 국어 활동의 총체성을 고려하여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용한다.

① ‘고전 읽기’ 과목 내, ‘고전 읽기’와 국어과의 다른 과목 간, ‘고전 읽기’와 다른 교과 간, ‘고전 읽기’와 비교과 활동 및 학교 밖 생활과의 통합을 통해 **수준 높은 교양을 갖추어 다양한 분야의 진로에 필요한 통합적인 지혜와 소양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175쪽)

‘교수·학습방향’은 다른 교과 간 혹은 비교과와의 활동, 학교 밖 생활과 통합되어 다양한 진로에 필요한 통합적인 지혜와 소양 함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 결과 교수학습방법으로 교양은 학습자가 양보다 질을, 획일성보다 자발성을 갖추도록 계획하고 운용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고전 읽기> 교과에서 교양은 ‘교육’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며, “바람직한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것으로 진로를 포함하여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다. 교양은 도달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수준을 높이거나 넓혀야 하는 영역이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고전’을 읽는 것이다.

중등교육에서 ‘교양’은 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추상적인 능력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김기태의 「보편교양」에서 교사는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흡수하여 성장할 수 있는 지성’을 교양으로 보았던 것이다. 교과의 특수성에 맞추어 교사가 스스로 교양을 개념화 해 나간 것이다. 그렇다면 중등 교육과정 일반에는 교양 개념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가. 다음 장에서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¹⁵⁾ 중심으로 교양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3. 중등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양 교과군

1) 추구하는 인간상으로서 ‘교양 있는 사람’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교양을 어떻게 개념화 했을까. 2015년 개정안에

15)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전환과 기후생태환경 변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대응을 들 수 있다. 둘째, 사회적 다양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주도성과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의 함양이 강조되고 있다. 셋째,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개별화된 학습 경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맞춤형 교육 체제 구축에 대한 사회적 요구이다. 넷째,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와 교육과정 분권화 및 자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22) 2022개정 교육과정의 편제 구조에 의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69쪽)

서 추구하는 네 가지 인간상 중 세 번째는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이라는 교양인 양성이 제시되어 있다.¹⁶⁾ 2022년 개정안에서도 2015년 개정안과 유사하게, ‘자기 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네 가지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다. 그중 ‘교양있는 사람’의 개념과 ‘학교’의 역할에 주목하여 교양의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표 4] ‘교양있는 사람’의 개념과 ‘학교’의 역할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35쪽)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32쪽)
교육받은 사람은 ‘ <u>교양 있는 사람</u> ’이어야 한다. 교양 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의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교양 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의 여러 영역에서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공감적 이해 능력을 습득함으로써,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학교는 학생이 여러 영역에서의 문화적 소양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기를 수

- 16) 2015년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추구하는 네 가지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있는 사람
 -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공감적 이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 및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u>그리고</u> 이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u>지도해야 한다.</u>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과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인류 문화를 심미적으로 향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있는 사람’의 개념과 ‘학교’의 역할에 대한 2015년과 2022년 설명은 동일하다. ‘교양있는 사람’은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며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을 사는 사람’을 의미한다. ‘학교’는 효과적인 교육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판적 성찰을 통해 자신, 타인, 사회를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지도한다. 이러한 교육을 토대로 인류 문화를 향유, 발전시키며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인용문 상단 ‘교양있는 사람’의 수식어 ‘문화적 소양’, ‘다원적 가치’, ‘인류 문화’의 향유와 발전이라는 지향점에서 드러나듯, ‘교양’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에 방점이 놓인다. ‘교양있는 사람’은 다양한 문화 가치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창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실현하는 삶을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이라 명명한다. 이러한 특징은 ‘교양있는 사람’에 대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 교육 목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교양있는 사람’의 학교급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¹⁷⁾

17)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

[표 5] 초중고교 ‘교양있는 사람’의 학교급별 교육 목표

구분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50쪽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38쪽
초등 학교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 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며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 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중학 교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 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 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서 경 험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 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고등 학교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 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u>자신의 삶을 성찰 하고</u>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 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교양있는 사람’의 초중고 단계별 교육 목표는 ‘심성’, ‘이해와 공감’, ‘성찰과 창조’로 전개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끼는 심성을 기른다면, 중학교에서는 일련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고등학교에서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문화의 수용과 창조’를 기준으로, ‘교양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교육 단계와 수준이 제시되어 있다.

2015년과 2022년 개정 사이에 차이점은 ‘인문, 사회, 과학기술 소양’, ‘자기 삶 성찰’의 유무이다. 2022년에는 기초학문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미적 감성 역량,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 교수학습과정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추구한다.

교양을 ‘자신’을 비롯한 ‘문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초,중,고교별 문화를 수용하는 단계에 비해 문화의 내용은 위계적으로 상술되지 않았다. 그 결과 교수학습과정에서 교과 담당 교사들이 ‘교양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의 지식(정보)은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지만, 추상적인 형태의 교양을 습득하게 하고 내면화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아가 교양 교과군의 경우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성 확보의 문제가 대두된다. 다음 장에서는 중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양 교과의 편성체계에 대해 주목해 보도록 하겠다.

2)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군

교육과정에는 교양 교과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교양 교과군의 구성과 의의에 주목해 보려 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체험활동’으로 구분되며,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는데 교양은 ‘보통 교과’에 속한다.¹⁸⁾ 2022년 개정된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제는 다음과 같다.¹⁹⁾

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한다.

나)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한다.

(1) 보통 교과

(가) 보통 교과의 교과(군)는 국어, 수학, 영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과학,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으로 한다.

(나) 보통 교과군 구분

앞서 언급했듯이 고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며,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동 과목’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하고 이와 나란히 ‘선택 과

18)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학기 단위로 과목 이수과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하였다.(14쪽)

19)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총 이수 학점은 192학점이며 교과(군) 174학점, 창의적 체험활동 18학점(288시간)으로 편성한다. (표6은 77쪽을 참조하여 표로 만들)

목’을 운용하고 있다. 각 영역의 과목들은 아래와 같으며, 교양 교과군은 ‘보통 교과’ 내에서 ‘공통 과목’은 아니며 ‘선택 과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6] 2022 개정 보통교과군의 종류와 운영교과

교과 (군)	공통 과목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국어	공통국어 1·2	화법과 언어,독서와 작문,문학	주제 탐구 독서,문학과 영상,직무 의사소통	독서 토론과 글쓰기,매체 의사소통,언어생활 탐구	
수학	공통수학 1·2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Ⅱ,경제 수학,인공지능 수학, 직무 수학	수학과 문화,실용 통계,수학과제 탐구	
	기본수학 1·2				
영어	공통영어 1·2	영어Ⅰ, 영어Ⅱ, 영어 독해와 작문	영미 문학 읽기,영어 발표와 토론,심화 영어,심화 영어 독해와 작문,직무 영어	실생활 영어 회화,미디어 영어,세계 문화와 영어	
	기본영어 1·2				
사회 (역사 / 도덕 포함)	한국사1·2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현대사회와 윤리	한국지리 탐구,도시의 미래 탐구,	여행지리,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사회문제 탐구,금융과 경제생활,윤리문제 탐구,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통합사회 1·2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1·2	물리학, 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과학의 역사와 문화,기후변화와 환경생태,융합과학 탐구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과학탐구 실험1·2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지구시스템과	행성우주과학	

체육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스포츠 문화,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1·2
예술		음악,미술,연극	음악 연주와 창작,음악 감상과 비평,미술 창작,미술 감상과 비평	음악과 미디어,미술과 매체
기술·가정 / 정보		기술·가정	로봇과 공학세계,생활과학 탐구	창의 공학 설계, 지식 재산 일반, 생애 설계와 자립,아동발달과 부모
		정보	인공지능 기초,데이터 과학	소프트웨어와 생활
제2 외국어 / 한문		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러시아어,아랍어,베트남어	독일어 회화,프랑스어 회화,스페인어 회화, 중국어 회화,일본어 회화, 러시아어 회화,아랍어 회화,베트남어 회화, 심화 독일어,심화 프랑스어,심화 스페인어,심화 중국어,심화 일본어,심화 러시아어,심화 아랍어,심화 베트남어	독일어권 문화,프랑스어권 문화,스페인어권 문화,중국 문화,일본 문화, 러시아 문화,아랍 문화,베트남 문화
		한문	한문 고전 읽기	언어생활과 한자
교양		진로와 직업,생태와 환경	인간과 철학,논리와 사고,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삶과 종교,보건	인간과 경제활동,논술

초중등교육법 23조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3조에 따르면 교양 교과는 국가에서 정한 교과가 아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교양은 ‘체육, 예술, 기술·가정/정보, 제2외국어/한문’과 마찬가지로 공통 과목은 없으며, 선택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선택으로는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 진로 선택으로는 <인간과 철학> <논리와 사고> <인간과 심리> <교육의 이해> <삶과 종교> <보건>, 융합 선택으로는 <인간과 경제활동> <논술> 총 10개 교과가 있다.²⁰⁾

다는 교과(군)들이 일반 선택을 기반으로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 분류되고 확장되어 있는 데 비해, 교양 교과군의 경우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

20) ‘체육/예술/교양’은 3학점을 기본 이수학점으로 한다.

합 선택 간의 공통 기반이 부재한 채 다양한 영역의 과목들이 다양한 형태로 배열되어 있다. 일반 선택 <진로와 직업>, <생태와 환경>에 비해 선택 과목은 인문, 사회, 종교, 보건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융합선택은 경제와 논술을 내용으로 삼고 있다. 그 결과 교양교과(군)는 기존 교과군에 포함되지 못한 영역을 일관된 기준 없이 모아 놓은 것으로 보인다.

중등교육에서 추구하는 세 번째 인간상 ‘교양있는 사람’과 실제 고교 보통 교과군은 일치되지 않는다. ‘교양있는 사람’에 내재된 ‘교양’의 개념과 교양 교과군에 제시된 ‘교양’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는 심성, 태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후자는 진로활동 및 기타 영역에 방점을 두고 있다. 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양있는 사람’의 교육목표가 초등학교는 ‘심성(정서)’, 중학교는 ‘이해와 공감’, 고등학교는 ‘성찰과 창조’를 지향한다는 점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양자 간의 개념 차이를 매우기 어렵다.

중등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의 운영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교사의 입장에서선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뿐 아니라 자신이 담당하는 교과 외 교양 교과(군)의 중요도까지 수용하고 가르치기에는 피로도가 높다. 교양 교과군에 속하는 과목의 전문성 및 지도 역량에는 한계가 있다.²¹⁾ 그 결과 교양을 수업 조정용 교과로 인식하기 쉽다. 김기태의 단편소설 <고전 읽기> 교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 입장에서는 자습시간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교수자의 전문성도 확보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교사들 역시 중요도를 알지 못하므로, 학생들은 수시전형의 유리함을 척도로 이수하기 쉬우며 교양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기에는 어렵다.

21) 이와 관련하여, 일찍부터 교사가 자신의 전공을 심화할 수 있도록 역량 교육 등 교사 프로그램도 제안되어 왔다. (이상은·백선희,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확대 가능성 탐색: 교사 전공별 담당교과 현황 및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36권2호, 2019, 49-73쪽.)

4. 결론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에 관한 국제 비교를 수행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중등학교 인문교양은 교과 지식과 학업 역량에서는 우수한 성취를 보인 반면, 타자와의 관계와 주제적 자아 영역에서는 평균 이하의 낮은 수준이 나왔다. 자기 주도의 가치관과 목표 설정, 다양한 가능성 탐색을 통한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는 자주성에서 취약함을 보였다. 이에 중등교육과정에서 인문교양 함양을 위한 새로운 모색도 필요하지만, 중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양교육이 연계되고 내실화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 고등교육과정에서 교양의 개념과 교과군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중등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에서 교양은 어떠한 개념적 차이가 있으며 실제 교과군의 검토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았다. 우선 고등교육에서 교양의 개념과 교과군을 살펴보았다. 대학에서 교양의 개념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지도적 시민들이 지녀야 할 지적·정서적·도덕적 자질, 능력, 덕성”이며, 교양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교과군을 기초 학문, 기초문해, 체험소양의 범주로 나누어 별도의 학점과 이수 체계를 갖추어 운영하고 있다.

중등교육과정은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수학습과정과 총론에 제시된 교양의 개념과 교양교육의 내용을 분석해 보았다. 김기태의 단편 「보편 교양」(『창작과비평』, 2023.9)은 2015년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고전 읽기>교과목의 교수학습과정을 통해 중등교육 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교사는 인류의 정신적 유산을 흡수하여 성장할 수 있는 지성을 교양으로 보고 있다. 교양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은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교양의 특성에 기인한다. 수업 활동을 위해 고지된 바에 의하면 교양은 교육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추상적인 능력 정도로 제시되므로, 교사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적용하고 활용해야 한다.

교육과정 총론에는 중등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4가지 인간상이 제시되어 있는데 ‘교양있는 사람’은 세 번째 인간상이다. ‘교양있는 사람’은 다양한 문화 가치를 향유하면서 동시에 창조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이라 명명한다. 교양은 문화를 수용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양있는 사람’을 기르기 위해 초·중·고교 학교급별 교육목표는 수용 수준의 단계에 따라 ‘심성(정서)’, ‘이해와 공감’, ‘성찰과 창조’로 제시되었지만, 단계별로 수용해야 할 문화의 내용이 상충되지 않아 교수학습과정에서 교과 담당 교사들이 교양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도 교양 교과군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교과(군)’와 ‘창의체험활동’으로 구분된다. 교과군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되는데, ‘교양’은 보통 교과에 속한다. 중등 교육과정에서 교양 교과군은 공통 과목과 예체능을 제외한, 철학, 논리학, 심리학, 교육학, 종교, 보건, 경제, 논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학보다 인문학 위주의 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교양 교과군은 교사 입장에서는 해당 영역의 전문성 부족, 학생 입장에서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학점이 수 조정 교과로 그칠 우려가 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양의 개념과 교양 교과군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등 교육과정 자체가 학문의 기초부터 다양성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교양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며 교양 교과군은 정체성과 방향성이 모호하다. 그 결과 학생들로 하여금 ‘교양’과 ‘교양 교과’에 대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영역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입할 우려가 있다. 대학 진학 후 전공 교육과 더불어 교양 교육을 통해 학문의 기초와 다양성을 심화해야 할 터인데, 그에 앞서 잉여의 교과·교육으로 오도할 수 있다. 중등교육에서는 교양인으로서 심성과 태도 육성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양의 개념에 차이를 보이므로 교양

교과의 이수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태도, 목적, 방법,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등과 고등 교육과정에서 공히 ‘교양’의 개념과 교양 교과군(교육과정)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다른 의미와 교과군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교육과정의 연속성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중등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양의 자질과 고등교육에서 요구되는 교양의 자질이 다를 수는 있으나,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 제시되어야 교육의 연속성과 위계성을 지닐 수 있다. 교양의 근본은 같을 수 있지만, 학습자의 학습 단계 및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단계별로 내용이 심화되고 영역내 교양의 함의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상술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 교양, 고등 교양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구분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연계해서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등교육에서 제시한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은 고등교육에서 제시한 ‘자유인’의 삶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중등 교육과정에서는 지향하는 교양교육은 심성과 태도 교육에 방점이 놓인다.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을 살기 위해 나의 심성을 갖추고, 세계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며, 나아가 자기 삶의 성찰과 문화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려는 것이다. 고등 교육과정에서 지향하는 교양 교육은 수준높은 시민으로서 자질 교육에 방점이 놓인다. 중등교육에서 갖춘 심성과 태도를 갈고 닦아, 수준 높은 시민으로서 자기 실현과 공동체 문화 창출을 선도해 내는 것이다. 교양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중등’, ‘고등’이라는 단계에 맞는 교양 교육과정을 정비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어』, 2015.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15.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 고등학교 국어』, 2022.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고등학교』, 2022.
서무계, 『KEDI BRIEF-중등학교 인문교양 수준의 국제 비교 결과: 인간의 품격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 미래 교육에의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25.
서예원·변현정·안해정·박효원·윤종혁·이영준·이재연·황윤정·Malte Brinkmann·Yoshiro Tanaka·Murray Pratt·Hsiu-Chuan Linda SUNG·Carl Gombrich·Christopher Higgins·이섫별, 『글로벌 인문 교양교육 모델 개발 기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21.

논문

- 김기태, 「보편 교양」, 『창작과비평』201호, 창작과비평사, 2023.
백승수, 「대학교양교과의 성격과 준거」, 『교양교육연구』7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3, 57-74쪽.
손승남,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등학교 교양교육 강화 방안」, 『교양교육연구』70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68-81쪽.
안미영, 「대학의 교양교과로서 ‘문학’ 교육의 현황과 전망」, 『교양교육연구』62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55-69쪽.
여상운, 「고등학교 교양교육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교과와 교과서연구』4권 1호, 교과와 교과서학회, 2024, 1-21쪽.
이상은·백설희,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확대 가능성 탐색: 교사 전공별 담당교과 현황 및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36권2호, 2019, 49-73쪽.
정재림, 「중등 국어교육에서 교양의 위상과 가치」, 『한국어문교육』33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79-105쪽.
홍성연, 「고교-대학 교육과정 연계 관점에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재탐색」, 『교양교육연구』18권5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11-30쪽.

인터넷 사이트

한국교양기초교육원 <https://www.konige.kr> 2025.12.24.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에서 교양은 어떠한 개념적 차이가 있으며, 실제 교과군의 검토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진단해 보았다. 중등과 고등에서 교양의 개념과 교양 교과군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등 교육과정 자체가 학문의 기초부터 다양성 교육을 하고 있음에도, 교양에 대한 개념이 추상적이며 교양 교과군은 정체성과 방향성이 모호하다. 중등교육에서는 교양인으로서 심성과 태도 육성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에서 교양의 개념 차이를 보이므로 교양 교과군의 이수 과정에서 학습자들의 태도, 목적, 방법, 결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습자의 학습 단계 및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 단계별로 내용이 심화되고, 영역내 교양의 함의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상술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중등 교양, 고등 교양의 수준과 내용에 대한 구분과 차별성을 인정하고 연계해서 중고등 교육과정에서 교양교육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등교육에서 제시한 ‘행복하고 품격있는 삶’은 고등교육에서 제시한 ‘자유인’의 삶을 알기 쉽게 풀이한 것이다. ‘중등’, ‘고등’이라는 단계에 맞는 교양 교육과정을 정비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주제어 • 교양, 중등/ 고등 교육, 교과군, 교육과정, 학습자

■ Abstract

A Study on the Concept of Liberal Arts and the Continu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urricula : Focusing on the Secondary Korean Language Curriculum

Ahn, Mi Young / KonKuk University

This study diagnoses the conceptual differences in "liberal arts" betwee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curricula and identifies specific problems arising from a review of actual subject clusters. The examination of liberal arts concepts and subject groups across these educational stages yields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while the secondary curriculum encompasses diverse education from academic fundamentals, the concept of liberal arts remains abstract, and the identity and direction of its subject clusters are ambiguous.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cultivation of mindset and attitude as fundamental qualities of a cultivated person in secondary education.

Second, the conceptual disparity between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regarding liberal arts can influence learners' attitudes, purposes, methods, and outcomes during the course of study. Considering the learner's developmental stage and level, the content must be deepened at each educational phase, and the implications of liberal arts within specific domains need to be elaborated in detail.

Third, the distinctions in level and content between secondary and higher liberal arts education must be acknowledged and strategically linked to deepen the curriculum. The goal of a "happy and dignified life" in secondary education serves as an accessible interpretation of the "living as a free person (Liber)"

pursued in higher education. Therefore, the continu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should be secured by reorganizing the curricula to align with the specific developmental stages of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

Keyword • Liberal arts, Secondary/Higher education, Subject clusters, Learner, Curriculum

AI 시대의 ‘상생적 창의성’:

인간-AI 협력적 교수-학습 모델 설계

한 규 은 · 오 경 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상생적 창의성 교수-학습 모델 설계
4. 교육적 적용 및 평가 방안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21세기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의 습득에서 지식의 창출과 활용으로 전환되는 가운데, 2022년 ChatGPT의 등장은 대학 교육 현장에 전례 없는 충격을 안겨주었다. 생성형 AI는 기존의 자동화 도구를 넘어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텍스트 생성, 이미지 창작, 코딩 등 창의적 영역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단순한 교육 도구의 확장을 넘어, 창의성의 본질과 교육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 최근 연구 동향 분석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논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AI가 미래 교육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았음을 시사한다.¹⁾

* 한규은(제1저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오경은(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계당교양교육원 조교수

그러나 현재의 AI 리터러시 교육은 도구의 기능적 활용법 습득이나 단순 결과물 산출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어, 학습자의 주체적 사고력을 저하시키고 기술 의존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창의성은 개인의 독창적 인지 능력이나 내면적 성찰의 산물로 이해되어 왔으나,²⁾ 방대한 데이터를 조합하여 새로운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AI의 능력은 이러한 정의에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에 본 연구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을 넘어, 인간과 AI가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하는 ‘상생적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상생적 창의성’은 단순히 AI를 도구로 활용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비판적 성찰과 AI의 생성적 확장이 상호 변형구조 내에서 공진화하는 인지적 역동성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협력적 창의성 모델이 간과한 AI와의 하이브리드적 피드백 루프를 교육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AI는 인간을 대체하는 위협이 아니라, Vygotsky가 제시한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학습자의 인지적 한계를 확장시켜 주는 ‘지적 동반자’이자 ‘비계’로서 기능한다.³⁾ 따라서 대학 교양교육은 단순히 AI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AI와 협력하여 가치를 창출하고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상생의 지혜를 함양하는 실천적 장으로 진화해야 한다.

본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성 교육의 새로운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간과 AI의 협력을 통한 ‘상생적 창의성’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정, 「토픽모델링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논문지』 제29권 제2호, 2024, 197-209쪽.

2) Mihaly Csikszentmihalyi.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313-335.

3) Lev S. Vygotsky.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pp.84-91.

첫째, 본 연구는 Csikszentmihalyi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과 Amabile의 구성요소 모델을 AI 협력 환경에 맞게 재해석하여 상생적 창의성의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한다.⁴⁾ 이를 통해 개인-영역-현장의 상호작용 구조 내에서 AI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과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인간의 주도성이 필수적인 영역을 도출할 것이다.

둘째,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인간과 AI가 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5단계 순환 모형(준비-생성-평가-정교화-성찰)을 개발한다. 이 모델은 문제 정의와 가치 판단 단계에서는 인간이 주도권을 갖고, 아이디어의 확산과 정교화 단계에서는 AI의 지원을 받는 구체적인 역할 분담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특히 Dellermann 등이 제시한 하이브리드 지능 개념을 교육적으로 승화시켜,⁵⁾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협력적 파트너로서 기능하는 구체적인 교수 전략을 제시한다.

셋째, 개발된 모델을 실제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자 수준별 교수 전략과 다차원적 평가 체계를 제시한다. 결과물의 우수성뿐만 아니라 협력 과정의 진정성과 윤리적 성찰을 포함하는 평가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AI 활용 교육이 갖는 윤리적 쟁점에 대한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설계 연구의 방법론을 따른다. 창의성 이론, 교육공학, 그리고 인간-AI 상호작용 연구 분야의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각 이론의 교육적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이를 상호보완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상생적 창의성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 과정은 이론 검토, 설계 원리 도출, 모델 구조화의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의 논리적 연결을 본문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텍스트 및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대학 교양교육으로 범

4) Teresa M. Amabile. *Creativity in Contex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pp.115-120.

5) Dominik Dellermann et al.. "Hybrid Intelligence",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vol. 61, no. 5, 2019, pp.637-643.

위를 한정하며, 기술적 알고리즘의 분석보다는 교육적 활용과 그에 따른 인간 사고 과정의 변화를 탐구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AI 시대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AI 시대 창의성의 진화와 교육적 함의

전통적으로 창의성은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능력’ 혹은 천재적인 개인의 고유한 인지적 특성으로 정의되어 왔다. Guilford가 창의성을 확산적 사고와 연결 지으며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등의 요소를 제시한 이래, 창의성 교육은 주로 개인의 내적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왔다.⁶⁾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보조하고, 나아가 예술적·학술적 산출물을 생성하는 시대로 진입함에 따라 창의성을 고립된 개인의 능력으로만 환원하는 관점은 한계에 직면했다.

Csikszentmihalyi의 창의성 시스템 모델은 AI 시대의 창의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그는 창의성이 개인, 영역, 현장이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현된다고 보았다.⁷⁾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문화적 지식 체계인 ‘영역’의 정보를 습득하여 새로운 변형을 만들어내고, ‘현장’의 전문가 집단이 그 변형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창의성이 성립한다. AI 시대에 이르러 생성형 AI는 방대한 ‘영역’의 지식을 초고속으로 처리하여 개인에게 제공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으며,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평가하는 ‘현장’의 기준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현대의 창의성 교육은 개인의 인지적 훈련을 넘어, AI라는 기술적 행위자

6) J. P. Guilford.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vol. 5, no. 9, 1950, pp.444-454.

7) Mihaly Csikszentmihalyi,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Perennial, 1997, pp.27-30.

와 사회적 맥락이 결합된 시스템적 상호작용 능력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Csikszentmihalyi의 모델은 '현장'의 평가 주체를 인간 전문가 집단으로 상정하고 있어, AI가 산출물의 생성자이자 동시에 평가 보조자로 기능하는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현장'의 판단 기준 자체가 AI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이 모델의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는 Csikszentmihalyi의 틀을 참조하되, 개인-영역-현장의 상호작용에 AI를 준행위자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이를 재해석한다.

나아가 Glăveanu의 사회문화적 창의성 이론은 창의성을 개인과 타인, 그리고 인공물을 포함한 사회적 환경 간의 분산된 과정으로 설명한다.⁸⁾ 이 관점에서 창의성은 개인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 상호작용과 문화적 도구의 매개를 통해 구성되는 외적 과정이다.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 창의적 과정에 개입하는 '준(準)행위자'로서 기능하므로, AI 시대의 창의성은 인간과 AI가 맺는 관계망 속에서 발현되는 '협력적 창의성'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다. 이는 대학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창의성이 개인의 독창성을 넘어, 기술 및 타인과 협력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시민적 역량과 연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생성형 AI, 특히 Chat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과 Midjourney 등의 이미지 생성 모델은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와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⁹⁾ 이러한 AI가 보여주는 창의적 산출물의 기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Boden이 제시한 창의성의 세 가지 유형—조합적, 탐색적, 변형적 창의성—을 적용해 볼 수 있다.¹⁰⁾

8) Vlad Petre Glăveanu, "Paradigms in the study of creativity: Introducing the perspective of cultural psychology", *New Ideas in Psychology*, vol. 28, no. 1, 2010, pp.79-93.

9) Ashish Vaswani et al.,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 30, 2017, pp.5998-6008.

첫째, 생성형 AI는 ‘조합적 창의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AI는 학습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개념들을 연결하거나, 기존의 스타일과 장르를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하여 산출물을 생성한다. 예를 들어, 특정 화가의 화풍으로 현대 도시를 묘사하거나, 서로 다른 학문 분야의 이론을 융합하여 텍스트를 생성하는 능력은 인간의 인지적 처리 속도와 범위를 능가한다.

둘째, AI는 ‘탐색적 창의성’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주어진 규칙이나 스타일의 구조 내에서 가능한 모든 변이를 탐색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둑 인공지능 알파고가 보여주었듯, AI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인간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수나 패턴을 찾아내는 데 능숙하다. 생성형 AI 역시 문법적 규칙이나 예술적 양식의 범위 안에서 수많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의 사고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다만 Boden의 분류는 AI 등장 이전의 인간 창의성을 전제로 구성된 것으로, ‘변형적 창의성’의 경계가 기술 발전에 따라 이동할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는다. 예컨대 AI가 기존 학습 데이터의 확률 분포를 이탈하는 ‘이상값’ 출력을 보일 때, 이를 단순한 탐색적 창의성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러나 현재 생성형 AI가 사회적 맥락과 윤리적 의도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변형적 창의성의 주도적 행위자는 여전히 인간임을 본 연구는 견지한다.

그러나 셋째, ‘변형적 창의성’의 측면에서 AI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다. 변형적 창의성은 기존의 규칙이나 패러다임 자체를 깨뜨리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의 AI는 과거의 데이터 확률 분포에 기반하여 ‘가장 그럴듯한’ 결과를 생성할 뿐, 인간과 같은 의도나 주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 체계에 저항하거나 혁신을 시도하지 못한다. 또한 AI의 산출물은 독창적일 수 있으나, 그것이 사회적으로

10) Margaret A. Boden, *The Creative Mind: Myths and Mechanisms* (2nd ed.), London: Routledge, 2004, pp.1-10.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윤리적·맥락적 판단 능력은 결여되어 있다. 바로 이 지점이 AI 시대 창의성 교육에서 인간의 역할이 규명되는 지점이다. 즉, AI는 조합과 탐색을 통해 아이디어의 발산을 돕는 강력한 도구이지만, 문제의 본질을 정의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변형적 창의성의 영역은 여전히 인간의 고유한 몫으로 남는다.

2) 하이브리드 지능의 교육적 재해석: 상생적 창의성

생성형 AI의 기술적 한계와 가능성을 고려할 때, 미래 교육의 방향은 AI를 배제하거나 AI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AI의 강점을 결합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Dellermann 등은 이를 '하이브리드 지능'으로 정의하며, 인간 지능과 인공지능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각각이 단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는 현상으로 설명했다.¹¹⁾ 본 연구는 이 하이브리드 지능 개념을 대학 교양교육의 맥락으로 재해석하여 '상생적 창의성'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상생적 창의성은 인간의 직관, 감정, 윤리적 판단력, 맥락적 이해 능력과 AI의 데이터 처리 능력, 패턴 인식 능력, 무한한 생성 능력이 결합하여 발현되는 집단적 차원의 창의성이다. 이는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을 AI 환경으로 확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I는 학습자가 혼자서는 도달할 수 없는 인지적 수준에 도달하도록 돕는 '지적 비계' 역할을 수행한다.¹²⁾

물론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 이론을 AI에 적용하는 것에는 개념적 주의가 필요하다. 원래 이 이론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교감을 포함하는 인간 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AI는 학습자의 정서적 상태를 감지하거나 맥락적 판단을 통해 개입 시점을 조율하는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지적 비계'로서의 AI는 인간 교사의 비계와 질적으로 구별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AI를 비계로 개념화할 때, 이는 인지적 기능

11) Dominik Dellermann et al., "Hybrid Intelligence",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vol. 61, no. 5, 2019, pp.637-643.

12) Vygotsky, op. cit., p.86.

의 확장이라는 제한적 의미에서의 유추임을 명확히 한다.

상생적 창의성 모델에서 인간과 AI의 관계는 주종 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설정된다. 그러나 이는 AI에게 도덕적 지위나 행위주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Vygotsky가 상정한 ‘유능한 타자’의 개념을 기술적 파트너로 은유적으로 확장한 것이다. 최윤빈과 장대익(2022)의 연구에서 지적하듯, AI는 행위 능력은 높게 지각되지만 경험 능력이 결여되어 진정한 의미의 도덕적 책임을 질 수 없다.¹³⁾ 따라서 본 모델은 AI의 기능적 수월성을 활용하되, 기술이 학습자의 주체적 사고를 대체하지 않도록 최종 의사결정과 가치 판단의 주체가 인간임을 명확히 하는 ‘주체적 협력’을 전제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AI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창의적 사고를 확장하는 메타인지적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3)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에서의 인간과 AI의 역할 분담 메커니즘

상생적 창의성을 교육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인간과 AI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한 명확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Wallas의 창의적 사고 4단계(준비-부화-조명-검증)와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종합하면, 이 메커니즘은 '인간 주도 ↔ AI 지원'의 역동적 교차 구조로 요약된다.¹⁴⁾

우선 문제의 발견과 정의 단계에서는 인간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문제는 객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필요, 가치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I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만, 무엇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지를 판단하는 통찰과 공감 능력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는다. 반면 아이디어 생성 단계에서는 AI의 조합적·탐색적 생성 능력이 극대화된다. Jarrahi의 공생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르면, AI는 분석적·조합적 접근을

13) 최윤빈·장대익, 「AI의 의사결정에 대한 도덕판단에서 의인화가 미치는 영향 - 쌍도덕 이론을 중심으로」, 『인지과학』 제33권 제4호, 2022, 188쪽.

14) Graham Wallas. *The Art of Thought*, New York: Harcourt, Brace, 1926.

통해 인간이 간과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탐색 공간을 확장한다.¹⁵⁾ 이때 인간은 AI가 생성한 아이디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자신의 직관을 더하는 '지휘자'로서 기능한다. 아이디어의 평가와 성찰 단계에서는 다시 인간 주도로 회귀하여, 윤리적 타당성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창의성 교육은 이러한 역할 분담 메커니즘을 내면화하는 과정이어야 하며, 인간과 AI가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는 단계별 협력 구조가 상생적 창의성의 핵심이다. 이 원리는 3장의 5단계 순환 모형으로 구체화된다.

3. 상생적 창의성 교수-학습 모델 설계

1) 모델의 설계 원리

본 절에서는 앞서 2장에서 검토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상생적 창의성 모델의 설계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구체적인 모델 구조로 형상화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과 하이브리드 지능 개념으로부터 인간과 AI의 역할 분담 원리를 추출하고, 이 원리가 교수-학습 모델의 설계 논리로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밝힌 뒤, 그 결과물로서의 모델 전체 구조를 제시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상생적 창의성 모델은 인간과 인공지능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거나 대립적인 관계로 설정하지 않고, 상호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인지적 확장을 도모하는 공진화 시스템을 지향한다. 여기서 공진화란 인간과 AI가 상호작용을 통해 각자의 역량과 기능이 함께 변화·발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기술철학적 맥락에서 인간과 기술이 서로를 형성해 나가는 상호구성적 관계를 가리킨다.¹⁶⁾ 이 모델의 이론적 토대는 비고

15) Mohammad Hossein Jarrah.,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Human-AI symbiosis in organizational decision making", *Business Horizons*, vol. 61, no. 4, 2018, pp.577-586.

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에 근거한 근접발달영역의 현대적 재해석에 있다. 전통적인 근접발달영역이 유능한 타인인 교사나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가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나아가는 공간을 의미했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근접발달영역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지적 비계를 통해 학습자의 사고가 확장되는 영역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¹⁷⁾ 즉 인공지능은 단순한 도구적 효용성을 넘어 학습자가 단독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창의적 성취를 가능하게 하는 인지적 파트너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협력적 관계에서 핵심적인 설계 원리는 인간의 주도성과 인공지능의 기능적 수월성을 전략적으로 조화시키는 데 있다. Dellermann 등이 제시한 하이브리드 지능 개념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방대한 데이터 처리, 패턴 인식, 그리고 확률적 조합을 통한 무한한 변이 생성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¹⁸⁾ 반면 인간은 문제의 맥락을 파악하고 직관적 통찰을 발휘하며 사회·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고유한 역량을 지닌다. 따라서 상생적 창의성 모델은 인공지능이 아이디어의 발산과 정교화를 기술적으로 지원하되, 문제의 정의와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인간에게 부여하는 비대칭적이면서도 상호보완적인 역할 분담을 전제한다. 이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을 배제하고 인간이 인공지능과의 상호작용을 주체적으로 통제하며 창의적 산출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인간 고유의 창의적 역량 자체가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2) 상생적 창의성 구현을 위한 5단계 프로세스 모형

상생적 창의성을 교육 현장에 구체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창의적 문제 해결 이론과 디자인 씽킹 프로세스를 인공지능 협력 환경에 최적화하여 재구조화한 5단계 순환 모형을 제안한다. 이 프로세스는 준비, 생성, 평가, 정교화, 성찰의 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역할

16) Pedreschi et al., n.pag.

17) Vygotsky, op. cit., p. 86.

18) Dellermann et al., op. cit., p. 638.

이 역동적으로 교차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5단계 모형은 단일 이론에서 연역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이론적 자원을 교육적으로 통합한 결과물이다. 우선 Wallas의 창의적 사고 4단계(준비-부화-조명-검증)는 창의적 과정의 시간적 흐름을 구조화하는 기본 틀로 기능하였으며, 여기에 디자인 씽킹의 사용자 중심적·반복적 문제해결 프로세스를 접목하여 교육 현장의 실천성을 확보하였다. 나아가 Dellermann 등의 하이브리드 지능 개념에서 도출된 인간-AI 역할 분담 원리를 각 단계에 적용함으로써, 단순한 창의적 문제해결 모형이 아닌 인간의 주도성과 AI의 기능적 수월성이 단계별로 교차하는 협력 구조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통합의 결과로서 준비, 생성, 평가, 정교화, 성찰의 5단계가 도출되었으며, 각 단계는 인간 주도성과 AI 지원의 비중이 역동적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핵심 설계 원리로 삼는다.

첫 번째 단계인 준비 단계는 창의적 활동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인간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인공지능은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 제공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무엇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인지 정의하고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한이다. 학습자는 개인적 관심사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인공지능에게 제공할 프롬프트의 맥락을 구조화함으로써 협력의 토대를 마련한다. 이때 학습자는 일상적 상황에서 숨겨진 문제나 개선의 여지를 발견하는 문제 감수성을 발휘해야 하며,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보조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인 생성 단계는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발산하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의 역할이 극대화되는 지점이다. 학습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인공지능에게 다양한 관점의 아이디어를 요청하며, 인공지능은 학습된 데이터를 조합하여 인간의 인지적 고착을 깨뜨리는 방대한 양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는 Boden이 언급한 조합적 창의성이 발현되는 단계로 인간과 인공지능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디어의 양적 팽

창과 질적 다양성이 확보된다.¹⁹⁾ 학습자는 인공지능이 제시한 결과물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자극제로 삼아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세 번째인 평가 단계는 발산된 아이디어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수렴적 사고의 과정으로 다시 인간 주도의 주체적 판단이 강조된다. 인공지능은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이나 데이터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판단을 보조할 수 있지만, 해당 아이디어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며 윤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학습자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인공지능 산출물의 편향성과 오류를 식별하고 자신의 창의적 의도에 부합하는 아이디어를 선별함으로써 기술 의존성을 탈피한다.

네 번째인 정교화 단계는 선별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결과물로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인공지능의 기술적 지원이 집중적으로 활용된다. 텍스트, 이미지, 코드 등 멀티모달 생성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시각화하거나 시제품으로 신속하게 구현한다. 인공지능은 초안 작성이나 기능 구현과 같은 반복적 작업을 수행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인간은 전체적인 완성도를 조율하며 미적·감성적 디테일을 더하여 결과물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 과정은 반복적인 피드백 루프를 통해 점진적으로 결과물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단계인 성찰 단계는 전체 과정을 메타인지적으로 검토하고 학습을 내면화하는 단계이다. 학습자는 인공지능과의 협력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인공지능의 한계는 무엇이었는지를 회고한다. 또한 결과물에 대한 윤리적 영향력 평가를 수행하여 인공지능 활용의 적절성을 반성하고 이러한 성찰의 결과를 다음 창의적 활동의 자양분으로 삼는다. 각 5단계를 아래 <표 1>에 정리하였다.

19) Boden, op. cit., pp. 1-10.

<표 1> 상생적 창의성 구현을 위한 5단계 프로세스 모형

단계	주요 활동 및 정의	인간의 역할	인공지능의 역할	기대 효과 및 역량
1단계 준비	문제 정의 및 맥락 구조화	문제 인식, 목표 설정, 프롬프트 맥락 설계	정보 검색, 유관 사례 요약, 질문 생성을 통한 구체화	문제 감수성 및 비판적 사고력
2단계 생성	협력적 아이디어 산발	독자적 관점 유지, AI 산출물 변형 및 조합 주도	다각도 대안 제안, 탐색 공간 확장 및 확률적 변이 생성	발산적 사고 (유창성, 융통성)
3단계 평가	다차원적 분석 및 선별	윤리적·실용적 가치 판단 및 최종 선별	데이터 분석 및 예측 결과를 통한 판단 보조	가치 판단력 및 사회적 책임의식
4단계 정교화	프로토타입 제작 및 개선	전체 방향성 및 질적 통제, 사용자 경험(UX) 검토	기술적 실행, 신속한 시각화 및 세부 작업 담당	아이디어 실현 및 협업 역량
5단계 성찰	메타인지적 검토 및 회고	사고 과정 모니터링, AI 협력의 적절성 및 윤리적 평가	활동 데이터(대화 로그 등) 정량 분석 및 피드백 제공	메타인지적 창의 역량 및 주체적 태도

3) 학습자 역량 기반 단계별 교수 전략

앞서 2장에서 검토한 Boden의 창의성 유형 분류에 따르면, 생성형 AI는 조합적·탐색적 창의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반면, 기존 패러다임의 전환을 수반하는 변형적 창의성은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남는다. 이러한 역할 분담 구조를 학습자가 실천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접근이 아닌 학습자의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AI 리터러시와 창의적 역량이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학습자에게 처음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요구하는 것은, AI의 조합적·탐색적 능력을 활용하되 변형적 창의성의 주체로 기능해야 하는 학습자의 역할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학습자가 AI 의존에서 벗어나 점진적으로 주도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설계된 3단계 교수 전략을 제시한다.

상생적 창의성 모델이 교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공지능 리터러시와 창의적 역량 수준에 따른 차별화된 교수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이를 초급, 중급, 고급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우선 초급 단계에서는 안내된 협력 전략을 적용한다. 인공지능 도구의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를 위해 교수자는 명확한 과제 구조와 활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이 단계에서 학습자는 인공지능이 생성한 다양한 예시 중에서 자신의 의도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조합하는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의 도구적 효용성을 체감하고 기초적인 협업 능력을 함양한다. 주로 구조화된 프롬프트를 활용하여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둔다.

중급 단계의 학습자에게는 협력적 탐구 전략이 요구된다. 학습자는 인공지능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며 단순히 정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반복적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인공지능은 아이디어 제안자이자 비판적 조언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학습자는 인공지능의 제안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수정·보완하며 주도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고급 단계에서는 전략적 파트너십 전략을 지향한다. 이 단계의 학습자는 인공지능의 강점과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상황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인공지능 도구를 스스로 선택하여 최적의 협업 프로세스를 설계한다. 학습자는 인공지능을 자신의 인지적 확장을 위한 파트너로 완전히 내면화하여 기존의 관습을 깨는 혁신적인 결과물을 창출하고 그 과정 전체를 메타인지적으로 조절하는 주체적 역량을 발휘하게 된다.

4. 교육적 적용 및 평가 방안

1)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단계별 교육 전략

상생적 창의성 모델을 교육 현장에 실천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교수자가 학습자의 인간 고유 역량을 이끌어내는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인공지능 도구의 기능을 익히는 것을 넘어, 문제의 발견부터 해결책의 구현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고유한 사고 역량과 인공지능의 기술적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데 초점을 둔다.

첫째, 문제 인식 및 정의 단계에서 교수자는 학습자가 일상적 상황에서 간과된 불편함을 포착하고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문제의 본질을 스스로 정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홍승주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공감하기 및 문제 정의하기 단계에서 학습자가 타인의 관점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창의적 문제해결력 향상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²⁰⁾ 최종적인 문제의 우선순위와 접근 방향을 결정하는 주체는 학습자 자신임을 강조하되, 인공지능이 생성하는 질문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여 문제의 범위를 구체화할 수 있다.

둘째,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산출물에 매몰되지 않고 이를 자신의 사고를 확장하는 자극제로 활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교수자는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결과물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명확히 구분하면서도 창의적으로 융합하여 제3의 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셋째, 평가 및 선택 단계에서는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윤리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넷째, 구현 및 정교화 단계에서는 학습자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초기 모델을 빠르게 제작하고 반복적 피드백을 통해 결과물을 점진적으로 개선

20) 홍승주·김성원·이영준, 「디자인 씽킹 기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28권 제2호, 2023, 230-232쪽.

해 나가도록 한다. 이때 교수자는 학습자가 기술적 구현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용자 경험을 고려하여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2) 상생적 창의성 평가 체계 구축

인공지능과 협력하는 교육 환경에서는 결과물의 우수성만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평가 방식으로는 학습자의 역량을 온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생적 창의성 모델에 부합하는 평가는 결과물뿐만 아니라 협력의 과정, 기여의 투명성, 그리고 윤리적 성찰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체계로 구축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 제시하는 평가 체계는 3장에서 설계한 5단계 순환 모형 및 학습자 역량 수준별 교수 전략과 직접적으로 대응하도록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 평가는 준비·생성·성찰 단계에서의 학습자 사고 과정을 추적하며, 기여도 투명성 평가는 생성·정교화 단계에서 인간과 AI의 역할 분담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한다. 윤리적 성찰 평가는 5단계 중 성찰 단계와 직접 대응하며,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역량 발달을 측정하는 핵심 도구로 기능한다. 또한 이 평가 체계는 학습자의 역량 수준에 따라 적용 기준을 달리하여, 초급 단계에서는 AI 활용의 적절성 인식을, 중급에서는 비판적 상호작용의 질을, 고급에서는 전략적 협력 설계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우선 평가의 핵심은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전환이다. 학습자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인공지능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수정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학습자의 사고가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창의적 과정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아이디어 생성부터 최종 산출물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분석한다. 특히 학습자와 인공지능 간의 대화 로그나 프롬프트 수정 이력을 분석함으로써,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메타인지

적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쟁점인 저작권과 창작의 진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여도 투명성 원칙에 기반한 평가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최종 산출물에서 인공지능이 생성한 부분과 인간이 창작한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단순한 표기를 넘어 학습자가 인공지능의 산출물에 어떤 독창적 해석을 더했는지, 왜 특정 인공지능 도구를 선택했는지에 대한 전략적 의도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인간 고유의 기여도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사고력과 책임감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최윤빈과 장대익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행위 능력은 있으나 경험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도덕적 책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도덕적 책임은 인간에게 귀속된다.²¹⁾ 따라서 평가 체계는 학습자가 인공지능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성, 허위 정보, 저작권 침해 등의 윤리적 쟁점을 얼마나 민감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해 책임감 있게 대응했는지를 검증해야 한다. 이는 윤리적 의사결정 시나리오 평가나 성찰적 에세이 작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는 단순한 기술 활용 능력을 넘어선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상생적 창의성 평가 체계는 개인의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의 협업 능력, 윤리적 판단력, 그리고 자기 성찰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평가 체계의 구축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이 기술적 기능인의 양성이 아닌, 기술을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성숙한 인간을 길러내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가져온 고등교육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기술을 인간의 창의성을 대체하는 위협이 아닌 인지적 확장

21) 최윤빈·장대익, 앞의 논문, 187-188쪽.

의 기제로 활용하기 위한 상생적 창의성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공지능 시대의 창의성은 고립된 개인의 내적 역량에 국한되지 않으며 인간의 고유한 직관과 인공지능의 데이터 처리 능력이 결합하여 공진화하는 협력적 과정으로 재정의되어야 한다.

본 연구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생적 창의성 모델은 준비, 생성, 평가, 정교화, 성찰의 5단계 순환 과정을 통해 구현된다. 이 과정에서 인공지능은 학습자의 근접발달영역 내에서 아이디어의 확산적 생성을 돕는 인지적 파트너로서 기능하며, 인간은 문제의 맥락을 정의하고 윤리적 가치를 판단하는 주체적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도구로 바라보던 기존의 관점을 넘어 인간과 기술이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지능의 교육적 실천 가능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둘째, 학습자의 역량에 따른 단계별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인공지능 리터러시 수준에 따라 안내된 협력에서 시작하여 협력적 탐구를 거쳐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나아가는 위계적 접근은 학습자가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주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모든 학습자에게 일률적인 도구 활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준비도에 맞춰 인공지능의 개입 수준을 조절해야 함을 제안한다.

셋째, 상생적 창의성 교육의 안착을 위해서는 결과물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협력의 과정과 윤리적 성찰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평가 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기여도 투명성 원칙과 과정 중심 포트폴리오 평가는 인공지능 활용 결과물에 대한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고 학습자의 메타인지적 성장을 촉진하는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을 바탕으로 대학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우선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윤리 교육이 교양 기초 과정에 필수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기술적 활용 능력 이전에 인공지능의 편향성과 한계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소양 교육이 선행될

때 비로소 건강한 상생적 창의성이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창의성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시각은 일면적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인간의 주도적 관여를 전제로 할 때 인공지능이 창의적 협력의 동반자로 기능할 가능성에 주목한다. 본 연구가 제안한 상생적 창의성 모델이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기술의 진보를 포용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문헌 검토와 기존 모델의 재구성을 토대로 상생적 창의성 교수-학습 모델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실증적 검증이 수반되지 않은 이론 모델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파일럿 수업 적용, 학습자 피드백 수집, 전문가 타당화 검토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안된 모델이므로, 교육 현장에서의 실제 효과성과 적용 가능성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특히 학습자의 역량 수준별 교수 전략과 다차원적 평가 체계는 실제 수업 맥락에서의 반응을 확인하는 실험연구 또는 설계기반연구 방법론을 통해 정교화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론 모델의 제안 단계에서 실증적 교육 연구로 나아가기 위한 본 연구의 핵심적인 후속 과제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 Amabile, Teresa M. *Creativity in Context*,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6.
- Boden, Margaret A. *The Creative Mind: Myths and Mechanisms* (2nd ed.), London: Routledge, 2004.
- Csikszentmihalyi, Mihaly. *Creativity: Flow and the Psychology of Discovery and Invention*, New York: HarperPerennial, 1997.
- Vygotsky, Lev 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 Wallas, Graham. *The Art of Thought*, New York: Harcourt, Brace, 1926.

논문

- 고유정, 「토픽모델링 기반의 인공지능 교육 연구 동향 분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9권 2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4, 197-209쪽.
- 최윤빈·장대익, 「AI의 의사결정에 대한 도덕판단에서 의인화가 미치는 영향: 쌍도덕 이론을 중심으로」, 『인지과학』 33권 4호, 한국인지과학회, 2022, 169-195쪽.
- 홍승주·김성원·이영준, 「디자인 씽킹 기반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창의적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8권 2호,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 225-233쪽.
- Csikszentmihalyi, Mihaly. “Implications of a Systems Perspective for the Study of Creativity”, *Handbook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pp. 313-335.
- Dellermann, Dominik., Philipp Ebel, Matthias Söllner, Jan Marco Leimeister, “Hybrid Intelligence”, *Business & Information Systems Engineering*, vol. 61, no. 5, 2019, pp. 637-643.
- Glăveanu, Vlad Petre. “Paradigms in the Study of Creativity: Introducing the Perspective of Cultural Psychology”, *New Ideas in Psychology*, vol. 28, no. 1, 2010, pp. 79-93.

- Guilford, J. P. "Creativity", *American Psychologist*, vol. 5, no. 9, 1950, pp. 444-454.
- Jarrahi, Mohammad Hosse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Future of Work: Human-AI Symbiosis in Organizational Decision Making", *Business Horizons*, vol. 61, no. 4, 2018, pp. 577-586.
- Pedreschi, Dino., Luca Pappalardo, Emanuele Ferragina, Ricardo Baeza-Yates, Albert-László Barabási, Frank Dignum, Virginia Dignum, Tina Eliassi-Rad, Fosca Giannotti, János Kertész, Alistair Knott, Yannis Ioannidis, Paul Lukowicz, Andrea Passarella, Alex Sandy Pentland, John Shawe-Taylor, & Alessandro Vespignani. "Human-AI coevoluti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 339, 2025, 104244.
- Vaswani, Ashish, Noam Shazeer, Niki Parmar, Jakob Uszkoreit, Llion Jones, Aidan N. Gomez, Łukasz Kaiser, & Illia Polosukhin. "Attention Is All You Need",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vol. 30, 2017, pp. 5998-600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한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력하는 '상생적 창의성'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하고 교육 현장 적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영역 이론과 하이브리드 지능 개념에 기반하여 인공지능을 학습자의 인지적 파트너로 재개념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생적 창의성을 구현하는 5단계 순환 모형(준비-생성-평가-정교화-성찰)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은 인간의 문제 정의 및 윤리적 판단 능력과 인공지능의 대량 데이터 처리 및 다양한 아이디어 생성 능력을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여, 인간과 인공지능이 각자의 강점을 발휘하며 함께 성장하는 전략을 핵심으로 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 위에서 교육 현장 적용을 위한 세 가지 차원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였는데, 첫째는 학습자의 역량 수준에 따른 단계별 교수 전략 구성이며, 둘째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기여도를 명확히 하는 투명성 원칙에 기반한 과정 중심 평가 방법이고, 셋째는 윤리적 성찰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평가 체계 구축이다. 본 연구는 기술이 교육을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관점을 넘어, 인간 고유의 가치와 기술 발전이 균형을 이루는 구체적인 창의성 교육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주제어 • 상생적 창의성, 생성형 인공지능, 인간-AI 협력, 창의성 교육, 교수-학습 모델

■ Abstract

Synergistic Creativity in the AI Era: Designing a Human-AI Collaborative Teaching-Learning Model

Han, Kyueun / Sangmyung University

Oh, Gyung Eun / 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ed a ‘synergistic creativity’ teaching-learning model based on human-AI collaboration in response to educational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rapid advancement of generative AI. Drawing on Vygotsky’s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and the concept of hybrid intelligence, AI was reconceptualized as a cognitive partner for learners, leading to a five-stage cyclical model (preparation-generation-evaluation-refinement-reflection). This model complements human capabilities in problem definition and ethical judgment with AI’s capacity for data processing and idea generation. Three practical strategies for classroom implementation were specified: staged instructional strategies tailored to learners’ competency levels; process-oriented assessment grounded in transparency principles; and a multidimensional assessment framework incorporating ethical reflection. Moving beyond technological determinism, this study presents a concrete direction for creativity education that balances human values with technological advancement.

Keyword • Synergistic creativity, Generative AI, Human-AI collaboration, Creativity education, Teaching-Learning model

러시아어 학습자를 위한 인공지능 챗봇 학습 도구 개발 연구 제안*

김 태 진**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본론
 - 1) 선행 연구와의 비교
 - 2) AI 챗봇 기반 러시아어 학습 시스템 개발
 - 3) 연구 내용 및 방법
 - 4) 연구 결과 예상
3. 나오는 말 및 제언

1. 들어가는 말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로봇(Robot)이라는 4대 기술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과 사회 환경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술은 학교 교육에서 교수자와 학습자의 교수, 학습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어 다양한 교육 영역에서 연구 중이며, 이미 개발된 도구들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 이 논문은 2025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배재대학교 러시아-중앙아시아학 교수, 소수민족연구소 소장

본 연구 주제를 위해 토의해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배재대학교 정보보안학과 객내 정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에 맞춰 2021년 11월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과 ‘디지털, AI 교육 학습 환경’ 조성을 강조하면서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미래 교육의 핵심 요소로 제시하였으며,¹⁾ 이러한 흐름은 AI 기술이 교육 분야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에듀테크(Edutech)를 활용한 교수·학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교 교육에서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 요소가 되었다. 에듀테크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교육이다. 구영덕은 미국 교육 시장 조사기관 홀론 아이 큐(Holoniq)를 인용하면서 세계 에듀테크 시장은 2020년 2,270억 달러에서 2025년 4,040억 달러로 연평균 16.3%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한다.²⁾

에듀테크의 인공지능 기술은 외국어 학습자에게 매우 효과적인 목표 언어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며, 이 가운데 인공지능 챗봇(AI 챗봇)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인공지능 챗봇은 인간과 유사한 대화를 수행할 수 있는 앱 또는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기존의 대화 흐름, 또는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대답을 활용하여 텍스트 및 음성 입력에 응답하는 표준 챗봇과 달리 AI 챗봇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하여 강력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학습자의 학습 성공 여부를 가능할 수 있는 학습에 대한 ‘학습자 몰입’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고 이러한 학습 도구에 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디지털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까닭에, 전국적으로 인문학이 더욱 도외시되는 경향이 생겨났고, 그중에서도 제2외국어의 관심이 과거보

1) 2021년 11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해당 문서에서 교육부는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기초 소양’ 함양을 강조했으며, 정보 교육 시수를 확대하여 AI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체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2 12월, 교육부 고시 제 2022-33호, 17-18쪽).

2) 구영덕, 「에듀테크(Edutech) 산업 동향 및 전망」, 『ASTI 마켓 인사이트』 제 88호,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 1-6쪽.

다 더 하락하고 있다. 제2외국어 관련 학과들은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로 인한 전공자의 감소로 악순환을 겪고 있으며, 특히 러·우 전쟁으로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러시아어에 관한 관심은 더욱 없어졌다.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어를 배우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국내 국립대와 일부 사립대에서 꾸준히 러시아어를 배우고자 하는 전공자들이 유지되고 있으며, 학습하고자 하는 일반인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팬츠은 AI 학습 도구를 개발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러시아어 교육 시스템은 온라인 강의, 앱 기반 학습, 오프라인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이 혼재되어 운영되면서 정해진 교육 커리큘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 실제 대화나 상호작용을 통한 학습 효과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서 러시아어 학습 방식은 주로 문법이나 어휘와 같은 이론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상황에서의 언어 사용에 필요한 발음, 억양, 구어체 등의 학습이 부족하여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언어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실제 상황에서 능동적으로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을 향상하기 어려운 학습의 한계를 보인다.³⁾ 그래서 다소 낮은 감이 있지만 AI 기술을 적용한 교수 학습 도구를 만들어 배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해야 할 시의성이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연구는 러시아어를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자에게 적합한 학습 목적형 인공지능 챗봇을 개발하여 교수 및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어 학습에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습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러시아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챗봇을 개발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고 실제 회화에 가까운 대화를 지원하는 AI 챗봇을 개발하여 학습자가 더 효과적으로 러시아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3) 최행규, 「구글 크롬 확장프로그램의 러시아어 학습 활용」, 『노어노문학』 35권 2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23, 169-192쪽.

록 한다.

2) 음성을 활용하여 실제 회화 연습이 가능한 러시아어 학습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다. 음성 인식(STT, Speech-to-Text)과 발음 평가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실제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3) 학습자의 실력과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는 것이다. AI가 학습자의 실력을 분석하고, 개별 학습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안하도록 한다.

4) 연구된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러시아어 학습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5) 첨단 인공지능 기술과 인문학적 시각을 결합하여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보완하는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고, 향후 디지털 인문학 분야에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모색한다.

본 연구를 위해서는 인문학과 이공학 융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융합연구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 본론

1) 선행 연구와의 비교

(1) 국내 선행 연구

챗봇과 같은 에듀테크 기술을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학습효과에 변화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학습 환경을 관찰하면 주로 전통적인 교재와 강의 중심의 러시아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교수자들에 의해 디지털 학습 도구들이 도입되긴 하였으나, 기능적 번역과 기본 언어 학습이 주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챗봇 관련 국내 논문을 검색⁴⁾해 보면 주로 영어 교육에서 다수의 연구

4) 학술연구정보서비스(<https://riss.kr>)에서 검색어 ‘챗봇 기반 영어’, ‘챗봇 기반 러시아

가 진행되어 있고, 제2외국어 중 러시아어 관련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연구된 주제들은 없지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번역 시스템을 교수자와 학습자들이 사용하긴 하나 단순 번역용으로 활용되고 있고, 유의미한 학습 시스템 개발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일부 챗봇 관련 보편적인 연구들에 따르면 인공지능 기술과 언어 교육의 융합이 기존 교육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실제 대화 상황에서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⁵⁾,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을 활용하면 발음과 억양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특히 우미혜와 김지연(2023)은 AI 챗봇을 활용한 학습 진단이 전통적인 수업 집단에 비해 억양과 리듬을 포함한 초분절음 요소에서 유의미한 성취도 향상을 보였음을 확인하였다.⁶⁾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챗봇 학습 환경 구축이 전통적인 언어 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2) 국외 선행 연구

학습 챗봇과 관련한 국외 연구 사례는 실시간 피드백과 상호작용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대화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주된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음성 인식과 텍스트 기반 챗봇 시스템을 통합하여, 학습자가 실제 사용과 유사한 대화 경험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은 학습자의 능동적 참여와 실시간 피드백 제공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목표와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

어’, ‘챗봇 기반 중국어’ 등으로 검색 시 영어 관련은 141여 건이 검색되며, 중국어로 검색 시 직접적인 연구 결과는 19건, 러시아어로 검색 시는 0건으로 검색이 된다. 영어 관련 연구가 비교적 많은 것은 국내 영어 교육의 활성화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5) 서소담·김정렬, 「AI 챗봇 활용 국내 영어학습의 효과 메타분석」, 『외국어교육』 30권 3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23, 25-42쪽. 박은정, 「메타분석에 의한 AI 챗봇 기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 비교」, 『영어어문교육』 30권 1호,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2024, 41-61쪽.
- 6) 우미혜·김지연, 「AI 팽톡 활용 수업이 초등학생 영어 발음 능력 향상과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 『현대영어교육』 24권 2호, 현대영어교육학회, 2023, 26-44쪽.

챗봇 시스템을 기반으로 학습자가 실제 상황과 유사한 대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실시간 피드백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러시아어 챗봇 웹이 있다. 예를 들면, Duolingo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실제 대화와 유사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챗봇 기능을 제공하고, 사용자의 입력에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고, 발음이나 문법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효과적인 언어 학습을 지원한다. 다만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아 국내 사용자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표 1] 언어 학습 앱의 핵심 기능과 단점

앱	핵심 기능	단점
Duolingo	단어 학습, 문법 퀴즈, 게임형 학습	대화형 챗봇 없음
Mondly	기본 회화 문장, 음성 학습, AI 대화	사용자 맞춤 피드백 없음
LingQ	읽기 및 듣기 중심, 문맥 기반 학습	문법 오류 교정 없음
Speakly	빈도 기반 학습, 문장 추천	챗봇 기반 연습 없음
HelloTalk	원어민과 채팅, 교정 기능	자동화된 AI 피드백 없음

국내외적으로 외국어 번역 및 학습 프로그램이나 툴은 있다. 또한 챗봇을 이용한 외국어 학습 프로그램과 앱이 존재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러시아어 전용 챗봇은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어와 러시아어 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챗봇 시스템에 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어-러시아어 학습에 특화된 챗봇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중요하다.

2) AI 챗봇 기반 러시아어 학습 시스템 개발

(1) AI 챗봇 기반 러시아어 학습 시스템 개발의 중요성과 시의성

최근 딥러닝, 자연어 처리(NLP),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의 발전은 언어 학습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으며, 언어 교육 분야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이미 구글, 네이버,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

들은 음성처리 기술 및 언어 번역 등에서 다양한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각국의 언어 번역, 언어 교정 및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고,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은 학습자가 발음과 억양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을 통합한 챗봇 기반 학습 시스템은 학습자가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대화 시나리오를 경험하면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실시간 대화와 피드백을 통한 학습은 학습자의 흥미를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효과적인 언어 습득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챗봇을 활용한 대화형 학습 시스템은 교육적 효과 분석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을 통합한 러시아어 학습 시스템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학습자의 수준에 따라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하고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대화형 시나리오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드물다. 러시아어 번역 및 학습 시스템에 최신 오픈 소스 도구와 AI 모델을 적절히 통합 활용하는 접근법을 적용함으로써 실용적이고 확장할 수 있는 학습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국내 러시아어 관련 학습 도구 개발 연구에 있어 최초의 융복합 연구

AI 관련 연구들은 IT 기술로 분류되어 주로 이공계에서 개발이 이루어졌다. AI 기반 언어 교육 관련 학습 도구들의 탄생과 붐, 그리고 대중들의 관심은 전통적인 교육에서 외국어 학습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이러한 학습 도구들은 제2외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 스마트폰의 번역기를 통해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었다. 이와 같이 제2외국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인문학 특히 제2외국어와 관련된 학자들은 인문학 중심의 연구와 함께 다른 학문과 통섭하고 융합하는 연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러시아어라는 언어를 기반으로 이공계 학자들과 융합을 통해 AI 기반 새로운 언어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러시

아어 관련 학습 도구 개발과 관련한 최초의 융합 연구가 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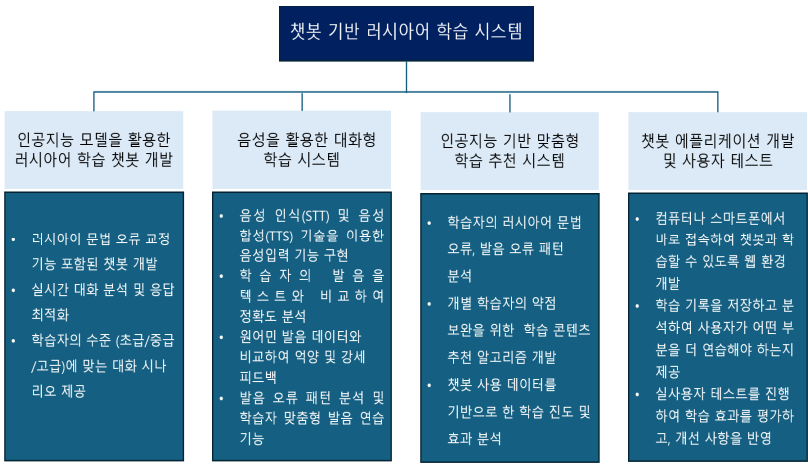
(3) 융·복합 연구로서 새로운 AI 콘텐츠 개발 및 관련 학습 도구 개발 가능

이미 주지한 바와 같이 AI 챗봇을 활용한 학습 도구 개발 연구는 주로 영어 교육 개발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러시아어 학습 관련 국외 AI 챗봇 학습 도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학습자에게 있어서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는다. 국내에서 개발된 러시아어 학습 AI 챗봇 또한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가 선정되어 연구가 진행된다면 융·복합 연구로서 새로운 사례를 남길 수 있고, 러시아어 AI 챗봇 학습 콘텐츠 개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이 제작한 삼흥 사전을 대체할 수 있는 ‘AI 한·러/러·한 사전’과 같은 도구를 새로 개발하는 후속 연구도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융·복합 연구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3)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본 연구는 AI 챗봇을 활용한 러시아어 학습 시스템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요소는 텍스트 및 음성을 기반으로 한 챗봇 학습 시스템 개발, 개인 맞춤형 학습 피드백 시스템 개발, 사용자 중심의 학습 애플리케이션 구현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이 4개의 연구 목표를 갖는다.



[그림 1] 챗봇 기반 러시아어 학습 시스템 연구 목표 및 연구 내용

①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한 러시아어 챗봇 개발 가능

본 연구의 첫 번째 목표는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여 러시아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챗봇을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의 러시아어 학습 방법은 정형화된 문장 연습과 문법 공부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실전 회화 능력을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스럽게 실제 회화에 가까운 대화를 지원하는 AI 챗봇을 개발하여 학습자가 더 효과적으로 러시아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러시아어 학습에 적합한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인공지능 챗봇이 문맥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수준에 맞춰 적절한 표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언어모델인 GPT 모델을 활용한다. 그리고 기존의 번역 시스템이나 단순한 문장 생성 방식과 차별화하여, 대화 흐름이 자연스럽게 학습자가 실제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가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이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제시한 문장과 다르지만, 적절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표현이나, 더 나은 표현을 추천하게 한다.



학습자



챗봇

[예시1]⁷⁾



“Ya vchera khodil v magazin, no ne kupil nichego.”

(어제 가게에 갔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다.)

“Pravilna! Mozhna takzhe skazat': 'Ya khadil v magazin fchera, no ne smok nichevo kupit.' (맞아요! ‘어제 가게에 갔지만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새로운 문장 추가 제안]



또한, 실시간 대화 분석 및 응답 최적화를 통해 AI 챗봇의 학습 기능을 강화한다. 학습자의 수준을 분석하여 초급, 중급, 고급에 맞춰 각각의 대화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수준에 맞는 맞춤형 대화 흐름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초급 학습자에게는 기본적인 인사 표현과 단순한 문장을 제공하고, 중급 이상 학습자에게는 상황에 따른 복잡한 문장 구성과 유창성을 요구하는 대화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의 실력이 효과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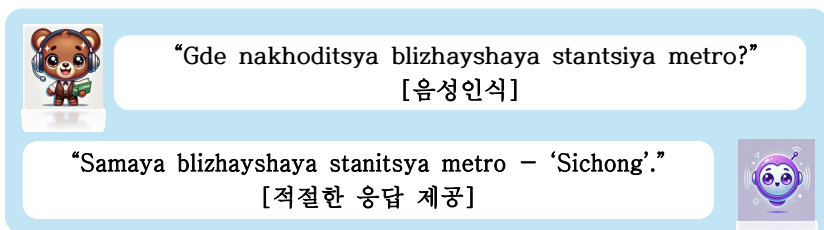
② 음성을 활용한 대화형 학습 시스템 개발 가능

본 연구가 진행된다면 음성을 활용하여 실제 회화 연습이 가능한 러시아어 학습 환경이 구축된다. 언어 학습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정확한 발음을 익히고, 듣고 말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기존의 학습 시스템은 텍스트 기반 학습이 주를 이루며, 학습자가 직접 소리 내어 연습할 기회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음성 인식(STT: Speech-To-Text)

7) 본고에서 제시하는 러시아어 예시는 러시아어를 모르는 독자의 이해를 위해 영어식 발음 표기(Romanization)로 제시한다.

과 발음 평가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실제 대화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한다. 우선, 음성 입력 기능을 구현하여 학습자가 챗봇과 말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의 음성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텍스트로 변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Gde nakhoditsya blizhayshaya stantsiya metro?”(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디예요?)라고 말하면, 챗봇이 이를 인식하고 시나리오 기반에서 적절한 응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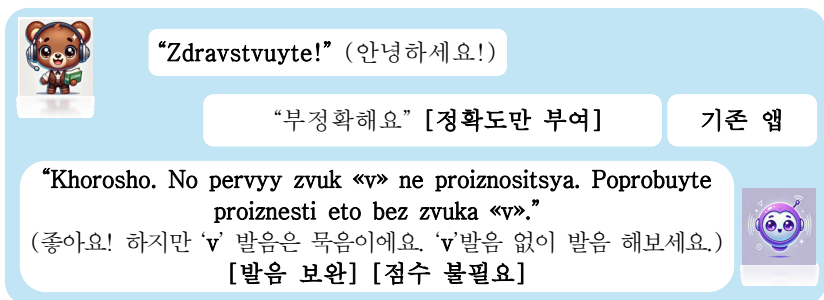


“Gde nakhoditsya blizhayshaya stantsiya metro?”
[음성인식]

“Samaya blizhayshaya stanitsya metro – ‘Sichong’.”
[적절한 응답 제공]

또한 발음 평가 기능을 도입하여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자의 음성을 원어인 발음과 비교하여 정확도를 분석하고, 억양과 강세를 피드백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예시3]



“Zdravstvuyte!” (안녕하세요!)

“부정확해요” [정확도만 부여] 기존 앱

“Khorosho. No pervyy zvuk «v» ne proiznositsya. Poprobuyte proiznesti eto bez zvuka «v».”
(좋아요! 하지만 ‘v’ 발음은 묵음이에요. ‘v’ 발음 없이 발음 해보세요.)
[발음 보완] [점수 불필요]

이러한 과정으로 학습자는 자연스러운 발음을 확인 및 익힐 수 있으며, 발음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학습자가 자주 틀리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습 기능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R<에르>’ 발음이 어려운 학

습자에게는 반복 연습이 필요하다는 피드백을 주고, 해당 발음을 강화할 수 있는 연습 문장을 제시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능은 학습자가 실제 러시아어 회화에 필요한 듣기 및 말하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하게 시킬 수 있으며, 단순한 암기식 학습이 아니라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③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추천시스템

본 연구의 세 번째 목표는 학습자의 실력과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다. 기존 학습 시스템은 모든 학습자에게 동일한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AI가 학습자의 실력을 분석하고, 개별 학습자의 약점을 보완하는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안하도록 한다. 먼저 학습자의 러시아어 문법 및 발음 오류 패턴을 분석한다. 사용자가 입력한 문장이나 발음을 분석하여 자주 틀리는 부분을 기록하고,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예시4]



“Vchera ya ezdil v magazin. no ne kupil nichego.”
 (어제 나는 가게에 갔지만, 아무것도 사지 않았어.)

“Vy chasto putayete ‘khodil’ i ‘ezdil’. Khotite proyti dopolnitelnoye uprazhneniye?” (당신은 ‘걸어갔다(khodil)’와 ‘차를 타고 갔다(ezdil)’를 자주 헷갈리네요. 추가 연습을 해 볼까요?)

[상황별 추가 연습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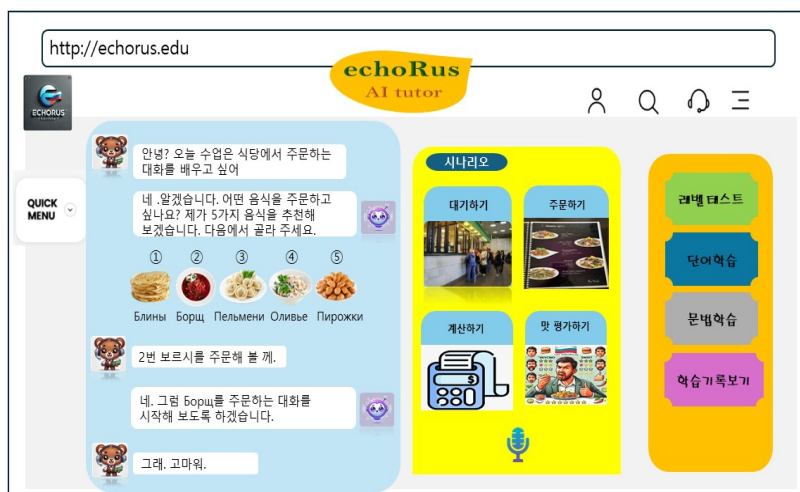


위 예시는 상점이 집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차로 갈 필요 없이 걸어서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khodil(ходил)’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만 학습자가 ‘ezdil(ездил)’을 사용했을 시 챗봇이 이를 인식하고 학습자의 오류를 보완할 수 있게 개별 학습자에게 최적화된 학습 콘텐츠를 추천한다.

④ 챗봇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사용자 테스트

본 연구의 내용 중 마지막 단계는 연구된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록 웹 기반 러시아어 학습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기존의 러시아어 학습 앱은 위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텍스트 위주의 학습, 문법 기반 학습 등 언어의 학습 영역인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중 한 영역에 치우친 학습 시스템의 경우가 많고 각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 전체 기능을 학습할 수 있는 대표 앱인 Duolingo도 주로 어휘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심화된 문법이나 발음 교정에는 한계가 있다. 본 과제에서 제안된 시스템은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의 모든 영역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각 기능이 분리된 기존 앱들과 달리, 학습자가 일관된 환경에서 다양한 언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활용도를 높이고 학습자 친화적인 환경을 형성하기 위해 학습자가 텍스트와 음성을 활용하여 AI 챗봇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웹 환경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바로 챗봇과 대화하며 학습할 수 있다. 다음은 구현하고자 하는 챗봇 웹의 예로 학습자는 메뉴를 선택해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고 챗봇과 대화를 통해 학습 내용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림 2] (가상) 본 연구의 챗봇 웹 예제

기존 방식에서는 수동적인 학습이 주를 이루지만, 본 연구의 챗봇은 실제 대화 연습을 통해 보다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의 학습 기록을 저장하고 분석하여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러시아어 시제 활용이 부족하다면 자동으로 추가 연습을 추천하여 학습 효율을 높여 준다. 학습 후에는 실제 학습자의 테스트를 진행하여 학습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반영한다. 테스트 그룹은 초급, 중급, 고급 학습자로 나누어 각각의 그룹에서 챗봇 학습 효과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챗봇 학습이 실제 러시아어 교육에서 얼마나 효과적인지 검증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기능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학습 시스템이 학습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최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2) 연구 방법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은 러시아어 학습자가 더 효과적으로 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러시아어 학습 챗봇 시스템 개발이다. 이 시스템은 텍스트와 음성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실제 회화 상황을 연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AI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① 러시아어 자연어 처리 및 음성 학습 프로토타입 챗봇 개발

본 연구를 위해서는 우선 챗봇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 하에 설계하여 러시아어 학습을 위한 프로토타입 챗봇 시스템을 구현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가 어떤 방식으로 러시아어를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인지, 챗봇이 제공해야 할 기능들은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먼저 연구기획을 하고 챗봇 기본 모델 개발의 기반 기술이 되는 NLP 및 음성 기술의 개발은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먼저 데이터의 구축이 필요하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본 연구

단계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다. 챗봇 기본 모델 개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데이터 구축이 완료되면 프로토타입 형태의 챗봇 기본 모델이 개발될 것이고, 기능 테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학습자가 단순히 텍스트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을 활용하여 실제로 대화할 수 있게 하도록 음성 인식(STT, Speech-to-Text) 및 음성 합성(TTS, Text-to-Speech) 기술도 적용한다.



[그림 3] 챗봇 개발 연구 프로세스

② 다양한 학습 방식을 결합한 챗봇 업데이트

프로토타입 형태로 챗봇이 개발되면 챗봇 기능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방식에 맞춰 학습 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챗봇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습자의 실수 패턴을 분석하게 하여 맞춤형 학습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학습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잘못된 발음을 교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4] 챗봇 기능 개선 프로세스

- 대화 모델 개선을 통한 챗봇 대화 모델 고도화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방식에 맞춰 학습 방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챗봇의 기능을 개선한다. 예를 들면, A라는 학습자는 글을 읽고 쓰는 방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지만, B라는 학습자는 듣고 말하는 방식이 더 선호할 수 있다. C라는 학습자는 반복 학습을 통해 개념을 익히는 것을 선호하지만, D라는 사람은 실제 대화를 연습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

이 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패턴과 학습 수준을 고려하여 조언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스타일에 맞춰 효과적으로 러시아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맞춤형 학습 추천시스템 설계

학습자의 개별 수준과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개개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학습 추천시스템을 설계한다. 인공지능이 학습자의 오류 패턴을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이에 맞는 추가 학습 자료나 연습 문제를 자동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며, 보다 개인화된 학습이 가능해질 것이다.

- 음성 기반 피드백 최적화를 통한 음성 학습 기능 강화

음성을 활용한 학습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단순히 음성을 텍스트로 바꾸는 기능을 넘어서, 학습자의 발음을 분석하고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 이 기능은 학습자가 자신의 발음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시스템 통합 및 테스트

제시한 챗봇의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전반적인 테스트를 통해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연동되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선 발된 실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제 학습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사용하기 쉬운 학습 시스템을 구현한다.

③ 챗봇 애플리케이션 개발 및 전체 사용자 테스트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제안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인 챗봇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실제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한다. 러시아어 학습을 위해 개발된 기능들을 웹 기반 환경에서 구현하여 학습자가 접근해 보도록 한다. 접속하는 기기가 다양하므로 컴퓨터 접속 그룹, 태블릿 접속 그룹, 스마트폰

접속 그룹으로 구분하여 작동 여부 및 오류 사항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 최적화한다. 학습자 중심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완성도 높은 시스템으로 구축한다.

챗봇 시스템의 최종 검증 및 학습 성과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챗봇을 활용한 학습이 실제로 학습자의 러시아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연구의 효과를 검증하고, 학습자들의 성취도 변화를 추적하여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 사용자 중심의 웹 기반 UI/UX 개발
- 사용자 테스트 및 피드백 수집
- 시스템 최적화 및 안정성 검증
- 연구 성과 분석 및 최종 검증



[그림 5] 최종 연구 프로세스

4) 연구 결과 예상

이상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챗봇 기반 러시아어 학습 시스템은 학문적, 사회적 기여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세대 양성 측면과 교육 연계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고에서 제안하는 연구가 AI 기반 외국어(러시아어)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고, 이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NLP), 음성 인식(STT)이라는 기술을 러시아어 학습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외국어 학습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여 AI를 활용한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외국어 교수와 학습에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러시아어 NLP 모델과 맞춤형 학습 추천시스템은 다른 외국어 학습에도 확장할 수 있고, AI 기반 언어 교육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인 챗봇 학습 도구를 통한 러시아어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

3. 나오는 말 및 제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에듀테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교육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디지털 기초 소양’과 ‘AI 기반 맞춤형 학습’의 흐름 속에서, 외국어 교육 분야 역시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AI 기반 언어 학습 도구는 영어와 같은 주요 언어에 편중되어 있어, 러시아어와 같은 특수 외국어(Critical Foreign Languages) 학습자들은 기술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어 학습자를 위한 ‘AI 챗봇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시스템은 거대 언어 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하여 문맥에 맞는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하고, 음성 인식(STT) 및 합성(TTS) 기술을 결합하여 텍스트와 음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설계함으로써, 기존의 단순 암기식 학습 앱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AI 챗봇 시스템은 학습자에게 실제 원어민과 대화하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며, 러시아어 특유의 복잡한 굴절과 발음 난이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 부족이나 지리적 한계로 인해 양질의 러시아어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습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인문학적 어학 지식과 최신 IT 기술을 융합하여 제2외국어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러시아어 교육 및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언어권별 특화된 AI 활용 매뉴얼 및 프롬프트 개발이 시급하다.

현재의 AI 모델은 영어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된 경우가 많아, 러시아어를 비롯한 슬라브어 생성 시 격 변화 오류나 부자연스러운 어휘 선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러시아어 전공 학습자들이 보다 정교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문법 수준별·상황별 '최적화된 질문(Prompt)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교육 현장에 보급해야 한다.

둘째, 연구 윤리 및 표절 방지 가이드라인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과제 수행 시 AI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AI의 산출물을 구분하여 표기하는 인용 규정이 명확히 확립되어야 한다. 학과 또는 학회 차원에서 생성형 AI 활용 허용 범위와 윤리적 지침을 구체화하여, 학습자가 AI를 부정행위 도구가 아닌 학습 보조 도구로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장기적인 종단 연구(Longitudinal Study)의 필요성이다. 본 연구는 한 학기(또는 특정 기간) 동안의 단기적 효과를 측정했다는 한계가 있다. AI 활용이 학습자의 실제 언어 습득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초기 흥미 유발 이후 지속적인 학습 동기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1년 이상의 장기 추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평가방식의 혁신을 제언한다. 결과물 중심의 평가(Product-oriented Assessment)는 AI 기술 발달로 인해 변별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가 AI와 상호작용하며 결과물을 수정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Process-oriented Assessment)'나 구술 면접, 현장 작문 비중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평가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논문

- 구영덕, 「에듀테크(EduTech) 산업 동향 및 전망」, 『ASTI 마켓 인사이트』 제 88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22, 1-6쪽.
- 권은영, 「AI 활용 영어 교수 및 학습 연구 동향」, 『영어학 영어어문교육』 제21권, 한국영어학회, 2021, 1313-1337쪽.
- 김태진·이희숙, 「외국어 교육을 위한 멀티미디어 저작도구 활용 연구」, 『언어학 연구』 33호, 한국중원언어학회, 2014, 115-135쪽.
- 김혜원·이영은·이홍창, 「AI 아나운서 :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보 전달 소프트웨어」, 『KIPS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권 2호,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 937-940쪽.
- 남기훈, 「한글 단어의 음성 인식 처리에 관한 연구」,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 JCCT = 문화기술의 융합』 5권 4호,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407-412쪽.
- 남혜현, 「러시아어학 교육에서 러시아국립코퍼스의 활용 방안: 자료 기반 학습(DDL)을 중심으로」, 『노어노문학』 36권 2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24, 27-53쪽.
- 박세진, 「맥락적 사전-사후인출 문법학습 모형에 기반한 러시아어 문법학습 어플리케이션 개발 연구」, 『슬라브어 연구』 27권 1호, 한국슬라브어학회, 2022, 65-90쪽.
- 박은정, 「메타분석에 의한 AI 챗봇 기반 영어교육 프로그램의 교육효과 비교」, 『영어어문교육』 30권 1호, 한국영어어문교육학회, 2024, 41-61쪽.
- 서소담·김정렬, 「AI 챗봇 활용 국내 영어학습의 효과 메타분석」, 『외국어교육』 30권 3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2023, 25-42쪽.
- 양혜진, 「챗봇 활용이 국내 영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멀티미디어 언어교육』 21권 3호,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학회, 2018, 148-172쪽.
- 윤애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프랑스어 교육의 방향 모색: 자연언어처리 기술을 중심으로」, 『프랑스어문교육』 83권, 한국프랑스어문교육학회, 2023, 7-37쪽.

- 최행규, 「구글 크롬 확장프로그램의 러시아어 학습 활용」, 『노어노문학』 35권 2호, 한국노어노문학회, 2023, 169-192쪽.
- 한대인, 「음성 기반 AI 챗봇 활용이 한국 중학생의 영어 말하기 능력 및 정서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6권 7호,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협회, 2020, 71-80쪽.
- Meier Irina, “DavAI: Designing a Custom ChatGPT bot for Russian Language Learners”, Russian Language Journal, vol. 74, no. 1, American Council of Teachers of Russian, 2024.
- Sysoyev Pavel V.·Filatov, Evgeny M. “Artificial intelligence in teaching Russian as a foreign language”, Tambov University Review. Series: Humanities, vol. 28, no. 2, Tambov State University, 2023, pp.335-349.
- Zhang S., C. Shan, J. S. Y. Lee. “Effect of chatbot-assisted language learning: A meta-analysis”, Educ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vol. 28, no. 11, Springer, 2023, pp.15223-15243.
- Азимов Э. Г. «Цифровая педагогика в обучении русскому языку»(러시아어 교육에서의 디지털 교육학), Русский язык в школе, № 5, 2023, с.13-19.
- Андреева С. В.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в образовании: возможности и риски»(교육에서의 인공지능: 기회와 위험), Соврем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 2, 2023, с.45-52.
- Иванов К. П.·Петрова М. С. «Методик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чат-ботов в обучении»(교육에서의 챗봇 활용 방법론), Информатика и образование, № 4, 2023, с.30-38.

인터넷 사이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챗봇 기반 영어”, “챗봇 기반 러시아어”, “챗봇 기반 중국어” 검색, <https://www.riss.kr>, 2026.01.15.

■ 국문초록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에듀테크가 교육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으나, 기존의 AI 기반 언어 학습 도구는 영어 등 주요 언어에 편중되어 있어 러시아어와 같은 특수 외국어 학습자들은 기술적 혜택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러시아어 학습자를 위한 ‘AI 챗봇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 개발을 제안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은 거대 언어 모델(LLM)인 GPT를 기반으로 문맥에 적합한 자연스러운 대화를 생성하며, 음성 인식(STT) 및 합성(TTS) 기술을 결합하여 텍스트와 음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학습자의 오류 데이터를 분석하여 취약점을 진단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통해 기존 단순 암기식 학습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AI 챗봇 시스템은 학습자에게 원어민과의 대화와 유사한 실감 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어 특유의 복잡한 굴절과 발음 난이도를 극복하는 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전문 교수자 부족이나 지리적 한계를 겪는 학습자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향후 과제로 언어권별 특화된 프롬프트 가이드라인 개발, AI 활용 윤리 규정의 제도화, 장기적 종단 연구의 수행, 그리고 과정 중심 평가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주제어 • 인공지능, 러시아어, 챗봇, 에듀테크, 어플리케이션

■ Abstract

Research Proposal on Developing an AI Chatbot Learning Tool for Russian Language Learners

Kim, Tae Jin / Pai Chai University

This paper proposes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AI chatbot learning tool specifically for learners of the Russian language.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dutech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essential element of education rather than a mere option. In particular, amidst the trends of ‘digital literacy’ and ‘AI-based personalized learning’ emphasized in the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the field of foreign language education is actively adopting AI technology. However, current AI-based language learning tools are predominantly concentrated on major languages such as English, leaving learners of Critical Foreign Languages, including Russian, marginalized from these technological benefits. Accordingly,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an ‘AI Chatbot-based Personalized Learning System’ for Russian learners. The proposed system aims to generate natural, context-appropriate dialogue based on GPT, a Large Language Model (LLM), and to provide an integrated learning environment encompassing both text and speech by combining Speech-to-Text (STT) and Text-to-Speech (TTS) technologies. Furthermore, by designing algorithms that analyze learner error data to diagnose weaknesses and recommend personalized content, this study seek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isting rote-memorization learning applica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AI chatbot system offers learners an experience similar to conversing with a native speaker and contributes to overcoming the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Russian's complex inflectional morphology and pronunciation. This plays a crucial role in

expanding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enhancing self-directed learning capabilities for learners who face challenges in accessing high-quality Russian education due to a shortage of instructors or geographical constraints. In conclusion,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presents a new paradigm for seco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by converging humanistic linguistic knowledge with the latest IT technolog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for future Russian language education and follow-up research:

First, the development of AI utilization manuals and prompts specialized for specific language groups is urgent. Current AI models are often trained on English-based data, which can lead to case declension errors or unnatural vocabulary choices when generating Slavic languages, including Russian. Therefore, to enable Russian major learners to obtain more precise responses, ‘optimized prompt guidelines’ tailored to grammar levels and situations should be developed and disseminated to the educational field.

Seco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guidelines for research ethics and plagiarism prevention is necessary. As reliance on AI in completing assignments increases, citation regulations must be clearly established so that learners can distinguish between their own ideas and AI-generated outputs. Departments or academic societies should concretize the allowable scope of Generative AI usage and ethical guidelines to induce learners to recognize AI as a learning aid rather than a tool for academic dishonesty.

Third, there is a need for long-term longitudinal studies. This study is limited in that it measured short-term effects over a single semester (or a specific period). To verify the long-term impact of AI utilization on learners’ actual language acquisition and on maintaining continuous learning motivation after the initial interest subsides, follow-up research spanning more than one year should be conducted.

Fourth, innovation in assessment methods is suggested. Product-oriented assessment is losing its discriminatory power due to the advancement of AI technology. Therefore, a transition to a multifaceted evaluation system is required, such as ‘process-oriented assessment’ that evaluates the process of learners interacting with AI and refining the results, or expanding the proportion of oral interviews and on-site writing assessments.

Keyword • artificial intelligence (AI), Russian language, chatbot, Edutech, application

영국 리버럴아츠와 영화교육:

교양교육의 확장과 영화의 융합적 가능성*

이아람찬**

목 차

1. 들어가는 글
2.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
3. 영국의 리버럴아츠와 영화교육
4. 나오는 글

1. 들어가는 글

리버럴아츠(Liberal Arts) 전통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교양학문 체계인 트리비움(trivium)과 콰드리비움(quadrivium)에서 비롯되었다. 트리비움은 문법, 논리, 수사학을, 콰드리비움은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을 포함하며, 인간의 이성적 사고와 논증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당시 아트(art)라는 말은 단순히 예술을 뜻하지 않고, 테크네(techne)라 불리는 기술이나 방법을 의미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는 실용적인 기술뿐 아니라 학문, 예술, 철학 등 인간의 다양한 정신적 활동 전반을 포괄하는 개념이었다. 그리스 사회에서 리버럴아츠는 시민이 갖추어야 할 교양이자, 인간의 정신을 함양하는 지적 활동으로 여겨졌다. 트리비움은 말과 사고를 다루는 학문이었고, 콰드리비움은 수와 비율을 통해 세

* 본 논문은 2025년 제11차 교양교육연구센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목원대학교 창의교양학부 교수

상의 질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이해되었다.¹⁾ 이 고전적 교양교육의 개념은 중세를 거쳐 근대 대학 제도로 발전하며, 오늘날 미국과 영국의 고등교육에서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리버럴아츠는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리버럴아츠는 특정 직업이나 실용적 목적에 한정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와 이해의 토대를 이루는 기초학문 전반을 아우르며, 교양교육이 지향해야 할 본질적 내용을 형성하는 핵심 영역으로 자리매김한다.²⁾

이 논문은 현대 대학교육의 무한한 변화 속에서 리버럴아츠와 영화교육이 어떻게 융합되고 확장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리버럴아츠는 학문 간 경계를 허물고 폭넓은 교양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교육 형태로, 오늘날 예술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영화는 시각예술, 기술, 사회학, 철학, 미디어 담론이 복합적으로 얹힌 대표적인 학제 간 매체로서, 리버럴아츠의 교육철학과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먼저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 제도를 비교함으로써 양국이 공유하는 기본 원리와 제도적 차이를 알아볼 것이다. 이후 영국 대학들 가운데 리버럴아츠와 영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례를 중심으로, 각 대학의 교육철학, 교과과정, 교수학습 방식의 특성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리버럴아츠 교육이 영화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어떤 새로운 학문적 가능성과 교육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 제도와 운영의 비교

리버럴아츠의 제도적 정착과 교육철학은 미국과 영국에서 상이한 궤적

1) 손승남, 「유럽 리버럴아츠 대학의 최근 동향」, 『문화교류연구』 8권 2호, 2019, 50쪽.

2) 김응준, 「인문교양교육과 포스트휴먼 인문과학」, 『교양교육연구』 14권 2호, 2020, 40쪽.

을 보인다. 미국에서는 리버럴아츠 교육이 이미 19세기부터 독립된 대학 형태로 정착하여, 전공 이전에 폭넓은 교양을 이수하는 4년제 교육체계를 확립하였다. 이후 많은 미국 대학들이 대형화와 직업교육 중심 체제로 전환했지만, 일부 대학은 소규모 기숙형 체제를 유지하며 직업교육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교양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리버럴아츠칼리지의 전통을 지속해왔다.³⁾ 윌리엄스(Williams College), 아머스트(Amherst College), 미들베리(Middlebury College) 등 이른바 ‘리버럴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s)’가 대표적이다. 이들 대학은 학생의 전공 선택 이전에 다양한 학문을 탐색하도록 하여, 사고의 폭을 넓히고 학문 간 연계적 사고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한편, 미국 대학에서 리버럴아츠는 단과대학 단위로 개설되기도 한다. “기존의 자유교육이나 일반교육 대신 LAE(Liberal Arts Education)를 새롭게 강조하는 이유는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던 교양교육의 오랜 전통을 변화된 세계에서 새롭게 혁신하려는 염원이 담겨있다. LAC(Liberal Arts College)가 등장한 것은 LAE를 담게 될 그릇으로 이전에는 대학의 부속기관의 하나로 교양교육원 수준에 머물렀던 교양전담 기구를 하나의 단과대학 수준으로 격상시켜 대학 교양교육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⁴⁾ 이처럼 미국의 리버럴아츠 교육은 학생이 전공을 선택하기 전 약 1~2년 동안 폭넓은 교양 과정을 이수하도록 한다. 이 시기는 학문적 탐색과 자기 발견의 시간으로, 학생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을 경험하며 자신의 전공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또한 리버럴아츠 칼리지는 소규모 수업과 개별 맞춤형 지도를 통해 교육의 깊이와 폭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환경은 비판적 사고력과 독립적 연구능력의 형성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제공한다.

3) 박병철, 「리버럴아츠칼리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의 미래」, 『교양교육연구』 12권 1호, 2018, 100쪽.

4) 손승남, 「리버럴아츠교육의 새로운 방향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권 6호, 2021, 365쪽.

반면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은 비교적 최근의 발전이다. 전통적으로 영국 대학은 특정 학문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을 중시했기 때문에, 리버럴아츠 융합 교육이 자리 잡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2010년대 이후 사우스햄튼(Southampton), 워릭(Warwick), 킹스컬리지런던(King's College London) 등 주요 대학들이 리버럴아츠 학위를 신설하면서 새로운 교육 모델로 부상하였다. “일반적 경향과 달리 교양교육과 관련하여 최근의 영국 대학개혁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미국식의 리버럴아츠 칼리지와 유사한 대학이 설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학들은 교육과정 구성에서 인문교양에 초점을 맞춘다.”⁵⁾ 이들 대학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을 포함해서 일부 자연과학을 통합하여 학생 스스로 학문적 경로를 설계하도록 장려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리버럴아츠 전통을 유럽 맥락 속에 재해석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표 1]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 비교

구분	미국	영국
공통점	· 다양한 영역의 학문 탐구: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고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융합적으로 탐구.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문제 해결 능력 같은 핵심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둠 · 학제 간 접근: 전공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학문을 연계. 현대 사회 문제(환경, 기술, 젠더, 미디어 등)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훈련을 제공	
차이점	· 학부 과정 전체의 기본 틀: UC Berkeley의 College of Letters & Scienc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의 College of Letters & Science 등	· 전통적으로 전문화된 전공 중심 학부 교육이 강했음
	· 리버럴아츠 칼리지라는 독립 대학 형태 존재: Williams College, Amherst College 등	· 최근 들어서야 Southampton, Southampton, Warwick, King's College London 등 일부 대학

5) 손승남, 「유럽 리버럴아츠 대학의 최근 동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권 2호, 2019, 53쪽.

		에서 BA Liberal Arts 학위를 별도 개설. 즉, 제도 전반이라기보다는 ‘특정 학위 프로그램’으로 리버럴아츠를 운영
· 4년제 학부	· 교양과 전공을 균형 있게 이수	· 보통 3년제 학부(스코틀랜드는 4년) · 리버럴아츠 과정도 3년 안에 압축적으로 운영

한편 커리큘럼의 자율성과 평가 방식에서도 선택의 자유는 미국 쪽이 더 크다. 교양 과목 비중이 높고,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어 학업 경로를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다. 반면 영국은 대학이 제시하는 모듈(modules) 중에서 선택하는 방식이 많아 상대적으로 구조가 짜여 있는 편이다. 평가 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미국 대학은 세미나 참여, 프레젠테이션, 시험, 팀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등 다양한 평가 도구를 사용한다. 반면 영국 대학의 리버럴아츠 과정은 전통적으로 에세이와 시험, 그리고 연구 프로젝트에 큰 비중을 두며, 학술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성취도를 측정하고 있다.

3.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

1) 사우스햄튼대의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⁶⁾

사우스햄튼대는 영국 남부의 연구중심 대학으로, 인문학과 예술, 미디어 연구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 대학의 BA Liberal Arts 과정은 지식의 경계를 넘나드는 학제적 사고를 핵심 가치로 삼으며, 전통적인 전공 중심 교육과는 달리 학생이 스스로 학문적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사우스햄튼대는 인문대학 내에 Film and Culture, Media and Communication, Digital Humanities 등의 학과가 공존하

6) <University of Southampton>. www.southampton.ac.uk/courses/liberal-arts-degree-ba. 2025. 12. 20.

기 때문에, 리버럴아츠 학생들이 영화 관련 교육을 심층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학문적 토양이 잘 마련되어 있다.

(1) 교육 구조와 교과 체계

사우스햄튼대의 BA 리버럴아츠 프로그램은 3년제 학위로, 학문 간 이동이 자유로운 유연한 구조를 갖는다. 1학년에서는 모든 학생이 공통 필수 과목인 Interdisciplinary Thinking, Cultural Encounters, Introduction to the Liberal Arts 등을 통해 학제 간 융합의 철학을 배우며, 이후 자신이 집중하고자 하는 학문 경로(Pathway)를 선택한다. 학생은 인문학, 사회 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 네 개의 큰 영역에서 과목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으며, 이 중 다수가 영화 관련 학습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우스햄튼대에서 학생은 Film, Media, and Visual Culture를 자신의 주요 학습 경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은 Film Studies, Cultural Studies, Digital Humanities, Art History, Philosophy of Art 등의 과목을 선택적으로 수강하며, 전통적 영화이론에서부터 디지털 영상 문화까지 폭넓은 관점을 학습하게 된다. 1학년의 영화 관련 대표적 선택 과목으로는 아래와 같다.

[표 2] 1학년 선택 모듈⁷⁾

과목	내용
Introduction to Film Studies	영화의 기본 언어(편집, 사운드, 내러티브, 시각적 구성)에 대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고, 영화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방식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
Understanding Media Cultures	미디어 이론, 시청각 커뮤니케이션, 이미지와 권력 관계를 분석하며, 영화 및 디지털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을 탐구
Introduction to Digital Humanities	영화 텍스트와 데이터 기반 문화 분석을 결합하여,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영화 연구의 가능성을 실험

7) <University of Southampton>. www.southampton.ac.uk/courses/liberal-arts-degree-ba. 2025. 12. 20.

(2) 학년별 심화 구조와 영화 관련 모듈

2학년으로 진입하면, 학생들은 본격적인 주제별·이론적 심화 학습을 진행한다. 주요 심화 모듈로는 다음과 같은 과목들이 있다.

[표 3] 2학년 심화 모듈⁸⁾

과목	내용
Film and Cultural Memory	영화가 사회적 기억과 정체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탐구하며, 전쟁·이주·젠더 등의 주제를 시각적으로 분석
Hollywood and Beyond: Global Film Industries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자본과 지역 영화산업의 상호작용을 비판적으로 고찰
European Cinema and Identity	유럽 영화 속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형식의 변화를 연구
Film and Philosophy	영화가 철학적 사유를 시각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을 다루며, 들뢰즈(Deleuze), 크라카우어(Kracauer) 등 영화철학 이론가의 사상을 분석

이러한 과목들은 단순한 영화 분석을 넘어, 리버럴아츠의 핵심 원리인 비판적 통합을 실천한다. 학생은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사회, 역사, 정치, 기술, 철학적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사유하게 되며, 다양한 학문적 시각을 결합해 스스로 연구 질문을 구성한다. 3학년에서는 캡스톤 프로젝트 또는 논문을 수행한다. 영화 전공 학생들은 이를 통해 독립적인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이론적 논문 또는 시청각 포트폴리오 형태로 결과를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 다큐멘터리 영화의 사회적 리얼리즘 연구, AI와 영화 편집의 자동화, 젠더 재현과 유럽 아트시네마 등의 주제가 자주 언급된다. 이 프로젝트는 학생의 학문적·창의적 성과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최종 산출물로서, 리버럴아츠의 실천적 성격을 강화한다.

8) <University of Southampton>. www.southampton.ac.uk/courses/liberal-arts-degree-ba. 2025. 12. 20.

(3) 교수·학습 방식

사우스햄튼대 리버럴아츠의 교수법은 강의 중심이 아니라 세미나 기반의 탐구형 학습에 가깝다. 각 영화 관련 모듈은 이론 강의와 함께 주별 상영회와 토론을 포함하며, 학생들은 각 주제에 대한 비평 에세이, 프레젠테이션, 그룹 프로젝트 등을 수행한다.

평가 방식은 서면 과제와 구술 발표가 병행되며, 2~3학년에서는 디지털 프로젝트나 비디오 에세이 제출도 가능하다. 또한 사우스햄튼대는 지역 사회 및 문화기관(SeaCity Museum, John Hansard Gallery, Southampton Film Week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에게 실제 문화예술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교육적 의의

사우스햄튼대의 리버럴아츠는 영화 교육을 단순히 예술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영화는 사회적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를 실험하는 주요 매체로 기능하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기술의 접점을 연결하는 융합적 학습의 중심 축으로 자리한다. 특히 Film Studies와 Digital Humanities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은 영화의 미학적 측면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시각적 내러티브, 디지털 플랫폼 문화 등 현대 미디어 환경을 해석하는 능력을 기른다.

[표 4] 졸업시 리버럴아츠 학위명(영화교육과 연계)⁹⁾

학위명	영문	내용
문학사 (리버럴아츠)	BA (Hons) Liberal Arts	· 가장 일반적인 학위명 · 리버럴아츠 프로그램 자체가 인문학(Arts) 기반이므로, 주 전공(Pathway)이 영화일지라도 전체 학위는 리버럴아츠로 수여

9) University of Southampton, *BA Liberal Arts Programme Specification*, University of Southampton, 2025.

문학사 (영화 및 미디어)	BA (Hons) Film Studies	· 리버럴아츠 학위 내에서 영화 관련 과목의 이수 학점 비중이 매우 높은 경우 · 대학이 아예 'Liberal Arts with a Pathway in Film Studies'와 같은 방식으로 학위명을 지정하는 경우
이학사 (리버럴아츠)	BSc (Hons) Liberal Arts	· 영화교육이 '미디어 기술(Media Technology)'이나 '디지털 실습(Digital Practice)'에 중점을 두고 이학(Science) 계열 학과에 의해 관리될 경우 · 간혹 사용될 수 있으나, 흔치 않은 경우

이 과정은 리버럴아츠의 근본적 목표—즉, 학문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식 생산을 시도하는 자유 학문인의 양성—을 영화라는 현대적 매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결국 사우스햄튼대의 BA Liberal Arts는 영화 교육을 인문학적 사유와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감수성을 통합하는 교육 모델로 발전시키며, 21세기형 리버럴아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2) 킹스컬리지런던의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¹⁰⁾

킹스컬리지런던은 영국 내에서 리버럴아츠 교육을 가장 체계적이고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대학 중 하나로 평가된다. 킹스컬리지런던의 BA Liberal Arts 과정은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언어, 미디어, 철학 등 광범위한 학문영역을 통합하며, 학생이 스스로 학문적 경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 철학은 학제 간 사고를 통한 사회적 상상력을 기르는 데 있다.

(1) 교육 구조와 운영 방식

킹스컬리지런던의 리버럴아츠 학위는 전통적인 전공 중심의 영국식 학사 구조와 달리, 학생이 전공을 나중에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학년에서는 필수 코어 모듈을 통해 리버럴아츠의 철학과 방법론을 학습하

10) KCL, www.kcl.ac.uk/study/undergraduate/courses/liberal-arts-ba. 2025.11.10.

고, 2학년부터는 Humanities, Politics, Digital Media, Film Studies 등 다양한 전공 경로 중 하나를 집중적으로 탐구한다. 프로그램은 총 3년제로 운영되며, 현대언어를 포함할 경우 4년제로 연장되어 제3학년을 해외 교환 학기로 이수할 수 있다.

1학년의 필수 모듈로는 Lives of London, Writing Liberal Arts, 그리고 외국어 과목이 있다. Lives of London은 런던이라는 도시를 학문적 연구의 현장으로 삼아, 문화·사회·정치의 교차지점을 탐색하는 실험적 학제간 모듈이다. 학생들은 런던의 예술 기관, 영화관, 미디어 전시관, 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도시문화 연구와 시각미디어 분석을 병행한다. Writing Liberal Arts는 리버럴아츠의 핵심 역량인 학문적 글쓰기, 비판적 논증, 서사적 구성 능력을 길러주는 기초 과목으로, 이후의 전공 심화 연구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2) 영화 교육과정과의 연계

킹스컬리지런던 리버럴아츠의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ilm Studies 전공 및 모듈과의 긴밀한 연계이다. 학생들은 1학년 선택 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영화 관련 수업들을 들을 수 있다.

[표 5] 1학년 선택 모듈¹¹⁾

과목	내용
Introduction to Film Studies: Forms	영화의 시각적 언어와 미장센, 편집, 사운드 등 형식적 요소를 학습하며, 영화 분석의 기초 방법론을 학습
Introduction to Film Studies: Critical Debates	영화이론의 주요 쟁점(리얼리즘, 장르, 재현, 서사 구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
Theories of New Media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이 영화적 표현과 관객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Digital Methods I: Working with Digital Content	디지털 이미지, 영상, 오디오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분석 기법을 배우며, 시청각적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

11) KCL. www.kcl.ac.uk/study/undergraduate/courses/liberal-arts-ba. 2025.11.10.

이러한 기초 모듈 이후, 학생은 Film Studies를 전공으로 선택하거나, 다른 전공(예: English, Digital Culture, Politics 등)과 결합하여 영화 관련 연구를 심화할 수 있다. 특히 Film Studies에서 제공하는 선택과목은 리버럴아츠적 사고를 심화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21st Century Hollywood는 세계화된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구조와 담론을 분석하고, Global Queer Cinema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시각정치학을 다루며, Ecology and the Moving Image는 영화가 환경 담론과 생태학적 감수성을 재현하는 방식을 탐색한다. 이외에도 Cinema and the City, London Film Culture, The Moving Image in Art, New Directions in Chinese Cinema 등은 도시, 예술, 글로벌 시네마의 맥락에서 영화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다층적으로 접근한다.

(3) 교수·학습 방식

킹스컬리지런던의 리버럴아츠와 Film Studies 모듈은 모두 강의와 소규모 세미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미나에서는 토론, 프레젠테이션, 비디오 에세이 제작, 실험적 시각자료 분석 등이 활발히 이루어진다. 평가 방식 또한 에세이와 서면시험뿐 아니라, 비평적 보고서, 포트폴리오 제출, 영상 기반 분석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는 리버럴아츠 교육의 핵심 목표인 비판적 사고의 실제적 적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4) 교육적 의의

킹스컬리지런던의 리버럴아츠와 영화교육의 통합적 구조는, 전통적 인문학의 깊이와 현대 미디어 환경에 대한 비판적 감각을 동시에 함양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특히 런던이라는 문화도시의 위치적 이점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영화관, 미디어 기업, 예술기관 등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학습 경험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은 킹스컬리지런던만의 강점이다.

또한 영화 관련 모듈이 단순히 예술적 감상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적 재현, 젠더, 환경, 기술 등 동시대의 핵심 이슈를 다루도록 설계되어 있

다는 점에서, 리버럴아츠의 비판적·실천적 교육철학을 충실히 구현하고 있다. 결국 킹스컬리지런던의 사례는 리버럴아츠가 단순히 전공 간의 융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는 대학교육 모델임을 보여준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학생들은 텍스트 분석을 넘어 시각적 사고, 문화정치학적 감수성, 그리고 창의적 표현 능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으며, 이는 리버럴아츠 교육이 21세기 문화·예술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의 장을 제시한다.

3) 워릭대의 리버럴아츠 교육과 영화¹²⁾

워릭대는 영국 내 리버럴아츠 교육의 대표적 모델로 꼽힌다. 워릭의 BA Liberal Arts 과정은 영국 대학 중에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리버럴아츠 학부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문제 중심 학습을 교육철학의 중심에 두고 있다. 이 과정은 학생이 단순히 여러 학문을 나열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쟁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을 결합해 사고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설계되어 있다. 특히 영화는 워릭대 리버럴아츠가 이러한 학제 간 접근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주요 매개체로 활용되고 있다.

(1) 교육철학과 구조

워릭대 리버럴아츠에서 학생들은 예술, 사회, 과학의 경계를 허물고, 실제 사회 현상을 중심으로 학문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응용력을 훈련받는다. 1학년 과정에서 모든 학생이 리버럴아츠 관련 기초 과목을 이수하며, 이를 통해 학문적 융합의 기초를 준비할 수 있다. 이후 2학년부터는 주제 중심의 세부 트랙을 선택하는데, 여기에는 Film and Visual Cultures, Politics and Aesthetics, Media and Technology, Global Cultures 등이 포함된다.

12) <University of Warwick>. www.warwick.ac.uk/study/undergraduate/courses/ba-liberal-arts. 2025.11.20.

(2) 영화 관련 교육과정 및 모듈

워릭대의 리버럴아츠 과정은 Film and Television Studies 학과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학생들은 리버럴아츠 학위 내에서 Film Studies 전공 모듈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이론적 분석과 창의적 실습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이론과 실습을 통합적으로 경험하며, 영화적 사고를 학문적 탐구의 언어로 확장하게 된다. 대표적인 영화 관련 모듈은 다음과 같다.

[표 6] 2학년 심화 모듈¹³⁾

과목	내용
Introduction to Film and Television Studies	영화와 텔레비전의 기본 개념, 내러티브 구조, 시각언어, 재현(representation)의 정치학을 학습
Hollywood Cinema: History, Theory, Industry	할리우드 산업의 역사와 미학, 자본 구조를 비판적으로 탐구
Film and Television Criticism	시청각 매체의 비평적 글쓰기와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비판적 미디어 리터러시를 함양
Global Cinemas and Cultural Identity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 영화의 미학과 문화적 맥락을 비교
The Avant-Garde and Experimental Film	실험영화와 예술영화의 미학적 전략을 탐구하며, 현대 시각문화와의 연계를 학습
Film and Environmental Humanities	환경 문제와 시각예술의 관계를 고찰하며, 영화가 생태적 상상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연구

이 외에도 학생들은 인문대 내의 창작 모듈을 선택하여 단편 영화나 비디오 에세이 제작에 참여할 수 있다.

(3) 교수·학습 방식

워릭대 리버럴아츠는 영국 내 다른 대학들과 달리, 전통적인 강의 중심

13) <University of Warwick>. www.warwick.ac.uk/study/undergraduate/courses/ba-liberal-arts. 2025.11.20.

교육보다 세미나와 워크숍 중심의 참여형 수업을 강조한다. 영화 관련 수업은 이론 강의와 상영회, 토론, 실습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식을 취한다. 학생들은 영화 분석 에세이뿐만 아니라, 시각적 리서치 포스터, 디지털 스토리텔링 프로젝트, 비디오 에세이 등 다양한 형식의 과제를 수행한다. 평가 방식 역시 서면 시험보다는 비평적 에세이, 포트폴리오, 창의적 프로젝트의 비중이 높다. 이는 학문적 성찰과 창의적 생산을 동시에 중시하는 워릭대 리버럴아츠의 철학을 잘 보여준다.

(4) 교육적 의의와 특징

워릭대의 리버럴아츠는 영화교육을 통해 학문 간 융합을 실천하는 가장 성공적인 모델 중 하나로 평가된다. 학생들은 영화라는 시각매체를 단순한 예술 장르가 아니라, 정치·철학·기술·문화가 교차하는 사회적 텍스트로 분석한다. 특히 워릭의 문제 중심 학습은 학생이 영화를 통해 동시대 사회문제—예를 들어 젠더 불평등, 기후 위기, 인공지능 윤리, 탈식민주의—를 탐구하도록 유도한다. 이러한 접근은 리버럴아츠의 핵심 정신인 비판적 사유와 실천적 탐구를 영화라는 매체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또한 워릭은 영화교육을 통해 학문적·산업적 연계성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다. 학생들은 지역 및 국제 영화제, 미디어 기업, 예술기관과 협업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다. 이러한 산학연계형 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영화·문화산업·정책·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제공한다. 결국 워릭대의 BA Liberal Arts는 영화교육을 비판적 창의성의 실험장으로 확장한다. 즉, 영화는 단순한 학문 콘텐츠가 아니라, 리버럴아츠 교육의 핵심 방법론이자 융합적 사고의 구체적 구현 수단으로 기능한다. 워릭의 사례는 리버럴아츠가 현대사회에서 학문과 현실의 경계를 연결하는 비판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며, 영화교육이 그 실천을 매개하는 대표적인 학문적 플랫폼임을 보여준다.

4. 나오는 글

영국의 주요 리버럴아츠 학위과정인 사우스햄튼대, 워릭대, 킹스컬리지런던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 대학은 공통적으로 ‘학제 간 융합을 통한 비판적 사고와 창의적 실천의 양성’이라는 리버럴아츠의 근본적 교육이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교육 운영 방식과 영화교육의 활용 형태에서는 대학별로 뚜렷한 차별성이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세 대학은 모두 리버럴아츠 교육의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지만, 교육구조와 영화교육의 깊이 및 초점은 다르다. 사우스햄튼대는 학제 간 통합과 선택적 자유를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를 갖는다. 학생은 다양한 경로를 결합하며 영화, 미디어, 디지털휴머니티 등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 사우스햄튼대의 영화 관련 모듈은 디지털 기술과 시각문화 분석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영화 텍스트를 통해 사회적 기억과 정체성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이는 리버럴아츠의 유연성을 기술과 인문학의 접점에서 구현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워릭대학교는 리버럴아츠 교육의 실천적 모델로서, 문제 중심 학습을 핵심으로 한다. 영화는 사회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위한 분석 도구로 사용되며, 글로벌 시네마, 환경, 젠더, 탈식민주의 등 실제 사회 현안을 다루는 주요 매체로 기능한다.

킹스컬리지런던은 런던 중심지의 문화적 인프라를 활용한 도시형 리버럴아츠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킹스컬리지런던은 인문학과 미디어학, 영화학을 긴밀히 연계하여, 학생들이 도시공간과 시각문화의 교차점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대학 모두 영화교육을 리버럴아츠의 중심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화는 단순한 예술 과목이 아니라 비판적 인문학의 실험실로 기능한다. 영화는 인문학과 사회과학, 기술, 예술을 하나로 묶는 융합적 플랫폼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시각적 표현 능력과 학문적 해석 능력을 동시에 기른다. 또한 이러한 영화 중심 리버럴아츠 교육은 현대사회가 요구

하는 문화적 리터러시, 즉 복잡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능력을 양성한다. 이는 전통적 교양교육의 범위를 확장하여, 리버럴아츠가 디지털 시대의 비판적 시민교육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단행본

University of Southampton, *BA Liberal Arts Programme Specification*,
University of Southampton, 2025.

University of Warwick, *BA Liberal Arts Course Handbook*, University of
Warwick, 2025.

논문

김응준, 「인문교양교육과 포스트휴먼 인문과학」, 『교양교육연구』 14권 2호,
2020, 35-44쪽.

박병철, 「리버럴아츠칼리지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한국형 리버럴아츠칼리지의
미래」, 『교양교육연구』 12권 1호, 2018, 99-121쪽.

손승남, 「리버럴아츠교육의 새로운 방향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권 6
호, 2021, 363-384쪽.

손승남, 「유럽 리버럴아츠 대학의 최근 동향」,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8권 2호,
2019, 49-68쪽.

인터넷 사이트

<KCL>. www.kcl.ac.uk/study/undergraduate/courses/liberal-arts-ba.
2025.11.10.

<University of Warwick>.
www.warwick.ac.uk/study/undergraduate/courses/ba-liberal-arts. 2025.11.20.

<OpenAI. ChatGPT>. www.chat.openai.com. 2025.12.10.

<University of Southampton>.
www.southampton.ac.uk/courses/liberal-arts-degree-ba.
2025.12.2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리버럴아츠(Liberal Arts) 교육의 현대적 전개 속에서 영화 교육이 갖는 융합적 가능성과 교육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 그리스·로마의 교양학문 전통에서 출발한 리버럴아츠는 오늘날 학제 간 통합과 비판적 사고를 중시하는 고등교육 모델로 재구성되고 있으며, 특히 영화는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디지털 기술이 교차하는 대표적인 학제 간 매체로서 리버럴아츠 교육과 높은 친연성을 지닌다. 본 논문은 먼저 미국과 영국의 리버럴아츠 교육 제도를 비교하여 양국의 제도적 특징과 교육철학의 차이를 고찰한 뒤, 영국의 주요 리버럴아츠 학위과정인 University of Southampton, University of Warwick, King's College London의 사례를 중심으로 영화교육이 리버럴아츠 교육 안에서 어떻게 통합·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세 대학은 공통적으로 학제 간 융합과 비판적 실천을 교육의 핵심 원리로 삼고 있으며, 영화교육을 사회·문화·철학적 문제를 탐구하는 중심 매개로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영화가 리버럴아츠 교육에서 단순한 예술 영역을 넘어, 현대적 교양교육의 핵심 방법론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영국 리버럴아츠 교육의 실제 운영 사례를 통해 영화교육과 교양교육의 융합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한국 대학의 교양 및 문화예술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리버럴아츠 교육, 영화교육, 교양교육, 학제 간 융합, 영국 고등교육

■ Abstract

Liberal Arts Education and Film Studies in the UK: The Expansion of General Education and the Integrative Potential of Film

Lee, Aramchan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integrative potential of film education within contemporary Liberal Arts education, focusing on its role in expanding the scope of gener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Rooted in the classical traditions of Greco-Roman liberal learning, Liberal Arts education has evolved into a modern educational model that emphasizes interdisciplinarity, critical thinking, and intellectual flexibility. Film, as a medium that intersects humanities, social sciences, arts, and digital technologies, offers a particularly effective platform for realizing the core principles of Liberal Arts education. This paper first compares the institutional structures and educational philosophies of Liberal Arts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highlighting their shared foundations and key differences. It then conducts case studies of BA Liberal Arts programmes at the University of Southampton, the University of Warwick, and King's College London, with a particular focus on how film-related curricula are embedded within interdisciplinary educational frameworks.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se institutions utilize film education not merely as an artistic subject but as a critical tool for examining social, cultural, philosophical, and technological issues. Through these case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film functions as a central medium for interdisciplinary inquiry and critical practice within Liberal Arts education. Ultimately, this research suggests that the integration of film education into Liberal Arts

curricula offers a viable model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general education and cultural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Keyword • Liberal Arts Education, Film Education, Interdisciplinarity, General Education, UK Higher Education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사동 표현 교수 방안 연구

라 인 정 · 엄 현 숙*

목 차

1. 서론
2. 한국어 교재의 사동 표현 교육 분석
3.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동 접미사 교육 방안
4. 결론

1. 서론

한국어 학습자의 궁극적 목표는 목표어 화자에 근접한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는 언어의 4영역(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대한 균형 잡힌 숙달을 전제로 한다. 이를 위해 의사소통중심 교수법과 문제기반 학습법(PBL) 등이 현장에서 유의미하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 활용도가 높은 사동 표현은 한국어 문법에서 형태적 복잡성과 의미적 미묘함으로 학습자들의 오류 빈도가 매우 높은 영역이다. 특히 접미사형 사동은 피동 표현과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결합 규칙의 불규칙성으로 학습자에게 과도한 인지적 부담을 준다. 임지룡(1997)은 사동문의 의미 구조를 사동 주체의 힘이 피사동 주체에게 전달되어 변화를 유발하는 '힘의 전이'와 '인과 연쇄(action chain)'의 관점에서 설명한다.¹⁾

* 라인정(제1저자) 금강대학교 프라마나학부 교수

엄현숙(공동저자) 대덕대학교 국제협력단 한국어 교육원 강사

이는 사동을 단편적인 문법 현상을 넘어 하나의 완결된 사건의 구조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이 연구는 사동 표현 문법 수업을 사동사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인물과 사건이 결합된 스토리텔링의 틀 안에서 접근할 때 사동의 본질적인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에 관한 연구는 문화교육, 문학 교육, 말하기 교육, 문법 교육, 어휘 교육 면에서 진행되어,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를 통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결과였다.²⁾ 하지만, 문법 교육에 있어 한국어 사동 표현 연구나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에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문법 설명을 하기 전에 상황 그림이나 사진 등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상황을 반영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거나 말하기 때문에 내용과 문법적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과정은 그 상황을 이해함으로써 문법 이용이나 어휘의 쓰임을 외우지 않아도 쉽게 알 수 있게 하므로 학생을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한국어 학습자는 크게 학생과 일반인으로 나뉜다. 학생은 대학이나 대학원 등의 상급 교육 기관으로 유학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어를 학습한다. 이들은 대개 해당 대학의 교재나 시중 교재를 사용한다. 사용되는 교재를 살펴보면 『서울대 한국어』 120곳, 『연세한국어』 67곳, 『서강한국어』 24곳, 『경희한국어』 22곳, 『이화한국어』 21곳, 고려대학교 『재미있는 한국

1)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164-184쪽.

2) 박송희,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교육방안: 「박씨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 연구』 52집, 우리문학연구회, 2016, 159-188쪽.
고경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스토리&이미지텔링』 5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39-59쪽.
차순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교육-간접화법을 중심으로」, 『한어문 교육』 제29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3, 35-36쪽.
김화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어』14곳으로 『서울대 한국어』가 월등히 많이 사용된다.³⁾ 반면 일반인은 결혼이주민이거나 비자, 영주권, 국적 취득,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이 많다. 그러하기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한국어 학습이 이루어지며,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⁴⁾를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이용한 교재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 교재

교재명	교재 수준	출판사	발행 연도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중급 1	국립국어원	2019
	중급 2	국립국어원	2019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국립국어원	2019
서울대 한국어	3B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2016

2. 한국어 교재의 사동 표현 교육 분석

1) 사동 표현 유형 및 사용 현황

(1) 한국어 사동 표현의 개념과 유형

국립국어원(2005)은 사동의 의미를 사람이나 동물, 사물이 스스로 움직이거나 그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사람이나 동물, 사물에 움직임이 생기게 하거나 그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⁵⁾이라 정

3) 원미진, 「한국 대학에 재학 중인 재외동포의 한국어에 대한 인식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한국 국제문화교류학회, 2020, 74-76쪽.

4)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재는 이하 『한국어와 한국문화』라 하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이하 『즐거운 거운 한국어』라 한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에서 한국어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즐거운 한국어』는 다문화가정 성인을 대상으로 개발된 교재로, 구어 위주의 과제 활동이 많고 현재 여성가족부의 방문 교육용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의하였다.

한국어 사동 표현의 유형을 고영근·남기심(2005)은 접미사에 의한 것과 ‘-게 하다’에 의한 것으로 나눈다.⁶⁾

먼저, 접미사에 의한 것(접미사형)은 주동사에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를 붙여 만드는 것이다. 허용 외(2005)는 접미사에 의한 사동사를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자동사가 사동사가 된 경우, 타동사가 사동사가 된 경우, 형용사가 사동사가 된 경우이다.⁷⁾ 국립국어원(2005)도 형용사는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사동이라 할 수 없지만, 형용사가 사동사가 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⁸⁾

가. 담이 높다.

나. 사람들이 담을 높였다. 사람들이 담을 높게 했다.

‘가’에서 ‘나’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사동문을 만드는 과정과 다르지 않고, ‘나’의 의미도 사물을 ‘어떻게 되게 하다’는 사동의 뜻을 나타내므로 사동문으로 다루고 있다.

다음으로 ‘-게 하다’형은 고영근·남기심(2018)에서 주동사에 어미 ‘-게’를 붙이고 보조동사 ‘-하다’를 써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⁹⁾고 하였다. 그런데 ‘-게 하다’형은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인 경우와 타동사인 경우 결합하는 규칙이 다르다. 서술어가 자동사나 형용사인 경우는 주동사에 ‘-게 하다’를 붙이고 주동문의 주어를 사동문의 목적어나 주어로 바

5)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256-270쪽.

6) 고영근·남기심,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2018, 298쪽.

‘시키다’는 체언에 ‘하다’가 붙어서 된 말에 ‘하다’ 대신 쓰이면서 남에게 무엇을 시킨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모든 ‘하다’류 동사에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시키다’ 구문은 사동법으로 다루지 않는다.

7) 허용 외, 『외국어로써의 한국어교육학개론』, 박이정, 2005, 184-192쪽.

8) 국립국어원, 앞의 책, 2005, 258쪽.

9) 고영근·남기심, 앞의 책, 2018, 301쪽.

꾼 다음 사동문에 새 주어를 만든다. 반면 서술어가 타동사인 경우는 주동문의 목적어가 사동문에서도 그대로 목적어가 된다. 국립국어원(2005)은 접미사형 사동 표현과 ‘-게 하다’형 사동 표현은 미묘한 의미 차이가 있으며, 이를 [표 2]로 구분한다.¹⁰⁾

[표 2] 접미사형과 ‘-게 하다’형의 차이

접미사형	주어가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직접 한다. ㄱ. 어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혔다. ㄴ.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셨다.
‘-게 하다’형	주어가 대상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한다. ㄱ. 어머니가 동생에게 옷을 입게 하셨습니다. ㄴ.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하셨다.

(2) 사동 표현 및 사동 어휘 사용 현황과 빈도

[표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접미사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중급 1에, 『서울대 한국어』에서는 3B에 제시되어 있다. ‘-게 하다’형도 분석 대상 모든 교재에서 다루고 있다. 특이하게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두 사동 표현을 교재의 권을 달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3] 한국어 교재의 사동 표현 제시 현황

사동 표현 유형	한국어와 한국문화	즐거운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접미사형	중급 1 단원 8	중급 1 단원 13	3B 단원 11
‘-게 하다’형	중급 1 단원 13	중급 2 단원 7	3B 단원 15

[표 4]는 3종의 교재에 제시된 접미사형 사동사와 그 빈도수를 살펴본 결과이다. 제시된 접미사형 사동 어휘는 총 36개이고, 사용된 어휘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거나 중요한 어휘가 주를 이룬다. 3종 교재 모

10) 국립국어원, 앞의 책, 2005, 266-269쪽.

두에 제시된 사동사는 ‘먹이다, 끓이다, 입히다, 신기다, 맡기다, 씻기다, 깨우다’로 7개이다.

[표 4] 접미사형 사동사 어휘와 빈도수

형태	사동사	한국어와 한국문화	즐거운 한국어	서울대 한국어	빈도 총수
-이-	먹이다	2	14	6	22
	끓이다	7	3	1	11
	붙이다			5	5
	절이다	4			4
	줄이다	2			2
	녹이다		1		1
	닦이다		1		1
-히-	입히다	2	2	4	8
	갈아입히다		1		1
	앉히다		1		1
	눅히다		2	1	3
	읽히다	1			1
	식히다		6		6
-리-	살리다		1	1	2
	울리다		1	1	2
	날리다	1			1
	얼리다	1	2		3
	올리다	1			1
	물리다		1		1
	걸리다			1	1
-기-	신기다	1	2	2	5
	남기다	2	1		3
	감기다		1	1	2

	말기다	1	1	3	5
	웃기다		1		1
	벗기다	4		1	5
	씻기다	1	4	1	5
-우-	태우다		3	1	4
	깨우다	1	1	1	3
	재우다		14	1	15
	찍우다	1	4		5
	비우다		1		1
	키우다		1		1
-추-	맞추다	4		1	5
	낮추다	1			1
	늦추다		1		2
어휘 총수	36	18	24	17	140

[표 5]는 3종의 교재에 제시된 ‘-게 하다’형의 예문이다. 교재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게 하다’형 예문

교재명	제시 예문
서울대 한국어	ㄱ. 너무 바빠서 이사할 집을 동생에게 구하게 했어요. 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게 하십니다. ㄷ. 아버지가 짧은 치마를 못 입게 하셔서 속상해요. ㄹ. 하루에 한 시간씩 꼭 연습하게 했어요. ㅁ. 죄송하지만, 아이들이 식당에서 뛰다니지 못하게 해 주시겠어요?
한국어 와 한국문 화	ㄱ. 팀원들에게도 작성하게 하세요. ㄴ. 이 약을 식후에 아이에게 먹게 하세요. ㄷ. 아이에게 자기 방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세요. ㄹ. 출입국·외국인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게 합니다. ㅁ. 이링 씨에게 회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운 한국어	ㄱ.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새 어휘를 외우게 했어요. ㄴ.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매일 책을 읽게 했어요. ㄷ. 꼭 자게 했어요. ㄹ.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매일 운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2) 교재별 사동 표현 교육 분석

(1) 『한국어와 한국문화』의 사동 표현

사동 표현은 중급 1권의 단원 8과 단원 13에 제시한다. 단원 8에서는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추-’만 학습한다. 단원 13에서는 ‘-게 하다’형 사동 표현을 학습한다. 일정한 규칙이 있어 접미사형 사동 표현보다 쉽게 느끼지만, 접미사형 사동 표현보다 더 늦은 단원에서 학습한다.

접미사형 사동 표현의 학습법을 보면, [그림 1]처럼 그림과 문장을 먼저 제시한다. 그림을 보며 사동 표현의 상황을 인지하고, 예문으로 문법을 이해한다.



예문

가: 아기가 같이 산책하러 갈까요?
 나: 네. 날씨가 좀 추우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히세요**.

겨울 코트 세탁은 세탁소에 **맡기세요**.

저는 아이를 자동차 뒷자리에 **태워요**.

이 름: 우리 아이는 채소를 잘 안 먹어서 걱정이예요.
 안젤라: 그래서 저는 채소로 볶음밥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먹여요**.

[그림 1] 접미사형 사동 표현 그림과 예문

그런 다음 [그림 2]와 같이 사동 표현을 사용하는 어휘를 제시한다. 형태에 대한 문법 정보 ‘-이-, -히-, -리-, -기-, -우-, -추-’를 제시하고 사동사와 결합하는 형태를 나열한다. [그림 3]에서는 <1>의 그림을 보고 사동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를 이용하여 문장 만들기를 연습한다. <2>는 주어진 특정 상황의 사동사를 이용하여 이야기하게 하여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학습한다.

-아	먹다 → 먹이다
-하	입다 → 입히다
-라	살다 → 살리다
-가	신다 → 신기다
-우	타다 → 태우다
-추	맞다 → 맞추다

1.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성민이 지금 뭐 해요?



성민은 도서관에 당근을 먹이고 있어요.

1) 

2) 

3) 

2. 아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려고 해요. 어떻게 준비할까요?

 옷, 신발, 모자, 유모차?

 아이한테 따뜻한 옷을 입혀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요.

[그림 2] 사동사 형태 정보

[그림 3] 연습 문제

‘-게 하다’형 사동 표현은 단원 13에서 [그림 4]와 같이 그림 속의 대화를 통해 보여 준다. 그림 속 상황을 인지하여 ‘-게 하다’형 사동 표현 문장을 만들고, 문법적 의미를 이해한다.

1 동-게 하다



라호안: 반장님, 오늘 작업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반장님: 그래요? 그럼 작업 일지 잊지 말고 작성하세요.
그리고 팀원들에게도 **작성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시킬 때 사용한다.

예문

- 가: 이 악을 식후에 아이에게 **먹게 하세요.**
나: 네, 선생님. 식후 30분에 먹이면 되죠?
- 아이에게 자기 방을 스스로 **정리하게 하세요.**
- 출입국·외국인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외국인 등록을 **하게 합니다.**

-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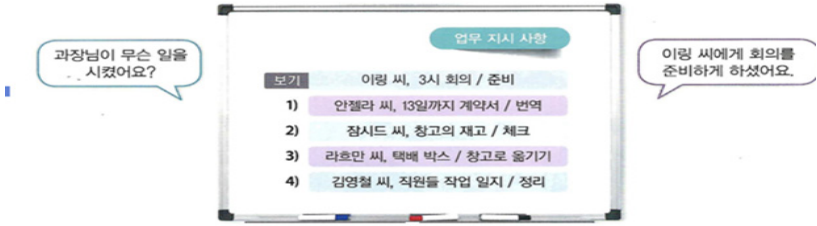
- 먹다 → **먹게 하다**
- 작성하다 → **작성하게 하다**

Tip ‘하게 하다’는 ‘시키다’로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림 4] ‘-게 하다’형 사동 표현 그림과 예문

‘-게 하다’형 사동 표현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시킬 때 사용한다는 의미를 보여 준다. [그림 5]와 같이 ‘-게 하다’형 연습 문제를 제시하여 기계적으로 연습한다.

1. **보기**와 같이 친구와 이야기해 보세요.



2. 다음에 대해 '-게 하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시켰던 일
- 의사나 약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하는 말
- 게임을 많이 하는 아이의 보호자에게 하는 말

[그림 5] 연습 문제

[그림 5]의 <1>에서는 제시된 어휘를 이용하여 <보기>의 대화처럼 대화 문장을 만들어 연습한다. <2>에서는 '-게 하다'를 사용하여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에게 시켰던 일, 의사나 약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하는 말을 만들어 보게 한다. 특이한 것은 '-게 하다' 형태 연습 밑부분에 “‘하게 하다’는 ‘시키다’로 바꿔 말할 수 있다.”는 Tip¹¹⁾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학계에서는 사동 표현으로 인지하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자주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2) 『즐거운 한국어』의 사동 표현

『즐거운 한국어』에서는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중급 1, 단원 13에서, '-게 하다'형 사동 표현을 중급 2, 단원 7에서 학습한다. 그런데 '-게 하다'형은 어렵다고 여기는 접미사형 사동 표현보다 학습 순서상 늦게 학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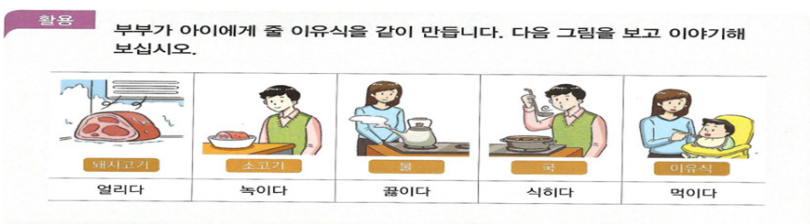
먼저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보면 중급 1, 단원 13에서 [그림 6]을 제시하는데, 그림을 보면서 상황을 파악하게 한다. 그런데 [그림 6]에서는 사동의 의미를 “우 유 좀 먹여 줘요”처럼 주어가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나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

11) 국립국어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하우출판사, 2020, 169쪽.

만 아기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기에게 우유를 먹여 줘요.”처럼 아기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때 학습자는 사동의 의미를 남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야 한다고 오해할 수 있다. [그림 6]에서는 접미사형 사동 표현 어휘를 문법 설명 없이 사동 접미사와 결합한 사동사로만 보여 준다.



[그림 6] 접미사형 사동 표현 그림과 예문



가: 여보, 돼지고기 좀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 주세요.
나: 네, 알았어요.



[그림 7] 사동사 어휘 연습

다음으로 ‘-게 하다’형은 중급 2, 단원 7에서 [그림 8]과 같이 대화를 통해 ‘-게 하다’형이 사용되는 상황을 제시한다. ‘-게 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허락할 때 사용하는 문법 항목이다. [그림 8]에서

“사만나가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엔젤 씨가 사만나를 꼭 자게 했어요.”로 설명한다. 접미사형 사동 표현에 비해 간단해서 ‘-게 하다’형은 ‘쉬게 하다, 먹게 하다’ 정도로만 연습한다.

준비① **-게 하다**

예문

-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새 어휘를 외우게 했어요.
-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매일 책을 읽게 했어요.

형태

-게 하다
쉬게 하다
먹게 하다

[그림 8] ‘-게 하다’ 형 사동 표현 그림과 예문

(3) 『서울대 한국어』의 사동 표현

『서울대 한국어』는 사동 표현을 모두 3B에서 학습한다.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3B, 단원 11에서 먼저 학습한 다음, 단원 15에서 ‘-게 하다’형을 학습한다.

먼저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보면, [그림 9]와 같이 예문을 통해 사동사를 노출하고, 제시된 상황을 이해하도록 하여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학습한다.

1. V-이/히/리/기/우-(사동)

track 14

A 출근할 때 아이는 어떻게 해요?

B 어린이집에 맡겨요.

- 예**
- 출출하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요?
 - 검사를 해야 하니까 환자를 침대에 눕히세요.
 - 저는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해서 동생을 자주 울렸어요.
 - 비가 오니까 아이에게 장화를 신기세요.

[그림 9] 접미사형 사동 표현 그림과 예문

그리고 [그림 10]과 같이 <연습 1>과 <연습 2>에서 특정 상황에 맞는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연습한다. <연습 1>에서는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해 줘야 하는 것으로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학습하고, <연습 2>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을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사용하여 말하기를 연습한다.

연습1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해 줘야 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연습2** 아래의 단어를 써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경험에 대해 [보기]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그림 10] 접미사형 사동 표현 연습

마지막으로 [그림 11]에서 특정 대화를 통해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더 익히게 하고, 상황을 제시하여 사동 표현을 만들게 하여 말하기를 연습한다.

연습1 친구와 연습해 보세요.

1) 열심 아이
그 아이 열매가 회사에 다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다 / 간식도 먹이다 / 책도 읽어 주다
낮잠 자는 것 / 재워 때

2) 노인 병환의 할머니
그 할머니 거품이 모두 버린다
할머니 몸이 불편하시다 / 주물려 드리다 / 옷도 같이입혀 드리다
약 드시는 것 / 먹 먹여 드릴 때

마리코: 지면 씨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우리 얼굴 본 지 오래됐죠?
 지 언: 살은 얼마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마리코: 아르바이트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지 언: **열심 아이**를 돌봐 주고 있어요. 그 **아이 열매**가 회사에 다니거든요.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간식도 먹이고 책도 읽어 줘요.
 마리코: 힘들지 않아요?
 지 언: 힘들 때도 있어요. **아이가 낮잠 자는 것** 싫어해서 재워 때 아주 힘들어요.
 마리코: 근대 왜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지 언: 집 살 돈을 빨리 모으고 싶어서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전세거든요.

[그림 11] 말하기 연습

『서울대 한국어』는 접미사형 사동사를 문법과 표현 항목에서 소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문법 설명이나 어휘 목록은 제시하지 않고, 주어진 여러 상황을 이용해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연습한다.

3) 사동 표현 교육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종의 교재를 분석한 결과, 교재에서는 사동 표현을 '도입-제시-연습-활용'의 전형적인 단계를 따르며 학습하고 있으나,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를 보였다.

첫째, 인지적 순서가 잘못되었다. 비교적 학습이 쉬운 '-게 하다'형보다 복잡한 접미사형 사동을 먼저 배치함으로써 학습 초기에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다.

둘째, 맥락이 제공되지 않은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표 4]에서 확인되듯, 교재들은 20~30여 개의 사동사를 나열하며 기계적 암기를 유도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에게 '단어의 나열'로 인식될 뿐, 실제 담화 상황에서 사동의 의미 차이를 인지하게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특정 상황(육아·요리)에 편중된 예문이 많다. 이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재의 특성상 특정 생활 양식에 치우쳐 있어, 대학 진학 등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진 외국인 학습자들의 보편적인 의사소통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다소 협소한 측면이 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점을 제시하여 본다.

먼저 '-게 하다' 형보다 형태가 복잡한 접미사형 사동의 학습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3종의 교재 모두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이-, -히-, -리-, -기-, -우-, -추-'로 구분하여 학습한 후 '-게 하다' 형 사동 표현을 학습하고 있다. 그런데 결합 규칙성을 설명할 수 없어 특정 상황을 제시하여 어휘 표현 형식으로 학습한다. 그런 이유로 어휘들을 암기해야 하고, 주동문과 사동문의 의미를 비교하여 이해해야 한다. 사동형을 학습할 때, '-게 하다'형 사동을 먼저 학습하여 사동의 의미를 이해한 후 접미사형 사동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단순한 형태 변화 연습도 중요하지만, ‘먹다-먹이다’, ‘죽다-죽이다’와 같은 대응으로만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주동과 사동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림과 예문으로 정확한 의미 차이를 구분하여 대화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과 활용이 보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즐거운 한국어』 교재의 주 학습 대상은 비자나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의 여성이다. 그러기에 육아와 요리에 관련된 어휘를 이용한 예문을 제시한 경우가 많다. 특히 『즐거운 한국어』는 ‘-아/어 주다’가 결합된 형태를 학습하여 사동의 본래 의미를 오해할 소지도 있다. ‘-아/어 주다’를 결합하지 않아도 사동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다른 상황과 어휘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각 교재의 접미사형 사동 표현 어휘를 보면 『서울대 한국어』가 17개,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18개, 『즐거운 한국어』는 24개가 제시된다. 이것을 고빈도 어휘 15개 내외로 줄여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한다. 이에 비해 빈도수는 적지만 ‘키우다, 살리다, 울리다, 낮추다, 맞추다, 죽이다, 닦이다’와 같은 어휘는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빈도수가 많아서 자주 노출해야 한다. 반면 ‘깨다’는 사동 접미사 ‘-우-’가 결합하여 ‘깨우다’가 된다. 그런데, ‘타다, 자다, 서다’ 등은 모든 교재에서 사동 접미사 ‘-우-’항목에 있지만 ‘-우-’와 결합하여 ‘타우다, 자우다, 서우다’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가 결합하는 형태가 아닌 이중 사동 접미사 ‘-이우-’를 취하는 어휘로 따로 학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사동 접미사 교육 방안

1) 스토리텔링의 개념과 한국어 교육

조정래(2015)는 스토리텔링을 ‘story + tell + ing’로 분석하여 ‘story’

는 인물, 사건, 배경을 조합하여 만들어 낸 ‘한 덩어리의 말하기’라 한다. ‘tell’은 말한다는 스토리의 기본 성격을 표현하는 부분으로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것은 상호 소통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또 ‘ing’는 진행형의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스토리텔링의 가장 중요한 특성인 현장성을 갖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¹²⁾

사람은 말할 때 상황이나 맥락에 어울리는 적절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한다. 즉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송정란(2005)은 이야기는 인간의 본능¹³⁾이며, 이런 본능은 문법 교육 현장에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법은 추상적이고 고립된 규칙이 아니라 인간의 서사적 사고를 구조화하는 뼈대이기¹⁴⁾ 때문이다.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나 이야기로 상호 소통하는 스토리텔링은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이용하는 활동이다. 왜냐하면, 접미사형이나 ‘-게 하다’형의 문법적 의미를 이해하게 하고, 어려운 어휘나 표현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즉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일방적 수용이 아닌 상호 소통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원활한 학습이 되게 한다. 설명이 어려운 문법 항목을 상호 소통을 통하여 이해하고 익힐 수 있으며, 일방적인 암기나 학습은 어려워져 쉽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교수자와 학습자 또는 학습자와 학습자는 어떤 주제(문법 항목)를 상호 소통하면서 학습한다. 이때 스토리를 만들어 내거나 말하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면 학습자는 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하게 된다. 흥미를 느낄 수 있고, 쉽게 학습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도 이야기는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도구¹⁵⁾로 인식한다.

12) 조정래, 『스토리텔링 육하원칙』, 지식의 날개, 2015, 15-39쪽.

13) 송정란, 『스토리텔링의 이해와 실제』, 문학아카데미, 2006, 10쪽.

14) 나익주 역, 『문학적 마음:사고와 언어의 기원』, 지호, 2002, 15-18쪽.

15) 나익주 역, 앞의 책, 2002, 15-18쪽.

2)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접미사형 사동 표현의 교수지도안

한국어 교육 및 문법 교육의 핵심 목표는 학습자가 실제 상황에서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장 성분과 담화 구성에 필요한 문법적 기제를 내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게 하다’형 사동은 문법적 규칙이 일정하여 비교적 쉽게 습득되지만, 접미사형 사동은 결합 규칙의 복잡성으로 인해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높은 학습 난도를 형성한다. 따라서 이 지도안은 단편적인 형태 암기에서 벗어나, 학습자가 사동의 맥락적 상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한 접미사형 사동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이 수업의 학습 시간은 1, 2차시, 총 100분으로 하였다.

먼저, 스토리텔링으로 특정 상황을 이해하게 하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주동사 표현을 익히게 한다. 또 같은 상황에 대하여 사동 접미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자료를 통해 주동사와 사동사의 차이를 인지하게 한다. 주동사와 사동사로 이루어진 두 이야기를 통해 학습자의 흥미를 끌어내고 학습 동기를 유발한다.

다음으로 주동 표현과 사동 표현이 있는 사진 자료를 학습자에게 보여 주고 두 사진의 차이점을 인지하게 함으로써 이야기를 만들게 한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문법 항목에 대한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형태 정보 확인하기, 주동문과 사동문의 차이 인지하기, 접미사형 사동 표현으로 문장 완성하기, 유튜브 동영상상을 보고 이야기 만들기, 팀(개인)별로 발표하기 등 다양한 연습 활동을 한다. 이때 학습자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바로 교정해 준다.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단원 8의 교수지도안을 만들어 [표 6]으로 제시한다. 수업은 스토리텔링을 이용하여 ‘도입-제시-연습-활용-마무리’의 순서로 진행하는데, 동작 주체에 따라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표현할

수 있음을 인지하도록 한다. 또 접미사형 사동사를 이용한 문장을 만들어 주동문과 사동문의 차이와 특성을 학습자가 인지하게 한다. 더불어 사동 표현을 다양한 내용의 스토리텔링으로 연습하여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게 한다.

[표 6] 교수 지도안

지도 대상	중급 수준 한국어 학습자	
단원명	8과 음식과 요리	
학습 목표	사동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	1/2차시 (50분)
목표 문법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우-, -추)	
단계 (시간)	교수 - 학습 단계	학습자료 및유의점
도입 (5분)	1) 간단한 인사를 하고 흥미를 유발한다. 2) 그림으로 주동, 사동의 차이를 인지하게 한다. 3) 그림과 대화를 통해 사동 문법이 사용되는 상황을 인지하게 한다. T: 안녕하세요? S: 안녕하세요? T: 여러분, 오늘 밥 먹었어요? S: 네, 먹었어요. / 아니요, 안 먹었어요. T: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뭐를 하고 있어요? 	교재
제시	T: 이 사진을 보세요.	

(10분)	안젤라 씨는 한국어 수업에 오기 전에 뭘 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S: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샤워했어요. 밥을 먹고 이를 닦았어요. 책을 읽었어요. 코트를 입고 모자를 쓰고 부츠를 신었어요. 자동차를 타고 센터에 왔어요. T: 이번에는 이 사진을 보세요. 안젤라 씨와 아이의 사진은 뭐가 달라요? S: 아이는 엄마가 도와줘야 해요.  T: 맞아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를 ‘사동사’라고 해요. 4) 교재를 보면서 사동 표현의 형태 정보를 제시하고 설명한다. T: 동사나 형용사 뒤에 ‘-이-, -히-, -리-, -기-, -우-, -추-’를 붙이면 사동 표현이 돼요. <table border="1" data-bbox="303 1035 846 1222"> <tr> <td>-이-</td> <td>먹다 → 먹이다</td> </tr> <tr> <td>-히-</td> <td>입다 → 입히다</td> </tr> <tr> <td>-리-</td> <td>살다 → 살리다</td> </tr> <tr> <td>-기-</td> <td>신다 → 신기다</td> </tr> <tr> <td>-우-</td> <td>타다 → 태우다</td> </tr> <tr> <td>-추-</td> <td>말다 → 말추다</td> </tr> </table>	-이-	먹다 → 먹이다	-히-	입다 → 입히다	-리-	살다 → 살리다	-기-	신다 → 신기다	-우-	타다 → 태우다	-추-	말다 → 말추다	스토리텔링 활용 PPT 사진자료
-이-	먹다 → 먹이다													
-히-	입다 → 입히다													
-리-	살다 → 살리다													
-기-	신다 → 신기다													
-우-	타다 → 태우다													
-추-	말다 → 말추다													
연습 (15분)	T: 이 사진을 다시 보세요. 안젤라 씨는 한국어 수업에 오기 전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뭘 해 주었어요? S: 아이를 보내려고 아이의 머리를 감겼어요. 아이의 얼굴도 씻겼어요. 아침을 준비해서 밥을 먹였어요. 아이의 이도 깨끗이 닦았어요. 아이의 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신발을 신겼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데려가려고 유모차에 태웠어요. T: 네, 잘하셨습니다.	PPT 사진자료 스토리텔링 활용												

	아이의 머리를 감겨요. 아이의 얼굴을 씻겨요. 아이에게 밥을 먹여요. 아이에게 옷을 입혀요. 아이에게 모자를 씌워요. 아이의 신발을 신겨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요. 5)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를 풀게 한다. <연습 1> 다음 동사를 사동사로 만드세요. <table border="1"><tr><td>먹다 - ()</td><td>타다 - ()</td></tr><tr><td>입다 - ()</td><td>씻다 - ()</td></tr><tr><td>쓰다 - ()</td><td>신다 - ()</td></tr><tr><td>입다 - ()</td><td>감다 - ()</td></tr></table> <연습 2> 보기와 같이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table border="1"><tr><td><보기> 안젤라 씨가 밥을 먹어요. →안젤라 씨가 아기에게 밥을 먹여요.</td></tr></table> 1. 안젤라 씨가 옷을 입어요. → 안젤라 씨가 아이에게 옷을 () 2. 안젤라 씨가 모자를 써요. → 안젤라 씨가 아이에게 모자를 () 3. 안젤라 씨가 부츠를 신어요. → 안젤라 씨가 아이의 부츠를 () <연습 3> 안젤라 씨와 남편이 뭘 하고 있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먹다 - ()	타다 - ()	입다 - ()	씻다 - ()	쓰다 - ()	신다 - ()	입다 - ()	감다 - ()	<보기> 안젤라 씨가 밥을 먹어요. →안젤라 씨가 아기에게 밥을 먹여요.	‘타다’는 사동 접미사 ‘-이우-’가 결합된 형태임을 알려 준다. ‘신겨요’는 [신겨요]가 아니라 [신겨요]라는 발음을 조심하게 한다.
먹다 - ()	타다 - ()										
입다 - ()	씻다 - ()										
쓰다 - ()	신다 - ()										
입다 - ()	감다 - ()										
<보기> 안젤라 씨가 밥을 먹어요. →안젤라 씨가 아기에게 밥을 먹여요.											
활용 (15분)	T: 이번에는 <재민이의 육아일기> 동영상을 보고 사동 표현을 이용하여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S: 형들이 재민이에게 우유를 먹여요. 재민이를 재우려고 해요. 재민이가 안 자서 음악을 들려줘요. 재민이에게 새 기저귀를 채우려고 해요. T: 네,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재민이 엄마가 되어 지오디에게 부탁	유튜브 동영상 스토리텔링 활용									

	하는 메모를 써 보세요. 6) 학생들이 쓴 글을 자유롭게 발표하게 한다.	
마무리 (5분)	T: 오늘 무엇을 배웠어요? S: 사동 표현을 배웠어요. T: 사동 표현 중에서 생각나는 단어를 말해보세요. S: 먹어요. 재워요. 입혀요. 씌워요. 태워요. T: 사동 표현을 이해했어요? S: 네, 이해했어요. T: 다음 시간에는 사동 표현을 이용해서 다양한 내용의 쓰기 공부를 하겠어요. S: 네, 알겠습니다. T: 여러분,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 시간에도 사동 표현을 공부합니다.	

이 교수지도안의 핵심은 사동사를 개별적인 '어휘' 단위로 교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진 및 동영상(재민이의 육아일기)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학습자가 능동적인 '서사 구성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 주동과 사동의 변별 과정을 시각적 서사(Visual Narrative)와 결합함으로써, 명시적인 규칙 암기 없이도 사동의 의미 체계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3)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과

스토리텔링으로 문법 수업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다.

첫째, 학습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법 수업은 학습자가 목표 문법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함으로써 문법의 의미나 쓰임을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서 학습에 대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이는 곧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가 되어 자기 주도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학습자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학습자들이 이야기를 만들어 서로 읽고 들으면서, 또는 대화하거나 이야기하면서 다른 학생 것과 자신 것을 비교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은 쓰기, 읽기, 듣기, 말하기의 언어 통합적 기능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셋째, 어휘 습득에 도움이 된다. 학습자가 만드는 이야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생활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소재이다. 문법과 연계할 경우, 학습자들은 특정 어휘를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상황과 맥락을 중심으로 어휘를 습득할 수 있다.

넷째,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학습자가 만들어 낸 이야기에는 모국의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다. 이때 다른 나라의 문화와 자기 나라의 문화가 비슷하거나 전혀 다르다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때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문화적 지식을 넓히는 데 좋은 소재가 된다.

다섯째, 스토리텔링을 통해 학습한 문법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학습자는 학습된 문법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다. 만들어 내는 이야기에 학습한 문법을 적용함으로써 그것들이 쓰이는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게 되고, 실제 생활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므로 수업을 실제 생활로 연장하게 된다.

4. 결론

한국어 학습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말하기나 쓰기를 보면 사동 표현을 어려워하고 많은 오류를 보인다. 이 연구는 그러한 점을 주목하였고, 사동 표현에 대하여 교수법적 대안으로서 스토리텔링의 효용성을 고찰하였다.

먼저 사동 표현의 교육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서울대 한국어』 3B, 『즐거운 한국어』 중급 1과 중급 2를 분석하였다. 교재의 '사동 표현'은 주동사와 사동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사동 접미사를 결합한 사동사의 나열이 주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기존 교재의 파생적 사동 교육이 가진 '어휘 리스트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담화 맥락과 서사적 구조가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 모델은 학습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문법 지식을 실제 의사소통 능력으로 전이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이야기를 만들고 글쓰기를 해 봄으로써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한국어 사동 표현 교수지도안도 모색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이야기를 만들거나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관련된 문법이나 어휘, 표현 등을 쉽게 습득할 수 있게 연습하였다.

다만 교재에서 특정 주제(육아와 요리)에 편중된 점은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이거나 비즈니스 목적 등 다양한 학습자 변인을 고려한 교재 발굴이 이어져야 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국립국어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1』, 커뮤니케이션북스, 2005.
- 나익주 역, 『문학적 마음: 사고와 언어의 기원』, 지호, 2002.
-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2018.
- 권재일, 『한국어 문법론』, 태학사, 2012.
- 이익섭, 『한국어문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4.
- 임지룡, 『인지의미론』, 탑출판사, 1997.
- 조정래, 『스토리텔링 육하원칙』, 지식의 날개, 2015.
- 최혜실, 『스토리텔링, 그 매혹의 과학』, 한울, 2011.
- 허용·강현화·고명균·김미옥·김선정·김재욱·박동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개론』, 박이정, 2005.

논문

- 고경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 문화교육」, 『스토리&이미지텔링』 1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1, 11-34쪽.
- 고경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방안」, 『스토리&이미지텔링』 5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3, 39-59쪽.
- 곽경숙,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의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광신논단』 23집, 광신대학교 출판부, 2013, 215-235쪽.
- 김명권, 『한국어 파생 사동사 교수 방안 연구: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9.
- 김화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 박송희, 「스토리텔링을 통한 한국 고전문학 교육방안: 「박씨전」을 중심으로」, 『우리문학 연구』 52집, 우리문화회, 2016, 159-188쪽.
- 이소영,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속담 교육 방안」, 『스토리&이미지텔링』 10집,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2015, 213-229쪽.
- 차순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간접화법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9집,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3, 33-54쪽.

■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어 학습자가 사동 표현을 학습하는 데에 필요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실생활에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재 3종에서 다루어진 사동 표현의 유형, 사용된 어휘와 그 빈도수, 어휘 사용의 특이점을 살폈다. 또 사동 표현 유형의 교육 방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접미사형 사동 표현은 사동 접미사와 결합하는 규칙이 없어 학습자가 어렵고 복잡하게 받아들인다. 이에 학습을 효율적이고 쉽게 하기 위하여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한국어 학습자가 적극적이며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사동 표현의 실제 교수지도안을 소개하였다.

주제어 • 한국어 교육, 사동 표현, 사동 접미사, 교수지도안, 스토리텔링

■ Abstract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Causative Expression using Storytelling

Ra, In Joung / GeumGang University
Uhm, Hyun Sook / DaeDu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effective methods necessary for Korean learners to learn causative expressions and use them in real life. To achieve this goal, we distinguished the types of causative expressions covered in three Korean textbooks, examined the vocabularies used in the text, assessed the frequency and uniqueness of vocabulary usage. Additionally, we analyzed the educational methods for causative expression types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One of the challenges with suffix-type causative expressions is that there are no specified rules for combining causative suffixes. Consequently, learners often find them difficult to apply and become confused. To address this issue and facilitate efficient and easy learning, we employed storytelling as a method to engage Korean learners actively and proactively in the classroom. Additionally, we introduced a practical instructional plan for teaching Korean causative expressions using storytelling.

Keyword • Korean language education, Causative suffix, Causative expression, Instructional plan for teaching, Storytelling.

■ 논문투고일:2026.01.31. ■ 심사완료일:2026.03.09. ■ 게재확정일:2026.03.18. ■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읽기 기반 토론 교육의 재구성: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중심으로

장 미 성*

목 차

1. 서론
2. 선행 연구 및 차별성
3. 강의 운영 방식 및 특징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오늘날 대학 교양교육은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역량을 핵심 교육 목표로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토론 기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양 토론 수업은 안락사, 낙태, 환경 문제와 같은 윤리·사회적 쟁점을 중심으로 찬반 입장을 설정하여 논박하는 ‘Pros & Cons’ 방식에 의존한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를 단기적으로 유도하는 데 장점을 지니지만, 쟁점의 개념적 기반을 이해하거나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구조를 검토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실제로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감정에 기반하여 발언하는 경향이 높고, 문제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의 전제나 논증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개인적 의견 교환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

* 숭실대학교 철학과 조교수, 기초교양교육연구센터장

또한 교양 수업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학생들의 ‘고전 원전 읽기 회피’ 현상이다.¹⁾ 상당수 학생들은 한 권의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경험이 없으며, 요약 자료나 온라인 해설 영상에 의존하여 토론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토론은 텍스트 기반의 근거 제시에서 벗어나 피상적 의견 교환으로 전락하고, 핵심 개념의 정의나 논증 구성 등 교양 토론 수업이 지향해야 할 학습 목표 달성이 어려워진다. 즉, 원전을 읽지 않는 현상은 단순한 학습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논증 중심 학습과 개념적 사고력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대학 교양교육 현황 조사 연구(2023)」에 따르면, 전국 140개 대학의 의사소통 영역 교과목은 글쓰기(63.0%), 고전·명저 읽기(20.8%), 말하기(7.9%) 등의 순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읽기-말하기-글쓰기-토론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교과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읽기·말하기·글쓰기·토론’의 통합적 역량을 모두 다루는 교육 모형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의 여섯 영역을 하나의 수업에서 통합하고자 한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토론 수업은 기존의 찬반식 쟁점 토론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 고전 원전의 정밀한 읽기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중심으로 설계된 새로운 교양교육 모델이다. 이를 위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

1) 학생들은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든지, 사서삼경을 생각하면, 우선 고전(古典)은 현대와 거리감이 있어 2000년 이전 시대를 이해하기 어렵고, 더군다나 희랍어와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어 번역어에서 오는 괴리감이 있다고 말한다. 오늘날 고전(古典)이 고전(苦戰)을 면치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한다고 해도 여전히 고전이 사랑받는 이유가 있다. 또한 언어 장벽의 문제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가장 많이 읽는다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나 까뮈의 『이방인』도 학생들은 독어나 불어로 읽지 않고 한글로 읽었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대화편 중 하나인 『소크라테스 변명』도 희랍어 원전 번역으로 박종현 역(2003)을 필두로, 천병희 역(2017), 강철웅 역(2020), 오유석 역(2023)의 네 작품이 있고, 이외에도 어린이를 위한 소크라테스의 변론까지 총 40여권 이상의 책이 출판되어 널리 읽히고 있기 때문이다.

명』과 『크리톤』을 교재로 선정하였다.²⁾ 두 대화편은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사형을 앞둔 감옥에서의 핵심 장면을 담고 있으며, 분량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정의’와 ‘법’, ‘삶의 방식’, ‘시민적 의무’ 등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논의해야 할 개념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 한 학기 교재로 적합하다. 이 대화편에서 소크라테스는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중적 통념이나 권위에 근거한 주장들을 철저히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오늘날을 살고 있었다면, AI 기술의 목적과 윤리성, 시민사회에서의 정의의 기준, 법의 정당성과 집행 방식,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질문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의 탐구 방식은 21세기의 교양교육에서도 여전히 의미 있는 교육적 자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토론 수업은 학생들이 플라톤의 대화편과 고대 아테네의 법·정치·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도록 돕고, 원전을 근거로 스스로 문제를 구성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와 ‘법’을 둘러싼 개념적 의미를 재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고전 작품들을 읽을 때 길잡이가 필요하다. 이 수업의 대상이 대학생인만큼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문화, 언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교수자에게 배우고, 배운 것을 오늘날 상황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의 삶과 가치, 특별히 정의와 법에 대한 핵심 메시지와 의미, 그리고 당시 배경과 대중들의 시선 등을 종합적으로 학생들은 음미해야 한다. 그리고 원전을 꼼꼼하게 읽고 분석

2) 소크라테스는 키케로에 따르면 철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고 철학의 시작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가 직접 쓴 저작은 없다. 소크라테스에 관한 작품은 그의 제자 플라톤의 대화편과 크세노폰의 작품들이며, 희극작가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도 있다.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사상에 관해서는 아몬드 단거(2021), 루이-앙드레 도리옹(2023)을 참고하라. 저자가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교재로 선택한 이유는 이 두 책이 소크라테스 생애에서 가장 유명한 재판과 사형에 관해 기술하고 있고, 한 학기에 소화할 수 있는 길이이며, 주제가 정의와 법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 거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저자는 반드시 이 두 책만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책이 두껍지만 발췌를 통해 가장 유명한 플라톤의 『국가』를 통해서도 이 수업은 실행 가능하다. 또한 욕망과 이성, 수사술과 삶의 방식에 관한 『고르기아스』편도 토론 수업의 교재로 적절하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사실을 확인하고, 그 행간에 숨겨진 논리의 쟁점을 찾아내야 한다.

오늘날 철학적 사고를 통한 분석적 사고력과 추론적 사고력은 우리 삶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아니라 삶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설득시키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주장이 납득할 만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는 자신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주장의 근거를 찾고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만 하는데, 이는 철학적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시민사회가 성숙할수록 분석적 사고력과 추론적 사고력은 합리적 의사소통의 근간으로서 중요성을 더해가는데, 학생들이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 삶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오늘날 사회에 적용한다면, 현대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비판적 판단과 협력적 의사소통 역량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수·학습 모형은 플라톤 대화편의 철학적 깊이와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교육적 잠재력을 통합함으로써 교양교육의 질적 향상을 제공하며, 동시에 소크라테스의 삶을 통해 오늘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2. 선행 연구 및 차별성

1) 일반 토론 교양수업에 대한 기존 연구 동향

일반 교양교육에서 고전 읽기 및 토론 수업은 비판적 사고와 의사소통 능력 발달을 목표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토론 수업의 운영 방식과 교육적 효과는 교수자, 교재, 수업 구조에 따라 상이하며, 표준화된 운영 또는 명확한 교육 모델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첫째, 고전 기반 독서토론 연구에서는 고전 텍스트를 활용한 토론이 교양교육의 핵심 역량(비판적 사고, 가치 성찰, 개념적 이해)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한국의 대학에서 고전읽기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0년대이고, 이후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 연구(이황직, 2011), 고전읽기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연구(정인모, 허남영, 2012), 고전을 활용한 읽기·쓰기 수업의 효율적 운영 방식에 대한 연구(이수곤, 2013), 대학 교양 고전 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읽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한 연구(한래희, 2013),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고전독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이원봉, 2017), 고전읽기를 통한 의사소통교육 연구(황성근, 2017),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 연구(서기자, 2018) 등이 수행되었다.³⁾ 고전읽기에 관한 교양 교육은 2011-18년 사이 집중적으로 연구와 수업이 진행되었고, 이후 대학뿐 아니라 대중 강연으로 확대되어 서울시, 각 지자체 도서관,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강옥경, 2020). 특히 고전 텍스트는 특정 시사적 주제가 아닌 보편적 개념과 인간 이해를 다루고 있어 토론의 깊이를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토론식 수업의 참여·상호작용 분석 연구에서는 토론의 질은 논제의 성격, 교수자의 질문 전략, 온라인·오프라인 환경 구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보고되었다(박삼열, 2012). 특히 논제 유형이 참여의 양적·질적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점은, 교양 토론 수업 설계에서 ‘어떤 텍스트’와 ‘어떤 개념’을 토론의 핵심으로 삼을 것인가가 중요한 결정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은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어떤 개념들을 배워서 사용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수단이 되며, 인간의 삶에 대한 보편적 개념에서 최근에는 민주주의, 정의, 법, 진리 등이 주요 논제가 되고 있다.

셋째, 독서토론 기반 교양수업 연구에서는 학생 참여와 토론 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수 전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토론식 수업에서의 교수자 전략 연구에서는 교수자가 소극적 중재자가 아니라, 질문을 통해 학습자의 사고를 확장하고 개념을 명료화하도록 돕는 적극적

3) 고전 읽기 교양교육의 역사와 강좌에 대한 사례 분석 및 학생 평가에 관해서는 전영옥, 강옥희(2024)을 참고하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박삼열, 2012).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일반 토론 교양수업의 구조적 문제—예컨대 학생 참여의 편차, 교재 및 교수자의 재량에 따른 수업 질의 불균형, 쟁점 중심 토론의 피상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텍스트 기반의 구조화된 토론 방식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2) 국내 대학의 고전 읽기 기반 토론 수업 운영 사례

최근 국내 대학들은 교양교육의 핵심 역량—비판적 사고, 논증 능력,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고전 텍스트 기반 수업, 플립러닝, 문답 중심 수업 등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과목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쟁점 중심 토론 수업이 지닌 피상성과 비체계성을 극복하려는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고전 읽기·토론 교양수업들은 대체로 다음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학교 지정 고전 목록을 기반으로 한 읽기·토론 중심 수업이다. 이 유형은 다수의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으로, 대학 자체가 구성한 ‘고전 100선’ 또는 유사한 목록을 기준으로 교수자가 한 학기 동안 2-3권의 텍스트를 선정하여 운영한다. 예컨대 동국대학교의 ‘세계명작세미나’(문경연, 2017), 부산대학교의 ‘고전읽기와 토론’(박고운·고혜림, 2024)이 해당 유형의 대표적 사례이다. 이 모델은 인문·사회·과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고전을 균형 있게 다루어 학생들의 기초 인문학적 소양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학습 활동은 주로 고전 읽기, 발표 및 토론, 글쓰기 과제로 구성되며, 일부 대학에서는 서평제나 토론대회 등 비교과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학습 경험을 확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교수자 개인의 전공 및 선호에 따른 텍스트 선정의 편차, 텍스트 간 개념적 연결성이 낮아 학습 심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둘째, 대학 차원에서 특정 고전 텍스트를 지정하여 완독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읽기·토론 수업이다. 이 유형은 고전 선택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고

수업 운영의 표준화를 확보하기 위해 대학이 단일 또는 소수의 고전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성균관대학교의 ‘고전명저북클럽’은 소포클레스의 『아이아스』, 『안티고네』, 『참주 오이디푸스』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의 ‘서양철학: 쟁점과 토론’은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와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을 중심으로 완독 수업을 설계하고 있다. 두 대학의 공통점은 플립러닝과 블렌디드 러닝 방식을 도입하여 온라인에서 배경 지식을 학습하고, 오프라인에서 논제 토론과 논증 분석을 심화한다는 점이다. 이 유형은 텍스트 이해와 논증적 사고를 구조화된 형태로 결합한다는 강점을 가지나, 반대로 첫 번째 유형과는 달리, 지정된 고전이 특정 철학적·문학적 전통에 집중되는 경우 교양교육의 폭넓은 주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된다.

셋째, 정해진 교재를 바탕으로 비판적 사고 훈련과 토론 활동을 통합한 표준화 모델이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고전과 함께하는 비판적 토론’ 수업이 대표적 사례로, 기존 교양 교과가 교수자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공통 교재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한다.⁴⁾ 해당 교재는 (1) 비판적 사고 및 논증 이론, (2) 고전 텍스트 분석과 개념 적용, (3) 현실 문제에 대한 확장적 적용 등으로 구성되며, 형식 논리학을 바탕으로 고전 텍스트 이해와, 실천 윤리학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통해 토론 활동의 이론적 기초를 강화한다. 이 모델은 교수자 간 수업 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논증 중심 토론의 표준화된 교육 설계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고전 자체의 완독보다는 비판적 사고 교육에 비중을 두는 구조로 인해, 학생의 고전 이해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볼 때 고전 읽기와 토론 수업은 단순히 고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 사고와 논증 분석 역량을 함양하기

4) 목광수 외, 『토론수업 - 고전 읽기와 함께하는』, 씽크스마트, 2025. 교수자들이 필자들이다.

위해 토론과 연결시키는 수업을 설계하는데 초점을 두고, 단순한 지식 전달과 의견 교환에 그치는 토론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개념 중심의 근거 기반, 문제 해결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선행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차별성

기존 선행연구와 대학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고전 기반 교양 토론 수업에는 교육학적 관점에서 몇 가지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첫째, 다수의 교양 교과는 고전 독해 능력과 말하기·글쓰기·토론 역량을 통합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학습자의 비판적 사고와 논증 분석 능력이 사전에 충분히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러한 통합적 목표는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구현되기 어렵다. 즉, 기본적인 논증 구조 이해와 개념적 사고가 갖추어지지 않은 학습자에게 고전을 읽고 토론하며 글쓰기까지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학습자의 인지적 부담을 과도하게 증가시키고, 수업 성과를 저해할 수 있다. 이는 교수자의 전문성, 텍스트 선정의 적절성, 학습자의 선행학습이 동시에 충족될 때에만 통합적 수업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많은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두세 권의 방대한 고전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텍스트의 학문 분야가 상이하고 주제적 연속성이 부족하여 한 학기 동안 특정 개념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기 어려운 구조적 제약을 갖는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긴 분량의 고전 전체를 읽기보다 요약자료나 강의 중심으로 학습을 대체하는 경향이 나타나며, 이는 고전 교육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원전 읽기와 원전 기반 문해력을 약화시킨다.

이와 달리 본 연구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이라는 비교적 짧고 명료한 두 텍스트에 집중하는 방식을 제안한다.⁵⁾ 두 텍스트

5) 연구자는 여러 번역본 중에 희랍어/한글 원문 번역과 전공자의 해석이 뒷받침된 그리스로마 원전을 연구하는 정암학당(<http://www.jungam.or.kr/>)의 플라톤 전집 시리즈를 추천한다. (플라톤, 강철웅 역, 『소크라테스 변명』, 파주: 아카넷, 2020. 플라

는 분량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도 대화체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어 학습자가 자연스럽게 질문·응답 구조에 익숙해질 수 있으며, 학습자의 대화 참여도를 높이는 데 적합하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법정 변론과 감옥에서의 대화는 서사, 개념, 윤리적 판단이 결합된 교육적 텍스트로서,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 논증 분석, 규범적 판단을 동시에 연습하기에 최적의 구조를 제공한다. 기존의 대학 교양 프로그램에서 활용되는 일반적 고전 텍스트와 비교할 때, 두 작품은 개념적 일관성이 높고, 정의·법·삶의 방식이라는 핵심 주제를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어 교육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⁶⁾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는 철학의 목적과 삶의 가치, 진리 탐구의 의미, 정치·종교적 갈등 속에서의 시민적 실천이 주요 논점으로 제시된다. 학습자는 소크라테스의 자기변론을 통해 ‘검토하는 삶’의 의미, 삶과 행복의 관계, 정치적 압력 속에서의 올바른 판단 등 현대적 쟁점과 연결된 사고를 수행할 수 있다. 『크리톤』에서는 정의의 원칙, 합의 이행의 의무, 법과 공동체의 관계, 악법에 대한 태도 등 민주주의 시민교육의 핵심 요소가 다루어진다. 소크라테스의 논리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주의가 정당한지, 정의와 법의 관계는 무엇인지를 학습하게 되고, 이를 실제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고전 읽기와 토론 활동을 결합하는 기존 교양 수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소크라테스적 문답법을 기반으로 원전 해석-논증 분석-윤리적 성찰-의사소통 활동을 통합한 교수-학습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또한 학생들이 원문을 끝까지 읽지 않는 문제, 텍스트 난이도로 인해 발생하는 학습 동기의 저하 등의 교육적 문제를

톤, 이기백 역, 『크리톤』, 파주: 아카넷, 2020.)

6) 교육학적으로 보았을 때,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은 다음과 같은 학습 효과를 가능하게 한다. 첫째, 텍스트 전체가 하나의 명확한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습자가 개념적 집중 속에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 둘째, 대화체 텍스트는 학습자의 추론·반박·검토 능력을 자연스럽게 자극하여 확장된 사고를 촉진한다. 셋째, 두 텍스트 모두 정의와 법의 본질, 시민적 의무, 공동체적 선에 대한 탐구를 포함하고 있어 학습자의 시민적 덕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심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해결하기 위해 텍스트 분량 조절, 대화체 구성 활용, 논증 단계별 안내 등 구조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실천 사례를 보완한다. 이러한 접근은 학습자가 고전을 ‘읽었다’는 수준을 넘어, 고전을 통해 자기 주도적 사유와 실천적 판단 능력, 더 나아가 시민의 덕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3. 강의 운영 방식 및 특징

1) 교육 목표 및 수업 구성

본 강의의 핵심 교육 목표는 단순한 이론 전달을 넘어, 학습자가 스스로 문제를 규정하고 분석하며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고차 사고 기반의 학습자 중심 교과를 구현하는 데 있다. 학습자는 고전 텍스트를 매개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탐색하고, 이에 대한 창의적 해결 아이디어를 구성하며, 조별 프로젝트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고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에 참여한다. 이러한 접근은 실제적 맥락과 연결된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및 프로젝트 학습(Project-Based Learning)의 원리를 반영하며, 지식의 수동적 습득을 넘어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 가능하게 한다.

본 강의는 특히 “정의란 무엇인가”, “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바람직한 삶은 무엇인가”와 같은 철학적·규범적 물음을 중심에 두고 학습자가 스스로 사고의 지평을 넓히도록 돕는다. 교수자는 고대 아테네의 정치·법 제도, 소크라테스식 문답법, 민주주의와 법철학 관련 배경 지식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학습자의 탐구 과정을 촉진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으로 교수자는 가르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감당한다.

아래 네 가지 활동은 본 강의의 주요 수업 구성 요소에 해당한다.⁷⁾

7) 15주 수업의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미리 텍스트를 읽고 질문 만들어 오기 ② 사실 확인 ③(개인별) 문제(issue) 정립 ④ 가설(직관적 통찰 포함) ⑤ 가설의 근거 찾기 + 논증 구성 or 폐기 ⑥ 토론을 통해 조별 이슈 찾기 공유 및 조별 논증 구성 ⑦ 조

(1) 소크라테스식 질문: 질문지 구성 활동

수업의 첫 번째 필수 요소는 학생들이 매 차시 지정된 원문을 읽고 소크라테스식 질문지를 작성해 오는 것이다. 이는 학습자가 단순한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원문에 기반해 핵심 개념의 전제, 논증 구조, 반례 가능성 등을 검토하는 문제제기 능력을 기르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초기에는 질문의 질과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교수자의 지속적 피드백과 텍스트 기반 훈련을 통해 다수의 학생이 점차 학술적 질문에 도달하게 된다.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통해 진리에 다가가고자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질문 방법을 배우면서 문제점을 구체화시키고 개념을 심층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 학생들이 질문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 교수는 전문적인 감각으로 학생의 흥미를 더해주며, 학생의 이해도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한다.

주차가 계속 될수록, 소크라테스식 질문 훈련을 한 학생들은 질문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를 구분할 수 있으며, 중요한 개념에 집중하여, 정보 선별 능력, 개념 간 연계성 파악, 문제 구조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질문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와 기존 지식 간의 의미 연결이 이루어지며, 이는 학습 지속성과 학습 전이를 촉진하는 중요한 교육적 장점으로 작용한다.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서의 질문은 이미 여러 차례 검증된 바 있다. 교수자는 대부분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을 주는 것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여 학생들의 사고의 깊이를 더해야 한다.⁸⁾ 소크라테

별 발표 + 교수의 비판적 피드백 ⑧ 개인별 에세이 구성

- 8) Elder & Paul(1998, pp. 299-301)은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관한 고등학교 과학교사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생물학’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설명하기 위해 과학교사는 질문의 형식으로 ① 생물학이 어떤 과목인지? - 학생들의 답변: 과학이다. ② 과학은 어떤 학문인지? 학생들 답변: 사물들을 실험하고 시험하는 학문이다. ③ 실험하고 시험하는 다른 학문, 예를 들어 물리학이나 수학과 생물학이 어떻게 다른지? - 학생들의 답변: 물리학은 사물을 탐구하고, 수학은 수를 탐구하는데 생물학은 식물을 탐구한다. ④ 생물학과 식물학은 어떻게 다른가? 등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 학생들

스는 자신이 가진 지식이 젊은이들보다 뛰어났지만, 자신의 지식을 가르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X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또는 “자네가 규정한 X가 보편 타당한가?” 등의 질문을 통해 젊은이들 자신이 몰랐던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더 깊은 사고와 지식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해 주었다.⁹⁾

(2) 원문 분석을 통한 2천년 간의 간극 메우기

두 번째 구성 요소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중심으로 원문을 교수자와 학생이 함께 분석하는 활동이다. 이 대화편들을 읽으면서 학생들은 역사적 배경과 아테네의 재판 제도,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대화술과 산파술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자료들을 제공받음으로써, 직접 소크라테스 법정에 참석한 아테네 사람과 마찬가지로 여기서 그 재판을 지켜보는 기회를 마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의와 법에 대한 일상적 믿음에 의문을 던지고 진정한 의미를 탐색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2천년 전에 소크라테스라는 인물에게 덧씌워진 성급한 설명들의 베일을 벗겨내면 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인생의 문제를 숙고할 때, 개개인이 자신의 특수한 조건과 특수한 상황에 지나치게 파묻혀 있을 때는 삶과 삶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균형감 있게 보기 어렵기 마련이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수성을 넘어서야 하며, 특수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비교할 경우 사례를 찾아야 한다. 우리가 논의하는 철학 고전은 그런 특수성을 개인적 특수성이 아니라 시대의 특수성이 되게 하는 강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당연시하는 것들이 얼마나 이상하고 낯선 것일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전의 힘이 아닐까 싶다.

이 생물학이 어떤 학문인지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돕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 9) 플라톤의 『메논』편에서 소크라테스는 노예 소년에게 질문만을 통해 기하학적 지식을 소년 스스로 깨닫게 만든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앎이란 이미 있었던 것을 산파술을 통해 끄집어 낸다고 믿었던 것에 기초한다. 교수자 역시 이런 소크라테스의 믿음을 가지고 학생 스스로가 앎을 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원문을 근거로 소크라테스의 주장과 논증을 재구성하고, 각 논증의 유형과 평가 기준을 학습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텍스트 독해를 넘어 논증 분석과 비판적 검토의 실제적 훈련이 된다. 그리고 고전의 진정한 가치를 체험하는 데는 교수자의 일정한 안내가 필요하다. 문제의 사안별로 학생들과 교수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고, 예전 수업에서 연구자가 했듯이 예비적인 해석적 스케치의 가능성을 소개하고, 어려운 주제에 대해 질문을 추가로 던지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다.

학생들은 원문을 교수자와 함께 분석하면서, 정의와 법에 대한 진리 찾는데 몰두하게 된다. 현대적 가치는 상대주의적이지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상대성을 넘는 객관적 진리를 추구했다. 또한 현대 학생들은 개인적 가치를 우선시하지만, 고대 그리스에서는 공동체의 가치가 우선시되었다.¹⁰⁾

현대의 대학 교육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을 숙고할 기회를 차단하고 있는 것 같다. 미래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과 현대의 과학 기술을 가르치는 일은 당연하고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들 또한 합리적이면서도 비합리적인 인간들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고민하고 문제를 헤쳐 나가야 하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지 잘 모른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인생의 문제와 공동체의 문제를 적절하게 숙고할 교육의 장을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고대와 현대의 가치를 비교하고, 검토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미래 사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크라테스적 삶의 성찰을 통한 삶의 변화 탐구

세 번째 구성 요소는 학습자가 소크라테스의 삶과 문답법을 토대로 자

10) 타임지(Time Magazine) 2013년 5월 기사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미미미 세대(Me Me Me Generation)라고 규정한다. 이들을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는 세대라는 뜻이다.

기 삶의 방향을 성찰하는 활동이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 “X란 무엇인가?”라는 개념적 탐구, 그리고 대화 상대와의 공동 탐구를 통해 진리에 접근한다. 학생들은 소크라테스의 논증 절차(주장-전제-모순의 발견-무지의 인정-공동 탐구 제안)를 분석하며, 자기 성찰적 사고, 즉 메타인지를 경험하게 된다.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지로 유명하며, 그의 삶의 자세는 지식을 계속 확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의식하고 이미 안다고 생각한 것을 검토하는 것에 집중하여 진리 탐구에 대해 삶을 집중한다. 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자세는 삶과 죽음의 의미 찾는 것이며, 이는 산파술, 문답법, 즉 대화와 토론으로 진리에 다가갈 수 있다.¹¹⁾ 대화의 가장 완벽한 형태는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역사적 소크라테스에 대해 그의 사상과 삶의 목적을 가장 많이 담은 것이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이라 할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다수가 정치에 참여해 선동적인 연설과 논증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서 다른 정치인들이나 지식인과는 달리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통해 질문만을 계속 던짐으로써 스스로 진리에 가까워지고 합리적으로 사고하며 진리에 합당하게 살도록 도왔던 인물이다. 성공적인 대화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어떤 종류의 권위에서도 자유롭다는 사실과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지 비판적인 자세로 검토하는 것이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공동체를 진리로 이끌 수 있는 길이자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방법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11) 논증의 형식으로 학생들은 소크라테스가 제시하는 문답법을 이해할 수 있다. ①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질문의 형태, “X는 무엇인가?” ②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자신은 해당 주제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논증의 모든 전제와 결론은 대화 상대자의 몫이라는 주장을 이해한다. ③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논증의 최종 결론이 최초 전제와 양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④ 결국 대화 상대자는 해당 주제에 대해 잘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대자에게 해당 주제에 대한 앎을 얻기 위해 함께 탐구해 볼 것을 제안한다.

소크라테스가 법보다 옳은 것(정의, 진리)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 것을 배우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를 배울 수 있게 된다.

(4) 토론, 발표, 그리고 글쓰기

플라톤의 작품들은 고대 논증 이론 연구에 대해 가장 중요한 텍스트가 된다. 플라톤의 저술은 그 형식적 특징 때문에 고대 논증 이론 연구에 가장 적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이는 플라톤의 거의 전 작품이 대화 형식으로 기술되고 있다는 것이다. 논리학이나 글쓰기 수업에서 배운 논증 자체와 논증이 제시되는 대화적 배경과 맥락이 서로 분리되어 논의되어 온 관행을 극복하는 것이 이 연구의 중요 목표 중 하나라면, 플라톤의 대화편은 실제로 살아있는 대화의 맥락 속에 등장하고 있는 논증들을 분석적이고 추론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광범위한 사례들을 제공해 준다. 구체적인 대화의 현장에서 특정 대화자들과 특정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생생한 자료로 제시될 것이며, 이런 사례와 모델을 통해 학생들은 논증 방식의 다양성과 어떻게 소크라테스가 문제를 분석하고, 내면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지 수업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사용하면서, 특정 주제를 스스로 정하여 조별끼리 토론글을 만들어 보고, 발표해 볼 수 있다.

이 수업에서 교수는 학생들의 해석적 결론까지 제시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문제의 사안을 바라다보는 여러 시각을 소개해 주거나 텍스트의 심층을 해석하는 경우들을 설명 또는 예시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이를 위해 4주차나 8주차를 이용하여 강의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의 성취 기반을 중심으로 조별 프로젝트(실제 토론과 글쓰기)를 실시하거나, 아니면 펼쳐서 15주차를 매번 강의와 조별 토론으로 구성해서,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자기 질문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문을 던지는 작업을 학생들에게만 맡겨 놓는 것이 늘 좋은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발견하기 어려운 주제와 문제들을 교수가 질문 형태로 던

지는 것이 학생들의 사유 능력을 고양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처음부터 교수가 명확한 질문을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주제적 사유를 자극하기보다 문제의식 자체를 주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들이 간과한 텍스트의 특정 대목을 주목해보라고 권유하고, 그런 다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고 찾아내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들이 찾아낸 주제를 예비적으로 정리했을 때, 교수가 훨씬 더 심층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2) 수업의 구체적 내용

[표 1] 원문 분석을 통한 교수자의 질문 사례

구성	내용
원문	멜레토스의 소크라테스 고발 내용: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망치고, 국가가 믿는 신들을 믿지 않고 다른 새로운 신령스러운 것들을 믿음으로써 불의를 행하고 있다.” (24c)
원문 분석	멜레토스는 소크라테스를 고발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1) 젊은이를 타락시켰다. - 선동죄 (2) 아테네가 믿는 신을 믿지 않았다. - 무신론 (3) 새로운 신을 믿음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다. - 불경죄 소크라테스의 고발 내용의 명목적 이유와 실제적 이유는?
질문 1	‘젊은이들을 망친다’는 것이 고발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질문 2	불경죄로 처벌하는 법이 과연 당시 아테네인들에게 악법으로 평가되었는가?
질문 3	‘불의(adikia)’는 도덕적 개념인가, 법적인 맥락의 사회적 개념인가? 아니면, 그런 영역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한가?
질문 4	‘신령스러운 것(to daimonion)’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자신이 무신론자가 아니라는 소크라테스의 논변은 타당한가?

[표 2] 원문 분석을 통한 학생들의 질문 사례

구성	내용
원문	“나에게 어떤 신적인 혹은 신령스러운 것(to daimonion)이 생겨 나기 때문입니다. 멜레토스가 고발장에 써서 희화화한 것도 바로 이것이고요. 내겐 이것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떤 목 소리가 생겨나는데, 생길 때마다 늘 내가 하려는 일을 못하게 말 리긴 해도 하라고 부추기는 적은 한번도 없지요. 내가 정치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에 반대한 게 바로 이것인데, 내가 보기에 그 반대는 정말 훌륭한 것이기도 합니다.” (31d)
단계별 질문 1	용어나 문장 이해를 위한 단순 질문: 신령스러운 것, 즉 다이몬은 어떤 신인가?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신은 목소리만 들리는가? 왜 환상은 보이지 않는가?
단계별 질문 2	배경 지식과 관련된 질문: 고대 그리스의 신들은 어떤 신이며, 소크라테스의 신은 이들과 어떻게 다른가? 고대 아테네의 정치활동은 어떤 활동이었는가?
단계별 질문 3	원문 분석을 통한 고차원적 질문: 신적인 목소리는 왜 무엇을 하지 말라는 말은 해도, 무엇을 하라고 부추기지는 않았는가? 정의로운 사람이 정치적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결말은 죽음인가?

[표 3] 조별 토론 및 발표 평가 루브릭

평가항목	배점	성취수준		
		상 (10-8)	중 (7-5)	하 (4-1)
텍스트이해 와 학술적 질문만들기 (문제 원인 분석)	10 점	텍스트를 잘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를 학술적 질문으로 잘 만들어 본다	텍스트를 이해하고 관련된 문제를 질문으로 만들어 본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질문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토론을 통해 조별 이슈 찾기 및 조별 논증 구성	10 점	토론과 설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논증으로 잘 구성하여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슈를 잘 찾을 수 있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논증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슈를 찾을 수 있다.	토론과 설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논증으로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슈화 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토론 질문 보고서 작성	10 점	조별 토론에 대한 정리본을 잘 만들어 다른 조원들에게도 흥미와 이해력을 높인다.	조별 토론에 대한 정리본을 만들어 다른 조원들의 이해력을 높인다.	조별 토론에 대한 정리본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표 4] 조별 프로젝트 주제 사례

구성	내용
1	소크라테스는 정말 아는 것이 없는가?
2	삶과 행복의 문제가 왜 삶의 문제와 연결되는가?
3	행복은 덕만으로 충분한가?
4	소크라테스의 신은 어떤 신이며, 소크라테스의 신앙은 어떤 성격의 신앙인가? 신탁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5	소크라테스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이며,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도 바쳐야 하는가?
6	소크라테스의 연설은 오히려 사형 선고를 받기 위해 일부러 하는 연설인가? 소크라테스는 자살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는가?
7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소크라테스와 같은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검토되고 승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검토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는가? 오늘날 검토되는 삶은 어떤 삶을 뜻하는가?
8	상대주의적 진리를 신봉하는 오늘날 우리에게 객관적 진리를 주장하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표 5] 15주차 개인 에세이 주제 사례

구성	내용
1	프랜시스 베이컨에 따르면 “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무지의 자각”이 삶에 있어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참된 앎을 얻기 위한 소크라테스의 방법론과 그 앎대로 살아가기 위한 소크라테스의 제안은 무엇인가?
2	플라톤의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그리스 영웅인 아킬레우스에 빗대어 윤리적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무릅쓰고 진리를 따르고자 한 윤리적 영웅인가?
3	정의를 따르겠다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교훈은 강력하지만, 진리를 위해 우리는 목숨까지 걸 수 있을까? 덕과 행복, 정의와 법에 대한 그의 주장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그의 윤리적 삶을 우리는 과연 따라갈 수 있는가? 소크라테스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윤리적 영웅들(예를 들어 예수, 간디, 마틴루터 킹 목사, 본 회퍼 등)은 왜 참담한 결말을 맞이하는가?
4	소크라테스가 제시한 정의와 법은 오늘날 윤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 이론으로 뭔가 꼭 들어맞지 않는 건 아닐까? 오늘날 우리의 민주주의와 정의, 법에 관한 진리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소크라테스와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진리는 변하지 않는가? 아니면 문화 상대적인가?
5	소크라테스는 판결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판결을 이행한다. 소크라테스의 원칙은 결코 불의를 행하면 안 된다는 것과 나라와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판결을 따르는 것도 불의이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불의이다. 평생 정의를 추구해온 소크라테스가 어느 쪽을 택해도 불의를 행하게 되는 위험에 봉착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변론』과 『크리톤』에서 드러난 정의와 법에 관한 긴장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3) 소크라테스식 토론 수업에서의 교수자 역할

소크라테스식 원전 기반 토론 수업에서 교수자는 전통적인 지식 전달자의 역할을 넘어, 학습자의 탐구 과정을 설계하고 촉진하며, 성찰과 협력을 안내하는 학습 촉진자로 기능한다. 교수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다면적 요소로 구성된다. 첫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 동기, 사전 지식 수준, 인지적 준비도를 진단하여 이후 교수·학습 활동의 난이도와 범위를 조정한다. 이는 학습자가 적정 수준에서 도전적 과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초 진단 과정이다.

둘째, 교수자는 학생들이 텍스트 기반의 사고 수준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질적 수준이 높은 질문을 안내한다. 이를 위해 질문의 유형, 단계, 개념적 깊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학생이 단순 사실 확인형 질문에서 개념적·논리적 질문으로 이동하도록 돕는다. 셋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원전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텍스트의 역사적 맥락, 개념적 배경, 희랍어 핵심 용어 등 전문적 배경지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표면적 이해를 넘어 해석학적 깊이와 고대 그리스적 사유를 체험할 수 있다. 넷째, 교수자는 학습자의 탐구 과정 전반을 관찰하고, 구체적 행동이나 성취에 대해 즉각적·긍정적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성장 중심 피드백을 실행한다. 이는 학습자의 자기효능감과 학습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적 변수이다.

다섯째, 교수자는 조별 토론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사고 촉진 질문을 제시하여 학습자의 심층적 사고를 유도하고, 해답을 직접 제시하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 방안을 탐색하도록 자율적 탐구를 장려한다. 여섯째, 교수자는 질문지 작성, 조별 토론, 프로젝트, 에세이 등 다양한 산출물에 대해 평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학습자가 질적 수준이 높은 결과물을 산출하도록 돕는다. 일곱째, 교수자는 토론 과정에서 협력 역량을 강조하고 학습자 간 상호작용을 조율하며, 수업 내·수업 외 소통을 통해 긍정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한다. 이는 소크라테스식 대화가 본질적으로 공동의 탐구를 바탕으

로 한다는 점을 알린다.

마지막으로, 교수자는 학습자의 질문 생성, 텍스트 분석, 토론 참여, 글 쓰기 성과 등에 대해 총체적 평가와 형성평가를 병행하여 학습 과정과 결과를 균형 있게 평가한다. 이와 같이 교수자는 본 수업에서 단순한 강의 전달자가 아니라, 학습자의 사고 매개자, 해석 안내자, 협력 조정자, 그리고 평가자로서의 다층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사고, 논증 구성, 윤리적 성찰,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을 종합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중심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교양 토론 수업 설계에 적용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였다. 본 모형의 특징은 고대 아테네라는 민주주의의 기원으로 학습자를 초대하여 ‘정의’와 ‘법’이라는 보편적 개념을 재검토하게 하고, 이를 통해 비판적 사고와 토론 능력을 통합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접근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태도—무지의 자각, 개념에 대한 지속적 탐구, 정당성에 대한 논증 기반 검토—를 교육적 원리로 전환한 것이며, 학생들이 일상의 신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규범적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 수업에서 학생들은 원전 텍스트의 정밀한 독해, 질문 생성 활동, 조별 토론과 프로젝트, 그리고 개별 에세이 작성 등 다층적인 학습 내용을 경험할 수 있다. 학습자들은 텍스트에서 직접 근거를 도출하고, 소크라테스식 질문을 통해 핵심 개념을 분석하며, 대화편에 내재된 윤리적·정치적 개념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기존의 찬반식 토론 수업이 지닌 단편성·감정 의존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비판적 사고·논증 능력·성찰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현대 대학 교육에서 ‘원전 독해 기피 현상’이 되는 구조

적 문제-과도한 분량, 맥락 결여, 원전 회피 현상-를 문제화하였다. 이에 따라 소크라테스 대화편이라는 짧으면서도 논증 구조가 선명한 텍스트를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원전에 접근하는 부담을 줄이고, 고전 읽기의 의미와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대화체 텍스트는 학생들이 소크라테스의 사유과정을 직접 따라가며 문제를 파악하고 논증을 구성하는 데 탁월한 교육적 장점을 제공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향후 수업 적용 연구를 통해 실제 학습 성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철학 텍스트를 활용한 비교 수업 모형, 학습자 배경에 따른 효과 차이 분석, 학제 간 융합형 토론 수업 개발 등을 추가적으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대학의 교양교육 환경과 학습자 구성에 따라 본 모형이 어떻게 변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은 개별 대학의 특성과 교육 목표에 맞추어 수정·확장될 수 있으며, 특히 교수자의 고도의 전문성과 학습자 개별 피드백이 요구되기 때문에 20명 이하의 소규모 수업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수자는 질문 과제·조별 토론·프로젝트·에세이 등 모든 산출물에 대해 지속적이고 정교한 피드백을 제공해야 하며, 학습자 역시 매 차시 원전을 읽고 질문지를 작성하는 데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적 상호작용은 절대평가 체제와 결합될 때 학습 동기와 수업 참여를 증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 수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교양 토론 수업뿐 아니라,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비판적 사고나 말하기 및 글쓰기 관련 과목들의 모델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물은 중·고등학교 및 대학 외부의 대중 교육, 공교육 체계 전반에서 요구되는 논증 교육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소크라테스적 질문법을 기반으로 한 교육용 앱(Socratic By Google)의 개발과 칸 아카데미(Khan Academy)의 Khanmigo와 같은 소크라테스적 AI 튜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전의 지혜가 미래 교육 혁신에 여전히 중요한 통찰을 준다는 점을 시사한다.¹²⁾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고전 기반 토론 수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고대 철학의 핵심 원리가 현대 교양교육의 목표—질문하기, 비판적 사고, 논증 능력, 윤리적 성찰—과 깊게 결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대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배경의 학습자에게 철학적 사유의 방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수준의 토론 문화와 시민적 성숙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는 성숙한 시민적 사고력, 타당한 근거 제시, 공적 담론 참여 능력을 갖춘 사람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교수·학습 모형은 공교육 현장에서 토론과 논증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도 실질적 지침과 교수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잠재적 가치를 지닐 것이다.

12) 소크라테스식 방법론은 현재 정신과 환자들을 위한 정신치료 요법과 오픈 AI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Overholser & Beale(2023)는 소크라테스적 질문 요법을 통한 임상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Shin, Jeon, Kim, Kang, & Zhang(2025)은 LLM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의 ‘소크라테스식’ 추론 체계를 사용해 외부 훈련 없이 Zero-shot으로 고품질 계획을 생성한다는 연구를 소개한다. 이와 같이 소크라테스적 방법론은 교육학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도입되고 있다.

■ 참고문헌

단행본

- 루이-앙드레 도리옹, 김유석 역, 『소크라테스』, 소요서가, 2023.
- 목광수·이종환·박종준·조영아·조주영·이현주, 『토론수업 - 고전 읽기와 함께하는』, 씽크스마트, 2025.
- 아몬드 단거, 장미성 역, 『사랑에 빠진 소크라테스』, 글항아리, 2022.
- 플라톤, 이상인 역, 『메논』, 파주: 아카넷, 2019.
- 플라톤, 강철웅 역, 『소크라테스 변명』, 파주: 아카넷, 2020.
- 플라톤, 이기백 역, 『크리톤』, 파주: 아카넷, 2020.

Kreeft, P., *Philosophy 101 by Socrates: An Introduction to Philosophy via Plato's Apology*, Ignatius Press, 2002.

Teloh, H., *Socratic Education in Plato's Early Dialogues*, Notre Dame, IN: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86.

논문

- 강옥경, 「교양교육으로서 고전독서토론 방법 연구 - 일반성인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175-187쪽.
- 문경연, 「대학교양과 고전교육 발전에 관한 제언 - 동국대 <세계명작세미나> 강의를 중심으로」, 『후마니타스 포럼』 3호,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교양교육연구소, 2017, 35-56쪽.
- 박고운·고혜림, 「대학 토론대회 운영 현황 및 시사점」, 『지식과 교양』 14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71-97쪽.
- 박삼열, 「토론식 수업에서의 교수자 전략」, 『교양교육연구』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237-262쪽.
- 서기자,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고전 세미나 연구」, 『지식과 교양』 1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18, 7-21쪽.
- 신희선, 「대학 교양교육에서 <인문학독서토론> 수업 사례」, 『사고와표현』 5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2, 7-46쪽.

- 이수곤, 「고전을 활용한 읽기·쓰기 수업의 효율적 운영 방식에 대한 시론(詩論)」, 반교어문학회 35, 2013, 351-377쪽.
- 이수진, 「대학생 교양필수 독서토론 실행연구: 학생의 학습 참여를 중심으로」, 『질적탐구』 10호, 2024, 53-79쪽.
- 이원봉,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고전독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사고와 표현』 10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113-140쪽.
- 이항직, 「고전읽기를 통한 교양교육의 혁신 - 숙명여대의 ‘인문학독서토론’강좌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6호, 2011, 517-548쪽.
- 정인모·허남영, 「고전읽기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교양교육연구』 6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12, 87-106쪽.
- 전영옥·강옥희, 「대학 고전읽기 교육의 교육목표와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지식과 교양』 14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4, 249-289쪽.
- 한래희, 「대학 교양 고전 교육과 상호텍스트성의 활성화-읽기, 토론, 쓰기의 연계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50호, 2013, 384-423쪽.
- 황성근, 「고전읽기를 통한 의사소통교육 방안」, 『사고와표현』 10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17, 235-264쪽.
- Elder, L. & Paul, R. "The Role of Socratic Questioning in Thinking, Teaching, and Learning," The Clearing House vol. 71 no. 5, 1998, pp. 297-301.
- Overholser & Beale, "The art and science behind socratic questioning and guided discovery: a research review," Psychotherapy Research vol. 33 no. 7, 2023, pp. 946-956.
- Shin, Jeon, Kim, Kang, & Zhang, "Socratic Planner: Self-QA-Based Zero-Shot Planning for Embodied Instruction Following," 202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Robotics and Automation (ICRA), 2025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2025, pp. 16217-16224.

인터넷 사이트

정암학당 <http://www.jungam.or.kr/>, 2025.1.30.

한국교양기초교육원 - 한국 대학의 교양 기초 교육과정 구성과 운영 실태 조사,
<https://konige.kr/mobile/mob04View.php>,

<https://konige.kr/files/sub0201/konige20250115151153.pdf>, 2025.1.23.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크리톤』을 중심으로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교양 토론 수업 설계에 적용한 새로운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교양 토론 수업은 찬반식 논쟁 구조, 교수자 재량에 따른 운영 편차, 원전 읽기 회피 현상 등으로 인해 비판적 사고와 토론 능력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여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분량이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일관된 철학적 주제를 제공하는 두 대화편을 중심으로, 원전 읽기를 통한 질문 생성 능력과 논증 분석을 통한 조별 토론 및 글쓰기를 통합한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하였다. 교수자는 학습자의 학습능력 진단과, 질문 수준의 고도화 지원, 배경지식의 제공 및 협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학습자가 텍스트를 근거로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다. 학습자는 원전 기반의 비판적 사고와 토론 능력 향상 및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검토하는 교양교육의 핵심 목표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교양교육, 고전 읽기, 토론 수업, 소크라테스 문답법, 플라톤 『소크라테스 변명』, 플라톤 『크리톤』

■ Abstract

A Reconstruction of Classical Text-Centered Discussion Pedagogy In College Education : Plato's *Apology* and *Crito*

Jang, Misung / Soongsil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 new instructional model based on the Socratic method presented in Plato's *Apology* and *Crito*, for the design of general education discussion courses. Existing liberal arts discussion classes often struggle to develop students' critical thinking and argumentative abilities due to limitations such as binary pros-cons debate, variations in instructional quality depending on individual instructors, and students' widespread tendency to avoid reading original texts. This study, therefore, develops an instructional framework that integrates guided reading of original texts, student-generated Socratic questions, analysis of arguments, and group-based discussion and writing activities. These activities are centered around two dialogues that offer a coherent philosophical theme without imposing an excessive reading load. Within this model, instructors play a multifaceted role by assessing students' learning readines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higher-level questioning skills, providing necessary contextual and conceptual background knowledge, and fostering collaborative competencies. Through this process, students learn to engage with the text as evidence, think independently, and construct well-grounded judgments. Ultimately, learners are expected to achieve the core goals of liberal education:

strengthened critical and argumentative thinking grounded in classical texts, as well as deeper reflection on one's way of life and ethical stance.

Keyword • General Education, Classical Text Reading, Discussion Class, Socratic Method, Plato's *Apology*, Plato's *Crito*

대학생 대상 ‘대한민국임시정부’ 융합교양 강좌의 교육적 효과 분석

정 환 희*

목 차

1. 서론
2. 연구 동향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논의 및 제언

1. 서론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가 일제 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조직된 단순한 독립운동 단체를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역사적 정통성을 담보하고 ‘민주공화국’이라는 현대적 국가 정체성을 태동시킨 기원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잊혀진 독립운동의 역사를 발굴하고 그 현재적 위상을 재조명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이른바 ‘건국’ 논쟁은 소모적인 정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조교수

고, 역설적으로 임시정부의 존재와 가치에 대한 학생 및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현재의 고조된 사회적 관심이 대학(교양)교육에도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나아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전달을 넘어 시민윤리와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실천적 교육으로 승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오늘날 대학 교양교육의 본질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를 넘어, 공동체의 문제에 책임을 느끼고 참여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데 있다.¹⁾ 역사교육 역시 과거의 사실을 암기하는 차원을 넘어, 현재의 삶을 성찰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성’을 함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²⁾ 하지만 기존의 역사 교양 강좌들은 대부분 통사 위주의 지식 전달에 치중되어 있어, 학습자가 독립운동의 역사를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거나 주체적인 사회 참여 의지로 확장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임시정부는 ‘나라사랑’과 ‘시민윤리’를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적 원천이다.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은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기 위해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왕조 국가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설계한 선구적인 시민이었다. 즉 그들의 삶에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라는 ‘보훈적 가치’와 지배받지 않는 삶을 구현하고자 하는 ‘시민적 가치’가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임시정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을 넘어,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서사를 인식하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시민 의식을 동시에 함양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충북에 위치한 A대학에서 개발 및 운영된 교양강좌 <대한민국임시정부와시민윤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강좌는 임시정부 선열들이 보여

1) 교양교육의 목표가 정치 참여와 밀접하게 연관된 것은 고대 그리스 및 로마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유교 전통에서도 그러했다. 교양교육의 목표를 시민성과 결부시킨 최근의 논의로는 변종헌(2012), 정옥희(2024) 참조.

2) 역사교육의 목표를 시민성과 결부시킨 대표적인 논의로는 조한욱(2017) 참조.

준 자주독립 정신과 국가 건립에 대한 기여를 입체적으로 재조명하며, 이를 현대 공동체를 지탱하는 실천적 시민윤리로 승화하고 내면화하는 데 교육적 중점을 두었다. 연구는 구체적으로 교수·학습 전후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변화, 사회 문제에 대한 참여 역량, 그리고 보훈 의식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학습자의 자유 기술식 응답을 질적으로 검토하여 본 강좌의 교수학습적 특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 교양교육에서의 임시정부 교육을 고양하기 위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2. 연구 동향

학계에서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위상을 교육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왔다. 특히 2015 개정 교육과정 이후 임시정부 관련 내용이 교과서에 어떻게 서술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기존 연구들이 과연 전체 교육 단계를 포괄하고 있는지, 혹은 역사 지식의 전달을 넘어 실천적인 (시민)교육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는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임시정부 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15편을 선정³⁾하여,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그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그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임시정부 교육에 관한 선행 연구

연구자	대상				방법론	
	유초등	중등	대학	기타	문헌 연구	실천 연구
고훈영(2018)	○				○	
구경남(2025)		○			○	
김민정(2020)				○	○	

3) 본 연구자는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과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활용하여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사 교육에 관한 연구 성과를 검색하였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 www.kci.go.kr, 2026.01.05.;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2026.01.05.

김용진(2025)		○			○	
김하은(2024)	○					○
김한중 외(2011)		○				○
박상필(2021)		○			○	
박주리(2010)		○			○	
박주혜(2008)		○			○	
우지민(2020)		○			○	
원을선(2003)		○				○
이금성(2022)		○			○	
정상우(2018)		○			○	
차현지(2025)		○			○	
한철호(2009)		○			○	

위의 [표 1]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기존의 임시정부 관련 교육 연구가 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적 측면에서 뚜렷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편중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대상이 입시와 직결된中等 교육 단계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분석 대상 논문의 약 80%가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나 교육과정을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구경남(2025), 김용진(2025), 차현지(2025) 등 다수의 최근 연구들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내 임시정부 서술의 변화 양상이나 쟁점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박상필(2021)과 한철호(2009) 역시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등 교과서 서술 추이를 검토하는 데 머물러 있다. 고훈영(2018)과 김하은(2024)이 초등 역사교육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소수에 불과하며, 성인 학습자이자 예비 사회인으로서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연구 방법론이 정태적인 텍스트 분석(문헌연구)에 지나치게 치중되어 있다. 기존 연구의 대다수는 교과서에 기술된 용어, 서술 체계, 관점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정규 교육과정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임시정부 교육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논

의로 확장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김한종 외(2011)나 이금성(2022)과 같이 수업 교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한 실천적 연구가 일부 시도되었으나, 여전히 그 사례가 극소수에 불과하여 일반화된 논의를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셋째, 실천적 연구라 할지라도 그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검증 절차가 미흡하다. 이를테면 김하은(2024)이나 김한종 외(2011)의 연구는 사적지 답사나 체험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구나 프로그램 ‘개발’에 치중하고 있어, 그러한 프로그램 등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즉 임시정부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엄밀한 학적 방법론을 통해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역사교육 단일 분야에 고착되어 있어 학제적 접근이 부족하다. 임시정부의 정신을 윤리학적 가치나 문학·예술적 서사와 결합하여 다각적으로 조명한 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학문적 경계의 고착화는 학습자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입체적인 가치 체계가 아닌 단편적인 역사 지식으로만 인식하게 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역사와 윤리, 인문·예술을 아우르는 학제적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임시정부 교육 연구의 지평 확장이 시도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기존의 임시정부 교육 연구는 중등 교육 단계의 교과서 분석과 역사학 단일 분과에 국한됨으로써 연구 외연 확장의 뚜렷한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편중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대상, 분야, 방법론적 측면에서의 동시적 확장이 요구된다. 이러한 외연의 확장은 단순히 연구의 물리적 범위를 넓히는 차원을 넘어, 임시정부 교육을 보다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학 교양교육 현장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융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나아가 교육적 효과성에 대한 실증적 분석까지 수행하는, 본 연구는 학문적·실천적 측면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고 하겠다.

3. 연구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2025학년도 2학기 동안 충북권에 위치한 A대학에서 진행된 <대한민국임시정부와시민윤리> 강좌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강좌에는 총 38명의 학생이 참여하였으며, 이들 중 34명이 사전 설문조사와 사후 설문조사에 모두 응답하였다. 응답률은 89.5%로,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의 현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 현황

	성별		전공 계열				학년				계
	여	남	사범	공공서비스	BIT	예체능	1	2	3	4	
수강자 (명)	14	24	11	11	9	7	11	13	8	6	38
응답자 (명)	10	23	10	10	8	6	6	12	8	5	34
응답률 (%)	71.4	95.8	91.0	91.0	88.9	85.7	54.5	92.3	100	83.3	89.5

2) 교양 강좌 운영

충북에 위치한 A대학은 대학생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함양과 시민윤리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교양강좌 <대한민국임시정부와시민윤리>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총 15주차로 구성된 본 강좌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사실을 학습하고 그 현대적 의미를 시민윤리적 관점⁴⁾에서 탐구하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초청 특강과 독립운동 사적지 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였다. 강좌의 개발 및 운영에는 역사학과 윤리학 전공 교수 각 1인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1주차 오리엔테이션 직후 사전 설문조사를

4) 임시정부를 다루는 과정에서 공화주의 정신, 저항권, 정의로운 전쟁론, 여성 인권 등의 주제를 함께 다루어 시민윤리적 시각을 확장하도록 구성하였다.

실시하였으며, 15주차 기말고사가 종료된 후 사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강의 계획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강의 운영 내용

주차	주요 학습내용	비고
1	· 오리엔테이션 및 강의개요	사전 설문조사
2	· 왜 지금 임시정부를 말하는가 역사적 기억과 시민적 정체성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고, 임시정부가 갖는 현재적 의미를 되짚기	외부강사 특강
3	·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일제강점기 민족운동의 흐름과 3.1운동의 전국적 확산,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을 학습	외부강사 특강
4	· 임시현장과 공화주의 정신 대한민국임시정부 현장의 조항들을 중심으로 공화주의, 인권,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 고찰	외부강사 특강
5	· 김구와 이승만: 사상의 갈등과 윤리적 평가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정치 노선 차이를 비교하고, 그 사상적 기반과 실천을 윤리적 관점에서 성찰	
6	· 의열투쟁과 수단의 정당성 의열단, 한인애국단 등 무장 투쟁의 정당성에 대한 윤리적 논쟁을 다룸	
7	· 임시정부의 외교 활동과 국제 연대 파리강화회의의 참여, 외교 독립론과 국제사회의 반응을 검토	
8	· 중간고사	
9	· 정의로운 전쟁과 광복군의 활동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을 통해 ‘정의로운 전쟁’ 이론을 살펴보고, 전쟁과 윤리의 관계를 탐구	
10	· 임시정부의 시련과 이동 상하이에서 충칭까지의 이동 과정을 분석하고, 끊임없는 망명 속에서 지속된 임시정부의 의지를 조명	
11	· 여성과 소수자의 독립운동 남성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여성과 소수자의 기여를 발굴	외부강사 특강

12	· 현장 답사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 청주에 위치한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을 답사	외부강사 특강
13	· 해방 이후의 임정과 헌법 제1조 · 광복 이후 임시정부의 위상, 법통 논쟁, 헌법 제1조와의 연결 고리를 고찰	
14	· 나에게 임시정부란 무엇인가 · 에세이 발표 및 피드백을 통해 시민윤리적 관점에서 임시정부의 유산을 재해석	
15	· 기말고사 및 종합 성찰	사후 설문조사

3)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리커트(Likert) 5점 척도를 활용한 객관식 문항과 학습자의 성찰 및 제안을 담은 자유기술식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은 임시정부의 역사적 활동과 의의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6개의 일반적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시민성 참여역량’은 김영애 외(2022)의 척도를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나 이슈에 대해 의견을 표현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동하는 역량을 측정하였다. ‘보훈태도’는 국가보훈처(2012)의 척도를 활용하여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헌신한 사람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 세 가지 척도는 교육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과 사후에 동일하게 실시되었으며, 이 가운데 시민참여 의식과 보훈태도는 이미 타당도가 검증된 척도로 별도의 요인분석은 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회과학적 방법론에서는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이 .70이상이어야 하는데, 본 검사도구의 Cronbach’s α 값은 사전검사 .77~.94, 사후검사 .88~.93이다([표 4] 참조). 아울러 학습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내면의 인식 변화를 수치로 측정하기 어려운 질적 데이터를 얻기 위해, 사후 조사에서 자유기술식 문항을 제시하였다.

[표 4] 측정 도구

영역	문항수	Cronbach's α	
		사전 검사	사후 검사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6	.80	.93
시민성 참여역량	7	.77	.88
보훈태도	10	.94	.93
자유기술식 문항	1		-

4. 연구 결과

1)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본 강좌가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변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사전-사후점수 차이 검증 결과

영역	M(SD)		t	p
	사전검사	사후검사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3.59(.69)	4.21(.65)	-6.70***	<.001

* $p < .05$, ** $p < .01$, *** $p < .001$ (이하 동일)

분석 결과, 교육 참여 전 인식 점수는 3.59(SD = .69)였으나 교육 참여 후 인식 점수는 4.21(SD = .65)로 나타나,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0.62점 상승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p < .001$). 이러한 결과는 임시정부 교양 강좌가 대학생들의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적 지식과 이해도를 증진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하였음을 시사한다. 즉, 체계적인 교육적 개입이 학습자의 역사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다.

2) 시민성 참여 역량

본 강좌가 대학생들의 시민성 참여역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시민성 참여 역량’ 사전-사후점수 차이 검증 결과

영역	M(SD)		t	p
	사전검사	사후검사		
시민성 참여역량	3.13(.58)	3.75(.80)	-5.47***	<.001

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시민성 참여역량 점수는 교육 전 3.13(SD = .58)에서 교육 후 3.75(SD = .80)로 0.62점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임시정부 교양 강좌가 학습자인 대학생들의 시민성 참여역량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교육적 효과가 있었음을 입증한다. 특히 사후 점수의 표준편차(SD = .80)가 사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교육 참여 이후 학습자들 사이에서 시민성 참여에 대한 인식 및 역량 수준이 보다 다각화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3) 보훈태도

본 강좌가 대학생들의 보훈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사후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보훈태도’ 사전-사후점수 차이 검증 결과

영역	M(SD)		t	p
	사전검사	사후검사		
보훈태도	4.20(.66)	4.39(.63)	-2.17*	0.037

분석 결과, 보훈태도 점수는 교육 전 4.20(SD = .66)에서 교육 후 4.39(SD=.63)로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

로 나타났다($p<.05$). 이러한 결과는 본 교양강좌가 대학생들의 나라사랑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가치관을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사전점수가 이미 4.20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상승이 나타난 것은 본 강좌의 교육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보훈의 가치를 재인식시키는 실질적인 동기를 부여했음을 시사한다.

4) 수강 소감 및 개선 방향 제언

자유기술식(개방형) 문항을 통해 수집된 응답 중 분석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진술을 선별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핵심 단어를 도출하여 유목화(categorization)를 실시하였다. ‘수강 소감’에서 도출된 39건 내용 가운데 성격에 따라, [표 8]과 같이 4개 내용으로 범주화하였다.

[표 8] ‘수강소감’ 응답 분석

범주	세부 내용	빈도 (건)	비중 (%)
임시정부 내용의 심화 및 가치 지향	시민의식, 정체성, 역사의의, 독립운동가, 민주공화제, 인물중심, 소수자운동, 참신성, 정보성, 새로운사실, 심화학습, 윤리적고찰, 현대적의미, 시대정신, 시민윤리, 삶의궤적 등	16	41.0
교수 역량 및 융합 교수법	교수열정, 코칭, 외부강사, 전문성, 강의역량, 강의흥미, 초청강연, 융합수업, 다양한관점, 다각적시선 등	12	30.8
학습자 중심 체험 활동	현장학습, 상호작용, 자기주도, 역사체험, 학습활동, 몰입도, 매체활용, 체험활동, 참여형수업 등	9	23.1
교과 운영 및 행정 지원	국가지원, 학업부담완화 등	2	5.1
합계		39	100

본 강좌는 (1) 임시정부의 역사적 사실과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의 심화, (2) 학제적 융합을 통한 지적 지평의 확장, 그리고 (3) 현장 및 체험 중심의 실천적 학습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통해 유의미한 교육적 성과를 도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 학습자들은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이라는 단편적인 사실을 넘어, 그 저변에 흐르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 등의 보편적 가치를 현대적 시민윤리의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하고 내면화하였다. (2) 이러한 인식의 심화는 역사학과 윤리학의 학제적 융합이 시도된 코티칭(co-teaching) 교수법에 의해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임시정부를 ‘사실’과 ‘가치’라는 다각적 층위에서 입체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아울러 (3) 이론 수업과 긴밀히 연계된 현장 견학 및 체험 중심의 교수 전략은 추상적 지식을 생생한 실천적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습의 몰입도와 실재감을 극대화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였다.

‘강좌 개선 사항’ 제언에서 도출된 11건 내용을, 성격에 따라 [표 9]와 같이 범주화하였다.

[표 9] ‘강의 개선 사항’ 응답 분석

범주	세부 내용	빈도 (건)	비중 (%)
교과 운영 및 평가의 체계화	계속 개설요구, 평가내용 사전공지, 수업 시간 관리(촉박함 개선), 활동 안내 구체화, 진행 방식의 일관성,	5	45.5
교수학습 방식의 다변화	토론 수업 강화, 활동 수업 강화, 강의 특강 비중 조절(축소/증가 등), 답사 기회 확대	4	36.4
교육 내용의 조절 및 학습자 지원	윤리 내용 비중 증가, 사전 이해 부족 학생에 대한 배려	2	18.2
합계		11	100

분석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적인 대목은 토론 및 체험형 답사 활동에 대한 학습자들의 높은 요구 이면에, 이러한 교수학습 방식의 실행 과정

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만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능동적 학습에 대한 지향과 인지적 부담의 충돌이다. 학습자들은 ‘답사 증가’, ‘토론 및 활동식 수업 강화’를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안하며 기존의 수동적인 지식 수용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수업 시간 촉박’,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 안내 부족’, ‘사전 이해 부족 학생에 대한 배려’ 등을 언급하며 참여형 수업이 유발하는 실제적인 학습 부담을 토로하였다. 이는 학습자가 능동적 주체로서의 참여를 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정교한 교수적 비계(instructional scaffolding)가 부재할 경우 학습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감과 불만을 느끼게 됨을 시사한다. 둘째, 다각적 융합 접근에 대한 기대와 수용성의 한계이다. 임시정부를 역사와 윤리의 관점에서 동시에 접근하고 여러 특강을 도입한 방식은 본 강좌의 강점으로 꼽혔으나, ‘강의 진행 방식의 일관성’이나 ‘특강 비중 조절’에 대한 요구는 학습자들이 느끼는 혼란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전공의 교수진이 참여하는 코티칭이나 외부 전문가의 특강은 지적 지평을 넓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학습자에게는 학습량의 과부하나 체계성 부족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5.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임시정부의 역사적 함의와 그 저변에 흐르는 시민윤리적 가치를 대학 교양교육의 장으로 소환하여, 학습자들이 인지적·정의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겪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에서 도출된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시민성 참여 역량, 보훈 태도의 유의미한 상승은 단순한 지식의 전수를 넘어 임시정부라는 역사적 자산이 현대 대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강력한 기제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본 강좌의 교육적 성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향후 임시정부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제언’을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본 강좌는 학습자의 인지적 영역에 작용하여 임시정부에 대한 역사적 인식의 유의미한 신장을 견인하였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임시정부

에 대한 인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폭의 상승을 보인 것은, 본 강좌가 파편화된 역사 지식의 전달을 넘어 임시정부가 현대사에서 점유하는 역사적 위상과 구체적인 활동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을 방증한다. 학습자들은 항일 투쟁에 관한 막연한 인상(印象)을 탈피하여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외교 및 무장 투쟁의 전개 과정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확장은 과거의 기록을 현재의 역사적 맥락으로 소환하는 지적 성찰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윤리학과와 학제적 융합은 임시정부 교양교육이 지식 전달을 넘어 ‘시민교육’의 성격으로 확장되는 데 토대가 되었다. 임시정부라는 소재는 역사적 사실(fact)과 윤리적 가치(value)가 중첩되는 지점에 놓여 있으며, 본 강좌에서 시도한 윤리적 고찰은 학습자로 하여금 독립운동가들을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닌 공동체의 정의를 위해 헌신한 ‘능동적 시민’의 원형으로 비추어 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학습자들의 시민성 참여 역량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아울러 독립운동과 무장투쟁의 과정을 ‘저항권’이나 ‘정의로운 전쟁’ 같은 정치철학적 개념과 연결하고 그간 충분히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주체적 시민으로 복원해 낸 시도는, 탈식민주의적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셋째, 임시정부에 헌신한 독립운동가들의 헌신에 대한 이해 및 공감을 바탕으로 보훈 의식이 고취되었다. ‘보훈 태도’의 유의미한 상승은 학습자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선열들의 고귀한 가치를 정의적 영역에서 체화하고, 이를 예우하는 태도가 내면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독립운동 현장 답사나 전문가 특강과 같은 구체적인 학습 경험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궤적에 대한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국가적 자긍심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는 가치관의 정립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미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던 사전 점수에도 불구하고 교육 후 통계적 유의미성이 도출된 점은, 본 강좌가 학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공고하게 정립하는 데 동력을 제

공했기 때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강좌가 제공한 다각적 수업 운영 방식(특강, 참여형·견학형 수업) 과정에서 학습자의 교육적 열의와 실질적 인지 부하 사이의 긴장 관계가 포착되었다. 학습자들은 역동적인 교수법에 대하여 높은 만족도와 확대 요구를 표명한 동시에, 급격한 정보 유입 및 활동 안내의 불충분함에 서 기인한 피로감을 노출하였다. 이는 임시정부라는 방대하고 중량감 있는 역사적 주제를 교육할 때, 단순히 교수법의 외연적 확장에 치중하기보다 학습자의 인지적 수용 능력을 고려한 정교한 교수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특강 및 현장 답사가 실질적인 교육적 성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역사적 의미를 자기주도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질적 보완과 세밀한 교수적 비계 설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임시정부 교육의 내실화와 대학 교양교육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시정부 교육의 외연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학문적 관점이 투영된 융복합적 시도가 필요하다. 그동안의 임시정부에 관한 교육은 주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전개에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임시정부의 근대 국가적 비전이나 공화주의적 특성을 조명하는 등 인문·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인 접근이 임시정부 교양교육에 요구된다. 이러한 시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임시정부를 단편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대 한국 사회의 가치 체계를 구성하는 다층적 원천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임시정부 교육의 지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성인 학습자인 대학생의 인지적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료 개발이 시급하다. 기존의 중등교육 수준의 임시정부 관련 교육 자료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이 비판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도록 1차 사료의 발굴과 디지털 아카이브의 활용, 에듀테크 기반 상호작용적 교구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의 지적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심화된 성찰 질문과 토론 과제를 개발함으로써, 학습자가 단순한 지식 수용자가 아

나라 스스로 임시정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지역사회의 역사적 자산과 긴밀히 연계된 지역 밀착형 교육이 필요하다. 본 강좌에서는 충북 지역의 여성 독립운동가 사례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이 속한 지역의 역사와 마주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독립운동가에 대한 추체험(Nacherleben)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 내 독립운동 사적지, 기념관, 향토 사료 등을 교육과정에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학습자가 지역에 대한 자부심과 국가적 정체성을 동시에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임시정부 교육의 실효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및 행정적 지원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임시정부 관련 교양 강좌가 외부 공모 사업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교육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가보훈부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각 개별 교수자들의 교육에 대한 의지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교수자들이 임시정부 교육을 지속할 의지를 갖는 것도 필요하며, 그러할 때 비로소 임시정부 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시정부 교육의 보편성과 학술적 엄밀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특정 단위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는데, 향후 다양한 지역적 맥락과 교수·학습 철학을 반영한 교과 운영 사례들이 누적 보고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양적 데이터가 시사하는 통계적 유의미함의 실천적 기제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학습자의 역사·시민·보훈 의식이 어떠한 경로와 맥락을 거쳐 변화하고 내면화되는지를 세밀하게 포착하는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학술적 성찰과 분석적 노력이 경주될 때, 임시정부 교육은 대학 교양교육 내에서 독자적인 가치와 체계성을 지닌 핵심적인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논문

- 고훈영, 「초등 사회과 교과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서술 분석: 1차 교육과정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까지」,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8.
- 구경남,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 서술 분석」, 『청람사학』 41권, 청람사학회, 2025, 251-304쪽.
- 김민정, 「학교 밖 독립운동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독립기념관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56호, 역사교육연구회, 2020, 79-114쪽.
- 김용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속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전방위적 독립전쟁론’과 ‘항일무장투쟁’ 서술 비교 분석 및 제언」, 『군사』 134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5.
- 김하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관람을 위한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 워크시트 개발」,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김한중·남정우·이해영, 「독립운동사 교육에서 사적지 활용방법과 그 효과: 『국내 항일독립운동사적지 조사보고서』 활용수업을 중심으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9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1, 279-322쪽.
- 박상필,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한국사』 분석: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59호, 역사교육연구회, 2021, 121-162쪽.
- 박주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와 대안교과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서술체제 및 인식 비교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박주혜, 「7차 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1920년대 임시정부 관련 서술 분석」,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 변종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의 과제」, 『윤리연구』, 1권 84호, 한국윤리학회, 2012, 193-216쪽.
- 우지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한국사』 교과서의 독립운동사 구성 방식 검토」, 『역사교육』 156호, 역사교육연구회, 2020, 1-37쪽.
- 원을선, 「중학교 국사 교과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서술 분석」, 목포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이금성, 「쟁점 기반 역사학습을 통한 독립운동사 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정상우, 「현행 역사 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서술의 학습 내용 계열성 검토: 중단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47호, 역사교육연구회, 2018.
- 정옥희, 「글로벌 시민성 함양을 위한 주제 중심 교양교육 실천 - <지역리서치 기반 문화예술교육>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교양 교육 연구』, 18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4, 311-328쪽.
- 조한욱, 「역사 교육과 시민성 교육」, 『중앙사론』, 46호, 중앙대학교 중앙사학연구소, 2017, 489-510쪽.
- 차현지, 「‘항일’과 ‘독립’ 사이, 고등학교 독립운동사 교육 내러티브 보완을 위한 제언」, 『사회과교육』 64권 4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25, 143-166쪽.
- 한철호,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구국·독립운동사 관련 내용 분석」, 『한국학논총』 32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9, 53-76쪽.

■ 국문초록

최근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교육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역사와 윤리를 결합한 융합 교양강좌 <대한민국임시정부와시민윤리>의 운영 사례를 통해 그 교육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대학 교양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발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5학년도 2학기 충북 소재 A대학 수강생 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설문조사와 자유기술식 응답에 대한 분석을 실시해 강좌의 교육적 효과성을 논의하였다. 분석 결과, 본 강좌는 학습자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 시민성 참여 역량 및 보훈 의식 전반에 걸쳐 유의미한 향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사와 윤리를 융합한 교수 설계와 특강 및 현장 답사 등의 체험 중심 교수법이 임시정부 교육의 실효성을 견인하는 기제로 작동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임시정부 교육의 외연 확장을 위해 인문·사회과학 전반을 아우르는 입체적·융복합적 교육과정의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성인 학습자의 인지적 특성을 고려한 심화된 임시정부 교육 자료의 개발이 시급하다. 셋째, 학습자가 지역의 독립운동사를 체감할 수 있는 지역형 임시정부 교육 모델이 요구된다. 넷째, 임시정부 교양교육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임시정부 교육에 관한 다각적인 후속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

주제어 • 대한민국임시정부, 교양교육, 역사인식, 시민참여, 보훈태도

■ Abstract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Interdisciplinary G.E. Cours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Jeong, Hwanhui / Seowon University

Interest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has risen recently, but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on the topic remains lacking. This study examines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the course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and Civic Ethics’ through a pre- and post-survey of students at a university in *Chungbuk*. The results show significant improvements in students’ understanding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ivic participation, and patriotism. The integration of history and ethics, along with experiential learning methods, were key to this success. The study suggests: 1) an interdisciplinary curriculum spanning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 development of advanced materials tailored for adult learners, 3) a regional education model connected to local independence movement history, 4) continued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and 5) ongoing follow-up research on Provisional Government education.

Keyword • Provisional Government of Korea, General Education, Historical Awareness, Civic Participation, Attitude toward Veterans

■ 논문투고일:2026.01.30. ■ 심사완료일:2026.03.10. ■ 게재확정일:2026.03.17. ■

교양글쓰기 수업에서의 자기결정성 강화

김 남 미*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대상
3. 자기결정성 강화 수업에서 학습자 가치의 질적 변화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대학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교양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휴타고지(heutagogy)의 자기결정학습에 입각한 교양글쓰기 수업 틀을 제안하고, 그 수업 틀 안의 세부 과제 중의 하나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가치 변화 과정에 반영된 자기결정성 강화 과정을 확인하려 한다. 이 논문의 중요 교육 기반이 되는 휴타고지는 성인 교육의 실천 기반인 안드라고지(Andragogy)¹⁾로부터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더 확대, 강화하려는 교육적 움직임이다. 이 교육

* 홍익대학교, 교양과 부교수

1) 안드라고지는 Knowles가 제안한 성인 학습의 실천 이론으로 이전 단계의 학습과 구분되는 안드라고지의 특성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성, 축적된 학습자 경험, 학습의 실제적 적용 가능성, 과업 중심의 학습 지향성 등을 주요 원리로 삼는 교육적 관점이다. Knowles, M. 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Cambridge, 1980.

적 관점에서는 학습의 비선형성을 강조하고, ‘무엇을 배우는가’보다 ‘어떻게 배우는가’에 초점을 두면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전반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실제에 적용하는 것을 강조한다.²⁾ 이 논문에서는 비선형적 과정으로서의 글쓰기의 수행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무엇을 스스로 결정하고, 어떻게 자기 글쓰기 방법을 배울 것인지를 인식, 확장하여 스스로를 진작할 수 있도록 돕는 글쓰기 수업을 설계할 것이다. 설계된 수업의 실제 운용 결과로 산출된 학습자 글쓰기 분석을 토대로 학습자의 사고 과정에 반영된 자기결정성 강화 과정을 확인하고 환류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구체적 분석 대상으로 삼는 실제 수업 안의 상세 과제는 ‘생성형 AI(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이하 Gen AI)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에 대한 것이다. 이 시대의 고등교육기관은 Gen AI를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점과, 적어도 현 시점에는 Gen AI(해당 출처에서는 ChatGPT)가 인간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를 대체할 수 없다는 지점 사이의 이해와 균형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³⁾ Gen AI를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를 넘어서는 인간 영역에 대한 가치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명이 담긴 말이다. 이러한 사명은 Gen AI가 더욱 발전될 미래 세계를 살아갈 대학의 학습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이 논문의 두 번째 목적은 이러한 핵심 가치에 대한 학습자의 사고와 그 변화 과정, 또 그 과정에 작동하는 자기결정성을 탐색하는 것이 된다.

휴타고지적 자기결정학습을 수업 내에서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국내에서 해당 이론에 대한 학문적 공유 과정이 숙성되지 않았

2) Hase, S. & Kenyon, C. "Heutagogy: A child of complexity Complicity Theor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lexity and Education*, vol. 4, no. 1, University of Alberta, 2007, pp.111-118.

3) UNESCO, "ChatGP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Quick start guide", <UNESCO>, 2023,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5146>, 2026. 01.30.

으며, 현장에서의 적용 사례도 드물기 때문이다. 더구나 글쓰기 교육 영역에 대한 논의는 거의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는 현황이다. 그러나 이 논문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단계 및 과정에서 탐색된 교양글쓰기 교육 안에서의 자기결정성의 특성이나 지향, 학습자의 가치 변화와 자기결정성 사이의 관계 규명은 이후 학습의 주도권을 온전히 학습자에게 이양하고, 그 책임 주체로서의 학습자 위상을 설립하는 교양글쓰기 교육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 시도가 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대상

1) 휴타고지(heutagogy)의 비선형적 학습에서의 자기결정성

자기결정학습(self-determined learning)으로서의 휴타고지에서는 자기결정성을 교육학적 가치의 근간으로 삼는다. 여기서 자기결정성이란 학습자가 자기 학습을 스스로 설계, 조절,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율성을 의미한다. 학습의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이 학습자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떤 경로로 학습하고 평가할지를 학습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휴타고지의 교육관⁴⁾을 반영한 것이다. 휴타고지에서 자기결정성은 성인 학습자가 학습 전 과정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주도성과 책임성을 발휘하는 토대가 되는 것이다.

휴타고지 제안자들은 자신들이 말하는 자기결정성이 등의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 Deci & Ryan, 2000⁵⁾)과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한다. 휴타고지와 SDT는 모두 자율성을 핵심 요소로 삼고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는 내적 동기를 중시하며, 목표 설정 동기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자기결정성 이론이 심리학적 기반에서의 심리적 욕구 충족을 기반으로 하는 행동의 내적 조절에 주목하

4) Blaschke, Lisa Marie, & Stewart Hase, "Heutagogy and digital media networks." *Pacific Journal of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1(1), 2019, pp.1-14.

5) Ryan, Richard M., & Edward L. Deci.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no. 1, 2000, pp. 68-78.

는 반면, 휴타고지는 자기 변혁을 견인하는 자기결정과정으로서의 학습을 강조한다는 데서 차이를 갖는다. 즉 자기결정성이 단순히 행동 변화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신의 요구에 따라 세계를 탐색하고 질문을 통해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을 구성하는 과정을 통한 자기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⁶⁾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지점이 학습의 개별성과 비선형성이다. 휴타고지에서 학습은 학습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이며 지식을 이전 경험과 연결하여 자신의 가치 체계에 통합하는 과정은 학습자 개별적(Idiosyncratic)인 것으로 본다. 학습자의 내재화된 필요와 개별화된 모호성 해소를 위한 반응으로서의 학습은 우연적이고 비선형적인 것이기에 획일화된 교육과정으로 학습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관점이 반영된 것이다.⁷⁾ 학습의 우연성, 비선형성은 학습의 과정이 학습자 내부와 외부 환경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특성으로부터 야기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학습의 비선형성은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행동과 개념에 대한 수정, 재조직, 재해석하며, 자신의 주관적 세계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⁸⁾

학습이 비선형적이고 맥락적이며 개별 학습자의 특성이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이기에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수업이 중요해진다.⁹⁾ 비선형 학습에서 자기결정성은 개별적이고 비가시적인 자기 학습의 방법을 가시화하기 위해 작동하는 기재인 동시에, 학습자가 자기 고유의 학습 과정에서 무

6) Hase, Stewart. "Learner defined curriculum: Heutagogy and action learning in vocational training.", *Southern Institute of Technology Journal of Applied Research*, 2011, pp.1-10.

7) Hase, Stewart. "Learner defined curriculum: Heutagogy and action learning in vocational training.", 2011, pp.2-3.

8) Hase, Stewart. "Self-determined learning (heutagogy): Where have we come since 2000?." *Southern Institute of Technology Journal of Applied Research*, 2016, pp.2-21.

9) 김남미, 「휴타고지적 접근을 통한 교양 글쓰기 교육의 질적 강화 - 자기결정학습의 실현을 위한 시론(試論)」, 『교양교육연구』19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5, 92쪽.

엇을 위하여, 무엇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보다 나은 방식으로 재구성하여야 하는 지향점이 된다. 결국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수업은 학습자가 자기결정 경험을 통해 자신 학습을 둘러싼 다양한 사안들을 관계 짓고 이를 풀어가면서 보다 가치 있는 사고, 보다 유의미한 행동들을 위해 자기결정성의 위상을 지속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이자, 스스로가 탐색한 자기결정성을 통해 지적 개방성을 향해 나갈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기서 휴타고지의 핵심원리 중 하나인 ‘학습하는 방법을 배우기 (Learning How to Learn)’와 ‘자기결정성 강화’의 관계가 보다 분명해진다. 자기결정성 강화는 학습의 주체인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을 결정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인 동시에 배움의 결과를 토대로 자기 학습의 통제와 개선을 지속하면서 자기결정의 성숙도를 높임으로써 다시 자신의 학습하는 방법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다. 자기결정성 강화를 실천하는 데는 휴타고지의 여섯 가지 설계 요소(Heutagogy Design Elements)인 탐색, 창조, 협력, 연결, 공유, 성찰의 요소들¹⁰⁾이 적극적으로 기능한다. 기존의 탐구학습이나 주체성의 교육학이라는 큰 틀 안에서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강화를 통해 자기 변혁적 학습을 이끌어내는 교육적 프레임으로 구성된 것이다.¹¹⁾

앞서 논의한 개별적이고, 비선형적인 학습 과정에서 스스로의 학습 방법을 포착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기학습의 방법을 탐색하고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자기결정의 경험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 자기결정 경험 안에는 학습의 과정에서 유의미하고 중요한 과제나 질문들을 탐색하고, 공유하고, 연결하는 활동들이 자유롭게 수행되어야 하며, 보다 유연성 있는 교육과정 안에서 새로운 방향을 창출하기 위한 다양한 성찰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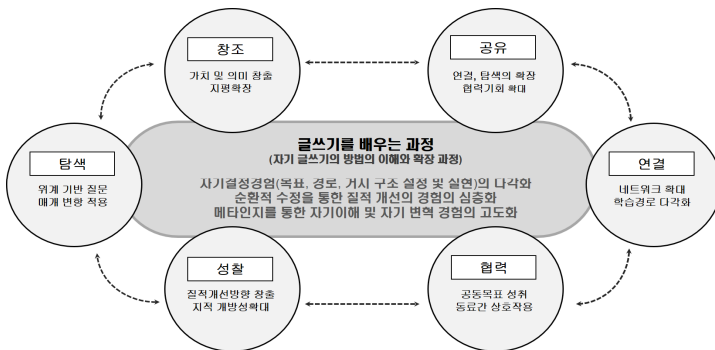
10) Blaschke, Lisa Marie, & Stewart Hase. "Heutagogy: A holistic framework for creating twenty-first-century self-determined learners." *The future of ubiquitous learning: Learning designs for emerging pedagogies*.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5, pp.25-40.

11) 김남미, 「휴타고지적 접근을 통한 교양 글쓰기 교육의 질적 강화 - 자기결정학습의 실현을 위한 시론(試論)」, 『교양교육연구』19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5, 94쪽.

힘이 활용되어야 한다. 또한 개별성, 고유성을 가지는 고유의 학습 과정이 자신과 세계의 또 다른 상호작용을 견인하고, 확대하기 위한 협력과 연결, 공유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수행도록 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성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

자기결정성 강화가 학습자가 학습의 주체로서 자기결정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자, 그 자기결정 방식을 통해 스스로의 학습을 운용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자기결정성의 성숙도 높여 자기결정성의 수준을 높이는 과정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이를 글쓰기 교육에 적용한다면, 글쓰기 수업에서의 자기결정성 강화는 학습자들이 온전한 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기 방법을 배우고 이를 보다 질적으로 높이는 과정을 배우는 과정이 된다. 즉, 글쓰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개별적이고 고유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학습자들이 배우고 그 자기결정의 방식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고,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림1]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글쓰기 수업

[그림1]은 자기결정성 강화를 위한 글쓰기 수업이 학습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글쓰기 방법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이해 및 자기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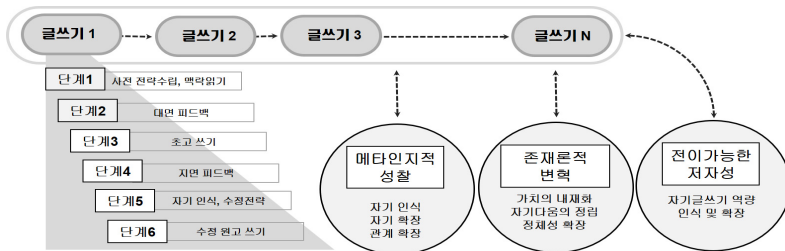
력을 이끌어 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이 반영되어 있다. [그림1]에 반영된 6가지 수업 설계 요소는 학습자들의 자기결정 경험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방식의 탐색, 공유, 성찰, 창조, 연결, 협력의 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학습자들을 진정한 저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쓰기 수업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또 복잡하게 발생하는 난제들 안에서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탐색하고, 연결하고, 공유하고, 성찰하고 협력할 것인지를 자기 활동을 토대로 고민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결정 과정을 통해 배워야 한다. 그 복잡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글쓰기 주체(authorial identity)’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1]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지점은 중앙의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에 대한 의미 규정이다.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은 글쓰기의 목표나 경로, 거시구조를 설정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자기결정 경험을 다각적으로 수행하는 것이어야 하며, 순환적(비선형적) 수정을 통해 질적 개선을 경험하는 심층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메타인지를 통한 스스로의 이해와 그 이해에 기반한 자기 변혁의 경험을 고도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학습자는 [그림1]의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으로서의 글쓰기 수업 안에서 개별적이고 고유한 개인으로서 자기 글쓰기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기결정을 경험하고 자기결정성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탐색하고 이전보다 차원 높은 것을 창조하기 위한 성찰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개별성과 고유성이 개인만의 것으로 한정되지 않기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연결된 환경 안에서 협력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이 다시 탐색, 성찰과 창조를 위한 자기결정성 강화 활동으로 이어져야 진정한 저자로 성장하는 동시에 교양 글쓰기 수업을 넘어선 전이 가능한 글쓰기 능력으로 진전할 수 있게 된다.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교수의 역할은 유연하고 개방된 교육적 환경을 공유하고 학습자들이 저자성을 확보한 주체로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교육 환경이 상호 공감, 조건 없는 수용, 진정성을 가질 때 학습이 촉진된다¹²⁾는 점은 현재의 글쓰기 교육 환경에서도 유효한 가치이다. 이 논문 주목하는 바는 학습자가 온전한 글쓰기 주체로서 자신의 글쓰기 방법을 배우는 과정과 이 배움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확장의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강화가 어떻게 관여되는지를 살피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대학의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일반화된 과정 중심의 글쓰기와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수업이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아래 [그림2]는 자기결정성 강화 수업의 차별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글쓰기 수업 전체틀에서 해당 과제를 상세화한 것으로 [그림1]의 거시적 구조를 수업 내 글쓰기 활동과의 관련성의 측면을 강화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2] 수업 내 글쓰기 활동

우측 원으로 구현된 ‘메타인지적 성찰, 존재론적 변혁, 전이가능한 저자성’은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에 반영되었던 거시적 틀을 휴타고지적 용어로 전환하여 표시한 것이다. 학습자들의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이 일반 휴타고지의 학습 원리와 동궤에 놓이며, 그 학습의 지향점이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글쓰기를 배우는 과정을 통해 ‘진정한 저자’가 되는 과정은 메타인지적 성찰의 과정이며, 존재론적 변혁(ontological transformation)의 과정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서 존재론적 변혁이란 학습을 학습

12) Rogers, C. R. *Freedom to Learn*,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1969.

자가 자신의 존재 방식과 세계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변화를 이끄는 과정을 일컫는다.¹³⁾

좌측 하단의 글쓰기1에 대한 상세한 단계화는 글쓰기 2, 3에서도 그 핵심 단계나 단계들 사이에 적용되는 글을 배우는 과정의 운용 원리는 같다. [그림2]의 단계별 상세화를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각각의 단계나 단계와 단계 사이에 개별적 주체인 학습자의 고유성이나 개별성, 역동성으로 인한 비선형성이 복잡하게 얽힌 무질서한 상황을 무수히 만나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복잡성이 비단 하나의 과제의 단계적 상세화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글쓰기와 또 다른 글쓰기의 관계에서도 이러한 복잡성은 발생한다. 학습자들이 이러한 복잡성 안에서 겪는 곤란함을 지속적으로 또 비선형적으로 대면하면서 스스로의 글쓰기 방식을 인식하고, 자신의 지향성을 발견하는 과정이 자기결정성 확장 과정으로써 기능한다는 것이 이 논문에서 주목하는 점이다.

학습자가 글을 쓰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내외적 혼란, 절망, 미진함, 자책 등의 다양한 실패들은 불완전함이나 오류로 규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글쓰기 능력과 정체성 성장을 위한 과도기적 단계이다. 이들 단계에서 만나는 실패를 생성적 실패(generative failure)로 전환할 수 있을 때 학습자들이 온전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된다.¹⁴⁾ 이 생성적 실패의 과정은 학습자가 자기 글쓰기로부터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학습자가 자신이 직면한 어려움과 무력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결정 과정이 어떠했는지, 또 어떠하기를 바라는지를 고민하는 과정들은 학습자 자신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3장에서는 학습자 산출물을 분석하면서 [그림2]의 1~2단계와 4~5단계에 주목하여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강화를 위한 글쓰기 과정을 논의할 것이다. 여기서 빠진 [그림2]의 3단계에 제시한 학습자들의 초고쓰기는

13) 김남미, 「휴타고지적 비선형학습에서의 생성적 실패의 의미」, 『리터러시연구』 16권 5호, 한국리터러시연구학회, 2025, 294쪽, 296쪽.

14) Ivanič, R., *Writing and identity: The discurs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1998.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글쓰기 수업에서는 세 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재해석된다. 첫째, 학습자들의 자기결정적 사고를 열어낸 최초로 가시화된 완결체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학습자는 이전 전략 중 유의미한 것을 선택하고 이를 토대로 하나의 구조를 선택하고 어휘와 문장을 선택하여 글을 완성하는 자기결정의 경험이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그 선택과 구조화가 인식 내의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자기사고와 행동의 가시화된 결과물을 산출하는 글쓰기를 경험한다는 것은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경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의미한 것이다. 때문에 학습자가 자기 글의 수준에 대하여 성급하게 판단하여 그 이후 활동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그래서 글쓰기 과정이나 결과물에 대한 선부론 판단이나 자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공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둘째, 학습자들이 이전 사고의 가시화된 결과물을 분석함으로써 스스로의 글쓰기 방식이나 사고에 대해 스스로를 인식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다. 글쓰기는 사고의 가시화 과정이지만, 글에 반영된 사고 모두를 저자가 인식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는 객관화된 결과물로 자리하게 된 학습자의 초고는 인식하지 못한 것이지만, 중요한 자기 사고를 읽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동시에 이전 글에 대한 인식이 새로이 자기결정적 사고를 수행하여야 할 방향이나 방식 절차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글쓰기 활동의 질적 수준 개선을 위한 수정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떤 자기결정학습을 수행하여야 하는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이자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셋째, 교수가 학습자들의 사고나 글쓰기 접근 방식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읽을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는 점이다. 자기결정자로서의 학습자 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과정은 자신의 사고나 행동 방식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가늠자를 만들어가는 일이며, 교수는 이를 지원하고 촉진하는 지지자이다. 수행 과제에서 포착되는 학습자들의 일반적 경향성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선수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에게 체화된 것이거나 보다 창의적 활동을 위하여 대상화하여야 할 경로인 것은 분명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학습자 이전 글의 경향성 분석은 학습자 글의 진정

한 독자¹⁵⁾로서 저자인 학습자들의 이후 활동에 대한 기대와 이에 대한 경로 확인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3) 연구대상

대학 글쓰기 교육에 Gen AI 활용을 반영한 연구 양적, 질적인 성과로 축적되고 있다. 고등사고력 신장에 위협 요인으로 Gen AI 활용 글쓰기를 규정하며 비판적 입장¹⁶⁾을 넘어서서, Gen AI 생성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고 구조적 전형성이나 환각, 거짓 정보 등의 문제적 특성을 밝힌 연구¹⁷⁾가 진행되는 동시에, 글쓰기 과정에서 적극적 도구로 활용하는 교육적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들¹⁸⁾이 진행되고 있다. 논의는 더 확장되어서 창안형 프롬프트 개선 활동이 텍스트 질적 향상을 견인할 가능성을 제안하는 연구도 축적되고 있다.¹⁹⁾

Gen AI 활용에 대한 학습자나 교수자에 대한 국내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을 작문교육 활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교사 인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²⁰⁾, 학습자의 Gen AI 활용에 대한 가치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논의는 드물다. 특히 학습자의 글쓰기 과정에서 스스로의 자기글쓰기의 방식을 배우는 활동을 강조하는 휴타고지적 접근에 대한 논의는

15) 여기서 진정한 독자란 교실 환경에 의해 인위적으로 조직된 가상의 독자가 아니라 한 명의 독자로서 학습자 글의 강점에 감동하고 그 강점이 좀 더 확장되고 재구성되기를 기대하는 진짜 독자로서의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16) 나은미, 「챗GPT의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성찰 및 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성어문학』 51호, 한성어문학회, 2024, 71-106쪽.

17) 윤재연, 「인공지능 글쓰기 시대의 대학글쓰기」, 『교육과학연구』 26권 4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4, 1-30쪽.

18) 박숙자, 「챗GPT와 대학글쓰기: 학습자 중심의 AI 피드백-문장 첨삭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27호,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4, 101-141쪽.

19) 이윤빈, 「대학생의 창안형 프롬프트 유형에 따른 챗GPT 작성 논증 텍스트의 문제 분석-내용·구조·표현 3축 루브릭 기반 유형화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65호, 한국작문학회, 2025, 132쪽

20) 김혜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근거 이론에 의한 탐구」, 『작문연구』 64호, 한국작문학회, 2025, 93-128쪽.

휴타고지적 교육관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대학글쓰기 교육에 적용 가능한가를 확인하는 시론적 논의를 진행한 몇몇 논의로 한정될 뿐이다.²¹⁾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수업에서는 학습자가 Gen AI의 활용에 대하여 어떤 인식 및 태도를 지니는가를 묻는 것을 넘어서, 학습자들이 스스로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자기 가치를 발견하는 과정, 또 글쓰기 과정 안에서 과제들을 발견하고 그 과제들을 풀기 위하여 스스로가 어떤 사고와 행동을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결정 경험, 자기개선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습자가 Gen AI의 활용에 대한 자기 가치를 포착하고 이를 대상화하면서 야기되는 자기 가치의 변화 과정을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이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아 분석 대상이 되는 글쓰기 과제는 Gen AI 활용에 대한 학습자의 가치를 묻는 것이지만 학습자의 자기결정경험을 확장하기 위하여 몇몇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2)의 [그림2]에서 제시하였던 비선형학습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결정경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단계화, 세분화 과정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²²⁾

21) 권양이,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휴타고지의 확장 및 실천 가능성」, 『지식과 교양』 18호, 2025, 557-586쪽. 김남미, 「휴타고지적 접근을 통한 교양 글쓰기 교육의 질적 강화 - 자기결정학습의 실현을 위한 시론(試論)」, 『교양교육연구』19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5, 89-102쪽.

22) 이 논문의 분석 대상으로 삼은 글쓰기 수행 과제에 참여한 수강생의 정보와 학과별 인식부호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5학년은 5년제 학부 전공생을 가리킨다).

[표 1] 참여자 정보 및 인식 부호

인식부호	[01]	[02]	[03]	[04]	[05]	
학년	예술	인문	공학	경영	자율	계
1학년	19	5	22	6	17	69
2학년		1		1	1	3
3학년	5	2	1	1	1	10
4학년	2			1		3
5학년			1			1
계	26	8	24	9	19	86

이 표의 상단에 반영된 인식부호는 과제를 제시한 학습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저자가 부여한 인식 번호이다. 예를 들어 [252-01-20]은 [252]는 2025년 2학기를 지시하는 것

이 글쓰기 과제의 첫 단계에서는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통념들을 그대로 자기 관념화하여 옮겨적는 일을 사전에 제한하는 동시에 해당 개별글쓰기의 맥락을 공유하고 학습자 전략을 포착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아래 (1)은 이 단계에서 활용한 유인물에 반영된 항목들이다.

(1) 개별 글쓰기를 위한 사전 활동

① 개별 글쓰기 개관

- 글의 종류: 자기 가치를 탐색하는 글
- 글의 목적: 자기 발견, 자기 설계, 세계 발견, 나와 세계의 연관성 이해 및 확장
- 독자: 담당 교수 수준의 일반 대중
- 분량: 1,0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 단락 3개 이상
- 논의 대상: ChatGPT, 나, 우리(GenAI로 범위를 확장하여도 좋음)

② 개별 글쓰기를 위한 작전을 짜 보세요.

(자기 지침, 마인드맵, 자료 찾기 등 어떤 방식이라도 좋음)

- ③ 위의 작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적어 보세요.
- ④ 위의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적어 보세요.
- ⑤ 교수 의도 읽기: 교수는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할까요?

(1①)에는 학습자가 앞으로 쓰게 될 글의 종류, 목적에 대한 개관이 포함되어 있다. 글의 목적은 학습자가 GenAI로 표현되는 ChatGPT 등의 기술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치를 탐색하는 것이며 분량은 1개 차시 안에 작성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다. (1②)는 교수와 학습자가 대면 피드백 활동으로 의사소통하며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을 초점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항목이다. (1③-⑤)는 학습자가 앞으로 글을 쓰면서 자기결정과정에서 주요 질문으로 활용 가능한 항목들의 내재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항목이다. 자들의 사고를 가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학습자가 이후 글쓰기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질문인 동시에 글쓰기 과정에서 학습자의 자기결정 내용이나 방식을 스스

이고 [01]은 예술 관련 학과 [20]은 그 학과 내의 학습자 일련 번호를 지정한 것이다.

로가 포착하는 계기가 된다. 예를 들어 (1②)와 (1③)의 관계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사고가 가시화된 이전 글에서 가장 유의미한 것을 선택하고 이를 확장하는 과정을 자기결정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 (1④)에서 보인 것과 같이 학습자들은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것이 (1②)나 (1③)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가를 관계 짓고 그 중요도에 따라 해법을 탐색하거나 타인이나 다른 자료와 공유하는 방향이나 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또 소통하고 있는 독자나 다른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읽고 자신에게 가치 있는 행동 방식이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과제 (1)의 산출물은 교수와의 대면피드백 수행 이후에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과 개별지면 피드백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교양글쓰기 과정에 일반화되어 있는 과정적 글쓰기의 일반화된 수행 방식과 같다.²³⁾ 이 논문에서 제시하는 자기결정성 강화를 위한 보다 본격적인 글쓰기 방식을 배우는 과정은 아래 (2)로 제시된 초고 수정 과제에 있다.

(2) 초고 수정 과제

- 아래 내용을 모두 포함한 파일을 하나로 만들어 제출하십시오.
- ① 초고(이전 글) 작성 이전 활동 확인(5점)
최초 유인물, 교수 피드백, 초고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고,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포착하고 지향점을 발견하기
- ② 초고에 대한 자기 생각 정리하기(5점)
초고(이전 글)에서 자신의 글의 강점 발견하기
개선점을 발견하기
- ③ 교수 피드백 요약(5점)
☆ 수업에서 논의한 것들 중 연관된 것들도 교수 피드백 내용에 포함시킬 것.
- ④ 수정 글에 반영할 전략 세우기(5점)
- ⑤ 수정 글(10점) - 수정 글에 별도의 제목을 꼭 넣어 주세요.

23) 자기결정성 강화를 위한 교양글쓰기 수업에서 (1)의 산출문에 대한 피드백 과정과 초고에 대한 개별 피드백 과정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3장에서 구체화할 것이다.

과제 유인물 (2)에는 학습자들이 다양한 자기결정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다. 먼저 (2①, ②)에는 학습자들의 이전 사고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 방식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 과정에 학습자는 자기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고 유의미한 과제를 탐색하고 활동과 활동 사이, 사고와 사고 사이를 연결하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특히 (2②)의 ‘자기 글의 강점 발견’은 이전 활동에 관여하는 사고들 간의 위계를 결정하고 그 위계에 따라 다음의 사고를 이끌어가는 자기결정 경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이 반영되어 있다.

(2③)에는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수업의 일관된 원칙을 발견하고 자신의 글쓰기 활동과의 연결 및 위계를 성찰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글쓰기 수업에서는 앞서 [그림2]나 [그림3]으로 논의된 수업의 거시적 틀과 설계 원칙이 공유되어 있다. 공유된 수업의 원칙이나 틀을 자신의 개별적 활동 안에서 어떻게 조율하고, 반영하는가 역시 학습자들의 자기결정 경험의 기회로 작동할 수 있다. 학습자들이 저자로서 자신의 글쓰기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자신이 어떤 경로로 어떤 목표를 향해 사고하고 표현할지를 완전히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을 지녀야 한다는 휴타고지적 관점 역시 학습자들과 공유된 지점이다. 이 공유 원칙들이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 안에서 어떻게 조율되고 재구성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 역시 수업 안에서 지속적으로 공유되면서 글을 배우는 과정 전체를 관여하는 원칙으로 공유되었다. 이러한 공유 가치를 어떻게 학습자 개인적 가치로 내재화하고 또 다른 경험과 함께 재구성하는가가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강화 과정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2④)는 이전 사고의 결과물로서의 초고를 대상화하고 거시적 구조 등 보다 위계가 높은 것을 변환함으로써 사고의 질적 개선을 이끌게 하기 위한 다양한 자기결정 경험을 촉진하고 지지하는 의도가 반영되었다. (2)에 반영된 전 과정이 (2⑤)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 어떻게 반영되고자 하는지를 검토하는 일 역시 중요한 자기결정 경험이 될 수 있다.

3. 자기결정성 강화 수업에서 학습자 가치의 질적 변화

1) 사전 전략 - 대면피드백

초고 작성 이전에 사전 전략과 대면 피드백 과정에는 학습자의 자기결정성 강화를 위한 세 가지의 의사소통 과정이 반영된다. 첫째, 유인물에 제시된 교수 요구에 대한 학습자들의 응답이다. 글쓰기가 사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학습자들의 반응은 학습자들의 사고를 가시화한 현재적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현재적 결과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전 글이 대상화되어 탐색되고 성찰되는 과정이 글쓰기와 사고의 상호작용에서 특히 중요한 절차가 되기 때문이다.

둘째, 대면 피드백 과정의 교수 학습자의 의사소통에서 학습자들의 반응을 포착한 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대면 피드백의 과정은 학습자가 아직 꺼내지 못한 생각들을 발현하는 과정이며 교수는 학습자의 발현 과정이 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학습자들의 답변 역시 가시화된 사고의 결과물로서 다시 생각하는 대상이 된다.

셋째, 앞선 두 과정에서 포착된 가시화된 사고들 간의 관계를 만들과 그 관계를 통하여 이전 사고를 초점화하거나 확장한 결과물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작성한 글쓰기 전략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그 항목을 ‘실현 항목’이라고 생각하였을 때 그 항목과 동궤에 놓이면서 반영되지 않는 ‘잠재 항목’은 무엇인지를 논의함으로써 다각성을 높이는 과정이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의사소통이 어떻게 수행될 수 있는가를 반영한 것이 유인물 활동 결과인 [그림3]이다.

논리적 글쓰기와 사고

학과: 관학과 학번: 이름: 분반: ⑦

유인물2. 첫 번째 개별 글쓰기를 위하여

• 첫 번째 개별 글쓰기 개관
글의 종류: 자기 가치를 탐색하는 글
글의 목적: 자기 발견, 자기 설계, 세계 발견, 나와 세계의 연관성 이해 및 확장
독자: 담당 교수 수준의 일반 대중
분량: 1,000자 내외(띄어쓰기 포함), 단락 3개 이상

논의 대상: ChatGPT, 나, 우리
(GenAI로 범위를 확장하여도 좋음)

(전역)

• 첫 번째 개별 글쓰기를 위한 작전을 짜 보세요.
(자기 지칭, 마인드맵, 자료 찾기 등 어떤 방식이라도 좋음)

① 나·우리·Chat GPT의 관계성, 확장성에 대한 마인드맵 그리기
② Chat GPT의 활용과 한계, 우려의 소
③ 앞으로 내가 Chat GPT를 어떻게 사용할지
④ Chat GPT와의 대화를 통해 내가 배울 것
⑤ Chat GPT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⑥ 나와 Chat GPT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
⑦ 내가 Chat GPT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Q GPT → 목적
→ 자녀 반영
→ 관계 맺기

나의 의향
C C

• 위의 작업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적어 보세요.

① Chat GPT와의 대화
② Chat GPT를 통한 자기탐색
③ 나·우리·Chat GPT의 관계에 대해 생각하기

• 위의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적어 보세요.

① 어떤 관련이 있는가.
②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③ 어떤 내용을 서야 할지.

• 교수 의도 읽기: 교수는 왜 이런 것을 하라고 할까요?
① 나·우리·GPT의 관계성에 대한 확장적 생각 쓰기
② 글쓰기의 방향과 목적 설정
③ 자기탐색
GPT를 통한

→ 아이디어 수집
→ 관계
→ 지향성

[그림3] 학습자 사전 활동 유인물 피드백 예시[252-01-20]

[그림3]에 마인드맵처럼 그려진 내용들은 이미 논의된 현재에 관련된 실현태를 토대로 이와 대등 관계에 놓이는 미래 지향성이라는 잠재태를 이끌어 낸 학습자 반응을 반영한 것이다.

ChatGPT와 관련된 글쓰기의 사전 전략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학습자의

일반적 경향으로 현재 및 경험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점, 사회적 통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이 많다는 점, 분량 등의 형식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략화가 수행된다는 점이 발견된다. 사전 활동에서 발견한 경향성들이 학습자들이 작성한 초고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기대하는 것도 교육학적으로 유의미한 일이다. 사전 활동에 대한 대면 피드백 과정에서 학습자 자신의 가치를 초점화하고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지향성까지도 논의 대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의는 기왕의 글쓰기 전략에서 발견한 유의미한 발전 과정을 이후의 글쓰기 피드백 과정에 반영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에 주목한다면, 사전 전략과 초고 간의 관계, 초고 자체의 경향성은 학습자들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교수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초고쓰기 - 지면피드백

초고에서 보여준 학습자들의 일반적 경향을 대별하면, GenAI에 대한 인식, 사용 경험, 활용 태도에 대한 논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학습자들은 자신의 글에서 GenAI가 익숙하면서도 유용한 도구이며, 효율성을 갖춘 도구라는 점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GenAI를 사용하는 영역에 관해서는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과제 수행으로 한정되고, 정서적 일상에서 많이 사용한다는 점이 반영되어 있었다. 학습자들은 이 기술의 위험성을 인지하면서 윤리성과 주체성을 가지고 이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서술하고 있지만, 체화되지 않은 낭만적인 낙관(naive romanticism)²⁴⁾이나 통념 그대로의 위험성 논의를 반영하는 경우²⁵⁾도 발견된다. 특이하게 포착되는 경

24) 여기서 ‘낭만적 낙관(naive romanticism)’이란 학습자들의 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은, 대책을 동반하지 않는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순진한 전망을 제시하고 더 깊이 진전하지 못하는 양상을 지시하는 말로 사용한 것이다.

25) 사전 활동을 통하여 제시된 글이 ChatGPT 사용에 대한 자기 가치 정립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일반적 정보에 대한 논의가 줄긴 하였지만, 통념에서 우려하는 환각, 거짓정보, 편향성 등을 우려하는 내용에 분량을 할애하는 경향성이 여전히 존재하

향성의 하나는 비유의 확일성으로 다수 학습자들이 ChatGPT를 비유하는 사물로 ‘거울’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²⁶⁾ 이와 같은 확일적 비유가 선수 학습의 영향인지, ChatGPT의 생산물인지는 명료하지 않지만, 이러한 경향은 학습자와 공유될 만한 사안이다. 창의성을 담보하는 최소 기반은 가장 식상한 일반론이 무엇인가를 아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학습자들의 초고에 대한 지면 피드백은 앞서 보인 대면 피드백의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학습자가 자기다움을 탐색하는 일의 중요성을 촉진하고, 스스로 중요한 지점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확장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가치 공유이다. 학습자 초고에 대한 교수 지면 피드백에는 진정한 독자로서 학습자 글에서 포착한 유의미한 내용에 대한 포착과 이에 대한 지지와 응원이다. 그리고 자기 글쓰기의 목표 및 수정 방향을 결정하고 그 결정을 보다 유의미한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 또한 글쓰기로부터 배우는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공유하는 과정이 열린 질문으로 제시된다. 이 자기결정성의 지향이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 과정이 학습자 글을 대상화하여 논의되는 것이라는 점이 학습자의 개별적이고 고유한 특성에 기반한 의사소통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다만 지면 피드백에서는 학습자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였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아래와 같은 예이다.

[252-02-04] AI에 대한 의존이 지나치면 여러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지적 게으름’이나 ‘사고의 외주화’로 인해 사고 능력이 약화되기도 하고, 현실에서 고립감이나 사회적 소통 능력 저하를 초래할 수도 있다. AI의 편향과 오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사회적 문제들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26) 대표적인 예들을 보이면 아래와 같다.

[252-03-14]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울이다.

[252-02-07] AI와의 대화는 오히려 나를 비추는 거울로 작용

[252-01-18] 단순한 ‘정보제공자’가 아니라, 내 생각을 비춰 주는 거울에 더 가까웠다.

[252-01-09] GPT는 생각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거울이자

[252-03-09] 그때 그때의 나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 같다.

[252-05-06] GPT가 그 과정을 비추는 거울처럼 곁에 있지만

[252-04-02]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거울이다.

3) 자기 인식 - 수정 전략 - 수정본 쓰기

초고에 대한 인식과 피드백 분석 및 수정 전략을 보이는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보여준 자기결정성 강화 과정을 유형화하면은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전 글,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진 교수-학습자 간의 의사소통과 대면하면서 보다 깊이 있는 사고로 진전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 안에는 이전 글과 학습자 간의 소통에서 발견하는 진지한 자기 탐색의 과정과 논의 대상에 대한 자기 관점에서의 탐색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메타인지적 성찰의 경험이 들어 있다. 이 복잡한 선택과 연결, 성찰의 과정을 통해 이전 논의보다 질적 수준이 높은 깊이와 넓이를 확보하는 경험을 수행한 자기결정 과정이 담긴 것이다.

둘째, 자기 탐색의 방식을 다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ChatGPT와의 연결, 공유 작업은 물론 자기 사고나 방식을 가시화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의 활용을 통해 대상화된 이전 글을 토대로 새로운 창조 과정을 위한 마인드맵이나 구조도 등 다채로운 방식을 활용하는 활동이 반영되어 있다. 이는 제시된 글쓰기 과제만이 아니라 수업 내에서 이루어진 담화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확장되어 학습자의 자기결정 경험의 밀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서 스스로의 글쓰기 방법론을 정교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교육적 시사점을 갖는다.

셋째, 일련의 활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가치 변화를 보다 명료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다운 ChatGPT 활용 방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자기 탐색은 물론, 자신에게 특히 중요한 지점과 ChatGPT 간의 관계를 보다 깊이 접근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가치를 심화하면서 스스로 존재론적 변혁을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온전한 저자성을 목표로 하는 글쓰기 교육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점이 주목할 만하다.

아래 (3)의 수정 전략에는 학습자가 이전 글 수정을 위해 무엇을 결정하고 있는지가 보다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에서 보였던 자기사고의 성장을 위한 자기결정성 강화 과정이 반영된 것이다.

(3) 수정 글에서는 일반적인 설명보다, 실제 경험을 통해 ㉠ 내가 발견한 원칙과 활용 태도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계획이다. (중략) 이러한 습관은 ㉡ 단순한 기능적 활용을 넘어, 사고를 정교하게 다듬으려는 나만의 태도를 보여주는 지점이므로 글 속에서 핵심적으로 반영할 것이다. 또한 사례 제시 방식도 수정할 예정이다. 초고에서는 경험을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수정 글에서는 각 사례가 ㉢ 어떤 활용 방식과 지향점을 보여주는지를 명확히 연결 지어 서술할 것이다. (중략) 마지막으로, ㉣ 책임 있는 활용 부분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으로 보완하겠다. 단순히 “AI의 답변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 내가 실제로 왜 재작성 습관을 유지하려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답변을 검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나의 학습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명확히 서술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술적 활용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를 주도하려는 태도가 중심에 놓인 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수정 글을 작성하면, 초고의 장점은 살리면서도 “□□이다움”과 나만의 학습 철학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252-03-01]

(3㉠-㉥)에는 학습자가 글에서 반영하려는 핵심 내용이 자신의 원칙과 태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간취하고 그 원칙이 태도를 어떤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반영되어 있다. 휴타고지적 입장에서 글쓰기 수업이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면 (3)의 학습자는 자신의 원칙과 태도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이를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글쓰기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가시화함으로써 그 배우의 결과를 반영해 낸 것이다. (3㉡)은 이전 글에서 진전된 사고를 한다는 것의 의미, 또 그것이 자신의 성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 (3㉢)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과정이자 ‘자기다움’을 확장하는 방식이라는 점이 반영되어 있다. 결국 글을 쓴다는 것이 자기 가치를 발견하고 확장하는 일이며, 그것

이 자신의 존재론적 변혁을 이끄는 과정이라는 지점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보다 글쓰기와 관련된 용어에 밀착된 수정 방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과 의미 부여가 반영된다. (4)의 학습자는 자신의 이전 글에 대한 분석 및 전략에서 아래와 같은 지점을 논의한 바 있다.

(4) ㉠ 초고 중 ‘나의 말로 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더욱 구체적으로 개념화하고, ‘계속 쓰고 고치는 데에 오랜 시간을 들이는 일이 더 좋다’는 내용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수정글에서 시도한 전략으로 주제 의식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 내가 지향하는 글은 어떤 모습이고, 글을 인간의 영역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나는 지피티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잡아가려 하는지 탐색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 구성 면에서는 나에게 중요한 영역을 나누어서 각 부분에서의 위상을 지어 보는 것이 좋은 시도가 될 수 있다. [252-01-03]²⁷⁾

(4㉠)에서 학습자는 초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을 선택하고 이를 자기 글의 거시구조인 주제의 강화와 연결 짓고 있다. 대상화한 이전 글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효과적인 글을 쓰는 방법을 현실적인 작업 안에서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조금 복잡하여 정리되지 않은 문장이긴 하지만 (4㉠)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글의 수정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탐색 및 성찰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초점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4㉡)에서는 자신의 중요 가치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부분 간의 역할을 고려하는 방식이 반영되어 있다. 모두 글쓰기 분야에서 중요한 영역을 짚은 것이고 이를 중심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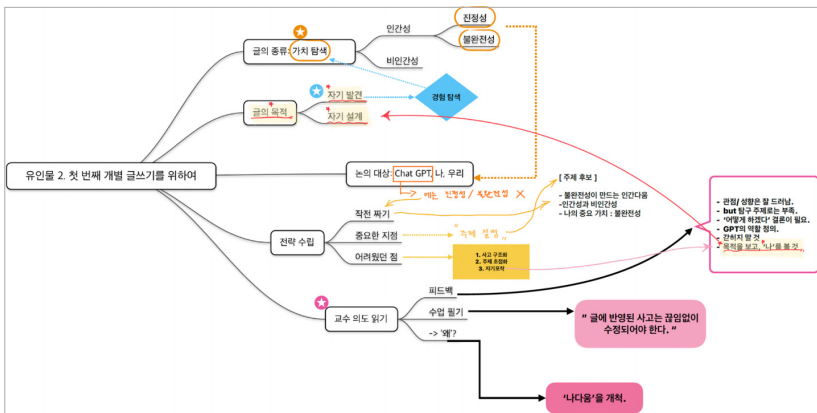
27) 이 학습자는 수정 전략에서 주목한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제목에 반영하여 ‘나의 언어로 말하는 것: 5초와 5시간 사이’라 하면서 글쓰기와 사고에 대한 자기 가치를 수정본에서 아래와 같이 풀어내었다.

[252-01-05] 인간의 모든 행동이 효율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면 글쓰기는 그 중 최악의 영역이다. GPT가 5초 만에, 좀 더 고급 모델을 쓴다면 15초 만에 써내는 글을 나는 5시간 혹은 그보다 더 오래 걸려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글쓰기의 가치는, 나아가 창작의 가치는 결과에 있는 게 아니라 완성이라 불리는 어떤 지점에 도달하기까지의 수많은 경로를 마주하는 그 자체에 있다. 선택과 배제, 수집과 탈락, 확신과 수정의 수많은 불안정성을 견디고 침잠할 때 사고가 비로소 글이 된다.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어떤 세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밝히는 일은 분명히 괴롭지만, 내 손으로 이루어졌을 때 더욱 아름답다.

로 다시 생각하기 방식의 수정 과정에 임한 것이다.

(4)의 학습자 활동이 자기결정성 강화의 과정으로 중요하게 해석되는 지점은 이전 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유의미한 질문과 이에 대한 자기 해법을 반영하고 그것을 이후의 자기 지향과 연결 짓고 있다는 점이다. 또 그러한 자기 지향이 글쓰기에서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 구성의 측면과 연결 짓는 과정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4]는 수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작성한 마인드맵이다.



[그림4] 이전글 분석 및 수정 전략에 대한 학생 마인드맵[252-05-09]

[그림4]에는 글쓰기를 위해 학습자와 공유한 유인물의 항목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그것이 이전 글과 수정 전략, 그리고 피드백 내용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가시화하고 이를 확장하려는 시도가 반영된 것이다. 학습자들이 자기 사고의 개선을 위하여 어떤 도구를 선택하고 사고를 어떻게 가시화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확장을 시도하는지를 스스로 짚고, 이들 간의 관계를 강화하여 나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래는 세 번째 항목과 연관된 학습자 글들로 학습자들이 전체 활동 과정의 결과로 스스로의 가치변화를 보다 명시적으로 보여준 수정본의 일부

이다. 이들 결과물들은 학습자들이 자기결정과정에서 보다 더 질적으로 개선되고 정교화되는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5) 판화는 이미지를 언어로 바꾸는 과정이지만, 그 언어는 매체가 아니라 작품을 만드는 결과이다. 이 시점에서 ChatGPT는 번역가로서 내가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감각 정보를 보다 명확히 표현해 주었다. 이는 ‘공허함과 침묵’이라는 개념으로 판화 작품을 만들 때 이 도구로 종이를 여러 겹으로 눌러서 생긴 질감과 ‘공허함’이라는 단어를 연결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ChatGPT는 더 깊은 수준의 언어에 유용하지 않다. 대신, GPT의 가치는 ‘가치 식별’과 관련이 있었고, 따라서 내가 선택한 표현 형식의 정확성을 확인했다. ChatGPT에게 정답을 묻기보다는, 내가 내린 결정을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했다. “왜 드라이포인트가 아닌 지판화를 선택했는가?”와 “주제를 보여주는 이 표현 방법의 한계는 무엇인가?”와 같은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ChatGPT는 나를 대신해 생각하지 않는 대신, 나의 추론과 판단을 더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과정에서 AI의 답변은 비판적 사고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것이었다. [252-01-07]

(5)의 학습자는 자기 전공 영역으로 범위를 좁혀 실질적으로 ChatGPT가 자신의 작업에 어떠한 기여할 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 위상을 어떻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진정성 있게 반영되어 있다. 자신의 작업의 의미를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고 안에서 ChatGPT의 역할 부여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역할의 한정을 통해 ‘자신의 것’이라는 것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6) ChatGPT를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작업의 속도보다 사고의 방식이었다. 정보를 정리하거나 문장을 다듬을 때 ChatGPT가 제공하는 요약과 구조화 능력은 분명 효율적이다. 효율성이란 주어진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줄여주는 작용이라고 할 때, ChatGPT는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단계를 대신해 사고의 부담을 줄여준다. 그러나 ㉠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 더 핵심적인 효율성이며 무엇이 부차적인지 구분하는 일이다. 속도는 부차적이고, 사고의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이다. 나는 ChatGPT가 여유를 만들어주는 순간에 비로소 내 생각을 더 깊게 다듬을 수 있었다.

그러나 효율성이 늘어날수록 ‘성장’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떠올랐다. ㉠ 성장이란 는 것은 단순히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이 확장되는 과정이라고 나는 정의한다. 그 기준을 세우고 나니 내가 느껴온 불안의 정제도 보이기 시작했다. 빠르게 해결되는 과제들 속에서 사고의 깊이를 잃는 것, 그리고 기술에 휩쓸려 주도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불안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성장의 방향도 필요했다. ㉡ 나에게 성장의 방향은 ‘도구를 다루는 사람이 되는가, 아니면 도구에 기대는 사람이 되는가’의 차이에서 결정된다.
[252-03-10]

(6㉠)에서 학습자는 자신의 글쓰기 과정에서 논의되는 대상들 간의 위계를 고려하면서, (6㉡)에서 자신이 지향하는 성장을 개념화하고 (6㉢) 자신의 성장과 GenAI라는 도구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위계화나 연결 관계의 모색은 학습자의 초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던 전략들이다. 해당 활동을 수행하면서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자기 글쓰기의 방식을 발견하고 확장하여 나가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 변화의 과정에는 보다 중요한 것들을 탐색하고, 현재 자신과 기계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지향과 연결하는 자기결정 과정의 성장이 반영되어 있다.

86편의 초고 중 ChatGPT 사용 경험이 전혀 없다는 내용을 담은 것은 단 한 편이었다. 이 학습자의 수정글에 어떤 가치 변화가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유의미한 일일 것이다.

(7) 학습자 초고: 수정본 비교

① 초고- 제목 없음

나는 직접 ChatGPT를 써 본 적이 없다. 단순한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ChatGPT의 사용을 피해 왔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의존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있다. 그 이유로는 과도한 의존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있다. 나는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펼치기보다 주어진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프롬프트만 입력하면 빠르게 구색을 갖춘 글을 써 주는 ChatGPT는 당장은 편리하겠으나 장기적으로 나의 발전을 가로막는 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신뢰도 및 퀄리티 문제도 있다. ChatGPT의 답변은 허위 정보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도 있지만, 사실과 섞여 믿어버리기 쉬운 환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적지 않다. [252-05-02]

② 수정본 - 제목: 나다움을 잃지 않는 ChatGPT 사용을 위해

나는 ChatGPT를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능력을 성장시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는 ChatGPT를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경쟁력 중 하나가 되었다. ChatGPT의 편리함에 안주하지 않고 여러 문제를 스스로 통제하며 주도권을 잃지 않는 것이 ChatGPT를 활용하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력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에서 나온다.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계속해서 개발하며 ChatGPT 활용 경험을 쌓아나가는 것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느꼈다.

나는 앞으로 ChatGPT 및 여러 AI 기능들을 활용하게 될 것이지만, 편리한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나다움을 잃지 않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간직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운 미래에 AI에게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AI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이지만, 조금 더 정확히 하자면 AI를 나답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미 대중화된 기술은 대체할 수 있지만, 사람 개개인의 특색을 대체하기란 어렵다. 뭐든지 한 곳이 중요한 시대다. 나는 그것을 나다움으로 채우고 싶다. [252-05-02]

수정본에서 이 학습자는 주도권을 잃지 않는 ChatGPT 사용에 대한 논의를 반영하면서 ChatGPT를 자신의 삶 안으로 특히 자기다움의 하나의 발현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 결과물은 보다 유의미한 사고를 위하여 학습자들이 거쳐야 하는 의사소통의 절차와 대상 방법이 무엇인지, 또 변수들이 복잡하게 중첩되는 과정에서 스스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를 담아낸 것들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깊은 탐색과 다채로운 접근 방식이 진정한 자기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역시 학습자들과 공유하여야 할 중요한 가치가 된다.

4.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의 목적은 학습자들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교양글쓰기 교육 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었다. 이를 위하여 휴타고지(heutagogy)의 자기결정학습에 입각한 교양글쓰기 수업 틀을 제안하고, 그 수업 틀 안의 세부 과제 중의 하나에서 산출된 글쓰기를 분석함으로써 학습자들의 가치 변화 과정에 반영된 자기결정성 강화 과정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은 글쓰기 과정에서의 다양한 자기결정 경험, 비선형적 수정에 기반한 질적 개선 경험, 메타인지를 통한 자기 이해와 변혁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수업의 전체 틀 안에서의 과제의 상세화를 통해 학습자가 전이 가능한 저자성을 형성하고, 반복적 성찰을 통해 자기결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수업 결과 산출된 학습자들의 자기 분석, 피드백 수용, 전략 수립과 수정 과정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글쓰기 방법으로부터 더 중요한 지점을 배우고 다양한 맥락에서 중요지점을 선택하고 개선하려는 자기결정 전략이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글의 거시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가치의 질적 개선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변혁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의 교양 글쓰기 교육에서 학습자의 자기 결정성을 강화는 세 가지 측면에서 유의미성을 갖는다. 첫째, 자기결정성 강화 수업은 학습자들을 온전한 저자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교양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수업은 학습자가 스스로의 글쓰기 방법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보다 스스로의 자기결정 경험의 질을 높이는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

둘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전이(transfer)’의 문제는 학습자가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절차가 내재화되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다. 이 내재화 과정 안에 학습자가 스스로의 사고 방식과 관점을 수립하는 방식, 또 이를 가시화하는 방법을 인식하고 확장하는 방식을 의미하

며, 비선형적 과정 안에서 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비선형적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생성적 실패(generative failure)를 거듭하면서 자기 사고의 유의미성을 가시화하고 수정하는 과정은 학습자가 이를 다른 영역에서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 과정이 될 수 있다.

셋째, 대학글쓰기 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인 비판적 사고, 메타인지적 사고의 발달은 자기결정과정에서 발휘될 때 보다 실효성 있는 사고와 행동으로 진전되며, 자기 이해 및 자기 변혁의 경험으로 전환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진전을 이룰 수 있게 된다. 학습자들이 이전 글쓰기 결과물이나 글쓰기를 둘러싼 맥락 안에서 가시화된 사고를 대상으로 중요한 질문을 발견하고 보다 중요한 지점에 대한 스스로의 비판적 사고를 경험하고 자기 사고에 대한 메타인지적 인식과 확장이 학습자들이 자기 가치를 확립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자 자기 변혁의 과정이 되는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 Deci, E. L. & Ryan, R. M.. *The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Rochester, NY: The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2002.
- Harris, A, *The creative turn: Toward a new aesthetic imaginary*. Rotterdam:Sense, 2014.
- Ivanič, R., *Writing and identity: The discursal construction of identity in academic writing*, Amsterdam: John Benjamins, 1998.
- Knowles, M. 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From pedagogy to andragogy*,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Cambridge, 1980.
- Rogers, C. R. *Freedom to Learn*,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1969.

논문

- 권양이,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의 휴타고지의 확장 및 실천 가능성」, 『지식과 교양』18호, 2025, 557-586쪽.
- 김남미, 「휴타고지적 접근을 통한 교양 글쓰기 교육의 질적 강화 - 자기결정학습의 실현을 위한 시론(試論)」, 『교양교육연구』19권 4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5, 89-102쪽.
- 김남미, 「휴타고지적 비선형학습에서의 생성적 실패의 의미」, 『리터러시연구』16권 5호, 한국리터러시연구학회, 2025, 291-322쪽.
- 김혜연,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에 대한 예비교사의 인식-근거 이론에 의한 탐구」, 『작문연구』64호, 한국작문학회, 2025, 93-128쪽.
- 나은미, 「챗GPT의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에 대한 성찰 및 교육 방향에 대한 고찰」, 『한성어문학』51호, 한성어문학회, 2024, 71-106쪽.
- 박숙자, 「챗GPT와 대학글쓰기: 학습자 중심의 AI 피드백-문장 첨삭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27호,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4, 101-141쪽.
- 윤재연, 「인공지능 글쓰기 시대의 대학글쓰기」, 『교육과학연구』26권 4호,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4, 1-30쪽.
- 이운빈, 「대학생의 창안형 프롬프트 유형에 따른 챗GPT 작성 논증 텍스트의 문

제 분석-내용·구조·표현 3축 루브릭 기반 유형화를 중심으로, 『작문연구』 65호, 한국작문학회, 2025, 105-144쪽.

- Blaschke, Lisa Marie, & Stewart Hase. "Heutagogy: A holistic framework for creating twenty-first-century self-determined learners." *The future of ubiquitous learning: Learning designs for emerging pedagogies*. Berlin, Heidelberg: Springer Berlin Heidelberg, 2015, pp.25-40.
- Blaschke, Lisa Marie, & Stewart Hase. "Heutagogy and digital media networks." *Pacific Journal of Technology Enhanced Learning*, vol. 1, no. 1, 2019, pp.1-14.
- Hase, Stewart. "Learner defined curriculum: Heutagogy and action learning in vocational training." *Southern Institute of Technology Journal of Applied Research*, 2011, pp.1-10.
- Hase, Stewart. "Self-determined learning (heutagogy): Where have we come since 2000?" *Southern Institute of Technology Journal of Applied Research*, 2016, pp.2-21.
- Hase, Stewart, & Lisa Marie Blaschke. "The pedagogy of learner agency." S. Hase, & LM Blaschke, *Unleashing the power of learner agency*. 2021 pp.4-12.
- Hase, S. & Kenyon, C. "Heutagogy: A child of complexity Complicity Theor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lexity and Education*, vol. 4, no. 1, University of Alberta, 2007, pp.111-118.
- Patel, J.V., "Paradigm Shift-Pedagogy to Andragogy to Heutagogy in Higher Education.", *Weekly Journal of Higher Education By Association of Indian Universities*, New Delhi, vol. 56, no. 30, 2019, pp.23-29.

인터넷 사이트

- UNESCO, "ChatGPT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higher education: Quick start guide", <UNESCO>, 2023,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385146>, 2026. 01.3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강화하는 교양 글쓰기 수업 방안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휴타고지의 자기결정학습을 교양 글쓰기 수업 구조에 맞게 재구성하고, 글쓰기의 비선형적 학습 과정이 학습자의 자기결정성을 어떻게 높이는지 구체화하였다. 또한 실제 수업에서 산출된 글쓰기 결과물을 분석하여 비선형적 글쓰기 활동이 자기결정성 강화로 이어지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업은 글쓰기 과정에서의 다양한 자기결정 경험, 비선형적 수정에 기반한 질적 개선 경험, 메타인지를 통한 자기 이해와 변혁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수업의 전체를 안에서의 과제의 상세화를 통해 학습자가 전이 가능한 저자성을 형성하고, 반복적 성찰을 통해 자기결정 경험을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였다.

수업 결과 산출된 학습자들의 자기 분석, 피드백 수용, 전략 수립과 수정 과정에는 학습자가 스스로 자기 글쓰기 방법으로부터 더 중요한 지점을 배우고 다양한 맥락에서 중요지점을 선택하고 개선하려는 자기결정 전략이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글의 거시구조를 재구성하는 등 가치의 질적 개선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자기 변혁을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교양글쓰기 수업, 휴타고지, 자기결정성, 비선형학습, 자기글쓰기 방법의 학습.

■ Abstract

Enhancing Self-Determination in Liberal Arts Writing Courses

Kim, Nammee/Hongik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an instructional model for general education writing that strengthens university students' self-determination and examines its effectiveness. Heutagogical principles were adapted to the writing-course structure, and the role of nonlinear writing processes in fostering self-determination was clarified. Analyses of student writing outputs were conducted to identify how such nonlinear activities support self-directed learning.

The proposed model centers on three components: varied self-determination experiences, qualitative improvement through nonlinear revision, and metacognitive engagement that promotes self-understanding and transformation. Task design within the course enabled students to develop transferable authorial agency. These elements created conditions for learners to expand self-determination through reflection and iterative refinement.

Findings show that self-analysis, feedback uptake, and strategic revision reflected students' efforts to refine key aspects of their writing across contexts. Reconstruction of macro-structural features demonstrated attempts at qualitative enhancement of values and perspectives. Overall, the writing activities encouraged learners to engage in self-transformative practices grounded in self-determination.

Keyword • Liberal arts writing, Heutagogy, Self-determination, Nonlinear learning, Learning through self-writing

■ 논문투고일:2026.01.31. ■ 심사완료일:2026.02.26. ■ 게재확정일:2026.03.16. ■

대학생의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과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역량 향상도 간의 관계 - S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정 해 인 · 김 정 민**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논의

1. 서론

대학은 더 이상 지식 전달의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학문적 성취를 넘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복합적 학습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Pascarella et al., 2005; UNESCO, 2021). 오늘날 고등교육은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속 가능한 삶을 준비하도록 자율적 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기능이 확장되고 있으며(이상은·소경희, 2019; Ehlers, 2020), 그 중심에는 학생이 체감하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있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단순한 정서적 반응을 넘어 학업 성취, 진로 의사결정, 사회적 관계, 자아 정체성 발달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표로서, 교육성

* 본 논문은 2025학년도 순천향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정해인(제1저자) 순천향대학교 多Dream비교과센터 연구원

김정민(교신저자) 순천향대학교 향설교양대학 부교수

과의 핵심 척도로 활용되고 있다(박수복·김희수, 2018; 김정민·류선주, 2024; Astin, 1993).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은 학업 성과가 높고 중도탈락 가능성이 낮으며, 장기적으로 진로 발달과 직업 만족에도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강민수 외, 2019; 김정민·구아름, 2021; 이하연·고주은·주민호, 2021). 또한, 김정민·류선주(2024)는 핵심 역량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종단적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대학 적응의 핵심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업 지속성과 학업 성과, 핵심역량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대학생활 만족도는 다양한 개인 요인과 대학 요인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기희경 외, 2021; 이하정·박미라·윤지원, 2022), 여기에는 비교과 참여 경험 역시 포함된다. 박상훈(2018)은 학생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대학 생활 만족도가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권영애·박혜진(2020)은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연구에서 비교과 만족도가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을 실증하였다.

한편, 대학의 핵심역량(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의사소통, 협업 등)은 교과 과정만으로 충분히 길러지기 어렵다(설연경, 2020; Trilling et al., 2009). 따라서 대학은 교과 외 학습 경험인 비교과 교육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는 학생 참여 중심의 학습 공동체 조성을 핵심 가치로 둔다. Kuh(1995)는 비교과 활동 참여는 학습과 개인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강조하였으며, 국내 연구에서도 비교과 참여가 핵심역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김경리·권준성, 2021; 김지혜, 2021). 아울러, 비교과 활동 참여 외에 대학생활 만족도 역시 핵심역량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입생의 핵심역량 발달 과정에서 행정적·정서적·사회적 지원 등 다양한 대학생활 만족 요인이 상호작용하며(김정민·구아름·이상욱, 2017), 대학생활 만족도는 재학생들의 전반적인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민·송영선, 2024).

학문적 성취와 전인적 성장, 사회적 적응을 위한 복합적 학습 생태계로서 오늘날 대학의 사회적 역할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와 핵심역량의 중요성을 생각하면, 대학생활 만족과 핵심역량 함양 모두에 도움을 주는 대학생의 비교과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교과 활동 참여가 대학생활 만족도나 핵심역량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동안의 국내 연구는 프로그램 만족도나 참여 여부 등 양적 참여 수준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분석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Astin(1993)은 대학 교육의 성과가 학습자의 참여 환경과 참여 가능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았으며, Kuh(2008) 역시 비교과 활동의 효과는 접근성, 시간 제약, 심리적 장벽과 같은 구조적 조건에 의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즉, 비교과 활동의 교육적 효과는 단순히 참여 여부보다는 학생이 참여 과정에서 인식하는 심리적·환경적 제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은 미흡하였다. 비교과 참여를 개인의 단순한 선택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학습자가 지각하는 참여 제약의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참여이론(Astin, 1993)과 자기결정이론(Deci et al., 1985)이 학습자의 내적 동기와 참여 가능 조건을 함께 강조해 왔음을 고려할 때,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은 학생이 참여 과정에서 경험하거나 지각하는 내적·외적 장벽의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참여 지속성뿐 아니라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과 학습 성과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 및 핵심역량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배경변인(성별, 학년, 단과대학, 거주유형)에 따라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평균에는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둘째,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내적·외적),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내적·외적)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핵심역량 향상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대학생활 만족도는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과 핵심역량 향상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하는가?

2. 이론적 배경

1)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비교과 교육의 정의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도가 존재하지만(김정민, 2020; 김연, 2022), 공통점은 그것이 교과 외 교육이라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교육을 정규 교과 외에 대학이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때 ‘非(아닐 비)’와 ‘毘(도울 비)’의 개념적 차이에 따라, 비교과는 단순히 교과와 분리된 영역을 뜻하기보다 교과를 보완·지원하는 통합적 학습 체계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영미권에서도 ‘extra-curricular’보다 ‘co-curricular’ 개념이 주로 사용되며, 이는 교과 학습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학습 경험의 통합적 영역으로 인식된다(김정민, 2020). 이러한 관점에서 비교과 교육은 교과를 보완하고, 학생의 자기주도성·내재적 학습동기를 강화하는 장(場)으로 기능한다. 국내에서 비교과 교육은 2000년대 들어 대학 교육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비교과 활동 참여가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핵심역량 함양에 기여하는 것이 여러 국내 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박상훈, 2018; 권영애·박혜진, 2020; 김경리·권준성, 2021; 김지혜, 2021).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은 학생이 비교과 활동 참여 과정에서 인식하는 심리적·환경적 장벽의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과 대

학의 제도적·환경적 여건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Astin, 1993; Kuh, 2008). Cross(1981)는 성인의 교육참여 제약요인을 상황적 장벽, 심리·사회적 장벽, 기관 내지 제도적 장벽으로 구분하였는데, 참여를 위한 시간과 경비의 부족, 가정과 직장에서의 역할, 지역적 위치 등은 상황적 장벽에 해당하며, 교육에 대한 욕구, 학습 능력, 자신감 등 학습자의 성향에서 오는 어려움은 심리·사회적 장벽, 그리고 학습자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의 부재, 운영 장소와 시간의 적절성 등 교육 진행 기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기관 내지 제도적 장벽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사회적 장벽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내적 참여 제약 요인, 상황적 장벽이나 기관 내지 제도적 장벽에 해당하는 요인들을 외적 참여 제약 요인으로 구분한다.

비교과 활동 참여와 관련해 학습자가 지각하는 제약은 활동 참여 여부 뿐 아니라, 참여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핵심역량 향상 등 비교과 참여를 통한 학습 성과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비교과 활동 참여 과정에서 인식되는 제약이 낮을수록 학생은 비교과 프로그램을 보다 긍정적인 학습 경험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평가와도 연관될 수 있다(Bandura, 1997; Schaufeli et al., 2002). 국내 선행연구들은 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 부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원하는 활동의 부재와 같은 환경적 장벽을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으로 보고하고 있으나(김수연·이명관, 2016; 엄진경, 2021; 차혜경, 2022; 박지연 외, 2024), 학생들이 인식하는 참여 장벽의 수준과 비교과 참여의 교육적 효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은 찾기 어렵다. 나아가, 참여 장벽을 심리적(내적) 장벽과 환경적(외적) 장벽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시도 역시 찾기 어렵다.

2)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생이 대학 환경에서 경험하는 학업, 대인관계, 생활환경, 복지 지원 등에 대한 주관적 평가이자 심리적 적응 수준을 의미한

다(강민수·윤희원, 2019; 구성우·김병주, 2022). 이는 단순한 정서적 반응을 넘어 대학이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와 환경 전반에 대한 총체적 인식을 반영하며, 학생의 학업 지속 의향, 학업 성과, 진로 발달, 직업 만족, 심리적 안정과 밀접히 관련된다. 김성식(2008), 김정민·구아름(2021)은 대학 선택 요인보다 대학생활 만족 여부가 중도탈락을 더 잘 예측함을 제시하였고, 이하연·고주은·주민호(2021)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학업 몰입 및 성취와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하여, 복지시설, 기숙사 환경 같은 학생복지시설과 같은 복지·생활환경 요인의 영향력 외에도(김정민·구아름·이상옥, 2017; 강민수·윤희원, 2019), 비교과 활동 참여 역시 전반적인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박상훈, 2018; 권영애·박혜진, 2020).

최근 연구에서는 대학생활 만족을 단순한 생활 적응 지표를 넘어, 학생의 학습 경험과 학습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 변수로 이해하고 있다(Astin, 1993; 김정민·류선주, 2024). 대학생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 경험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핵심역량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노경란·허선주, 2021; 김정민·송영선, 2024). 또한 전공 및 비교과 교육이 전공역량이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대학생활 적응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허영주, 2024).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활 만족도는 학생의 대학 경험 전반을 반영하는 정서적 결과이자, 학습성과와 연관된 주요 변인으로 볼 수 있다.

3) 대학 핵심역량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은 급변하는 사회·산업 환경에서 직무 수행과 사회적 적응에 필요한 보편적 능력으로 정의된다(손승남 외, 2021). OECD(2015)와 World Economic Forum(2016)은 이를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자기주도성, 의사소통, 협업 등으로 구체화하였다. 오늘

날 핵심역량은 대학 교육성과의 중심 준거로 자리 잡았지만, 정규 교과만으로는 충분히 함양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Trilling at al., 2009; 설연경, 2020). 이에 대학은 교과 외 학습 경험인 비교과 교육(co-curricular education)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정미·이길재·강지연(2019)은 전국 4년제 대학생 4,200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교과 활동 참여가 핵심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여러 국내 연구가 비교과 참여 여부에 따라 대학생 핵심역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경리·권준성, 2021; 김지혜, 2021).

한편,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 역시 핵심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정민·구아름·이상욱(2017)은 신입생 대상 연구에서 행정적·정서적·사회적 지원과 같은 대학생활 만족 요인이 핵심역량 발달에 구조적으로 작용함을 밝혔으며, 이는 핵심역량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대학의 환경적·제도적 요인 및 학생의 심리적 동기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핵심역량의 발달은 학습자의 내재적 참여동기와 학습 몰입(flow) 수준에 의해 촉진된다(Deci et al., 1985; Pascarella et al., 2005). 다시 말해, 학습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몰입 수준과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은 핵심역량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다.

4)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 간의 관계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비교과 활동 참여는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박상훈, 2018; 권영애 외, 2020), 핵심역량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정미·이길재·강지연, 2019; 김경리·권준성, 2021; 김지혜, 2021).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는 핵심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김정민·구아름·이상욱, 2017; 김정민·송영선, 2024), 비교과 교육이 핵심역량에 미치는 효과에도 영향을 준다(허영주, 2024). 학생의 교육 참여와 그 성과가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 대학의 제도적·환경적

여건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Astin, 1993; Kuh, 2008), 학생이 비교과 활동 참여 과정에서 인식하는 심리적·환경적 장벽의 수준인 참여 제약 인식은 비교과 교육을 통한 대학생활 만족과 핵심역량 함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위 논의를 토대로 하면, 우선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은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매개로 핵심역량 향상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즉, 비교과 활동 참여 과정에서 인식되는 제약 수준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이러한 긍정적인 대학 경험은 학생 자신의 핵심역량 향상 정도에 대한 인식에도 기여할 수 있다. 동시에,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도를 거치지 않고서도 핵심역량 향상 인식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 역시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학생이 경험하는 비교과 참여장벽이 내적(심리적) 요인인지, 외적(환경적) 요인인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내적·외적)이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역량 향상도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에서는 내적 및 외적 비교과 참여 제약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생활 만족도가 다시 핵심역량 향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 경로를 가정하였다. 아울러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내적·외적)이 대학생활 만족도를 거치지 않고 핵심역량 향상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될 가능성도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대학생의 비교과 참여 경험을 단순한 참여 여부가 아닌, 참여 과정에서 지각되는 제약 인식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역량 향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으며, 이는 관측변수 점수(척도 평균)를 활용한 회귀 기반 매개분석에서 설정한 가설적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회귀 기반 매개분석)

3. 연구의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비교과 활동 참여 과정에서 인식하는 참여 제약을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제약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역량 향상도와 어떠한 관련 구조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한 양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S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생 670명으로, 성별, 학년, 단과대학, 거주유형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포함한다. 본 연구는 단일 시점에서 수집된 설문 자료를 활용한 횡단적(cross-sectional) 연구설계를 적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설문은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의 세 영역과 인구사회학적 배경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7문항)과 대학생활 만족도(40문항), 핵심역량 향상도(36문항)를 포함한 모든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사용된 척도들은 아래 설명과 같이 2016~2018년 교내 정책연구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개별 척도의 신뢰도는 <표 1>과 같고 전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86으로 높게 나타났다.

(1)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척도는 비교과 활동 참여 과정에서 학생이 인식하는 내적·외적 제약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Fredricks et al.(2004), Usher et al.(2008), Astin(1993)의 연구에서 제시된 학습참여 척도에 기반하였다.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은 수줍음, 사회적 고립, 무동기와 같은 학생의 개인 심리적 요인을 반영한 3문항으로,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은 시간 부족, 거리, 참여에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 부족, 원하는 프로그램 부재와 같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수줍음 때문에 비교과 활동 참여가 어렵다”, “함께 할 친구가 없어서 비교과 활동 참여가 어렵다”, “귀찮음 때문에 비교과 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을 묻는 문항이며, “공부·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다”, “통학으로 인해 비교과 활동 참여가 어렵다”, “참여 조건으로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비교과 활동 참여가 어렵다”,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비교과 활동 참여가 어렵다”는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을 묻는 문항이다. 부정 방향으로 진술된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을 분석 과정에서 역코딩(reverse coding)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비교과 참여에 대한 제약 인식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도록 재점수화하였다. 이는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척도는 2018년도 정책연구에서 비교과 요구도 척도와 함께 개발되었으며, 교내 구성원(재학생, 비교과 담당 직원, 교수) 52명 대상 면담조사(FGI) 결과에 바탕한 설문지 초안에 대해 교내 비교과 연구위원회의 전문가 타당도 검토(2회) 및 재학생 대상 예비조사(학과당 10~12명)를 통해 최종 문항이 확정되었다. 최종 문항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CFA)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으며(CFI=.96, RMSEA=.052), 신뢰도(Cronbach's α)는 .884(내적 α =.861, 외적 α =.911)로 나타났다. 문항별 요인부하는 .63~.84 범위로 나타나 측정모형의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대학생활 만족도

대학생활 만족도는 총 4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하위영역은 애교심·소속감(4문항), 학습환경(6문항), 진로·자기개발(4문항), 건강·심리·경제적 안정(5문항), 교내 대인관계(4문항), 교수 지원 및 상호작용(4문항), 시설·복지(6문항), 행정서비스(5문항), 전반적인 평가(3문항)의 9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본 척도는 2016~2017년 교내 정책연구를 통해 개발된 도구로, 문헌고찰 및 타 대학 사례분석을 거쳐 125 문항의 초안을 작성하고, 교내외 교수로 구성된 비교과 연구위원회의 전문가 타당도 검토(2회)와 재학생 110명 예비조사를 통해 최종 문항을 확정하였다. 최종 문항의 모형 적합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CFI = .97, RMSEA = .047), 신뢰도(Cronbach's α)는 .951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석 결과 문항별 요인부하는 .61~.88 범위로 나타나 각 하위요인의 구성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핵심역량 향상도

본 연구에서 핵심역량 향상도는 사전-사후 측정값 차이에 기반한 변화량이 아니라, 핵심역량과 관련해 학습자가 한 해 동안 비교과 참여를 통해 경험한 변화 정도를 것을 의미하며, 연구에 사용된 척도는 2017년 교내 정책연구를 통해 개발되었다. 해당 척도는 초기 250문항의 문항 풀을 바탕으로 교내 비교과 연구위원회의 전문가 1·2차 내용타당도 검토를 거쳤으며, 이후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 분석 및 정제를 거쳐 최종 문항이 확정되었다. 최종 문항의 모형 적합도는 $\chi^2/df = 2.25$, CFI = .95, RMSEA = .056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핵심역량 향상도 척도는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성과 협업(12문항), 창의적 문제해결(12문항), 세계시민의식(12문항)의 3대 핵심역량 영역으로 구분된다. 인성과 협업은 자기 이해와 타인 이해 및 이에 기반한 성공적인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관련된 요소를 포함하며, 비교과 활동 참여를 통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

었다”와 같은 자기 이해 관련 4문항,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와 같은 타인 이해 관련 4문항, “내가 속한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와 같이 공동체 역량 관련 문항 4개를 포함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창의적 문제 해결은 경험·지식·정보의 확장, 융합, 그리고 이에 바탕한 창의적 문제 해결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며, 비교과 활동 참여를 통해 “새로운 지식 습득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확장 역량 관련 문항 4개, “타 전공 분야의 정보와 지식도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융합 역량 관련 문항 4개, “문제를 기존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식을 알게 되었다”와 같은 창의 역량 관련 문항 4개를 포함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세계시민의식은 다문화 이해, 글로벌 시민성 및 책임감 인식과 관련된 요소들을 포함하며, 활동 참여를 통해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와 같은 다양성 역량 관련 문항 4개, “다른 문화를 더 존중하게 되었다”와 같은 공존 역량 관련 문항 4개, “인류 공동의 문제에 보다 관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다”와 같은 공헌 역량 관련 4개 문항을 포함하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연구변수 및 조사도구의 구성과 신뢰도

조사도구	영역	문항구성	문항수	Cronbach's α
참여 제약 인식	내적 요인	수줍음, 사회적 고립, 무동기	3	.861
	외적 요인	시간 부족, 거리, 사전지식 필요, 프로그램 부재	4	.911
대학생활 만족도	애교심·소속감	대학에 대한 자긍심, 소속감, 추천의사 등	4	.934
	학습환경	강의의 질, 과제난이도, 교육과정 구성 등	6	.831
	진로·자기개발	진로계획, 적성·능력 인식	4	.892
	건강심리·경제적 안정	건강, 상담지원, 경제적 부담, 학업일 병행	5	.841
	교내 대인관계	친밀감, 관계만족, 관계 회의감	4	.817
	교수 지원 및 상호작용	교수의 지지, 지도, 존경, 관계 등	4	.875
	시설·복지	시설, 전산, 자연환경, 행정서비스 등	6	.920
	행정서비스	학사행정, 행정서비스 등	4	.901
	전반적인 평가	전체 만족	3	.894
대학 핵심역량	인성과 협업	자기 이해, 타인 이해, 공동체 역량	12	.944
	창의적 문제 해결	경험·지식·정보의 확장, 융합, 창의 역량	12	.916
	세계시민의식	다양성, 공존, 공헌 역량	12	.933

3) 연구절차

조사는 Google Forms를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2025년 11월 10일 ~18일(8일간) 진행하였다. 모집은 대학 홈페이지·비교과 통합관리시스템 공지, 이메일, 문자 발송을 병행하였다. 설문지 서문에는 연구 목적, 응답 방법, 개인정보 보호, 반전 코딩 안내(측정 의도와 점수화 원리) 등을 명시하였다. 자발적 동의 후 응답하도록 하였고, 익명성·비식별성을 보장하였다. 수집 자료는 응답 완성도, 소요시간, 논리적 일관성, 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품질 검증을 수행하여 불성실 응답 21부를 제외한 총 670명의 유효 자료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5.0과 AMOS 24.0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수행하였으며, 분석 목적에 따라 각 통계기법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술통계 및 회귀 기반 분석은 SPSS를 활용하고, 매개효과의 간접경로 신뢰구간 산출과 검증에는 AMOS를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대학생의 성별·학년·단과대학·거주유형에 따른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참여 제약 인식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별에 대해서는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학년, 단과대학, 거주유형에 대해서는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둘째,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내적·외적),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여 자료의 분포 특성과 정규성 가정을 함께 점검하였다.

셋째,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요인이 대학생활 만족도와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내적 참여 제약 인식과 외적 참여 제

약 인식이 각각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β)을 확인하고, 각 회귀모형의 설명력(Adj. R^2)을 산출하였다. 아울러 공차한계(tolerance), 분산팽창지수(VIF), Durbin-Watson 값을 확인하여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점검하였다.

넷째, 대학생활 만족도가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과 핵심역량 향상도 간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회귀 기반 매개분석 절차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교육학 및 사회과학 연구에서 변수 간 매개 관계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적인 분석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매개 효과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데 유용한 절차로 알려져 있다 (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Hayes, 2013). 먼저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종속변수인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를 검증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매개효과의 존재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변수를 통해 전달되는지를 단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Sobel 검정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Sobel, 1982). 이어서 회귀 기반 매개분석 결과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 기법(5,000회 반복,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CI) 산출을 목적으로 AMOS 24.0 프로그램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잠재변수를 포함한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가 아니므로, AMOS는 회귀 기반 매개분석에서 산출된 간접효과의 통계적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완적 도구로만 사용되었다.

4.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대학생이 비교과 활동 참여 과정에서 인식하는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내적·외적)이 대학생활 만족도와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학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성별, 학년, 단과대학, 거주유형 등 배경변인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와 변수 간 상관관계를 함께 확인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배경 변인별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차이

대학생의 성별, 학년, 단과대학, 거주유형에 따라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에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t=2.651, p<.01$). 대학생활 만족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나($t=2.813, p<.01$), 핵심역량 향상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학년 간 차이는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F=.574, p>.05$), 대학생활 만족도($F=.524, p>.05$), 핵심역량 향상도($F=.027, p>.05$)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과대학에 따른 차이 역시 세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이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특정 전공 영역에 편중되지 않고, 전교적 수준에서 고르게 운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거주 유형(기숙사, 자취, 통학)에 따라서는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F=3.94, p<.05$)과 대학생활 만족도($F=5.1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기숙사 거주 학생은 참여 제약 인식 평균이 다른 집단보다 높게 나타으며, 대학생활 만족도 평균 역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반면, 핵심역량 향상도에서는 거주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0.46, p>.05$).

<표 2> 배경변인에 따른 주요 변수 차이 (N=670)

변인	세부사항	N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M	SD	t 또는 F	M	SD	t 또는 F	M	SD	t 또는 F
성별	남	256	3.79	.57	2.65**	3.99	.89	2.81**	4.04	.74	.38
	여	414	3.61	.60		3.83	.83		4.02	.68	
학년	1학년	188	3.62	.59	.57	3.97	.85	.52	4.03	.68	.027
	2학년	183	3.68	.56		3.88	.82		4.02	.73	
	3학년	164	3.73	.57		3.75	.93		4.02	.70	
	4학년	135	3.77	.61		3.96	.81		4.04	.70	
단과대	미디어랩스	88	3.81	.51	2.13	3.84	.84	1.93	4.01	.68	1.09
	인문사과학	106	3.73	.56		3.95	.81		4.08	.67	
	글로벌경영	85	3.69	.58		3.99	.85		4.12	.70	
	자연과학	82	3.71	.60		3.82	.93		3.98	.72	
	공과대	130	3.82	.55		3.93	.90		4.03	.72	
	의과대학	68	3.59	.63		3.89	.91		4.01	.72	
	의과대	34	3.75	.58		3.69	.76		3.77	.70	
	SW융합대	77	3.74	.55		3.85	.79		4.06	.71	
거주유형	기숙사	268	3.75	.58	3.94*	4.05	.77	5.14*	4.17	.65	.46
	자취	194	3.49	.63		3.79	.90		4.12	.68	
	통학	208	3.70	.58		3.67	.80		3.85	.74	

주) 성별은 t-검정 결과(t값)를, 학년·단과대·거주유형 같은 세 집단 이상 비교는 일원분산분석 결과(F값)를 제시함.

* $p<.05$, ** $p<.01$, *** $p<.001$

2)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분포 특성과 다변량 분석의 기본 가정을 점검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그 결과, 모든 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적절한 범위에 있었으며, 왜도는 -0.61~0.18, 첨도는 -0.76~0.06 범위로 나타나 정규분포 가정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이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위한 통계적 가정이 충족되었다. 모든 변인의 평균은 3.24~3.87 범위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 수준을 보였고, 특히 내적 참여 제약 인식($M=3.87$, $SD=0.54$)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외적 참여 제약 인식($M=3.24$, $SD=0.61$)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3>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N=670$)

변수	M	SD	왜도	첨도
1. 내적 참여 제약 인식	3.87	0.54	0.177	-0.673
2. 외적 참여 제약 인식	3.24	0.61	-0.100	-0.568
3. 대학생활 만족도	3.68	0.49	-0.101	-0.720
4. 핵심역량 향상도	3.74	0.45	-0.617	0.067

다음으로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표 4>), 분석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p<.001$). 특히 내적 참여 제약 인식과 대학생활 만족도 간 상관($r=.62$)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핵심역량 향상도는 내적 참여 제약 인식($r=.58$), 대학생활 만족도($r=.53$), 외적 참여 제약 인식($r=.44$) 순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모든 상관계수가 .7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었으며, 변수 간 관계는 앞서 언급한 연구모형에 부합하였다. 즉,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은 대학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핵심역량 향상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직접적·보조적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연구변수의 상관계수 ($N=670$)

변수	내적 참여 제약 인식	외적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1. 내적 참여 제약 인식	—			
2. 외적 참여 제약 인식	.41***	—		
3. 대학생활 만족도	.62***	.48***	—	
4. 핵심역량 향상도	.58***	.44***	.53***	—

* $p<.05$, ** $p<.01$, *** $p<.001$

3)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역량 향상에 미치는 직접효과

본 분석은 각 변인을 관측변수 점수(문항 평균)로 처리한 회귀 기반 분

석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으며, 내적 참여 제약 인식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이 각각 대학생활 만족도와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먼저 대학생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beta=.542, p<.001$)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217, p<.001$)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의 영향력이 외적 참여 제약 인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교과 활동 참여 과정에서 내적·외적 제약을 덜 인식할수록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회귀모형의 설명력($Adj. R^2=.386$)은 대학생활 만족도의 약 38.6%가 두 제약 인식 변인에 의해 설명됨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핵심역량 향상도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내적 참여 제약 인식($\beta=.318, p<.001$)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149, p<.001$)은 모두 유의한 설명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확인되었다. 이는 비교과 참여와 관련해 인식되는 제약 수준이 학생 스스로 평가하는 비교과 참여를 통한 핵심역량 향상도와 통계적 연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Adj. R^2=.293$)으로 나타났다. 모든 독립변수의 공차(tolerance)는 .57~.74, 분산팽창지수(VIF)는 1.35~1.74 범위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rbin-Watson 값(1.98)은 잔차의 자기상관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 역시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내적·외적 참여 제약 인식의 직접효과 검증 ($N=670$)

구분	독립변수	β	t	p	$Adj. R^2$
대학생활 만족도	내적 참여 제약 인식	.542	13.82	.000	.386
	외적 참여 제약 인식	.217	5.69	.000	
핵심역량 향상도	내적 참여 제약 인식	.318	7.84	.000	.293
	외적 참여 제약 인식	.149	3.91	.000	

4) 대학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1) 회귀 기반 매개효과 검증(Baron & Kenny 및 Sobel 검정)

Baron과 Kenny가 제시한 회귀 기반 3단계 매개분석 절차를 적용하여 (Baron & Kenny, 1986), 내적·외적 참여 제약 인식과 핵심역량 향상도 간의 관계에서 대학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표 6> 참조).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 내적·외적 참여 제약 인식이 종속변수인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총효과(total effect)를 검증하였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인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핵심역량 향상도에 대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obel 검정을 통해 추가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내적 참여 제약 인식($\beta=.487, p<.001$)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339, p<.001$)은 모두 핵심역량 향상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 2단계에서는 내적 참여 제약 인식($\beta=.542, p<.001$)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217, p<.001$)이 모두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비교과 참여 과정에서 개인적·심리적 제약을 덜 인식할수록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3단계 분석에서 대학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의 회귀계수는 $\beta=.487$ 에서 $\beta=.293$ 으로,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의 회귀계수는 $\beta=.339$ 에서 $\beta=.128$ 로 각각 감소하였으나, 두 변수 모두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또한 대학생활 만족도 역시 핵심역량 향상도에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beta=.357, p<.001$).

Sobel 검정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z=6.874, p<.001$)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z=4.982, p<.001$)의 간접효과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를 포함한 모형에서 두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감소하되 유의성을 유지하여 부분매개가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한편, 분석 결

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성별, 학년, 단과대학, 거주유형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추가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주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효과는 모두 기존 분석 결과와 동일한 방향과 유의수준을 유지하였다.

<표 6> 대학생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N=670)

단계	종속변수	독립변수	β	t	p	매개유형
1단계	핵심역량 향상도	내적 참여 제약 인식	.487	12.31	.000	총효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	.339	8.57	.000	총효과
2단계	대학생활 만족도	내적 참여 제약 인식	.542	13.82	.000	-
		외적 참여 제약 인식	.217	5.69	.000	-
3단계	핵심역량 향상도	내적 참여 제약 인식	.293	7.22	.000	부분매개
		외적 참여 제약 인식	.128	3.26	.001	부분매개
		대학생활 만족도	.357	9.08	.000	-

Sobel 검정: $z(\text{내적})=6.874, p<.001$ / $z(\text{외적})=4.982, p<.001$

(2) Bootstrapping 기반 병렬 매개모형 검증

내적·외적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대학생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 기반 매개분석 결과를 토대로 Bootstrapping 기법(5,000회, 95% 신뢰구간)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이 대학생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19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95% 신뢰구간 [.128, .268]은 0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이 핵심역량 향상도에 미치는 영향 중 일부가 대학생생활 만족도를 통해 전달됨을 의미한다. 해당 경로에서 직접효과는 $\beta=.293$ 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효과 중 간접효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9.6%였다. 한편,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의 경우에도 대학생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beta=.089$ 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95% 신뢰구간 [.047, .152] 역시 0을 포함하지 않

았다.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의 전체 효과 중 간접효과 비율은 약 40.9%로 산출되었다. 다만 간접효과의 크기는 내적 참여 제약 인식 경로보다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종합하면,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내적·외적 참여 제약 인식 모두 대학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핵심역량 향상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매개 구조가 확인되었다. 두 경로 모두에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가 동시에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은 외적 참여 제약 인식에 비해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에서 더 큰 계수를 보였다(직접효과: $\beta=.293$ vs. $\beta=.128$, 간접효과: $\beta=.192$ vs. $\beta=.089$).

<표 7> Bootstrapping 기반 병렬 매개모형 검증 결과

경로	직접효과(β)	간접효과(β)	95% CI (하한-상한)	매개유형	간접효과 비율(%)
내적 참여 제약 인식 → 핵심역량 향상도	.293	.192	[.128, .268]	부분매개	39.6
외적 참여 제약 인식 → 핵심역량 향상도	.128	.089	[.047, .152]	부분매개	40.9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S대학교 재학생 670명을 대상으로, 비교과 활동 참여 제약(내적·외적)에 대한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그리고 핵심역량 향상도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성별 및 거주 유형에 따라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외적 참여 제약보다 내적 참여 제약에 대한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역량 향상도와 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은 대학생활 만족도와 핵심역량 향상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두 경우 모두 외적 참여 제약보다는 내적 참여 제약에 대한 인식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효과 검증에서는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핵심역량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대학생활 만족도가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적·외적 참여 제약 인식

을 병렬로 분석한 결과, 두 요인 모두에서 대학생활 만족도가 유의한 매개 효과를 나타냈고,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의 간접효과($\beta=.192$)가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08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의 내재적 동기와 심리적 몰입이 핵심역량 발달의 중심적 경로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보면, 배경 변인별로는 성별과 거주유형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분석에서 남학생의 참여 제약 인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t=2.651, p<.01$), 남학생의 대학생활 만족도가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2.813, p<.01$). 학년과 단과대학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이는 비교과 활동이 전공 영역이나 학년과 관계없이 비교적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유형의 경우, 기숙사 거주 학생이 자취 및 통학 학생보다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과 대학생활 만족도 모두 높은 평균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Astin(1993)의 ‘학생참여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물리적·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생활환경이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몰입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개념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핵심역량 향상도에서는 거주유형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비교과 활동을 통한 역량 성장은 거주 형태보다는 개인적 동기나 참여의 질적 요인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비교과 활동 참여의 외적 제약 요인에 대한 인식이 내적 제약 요인에 대한 인식보다 낮게(부정적으로) 나타난 점은, 활동 참여를 위한 시간 부족,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원하는 활동의 부재와 같은 외적(환경적) 장벽을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 미참여의 주된 요인으로 보고하는 국내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김수연 외, 2016; 엄진경, 2021; 차혜경, 2022; 박지연 외, 2024). 그러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외적 참여 제약 인식보다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향상도 모두와 유의하게 더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와 관련하여 먼저 참여 제약 인식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beta=.542$, $t=13.82$, $p<.001$)은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217$, $t=5.69$, $p<.001$)보다 대학생활 만족도에 약 2.5배 높은 영향을 미쳤다. 두 변인의 설명력(*Adj. R*²=.386)은 대학생활 만족도의 약 38.6%가 참여제약인식으로 설명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비교과 활동에 자율적이고 흥미 중심으로 참여하는 학생일수록 대학생활의 전반적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학업·정서·사회적 측면에서 더 높은 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Deci et al.(1985)의 자기결정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에서 제시하는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의 욕구 충족이 학습동기를 강화한다는 논지와 부합한다. 또한 Astin(1993)의 학생참여이론(Student Involvement Theory)에서 주장하듯, 학습의 질은 학생이 학습 경험에 투입하는 심리적 에너지의 깊이에 비례한다는 점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이론적 일관성을 지닌다.

이어서,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핵심역량 향상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검증한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beta=.318$, $t=7.84$, $p<.001$)은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149$, $t=3.91$, $p<.001$)에 비해 약 두 배 큰 영향을 보였다. 모형의 설명력(*Adj. R*²=.293)은 학생 스스로 평가한 비교과 참여 후 핵심역량 향상도의 약 29.3%가 두 참여 제약 인식 요인에 의해 설명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비교과 활동 참여의 내적 동기 수준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습 경험을 자기주도적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고, 그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력, 협업능력, 세계시민의식 등 대학 핵심역량의 유의한 향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이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습자의 자기조절적 신념이 학습행동의 지속성과 성취 수준을 결정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Usher et al.(2008) 역시 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내적 몰입과 학습성과를 예측하는 주요 요인임을 밝힌 바 있으며, 본 연구 결과는 비교과 맥락에서도 이러한 심리적 기제가 동일하게 작동함을 입증한다.

넷째, 대학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3단계 회귀분석 절차를 적용한 결과, 1단계에서 내적 참여 제약 인식($\beta=.487, p<.001$)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339, p<.001$) 모두 핵심역량 향상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2단계에서는 내적 참여 제약 인식($\beta=.542, p<.001$)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beta=.217, p<.001$)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대학생활 만족도를 동시에 투입한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의 회귀계수는 $\beta=.487$ 에서 $\beta=.293$ 으로,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의 회귀계수는 $\beta=.339$ 에서 $\beta=.128$ 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유의한 수준을 유지하였고($p<.001$), 대학생활 만족도 역시 핵심역량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beta=.357, p<.001$). Sobel 검정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z=6.874, p<.001$)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z=4.982, p<.001$) 모두 유의한 값을 보여, 대학생활 만족도가 두 종류의 참여 제약 인식과 핵심역량 향상 간 관계를 부분적으로 매개(partial mediation)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확인된 매개 관계의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Bootstrapping(5,000회, 95% 신뢰구간) 기반의 병렬 매개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향이 관찰되었다.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이 핵심역량 향상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beta=.192$ 로 나타났으며, 95% 신뢰구간 [.128, .268]이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의 간접효과는 $\beta=.089$ 로, 신뢰구간 [.047, .152]에서도 동일하게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두 경로 모두 부분매개 구조를 보였으며, 전체 효과 중 간접효과가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은 39.6%, 외적 참여 제약 인식은 40.9%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대학생활 만족도가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비교과 참여자가 지각하는 핵심역량 향상에 대한 효과를 강화하는 심리적 촉매(emotional catalyst)로 작용함을 보여주며, 특히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이 외적 참여 제약 인식보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모두에서 더 높은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비교과 활동에서의 자율성과 자기결정성이 비교과 참여자가 지각하는 핵심역량 향상에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종합하자면,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은 외적 참여 제약 인식에 비해 더 높은 직접효과($\beta=.318$)와 간접효과($\beta=.192$)를 핵심역량 향상도에 대해 나타냈으며, 두 요인 모두 대학생활 만족도를 통해 부분매개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Deci 와 Ryan의 자기결정이론과 Astin의 학생참여이론을 동시에 지지하며(Deci et al., 1985; Astin, 1993), 비교과 참여가 학습자의 심리적 동기와 정서적 몰입을 통해 핵심역량 발달로 이어지는 경로를 명확히 제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S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단일 대학 표본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전체 대학생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횡단적 설계를 기반으로 하여 시간적 인과성을 명확히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 연구를 통해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과 핵심역량의 변화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비교과 참여의 누적 효과를 동태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양적 분석에 국한되어 있어 학생의 심리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또는 혼합연구를 병행하여, 참여 제약 인식이 심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는지를 심층적으로 탐색해야 한다. 넷째, 비교과 외에도 교과 및 생활환경(예: RC 프로그램, 상담, 멘토링 등)과의 상호작용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다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대학은 학생의 자율성과 유능감을 촉진하는 참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프로그램 참여의 강제성보다 자기결정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설계(예: 자기설계 비교과, AI 추천 기반 학습 로드맵 등)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이 외적 참여 제약 인식보다 핵심역량 향상에 더 강한 직접·간접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학생이 비교과 참여 과정에서 경험한 의미와 가치 인식이 이후 비교과 참여의 내적 동기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모듈형·로드맵형 구조의 비교과 교육 체계의 도입은 프로그램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생의 성취 경험

이 누적되게 할 수 있을 것이다(강동희 외, 2022; 차정민, 2024). 셋째, 비교과 성과평가는 단순 참여율·만족도 중심의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학습 몰입, 자기효능감, 심리적 성장의 변화를 포괄하는 질적·혼합형 평가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Pascarella et al., 2005).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심리적, 환경적 비교과 참여 제약에 대한 인식 → 대학생활 만족도 → 비교과 참여를 통해 지각된 핵심역량 향상의 구조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비교과 참여의 “양”보다 “질”이 대학생의 성장 경험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대학의 비교과 정책은 프로그램의 수적 확대보다는 학생의 내적 동기, 자율성,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기숙형 학습공동체, 자기설계 비교과, AI 기반 개인화 추천과 같은 자율적 참여 환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비교과 교육의 평가는 단순 참여율이나 만족도의 수준을 넘어, 참여의 질적 경험과 정서적 성장, 학습 몰입의 변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은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생활환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총체적 학습생태계(holistic learning ecosystem)를 구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핵심역량 발달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단행본

- Astin, A. W. *What Matters in College? Four Critical Years Revisit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1993.
- Bandura, A.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NY: W. H. Freeman, 1997.
- Cross, K.P. *Adults learners: Increasing Participation and facilitating learning*,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shers. 1981.
- Deci, E. L. & Ryan, R. M.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1985. <https://doi.org/10.1007/978-1-4899-2271-7>
- Ehlers, U.-D. *Future Skills - The Future of Learning and Higher Education*, Karlsruhe, Germany: Springer, 2020.
- Hayes, A. F.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 Based Approach*, New York, NY: Guilford Press, 2013.
- OECD. *Suggestions for an OECD key competencies framework*, OECD/EDU/EDPC/RD(2015)25, OECD, 2015.
- Pascarella, E. T. & Terenzini, P. T.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5.
- The World Economic Forum. *The Future of Jobs Report*, Cologny/Geneva, Switzerland: World Economic Forum, 2016.
https://www3.weforum.org/docs/WEF_Future_of_Jobs.pdf
- Trilling, B. & Fadel, C.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San Francisco, CA: Jossey-Bass, 2009.
- UNESCO. *Reimagining our futures together: a new social contract for education*, Paris: UNESCO, 2021.

논문

- 강동희·김나영·정문숙·유현주, 「핵심역량 기반의 비교과 교육과정 체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 Y대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4권 4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2, 263-278쪽.
- 강민수·윤희원, 「대학생활 만족도, 진로발달 및 직업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5권 4호, 안암교육학회, 2019, 1-29쪽.
- 구성우·김병주, 「전공만족도를 매개로 개인 및 대학재정변인이 대학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재정경제연구』 31권 4호,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22, 21-42쪽.
- 권영애·박혜진, 「학업중단 학생의 특성과 대학생활만족의 영향관계 탐색: K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2권 12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0, 171-191쪽.
- 기희경·강승희·윤채영·이은화, 「대학생의 대학생활만족도 변화 추이와 영향 요인」, 『대학 교수-학습 연구』 14권 1호, 대학교육개발센터협의회, 2021, 1-26쪽.
- 김경리·권준성, 「비교과 교육과정 참여에 따른 대학생 역량 및 인식 연구」, 『교양학 연구』 14권, 중앙대학교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63-93쪽.
- 김성식, 「대학생들의 학업중단 및 학교이동에 대한 탐색적 분석: 대학선택요인과 대학생활 만족도의 영향」, 『한국교육』 35권 1호, 한국교육개발원, 2008, 227-249쪽.
- 김수연·이명관,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식 및 수요조사를 통한 운영방향성 제고」,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권 9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6, 585-609쪽.
- 김연, 「대학 비교과 교육과정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논의 -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4권 10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2, 249-264쪽.
- 김정민·구아름·이상욱, 「대학 신입생의 핵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적 지원,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12권 1호, 한국웰니스학회, 2017, 251-261쪽.
- 김정민, 「대학에서의 비교과의 역할과 위상」, 『비교과교육연구』 1권 1호, 한국비교과교육학회, 2020, 1-21쪽.

- 김정민·구아름, 「대학생의 중도탈락에 관한 경험과 의미: KI법을 통한 사례연구」, 『교육문화연구』 27권 3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1, 183-202쪽.
- 김정민·류선주, 「대학생 핵심역량과 대학생활 만족도에 관한 종단연구」, 『아시아 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0권 7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4, 689-701쪽.
- 김정민·송영선, 「대학생의 대학 생활 만족도와 적응도가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권 17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75-92쪽.
- 김지혜, 「비교과 프로그램과 핵심역량과의 관계 -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유무에 따른 핵심역량차이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8권 1호, 협성대학교 교양학연구소, 2021, 15-40쪽.
- 노경란·허선주, 「청년층의 대학 전공선택 동기별 대학생활만족도, 대학생활특성과 취업성과 간의 다집단분석」, 『평생학습사회』 17권 1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원, 2021, 199-220쪽.
- 박상훈, 「학생 중심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대학 생활 만족도 제고: S 대학 사례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13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1-20쪽.
- 박수복·김희수, 「대학생활만족이 진로정체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광주·전남지역 4년제 대학생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8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8, 261-275쪽.
- 박지연, 「대학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식 및 요구 분석: k대학교를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4권 9호, 인문사회예술융합학회, 2022, 249-265쪽.
- 설연경, 「‘변혁적 역량기반(Transformative Competencies)’ 미래지향적 교육 설계방안」, 『교양교육연구』 14권 3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0, 25-38쪽.
- 손승남·김인영·송하석·이재성·최예정, 「고등교육에서의 역량기반 교육과 핵심역량」, 『교양교육연구』 15권 1호, 한국교양교육학회, 2021, 11-30쪽.
- 엄진경, 「비교과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생 인식 및 수요조사 연구: j대학교를 중심으로」, 『비교과교육연구』 2권 1호, 한국비교과교육학회, 2021, 1-23쪽.
- 오수경·임다미,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결정과 활동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탐색: 연구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44권 4호, 충남

- 대학교 교육연구소, 2023, 165-204쪽.
- 이상은·소경희,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권 1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19, 139-164쪽.
- 이정미·이길재·강지연, 「비교과 교육과정이 대학생의 핵심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권 2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19, 355-375쪽.
- 이하연·고주은·주민호, 「COVID-19로 인한 비대면 학습 환경에서 대학생의 학교 소속감과 대학생활만족도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신로교육연구』 34권 1호, 한국신로교육학회, 2021, 231-251쪽.
- 이하정·박미라·윤지원, 「대학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학풍토, 교수-학생상호작용, 직업탐색,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권 3호, 인문사회21, 2022, 1737-1750쪽.
- 차정민, 「핵심역량별 비교과 로드맵 도출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및 성과 분석: H대학의 사례」,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권 1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351-372쪽.
- 차혜경, 「비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재학생의 인식 및 요구 분석에 따른 대학교육의 방향성 정립」,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권 1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251-277쪽.
- 허영주, 「교육과정 만족도가 핵심 및 전공역량에 미치는 영향: 대학생활적응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핵심역량교육연구』 9권 2호, 한국핵심역량교육학회, 2024, 191-215쪽.
- Baron, R. M. & Kenny, D. A.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1, no. 6, 1986, pp. 1173-1182.
- Fredricks, J. A., Blumenfeld, P. C. & Paris, A. H. "School engagement: Potential of the concept, state of the evidence".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vol. 74, no. 1, 2004, pp. 59-109.

- Kuh, G. D. "The other curriculum: Outofclass experiences associated with studen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vol. 66, no. 2, 1995, pp. 123-155.
- MacKinnon, D. P., Fairchild, A. J. & Fritz, M. S. "Mediation analysi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58, 2007. pp. 593-614.
- Schaufeli, W. B., Salanova, M., González-Romá, V. & Bakker, A. B. "The measurement of engagement and burnout: A two sample confirmatory factor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vol. 3, no. 1, 2022, pp. 71-92.
- Sobel, M. E. "Asymptonic Confidence Intervals for Indirect Effects in Stru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ology*, vol. 13, 1982, pp. 290-321.
- Usher, E. L. & Pajares, F. "Self-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A validation study",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vol. 68, no. 3, 2008, pp. 443-463.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인식하는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이 대학생활 만족도 및 핵심역량 향상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변인 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S대학교 재학생 670명이며, 설문 자료를 SPSS 25와 AMOS 24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성별과 거주유형에 따라 대학생활 만족도와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비교과 참여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기숙사 거주 학생이 자취 또는 통학생보다 대학생활 만족도와 참여 제약 인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반면, 핵심역량 향상도에서는 성별과 거주유형에 따른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이 외적 참여 제약 인식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두 변인은 모두 대학생활 만족도와 핵심역량 향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셋째, 회귀분석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은 외적 참여 제약 인식보다 대학생활 만족도와 핵심역량 향상에 더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분석 결과, 내적 참여 제약 인식과 외적 참여 제약 인식 모두에서 부분매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대학생활 만족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가 내적 참여제약인식에서 외적 참여제약 인식보다 크게 나타나, 내재적 동기가 핵심역량 발달의 주요 심리적 경로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비교과, 참여 제약 인식, 대학생활 만족도, 핵심역량

■ Abstract

Relationships among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Co-curricular Participation Constraints,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ore Competency Development – A Case Study of S University

Hai-In Jung / Soonchunhyang University

Joungmin Kim / Soonchunhyang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college students’ co-curricular perceived participation constraints (intrinsic and extrinsic),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ore competency development, while also identifying differences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ticipants were undergraduate students from S University,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 and AMOS 24. The results revealed that gender and residential type significantly affected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participation constraints. Male students demonstrated a more active attitude toward co-curricular participation than female students, while dormitory residents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perceived participation constraints compared to students living off-campus or commuting. In contrast,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competency development across gender or residential types. Perceived intrinsic participation constraints were generally higher than extrinsic ones, and both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college life satisfaction and competency development.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intrinsic attitudes had a stronger effect on both satisfaction and competency than extrinsic attitudes. Mediation testing confirmed that college life satisfaction partially mediated the effects of both types of perceived participation constraints on competency development.

Bootstrapping further verified that the indirect effect through satisfaction was greater for intrinsic motivation, suggesting that intrinsic engagement serves as a primary psychological pathway for enhancing student competencies.

Keyword • Co-curricular Activities, Perceived Participation Constraints, College Life Satisfaction, Core Competencies.

한글 교재로서의 『훈민정음』의 특징*

백 낙 천**

목 차

1. 머리말
2. 본문
 - 1) 한글 교재로서의 ‘약예의’
 - 2) 한글 교재로서의 『훈민정음』 해례본
 - 3) 한글 교재로서의 『훈민정음』 언해본
3. 맺음말

1. 머리말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세종이 창제한 문자 이름으로서의 의미와 문헌 이름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이 중에서 문헌으로서의 『훈민정음』은 해례본과 언해본을 아우르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해례본)은 1446년(세종 28) 음력 9월 상한에 33장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으로 창제 목적과 제자 원리를 설명한 한문본 해설서이다. 해례본은 「어제 서문」,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보 70 호이자 1997년 10월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적·세계적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훈민정음』 언해본(이하 언해본)은 해례본

* 본 논문은 2025학년도 배재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됨.

** 배재대학교 국어국문한국어교육학과 교수

의 「어제 서문」과 자모의 음가와 운용 방법을 설명한 「예의」 부분을 우리말로 풀이한 것에 중국어의 치두, 정치음 규정을 추가하여 실은 것으로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이른 판본은 1459년에 목판본으로 간행한 『월인석보』(권1·2)의 권두에 실려 전한다.¹⁾

그동안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는 여러 방면에서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특히, 1940년 7월 해례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훈민정음』 원본에 대한 확정은 일단락되었으며(최현배, 1942/1961:29-37), 이기문(1974), 안병희(1976, 1990)의 논의를 통해 해례본과 언해본의 내용과 구조에 대한 부분도 소상하게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정우영(2001, 2005), 백두현(2023) 등의 구체적 연구로 종합·정리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되, 『훈민정음』이 한글 자모의 자형을 익히고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하여 글을 읽고 쓰는 데에 도움을 주는 한글 교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그 특징을 기술하고자 한다.²⁾ 그동안 『훈민정음』은 우리말과 글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한 문헌 자료로서 다루어져 왔으나 세종의 창제 정신을 고려해 본다면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한글 교재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한글 교재로서 『훈민정음』이 갖는 특징과 그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 『훈민정음』의 한글 교재로서의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책 『훈민정음』에는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본>이 유일본이다. 2008년 7월에 <상주본>이 발견되었다고 하나 그 실체가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다. 언해본은 『월인석보』 원간본에 실린 <서강대본> 외에도 <희방사본>은 1568년(선조 1)에 간행된 『월인석보』 복각본에 실려 전한다. 한편, <박승빈 구장본>은 첫 장이 보사(補寫)된 것으로 <서강대본>과 일치하며, 그 외 일본 <궁내청본>, <고미자와 대학본>, <한중연본>, <일사문고본>, <가람문고본> 등은 필사본이다.

2) 본고에서의 ‘한글 교재’는 한글 자모의 자형 및 자음자와 모음자를 합쳐 음절자를 만드는 방법과 이를 바탕으로 읽고 쓰는 데까지 나아가는 한글 학습용 교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2. 본문

1) 한글 교재로서의 ‘약예의’³⁾

훈민정음이 창제되었지만 이 문자를 가르칠 제대로 된 교육 시설을 갖추지 못했던 창제 초기에 한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이때에 한글 교재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에 대해 다음의 기사는 매우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한다.

(1) 가. 이달에 임금이 친히 언문 28자를 지었는데, 그 글자가 옛 문자(篆字)를 모방하고, 초성·중성·종성으로 나누어 합한 연후야 글자를 이루었다. 무릇 문자에 관한 것과 이어(俚語)에 관한 것을 모두 쓸 수 있고, 글자는 비록 간단하고 긴요하지 마는 전환하는 것이 무궁하니, 이것을 훈민정음이라고 일렀다.(是月 上親制諺文二十八字 其字倣古篆 分爲初中終聲 合之然後乃成字 凡于文字及本國俚語 皆可得而書字雖簡要 轉換無窮 是謂 訓民正音) <세종실록 1443(세종 25년) 12월 30일>⁴⁾

나. 계해년 겨울에 우리 전하께서 정음 28자를 창제하시고 간략하게 예의를 들어 보이시고 이를 ‘훈민정음’이라 하였다.(癸亥冬 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 略揭例義以示之 名曰 訓民正音) <훈민정음 해례본(1446), 정인지 서문>

(1가,나)는 세종이 1443년에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1가)는 세종이 친히 언문 28자를 만들었고⁵⁾ 그 글자는 고전

3) 백두현(2023:190)에서는 ‘약계예의’를 줄여 ‘약예의’라고 했는데, 한글 교재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로는 ‘약예의’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4) 이후 본고의 국문 실록 기사는 <국역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에서 발췌한 것이다.

5) ‘上親制諺文’이라고 하여 세종이 친히 언문을 창제했다고 한 것, 세종 자신도 언문이

(古篆)을 본떴으며, 초성, 중성, 종성으로 나누어졌고, 이들을 합한 후에 글자를 이룬다고 하였다. 또한, 한자와 우리말을 다 적을 수 있고 글자가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갖추고 있으며 전환이 무궁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훈민정음이라고 하여 신문자 창제의 주체와 문자 체계 및 그 특성을 밝혔다. (1나)는 해례본의 「정인지 서문」으로 세종이 1443년에 직접 훈민정음 28자를 창제하고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였다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약예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1가, 나)는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된 기사이고 (1가)와 (1나)의 맥락으로 볼 때, (1가)는 (1나)에서 언급한 ‘약예의’의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1446년에 간행된 해례본의 「예의」 부분이 신문자⁶⁾ 28자의 자형과 그 음가를 설명한 것이므로 그보다 3년 전인 1443년에 훈민정음 창제를 기록한 (1나)에서 ‘약예의’는 해례본의 「예의」에 앞서서 간략하게 지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때, ‘약예의’에는 신문자의 자형과 음가 및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를 합쳐 쓰는 방법이 제시되었을 것이다. 즉, ‘약예의’는 신문자의 음가와 그 운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담은 내용으로서, 해례본이 간행되기 전에 해례본의 「예의」에 해당하는 내용의 초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⁷⁾

라고 칭하였다는 것(以諺文譯韻會, 세종실록 1444(세종 26년) 2월 16일), 훈민정음을 반포하고 처음 설치한 것이 언문청이었다는 것을(遂置諺文廳, 세종실록 1446(세종 28년) 11월 8일) 고려할 때, 이때의 언문에는 비칭의 의미가 없으며, 당시에는 우리말을 적는 글자라는 의미로 쓰였다.

6) 본고에서는 훈민정음이라는 용어 외에도 신문자, 한글이라는 용어도 문맥에 따라 함께 사용할 것이다.

7) 이기문(1974:2-3)에서는 ‘약예의’를 ‘原文’이라고 칭했으며, 이는 신문자의 체계와 운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 것으로서 「예의」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 김주필(2020)에서는 ‘약예의’의 ‘예의’를 예(例)를 보이고 그 예의 의(義)를 같이 제시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신문자의 음가와 사용법을 고유어 어휘를 들어 알려주는 내용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최근 백두현(2023:189-200)에서는 ‘약예의’를 해례본의 「예의」와 비교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약예의’를 훈민정음의 원형이자 원본이라고 하면서 적극적 차원에서 ‘약예의’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세종은 이 ‘악예의’를 만들어 신하들에게 보여 주고 설명하면서 신문자를 널리 알리고 가르치는 데에 방편으로 삼았을 것이다. 물론, ‘악예의’를 어떤 방법으로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른 시기 훈민정음 교육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았다는 것은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 가. 이제 넓게 여러 사람의 의논을 채택하지도 않고 갑자기 이배(吏輩) 10 여 인으로 하여금 가르쳐 익히게 하며, 또 가볍게 옛사람이 이미 이룩한 운서(韻書)를 고치고 근거 없는 언문을 부회(附會)하여 공장(工匠) 수십 인을 모아 각본(刻本)하여서 급하게 널리 반포하려 하시니, 천하 후세의 공의(公議)에 어찌 하겠습니까?(今不博採群議 驟令吏輩十餘人訓習 又輕改古人已成之韻書 附會無稽之諺文 聚工匠數十人刻之 劇欲廣布 其於天下後世公議何如) <세종실록 1444(세종 26년) 2월 20일>
- 나.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이원(吏員)이 둘로 나누어질 것이옵니 다. 진실로 관리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立身)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고심 노사하여 성리의 학문을 궁리하려 하겠습니까?”(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세종실록 1444(세종 26년) 2월 20일>

(2가,나)는 최만리의 훈민정음 반대 상소로 알려진 기사의 일부로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두 달도 안 된 1444년에 상소를 올린 것으로 보아 이

상소문은 이기문(1974:2)의 언급대로 ‘약예의’에 대한 최만리의 반론적 성격을 지닌다고 봐야 할 것이다.⁸⁾ (2가)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두 달이 지나지 않아 관아의 이서 무리 10여 인에게 신문자를 가르쳐 익히게 하였다는 점에서 한글 학습과 관련한 최초의 기록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즉, 이때는 해례본이 편찬되기 이전이었음에도 이서들을 위한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나아가 공방의 장인들에게 언문 활자를 새기게 했다는 기록도 확인되는데, 이러한 공정이 이루어지려면 장인들의 신문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려운 일이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이 신문자를 익히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글 교재가 필요했을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앞서 (1나)에서 1443년(세종 25) 12월에 정인지가 언급한 ‘약예의’와 (2가,나)에서 1444년 2월에 최만리 등의 이른바 갑자상소문에 언급된 내용에 근거할 때, ‘약예의’ 외에 달리 상정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서들이 신문자를 익히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약예의’가 될 것은 비교적 분명해 보이며, 이 ‘약예의’가 이서들의 한글 교재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때 ‘약예의’에 담겼을 내용은 (1가)에 기록된 신문자의 자형과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합자 정도일 것이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서들의 한글 교육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같은 기사 내용인 (2나)의 ‘二十七字諺文’에 근거해서 추론하면 이미 ‘언문 27자’가 있었으며 이 언문 자모를 익히는 정도로 한글 학습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⁹⁾ 이와 관련하여 강창석(2014:42)에서는 ‘언

8) 사실 최만리가 신석조, 김문, 정창손 등과 함께 반대 상소를 하게 된 것은 『운회』의 개정과 언해 작업에 자신은 배제되고 최항, 박팽년, 신숙주 등이 주도한 데에도 이유가 있음을 『세종실록』, 1444(세종 26년) 2월 16일 기사에서 확인된다.

9) 그런데 세종이 만든 신문자의 자모는 28자임에도 최만리는 상소문에서 ‘二十七字諺文’이라고 하여 신문자의 자모를 27자라고 하였다. 그리고 ‘二十七字諺文’은 조선 중종 때 역관 최세진이 편찬한 『훈몽자회』의 범례 ‘諺文字母’의 ‘俗所謂反切二十七字’에서도 확인된다. 즉, 훈민정음은 창제 당시에는 우리말을 적기 위한 문자로 고안하여 처음에는 자모 27자만으로도 적을 수 있었겠지만 나중에는 한자음까지 적는 것으

문 27자'의 존재가 신문자의 반포와 함께 간행된 해례본보다 앞서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언문 27자'가 한글 교재로 쓰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의식은 일찍이 이동림(1975)에서 통찰적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동림(1975)에서는 '언문 27자'를 훈민정음 체계가 갖춰지기 전의 원안으로 보고 훈민정음을 반포하기 전에는 '언문 27'자만이 있었다고 하였다. 물론 '언문 27자'가 '약예의'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실록의 기록에 근거한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언문 27자'가 '약예의'와 내용적으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최만리 등이 갑자 상소문을 올린 1444년 2월 20일에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마련되기 이전이므로 고유어 표기에 사용되지 않은 'ㅎ'를 제외한 '二十七字諺文'을 언급한 것이며, 최만리 역시 '약예의'의 존재와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앞서 (2가,나)의 기사에서 보듯이 상소문에 서 신문자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1가,나)의 훈민정음 창제 기사와 (2가,나)의 최만리 등의 갑자 상소문이 불과 2개월의 차이인 점으로 보아 당시 이배(吏輩)들이 한글을 익히고, 집현전 학사들에게 운서를 번역하게 하거나 공방의 장인들이 활자를 새겼다는 것은 신문자를 알아야 가능한 일이었으므로 이미 이때에 이들의 한글 교육을 위해 '약예의'가 활용되었을 개연성은 더욱 분명해진다.¹⁰⁾

한편, 해례본이 편찬되기 전에도 세종은 유시를 내려 신하들에게 언문을 알게 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였다.

로 확대되면서 'ㅎ'가 추가되어 정음 28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는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반포까지의 3년 가까운 시간에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 등 문자 체계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동림(1975)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운회』 번역 이전에 나온 언문 체계와 『운회』를 번역하면서 완성된 훈민정음 체계는 달랐다고 하였다.

10) 강창석(2012:20)에서는 '약예의'가 간행본이 아닌 필사본이었을 것이라 하였고, 백두현(2023:925)에서도 필사본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3) 집현전 교리 최항, 부교리 박팽년, 부수찬 신숙주, 이선로, 이개, 돈녕부주부 강희안 등에게 명하여 의사청에 나아가 언문으로 운회(韻會)를 번역하게 하고, 동궁(東宮)과 진양대군 이유, 안평 대군 이용으로 하여금 그일을 관장하여 모두 성상의 판단에 품의하도록 하였으므로 상(賞)을 거듭 내려 주고 공억(供億)하는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하였다.(命集賢殿校理崔恒 副校理朴彭年 副修撰申叔舟, 李善老, 李塏 敦寧府注簿姜希顔等詣議事廳 以諺文譯《韻會》 東宮與晉陽大君 孫安平大君 瑒 監掌其事皆稟睿斷 賞賜綢重 供億優厚矣) <세종실록 1444년(세종 26년) 2월 16일>

즉, (3)에서 보듯이, 세종은 1444년에 동궁(문종), 진양(수양)대군, 안평대군으로 하여금 『운회』 곧 『고금운회거요』를 언문으로 번역하는 것을 관장하게 하고 일일이 세종 자신에게 품의하도록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더욱이 『운회』의 번역이 완성되었기에 참여자들에게 포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운회』의 번역은 신문자 창제 직후부터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왕실 내에서 한글의 시범적 운용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운회』를 번역하는 데에 있어서 ‘약예의’는 한글 교재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은 분명하다.

더욱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후 문자의 보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상황에서 환관들이 언문서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과 하급 관리 시험에 한글에 대한 지식이 기본 1차 과목이었다는 것은 이들이 자모의 음가와 합자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가. 임금이 대간(臺諫)의 죄를 일일이 들어 언문으로써 써서, 환관 김득상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승정원에 보이게 하였다.(甲辰 上數臺諫之罪 以諺文書之 命宦官金得祥 示諸義禁府承政) <세종실록 1446년(세종 28년) 10월 10일>

나. 지금 이후부터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에는 훈민정음도 아울러 시험하여 뽑되 비록 그 뜻과 이치는 통하지 못하더라도 합자할 수 있는 자를 뽑도록 하라.(今後吏科及吏典取才時 訓民正音 竝令試取 雖不通義理 能合字者取之) <세종실록 1446(세종 28년) 12월 26일>

다. 이제부터는 함길도 자제로서 이과(吏科) 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다른 도의 예에 따라 6재(六才)를 시험하되 점수를 갑절로 주도록 하고 다 음 식년부터 시행하되, 먼저 훈민정음을 시험하여 입격한 자에게만 다른 시험을 보게 할 것이며, 각 관아의 관리 시험에도 모두 훈민정음을 시험하도록 하라.(自今咸吉子弟試吏科者 依他例試六才 倍給分數 後式年爲始 先試訓民正音 入格者許試他才 各司吏典取才者 竝試訓民正音) <세종실록 1447(세종 29년) 4월 20일>

(4가)는 한글을 반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대간의 죄를 한글로 써서 교서를 내려 신하들이 읽어 보게 했다는 것은 이미 궁중에 한글을 아는 관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4나,다)는 세종의 교시로 하급 관리 시험에 한글을 합자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시험 과목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아 이때 이들이 활용했을 한글 교재로 해례본은 아니었을 것이다. 즉, 해례본 외에도 한글 교재로 활용된 것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4다)에 서처럼 함길도 자제들의 시험 응시에 필요한 한글 교재로 널리 유포될 정도라면 필사본이어야만 가능했을 것이고, 그 내용과 수준에 있어서도 해례본처럼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한글의 기초적인 내용을 이해할 정도는 되어야 했으므로 이때의 한글 교재는 ‘약예의’일 가능성이 높다.¹¹⁾

11) 『훈민정음』의 간행을 완성하고 이어서 해례본의 「예의」를 한글로 번역했다고 한다면 이전(吏典)들이 언해본을 한글 교재로 삼았을 개연성도 있다. 이 부분은 언해본의 간행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하겠다.

‘약예의’는 1446년에 편찬된 해례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에 해당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1443년에 ‘약예의’를 짓고 1446년에 해례본의 「예의」에도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약예의’는 해례본 중에서 「예의」 부분에 해당하는 초안으로서 신문자의 음가와 자모 결합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급 관리 시험에 응시할 사람들의 한자 능력으로는 충분히 내용 파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약예의’는 전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고, 더욱이 이를 가지고 한글 학습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약예의’는 최초의 한글 교재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은 분명하다.

2) 한글 교재로서의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에 간행하고 반포한 해례본은 1940년에 발견되어 현재 간송 미술관에서 소장 보관하고 있고,¹²⁾ 1962년 12월 20일에 국보 70호로 지정된 문헌으로서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 체계를 완성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공식적인 신문자 해설서로서의 위상을 갖는다.¹³⁾ 해례본은 당대의 학문적 역량이 총집결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당시 사대부들을 대상으로 편찬했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문에 능통하고 한자의 소리 체계를 정립한 성운학과 태극, 음양오행 등 역학(易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했을 정도로 심오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례본은 「어제 서문」,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 등의 내용을 33장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어제 서문」과 「예의」를

12) 해례본을 반사하여 배포한 권수가 몇 부였을까 하는 것은 1447년에 『용비어천가』를 550부 배포한 것이 하나의 참고가 될 듯하다.(甲戌 賜 龍飛御天歌 五百五十本于群臣) <세종실록 1447(세종 29년) 10월 16일>

13) 해례본은 발견될 당시에 권두의 앞 두 장이 낙장되었고, 이 부분이 잘못 복원되어 이후 여러 차례의 재구 및 복원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논의는 정우영(2001) 참조.

묶어 <예의편>, 「해례」와 「정인지 서문」을 묶어 <해례편>으로 구분한다.¹⁴⁾ <예의편>은 세종이 직접 지은 것으로 14행에 매 행 11자의 큰 글자로 새겨져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례편>은 <예의편>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정인지를 비롯한 8명의 집현전 학사들이 상세한 해설을 밝힌 것으로 16행에 매 행 13자의 작은 글자로 새겨져 29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인지 서문은 신하의 예법을 갖추 한 글자를 낮추어 매 행 12자로 적었다. 그리고 판심제는 「어제 서문」과 「예의」는 「正音」, 「해례」와 「정인지 서문」은 「正音解例」로 되어 있는데, 이는 「어제 서문」과 「예의」, 「해례」와 「정인지 서문」이 체재에서 각각 독립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예의편>의 「어제 서문」에서는 세종이 신문자를 창제한 동기와 목적 및 그 내용을 밝혔다. 즉, 세종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그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것을 가엾게 여겼다고 하여 신문자를 창제한 동기를 밝히고, 내(세종)가 새로 28자를 만들었다고 하여 창제자와 창제 내용을 밝혔으며, 사람마다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고 하여 창제 목적을 제시하였다.

「예의」는 신문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밝힌 부분으로 초성 17자와 중성 11자의 자형과 음가를 한자의 음을 통해 설명하고 이들 자모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문자 운용 규정을 집약하여 기술하였다. 가령, 초성자는 아음, 설음, 순음, 치음, 후음의 5음으로 분류하고 이를 전청자, 차청자, 불청불탁자의 순서로 17자를 배열하였으며, 병서를 할 수 있는 글자 뒤에는 전탁자 6자(ㄱ, ㄷ, ㅂ, ㅈ, ㅊ, ㅎ)의 내용을 추가하여 제시하였다. 중성자 11자는 ‘ㆍ, 一, ㅣ,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에 대한 음

14) 백두현(2009)에서는 『훈민정음』(해례본)을 텍스트 차원에서 살피면서 그 외형 구조를 예의편(어제 서문, 예의), 해례편(해례, 정인지 서문)으로 불렀다가 백두현(2023)에서는 판심서명에 따라 예의편을 정음편으로 해례편을 정음해례편으로 바꿨고, 김유범(2018)에서는 판심제에 따라 『훈민정음』(해례본)의 구성을 정음편(어제 서문, 예의), 정음해례편(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해, 정인지 서문)으로 명명하였다.

가를 밝혔다. 그런데 자모의 음가 설명이 초성과 중성에 한정되고 종성에 대해서는 ‘종성부용초성’이라고만 하여 매우 짧게 제시했을 뿐만 아니라 행을 바꾸지 않고 바로 연서, 병서, 부서, 성음, 성조 등의 운용 규정이 이어지고 있다.¹⁵⁾ 그리고 문자 운용에서는 글자를 합쳐 쓰는 규정인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과 방점 표기법에 대한 규정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요컨대, <예의편>은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자형과 음가를 바탕으로 이들의 운용과 표기 규정을 간략하게 제시함으로써 신문자에 대한 이해를 마련케 해주었다는 점에서 한글 교재로서의 의의를 지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한문으로 쓰여 사대부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지닌 것도 사실이다.

<해례편>은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의 내용을 기술한 「해례」와 「정인지 서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해례」는 정인지, 최항, 박팽년, 신숙주, 성삼문, 강희안, 이개, 이선로 등 8명의 집현전 학사들이 참여하여 쓴 것으로 이른바 ‘5해 1례’(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례)로 구성된 신문자에 대한 해설과 보기이다. 그래서 「예의」를 바탕으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한 「해례」는 서로 깊은 내용적 연관성을 갖는다. 한편, 용자례를 제외한 5해에 대한 해설이 끝나면 ‘訣曰’이라고 해서 7언 형식의 운문으로 그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는데, 이는 당시 사대부들을 의식한 유용한 방편으로 활용될 수 있었다.

「해례」는 신문자를 만든 원리 및 우리말을 표기하는 실제 용례를 제시

15) ‘종성부용초성’ 부분을 종성의 표기 규정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초성과 중성에 대한 자형과 음가 규정에 뒤이어 제시되어 종성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자를 다시 쓴다고 한 것으로 봐서는 종성의 제자 규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게 본다면 ‘종성부용초성’은 종성의 제자 규정인 동시에 표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이해일 것이다. 정우영(2014:133-143)에서 ‘종성부용초성’에 대한 그간의 문제인 종성의 표기와 관련된 규정이라는 입장과 종성의 제자에 관한 규정이라 해석 근거를 정밀하게 살피면서 ‘종성부용초성’을 종성의 제자 규정이면서 표기 규정이라는 중의적 규정으로 제정, 안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고 있으며, 신문자 창제의 기원과 원리를 음양오행을 중심으로 당대의 세계관인 성리학을 기반으로 한 설명과 말소리의 기본 틀인 성운학적 이해에 바탕을 두고 논리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해례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해례」 중에서 제자해는 주렴계(周濂溪)의 『태극도설』과 소옹(邵雍)의 『황극경세서』 등의 성리학 이론과 성운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문자의 제자 원리를 설명함으로써 가장 돋보이는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자해에서는 신문자를 만든 심오한 원리를 음양오행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천명한 다음에 신문자의 제자 원리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초성자의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은 발음 기관을 상형하여 만들었음을 설명하고, 나머지 글자는 소리의 세기인 ‘厲’의 자질에 따라 획을 더하여 만들었으나 ‘ㅇ’은 가획이 아니고, ‘ㄹ’과 ‘ㄷ’은 각각 혀와 이의 모양을 상형했으나 그 바탕으로 삼은 기본자를 달리하여 가획의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초성자는 성음의 청탁으로 전청자(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차청자(ㅋ, ㆁ, ㆅ, ㆆ, ㆊ), 전탁자(ㄲ, ㄴ, ㄷ, ㄹ, ㅁ, ㅂ, ㅅ, ㅇ), 불청불탁자(ㅇ, ㄴ, ㄷ, ㄹ, ㅁ, ㄹ, ㄷ)를 구분하였다. 그리고 중성자의 기본자 ‘ㅡ, ㅏ, ㅣ’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음을 우주의 시작을 설명한 소옹의 『황극경세서』에 근거하여 설명한 다음에 ‘습而成’의 조합 방법으로 초출자(ㄴ, ㅊ, ㅌ, ㅍ)와 재출자(ㄴ, ㅊ, ㅌ, ㅍ)의 자형과 음가를 설명하였다. 즉, 초성자는 기본자를 정하고 그 기본자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른 배열 순서로 설명하고, 중성자 역시 기본자를 정한 후에 초출자와 재출자를 설명함으로써 문자들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자운(字韻) 곧 음절의 중심은 중성에 있으며 이 중성이 초성, 중성과 합하여 음절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 언어학에서 모음을 음절핵(syllable core)으로 파악하는 것과 그대로 일치한다.¹⁶⁾ 그리고 중성자로 초성자를 다시 쓰는 것을 음양오행

16) 세종대왕은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고 이들 분절음에 해당하는 문자를 만들었으니 문자의 최소 단위는 음소이지만 이들 문자를 합쳐서 쓰기 때문에 문자 표기의 최소 단위는 음절이 된다는 점에서 훈민정음은 음소문자적 특성과 음절문자

의 순환론적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초성해와 중성해는 이미 「예의」에서 초성자와 중성자의 자형과 음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서 이를 간결하셔도 분명하게 기술하였고, 종성해는 무엇보다 종성의 특성을 소리의 완급(緩急)과 오음 체계로 설명하였으며, 「예의」에서 설명한 종성부용초성 외에도 실제로는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만으로도 족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서(八終聲可足用) ‘빛꽃(梨花)’, ‘엿의갓(狐皮)’의 예를 들어 이들의 종성 ‘ㅅ, ㅈ, ㅊ, ㅊ’들은 ‘ㅅ’으로 통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지 ‘ㅅ’를 쓴다고 하였다.

합자해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의 합자법과 각자병서와 합용병서에 대한 설명과 성조 표기와 관련된 설명을 하고 있다. 즉,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결합 양상을 설명함으로써 신문자가 음소문자이면서 합자의 과정을 통해 음절문자로서의 특성을 가지며, 초성자, 중성자, 종성자의 위치를 규정함으로써 음절의 글꼴이 모아쓰기에 최적화되도록 하였다.

끝으로 용자례에서는 당대 쓰이는 주변 어휘들을 중심으로 초성자 용례 34개, 중성자 용례 44개, 종성자 용례 16개 등 총 94개의 고유어 어휘를 제시하면서 실제 이들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초성자에 ‘ㅎ’이 빠지고 ‘ㄴ’이 들어간 것은 ‘ㅎ’이 우리말의 초성에 쓰이지 않음을 반영한 것이다.

요컨대, 「해례」는 「예의」를 바탕으로 하되, 매우 상세하고도 정교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신문자에 대한 교육용 해설서로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다.¹⁷⁾ 첫째로, 「예의」에서는 자모가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대한 문자 운용 규정을 집약하여 기술한 반면에 「해례」의 제자해에서는 음양오행에 입각하여 제자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둘째로, 「예의」에서는 초성을 아음,

적 특성을 함께 갖는다.

17) 이 부분은 「정인서 서문」에서 훈민정음이 28자로서 전환(轉換)하여 다함이 없이 간략하면서도 요령이 있고 자세하면서도 통달하게 되었으며, 그런 까닭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아침나절이 되기 전에 이를 이해하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 만에 배울 수 있게 된다고 밝힌 것에서 확인된다.(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 簡而要 精而通 故智者不崇朝而會 愚者可浹旬而學) <세종실록 1446(세종 28년) 9월 29일>

설음, 순음, 치음, 치음, 후음 순으로 분류하지만 「해례」 초성해에서는 초성이 운서의 자모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자음을 운서의 성모 순서에 따라 전청, 차청, 전탁, 불청불탁 순으로 분류하고 있다. 셋째로, 「예의」에서는 ‘종성부용초성’이라고만 하여 간단하게 제시하고만 있지만 「해례」 종성해에서는 완급과 오음 체계에 따른 종성 설명을 하고 있다. 또한, 합자해에서는 합자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용자례에서는 우리말의 실제 용례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류한 94개의 어휘로 제시하고 있다.

<해례편>의 마지막 부분인 「정인지 서문」은 <해례편>을 집필한 집현전 학사 8인을 대표하여 정인지가 쓴 것으로 해례본의 서문에 해당한다. 「정인지 서문」에는 전통적 언어관인 풍토설에 입각하여 사방의 풍토가 다르고 사람의 발음도 이에 따라 다르다고 하면서 신문자를 창제한 이유와 배경, 신문자가 배우기 쉬운 글자라는 점을 소상하게 밝혔으며, 또한 신문자는 세종이 창제했음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해례본을 편찬한 경위를 기술하는 등 「어제 서문」을 보충·설명하는 내용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었다. 요컨대, 해례본은 「어제 서문」,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이 유기적으로 치밀한 텍스트 결속력을 지녔다.¹⁸⁾

그러나 해례본이 당대 최고의 지적 산물이었다는 것과 이것이 백성들에게 한글 교재로 사용될 수 있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즉, 「예의」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심화한 「해례」의 심오한 제자 원리와 음양오행설에 기반한 설명은 당대의 수준 높은 내용을 반영한 것이며, 이를 한문으로 써서 해설하다 보니 성운학과 역리에 상당한 소양을 갖춘 사대부들에게 유용할 수밖에 없었다. 일찍이 안병희(1985:29)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해례본이 그 자체로 신문자에 대한 해설서라는 점에서 한글 교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예의편>은 초학자를 위한 입문에 더 유용하고, <해례편>은 한문에 익숙한 식자층에 더 유용할 수밖에

18) 백두현(2009)에서는 해례본을 하나의 완성된 구조를 가진 텍스트로 보고 <예의편>과 <해례편>의 구조를 중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정우영(2014)에서는 <예의편>을 구성하는 내용들이 <해례편>에서 어떤 양상으로 해석되고 구체화되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없었을 것이고 그 내용 또한 성운학과 성리학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대부만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은 분명하다. 바로 이 지점이 해례본의 현실적 수요가 많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이며, 해례본이 중간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해례본은 신문자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설명한 공식적인 신문자 해설서라는 위상과 이러한 내용이 당대 사대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한글 교재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3) 한글 교재로서의 『훈민정음』 언해본

해례본을 언해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하여도 일반 백성들을 위한 한글 교재로서 「해례」를 그 대상으로까지 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제 서문」과 「예의」를 언해의 대상으로 할 때에 신문자인 훈민정음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과 문자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것이 언해본이 간행된 이유인데, 훈민정음이 ‘훈민(訓民)’ 즉 백성의 교화를 위한 것이고,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사용함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라(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는 창제 목적이 구현되고 일반 백성들을 문자 생활에 참여하게 하려는 한글 교육의 측면에서는 한글 자모 학습에 필요한 <예의편>이 더 유용한 교재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것이 언해본 간행의 동기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즉, 훈민정음은 세종이 백성을 위하여 만든 문자이므로 한문을 모르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능히 펼칠 수 있기 위해서는 해례본의 내용 중에서 「어제 서문」과 「예의」를 우리말로 번역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언해본은 해례본 중에서 창제 동기와 목적을 밝힌 「어제 서문」과 자모의 모양과 음가 및 운용법(종성법, 연서법, 병서법, 부서법, 성음법, 사성법) 규정인 「예의」 부분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맨 뒷부분에는 해례본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여 언해하였는데, 우리말의 치음과 달리 중국어 한자음에 있어

서는 치두음과 정치음으로 구별된다고 하면서 이를 자형에 반영한 ‘한음치성(漢音齒聲)’이 그것이다.¹⁹⁾

한편, 전체적인 언해 방법은 먼저 한문 원문에 우리말로 구결을 달아 구결문을 완성하고(國之語音이), 원문 한자에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달아 놓고(國祿之正語音음이), 한 행에 두 줄로 원문 한자의 뜻을 우리말로 풀이한 주석을 달고(國은 나라히라 之는 입거지라 語는 말싸미라) 그 다음에 구결문에 주석의 내용을 적용하여 우리말로 번역하였다.(나랏말싸미)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취함으로써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방식으로 언해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언해의 과정은 이후의 본격적인 언해서 간행에 하나의 전범이 될 수 있었다.²⁰⁾ 그래서 간경도감에서 불전 언해서의 번역 방식과 그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데,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최초의 불전 언해서인 『능엄경언해』 권10에서 세조가 지은 <어제 발>의 3장 뒷면 2행부터 4장 앞면 2행까지에 걸쳐 실려 있는 협주에서 그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5) 上이 입거출 드르샤 慧覺尊者의 마기와시닐 貞嬪韓氏等이 唱準
 ㅎ야닐 工曹參判 臣 韓繼禧 前尙州牧使 臣 金守溫은 翻譯하고 議
 政府檢詳 臣朴健護 軍臣 尹弼商 世子文學 臣 盧思愼 吏曹佐郎
 臣 鄭孝常은 相考하고 永順君 臣 溥는 例一定하고 司膳寺 臣 曹
 變安 監察 臣 趙祉는 國韻 쓰고 慧覺尊子 信眉 入選 思智 學悅
 學祖는 翻譯 正히온 後에 御覽ㅎ샤 一定커시닐 典言曹氏 豆大
 是 御前에 翻譯 님스오니라 <『능엄경언해』 권10 어제 발 3,4장>

-
- 19) ‘한음치성’ 규정은 언해본 전체 15장 30면 중에서 3면을 차지하는데, ‘한음치성’이 언제 언해되어 『월인석보』(권1·2)에 실리게 된 것인지는 언해본의 간행 시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이다.
- 20) 이러한 언해의 방법은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최초의 불전 언해서인 『능엄경언해』 권10의 어제발 3장 뒷면 2행부터 4장 앞면 2행에 걸쳐 자세한 절차를 밝혔으며,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불전언해서의 번역 과정에 영향을 끼쳤는데, 이러한 언해 방법의 시작은 세종이 <예의편>을 언해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세종이 1438년에 『능엄경』을 보고 수양대군에게 구결 번역을 하라고 명을 내린 바가 있었는데, 1461년(세조 7)에 양주 회암사에서 불사 도중에 신이한 일이 일어나자 이에 세조가 미뤘던 번역을 적극 추진하여 『능엄경언해』가 간행되었다. (5)의 인용문은 『능엄경언해』의 번역 과정에 참여한 사람과 맡은 임무를 언해의 과정에 따라 설명한 번역 절차로서 당시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불전 언해서 번역에 하나의 표준 절차로 작용할 수 있었다. 즉, 세조가 원문에 구결을 달고 이것을 신미 대사에게 맡김으로써 언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듯, 『능엄경언해』의 번역으로 시발된 번역 과정은 이미 언해본을 번역하면서 마련된 번역 방식이 하나의 표준 선례가 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²¹⁾

	언해의 과정	주관자 및 참여자
1	한문에 구결을 단다.	세조
2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확인한다.	혜각존자 신미
3	구결이 현토된 문장을 소리 내어 읽으면서 교정한다.	정빈한씨 등
4	언문으로 번역한다.	한계희, 김수온
5	번역된 문장을 여럿이 서로 비교·검토한다.	박건, 윤필상, 노사신, 정효상
6	예(例)를 정한다.	영순군 부
7	동국정운 한자음을 단다.	조변안, 조지
8	잘못된 번역을 고친다.	신미, 사지, 학열, 학조
9	임금이 보고 친히 번역을 확정한다.	세조
10	상공은 어전에서 번역을 소리 내어 읽는다.	조두대

한편, 언해본이 한 권의 서책으로 간행된 것은 전해지지 않으며, 언해본으로 가장 오래된 것은 1459년에 간행된 『월인석보』(권1·2)의 권두에 실려 전한다.²²⁾ 『월인석보』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을 본문으로 삼

21) 이를 적용하여 백두현(2023:241-250)에서는 언해본의 번역 과정을 자세하게 재구성하였다.

22) 언해본 역시 내제가 ‘世宗御製訓民正音’으로 시작하면서 이하 4행을 보수한 흔적이 있어 언해본 재구와 함께 이보다 앞서 언해본이 간행되었을 것이라는 간행 시기 논

고 수양대군이 소헌왕후의 추천(追薦)을 위해 쓴 『석보상절』을 해설로 삼아 첨삭 및 증수의 과정으로 거쳐 합편한 것이다. 특히 『월인석보』는 돌아가신 부모(세종과 소헌왕후)와 일찍 죽은 아들(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증수, 편찬한 것으로 전경 법회(轉經法會)에서 읽혔고 그렇기 때문에 『월인석보』(권1·2)의 권두에 언해본이 실리게 된 것이다. 즉 언해본을 『월인석보』(권1·2)의 권두에 둠으로써 신문자를 익힌 후에 『월인석보』를 읽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 교육적 의도를 지니며, 이로써 언해본은 한글 교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²³⁾ 이와 같은 점은 『월인석보』(권1·2)에 실려 있는 「석보상절 서」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6) 近間에 追薦 ㅎㅅㅅ보물 因ㅎㅅㅅㅅㅅ 이저기 여러 經에 굴히여내야 各別히 ㅎㅇ를 밍 ㄱ라 일흠지허 ㄱ로디 釋譜詳節이라 ㅎ고 ㅎㅅㅅ 次第 ㅎ여 밍 ㄱ론바를 브터 世尊ㅅ 道 일우ㅅㅅ 이리 양ㅅ를 그려 일우습고 ㅅㅅ 正音으로써 곧 因ㅎ야 더 翻譯ㅎ야 사기노니 사릅마 다 수비 아라 三寶에 나ㅅㅅㅅ ㅅㅅㅅ 고 ㅅ라노라 <『월인석보』(권1·2) 「석보상절 서」>

즉, (6)의 밑줄 친 부분인, 정음으로 번역하여 새기니 사람마다 쉽게 알게 하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언해의 목적이 백성을 위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언해본의 한글 교재로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언해본의 간행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언급은 안병희(1976, 1990)에서 이루어졌으며, 정우영(2005)에서는 언해본의 간행 시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시기를 상정한 바 있다. 즉, 1972년에 『월인석보』 권1·2

의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정우영(2005) 참조. 그리고 언해본의 이본 중에서 <박승빈 구장본>은 단행본으로 되어 있으나 이것은 『월인석보』에서 분리하여 재책한 것에 불과하다.(안병희 1976:192)

23) 같은 맥락에서 『진언집』(1569)의 「언본」에 ‘諺文字母’를 실은 것도 진언을 읽기 위해서는 한글을 먼저 익혀야 했기 때문이었다.

가 발견되면서 언해본 간행 시기에 대한 윤곽이 보다 확연해지게 되었는데, 안병희(1976:192)에서는 언해본에는 해례본의 「예의」에는 없는 치두음과 정치음에 대한 구별 표기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內題인 ‘世宗御製訓民正音’이 있는 제1장 1행부터 4행까지의 자형에 약간의 변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보다 앞서 언해본이 편찬되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더욱이 『월인석보』가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을 합편한 것이므로 그런 맥락에서 『석보상절』의 권1에도 이 언해본이 실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고 안병희(1979:110)에서도 해례본이 편찬되고 이듬해인 1447년에 『석보상절』을 간행하면서 <예의편>이 언해되어 『석보상절』 권1에 실렸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 근거는 1459년(세조 5)에 『월인석보』(권1·2)의 권두에 언해본이 함께 실려 있는 것에서 찾았다. 즉, 안병희(1990:22-26)에서는 『훈몽자회』(1527)와 『진언집』(1569)의 권두에 언문자모를 실은 것이 한글이나 범자에 대한 지식의 필요성 때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봤을 때, 신문자를 창제하고 20여 권에 달하는 책을 간행하면서 신문자에 대한 해설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런 이유로 『석보상절』의 권1에도 실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안병희(1990)에서는 간행 연대를 추정하였는데, 언해본과 『월인석보』 권1에 수록된 것으로 『석보상절』 권1에서 가져온 「석보상절 서」를 비교하면서, 이 두 문헌은 행격, 본문의 작은 대문(大文)으로의 분절 방법, 구결과 한자 독음의 표기 방법, 협주가 나타나는 자리, 몇 가지 언어 사실(글알, -기), 본문의 변개 등에서 일치하지만 「월인석보 서」와는 그렇지 않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언해본의 간행 시기를 『석보상절』의 간행 시기로 소급된다고 추정하였다.²⁴⁾

그렇다면 『월인석보』(권1·2)의 권두에 언해본이 실리고, 추정컨대 그

24) 그러면서도 안병희(1990)에서는 언해본의 간행 연대가 『석보상절』의 간행보다 앞설 수 있다는 추정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석보상절』 권1에 실렸을 언해본이 최초의 언해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석보상절』 권1이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언해본의 간행 연대에 대한 논의는 임용기(1991) 참조.

보다 앞서 『석보상절』 권1에도 언해본이 실린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이것은 안병희(1985:30)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를 널리 읽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글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 자모와 운용법에 해당하는 「예의」 부분을 언해하여 그 내용을 익히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즉, 언해본은 신문자 학습을 위한 교육적 의도를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언해본이 『석보상절』의 간행에 앞서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4나)에서 언급하였듯이, 1446년(세종 28)의 『세종실록』 기록에 의하면 이과(吏科)와 이전(吏典)의 하급 관리 시험에 한글을 합자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시험 과목으로 부과하라는 교지를 내린 것으로 보아 『석보상절』 간행 전인 1446년에 언해본이 나왔을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²⁵⁾ 왜냐하면 이과와 이전의 사회적 지위로 보아 이들을 선발하는 시험에 해례본의 내용을 시험 과목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우영(2005:82-86)에서는 훈민정음 반포 후 적어도 1446년 12월까지에는 언해본이 제작·유통되었을 것이고 늦잡아도 『용비어천가』가 완료된 1447년 4월 이전에는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언해본의 뒷부분에 있는 ‘한음치성’은 『석보상절』이 간행된 1447년에 따로 덧붙여졌을 것임을 사이시옷 표기와 관형사형어미 ‘-ㄹ’과 후행어 통합 표기 경향의 차이, 서체 분석 등을 통해 추정하였다. 이것은 적어도 하급 관리 시험에 교재로 쓰였을 언해본에는 ‘한음치성’ 규정이 없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간행 시기도 『석보상절』 간행 시기보다도 앞설 것이다. 왜냐하면 ‘한음치성’은 『석보상절』 권21에 다라니(陀羅尼) 진언(眞言)의 한자음을 표기하는 데에 쓰인 예들이 나오기 때문이다.²⁶⁾ 여하튼 언해본이 간행되고 이것이 한글 교재로 사용되면서 신문자는 점점 확산될 수 있었음

25) 앞선 논의에서 하급 관리 시험에 ‘약예의’를 한글 교재로 삼았을 것이라 했는데, 이 문제는 언해본의 간행 시기와 관련된 것이라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다.

26)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언해본 간행 시기는 해례본이 간행된 1446년 9월에서 『석보상절』이 간행된 1447년 7월 사이로 추정할 수 있을 듯하다.(백두현, 2023:239-241)

을 다음의 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가. 좌의정 하연 등을 빈청(賓廳)에 불러, 환관 김득상과 최읍으로 하여금언문서 두어 장을 가지고 오게 한 뒤, 사신(史臣)을 물리치고 비밀히 의논하였다.(召左議政河演等于賓廳 令宦官金得祥 崔湑持諺文書數紙 辟史臣密議) <세종실록 1448(세종 30년) 7월 27일>

나. 하연은 까다롭게 살피고 또 노쇠하여 행사에 착오가 많았으므로, 어떤 사람이 언문으로 벽 위에다 쓰기를, ‘하 정승아, 또 공사를 망령되 게 하지 말라’고 하였다(演苛察 又老耄 行事多顛錯 人有以諺字書壁上曰 “河政丞且休妄公事”). <세종실록 1449(세종 31년) 10월 5일>

(7가)는 환관에게 언문서의 심부름을 시킨 정황으로 보아 환관도 한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고, (7나)는 하연을 영의정으로 관직을 제수하자 누군가 언문으로 재상 하연을 비방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써서 붙였다는 기사로서 정음 반포 3년 만에 언문이 벽서에 당당하게 등장하고 있다. 이로써 한글은 사대부는 물론이고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한글의 사용과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언해본 중에서 「예의」 부분인 신문자의 자형 및 음가와 이들 자모의 합자에 대한 내용이 한글 교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

3. 맺음말

지금까지 본고는 한글 교재로서 『훈민정음』이 갖는 교육적 의의를 한글의 사용과 보급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특징적인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동안 『훈민정음』은 우리말과 글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한 문헌 자료로서 다루어져 왔으나 세종의 창제 정신을 고려해 본다면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한글 교재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주목하여 논의를 펼친 본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악예의’는 1446년에 편찬된 해례본의 「어제 서문」과 「예의」에 해당하는 내용과 거의 유사할 것으로 추정되며, 1443년에 ‘악예의’를 짓고 1446년에 해례본의 「예의」에도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악예의’는 해례본 중에서 「예의」 부분에 해당하는 초안으로 볼 수 있으며, ‘악예의’는 최초의 한글 교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해례본은 당대 최고의 지적 산물로서 「예의」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심화한 ‘해례’의 심오한 제자 원리와 음양오행설에 기반한 설명은 당대의 수준 높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렇다 보니 해례본은 성운학과 역리에 상당한 소양을 갖춘 사대부들에게 유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해례본은 신문자가 어떠한 원리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용되는지를 설명한 공식적인 신문자 해설서라는 위상과 이러한 내용이 당대 사대부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한글 교재로서의 역할을 지니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셋째, 언해본은 「어제 서문」과 「예의」를 언해의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신문자인 훈민정음을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내용과 문자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었으며, 특히 「예의」 부분이 한글 교재로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한편, 본고는 ‘악예의’에 대해 기술을 하였지만 이것이 해례본의 「예의」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게 기술하지 못했다. 나아가 ‘諺文字母’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다. 또한 한글 교재로서 훈민정음의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다만, 본고의 논의가 한글 교재 발달사 또는 한국어 교육사 연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관련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단행본

- 백두현, 『훈민정음의 문화중층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23.
안병희, 『훈민정음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7.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사, 1942/1961.

논문

- 강창석, 「훈민정음 반포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개신어문연구』 35집, 개신어문학회, 2012, 5-30쪽.
강창석, 「『언문자모』의 작성 주체와 시기에 대하여」, 『언어와 정보 사회』 22호,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2014, 27-52쪽.
김무봉, 「조선 전기 언해 사업의 현황과 사회문화적 의의」, 『한국어문학연구』 58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2, 5-50쪽.
김유범, 「『훈민정음』 <예의>와 <해례>의 성립 과정에 대한 재검토」, 『우리말연구』 55집, 우리말학회, 2018, 121-144쪽.
김주필, 「계해년(1443)의 ‘예의(例義)’를 찾아서」, 『반교어문연구』 55집, 반교어문학회, 2020, 13-48쪽.
백낙천, 「불전 언해서를 통해 본 한글의 사용과 보급」, 『동악어문학』 95집, 동악어문학회, 2025, 141-169쪽.
백두현, 「훈민정음 해례본의 텍스트 구조 연구」, 『국어학』 54집, 국어학회, 2009, 75-107쪽.
안병희, 「훈민정음의 이본」, 『진단학보』 42호, 진단학회, 1976, 191-195쪽.
안병희, 「중세 국어의 한글 자료에 대한 종합적 고찰」, 『규장각』 3집, 서울대 도서관, 1979, 109-147쪽.
안병희, 「훈민정음 사용에 관한 역사적 연구」, 『동방학지』 46·47·48호, 연세대학교 동방학연구소, 1985, 793-821쪽.
안병희, 「훈민정음 언해의 두어 문제」, 『국어국문학논총: 벽사 이우성선생 정년 퇴직기념』, 여강출판사, 1990, 21-33쪽.
이기문, 「훈민정음 창제에 관련된 몇 문제」, 『국어학』 2집, 국어학회, 1974, 1-15쪽.

- 이동림, 「훈민정음의 창제경위에 대하여」, 『국어국문학논문집』9·10집, 동국대 국문과, 1975, 7-22쪽.
- 임용기, 「훈민정음의 이본과 언해본의 간행 시기에 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1991, 673-696쪽.
- 정우영, 「훈민정음 한문본의 낙장 복원에 대한 재론」, 『국어국문학』 129호, 국어국문학회, 2001, 191-227쪽.
- 정우영, 「훈민정음 언해본의 성립과 원본 재구」, 『국어국문학』 139호, 국어국문학회, 2005, 75-113쪽.
- 정우영, 「훈민정음 해례본의 ‘예의편’ 구조와 ‘해례편’과의 상관관계」, 『국어학』 72집, 국어학회, 2014, 103-153쪽.

■ 국문초록

‘훈민정음(訓民正音)’은 세종이 창제한 문자 이름으로서의 의미와 문헌 이름으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 이 중에서 문헌으로서의 『훈민정음』은 우리말과 글의 역사를 고찰하기 위한 국어사 자료로서 다루어져 왔으나 세종의 창제 정신을 고려해 본다면 『훈민정음』은 백성을 위한 한글 교재로서의 의미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한글 교재로서 『훈민정음』이 갖는 특징과 그 의미는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특히, 본고는 「정인지 서문」에 나오는 ‘약예의’에 주목하여, 이 ‘약예의’가 최초의 한글 교재로서의 의의를 지니며, 『훈민정음』 해례본은 당대 최고의 지적 산물이며, 공식적인 신문자 해설서라는 위상과 한글 교재로서의 의의를 함께 지니며, 『훈민정음』 언해본은 일반 백성들을 위해 자형 및 음가와 이들 자모의 합자에 대한 내용이 한글 교재로서의 의의를 지닌다는 것을 밝혔다.

주제어 • 훈민정음, 약예의, 해례본, 언해본, 한글

■ Abstract

Characteristics of Hunminjeongeum as Hangeul Materials

Back, Nak Cheon / PaiChai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s to explain the characteristics of Hunminjeongeum as Hangeul materials.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both Hunminjeongeum as letters and Hunminjeongeum as a test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lens of cultural layer theory. In particular, the main aim is to explain the practical use of Hunminjeongeum Haeryebon, Eonhaebon and Yakyeyi.

Indeed, Hunminjeongeum as letters was created in the 15th century, and the meaning of Hunminjeongeum as letters, namely Hangeul occupies a prominent place in the history of past Koreans and the lives of Koreans today.

Additionally, this work is expected to arouse various interest and discussion about Hunminjeongeum as Hangeul materials.

Keyword • Hunminjeongeum, Yakyeyi, Haeryebon, Eonhaebon, Hangeul

개별전공을 고려한 연극이론 교양교육의 실제와 방안

박 해 준*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대학교육은 전공 지식의 습득을 넘어 자기개발, 사회적 자존감, 문화적 인식, 창의성 등의 함양을 포함하는 전인적 인간 교육을 목표로 한다.¹⁾ 대학의 교육목표는 크게 전공교육과 교양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양자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전문성과 보편적 소양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²⁾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빠른 기술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실용 및 전문적 지식 전수에 교육의 초점이 편중되는 경향이 심화하였는데,³⁾ 이에 따라 교양교육의 본래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다.

* 중부대학교 연극영화학전공 조교수

1) Elliot, D.,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5.

2)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3권2호, 2009, 5-22쪽.

3) 박주은, 「학습자 중심의 교양과 인성 수업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권1호, 2016, 1-10쪽.

전통적으로 대학은 전공 교육을 강조해 왔고, 교양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진 경향이 있다.⁴⁾ 하지만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은 특정 직업이나 전공에 한정되지 않는 보편적인 지식과 소양을 기르는 교육으로 직업적 필요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⁵⁾ 교양교육은 시대 변화와 대학의 철학에 영향을 받으며 구성 되어왔지만, 그 본질적 목적은 미래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인간교육과 도덕교육, 창의성 교육의 실현에 있고 전공 교과외의 전문 지식에만 치우쳐 편향된 가치관에 함몰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담당한다.⁶⁾

선행연구에서는 교양교육의 목표로 학문의 융합적 이해와 통합적 사고력 함양,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 공동체 의식과 시민적 책무성 함양,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개발을 제시하였다.⁷⁾ 이러한 목표들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특히 예술 관련 교양교육은 학습자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 능력 등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전공 분야에서도 요구되는 보편적인 능력이다.⁸⁾

하지만 실제 교양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교양과목을 전공과 관련이 없는 학습으로 인식하거나 전공과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커리큘럼으로 인해 학습 동기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⁹⁾ 구성주의 학습이론에

문지』, 9권9호, 2019, 81-90쪽.

4) 곽은주·정지연, 「학생 관점의 교양교육 인식, 요구와 만족, 그리고 선택요인 분석」, 『교양교육연구』, 16권6호, 2022, 27-45쪽.

5) 백승수,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양교육연구』, 13권6호, 2019, 101-122쪽.

6) 이가원, 「다문화교육을 위한 대학 음악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예술교육연구』, 13권3호, 2015, 39-55쪽.

7) 정승원·장현수·김세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모델을 적용한 4년제 대학 교양 기초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4권5호, 2020, 83-95쪽.

8) 양수연·이다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3권3호, 2019, 179-210쪽.

따르면,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기존 지식 및 경험과 연결하여 의미를 만드는데¹⁰⁾ 새로운 정보가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이미 존재하는 관련 개념과 연결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진다.¹¹⁾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양교육에서 학습자의 전공 배경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연극은 본질적으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닌 종합예술로¹²⁾ 문학, 음악, 미술, 심리학, 사회학, 철학은 물론 조명·음향·영상 등 기술적 요소를 통해 공학 분야와도 접점을 만든다. 이러한 연극의 특성은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각자의 전공 관점에서 연극을 이해하고 해석할 가능성을 남긴다. 이러한 다학제적 특성은 음악이나 미술 등 다른 예술 교양교과목에 비해 전공 연계의 폭이 넓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음악 교양교과목이 주로 청각적 감수성과 음악사적 이해에, 미술 교양교과목이 시각적 표현과 미학적 판단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연극은 서사분석, 인물심리 해석, 공간미학, 조직관리, 기술융합 등 복합적 분석 역량을 요구하기 때문이다.¹³⁾ 이러한 연극의 특성은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각자의 전공 관점에서 연극을 이해하고 해석할 가능성을 남긴다.

한편 교육연극(Drama in Education)과 응용연극(Applied Theatre) 분야에서는 연극적 기법을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는 사례가 활발히 연구되어왔으며¹⁴⁾ 치료연극이나 기업연극, 법정연극 등은 연극이 특정 전문 분야와 융합될 때 새로운 교육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9) 이보경·이재성·김은경, 위의 논문, 1-23쪽.

10) Piaget, J., *Genetic Epistem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0.

11) Ausubel, D. P., "Educational Psychology: A Cognitive View, Holt, Rinehart & Winston", New York, 1968. 614-668pp.

12) 김방옥, 『동시대 한국연극의 혼돈과 생성』, 연극과 인간, 서울, 2016. 854-886쪽.

13) 장영지, 「교양 교육 콘텐츠로서 장소 특정적 연극의 가능성」, 『교양교육연구』, 17권 6호, 2023, 221-234쪽.

14) 민병옥,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 인간』, 서울, 2000. 34-54쪽.

은 연극의 ‘실천적 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연극이론의 학문적 개념과 분석 틀이 다양한 전공의 학습에 전이될 수 있는 ‘학문적 연계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구별된다.

다만 국내 대학의 연극 교양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학습자의 다양한 전공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설계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학들 대부분은 ‘연극의 이해’, ‘연극의 이해와 감상’ 등의 교양과목을 개설하여 연극의 정의, 역사, 제작, 공연 등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수강생들의 전공적 관심과 필요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연극 교양교육의 맥락에서 학습자의 전공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의 실제와 방안을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M 대학교 교양교육과정 중 교양핵심 과목으로 개설된 ‘연극의 이해와 감상’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개별전공을 고려한 연극이론 교양교육의 실제와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전공과 연극이론의 연계 가능성, 전공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 그리고 교양 연극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의 유기적 연계라는 과제에 대응하여 ‘전공 연계형 연극교양교육’의 가능성을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학문적 의의가 있으며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교양교육 설계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정하였다. 첫째, ‘연극의 이해와 감상’ 수강생들의 교육 필요성 인식과 수업 만족도는 어떠한가? 둘째,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전공과 연극이론의 연계성 및 전공별 맞춤형 교육에 대한 요구는 어떠한가? 셋째, 현행 평가 방식이 학습 효과와 전공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는 어떠한가? 넷째, 교양 연극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2. 이론적 배경

1) 대학 교양교육의 목적과 현황

교양교육(Liberal Education)은 특정 직업이나 전공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지식과 소양을 기르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학문 분야의 기본 개념과 방법론을 습득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¹⁵⁾ 교양교육의 어원인 'liberal'은 '자유로운'이라는 의미로, 직업적 필요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¹⁶⁾

한국교양기초교육원(2022)은 대학 교양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융합적 사고력 함양, 둘째,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 배양, 셋째, 공동체 의식과 시민적 책무성 함양, 넷째,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개발이다. 이러한 목표는 전공교육을 통해서만 달성하기 어려우며, 교양교육과 전공교육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대학교육에서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간의 단절은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문제이다.¹⁷⁾ 학생들은 종종 교양과목을 '학점 채우기'나 '쉬운 과목'으로 인식하며, 전공과의 연계성을 찾지 못해 학습 동기가 저하되는 경향이 있다.¹⁸⁾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양교육이 학습자의 전공 배경과 관심사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술 교양교과목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예술 교

15)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3권2호, 2009, 5-22쪽.

16) 백승수,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양교육연구』, 13권6호, 2019, 101-122쪽.

17) 박은주·정지연, 「학생 관점의 교양교육 인식, 요구와 만족, 그리고 선택요인 분석」, 『교양교육연구』, 16권6호, 2022, 27-45쪽.

18) 이보경·이재성·김은경, 위의 논문, 1-23쪽.

양교육이 학습자의 다양한 역량 함양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가원(2015)은 대학 음악교양교육과정이 다문화적 감수성과 문화적 이해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서 음악 교양교육이 전공에 관계없이 학습자의 정서적 성장과 문화적 안목 확대에 효과적임을 밝혔다.¹⁹⁾ 조수정(2019)는 미술 교양교육이 창의적 사고력과 시각적 리터러시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습자의 전공 배경에 따른 학습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였다.²⁰⁾ 한수정(2024)은 무용 교양교육이 신체적 표현 능력뿐만 아니라 협동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한다고 하였다.²¹⁾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예술 교양교육이 전인적 교육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해당 예술 장르의 고유한 교육 효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학습자의 개별 전공과의 연계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구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2) 구성주의 학습이론과 전공 연계 학습

구성주의(Constructivism) 학습이론에 따르면, 학습자는 새로운 지식을 자신의 기존 지식과 경험에 연결하여 의미를 구성한다.²²⁾ 지식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구성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학습자의 선행 지식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²³⁾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교양교육에서 학습자의 전공 배경을 활용하는 것은 학습의 효과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극이론 수업에서

19) 이가원, 위의 논문, 39-55쪽.

20) 조수정, 「대학의 예술 교양교육 -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1권6호, 2019, 185-210쪽.

21) 한수정, 「음악감상활동 기반 교양수업 참여 대학생의 학습몰입 및 지속에 관한 연구」, 『음악교육연구』, 53권4호, 2024, 275-303쪽.

22) Vygotsky, L. 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78. 84-91pp.

23) Jonassen, D. H., "Designing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s", In C. M. Reigeluth (Ed.),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Vol. 2, Lawrence Erlbaum, Mahwah, NJ, 1999. 215-239pp.

경영학 전공자가 '극단 경영과 마케팅' 관점에서 연극을 분석하거나 심리학 전공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적 동기'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Piaget가 말한 '동화(assimilation)'와 '조절(accommodation)'의 과정을 통해 기존 인지구조를 확장하는 학습 경험이 된다. 또한 Vygotsky의 '근접발달영역(ZPD)' 개념을 적용하면, 학습자가 이미 보유한 전공 지식은 연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탐구할 때 '비계(scaffolding)' 역할을 수행하여 독자적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통합적 이해에 이를 수 있게 한다.

Ausubel(1968)의 유의미 학습이론에서도 새로운 정보는 학습자의 인지구조에 이미 존재하는 관련 개념과 연결될 때 의미 있게 학습된다고 강조한다.²⁴⁾ 따라서 연극이론을 학습할 때 학습자가 자신의 전공 분야와 연결 지어 이해하도록 유도하면 정보 암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닌 깊은 수준의 이해와 전이가 가능해진다.

전공 연계 학습(Major-Integrated Learning)은 학습자가 자신의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문 영역을 탐구하도록 유도하는 교육 방법이다.²⁵⁾ 이를 통해 학습자는 지식 습득을 넘어 융합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예술 교양교육에서 전공 연계 접근법은 학습자의 참여도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²⁶⁾

한편, Kolb(1984)의 경험학습이론(Experiential Learning Theory)은 학습이 구체적 경험(Concrete Experience), 반성적 관찰(Reflective Observation), 추상적 개념화(Abstract Conceptualization), 능동적 실험(Active Experimentation)의 순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²⁷⁾ 이 이론에 따르면, 학습자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반성하고 이를

24) Ausubel, D. P., 위의 논문, 614-668pp.

25) 양수연·이다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3권3호, 2019, 179-210쪽.

26) 이가원, 위의 논문, 39-55쪽.

27) Kolb, D. A.,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1984. 20-38pp.

개념화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양 연극교육에서 현장 연극 관극과 같은 체험 활동은 이러한 경험학습의 구체적 경험 단계에 해당하며, 감상문 작성은 반성적 관찰과 추상적 개념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3) 연극의 다학제적 성격과 교육적 활용

연극은 본질적으로 다학제적(Interdisciplinary) 성격을 지닌 종합예술이다.²⁸⁾ 연극은 문학(희곡), 음악, 미술(무대디자인), 건축(극장공간), 심리학(인물분석), 사회학(사회비평), 철학(주제의식) 등 다양한 학문 분야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또한 조명, 음향, 영상 등 기술적 요소와의 결합을 통해 공학 분야와도 접점을 형성한다.

이러한 연극의 다학제적 특성은 다양한 전공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이 자신의 전공 관점에서 연극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경영학 전공자는 극단 운영과 마케팅의 관점에서, 심리학 전공자는 인물의 심리 분석 관점에서, 디자인 전공자는 무대미술과 시각적 연출의 관점에서, 사회복지학 전공자는 치료연극의 관점에서 연극을 탐구할 수 있다.

교육연극(Drama in Education)과 응용연극(Applied Theatre) 분야에서는 연극적 기법을 다양한 교육 맥락에 적용하는 사례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²⁹⁾ 치료연극, 기업연극, 법정연극 등은 연극이 특정 전문 분야와 융합될 때 새로운 교육적, 치료적, 실용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양 연극교육 역시 학습자의 전공 분야와 연계될 때 더 큰 교육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연극이론의 개념과 전공 학습에 대한 기여

본 연구에서 ‘연극이론’이란 연극 현상을 학문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

28) 김방옥, 위의 책, 36-37쪽.

29) 민병옥, 위의 책, 34-54쪽.

기 위한 체계적 개념과 방법론의 총체를 의미한다. 연극이론은 텍스트 분석과 기호 해독, 관객 수용, 공간 미학, 공연분석 등 다양한 사고를 요구하는 학문 영역이다.³⁰⁾

Pfister(1988)는 드라마 텍스트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하면서 인물 간 대화의 표면적 의미와 이면적 의미를 해석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서사분석 능력은 경영학에서의 사례분석(Case Analysis), 법학에서의 판례 해석, 사회복지학에서의 사례관리 기록 분석 등과 유사하여 학문적 전이가 가능하다. 연극기호학(Theatre Semiotics)은 무대 위의 모든 요소, 이를테면 발화, 몸짓, 분장, 의상, 조명, 음향, 공간 배치 등과 같이 언어적 행위, 비언어적 행위, 미장센을 기호로 읽어내는 분석 틀이다. Elam(1980)은 연극을 다중 코드 텍스트(multi-channel text)로 규정하면서 시각·청각·공간적 기호의 동시적 해독을 강조하였다.³¹⁾ Fischer-Lichte(2008)는 공연의 수행적(performative) 차원에 주목하여 의미가 고정된 텍스트에 서가 아니라 공연의 실행 과정에서 생성됨을 논증하였다.³²⁾ 이러한 다층적 기호 분석 능력은 광고홍보학에서의 미디어 텍스트 분석, 디자인 분야에서의 시각 커뮤니케이션 해석, 심리학에서의 비언어적 행동 분석 등과 접점을 형성한다.

한편 무대미학(Scenography)과 공연공간론은 무대 디자인, 조명, 의상, 대도구, 소도구 등 시각적 요소의 미학적 원리를 다룬다. Pavis(1998)는 공연분석의 종합적 틀을 제시하면서 무대의 시각 및 공간적 구성이 관객의 의미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였다.³³⁾ 이러한 공간 미학적 사고는 건축학에서의 공간 설계, 디자인 분야에서의 환경 디자인, 공학에서의

30) 문희경, 「브레히트 서사극 이론에 기반한 교육연극의 방향」, 『교육연극학』, 17권2호, 2025, 1-25쪽.

31) Elam, K., *The Semiotics of Theatre and Drama*, Methuen, London, 1980.

32) Fischer-Lichte, 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Performance: A New Aesthetics (trans. S. I. Jain)", Routledge, London, 2008, 230-232pp.

33) Pavis, P., *Dictionary of the Theatre: Terms, Concepts, and Analysis (trans. C. Shantz)*,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1998, 421-447pp.

기술적 구현과 연결된다.

이처럼 연극이론은 텍스트 분석과 기호 해독, 수용자 반응, 공간 미학 등 복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문 영역이며, 이러한 사고력은 특정 전공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 학문 역량으로서 다양한 전공 분야에 전이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M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연극의 이해와 감상' 교양과목 수강생 127명이다. M대학교의 '연극의 이해와 감상' 교양수업은 두 개의 분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분반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모든 학부 재학생에게 개방된 이론 수업이다. 본 수업은 교양핵심 영역 중 '문화와 예술' 영역에 해당하며, 연극의 정의, 역사, 제작, 공연 등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을 교육목표로 한다. 수강생들에게 제공되는 주차별 강의는 연극의 정의에 대한 이해, 연극의 요소와 구조, 연극의 시초, 희극과 비극의 이해, 연극제작의 과정과 이해, 연기론, 무대디자인과 기술, 한국 연극사, 현대 연극의 흐름, 연극비평의 주제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현행 교과목에서 수강생들에게 전공 연계가 이루어지는 방식은 먼저 '강의요약문'을 운영하는 것이다. 강의요약문은 매주 수업 후 제출하는 과제로서 수강생들이 수강한 수업 내용을 연극이론 습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전공 관점에서 자유롭게 성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중간고사는 수강생들이 연극공연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공연을 경험한 후 '현장 연극 관극 후 감상문 작성'의 주제로 운영된다. 수강생들은 관극 경험 및 관찰을 통해 이론과 실제의 간극을 좁힐 수 있으며 평소 전공 관점에서 성찰한 내용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 기말고사는 가장 핵심적인 전공 연계 활동으로서 '연극의 이해를 통한 내 전공의 확장적 이해' 주제의 소논문 작

성으로 운영된다. 소논문 작성을 통해 수강생들은 한 학기 동안 학습한 연극이론을 자신의 개별전공과 창의적으로 융복합하여 학술적으로 탐구하도록 한다.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는 [표 1]과 같다. 1학년이 48명(37.8%)으로 가장 많았으며, 2학년 34명(26.8%), 3학년 26명(20.5%), 4학년 17명(13.4%) 순이었다. 1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교양필수 영역 이수 요건 충족을 위해 저학년 학생들의 수강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표1] 연구 대상자의 학년별 분포

학년	빈도(명)	비율(%)
1학년	48	37.8
2학년	34	26.8
3학년	26	20.5
4학년	17	13.4
미응답	2	1.6
합계	127	100.0

전공 계열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예술계열 42명(33.1%), 사회과학계열 27명(21.3%), 경영계열 17명(13.4%), 기타 15명(11.8%), 공학계열 7명(5.5%), 건강/체육계열 7명(5.5%), 교육계열 6명(4.7%), 인문계열 3명(2.4%), 자연과학계열 1명(0.8%), 미응답 2명(1.6%)으로 나타났다. 예술계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연과학계열과 인문계열의 표본 수가 매우 적어 계열별 비교분석 결과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표집의 불균형은 '문화와 예술' 영역 교양과목의 특성상 예술계열 학생들의 수강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연극의 이해와 감상’ 교과목의 교육 효과 및 전공 연계 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이미 타당도 및 신뢰도가 확보된 대학생의 교양교육 인식에 관한 선행연

구³⁴⁾³⁵⁾와 교양교육 요구분석 및 만족도 조사 연구³⁶⁾³⁷⁾³⁸⁾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맥락에 맞게 개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육 필요성 인식 영역은 이보경 외(2010)의 교양 교육 중요도 및 만족도 문항과 곽은주와 정지연(2022)의 교양교육 인식 문항을 참고하였고 전공별 요구분석 영역은 양수연과 이다민(2019)의 융합교육 요구분석 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학습 평가 방식 영역은 정승원 외(2020)의 교양교육 성과 관련 문항과 민상희 외(2020)의 대학교육 학생만족도 측정도구를 참고하여 본 교과목의 평가 방식에 맞게 조정하였다.

설문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교양교육 전문가 1인과 연극학 전공 교수 1인에게 문항의 적절성과 명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으며,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을 수정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 요인분석을 통한 구성타당도 검증은 시행하지 않아 이는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종 설문지는 총 8개 영역 4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설문의 내용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2] 설문조사 구성 영역

영역	주요 내용	문항 수	응답 유형
1. 기본 신상	이름, 학번, 학과, 학년, 수강 동기	6	객관식/주관식

34) 이보경·이재성·김은경, 위의 논문, 1-23쪽.

35) 곽은주·정지연, 「학생 관점의 교양교육 인식, 요구와 만족, 그리고 선택요인 분석」, 『교양교육연구』, 16권6호, 2022, 27-45쪽.

36) 양수연·이다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3권3호, 2019, 179-210쪽.

37) 정승원·장현수·김세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모델을 적용한 4년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4권5호, 2020, 83-95쪽.

38) 민상희·손애리·장사랑, 「대학교육 학생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권10호, 2020, 338-352쪽.

2. 교육 필요성 인식	커리큘럼 만족도, 전공 도움, 사고력 향상	5	5점 리커트
3. 전공별 요구 분석	연계성 인식, 맞춤형 모듈 필요성, 관심 주제	4	혼합형
4. 교육 방식 선호도	실습 선호, VR 활용 관심, 모듈활동 희망	3	5점 리커트
5. 교육 내용 기대	연극사 필수성, 현대 트렌드 흥미, 추가 학습 주제	3	혼합형
6. 학습 평가 방식	성찰평가, 발표 평가, 중간/기말 평가 인식	5	5점 리커트
7. 학습 장애물 인식	예상 어려움, 학교지원 충분성	2	혼합형
8. 유지 및 개선 사항	장단점, 교수법 의견, 개선 제안	12	주관식

5점 리커트 척도 문항은 ‘1=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주관식 문항은 학습자의 심층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함하였는데 특히 전공별 맞춤형 모듈에 대한 제안, 현 커리큘럼의 장단점, 소논문 작성의 전공 역량 기여도 등에 대해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교육 필요성 인식 영역 $\alpha=.781$, 교육 방식 선호도 영역 $\alpha=.712$, 학습 평가 방식 영역 $\alpha=.698$ 로 나타났다. Nunnally(1978)에 따르면 Cronbach's α 값이 .60 이상이면 탐색적 연구에서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70 이상이면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된다.³⁹⁾ 본 연구의 하위 영역별 신뢰도는 모두 .698 이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전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alpha=.870$ 으로 양호한 수준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2025년 2학기 기말고사 이후 설문지 배포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의 목적과 설문 참여의 자발성, 익명성 보장에 관해 설명한 후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양적 분석

39)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2nd ed.), McGraw-Hill, New York, 1978, 245p.

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양적 분석에서는 SPSS 26.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와 신뢰도 분석(Cronbach's α),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상관분석(Pearson's r)을 실시하였으며, 복수 선택 문항은 빈도와 백분율을 분석하였다. 문항별 결측치는 해당 분석에서 제외(listwise deletion)하여 처리하였으며, 이에 따라 분석 문항별 유효 응답 수(n) 차이가 있다. 질적 분석에서는 주관식 응답에 대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시행하여 주요 키워드와 공통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전체 응답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있는 진술문을 추출하였다. 둘째, 추출된 진술문을 유사한 의미 단위로 묶어 하위범주를 만들었다. 셋째, 하위범주들을 다시 상위범주로 통합하여 최종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양교육 전문가 1인에게 범주화 결과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연구자의 해석이 적절한지 확인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수강 동기 및 기대

수강생들의 수강 동기를 분석한 결과, '연극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극 자체에 대한 관심이 68.0%(83명)로 가장 높았으며, 흥미와 재미 40.2%(49명), 문화교양 함양 16.4%(20명), 전공 연계 9.0%(11명), 학점 취득 7.4%(9명), 시간표 적합성 4.9%(6명) 순으로 나타났다(복수 응답).

수강 동기에 대한 주관식 응답에서 학습자들은 다양한 기대를 표현하였다. “평소에도 연극에 관심이 있어서 다양한 걸 알기 위해 신청했다”,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중요한 표현력·공감능력·소통능력을 강화하고 싶어서 신청했다”, “중간고사에 연극을 보고 감상문을 제출하는 시험이어서 연극이라는 문화예술과 더욱 가까워지기 위해

서 신청했습니다” 등의 응답이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 대부분이 연극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문화적 소양 함양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수강을 신청하였음을 보여준다.

2) 교육 필요성 인식

교육 필요성 인식 영역의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커리큘럼의 짜임새에 대한 만족도가 $M=4.74(SD=0.62)$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9.3%(96명)가 '매우 그렇다'를 선택하였다. 이는 교수자가 체계적으로 구성한 주차별 강의 내용이 학습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3] 교육 필요성 인식 분석 결과($n=121$)

문항	M	SD	분포(1-2-3-4-5)
커리큘럼 짜임새	4.74	0.62	2-0-2-21-96
문화교양 향상 기여	4.64	0.67	2-0-3-30-86
창의적 사고 향상 기여	4.45	0.82	2-2-10-35-72
'연극의 이해와 감상2' 수강 의사	4.01	1.03	3-5-29-34-50
전공에 도움	3.74	1.11	7-5-39-34-36

문화교양 향상 기여도($M=4.64$, $SD=0.67$)와 창의적 사고 향상 기여도($M=4.45$, $SD=0.82$)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극 교양교육이 학습자의 문화적 소양과 창의성 함양에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전공에 대한 도움($M=3.74$, $SD=1.11$)은 상대적으로 낮고 표준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공에 따라 연극과의 연관성을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3) 전공별 요구분석 및 차이분석

전공과 연극이론의 연계성 인식은 $M=3.59(SD=1.09)$ 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학습자 간 인식의 편차

가 큼을 알 수 있다. '전공별 맞춤형 연극이론 모듈'의 필요성은 $M=3.65(SD=1.08)$ 로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수강 시 예상 어려움에 대한 복수 선택 결과, '전공과의 괴리감'이 31명(24.4%)으로 가장 많이 선택되었으며, 시간 부족 21명(16.5%), 기타 18명(14.2%), 실기 부재에 대한 아쉬움 5명(3.9%), 평가 방식 불만족 5명(3.9%)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의 괴리감'이 가장 높은 어려움으로 지적된 것은 현행 교양교육이 학습자의 전공 배경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심 있는 전공 연계 주제에 대한 복수 선택 결과는 [표 4]와 같다. 트라우마 치유(29명, 22.8%)가 가장 높은 관심을 받았으며, 인문학커뮤니케이션(24명, 18.9%), 리더십 훈련(23명, 18.1%), 과학 이론 시각화(6명, 4.7%) 순으로 나타났다. 트라우마 치유에 대한 높은 관심은 사회복지학과, 심리학과 등 휴먼서비스 분야 전공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4] 관심 있는 전공 연계 주제(복수 응답)

주제	빈도(명)	비율(%)
트라우마 치유	29	22.8
인문학커뮤니케이션	24	18.9
리더십 훈련	23	18.1
과학 이론 시각화	6	4.7
기타	3	2.4

한편 학년별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 중간고사(관극 감상문)의 이해도 기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043, p=.033, \eta^2=.072$). Cohen(1988)의 기준에 따르면 $\eta^2=.01$ 은 작은 효과, $.06$ 은 중간 효과, $.14$ 는 큰 효과로 해석되므로, 본 결과는 중간 수준의 효과크기를 보인다.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4학년($M=3.82$)이 1학년($M=3.21$)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p<.05$).

이는 고학년일수록 현장 연극 관극 경험을 학습에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전공계열별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공과 연극이론의 연계성 인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760$, $p=.015$, $\eta^2=.089$). Scheffé 사후검정 결과, 예술계열($M=3.92$)이 경영계열($M=3.18$, $p<.05$) 및 공학계열($M=3.14$, $p<.05$)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연계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학계열($n=7$), 인문계열($n=3$), 자연과학계열($n=1$) 등 일부 계열의 표본 수가 적어 등분산성 가정 충족 여부를 Levene 검정으로 확인하였으며($p=.127$), 등분산성이 충족되었으나 소표본으로 인한 해석의 제한점이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표5] 학년별 인식 차이

변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F	p
전공 도움 인식	3.72	3.68	3.81	3.88	0.137	.938
전공-연극 연계성	3.54	3.61	3.58	3.71	0.622	.603
중간고사 이해도 기여	3.21	3.45	3.62	3.82	3.043	.033*

4) 교육 방식 선호도 및 내용기대

교육 방식 선호도 분석 결과, VR/메타버스 활용 관심($M=3.57$, $SD=1.16$), 실습/프로젝트 수업 선호($M=3.01$, $SD=1.21$), 모둠활동 희망($M=2.71$, $SD=1.30$) 순으로 나타났다. 모둠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대규모 이론 강의에서 조별 활동의 현실적 어려움과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가로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한 복수 선택 결과, 무대 디자인이 44명(34.6%)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기 기술 26명(20.5%), 서사구조 분석 16명(12.6%), 교육연극 6명(4.7%) 순으로 나타났다. 무대 디자인에 대한 높은 관심은 디자인 계열 전공자들의 요구와 연극의 시각적 요소에 대한 학습자들의 흥미를 반영한다.

주관식 응답에서 추가로 다루길 희망하는 주제로는 "AI를 활용한 연기

분석", "홀로그램 기술을 사용한 연극",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극 중 라이어나 쉬어매드니스 같은 연도 깊은 연극에 대해 알아보는 과정", "여러 나라의 연극 스타일", "유튜브/미디어 등 1인 미디어에서의 연기 및 자기 표현법" 등이 제안되었다.

5) 학습 평가 방식에 대한 인식 및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학습 평가 방식의 분석 결과는 <표 6>와 같다. 중간고사(현장 연극 관극 후 감상문)의 이해도 기여가 $M=4.44(SD=0.75)$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찰평가(강의요약문) 지지 $M=4.15(SD=0.97)$, 개인 발표 평가 공정성 $M=4.13(SD=1.14)$, 기말고사(소논문) 전공역량 기여 $M=3.81(SD=1.02)$ 순이었다. 팀 발표 평가 공정성($M=2.61, SD=1.26$)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팀 평가에 대한 학습자들의 우려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6] 학습 평가 방식 인식 분석 결과

평가 방식	n	M	SD
중간고사(관극 감상문) 이해도 기여	119	4.44	0.75
성찰평가(강의요약문) 지지	121	4.15	0.97
개인 발표 평가 공정성	118	4.13	1.14
기말고사(소논문) 전공역량 기여	117	3.81	1.02
팀 발표 평가 공정성	120	2.61	1.26

한편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전공-연극 연계성 인식과 전공 도움 인식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683, p<.001$). 이는 학습자가 전공과 연극의 연계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연극 교양교육이 자신의 전공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함을 의미한다. 또한 전공-연극 연계성 인식과 기말고사 소논문의 전공 역량 기여 인식 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552, p<.001$). 창의적 사고 향상과 문화교양 향상 간에도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654, p<.001$).

[표7]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변인	1	2	3	4
1. 전공 도움 인식	1			
2. 전공-연극 연계성	.683**	1		
3. 창의적 사고 향상	.250*	.234*	1	
4. 문화교양 향상	.386**	.268*	.654***	1

* $p < .05$, ** $p < .01$, *** $p < .001$

6) 주관식 응답 분석

(1) 전공별 맞춤형 모듈에 대한 제안

전공별 맞춤형 연극이론 모듈이 주차별 강의 주제로 새롭게 추가된다면 어떤 내용을 학습해야 하는지에 대한 주관식 응답($n=105$)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범주가 도출되었다.

첫째, '전공과 연극의 연관성 및 활용 가능성' 학습주제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강의요약문과 기말고사 작성을 통해 내 전공과 연극의 융복합을 탐색하는 기회는 좋았지만, 주차별 수업주제 중에도 연극이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어떤 연관성이 있고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법을 강의 커리큘럼으로 추가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전공과 연극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도 배우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매 수업마다 아이디어나 연결의 방법같은 것들을 연극이론과 결들여서 강의해 주시길 하지만 저의 전공에 관련된 것만 구체적으로 배우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문제, 안전, 기술을 연극으로 표현하는 방법 같은 것을 알고 싶습니다”

둘째, '전공 특성에 맞는 사례 기반 역할극·상황극'에 대한 실기제작 요구가 있었다. 소방방재학과 학생은 "비극과 카타르시스를 통한 트라우마

관리: 현장직에서 일어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연극적 카타르시스로 해소하는 예술 치료적 접근", "시민 대상 안전교육 연극 제작"을 제안하였다.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만약 사회복지학과라면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연극, 심리학과라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혼자만 앓고 있는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도울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연극으로 사회에 대한 시선들을 바꿀 수 있는 내용"을 제작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하였다.

셋째, '계열별 모듈화'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공대, 미대, 음대, 사회과학대 등등 나누어 전공별 맞춤형 연극이론 모듈을 만들고, 그 분야를 차시로 나눠 수업하면 좋을 것 같다”

“전공별 맞춤형 커리큘럼이 연극 이해와 감상 수업에 포함된다면 먼저 각 전공이 연극을 어떤 목적과 관점에서 활용하는지를 중심으로 감상 기준을 세워야 한다”

(2) 현 커리큘럼의 장단점

현재 커리큘럼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n=93)으로는 '이론 수업의 특성상 참여 활동이 적다'는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연극에 대해서 공부하는 건 좋았으나 실제로 연기를 해보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너무 이론주의적 수업이라 조금은 체험형 수업 방식으로 바뀌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실습이 하나도 없다는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

또한 '강의요약문 작성의 부담'도 지적되었다.

“매주 작성해야 하는 강의 요약문 과제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주마다 강의 요약문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여 힘들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강의요약문의 효과를 인정하는 응답도 많았다.

반면, 탁월한 부분(n=112)으로는 '교수자의 강의력과 열정'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집중이 잘되는 교수님의 강의와 집에 와서 강의요약문 작성을 하며 강의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좋은 것 같다”

“교수님의 발성이 너무 좋아 뒷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않고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들어주시는 예시, 준비하신 강의 내용, 피피티, 특히 강의력은 제가 대학교에 와서 보았던 교수님 중 최고였어요”

'중간고사의 현장 연극 관극 활동'도 높이 평가되었다.

“평소에는 연극 관람 후 느낀 점이나 후기를 깊이 고민할 기회가 많지 않지만, 이번 과제를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과 내 생각을 섞어서 관람하니 연극을 보다 심도 있게 돌아볼 수 있었다”

“이 수업이 아니었으면 무슨 연극을 하는지도 몰랐을 텐데 연극의 역사와 연극을 직접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3) 기말고사 소논문의 전공 역량 기여

기말고사 소논문(연극의 이해를 통한 내 전공의 확장적 이해) 작성이 전공 역량 상승에 기여한 바에 대한 응답(n=109)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첫째, ‘전공에 대한 새로운 관점 인식’이다.

“전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획력과 생각을 정리하는 힘이 조금 더 늘었다고 느꼈습니다”

“내 전공이 단순 경영이기에 쉽게 생각하였지만, 연극과 연계하여 생각해 보니 생각보다 심오하고 분석하는 것에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전공에 대한 편협한 생각을 깨게 해준 활동인 것 같습니다”

둘째, ‘융합적 사고력 향상’이다.

“전공과 타 분야를 융합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여러 가지 정보를 찾으며 근거 자료를 생성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전공(광고홍보커뮤니케이션)이 국한되지 않고 여러 전공과 결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에서 나의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다”

“교양은 전공과 상관없어서 사실 좀 자도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전공과제를 작성할 때 도움이 되었다. 전공교수님께서 내가 연극교양에서 작성한 과제를 보시고 기발한 융복합적 아이디어

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졸업논문으로 발전시키라고 하셨다”

셋째, ‘전공별 구체적 역량 향상’이다.

소방방재학과 학생은 “연극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은 상황 관찰 능력과 사건의 흐름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판단해야 하는 소방 전공의 특성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소방업무에 필요한 분석력·관찰력·의사 소통 능력을 확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응답하였다.

미술교육과 학생은 “연극의 시각적 요소를 미술 교육이라는 경험적 요소로 전환하여 대입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고능력과 분석능력, 수업을 설계해 나가는 역량을 심화시킬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학문적 글쓰기 역량 향상’이다.

“아직 1학년이라 소논문이라는 걸 처음 써보기도 했어서 적는 형식을 잘 모르기도 했고, 이것저것 다 알아보면서 하느라 조금 힘들었던 것 같다. 비록 조금 힘들었지만 하고 나니 뿌듯하기도 했고 내가 소논문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M대학교 ‘연극의 이해와 감상’ 수강생 127명을 대상으로 개별 전공을 고려한 연극이론 교양교육의 실제와 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커리큘럼의 짜임새($M=4.74$, $SD=0.62$), 문화교양 향상($M=4.64$, $SD=0.67$), 창의적 사고 향상($M=4.45$, $SD=0.82$)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연극 교양교육이 학습자의 문화적 소양과 창의성 함양에 효

과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중간고사로 실시된 현장 연극 관극 활동이 이해도 향상에 크게 기여($M=4.44$, $SD=0.75$)한 것으로 나타나, 이론과 체험을 연계하는 교육 방식의 유효성이 입증되었으며, 이는 Kolb(1984)의 경험 중심 학습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공계열별 차이 분석 결과, 전공과 연극이론의 연계성 인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3.760$, $p=.015$). 예술계열 학생들이 다른 계열 학생들보다 연극과 전공 간의 연계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전공-연극 연계성 인식과 전공 도움 인식 간에 강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683$, $p<.001$). 이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선행 지식과의 연결이 학습 효과를 높인다는 주장을 지지한다.

그러나 전공과 연극이론의 연계성 인식($M=3.59$, $SD=1.09$)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수강 시 예상 어려움으로 ‘전공과의 괴리감’이 가장 많이 선택(24.4%)되었는데 현행 교과목이 연극이론의 다양한 학문적 전이 가능성을 학습자의 전공과 연결하는 데 있어 체계적인 교수학적 장치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현행 교양교육이 학습자의 전공 배경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선행연구⁴⁰⁾⁴¹⁾의 지적과 일치한다. 반면 ‘전공별 맞춤형 연극이론 모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M=3.65$, $SD=1.08$)을 보여 전공 연계 교육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트라우마 치유(22.8%), 인문학커뮤니케이션(18.9%), 리더십 훈련(18.1%) 등 구체적인 전공 연계 주제에 관한 관심도 확인되었다.

기말고사 소논문 작성은 전공 역량 향상에 기여($M=3.81$, $SD=1.02$)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식 응답에서 ‘전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됨’, ‘융합적 사고력 향상’, ‘진로 시각 확장’ 등의 긍정적 효과가 보고되었다. 이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학습자의 기존 지식과 새로운

40) 박은주·정지연, 위의 논문, 27-45쪽.

41) 이보경·이재성·김은경, 위의 논문, 1-23쪽.

지식의 연결이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적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학습자의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전공 역량의 향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한 것은 아니다. 소논문 작성이 전공 역량에 미치는 실제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전-사후 검사 설계나 통제집단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공 연계형 연극교양교육'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전공별 맞춤형 연극이론 모듈의 개발이 필요하다. 관심 주제 조사에서 트라우마 치유(22.8%), 인문학커뮤니케이션(18.9%), 리더십 훈련(18.1%)에 대한 높은 관심이 확인된 바,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학과를 위한 '치료연극과 사회복지 실천', 소방방재학과를 위한 '위기상황 대응 역할극과 PTSD 치유', 경영학과를 위한 '조직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 역할극', 교육학과를 위한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등 전공 특성에 맞는 연계 모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연극이론의 핵심 개념이 각 전공 분야의 학습에 전이될 수 있는 구체적 경로를 모듈 설계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전공 연계 과제의 체계화가 필요하다. 주차별 강의요약문에 '나의 전공 관점에서 본 시사점' 항목을 추가하고, 중간 시점에 '전공-연극 연계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 과제를 부과하며, 기말 소논문 작성 전 '연구 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학기 초부터 체계적으로 전공과의 연계점을 탐색하도록 유도하는 단계별 과제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VR/메타버스 활용에 대한 관심($M=3.57$, $SD=1.16$)이 확인되었으므로, 가상현실 기반의 무대 체험, AI를 활용한 연기 분석, 홀로그램 연극 등 기술 융합형 콘텐츠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이론과 체험의 균형 있는 결합이 필요하다. 기존의 이론 강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전공별 소규모 워크숍이나 역할극 체험 시간을 추가하는 '이론+체험' 병행 모델의 구축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교양 연극교육에서 학습자의 전공 배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

육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실증하였다는 점과 기말고사 소논문 작성이 학습자의 전공 역량 향상에 영향을 미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극의 다학제적 특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공 배경의 학습자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와 연극을 융합적으로 이해하도록 유도하는 ‘전공 연계형 연극교양교육’ 모델은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학습자의 통합적 사고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단일 대학의 단일 교과목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제한이 있다. 둘째, 예술계열 학생의 비율(33.1%)이 높고 자연과학계열(0.8%), 인문계열(2.4%) 등의 표본이 적어 계열별 비교분석 결과의 대표성이 제한적이다. 셋째, 학기말 자기보고식 설문조사에 의존하여 교육 효과의 장기적 지속성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학습자의 '인식'을 측정한 것으로 실제 역량 향상을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 넷째, 측정도구의 구성타당도 검증을 시행하지 않아 도구의 타당성에 한계가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공별 맞춤형 모듈은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학습자의 요구와 관심에 기반한 것이지만, 모듈의 실제적 교육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대학과 교과목을 대상으로 전공 연계형 교양교육의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 종단 연구를 통해 장기적 효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전공별 맞춤형 모듈을 실제로 개발하여 적용한 후 사전-사후 검사 설계 및 통제집단 비교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극이론의 핵심 개념이 다양한 전공 분야의 학습에 실제로 전이되는 과정을 질적으로 추적하는 종단적 사례연구도 후속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곽은주·정지연, 「학생 관점의 교양교육 인식, 요구와 만족, 그리고 선택요인 분석」, 『교양교육연구』, 16권6호, 2022, 27-45쪽.
- 김방욱, 『동시대 한국연극의 혼돈과 생성』, 연극과 인간, 서울, 2016. 854-886쪽.
- 문희경, 「브레히트 서사극 이론에 기반한 교육연극의 방향」, 『교육연극학』, 2025, 17권2호, 1-25쪽.
- 민병욱, 『교육연극의 이론과 실제』, 연극과 인간, 서울, 2000. 34-54쪽.
- 민상희·손애리·장사랑, 「대학교육 학생만족도 측정도구 개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권10호, 2020, 338-352쪽.
- 박주은, 「학습자 중심의 교양과 인성 수업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 논문지』, 9권9호, 2019, 81-90쪽.
- 백승수, 「한국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유형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교양교육연구』, 13권6호, 2019, 101-122쪽.
- 손동현, 「교양교육의 새로운 위상과 그 강화 방책」, 『교양교육연구』, 3권2호, 2009, 5-22쪽.
- 양수연·이다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융합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교양교육연구』, 13권3호, 2019, 179-210쪽.
- 이기원, 「다문화교육을 위한 대학 음악교양교육과정 개발 연구」, 『예술교육연구』, 13권3호, 2015, 39-55쪽.
- 이보경·이재성·김은경, 「대학생의 교양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문제연구』, 38권, 2010, 1-23쪽.
- 장영지, 「교양 교육 콘텐츠로서 장소 특정적 연극의 가능성」, 『교양교육연구』, 2023, 17권6호, 221-234쪽.
- 정승원·장현수·김세준,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의 표준모델을 적용한 4년제 대학 교양기초교육의 현황과 시사점」, 『교양교육연구』, 14권5호, 2020, 83-95쪽.
- 조수정, 「대학의 예술 교양교육 - '예술의 이해와 탐구' 교과목을 중심으로」, 『문화와융합』, 41권6호, 2019, 185-210쪽.
- 한수정, 「음악감상활동 기반 교양수업 참여 대학생의 학습몰입 및 지속에 관한 연

구」, 『음악교육연구』, 53권4호, 2024, 275-303쪽.

Ausubel, D. P., “Educational Psychology: A Cognitive View, Holt, Rinehart & Winston”, New York, 1968. 614-668pp.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J, 1988. 281-285pp.

Elliot, D.,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1995. 299-331pp.

Elam, K., *The Semiotics of Theatre and Drama*, Methuen, London, 1980.

Fischer-Lichte, E., “The Transformative Power of Performance: A New Aesthetics (trans. S. I. Jain)”, Routledge, London, 2008. 230-232pp.

Jonassen, D. H., “Designing Constructivist Learning Environments, In C. M. Reigeluth (Ed.)”, *Instructional Design Theories and Models*, Vol. 2, Lawrence Erlbaum, Mahwah, NJ, 1999, 215-239pp.

Kolb, D. A., “Experiential Learning: Experience as the Source of Learning and Development”,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J, 1984, 20-38pp.

Nunnally, J. C., *Psychometric Theory* (2nd ed.), McGraw-Hill, New York, 1978, 245p.

Pavis, P., *Dictionary of the Theatre: Terms, Concepts, and Analysis* (trans. C. Shantz), University of Toronto Press, Toronto, 1998, 421-447pp.

Piaget, J., *Genetic Epistemology*,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70.

Vygotsky, L. S., *Mind in Society: The Development of Higher Psychological Processe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1978. 84-91pp.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 교양교육에서 연극이론 교과목이 학습자의 개별 전공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를 통해 교양교육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실제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M대학교 '연극의 이해와 감상' 수강생 127명을 대상으로 8개 영역 40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들은 커리큘럼의 짜임새($M=4.74$, $SD=0.62$)와 문화 교양 향상($M=4.64$, $SD=0.67$), 창의적 사고 향상($M=4.45$, $SD=0.82$)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그러나 전공과 연극이론의 연계성 인식($M=3.59$, $SD=1.09$)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수강 시 예상 어려움으로 '전공과의 괴리감'(31명, 24.4%)이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한편, '전공별 맞춤형 연극이론 모듈'의 필요성($M=3.65$, $SD=1.08$)에 대해서는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

주관식 응답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전공과 연극의 연관성 및 활용 가능성 학습', '전공 특성에 맞는 사례 기반 역할극', '사회 비판적 주제의 연극'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기말고사 소논문 작성이 '전공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됨', '융합적 사고력 향상', '진로 시각 확장' 등에 기여하였다는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교양 연극교육이 학습자의 전공 배경을 교육 설계에 통합하는 '전공 연계형 연극교양교육' 모델의 필요성을 제안하며, 이는 교양교육과 전공교육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학습자의 통합적 사고력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교양교육, 연극이론, 전공 연계, 통합적 사고력, 구성주의 학습

■ Abstract

Practice and Strategies of Theatre Theory General Education Considering Individual Majors

Park, Hye Jun / Joongbu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theatre theory courses in university general education can be linked with learners' individual majors and to seek practical strategies for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general education. A survey consisting of 40 items across 8 areas was conducted with 127 students enrolled in the 'Understanding and Appreciation of Theatre' course at M University. The results showed that learners expressed high satisfaction with curriculum organization ($M = 4.74$, $SD = 0.62$), cultural literacy enhancement ($M = 4.64$, $SD = 0.67$), and creative thinking improvement ($M = 4.45$, $SD = 0.82$). However, the perception of connection between the learners' major and theatre theory ($M = 3.59$, $SD = 1.09$) was relatively low, and 'sense of disconnection from major' was most frequently selected as an anticipated difficulty (24.4%). Meanwhile, learners showed positive recognition for the necessity of 'major-specific customized theatre theory modules' ($M = 3.65$, $SD = 1.08$). Qualitative analysis of open-ended responses revealed that learners requested 'learning about the relevance and applicability of theatre to their majors', 'case-based role-playing tailored to major characteristics', and 'modularization by academic field'. Particularly, writing final exam essays contributed to 'viewing their major from new perspectives', 'improving convergent thinking skills', and 'expanding career perspectiv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e necessity of a major-integrated

theatre general education model that incorporates learners' major backgrounds into educational design. This model is expected to bridge the gap between general and major education and contribute to enhancing learners' integrative thinking skills.

Keyword • General education, Theatre theory, Major integration, Integrative thinking, Constructivist learning

■ 부록

설문지 주요 문항

I. 기본 신상 (6문항)

1. 이름:
2. 학번:
3. 학과(전공):
4. 학년: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5. 수강 동기 (복수 선택 가능): ① 연극에 대한 관심 ② 흥미와 재미
③ 문화교양 함양 ④ 전공 연계 ⑤ 학점 취득 ⑥ 시간표
적합성 ⑦ 기타()
6. 수강 동기를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II. 교육 필요성 인식 (5문항, 5점 리커트)

※ 각 문항에 대해 1=매우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중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1. 본 수업의 커리큘럼은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
2. 본 수업은 나의 문화교양 향상에 도움이 된다.
3. 본 수업은 나의 창의적 사고 향상에 도움이 된다.
4. 본 수업 내용은 나의 전공에 도움이 된다.
5. '연극의 이해와 감상2'가 개설된다면 수강할 의사가 있다.

III. 전공별 요구 분석 (4문항, 혼합형)

1. 나의 전공과 연극이론은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5점 리커트)
2. 전공별 맞춤형 연극이론 모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점 리커트)
3. 관심 있는 전공 연계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① 트라우마 치유 ② 인문학커뮤니케이션 ③ 리더십 훈련 ④ 과학
이론 시각화 ⑤ 기타()
4. 전공별 맞춤형 연극이론 모듈이 추가된다면 어떤 내용을 학습하면
좋겠습니까? (주관식)

IV. 교육 방식 선호도 (3문항, 5점 리커트)

1.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수업 방식을 선호한다.
2. VR/메타버스를 활용한 연극 체험 수업에 관심이 있다.
3. 모둠활동(조별 활동)을 희망한다.

V. 교육 내용 기대 (3문항, 혼합형)

1. 연극사(연극의 역사)는 필수적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5점 리커트)
2. 현대 연극 트렌드에 대해 배우는 것에 흥미가 있다. (5점 리커트)
3. 추가로 배우고 싶은 주제를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① 무대 디자인 ② 연기 기술 ③ 서사구조 분석 ④ 교육연극
 ⑤ 기타()

VI. 학습 평가 방식 (5문항, 5점 리커트)

1. 중간고사(현장 연극 관극 후 감상문 작성)는 연극 이해에 도움이 된다.
2. 성찰평가(매주 강의요약문 작성) 방식을 지지한다.
3. 개인 발표 평가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4. 기말고사(소논문 작성)는 전공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된다.
5. 팀 발표 평가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VII. 학습 장애물 인식 (2문항, 혼합형)

1. 본 수업을 수강하면서 예상되는 어려움을 선택해 주세요. (복수 선택 가능)
 ① 전공과의 괴리감 ② 시간 부족 ③ 실기 부재에 대한 아쉬움
 ④ 평가 방식 불만족 ⑤ 기타()
2. 학교의 교양교육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리커트)

VIII. 유지 및 개선 사항 (12문항, 주관식)

1. 현재 커리큘럼에서 가장 탁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2. 현재 커리큘럼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3. 교수자의 교수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중간고사(관극 감상문)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5. 기말고사(소논문: '연극의 이해를 통한 내 전공의 확장적 이해')
작성이 전공 역량 향상에 기여한 바를 서술해 주세요.
6. 강의요약문 작성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7. 개인 발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8. 팀 발표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9. 본 수업에서 유지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0. 본 수업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1. 전공별 맞춤형 모듈이 도입된다면 어떤 형태가 좋겠습니까?
12.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서술해 주세요.

미국 대학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을 통해 살펴본 한국어 교사의 역할*

전 희 정**

목 차

1. 서론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1. 서론

본고는 미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이상적인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좋은 교사’라는 개념은 교육 현장이나 교사 교육 과정에서 직관적으로 사용되지만 그 의미와 기준은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 교과목의 특성, 그리고 이를 정의하는 사람이 교사인지 학습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학습 내용의 전문가로서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학습자의 동기와 같은 정의적 요인을 포함한 학습 경험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이다. 따라서, 교사는 학습자가 수업을 선택하거나 학업을 지속할지 결정

* 본 논문은 2020 AATK Annual Conference (2020/6/19-20)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럿거스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학과 강의전담조교수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학습자의 동기 저하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Dörnyei & Ushioda, 2013)¹⁾. 이러한 점에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이들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교사 개인의 전문성에 대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은 물론이거니와 학습 경험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소개할 연구와 함께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수업 선택에 있어 교사의 중요도를 7점 척도(7=매우 중요, 1=전혀 중요하지 않음)로 평가하도록 했을 때, 응답자의 61.4%가 7점과 6점을 부여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 역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자신의 학습 경험 전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좋은 한국어 교사’에 대한 논의 역시 이론적·규범적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학습자의 인식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정 맥락에서 학습자가 인식하는 좋은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함으로써, 이러한 맥락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의 교육과 재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 예를 들어, 학습 동기 저하가 관찰된 학습자 50명을 대상으로 학습 동기 저하(Demotivation) 요인을 조사한 Dörnyei (1998)의 연구에서도 교사에 대한 언급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Dörnyei & Ushioda, 2013에서 재인용, p. 148).

- ① The teacher (personality, commitment, competence, teaching method)
- ② Inadequate school facilities (class size, appropriate level, frequent change of teachers)
- ③ Reduced self-confidence (experience of failure or lack of success)
- ④ Negative attitude towards the L2
- ⑤ Compulsory nature of L2 study
- ⑥ Interference of another foreign language being studied
- ⑦ Negative attitude towards L2 community
- ⑧ Attitudes of group members
- ⑨ Coursebook

2. 선행 연구 검토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교육학 전반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Shulman(1987)은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교과 내용 자체에 대한 지식(contents knowledge)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을 학습자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교수학적 내용 지식(PCK, pedagogical contents knowledge), 그리고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curricular knowledge)를 꼽았다. 뿐만 아니라, 교수·학습 일반에 대한 지식, 학습자 및 학습자 배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선 교육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지식 역시 교사 전문성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꼽혔다. 이는 교사의 전문성이 교과에 대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이해하고 그에 적합한 교수법을 선택하는 교육적 판단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의는 이후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으며, 외국어 교사의 자질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예를 들어, Harmer(2007)는 영어 교사의 역할을 여덟 가지로 제시했다. 즉, 교사는 ① 수업과 활동을 주도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통제자(Controller), ② 활동을 준비하고 안내하는 활동 조직자(Organizer), ③ 학습자들의 수행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평가자(Assessor), ④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촉진자(Prompter), ⑤ 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수업을 활성화하는 참여자(Participant), ⑥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적 학습을 격려하는 자료 및 정보 제공자(Resource), ⑦ 소그룹이나 개인 프로젝트를 지도하는 튜터(Tutor), ⑧ 학습자의 수행을 관찰하고 활동 개선을 꾀하는 관찰자(Observer)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리했는데, 이는 Shulman(1987)이 제안한 교사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실제 교육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학습자들의 학습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외국어 교육의 실제 상황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ark과 Lee(2006)는

교사의 자질을 보다 상위 차원에서 재구성하여 논의했다. 이들은 영어 학습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영어 교사의 자질을 전문 지식(영어 능력 및 지식), 교수법적 능력(수업 준비와 구성, 다양한 매체 활용, 흥미 유발과 참여 촉진), 사회·정서적 요소(유머, 경청하는 태도, 학습 동기 및 자존감 향상)로 구분하여 제시했다.

한편,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초기 연구는 주로 교사 교육 과정 개발과 교사 양성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전통적인 한국어 교사로 연구들은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한국어학 및 국어학적 지식을 검토하고(김제열, 2004; 김호정, 2006)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 양성 및 재교육을 위한 교수요목을 개발하는 연구가 주류 이루어졌다(방성원, 2016; 손주희·원해영, 2017; 최은규·안경화, 2003; Chun·Cho, 2018)²⁾. 또한 다년간 한국어 교사를 양성해 온 전문가들이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제언하는 방식의 연구도 다수 이루어졌다(민현식, 2005; 허용, 2009).³⁾ 이러한 연구들은 교사 전문성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교사와 학습자의 실제 인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2000년대 후반부터는 한국어 교육의 이해당사자인 교사 및 교육 기관과 학습자의 인식을 직접 조사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 연구 중 다수는 교사의 인식(손주희·원해영, 2017; 안정민, 2015; 원해영, 2013; 이미혜, 2019)⁴⁾이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질(김재욱, 2016; 안정

2) 예를 들어, 방성원(2016)은 교사 재교육 모형을 설계하기 위해 교사의 전문성을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차원의 세 요소로 정의했다. 인지적 차원의 요소들은 지식을, 정서적 차원의 요소들은 신념을, 행동적 차원의 요소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요소들이라고 밝혔다.

3) 민현식(2005)은 교사의 역할을 인간으로서의 교사, 동료로서의 교사, 동역자로서 학부모와 교사, 학습의 촉진자, 관리자, 교직으로의 이행, 전문적인 지도자, 의사 결정자, 연구자, 학습자의 이해자, 프로그램 개발자로 정의했다.

4) 김재욱(2016)과 안정민·김재욱(2016)은 한국어 교육 기관의 채용 공고를 분석하여 이들이 선호하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을 확인했다. 그 결과, 채용 공고의 81.6%에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있는 지원자를 선호했고 학력, 교원 자격증, 전공, 외국어에 대한

민·김재욱, 2016)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학습자의 인식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그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강승혜, 2010; 원해영, 2013; 이인혜, 2018; Damron, 2009). 특히, 교사와 학습자의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원해영, 2013)⁶⁾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교사에게 기대되는 자질과 역할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자의 인식을 다룬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Damron(2009)은 미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600여 명이 3년에 걸쳐 제출한 강의 평가 자료를 분석하여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 그리고 교사의 성별에 따른 학습자의 선호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원어민 남성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고, 원어민 여성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차이가 각 교사 집단이 택한 수업 방식의 차이, 즉 비원어민 남성 교사들이 주로 택한 토론 중심 수업과 원어민 여성 교사들이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채용 단계별로 서류 심사에서는 서류 작성의 성실성과 정직성을, 시범 강의에서는 효과적인 문법 설명 능력, 새로운 교수법의 활용, 준비도,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능력을, 면접에서는 겸손하되 자신감 있는 태도를 중시함을 밝혀냈다.

- 5) 손주희·원해영(2017)에서 신입 교사들은 교사 양성 과정에서 한국어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교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교과 내용 지식과 교수법을 교사의 주요 자질로 인식하는 경향은 이미혜(2019)에서도 나타났다. 한국어 교사 2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요도 평가 결과가 가장 높은 요소는 한국어 교육 내용 지식, 바른 한국어 사용 능력, 수업 실행 역량 순이었다. 그 외에도 학습자 상담 및 관리 능력과 태도, 인성, 자기 개발 등도 핵심 역량으로 꼽혔다. 프랑스 대학 한국어 교사들과의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안정민(2015) 역시 전문적 요인(교육 경력, 교실 운영 능력, 프랑스어 사용, 수업 준비, 학습자와의 관계, 한국어 지식, 교수법적 역량)과 개인적 요인(전공과 학위, 프랑스어 능력, 성격, 외국어 학습 경험, 문화 적응력, 개인적 상황) 13가지를 교사의 자질로 꼽았다.
- 6) 원해영(2013)은 교사와 학습자 집단에 한국어 교사의 역할을 설명하는 16개의 용어를 제시하고 각 집단이 평가한 중요도를 비교했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흥미 촉진자, 친구, 분위기 주도자와 같이 정의적 요소와 관련된 역할을 중시한 반면, 교사들은 수업 강사, 교육과정 개발자와 같은 전통적인 교사 역할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택한 강의 중심 수업에 대한 선호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성별과 무관하게 원어민 교사보다 비원어민 교사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타났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현상이 비원어민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 수준에 적합한 언어를 더 잘 사용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열의가 더 잘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강승혜(2010)는 국내 대학 부설 기관에 재학 중인 5-6급 학습자 84명이 '좋은 선생님'을 주제로 작성한 한국어 글쓰기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습자들은 교사의 자질을 지식, 기술, 인성 및 태도로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학습의 주체로서 학습자를 지원하고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 교사에 대한 선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인혜(2018)는 미국 대학의 원어민 교사와 비원어민 교사에 대한 학습자 인식과 이들에게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외국어 학습 경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학습자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 효과적인 피드백 제공, 명확한 평가 기준 제시, 적절한 영어 사용, 배려심과 친근함이 중요한 자질로 드러났다.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교사의 자질과 역할은 연구자에 따라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은 대체로 교실 현장에서의 교수 행위, 교사가 갖추어야 할 지식, 교사의 태도와 가치관이라는 세 영역으로 수렴되는 양상을 보인다. 일부 연구는 이를 교수법적 지식, 전문 지식, 사회·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였고(Park · Lee, 2006), 또 다른 연구는 기술 기반 요소, 지식 기반 요소, 신념 기반 요소 등의 범주로 제시하였다(방성원, 2016 등).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다각도로 조명해 왔으나, 각 연구에서 제시된 범주들은 연구 목적과 관점에 따라 세분화의 수준이나 분류 기준이 상이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교사의 역할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범주로① 교수법적 요소, ② 지식적 요소, ③ 정의적 요소⁷⁾의 세 범주로 재구성하여 (1)과 같

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범주화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자질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표현과 분류 체계로 제시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분석의 틀이라 할 수 있다.

- (1) ① 교수법적 요소: 수업에서 교사가 수행하는 교수 행위와 관련된 요소
수업 구성 및 운영, 명확한 설명과 이해 가능한 입력 제공, 학습자 수준·학습 스타일에 맞춘 수업 설계, 흥미 유발 및 참여 촉진 수업, 학습 과정 모니터링, 학습법/전략 지도 및 피드백, 공정한 평가
- ② 지식적 요소: 교과 내용에 대한 교사의 지식과 전문성
언어 능력 전반(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 발음, 문법 등), 언어 사용자로서의 롤모델, L2 습득 이론 및 교수법 지식, 학습자 요구 분석 능력, 수업 자료 및 교재 개발 능력(다중매체 활용), 체계적인 수업 준비, 연구 및 전문성 개발에의 열의
- ③ 정의적 요소: 교사가 학습자와 맺는 정서적·관계적 측면
학습자에 대한 관심, 학습 동기 유발 및 유지, 학습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학습 분위기/공동체 형성, 학습자의 자신감과 자존감 향상, 유머 감각, 접근성

선행 연구의 논의 역시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한 시사점을 갖지만, 학습자의 특성과 이들의 학습 동기, 교육이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손주희·원해영, 2017)에서 기존 연구 결과를 본고의 논의 대상인 미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강승혜, 2010; 원해영, 2013). 또한 강의 평가 자료를 활용한 연구의 경우 문항 구성의 제약과 잠재적 편향의

7) 교사의 태도, 가치관, 성격 등 교사 개인의 성향이나 신념에 기반한 자질은 물론,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정서적·관계적 측면의 자질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활용하고자 방성원(2016)을 따라 '정의적 요소'라는 분류명을 사용하고자 한다.

가능성이 있으며(Damron, 2009), 학습자가 한국어로 응답해야 했던 연구에서는 표현상의 제약이 존재할 수 있다(강승혜, 2010). 더불어 폐쇄형 설문을 중심으로 한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이 응답에 반영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한국어 수업이라는 구체적인 교육 맥락에서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역할을 개방형 설문을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는 미국 소재 대형 주립 대학에서 한국어 수업을 수강 중인 학습자 83명이 참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학습자들의 숙달도는 초급부터 고급까지로 다양했고, 대부분은 한국어를 교양 과목으로 수강하고 있었다. 이들이 수강한 한국어 수업은 교사-학습자 간 상호작용과 학습자의 참여가 비교적 활발한 환경이었다. 이들은 실제로 한국어 수업을 선택하고 학습 경험을 형성하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 있어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교사의 자질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참고하기 위해 교사 참여자 역시 모집했다.⁸⁾ 모든 참여자는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었다.

8) 총 4인의 교사가 참여하였다. 교사 A, B는 각각 외국어 교육과 동아시아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 초급/중급 한국어 수업을 주로 담당하며, 교사 C는 영어 교육 학사 학위 소지자로 초급 한국어를 가르친다. 교사 D는 한국어 교육 박사 학위 소지자로 중급/고급 한국어 수업을 주로 담당한다.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졌을 당시 교사 A는 7년, 교사 B, C는 6년, D는 5년간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2) 연구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선행 연구 검토 결과, 학습자의 인식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집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폐쇄형 문항보다는 학습자의 경험과 관점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주관식 설문 문항으로 설문 도구를 구성하였다. 또한, 학습자들이 언어적 제약 없이 응답할 수 있도록 모든 응답은 영어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 문항은 총 두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수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교사의 중요도를 1점(전혀 중요하지 않다)에서 7점(매우 중요하다)까지의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는 문항이다. 둘째, 학습자들이 생각하는 좋은 한국어 교사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한 주관식 문항이다.

- (1) a. How important is a teacher when you are making a decision regarding courses. Choose a number between 1 to 7, 1 being the least important and 7 being the most important among different criteria.
- b. How would you define 'a good Korean teacher'? Please write as much as you want based on your own experience.

이후,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인 Google Forms를 이용해 설문 조사를 실시한 뒤, 설문 자료를 분석해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좋은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주요 범주와 특징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진행한 교사 면담은 두 단계로 구성되었다. 먼저 교사들에게 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이후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도출된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를 추가로 질문하였다. 이러한 절차는 교사의 인식과 학습자 응답에 대한 교사의 반응을 독립적으로 탐색하기 위함이었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고의 자료 수집은 2020년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수집된 설문 응답은 익명 처리 후, 질적분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다. 모든 응답을 반복적으로 읽으며 의미 단위로 분절한 결과 총 213개의 의미 단위가 도출되었다. 이후 의미적으로 유사한 단위들을 묶어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는 특정 이론적 틀을 적용하기보다는 학습자 응답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중심으로 범주를 구성하는 방향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도출한 세 개의 범주(교수법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정의적 요소)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화 과정에서는 연구자의 해석에 따른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 관련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갖춘 동료 교사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거쳤다.

4. 연구 결과

수집된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표 1에 정리된 바와 같이 정의적 요소에 대한 내용이 월등히 빈번히 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교수법적 요소와 지식적 요소가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표 1] 이상적 교사의 자질 범주

범주	빈도 (n)	백분위 (%)
정의적 요소	116	54.5
교수법적 요소	67	31.5
지식적 요소	30	14
총계	213	100

1) 정의적 요소: 학습(자)에 대한 관심

학습자 응답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범주는 정의적 요소와 관련된 자질이었다. 이 범주는 전체 의미 단위 213개 중 116개로, 전체의 약 54.5%를 차지하였다(표 2).

[표 2] 정의적 요소

범주	하위범주	n	%
학습자에 대한 관심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관심을 보인다	35	30.2
	학습자의 장래에 관심을 보인다	3	2.6
	(학습 및 장래 외의 영역에서) 학습자에게 관심을 보인다	2	1.7
학습 지원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준다	16	13.8
	학습을 독려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12	10.3
	학습자들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2	1.7
교사의 성격 및 태도	인내심이 있다	14	12.1
	친절하고 접근이 쉽다	11	9.5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6	5.2
포용력	실수에 대한 포용력이 있다	6	5.2
	학습자의 질문/의견에 열려 있다	5	4.3
학습 환경 조성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한다	2	1.7
	수업의 학습 공동체를 형성한다	1	0.9
	유머가 있다	1	0.9
		116	100

특히,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관심을 보이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는 의견이 30.2%를 차지해, 정의적 요소 범주는 물론이고, 수집된 전체 자료를 통틀어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빈번히 관찰되었다. 반면, 학습 외적인 영역(학습자의 장래나 그 외의 영역)에서 학습자에게 관심을 갖는 교사를 좋은 교사라고 응답한 학습자들은 약 4%로 그 수가 매우 적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원하는 교사의 관심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학습’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맥락 하에 있음을 보여준다.

학습 지원과 관련된 응답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주’고 ‘학습을 독려하고 자신감을 심어 주’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는 응답이 각각 13.8%, 10.3%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교사의 역할을 학습 지원, 특히 개인화된 학습 지원 및 학습 과정상의 정서적인 지지와 밀접하게 관련지어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정의적 요소에 대한 응답 중 26.8%가 교사의 성격 및 태도와 관련

한 의견이었다. 다만, 이러한 응답도 교사의 개인적 성향이나 특성보다는 학습 지원에 도움이 되는 자질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다. 학습자들은 ‘인내심이 있는’ 교사(12.1%), ‘친절하고 접근이 쉬운’ 교사(9.5%), ‘긍정적인 태도’의 교사(5.2%)를 좋은 교사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역시 학습 부진에 대한 인내심, 도움이 필요할 때의 접근성 등 학습 지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더불어 ‘실수나 학습자의 질문 및 의견을 열린 자세로 포용할 수 있는 교사’가 좋은 교사라는 언급도 있었다(9.5%). 또한, 교사가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실 내에서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며, ‘유머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2% 내외로 존재했다. 이는 학습자의 참여와 발화를 유도하며 긴장도를 낮추는 학습 환경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은 물론, 그러한 학습 환경을 형성하는 것을 교사의 역할로 생각하는 학습자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교수법적 요소: 명확성과 참여 유도

교수법적 요소에 대한 의견은 전체 의미 단위 중 67개, 31.5%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범주였다(표 3). 수업 전달, 학습 참여 유도, 수업 설계, 교수 자료 및 매체 활용, 피드백, 학급 및 학습자에 대한 이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다. 이 범주는 교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한 학습자 인식이 드러나는 범주였으며, 특히 수업 전달의 명확성과 학습 참여 유도과 관련된 응답이 두드러졌다.

[표3] 교수법적 요소

범주	하위범주	n	%
수업 전달	수업 내용을 명확하게 가르친다	19	28.4
	수업을 흥미롭게 가르친다	9	13.4
학습 참여 유도	학습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많이 만든다	15	22.4

수업 설계	수업이 체계적이다	9	13.4
	상황에 맞게 수업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2	3.0
	학습 분량을 적절히 설정한다	1	1.5
교수 자료 및 매체 활용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수업을 구성한다	5	7.5
피드백	적절한 피드백을 준다	4	6.0
학급 및 학습자에 대한 이해	학습자와 학급의 특성에 맞게 가르친다	3	4.5
		67	100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 하위 범주는 수업 전달에 대한 내용 중에서도 ‘명확성’에 대한 것으로 교수법적 요소 범주 내에서 28.4%를 차지하였다. 수업 내용을 ‘흥미롭게’ 가르쳐야 한다는 인식과 종합하면 수업 전달에 대한 내용이 41.8%에 달했다. 이어서 학습자들에게 충분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교사에 대한 언급이 15번 나타나 22.4%를 차지했다. 이는, 학습자들이 교사의 자질을 평가할 때 ‘이해’와 ‘참여’를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수업 설계와 관련해서는 ‘수업이 체계적이다’가 비교적 높은 비중(13.4%)을 차지하였으며, ‘상황에 맞게 수업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3%)’와 ‘학습 분량을 적절히 설정한다(1.5%)’와 같은 응답도 소수지만 확인되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체계적인 설계를 기반으로 한 수업이 교사의 판단에 따라, 그리고 학습자인 자신의 학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운영될 때 교사의 역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더불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수업을 구성하는’ 교사(7.5%)에 대한 선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6%) ‘학급 및 학습자에 대한 이해(4.5%)’를 보이는 교사를 좋은 교사로 인식하는 응답도 있었다.

3) 지식적 요소: 도움이 되는 지식

세 번째 범주인 지식적 요소 범주에서는 교사의 연구 및 전문성 개발에 의 열의, 교과 지식, 문화 및 배경지식, 언어 능력, 목표어 롤모델, 수업 준비와 관련된 인식이 드러났다. 전체적으로 이 범주는 앞선 두 범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로 보고되었는데 총 30개의 의미 단위가 등장해 전체 의미 단위 중 14%를 차지했다.

[표 4] 지식적 요소

범주	하위범주	n	%
연구 및 전문성 개발에의 열의	교육/교과 내용에 대한 열의가 있다	10	33.3
교과 지식	질문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다	7	23.3
	교과 내용을 잘 안다	2	6.7
문화 및 배경지식	(수업 내용 외) 추가 지식 및 정보를 준다	3	10.0
	한국과 미국 문화를 잘 안다	1	3.3
언어 능력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적절히 활용한다	3	10.0
목표어 롤모델	목표어 화자로서 롤모델이 된다	3	10.0
수업 준비	수업 준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1	3.3
		30	100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범주는 교사가 가진 ‘교육 및 교과 내용에 대한 열의’로 세 번째 범주로 분류된 의미 단위 중 10개로 33.3%를 차지하였다. 이는 주로 교사의 정서적 성향보다는 교과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태도 및 역할 수행과 결부되어 언급되었다. 다음으로는 ‘질문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교사라는 응답이 23.3%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서술은 교사가 질문에 정확하게 응답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요구되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러한 응답은 ‘교사가 교과 내용을 잘 안다’는 응답이 6.7%였던 것에 비해 높은 수치였다.

또한, 교사의 언어 및 문화적 자원과 관련한 응답도 다수 존재했다. 학

습자들은 수업과 관련되었으나 교재나 공식적인 수업 자료를 통해 제시된 것 외의 ‘추가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교사(10.0%), ‘한국과 미국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교사(3.3%),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교사(10.0%), ‘목표어 화자로서 롤모델이 되어 줄 수 있는’ 교사(10%)를 좋은 교사로 인식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어’ 교사라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특히 학습자들이 교사의 전문성을 인식하는 데 있어 단순히 어떤 지식을 보유했는가를 넘어, 그 지식을 수업 맥락에서 자신들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 가능한가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반면, 수업 준비에 대한 의견은 3.3%로, 상대적으로 낮은 빈도를 보였다.

4) 논의 및 시사점

본 연구의 결과는 학습자들이 교사의 자질을 추상적인 자질이나 이론적 전문성 및 제도적 역할보다는 자신의 학습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행동과 태도를 중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의적 요소, 교수법적 요소, 지식적 요소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해를 원활하게 하는 설명 방식, 학습 과정에서의 지원과 정서적 지지, 참여를 촉진하는 수업 환경 조성 등, 학습자 응답 전반에서 교사를 학습 과정을 조율하며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의 조력자’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의적 요소 범주에서 높은 빈도로 나타난 학습 과정에 대한 관심, 필요할 때 제공되는 도움, 학습을 독려하는 태도,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방식 등은 모두 학습자가 수업 속에서 경험하는 요소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인내심, 접근성, 긍정적인 태도 등 역시 교사의 정서적 태도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교사가 갖는 개별 학습자에 대한 ‘학습자로서의 관심’ 여부에 대한 평가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교사의 역할을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교육·학습 환경을 조성하

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의 교수 역량에 대한 학습자들의 서술에서도 드러났다. 학습자들은 수업 내용을 명확하고 흥미롭게 가르치는 능력 못지않게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지, 이해 수준에 맞게 수업 내용과 설명 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를 교사의 역량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잘 가르친다’는 평가가 교사가 보이는 기술적 숙련도 보다는 자신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모니터링과 유연성을 중심으로 교사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였다. 마지막으로, 교사의 지식에 대한 판단은 교과 지식의 범위나 깊이에 대한 언급 보다는 질문에 적절히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배경지식, 언어 지식, 추가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학습자들이 교사의 지식 역시 수업 중 실제로 활용되어 학습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천적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의적 요소에 비해 교수법적 요소나 지식적 요소, 특히 지식적 요소에 대한 응답이 적었다는 결과를 놓고 학습자들이 교사의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⁹⁾ 오히려 이러한 자질은 교사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하는 기본 조건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교사의 교과 지식이나 수업의 준비도와 같은 요소가 기본적으로 충족된 상태에서 ‘좋은 교사’인지를 가르는 것은 학습자의 학습 과정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유의미할 것이다.¹⁰⁾ 특히, 이러한 결과는 교사 자질을 주로 지식과 기술의 집합으로 정

9) 정의적 요소에 대한 학습자들의 관심은 본 연구의 데이터 수집 시기와의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2020년 상반기는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하기 시작한 시기로, 한국에 수업 또한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된 시점이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나 교사가 제공하는 학습 경험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더 강조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개방형 설문에서 학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음에도 코로나19 감염병이나 비대면 수업에 대해 언급한 응답은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환경적 요소를 주요 요소로 고려하기는 어려웠다.

이해 온 기존의 논의와 일정 부분 대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어 교사 교육과 실제 교육 현장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먼저, 한국어 교사의 역량을 논의할 때 정의적 요소가 부차적인 자질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를 교수법이나 지식에 못지않은 주요 요소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학습자의 배경, 학습 목적, 숙달도, 정체성이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교육 환경에서, 그리고 다언어·다문화 맥락이 일상화된 북미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학습자들이 학습자 개개인의 학습 과정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교사의 주요 역량으로 인식하는 것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학습자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한 관심, 인내심, 접근성 등의 요소 역시 교사와 학습자가 개인 차원에서 맺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수업에 참여하고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드는 전문적 역량의 일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외국어 학습 맥락에서 학습자는 언어적 불안과 실패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며, 이는 곧 학습의 성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정의적 요인으로 연결된다(Krashen, 1982). 따라서 한국어 교사 교육에서도 이러한 정의적 요소를 수업 내 상호작용 전략과 학습 지원의 관점에서 성찰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 교육이 교사의 지식 전달 능력이나 개별 교수 기술의 습득을 넘어, 학습자의 실제 학습 경험에 반응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의 결과는 효과적인 수업이 반드시 새로운 교수 기법이나 화려한 매체 자료를 이용한 활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학습자들은 수업이 명확하고 이해할 수 있게 전달되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조정되는 것, 그리고 질문과 참여가 자연스럽게 허용되는 수

-
- 10) 이러한 인식은 교사들과의 면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한국어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을 묻는 말에 “가르치기에 충분한 전문 지식이 있다는 전제 하에 ... 사람에게 대한 애정이 있고”, “한국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 학생에 대한 이해가 우선 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응답은 모두 교사의 전문성은 기본 전제 조건으로 보고 학습자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업 환경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이는 교사 교육에서 교수법을 고정된 수업 모형이나 절차로 제시하기보다 학습자의 반응과 이해 정도에 따라 수업을 조율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교사의 지식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도 일맥상통한다. 학습자들은 교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내용이나 양보다 그 지식을 활용해 질문에 적절히 응답하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모습에서 교사의 전문성을 인식하였다. 이는 과거 선행 연구(손주희·원해영, 2017; 원해영, 2013 등)나 교사 인터뷰에서 교사들이 주요 자질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교사의 교과 지식이었다는 점과 배치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교사 교육에 있어서도 교과 지식에 대한 측면은 그것의 축적은 물론이고 이를 실제 수업에서 학습자가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를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의 결과는 교사 교육 역시 성공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의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교사의 역량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해야 함을 보여준다. 즉, 교실에서 학습자들의 반응과 요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교사의 판단과 실행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응답을 통해 학습자가 인식하는 ‘좋은 한국어 교사’의 역할과 자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교사 자질을 사전에 설정된 규범적 논의가 아니라, 학습자의 실제 경험과 인식에 기반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 도출한 세 가지 범주(정의적 요소, 교수법적 요소, 지식적 요소)를 분석의 틀로 설정하고, 학습자 응답을 213개의 의미 단위로 분절하여 질적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자들은 정의적 요소를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였으며, 교

사의 지식에 대한 언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들은 좋은 한국어 교사를 자신의 학습 과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학습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책임 있게 지원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정의적 요소와 관련하여 학습자들은 교사의 친절함이나 인간적 따뜻함보다는 학습자로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학습의 어려움에 반응해 주는 태도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전문적 관심’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은 이들이 수업 경험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관계적·실천적 요소를 중심으로 교사의 자질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교수법 및 지식에 대한 자질 역시 학습자들은 이러한 자질이 자신의 학습을 돕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좋은 교사’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학습자들이 인식하는 좋은 교사란 무엇을 알고 어떻게 가르치는가를 넘어 학습자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교수 내용을 학습자들에게 맞게 맥락화하는가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곧 학습자들이 한국어 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은 ‘학습의 조력자’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특히 정의적 요소는 교수법이나 전문성 다음에 붙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적어도 학습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사의 자질과 역할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수법적 역량은 학습자의 반응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는 능력과 결합할 때 의미를 지니고, 교사가 가진 지식은 학습자가 필요한 방식으로 선별하여 제공하는 판단 능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이다.

본고의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교사가 수행하는 역할이 학습자의 학습 경험과 맞물려 인식되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다만, 본고는 미국 대학이라는 특정 교육 맥락에서, 그리고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이 있었던 시기에 수집된 제한된 수의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일반화에 한계를 지닌다. 특히, 학습자의 인식은 개인적 경험과 수

업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고의 결과를 모든 한국어 교육 맥락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육 기관과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학습자들의 인식에 대한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해 소수의 교사를 연구 참여자에 포함하였지만, 이 역시 그 수와 이들의 교육 경험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이라는 교수·학습의 맥락을 구성하는 이해당사자에는 교사도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사의 자질과 역할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식에 대한 자료 역시 더 보강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단행본

- Dörnyei, Z., & Ushioda, E. *Teaching and Researching Motivation*, 2nd ed., London: Routledge, 2013.
- Harmer, J.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4th ed., Harlow: Pearson Longman, 2007.
- Krashen, S. D. *Principles and Practic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xford: Pergamon, 1982.

논문

- 강승혜,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각한 ‘좋은’ 한국어 교사의 특성」, 『한국어교육』 제21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0, 1-27쪽.
- 김재욱, 「교사 자질 분석을 통해 본 한국어 교사 교육」, 『언어와 문화』 제12권 4호, 한국어언어문화교육학회, 2016, 83-101쪽.
- 김제열, 「한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29권,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04, 87-116쪽.
- 김호정, 「한국어 교사에게 필요한 교육 문법 지식 내용 연구」, 『이중언어학』 제33권, 이중언어학회, 2006, 159-190쪽.
- 민현식, 「한국어 교사론: 21세기 한국어 교사의 자질과 역할」, 『한국어교육』 제16권 3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5, 131-168쪽.
- 방성원, 「한국어 교사 재교육의 쟁점과 과제」, 『한국어교육』 제 27권 2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6, 79-103쪽.
- 손주희·원해영, 「한국어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조사: 신입 한국어 교사의 초점집단면접을 중심으로」, 『교사교육연구』 제56권 3호, 2017, 279-291쪽.
- 안정민, 「한국어 교사의 내러티브로 본 ‘좋은’ 한국어 교사 요인 연구: 프랑스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제26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5, 101-132쪽.
- 안정민·김재욱, 「채용 과정을 통해 본 한국어 교사의 자질」, 『국어교육연구』 제38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16, 111-142쪽.
- 원해영, 「한국어 교사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말연구』 제33권, 우리말학회, 2013, 139-165쪽.
- 이미혜, 「대학기관 한국어 교사 역량에 대한 인식」, 『한국언어문화학』 제16권 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19, 231-254쪽.
- 이인혜, 「국외 한국어 교사의 자질에 대한 학습자 인식 연구: 미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72권, 이중언어학회, 2018, 221-253쪽.
- 최은규·안경화, 「한국어 교사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사례 연구: 일본 고교 한국어 교사 연수의 경우」, 『한국어교육』 제14권 1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3, 323-341쪽.
- 허용, 「한국어 교사 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제19차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09, 3-16쪽.
- Chun, H. & Cho, Y. "Building a Locally Relevant Curriculum for Korean Language Teachers", *The Korean Language in America*, vol. 22, no.1, American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2018, pp. 46-70.
- Damron, J. J. "An Analysis of Student Evaluations of Native and Non-Native Korean Foreign Language Teachers", *Journal of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vol. 7, National Council of Less Commonly Taught Languages, 2009, pp. 73-92.
- Park, G. P. & Lee, H. W. "The Characteristics of Effective English Teachers as Perceived by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in Korea",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vol. 7, no. 2,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06, pp. 236-248.
- Shulman, L. "Those Who Understand: Knowledge Growth in Teaching", *Educational Researcher*, vol. 15, no. 2, 1986, pp. 4-14.

■ 국문초록

본고는 미국 대학의 한국어 학습자 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이들이 인식하는 ‘좋은 한국어 교사’의 역할과 자질을 탐색하였다. 학습자들의 응답을 교수법적·지식적·정의적 요소의 틀로 분석한 결과, 학습자들은 정의적 요소를 가장 빈번히 언급하였으며, 교수법적 요소와 지식적 요소가 차례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학습 과정에 대한 관심, 학습자의 필요에 적합한 학습 지원,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운영 등, 교사가 학습 과정을 조율하며 학습을 지속하도록 돕는 ‘학습의 조력자’ 역할을 할 때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교수법과 교사의 지식 역시 그 자체보다는 학습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활용될 때 유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고는 학습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사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교사의 자질을 논의하는 데 있어 부차적 요소로 다루어지던 정의적 요소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주제어 • 교사 자질, 학습자 인식, 교사 교육, 정의적 요소, 북미 대학 학습자

■ Abstract

US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a 'Good' Korean Teacher

Chun, Hee Chung / Rutgers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learners' perceptions of the roles and qualities of a "good Korean language teacher" in U.S. university contexts. Using survey data from 83 Korean learners, the study qualitatively analyzed 213 meaning units using a framework consisting of affective factors, pedagogy, and knowledge. Results show that affective factors were most frequently cited, followed by pedagogy and knowledge. Learners described teachers more positively when they enacted the role of a 'facilitator' by attending to learners' learning processes, providing support responsive to their needs, and structuring instruction to promote active learner participation. While pedagogical skills and teacher knowledge were also valued, they were appreciated primarily when effectively adapted and applied to enhance learners' understanding and engagement.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learners assess teacher quality less in terms of abstract expertise or disciplinary knowledge and more in terms of how teachers respond to learners' needs through interaction within specific instructional contexts.

Keyword • Teacher qualification, Learner perception, Teacher training, Affective factors, KFL learners in US colleges

■ 논문투고일:2026.02.05. ■ 심사완료일:2026.03.09. ■ 게재확정일:2026.03.17. ■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 한국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교사가정·환경 변인 간의 관련성 및 실태 분석: 혼합연구방법을 중심으로

김 명 자*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 방법
4. 연구의 결과 및 분석
5. 양적·질적 자료의 혼합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6. 결론 및 제언

1. 서론

최근 한국 사회는 이주 배경 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인해 인구 구조의 질적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이는 교육 현장, 특히 생애 초기 교육을 담당하는 유치원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 중 유아기 아동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 운영으로 구체화 되고 있다. 유아기는 언어 습득의 결정적 시기이자 자아정체성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기초가 마련되는 시기라는 점에서, 다문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은 단순

* 목원대학교 한국어·문화예술학부 특임교수

한 언어 습득을 넘어 교육의 평등권 보장과 장기적인 사회 통합을 위한 핵심적 기제(Mechanism)라 할 수 있다(박지현, 2023).

그간 다문화 정책학교는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현장 중심의 질적인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능력은 유치원 적응 및 또래 관계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김은정, 2022),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 부족, 일원화되지 못한 교육과정, 가정과의 연계 결여 등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조운주(2012)의 지적에 의하면 유아의 언어 발달은 미시체계인 가정과 유치원의 긴밀한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의 한국어 교육은 기관 중심의 분절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실증적인 상관관계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 교육 관련 연구들은 주로 교사의 인식 조사나 단편적인 프로그램 효과 검증에 치중되어 있어, 정책학교 현장의 실태를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교육 구성원 간의 역량과 지원 체계가 실제 교육 성과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제도적·정책적 담론과 실제 현장의 요구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교사의 역량, 가정 연계, 교육 인프라 등 주요 변인들이 교육의 지속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양적·질적 혼합 연구 방법(Mixed Methods)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의 한국어 교육 운영현황 및 교사·학부모의 요구도는 어떠한가?

둘째, 교사 역량, 가정환경, 유아의 한국어 능력 및 적응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한국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현장의 질적 요인과 맥락

적 의미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다문화 유아의 언어 발달을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닌 사회적 포용과 정체성 확립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며, 실증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정책학교의 효율적 운영 모델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유아교육 현장의 다문화 교육과정 표준화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다문화 사회의 지속 가능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배경 고찰

(1)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다문화 교육 거버넌스

Bronfenbrenner(1979)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Ecological Systems Theory)은 유아의 발달이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 층위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습득 및 유치원 적응은 단순히 개별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를 둘러싼 미세체계(Microsystem)인 가정과 유치원,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인 중간체계(Mesosystem)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나아가 정부의 다문화 교육정책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와 같은 거시체계(Macrosystem)는 유아의 언어 학습 환경을 규정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학교의 한국어 교육이 일시적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세체계 간의 단절을 극복하는 ‘가정-유치원 소통 플랫폼(제언 3)’과 거시적 차원의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지역사회 통합 거버넌스(제언 4)’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유아를 중심에 두고 다각적인 환경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함을 시사하는 본 연구의 핵심적인 이론적 토대가 된다.

(2) 이중언어 발달 이론: BICS와 CALP의 분화

Cummins(1984)는 이주 배경 아동의 언어 발달 과정을 일상적 의사소통 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과 인지적 학업 언어 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대다수의 다문화 유아는 일상적인 놀이 상황에서 사용되는 BICS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습득하지만, 학습의 토대가 되는 CALP를 형성하는 데는 평균 5~7년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현장의 교사들이 겪는 교수적 고충은 유아가 BICS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상황(CALP)에서 겪는 인지적 격차를 메워줄 체계적인 교수법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보충 수업을 넘어, 유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BICS에서 CALP로의 전이를 돕는 ‘위계적·단계별 KSL 표준 교육과정(제언 1)’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실제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교사의 전문적 자본 강화(제언 2)’는 Cummins가 강조한 언어적 상호의존성(Linguistic Interdependence)을 학업적 성취로 연결하는 결정적 기제가 된다.

(3) 다문화 유아교육의 개념과 특성

다문화 유아교육은 단순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유아를 교육의 대상으로 삼는 차원을 넘어, 인종, 민족, 언어, 사회적 계층의 다양성을 교육적 자산으로 수용하고 모든 유아에게 평등한 교육적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적 형평성(Educational Equity)’의 실현 과정으로 정의된다.

Banks(2016)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은 지식 구축 과정, 편견 감소, 공평한 교수법 등을 포함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의미하며, 이는 유아기에 형성되는 자아정체성 및 타인에 대한 수용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유아기 다문화 교육은 ‘문화 감응적 교수법(Culturally Responsive Pedagogy)’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박찬옥 외, 2013). 이는 유아가 태생적으로 보유한 모국어와 모문화를 결핍이 아닌 확장의 도구로 인식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류 사회의 문화를 점진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곽금주 외, 2010). 따라서 다문화 유아교육은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포용을 실천하고, 유아가 자신의 다중적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하며 민주 시민의 기초를 다지는 ‘변형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이는 유아의 정체성을 존중하며 주류 문화를 통합하는 ‘상호문화적 접근’을 채택하므로, 다문화 유아가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배제를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의 토대를 마련하는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교육부, 2019).

(4) 한국어 교육의 역할과 중요성

다문화 유아에게 한국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 인지 발달과 사회적 자아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심리적 도구(Psychological Tool)’이자 사회적 통합의 결정적 매개체이다. Cummins(2000)의 ‘언어 상호 의존 가설(Linguistic Interdependence Hypothesis)’에 따르면, 유아의 모어(L1)와 제2언어(L2)인 한국어는 내재된 공통 숙달도를 공유하며 상호 역동적으로 발달한다. 이는 초기 한국어 습득 수준이 단순히 언어적 유창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사고 능력과 학업적 기초 역량,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에 직결됨을 의미한다.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강조된다. 첫째, 인지적 측면에서 한국어는 누리과정의 교수-학습 내용을 수용하고 사고를 확장하는 인지적 기제로 작동하며, 초등학교로의 전이 과정에서 학업 격차를 줄이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한국어 유창성은 또래 집단과의 상호작용 질을 결정하며, 이는 유아의 자존감 형성 및 유치원 생활 적응과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박지현, 2021). 셋째, 권리적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은 다문화 유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언어적 인권’의 보장이다. 따라서 다문화 정책학교에서의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은 단기적인 언어 보충 수업의 형태를 탈피하여, 유아의 발달권과 학습권을 옹호하는 총체적인 교육 지원 체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의 운영 실태 및 제도적 한계

교육부(2024)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생 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유아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교육 현장의 인구학적 구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다문화 유아의 조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를 2024년 기준 전국 약 250여 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다문화 유아 밀집 지역(유아 수 대비 5% 이상 등)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KSL), 다문화 이해교육, 부모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질적 제고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한계가 관찰된다.

첫째, 교사의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 및 교수역량의 불균형이다.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의 핵심 기제는 교사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 교사들의 다문화 전문 연수 이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교육개발원(2023)의 조사에 따르면, 정책학교 교사 중 상당수가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KSL) 교수법’에 대한 체계적 훈련을 받지 못한 채 배치되고 있다. 특히 유아기 언어 발달의 특수성을 고려한 ‘유아 맞춤형 한국어 교원 자격’ 체계의 부재는 교육 현장의 상향 평준화를 저해하며, 교사의 직관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 편향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둘째, 교육과정의 분절성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결여이다. 현재 다문화 정책학교의 한국어 교육은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과의 유기적 연계보다는 지역별 교육청의 자율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지역 간 교육 서비스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윤정, 2023). 일부 선도 교육청을 제외하고는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재가 마련되지 않아, 일반 누리과정 시간 내에 단편적인 언어 활동을 삽입하는 수준의 ‘분절적 교육(Fragmented Educa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관성 결여는 다문화 유아의 언어 발달 단계를

고려한 ‘위계적 학습’을 어렵게 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한다.

셋째, 행정 거버넌스의 분절성 및 재정적 불안정성이다. 다문화 정책학교 사업은 교육부의 기본계획 아래 지방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개별 유치원이 집행하는 수직적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부처 간 혹은 기관 간의 수평적 협력 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예산 구조가 일반 회계가 아닌 특별교부금이나 한시적 목적 사업비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2). 이러한 재정적·행정적 불안정성은 전담 인력의 잦은 교체와 인프라 구축의 단절로 이어져, 정책학교가 지역사회 및 가정과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교육과 정책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외 선행연구를 교사 및 교수역량, 가정 및 환경적 요인, 정책 및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1) 교사의 다문화 교수역량 및 언어 교수법 관련 연구

다문화 정책학교의 교육 질을 결정하는 핵심 변인으로 교사의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이은정(2020)은 교사의 문화 감수성이 유아의 학습 참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으며, 최현주(2022)는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이 높을수록 다문화 유아를 위한 개별화된 언어 지원 활동의 빈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음을 증명하였다. 또한 김정아(2021)는 놀이 중심 한국어 프로그램이 다문화 유아의 구어 표현력과 학습 동기를 강화하는 실증적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Ladson-Billings(2014)는 ‘문화적으로 지속 가능한 교수법(Culturally Sustaining Pedagogy)’을 제안하며, 교사가 유아의 모국어적 배경을 자산으로 인식할 때 제2언어 습득 효율이 극대화됨을 강조하였다.

(2) 가정 연계 및 언어 환경적 요인 관련 연구

유아의 언어 발달은 기관 교육만으로 완성되지 않으며, 가정과의 역동

적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김선희(2021)는 가정 내 한국어 노출 빈도와 부모의 언어 태도가 유아의 어휘력 발달에 결정적 변인임을 밝혔고, 박지현(2023)은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낮더라도 부모가 유아의 모국어 발달을 지지할 때 오히려 한국어 습득 속도가 안정적이라는 ‘언어 전이효과’를 입증하였다. 정민예(202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학교에서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참여도가 유아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Baker Wright(2021)는 이중언어 환경의 유아들이 겪는 언어적 혼란은 가정과 학교의 ‘언어적 일관성’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을 제시하며, 가정 연계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3) 교육 정책의 지속 가능성 및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

최근 다문화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교육 주체 간의 역동적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현주와 김경숙(2023)은 다문화 정책학교의 교육 효과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기관-가정 간의 교육적 합의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꼽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교사의 높은 다문화 효능감이 실제 유아의 언어 발달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언어적 지원 역량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매개하는 지역사회의 통합적 인프라가 갖춰질 때 교육의 지속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윤정(2023)은 다문화 정책학교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정책의 일관성 부족과 행정 지원의 분절성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와의 통합적 연계 모델을 제안하였다. 송혜진(2022)은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의 표준화가 시급하며, 이는 정책학교 운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기초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Garcia(2017)는 ‘Translanguaging(언어 간 교차 사용)’ 개념을 통해 다문화 유아에게 단순한 한국어 주입이 아닌, 유아가 가진 모든 언어 자원을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UNESCO(2021)에서는 다문화 사회의 언어 다양성 보존과 통합 교육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며, 국가 단위의 체계적인 지원 플랫폼 구축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다문화 정책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성(1절의 역량), 가정과의 밀접한 연계(2절의 사회적 통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시스템(본 연구의 목적)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토대 위에서 정책학교 현장의 데이터를 통해 각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보다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1) 변인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의 핵심 변인인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이란 다문화 유아의 언어적 성장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교육적 성과가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교육 주체(교사·학부모)의 역량과 제도적 지원 체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지 및 발전될 수 있는 역동적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①학습자 성과(언어 발달 및 적응도), ②교육 실행 역량(교사의 교수법 및 가정 연계성), ③환경적 지원 안정성(기관 및 행정 지원)의 세 가지 하위 차원을 통합한 개념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지속 가능성은 유아의 발달적 성과(양적 지표)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 환경의 안정성(질적 지표)이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개념으로 분석되었다.

2) 연구 설계 및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의 ‘2024년 다문화 정책학교 지정 현황’을 표집틀(Sampling Frame)로 설정하고, 2단계 층

화 유의표집(Two-stage Stratified Purposive Sampling)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전국 5개 권역별 비례 배분을 실시하였으며, 2단계에서는 각 권역 내 기관을 다문화 유아 밀집도(전체 원아 대비 30% 이상여부)에 따라 ‘고밀집’과 ‘저밀집’으로 층화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최종 표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단계적 표집 과정을 통해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 한국어 교육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구분	대상	인원(N)	선정 기준
교사	정책학교 재직 교사	60명	다문화 교육 경력 3년 이상의 현직 유치원 교사
학부모	다문화 가정 보호자	80명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이주 배경 부모(결혼이민자 등)
유아	만 5세 다문화 유아	120명	한국어 교육 지원(KSL 등) 수혜 경력 6개월 이상
합계		260명	

교사 집단: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 지침을 숙지하고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교육 현장의 실제적 고충과 지원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학부모 집단: 교육의 실질적 수요자이자 가정 연계 교육의 핵심 주체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유아 집단: 언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이들의 한국어 유창성과 유치원 적응도를 분석하였다.

3) 연구 절차 및 윤리적 고려

본 조사는 2024년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자료 수

집에 앞서 모든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다.

연구 윤리: 모든 참여자에게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과 개인정보의 익명성 및 비밀 보장을 약속하였다. 특히 유아의 경우 법정 대리인(학부모)의 동의와 유아 본인의 구두 동의를 모두 구하였다.

자료 수집: 설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였고, 질적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Semi-structured Interview)로 1인당 2~3회 실시하였다.

타당성 확보: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자료 및 연구자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교사·학부모·유아의 다각적 자료를 비교 분석함과 동시에 교차 확인하는 한편, 유아교육 전문가 2인의 상호 검토(Peer Review)를 거쳐 해석의 주관성을 최소화하였다(Campbell & Fiske, 1959; Denzin, 1978).

4) 자료 수집 도구 및 절차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학교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기 위해 문헌 분석, 설문 조사, 심층 면담을 병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도구 구성과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문헌 및 정책 자료 분석(Policy Content Analysis)

다문화 정책학교의 제도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2023)의 주요 업무 계획, 시·도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운영 지침,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정책 보고서 및 국립국어원의 한국어(KSL) 교육과정 가이드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내용분석법(Content Analysis)을 통해 정책의 지향점, 예산 배정 기준, 표준 교육과정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2) 양적 조사 도구: 설문조사(Quantitative Instruments)

설문 도구는 선행연구(김정아, 2021; 이은정, 2020)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5

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2> 설문 도구의 하위 요인 및 문항 구성

조사 대상	하위 요인 (변인)	문항수	신뢰도(α)
교사	다문화 교수 효능감, 교육과정 운영 실태, 행정 지원 만족도, 전문성 강화 요구	20	.88
학부모	가정 내 언어 환경, 기관 교육 참여도, 부모 지원 서비스 만족도	15	.84
유아	한국어 수용 언어 능력, 표현 언어 능력, 유치원 적응도(교사 평정)	10	.91

예비 조사(Pilot Test): 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유아교육 전문가 2인과 현장 교사 5명을 대상으로 문항의 안면 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하였으며, 유아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변별력을 조정하였다.

(3) 질적 조사도구의 구조화 과정: 심층 면담 (Qualitative Instruments)

본 연구의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 면담 문항은 연구 대상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양적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단계 과정을 거쳐 구조화되었다.

1단계: 선행연구 분석과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근거하여 미시체계(교사-유아), 중간체계(가정-유치원 연계), 거시체계(정책 및 지원)로 분석 유목을 설정하였다. 또한 Cummins의 이중언어 발달 이론을 바탕으로 일상 언어(BICS)와 학업 언어(CALP) 지원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이론적 지표를 도출하였다.

2단계: 예비 문항 구성(Drafting) 1단계에서 도출된 지표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별(교사-학부모) 반구조화된 면담 가이드(Semi-structured

Interview Guide)를 작성하였다. 문항은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대상자가 다문화 교육현장에서 겪는 실제적 고충과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3단계: 전문가 타당도 검증(Content Validity) 작성된 예비 문항은 다문화 교육 전공교수 2인과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정책학교 운영교사 2인에게 내용 타당도 검증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주 배경 학부모를 위한 용어의 평이성 수정과 교사의 행정적 부담을 묻는 문항의 구체화가 이루어졌다.

4단계: 예비 면담(Pilot Test) 및 최종 확정 타당도 검증을 거친 문항으로 학부모 1인, 교사 1인과 예비 면담을 실시하여 질문의 흐름과 이해도를 점검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Data Analysis)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연구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양적 자료 분석: SPSS 2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요 변인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을 위해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산출하였으며, 변인 간의 밀접성을 규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자료 분석: 심층 면담 자료는 전사 후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사용하여 개방 코딩, 범주화, 주제 도출의 과정을 거쳤다.

통합 분석: 양적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과 질적 데이터의 맥락적 진술을 결합하는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종합 논의를 구성하였다.

5)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확보

본 연구는 양적·질적 자료의 혼합 분석에 따른 결과의 객관성과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양적 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의 구성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유아교육 전공 교수 2인과 다문화 교육전문

가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을 통해 내용타당도지수(CVI)를 산출하여 문항의 적절성을 검토받았다. 또한, 예비조사를 통해 문항의 내적 일관성을 분석한 결과, Cronbach's α 계수가 .87로 나타나 본 조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신뢰도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질적 자료의 진정성(Trustworthiness) 확보를 위해 '자료의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을 실시하였다. 심사위원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교사 면담, 학부모 설문, 그리고 정책 문헌 자료라는 다각적 정보원(Multiple sources of data)을 상호 비교·분석함으로써 특정 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해석을 도모하였다.

셋째, 분석 과정의 객관성을 위해 '동료 보고(Peer Debriefing)' 및 '참여자 검토(Member Checking)'를 수행하였다. 연구자의 주관적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유아교육 박사급 연구자 2인과 분석 결과의 일치 여부를 상호 검토하는 동료보고 과정을 거쳤다. 또한, 면담 내용의 해석이 실제 참여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면담 대상자 중 일부에게 분석 내용을 재확인받는 참여자 검토를 실시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도를 높였다.

6) 연구 윤리 (Research Ethics)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인권 보호와 연구 윤리 준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 착수 전 연구대상자(교사, 학부모)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자료의 익명성 및 비밀 보장, 그리고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시한 서면 동의서를 수집하였다. 특히 유아 대상 관찰의 경우, 법정 대리인인 보호자의 서면 동의와 더불어 유아 본인에게 연구 취지를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구두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수집된 모든 자료는 코드화하여 개인 식별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였으며, 자료는 보안 장치가 있는 장소 및 비밀번

호가 설정된 저장 매체에 보관하였다. 연구 종료 및 논문 게재 확정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와 관련 자료는 영구 폐기할 예정이다.

4. 연구 결과 및 분석

1)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적 특성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관련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해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치 (N=260)

변인	하위 요인	평균(M)	표준편차(SD)	왜도(Skew)	첨도(Kurt)
교사	다문화 교수 효능감	3.62	0.74	-0.412	0.215
	KSL 교수법 전문성	3.15	0.88	-0.152	-0.364
가정	가정-유치원 연계성	2.65	0.98	0.321	-0.114
유아	한국어 표현능력	3.12	0.85	-0.114	-0.251
	유치원 적응도	3.51	0.79	-0.362	0.412

주. Likert 5점 척도 기준

정규성 보고: 분석 결과, 모든 하위 변인의 왜도(Skewness) 절대 값은 0.11~0.41, 첨도(Kurtosis) 절대 값은 0.11~0.48로 나타났다.

이는 Kline(2015)이 제시한 정규성 판단 기준(왜도 3, 첨도 10)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후 모수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별 특성 요약: 교사의 다문화 교수 효능감(M=3.62)에 비해 실제 KSL 교수법 전문성(M=3.15)이 낮게 나타난 점은 교사의 인식과 실무 역량 간의 격차를 보여준다. 또한 가정-유치원 연계성(M=2.65)이 가장 낮게 측정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앞서 기술통계에서 나타난 가정-유치원 연계성과 교사 전문성이 유아의 실질적인 표현능력 및 적응도와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의 ‘변인 간의 논리적 적합성’은 (표 4)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서 보여준다.

<표 4>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N=260)

변인	하위변인	1	2	3	4	5
교사	다문화 교수 효능감	1				
	KSL 교수법 전문성	.582***	1			
가정	가정-유치원 연계성	.415**	.324**	1		
유아	한국어 표현능력	.456**	.512***	.628***	1	
	유치원 적응도	.384**	.298*	.542***	.684***	1

*p<.05, **p<.01, ***p<.001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변인 간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가정-유치원 연계성과 유아의 한국어 표현능력($r=.628$)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은 두 변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한국어 표현능력은 ‘가정-유치원 연계성($r=.628$, $p<.001$)’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유아기 언어 발달이 기관 내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과의 일관된 언어 환경 조성 및 상호 협력 체계에 의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박지현, 2023; Baker Wright, 2021)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둘째, 교사의 KSL 교수법 전문성은 유아의 한국어 표현능력($r=.512$, $p<.001$)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교사의 일반적인 다문화 태도(효능감)보다 한국어 교육에 특화된 실천적 역량이 유아의 언어 성과에 더 직접적으로 기여함을 시사하며, 앞서 교사들이 제기한 전문 연수 및 교재 지원 요구의 당위성을 입증한다.

셋째, 유치원 적응도는 유아의 한국어 표현능력($r=.684, p<.001$)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어적 유창성이 또래 및 교사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핵심 기제(Mechanism)임을 의미하며, 다문화 유아의 사회적 포용을 위해 한국어 교육이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3) 주요 변인별 요구 분석(교사, 학부모, 유아)

(1) 교사 변인에 따른 한국어 교육 운영 실태 및 요구 분석

① 한국어 교육 운영현황 및 실제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한국어 교육 운영현황 (N=60)

주요 내용	세부 항목	빈도(n)	비율(%)
보조 수업 운영 여부	운영함	46	76.7
	운영하지 않음	14	23.3
수업 형태	개별 지도(Individualized)	25	41.7
	소그룹 활동(Small group)	21	35.0
	프로젝트형 수업(Project-based)	14	23.3
주당 평균 시수	2.8시간	-	-
유아 언어 수준	기초적 의사소통 가능(BICS)	38	63.3
	인지학술적 언어능력(CALP) 초기단계	15	25.0
	언어 지원 불필요	7	11.7

분석 결과,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 교사의 76.7%가 정규 누리과정 외 별도의 한국어 보조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 형태는 개별 지도(41.7%)와 소그룹 활동(35.0%)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는 다문화 유아의 개인별 언어 발달 속도와 배경지식의 차이를 고려한 차별화된 교수법(Differentiated Instruction)이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아의 언어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일상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BICS(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 단계가 63.3%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현재의 한국어 교육이 유치원 생활 적응을 위한 기초 기능에 국한되어 있으며, 향후 초등학교 진학 후 교과 학습의 근간이 되는 CALP(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로의 전이를 돕는 심화 교육과정으로의 확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당 평균 시수가 2.8시간에 불과하다는 점은, 유아의 실질적인 언어 성장을 도모하기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함을 드러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함을 뒷받침한다.

② 교육 현장의 장애 요인 및 교수역량의 한계

한국어 교육 수행 과정에서 교사가 직면하는 어려움을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어 교육 수행의 어려움 (중복응답, N=60)

분석 차원	세부 항목	빈도(n)	비율(%)
제도 및 체계	교사용 연수 및 전문 지원 체계 부족	42	70.0
교수 자원	유아 수준별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 부재	33	55.0
학습자 특성	유아 간 한국어 발달 수준의 극심한 편차	28	46.7
	문화적 배경 차이에 따른 수업 참여 저조	19	31.7
환경 요인	가정 내 한국어 노출 부족 및 부모 협력 미흡	17	28.3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장애 요인은 ‘제도적 지원 체계의 부재(70.0%)’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기술 통계에서 나타난 교사의 KSL 교수법 전문성(M=3.15)이 낮았던 원인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교사 개인이 갖춘 다문화 수용성이나 효능감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 다문화 유아를 지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문 연수나 매뉴얼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교재 및 교수·학습 자료의 부족(55.0%)’과 ‘유아 간 언어 수준의 편차(46.7%)’가 높은 빈도로 나타난 점은,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한국어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의 시급성을 뒷받침한다. 유아기 언어 발달은 개인차가 크고 문화적 맥락에 민감하므로, 교사들은 단순한 언어 지도를 넘어 개별화된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적 수정(Instructional Modification)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가정 내 환경 및 협력 미흡(28.3%)이 어려움으로 언급된 것인데, 이는 교사들이 유아의 언어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가정의 교육적 연속성(Educational Continuity) 확보를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정책 제언에서 교사 연수 확대뿐만 아니라 가정 연계 통합 플랫폼 구축이 논의되어야 하는 실증적 근거가 된다.

③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한 정책적 요구

교사들이 요구하는 핵심 지원 항목을 분석한 결과, 단계별 교수·학습 자료 제공(76.7%)과 다문화 이해 및 언어교육 연수 확대(63.3%)가 최우선 순위로 나타났다.

특이할 점은 학부모 대상 언어 지원 프로그램 요구(48.3%)가 두드러졌다는 것인데, 이는 교사들이 유아의 언어 발달을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교사들은 전문 인력 배치(55.0%)와 같은 인적 자원 확충뿐만 아니라, 가정-유치원 간의 교육적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버넌스 형태의 지원 체계를 갈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상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가정-유치원 연계성과 유아 언어능력 간의 높은 상관관계($r=.628$)와 맥락을 같이 하며,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 교사 역량 강화와 가정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2) 학부모 및 유아3 변인에 따른 교육 실태 및 발달 특성 분석

① 가정 내 언어 환경 및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

다문화 가정의 언어 사용 실태와 유치원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가정 내 언어 환경 및 학부모 요구도 (N=80)

분석 항목	세부 항목	빈도(n)	비율(%)
가정내 주 사용 언어	모국어(L1) 중심	42	52.5
	한국어(L2) 및 모국어 혼용	26	32.5
	한국어 중심	12	15.0
학습 지원의 어려움	한국어 교수법 및 지도 방법 미숙	38	47.5
	자녀와의 의사소통 한계 및 정서적 거리감	22	27.5
	교육 정보 및 커뮤니티 접근성 부족	20	25.0
기관에 바라는 점	부모 참여형 이중언어 프로그램 확대	35	43.8
	자녀의 한국어 발달 단계별 정보 공유	31	38.7

분석 결과, 다문화 가정의 절반 이상(52.5%)이 가정 내에서 모국어(L1)를 주된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에게 풍부한 모국어 환경을 제공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어 지도 방법의 미숙(47.5%)’으로 나타난 점과 결합할 때, 가정에서의 한국어 노출이 질적으로 충분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특히 학부모의 38.7%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대한 정보 공유를 원한다는 점은, 앞서 기술통계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 가정-유치원 연계성(M=2.65)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예: 맞춤형 알림 서비스, 부모 코칭 등)이 절실함을 뒷받침한다.

② 유아의 한국어 역량 및 유치원 적응 실태

교사의 평정 데이터와 관찰 기록을 바탕으로 다문화 유아의 발달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역량 및 적응 실태 (N=120)

분석 차원	세부 특성	빈도(n)	비율(%)
언어 발달 특성	수용 언어(이해) 대비 표현 언어(산출) 지연	78	65.0
	비다문화 유아 대비 학업 언어(CALP) 부족	32	26.7
유치원 적응 양상	또래 집단과의 놀이 참여 및 상호작용 활발	52	43.3
	언어적 한계로 인한 소극적 참여 및 위축	46	38.3
	교사 의존적 성향 및 개별 지도 선호	22	18.3

유아의 언어 발달 양상을 보면, 교사의 관찰 결과 65.0%의 유아가 수용 언어에 비해 표현 언어가 지연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유아가 교사의 지시는 이해하나 자신의 의사를 한국어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언어적 한계는 유치원 적응 양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소극적 참여 및 정서적 위축(38.3%)을 보이는 유아 집단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은, 상관관계 분석에서 확인된 유아 한국어 표현능력과 유치원 적응도 간의 높은 상관($r=.684$)을 현상적으로 증명한다. 즉, 지속 가능한 교육의 관점에서 한국어 교육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유아의 사회·정서적 웰빙(Well-being)과 또래 관계 형성을 위한 필수 기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3) 면담 결과 분석: 현장의 질적 경험과 맥락적 의미

양적 조사 결과로 도출된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사 10명과 학부모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구조화 된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지속적 비교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을 통해 범주화하였으며, 도출된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교사 면담: 교육 실천의 구조적 장애와 전문성 고립

교사들은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단순한 업무 부담을 넘어 ‘시스템의 분절성’과 ‘교수역량의 한계’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제 1. 표준화된 KSL 교육과정 및 수준별 교수 자료의 부재: 교사들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한국어 숙달도를 고려한 맞춤형 자료의 부족을 토로하였다.

아이들의 언어 발달 수준이 천차만별인데, 제공되는 공통 자료는 현장 적합성이 떨어집니다. 결국 교사가 매번 개별 지도안을 직접 제작해야 하니 질 높은 수업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C)

주제 2. 가정-기관 간 파트너십 형성의 단절: 언어적 장벽으로 인한 학부모와의 소통 부재는 교육적 연속성을 저해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가정 연계 활동을 보내도 피드백이 거의 없어요. 부모님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낮다 보니 알림장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흐름이 끊깁니다. (교사 F)

주제 3. 행정 거버넌스의 분절성과 지원의 파편화: 다양한 기관에서 추진되는 다문화 사업의 중복과 복잡한 행정 절차는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교육청, 지자체, 가족센터의 지원이 각각 따로 놀아요. 이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합 창구가 없다 보니 현장에서는 행정 소모전만 벌어지는 기분입니다. (교사 H)

② 학부모 면담: 언어적 소외와 정체성 혼란의 경계

학부모 면담에서는 단순한 언어 습득의 어려움을 넘어, 자녀의 ‘다중 정체성 형성’과 ‘교육 접근성’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관찰되었다.

주제 1. 가정 내 언어 환경의 이중적 고립: 한국어 지도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부모 자신의 언어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소통의

단절을 호소하였다.

아이와 정서적 교감을 하려면 내 나라말이 편하지만, 그러면 아이의 한국어가 늦어
질까 봐 걱정돼요.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학부모 B)

주제 2. 교육 정보 접근의 문턱과 소외감: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싶으나, 언어적 장벽이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공지문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요. 번역기를 돌려도 정확하지 않으니 혹시 우리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늘 불안합니다. (학부모 D)

주제 3. 자녀의 문제

문화적 정체성 훼손에 대한 우려: 유아가 주류 문화를 습득
하는 과정에서 겪는 모국어 거부 현상과 정체성 혼란이 주
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오더니 엄마 나라말을 쓰지 말라고 해요. 친구들이 놀릴까
봐 겁이 난대요. 한국어만 잘하면 되는 건지, 마음이 아픕니다. (학부모 E)

5. 양적·질적 자료의 혼합 분석에 따른 종합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의 한국어 교육 실태를 다각도로 규
명하기 위해 수행된 양적 설문조사와 질적 심층면담 결과를 통합하여 분
석하였다. 자료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도출된 종합 논의 사
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사 전문성 발달의 구조적 한계와 교수 자원의 결핍

양적 통계 결과, 교사의 KSL 교수법 전문성은 유아의 한국어 표현능력
($r=.512$, $p=.001$)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실제 전문성
수준($M=3.15$)은 타 변인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이는 질적 면담에서 나타난 “수준별 교수 자료의 부재로 인한 개별 지도안 직접 제작의 고충(교사 C)” 및 “전문 연수 체계의 미비(교사 H)”라는 맥락과 일치한다.

즉, 교사의 다문화 효능감이 실질적인 교육 성과로 전이되지 못하는 병목 현상(Bottleneck)의 원인은 교사 개인의 역량 문제라기보다, 현장의 실천을 뒷받침할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위계적 교수 자료의 부재라는 구조적 결핍에 기인함을 시사한다.

2) 가정-유치원 연계의 결정적 영향력과 소통 거부행위의 부재

양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변인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면담 자료에서 나타난 학부모의 언어 장벽 및 소통 부재라는 질적 맥락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는 유아의 적응에 있어 가정과 기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관련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아의 언어 발달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가정-유치원 연계성($r=.628, p=.001$)’이었다. 그러나 실제 실행도($M=2.65$)는 전체 변인 중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치상의 괴리는 학부모 면담에서 드러난 ‘한국어 지도 방법의 미숙(학부모 B)’과 ‘언어 장벽에 따른 교육 정보 소외(학부모 D)’라는 질적 실태에 의해 구체화 된다.

결국, 다문화 정책학교의 지속 가능성은 유치원 내부의 교육을 넘어, 학부모를 능동적인 교육 파트너로 영입시키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다국어 기반 통합 소통 플랫폼’의 구축 여부에 달려 있음을 입증한다.

3) 언어 숙달도 기반의 사회적 포용과 다중 정체성 확립

유아의 한국어 표현능력과 유치원 적응도 간의 매우 높은 상관($r=.684, p=.001$)은 질적 분석에서 도출된 ‘언어적 한계로 인한 또래 관계 위축 및 모국어 거부 현상(학부모 E)’과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다문화 유아에게 한국어 교육이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또래 집

단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 확보와 긍정적 자아정체성 형성을 위한 결정적
기제(Mechanism)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적 지원은 단순한 보충 수업 형태가 아닌, 유아의 사회·정서
적 발달과 문화적 권리를 포괄하는 ‘변형적 교육(Transformative
Education)’의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한다.

6.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학교 한국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
해 설정한 세 가지 분석 차원(Outcome, Process, Context)에 따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학습자 차원(Outcome)에서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역량과 유치
원 적응이라는 실질적 성과는 ‘가정-유치원 연계성’과 가장 밀접한 관련
이 있음이 실증되었다. 이는 교육의 성과가 기관 내 활동에 국한되지 않
고, 학습자의 일상적 환경인 가정과의 교육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 극대화
됨을 의미한다.

둘째, 교육 실행 차원(Process)에서는 현장 교사들이 겪는 교수적 고립
감과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의 부재가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과정의 실행력(Process)을 높이기 위해 교사의 전
문적 자본 강화와 위계적인 교육과정 수립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셋째, 환경 차원(Context)의 분석 결과, 행정적 분절성과 지역사회 인
프라의 접근성 저하가 교육 지원의 연속성을 방해하고 있었다. 즉, 다문화
교육은 개별 기관의 노력을 넘어 지역사회의 통합적 지원 체계라는 거시
적 환경(Context)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해질 수 있다.

2) 정책 제언: 지속 가능한 한국어 교육을 위한 4대 정책 제언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다문화 교육 모델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Process → Outcome] 교육 실행력 강화를 통한 성과 제고: 교사의 교수 효능감을 높이고 유아의 학습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위계적 KSL 표준 교육과정 및 매뉴얼’을 확립해야 한다(제언 1, 2). 이는 교육 실행(Process)의 표준화를 통해 학습자 성과(Outcome)를 담보하는 기제가 된다.

[Outcome ← Process] 가정-기관 연계형 성과 관리: 학습자 차원의 성과를 지속시키기 위해 학부모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고 소통을 원활히 하는 ‘다국어 기반 통합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제언 3).

[Context] 지속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거버넌스 일원화: 교육을 둘러싼 환경 차원의 안정성을 위해 부처별로 분절된 지원 체계를 하나로 묶는 ‘지역사회 밀착형 원스톱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제언 4).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실증적 근거를 바탕으로,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의 한국어 교육 내실화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4대 정책 방안을 <표 9>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표 9>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 제언의 도출 근거

주요 연구 결과 (Evidence)	도출된 문제점	대응 정책 제언 (Strategy)
교사의 KSL 전문성 수준 저조 (M=3.15)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부재	제언1. 위계적 KSL 교육과정 및 매뉴얼 확립
교사의 높은 직무 부담 및 고립감 (면담 A, C)	단발성 연수의 한계	제언2. 현장 밀착형 교사 연수 체계 재설계
가정-유치원 연계성과 유아 적응의 높은 상관 (r=.628)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 단절	제언3. 다국어 기반 통합 소통 플랫폼 구축
행정 지원의 분절성 및 정보 접근성 저하 (학부모 D)	부처 간 협력 부재	제언4. 지역사회 밀착형 지원 체계 일원화

(1) 위계적·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KSL) 및 표준 교수 자료의 정립

교사들이 직면한 교수 자원 부족(55.0%)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언어 숙달도를 고려한 국가 수준의 표준 교육과정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구체적 방안: 숙달도 기반 3단계 교육과정 구축, 일상 의사소통 중심의 ‘진입기(BICS)’, 놀이와 학습을 연결하는 ‘기초기’, 초등 입학 대비 학업 언어를 포함한 ‘심화기(CALP)’로 위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누리과정 생활주제 기반 KSL 교수·학습 매뉴얼: 매달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누리과정 주제(예: 우리 동네, 동식물 등)와 연계된 한국어 어휘·구문 지도가 가능하도록 교사용 가이드북을 보급한다.
- AI 기반 개별화 학습 도구(Edutech) 개발: 유아의 음성을 인식하여 발음을 교정해 주거나, 유아의 수준에 따라 단어 난이도 조절하는 지능형 학습 앱을 개발하여 교사가 다인수 학급에서도 개별 지도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2) 전문적 자본(Professional Capital) 강화를 위한 교사 연수 체계의 고도화

상관분석 결과 변인 간 높은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나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교사 역량과 가정 연계성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관련 변인임을 시사한다. 이론 중심의 연수에서 벗어나 현장 문제를 즉각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 사례 중심의 ‘임상형(Clinical) 전문연수 신설’ 단순 강의가 아닌, 실제 다문화 유아의 지도 사례를 분석하고 교수적 수정(Instructional Modification) 전략을 실습하는 워크숍 형태의 연수를 정례화한다.

- 현장 방문형 ‘찾아가는 KSL 멘토링’ 서비스: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경력 교사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정책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유아별 맞춤형 지도 방안을 제안하는 밀착형 지원을 실시한다.

- 교사 학습 공동체(PLC)의 예산 및 제도적 지원: 원내·외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연구 모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우수 사례 공유 워크숍을 통해 현장의 노하우가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전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3) 다국어 기반 ‘가정-유치원 통합 지원 플랫폼’ 구축

가장 낮은 실행도를 보인 연계성 문제(M=2.65)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부모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소통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 방안: 실시간 양방향 다국어 소통 앱 개발(베트남어, 러시아어, 중앙아시아어 등) 주요 이주 배경 언어가 탑재된 앱을 통해 가정통신문 번역은 물론, 학부모가 모국어로 보낸 메시지를 교사가 한국어로 즉시 확인하는 양방향 소통 체계를 마련한다.

- 부모 역량 강화 ‘숏폼(Short-form) 교육 콘텐츠’ 제공: 가정 내 한국어 노출 환경 조성을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언어 놀이법을 3분 내외의 다국어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플랫폼을 통해 정기적으로 송출한다.
- 개별 유아 발달 데이터베이스(DB) 공유: 유아의 한국어 발달 단계와 유치원 활동사진을 학부모와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가정에서도 기관의 교육 목표에 맞춘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4) 부처 간 협력 기반의 ‘지역사회 밀착형 원스톱 지원 체계’ 일원화

행정 분절성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행정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구체적 방안: (가칭)지역 단위 ‘다문화 교육 허브센터’ 운영: 교육청,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협력하여 하나의 센터 내에 한국어 교육, 행정 지원, 심리 상담 기능을 통합 배치하는 원스톱 지원 모델을 구현한다.

- 다문화 교육 자원 지도(Resource Map) 제작: 지역 내 이중언어 강

사, 자원봉사자, 통번역 서비스 등 가용 자원을 DB화하여 정책학교 교사가 필요시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요청하고 배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 지속 가능한 재정 지원 조례 발의: 한시적인 사업비 지원을 넘어, 다문화 정책학교 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곽금주·박혜준·김연수·김연진 저, 『다문화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발달』, 학지사, 2010.
- 교육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사회관계 영역』, 교육부, 2019.
- 교육부, 『2023학년도 다문화교육정책학교 운영가이드라인 (유치원/초·중등)』, 교육부, 2023.
- 교육부, 『다문화정책학교 운영현황 및 개선방향』, 교육부, 2023.
- 교육부, 『2024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 발표』, 교육기본통계, 2024.
- 교육부·중앙다문화교육센터, 『다문화유치원 운영 지침』, 교육부, 2019.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KEDI), 『2023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보도자료 및 통계연보)』, 교육부, 2023.
- 박찬옥·구수연·이승연·김영진 저, 『유아 다문화교육』, 양서원, 2013.
- 통계청, 『국내 다문화 가정 자녀 현황 통계』, 통계청, 2024.
- 한국교육개발원, 『2022년도 다문화 교육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2.
- Baker, C. & Wright, W. E. *Foundations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7th ed.),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2021.
- Banks, J. A.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s, Curriculum, and Teaching*(6th ed.), New York: Routledge, 2016.
- Bronfenbrenner, U.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Experiments by nature and design*, Harvard University Press, 1979.
- Creswell, J. W., et al. *Designing and Conducting Mixed Methods Research*(3rd ed.),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17.
- Cummins, J. *Bilingualism and special education: Issues in assessment and pedagogy*, College-Hill Press, 1984.
- Cummins, J. *Bilingual Children in the Crossfire*,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2000.
- Denzin, N. K.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 Methods*(2nd ed.), New York: McGraw-Hill, 1978.
- Donald, S.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 Garcia, O. *Bilingual and Multilingual Education*, Cham: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2017.
- Hall, S. *Culture, Media, Language*, London: Routledge, 1980.
- Kline, R. B.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4th ed.), New York: Guilford Press, 2015.
- UNESCO. *Inclusive Education and Multilingual Learning in Early Childhood*, Paris: UNESCO Publishing, 2021.

논문

- 김선희,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노출 환경과 언어능력 간의 구조적 관계」, 『어린이교육』 30권2호, 한국어린이교육학회, 2021, 187-208쪽.
- 김은정, 「다문화 유아교육 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다문화 예비학교와 다문화 정책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권2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2, 27-50쪽.
- 김정아,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놀이중심 접근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25권1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21, 221-240쪽.
- 박지현, 「다문화 유아의 한국어 능력, 또래 상호작용 및 자존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6권1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21, 439-462쪽.
- 박지현,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능력 및 태도가 자녀의 이중언어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송혜진,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 표준화의 필요성 및 방향성 탐색」, 『한국언어문화학』 19권2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22, 115-140쪽.
- 이윤정, 「다문화 가정 유아 대상 한국어 교육 문제점과 제언: 다문화정책 유치원을 중심으로」, 『어린이와 환경』 26권1호, 한국어린이외환경학회, 2023, 1-20쪽.
- 이은정, 「유아교사의 다문화 감수성이 다문화 유아의 학습 참여도 및 한국어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40권6호, 한국유아교육학회, 2020, 187-208쪽.

- 이현주·김경숙, 「다문화 정책학교의 교육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치원 환경 및 가정 연계 요인 분석」, 『유아교육학논집』, 27권4호, 2023, 115-138쪽.
- 정민예, 「다문화정책학교 부모교육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조운주, 「유아 다문화 교육의 생태학적 접근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학논집』 16권1호,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 2012, 29-51쪽.
- 최현주, 「유치원 교사의 다문화 감수성과 다문화 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다문화 교육 태도의 매개효과」,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2.
- Campbell, D. T. & D. W. Fiske.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ation by the multitrait-multimethod matrix", *Psychological Bulletin*, vol. 56, no. 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959, pp.81-105.
- Ladson-Billings, G. "Culturally Relevant Education 2.0: A.K.A. The Remix (Culturally Sustaining Pedagogy)", *Harvard Educational Review*, vol. 84, no. 1, Cambridge: Harvard Education Publishing Group, 2014, pp.74-84.
- Vihman, M. M. "Bilingual Development in Children of Immigrant Families",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7, no. 3, Washington, D.C.: SAGE Publications, 2018, pp.165-170.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 한국어 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간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BICS/CALP 이론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전국 5개 권역에서 지역 및 다문화 밀집도를 고려한 2단계 층화 유의표집을 통해 교사, 학부모, 유아의 자료를 수집하고 혼합연구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현장 교사들은 표준 자원 부재와 행정 분절성으로 인한 교수적 고립감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상관분석 결과 유아의 한국어 역량 및 적응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는 변인은 ‘가정-유치원 연계성’으로 나타났다(p<.001). 셋째, 학부모의 언어 장벽과 지도 미숙이 교육 연속성을 저해하는 핵심 기제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①위계적 KSL 교육과정 확립, ②현장 밀착형 교사 연수 재설계, ③다국어 기반 통합 소통 플랫폼 구축, ④지역사회 지원 거버넌스 일원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이론적 토대 위에 한국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증적 근거와 통합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 한국어 교육(KSL), 지속 가능성, 가정-유치원 연계, 혼합연구방법

■ Abstract

An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eacher, Home,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the Sustainabil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ulticultural Policy Kindergartens: Focusing on Mixed Methods

Kim, Myung-ja / Monwon Unioverstiy

This study aims to diagnose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multicultural policy kindergartens and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among teacher, home, and environmental variables affecting its sustainability. Based on Bronfenbrenner's ecological systems theory and Cummins' BICS/CALP framework, a mixed-methods research design was employed. Data were collected from teachers, parents, and young children across five regions in Korea and analyzed using SPSS 28.0 for correlation analysis and the constant comparative method for qualitative data.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eachers experience pedagogical isolation due to a lack of standardized resources and administrative fragmentation. Secon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home-kindergarten linkage' and children's Korean proficiency and adjustment ($r=.628$, $<.001$). Third, qualitative data confirmed that parents' language barriers and lack of instructional methods are key mechanisms hindering educational continu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proposes four strategies for sustainability: ① establishing a hierarchical and level-based standard KSL curriculum, ② redesigning teacher training systems to strengthen professional capital, ③ building a multilingual 'integrated home-kindergarten communication

platform,’ and ④unifying the community support system through integrated governanc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providing empirical evidence for an integrated multicultural education model that links institutions, families, and the community.

Keyword • *multicultural policy kindergarten, Korean language education(KSL), sustainability, Home-kindergarten linkage, mixed methods research*

고통을 마주하는 상담자들의 이야기

: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과 성장 경험

한 영 숙*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여성폭력 피해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는 반복적·고강도의 외상 서사에 장기간 노출되며 대리외상 위험을 지속적으로 경험한다.¹⁾ 대리외상(vicarious trauma, VT)은 외상 경험을 지닌 내담자의 서사에 공감적으로 관여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인지·정서·관계 경험이 변형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²⁾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정서적 소진을 넘어 세계에 대한 기

* 한영숙 한남대학교 상담학과 박사 수료

1) Judith L. Herman,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Basic Books, New York, 1992, p. 79.

2) Irene L. McCann & Laurie Anne Pearlman,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3, No.1, 1990, pp.131-149; Laurie A. Pearlman & Karen W. Saakvitne, *Trauma and the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in Psychotherapy with*

본적 신념과 전문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

그동안 선행연구는 대리외상을 이차외상스트레스와 소진 등 부정적 결과 중심으로 설명해 왔으며,⁴⁾ 그 과정에서 장기경력 상담자를 일정 수준 관리 가능한 상태로 간주하는 경향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장은 위기 개입, 보호 조치, 법·의료·복지 연계 등 다층적 책임이 중첩되는 구조를 지니며, 사례의 미종결성과 반복 노출이 상담자의 판단과 정체성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최근에는 대리외상 후 성장(vicarious posttraumatic growth, VPTG)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⁵⁾ 성장 경험이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는 결과로 단순화되거나, 전문성 및 정체성 변화와 통합적으로 설명되지 못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⁶⁾ 따라서 본 연구는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이 어떠한 구조로 조직되고, 그 경험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통합되며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피해자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10년 이상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VT) 경험과 그 이후 변화(성장 포함)의 경험 구조를 현상학적으로 밝히는 데 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은 어떠한가?

Incest Survivors, W. W. Norton, New York, 1995.

3) Ibid., pp. 279-280.

4) Charles R. Figley, "Burnout and Secondary Stress,"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Brunner/Mazel, New York, 1995, pp.11-12; 박지영,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 척도(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3권 4호, 2011, 33-57쪽.

5) Sally Manning-Jones, Ian de Terte & Christopher Stephens, "Vicarious Posttraumatic Growth: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Vol. 5, No. 2, 2015, pp. 125-139; 안은주, 김봉환, 「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자의 대리외상 후 성장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7, 25-46쪽.

6) Sally Manning-Jones, Ian de Terte & Christopher Stephens, op. cit., pp. 125-139.

2.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 후 성장(VPTG)은 어떠한 국면과 의미구성 속에서 형성되는가?

2. 이론적 배경

1) 상담자의 대리외상 개념과 연구 동향

대리외상은 공감적 관여가 상담자의 인지 도식과 정서·관계 경험을 변형시키는 과정으로 이해된다.⁷⁾ 국내 연구는 신체·정서 반응뿐 아니라 타인 불신, 관계 축소, 가치관 혼란 등 인지 구조 변화가 동반됨을 보고하였다.⁸⁾ 또한 개관 연구는 대리외상 개념이 PTSD 유사 증상 중심 접근과 인지 도식 변화 중심 접근으로 혼재되어 있음을 정리하며 개념 정교화와 통합적 연구 설계를 제안하였다.⁹⁾

2) 장기경력 여성폭력 상담자 연구

여성폭력 상담 현장은 반복적·고강도의 외상 노출과 위기 개입, 그리고 다기관 연계업무가 중첩되는 특성으로 인해 대리외상 위험이 높은 영역으로 지적되어 왔다.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폭력 및 성폭력 상담원을 대상으로 대리외상 수준과 관련 요인을 검토한 결과, 직무 스트레스와 사례 누적, 정서적 소진이 대리외상과 유의미하게 관련됨이 보고되었다.¹⁰⁾ 또한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은 신체·정서 반응을 넘어 타인에 대한 불신, 관계

7) McCann & Pearlman, op. cit., pp. 136-138.

8) 권해수·김소라,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 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3호, 2006, 495-518쪽.

9) 이미혜·성승연, 「상담자들의 대리외상: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3권 제1호, 2014, 109-137쪽.

10) 신혜섭, 「가정폭력상담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직무요인이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2010, 45-61쪽; 김인주·김도연, 「지각된 사회적 지지, 탈중심화,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리 외상을 경험한 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2015, 23-45쪽.

축소, 가치관 혼란 등 인지 구조 변화로 확장될 수 있음이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¹¹⁾ 국내에서도 가정폭력상담원을 대상으로 대리외상 수준과 관련 요인을 검토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¹²⁾ 장기경력 조건에서 대리외상이 완화되는지 혹은 다른 방식으로 지속·변형되는지에 대한 경험 구조 탐색은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성평등가족부 산하 피해자지원기관 상담자는 여성폭력 전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사례 누적과 책임이 심화될 수 있어, 장기경력 상담자의 대리외상을 시간성과 재조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3) 대리외상 후 성장(VPTG) 논의와 한계

PTG는 외상 이후 의미 재구성, 가치관 변화, 관계 재인식 등 긍정적 변화를 설명하는 개념으로 정립되었고,¹³⁾ 상담자에게도 VPTG가 보고되어 관련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¹⁴⁾ 다만 VPTG가 ‘긍정 정서’나 ‘회복 결과’로 단순화될 위험이 있어, 성장 이전의 혼란과 재조정 국면을 포함한 구조화가 필요하다.¹⁵⁾ 본 연구는 VPTG를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외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형성되는 통합적 변화로 이해한다.

3. 연구의 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피해자지원기관에서 근무하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상담·지원하는 장기경력 상담자 6명이다. 참여자 선정

11) 권해수 · 김소라, 앞의 논문 495-518쪽.

12) 신혜섭, 앞의 논문, 45-61쪽.

13) Richard G. Tedeschi & Lawrence G. Calhoun,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Vol. 15, No. 1, 2004, pp.1-18.

14) Sally Manning-Jones, Ian de Terte & Christopher Stephens, op. cit., pp.125-139.

15) 안은주 · 김봉환, 앞의 논문, 25-46쪽.

기준은 (1) 상담 경력 10년 이상, (2) 여성폭력 한 개 이상 영역에서 지속적 인 상담 수행, (3) 연구 목적과 절차에 대한 이해 및 자발적 동의였다. 익명성을 위해 P1~P6 가명을 부여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참여자	성별	연령	근무경력	주요상담유형
P1	여	60세	15년	가정폭력, 성매매
P2	여	59세	30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P3	여	61세	25년	성폭력
P4	여	60세	16년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범죄, 교제 폭력, 스토킹
P5	여	61세	15년	성폭력
P6	여	51세	15년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2) 자료수집과 방법

자료수집은 2025년 9~11월 진행되었고, 참여자당 1~2회 반구조화 심층면담(90~120분)을 실시하였다. 질문은 (1) 인상 깊은 대리외상 경험, (2) 정서·인식·관계·전문성 영향, (3)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 (4) 성장으로 인식되는 경험과 의미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질문은 특정 이론 개념의 확인보다, 참여자가 경험한 구체적 상황과 그때의 정서·인식·관계 경험, 그리고 이후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참여자의 동의 하에 녹음·전사하고, 연구자는 면담 직후 현장 메모와 반성적 기록을 작성 하였다. 반성적 기록에는 면담 중 연구자가 경험한 정서 반응, 해석적 충동, 선이해의 개입 가능성을 구분하여 기술하였고, 이후 분석 과정에서 판단중지(bracketing) 점검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자는 여성폭력 피해 상담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험을 지니며, 상담자의 대리외상과 성장 경험에 대한 이론적·실천적 관심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배경은 연구 주제에 대한 민감성과 통찰을 제공하는 동시에, 특정 해석 방향으로 의미를 구성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iorgi(2009)가 제안한 판단중지의 원칙을 연구 전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준수하였다. 연구자

는 분석 전, “대리외상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가설과 “장기 경력 상담자는 일정 수준의 조절 능력을 획득했을 것”이라는 선이해를 명시적으로 기록하였으며, 분석 과정에서는 이러한 전제가 해석에 개입되지 않도록 반복 점검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Giorgi(2009)¹⁶⁾의 현상학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은 (1) 전체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경험의 전체적 맥락을 파악하고, (2) 의미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의미단위를 구분한 뒤, (3) 각 의미단위를 참여자의 언어와 맥락을 최대한 보존한 상태에서 심리학적 의미로 전환하고, (4) 참여자 간 공통 구조를 통합하여 본질 구조를 도출하였다. 의미단위 구분 단계에서는 기존 대리외상 이론의 개념어를 즉시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심리학적 의미 변환 단계에서도 ‘소진’, ‘이차외상’과 같은 범주적 명명에 앞서, 참여자가 경험한 세계의 변화 방식(안전감의 흔들림, 자기·역할 인식의 재구성, 관계 및 경계의 재조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성장 경험이 목적론적 회복 서사로 단순화되지 않도록, 갈등과 취약성이 지속되는 맥락 역시 분석에 포함하였다.

시간성은 종단 자료가 아닌 면담 서사에 포함된 회고적 시간성(전환점, 이전/이후 대비, 반복 패턴)을 통해 포착하였다. 분석 전 과정에서 연구자는 반성적 기록과 원자료를 대조하며, 초기 해석이 이론적 기대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수렴하는지 점검하고, 진술 맥락을 벗어난 과잉 일반화를 배제하고자 하였다. Giorgi 방법은 경험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기보다 참여자의 생활세계에 나타난 의미 구조를 기술적으로 밝히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장기경력 상담자의 lived experience 구조를 탐색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16) Amedeo Giorgi,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Pittsburgh, 2009.

4) 연구윤리 및 신뢰도 확보

본 연구는 민감한 외상 경험을 다루는 상담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연구윤리를 엄격히 준수하였다. 연구에 앞서 한남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았으며(승인번호: IRB-2025-A017), 연구 목적과 절차, 녹음 및 전사 방식, 익명성 보장, 참여 중단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를 확보하였다. 모든 자료는 가명(P1~P6)으로 처리하고 기관명과 지역은 비식별화하였다. 면담 중 정서적 동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 또는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동료 슈퍼비전 자원을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연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첫째, 도출된 구조가 참여자의 경험을 적절히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참여자 3명에게 분석 결과의 요약 구조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받는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였다. 둘째, 현상학 연구 경험이 있는 동료 연구자 1인과 분석 과정 및 결과에 대해 동료검토(peer debriefing)를 수행하였다. 셋째, 전사본, 연구자 반성 메모, 의미단위 도출 자료를 상호 대조하는 자료 삼각검증(triangulation)을 통해 해석의 일관성을 점검하였다. 넷째, 전사-의미단위-심리학적 의미 전환-구조 통합의 전 과정을 문서화하여 분석의 추적 가능성(audit trail)을 확보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참여자 간 공통된 경험 구조와 의미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고, 추가 면담에서도 본질 구조를 확장할 새로운 변별적 의미가 나타나지 않아 자료 수집을 종결하였다.

4. 연구의 결과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과 대리외상 후 성장 경험은 단일 사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의 반복적·순환적 실무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실무는 접수-위기평가-반복적 외상 서사 청취-법·의료·복지 연계-가해자 재접촉 대응-사후 모니터링이 순환하는 구조를 지니며, 특히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재발·

재내방의 형태로 이어지는 미종결성은 상담자의 판단과 책임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조건으로 작동하였다.

이러한 반복·누적적 맥락 속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은 균열-정박-재향해-통합으로 전개되는 경향적 시간구조를 보였다. 다만 이 구조는 엄격한 선형 단계라기보다, 참여자 서사에서 반복·교차적으로 확인된 경험 흐름을 통합한 분석 틀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먼저 사례 수준에서 경험의 전개 과정을 제시한 뒤, 그로부터 도출된 공통 구조를 국면별로 정리하고, 동일 구조 안에서 나타난 변이와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구조 도출의 근거와 분석의 추적 가능성은 <표2>와 <표3>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균열-정박-재향해-통합’은 참여자들의 경험을 시간적·구조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틀이다. ‘균열’은 반복적 외상 노출 속에서 세계의 안전성과 전문직 정체성의 전제가 흔들리는 인식적 전환을 의미하며, ‘정박’은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적 재조정과 기능 축소가 조직되는 정지 국면을 지칭한다. ‘재향해’는 정서 조절과 판단 기준의 재형성을 통해 반응 양식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통합’은 고통을 제거하는 회복이 아니라 취약성을 포함한 의미 재구성과 존재적·전문적 재정립의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구조는 선형적 단계 모형이라기보다, 반복·교차적으로 나타난 경험 흐름을 설명하기 위한 경향적 시간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표 2]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 후 성장 경험 연구결과 요약표¹⁷⁾

구조적 국면	핵심경험내용	주요 의미 특징
1. 균열의 국면 (타인의 파괴된 삶을 떠받침)	•상상 초월적 폭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충격과 압도감 경험 •피해자의 고통이 자기 정서와	•세계관 및 윤리적 판단의 균열 •되돌아갈 수 없음’의

17) 본 표는 Giorgi(2009)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토대로, 장기경력 폭력피해 상담자 인터뷰 자료를 의미단위-중심현상-본질현상으로 통합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다. 세부 분석표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인식으로 깊이 침투함 •세계가 안전하다는 전제가 붕괴되고 인간에 대한 신뢰 약화 •전문직 역할 정체성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적 고뇌 경험	인식 전환 •전문직 정체성의 흔들림
2. 정박의 국면 (침몰을 막기 위한 방어와 축소)	•과각성, 만성적 긴장, 신체화 반응 증가 •분노와 불신이 사회적 대상으로 확장됨 •판단 혼란과 인지적 과부하 경험 •사람·사례·업무로부터의 거리두기와 기능 축소	•생존을 위한 방어적 정지 상태 •감정·관계·업무 영역의 축소 •버티기' 중심의 일상 전환
2-1. 보호 전략의 재조직 (정박의 구체적 방식)	•감당 가능한 사례 선택, 경계 강화 •역할 분리와 업무 방식 조정 •과잉 책임과 자기희생의 완화 시도	•회피가 아닌 지속을 위한 조정 •전문성의 약화가 아닌 재구성
3. 재향해의 국면 (엔진과 나침반의 회복)	•정서 반응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게 됨 •사건 중심 이해에서 구조적 이해로 전환 •과잉 개입에서 선택적·조절된 개입으로 이동	•판단 기준(나침반)의 재형성 •역할과 한계에 대한 재인식
4. 통합 성장의 국면(관계·의미 확장)	•한계 수용과 역할 재정의 •피해자·동료와의 상호적 관계 경험 •고통을 더 넓은 존재적·사회적 맥락에서 재해석 •상담자의 역할을 '의미를 있는 존재'로 재정의	•한계 수용과 역할 재정의 •VPTG의 통합적 성격 •고통을 포함한 상태에서의 성장 •개인 회복을 넘어 공동체적 의미 확장

[표 3] 구조 도출 근거: 의미단위에서 구조적 국면으로의 통합 과정¹⁸⁾

국면	대표 진술 (의미단위)	심리학적 의미 전환	구조 통합 근거	변이
1. 균열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P2)	세계의 안전성 전제가 붕괴됨	단순 충격이 아닌 인식 틀의 전환이 반복 확인됨	일부는 분노 중심, 일부는 무력감 중심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이 무섭다.” (P4)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신뢰 약화	사건 반응이 아니라 세계관 수준의 흔들림으로 수렴	디지털 성범죄 담당자에서 강하게 나타남
	“한 인간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P5)	전문직 정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존재적 고뇌	역할 정체성의 균열이 공통적으로 보고됨	종교적 의미틀이 있는 참여자에서 표현 방식 차이
	반복 노출이 정서 반응을 넘어 세계 이해의 전제를 흔드는 인식적 전환으로 나타났기에 ‘균열’로 통합함.			
2. 정박	“몸이 늘 각성돼 있었어요.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P3)	만성적 과각성과 경계 상태	정서·신체·인지 영역의 방어적 정지 상태 공통 확인	신체화 vs 분노 확장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P1)	과잉 책임의 완화 시도	기능 축소와 거리두기가 반복 등장	일부는 관계 축소로 나타남
	“감당할 수 있는 사례를 정하게 됐어요.” (P6)	개입 범위 재설정	지속 가능성 확보 전략으로 수렴	사례 밀도 높은 참여자에서 두드러짐
	회피가 아니라 ‘침몰 방지’의 조정 과정으로 나타났기에 ‘정박’으로 명명함.			

18) 본 표는 Giorgi(2009)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에 따라, 참여자 진술에서 도출된 의미 단위를 심리학적 의미로 전환하고, 이를 공통 구조로 통합한 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3. 재향해	“불안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조절해...” (P1)	정서 반응의 메타 인식	반응 조절 능력의 회복이 공통 확인	조절 속도 차이 존재
	“여성의 삶이 가부장 구조 속에...” (P2)	사건 중심 이해 → 구조적 이해	인지 틀의 확장이 정서 완화와 연결됨	사회구조 인식 깊이 차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보면...” (P2)	선택적 개입으로 전환	과잉 개입 → 조절된 개입 이동 공통	일부는 갈등 잔존
	판단 기준의 재형성과 역할 재설정 확인되어 ‘재향해’로 통합함.			
4. 통합	“못 해주는 걸 인정하는 게...” (P6)	한계 수용	역할 재정리가 반복 확인됨	일부는 경계 수준에서 멈춤
	“상담자는 스토리 텔러...” (P2)	의미 매개자 정체성 형성	전문성 재구성이 공통 확인	표현 방식 차이
	“우주적 차원으로 해석...” (P4)	존재론적 의미 틀 확장	고통을 포함한 재구성 경험	통합 깊이 차이 존재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포함한 의미 재구성이 나타났기에 ‘통합’으로 명명함.			

1) 참여자 경험의 전개 흐름 : 대표 사례 및 보조사례

대표 사례는 구조 형성의 전형성과 대비를 보여주는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사례1) P2: 반복 노출 속에서 경험 구조가 조직되는 과정

P2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를 장기간 지원해 온 상담자로, 단회기 치료 장면이 아니라 복합적 실무 조건 속에서 상담을 수행해 왔다.

(1) 균열: 세계 이해의 전제가 흔들림

P2는 상담 초기 수년간 반복되는 극단적 폭력 사례를 접하며 점차 “예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경험은 특정 사건의 충격이라기보다 세계의 안전성에 대한 전제가 점진적으로 붕괴되는 과정이었다. 피해 서사의 축적 속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고, 전문직 정체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적 고뇌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정서적 소진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 틀이 재구성되는 변화로 나타났다.

(2) 정박: 만성적 긴장과 기능적 조정

균열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 간 P2는 만성적 긴장과 판단 혼란을 경험하였다. 피해자의 위기 상황이 반복될 때마다 과도한 책임감이 활성화되었고,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자기 비판이 지속되었다. 동시에 사건의 반복성과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즉각적 해결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인지적 과부하를 경험하였다. 이 시기에 P2는 점진적으로 보호 전략을 조직하였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잉 책임을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방향으로 개입 범위를 재설정하였다. 이는 회피나 무능의 표현이 아니라,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적 정지 상태, 즉 ‘정박’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재항해: 판단 기준의 재형성

시간이 흐르며 P2는 사건을 개별 사례의 비극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 구조와 제도적 한계 속에서 반복되는 현상으로 이해하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삶이 가부장 제도 속에서 다 비슷하더라”는 진술은 인지 틀이 사건 중심에서 구조 중심으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 전환은 정서적 압도를 완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과잉 개입에서 선택적·조절된 개입으로 이동하는 기반이 되었다. 불안과 책임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으나, 이를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반응 양식의 재조직이 확인된다.

(4) 통합: 고통을 포함한 역할 재정의

최종적으로 P2는 상담자의 역할을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에서 ‘의미를 매개하는 존재’로 재정의하였다. “상담자는 스토리 텔러”라는 표현은 문제 해결의 전능성 대신, 고통의 서사를 함께 견디고 연결하는 역할로의 전환을 함축한다. 통합은 고통의 소거가 아니라, 취약성이 잔존하는 상태에서 의미와 경계를 재조율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사례2) P4: 다층적 책임 구조 속에서 경험이 재조직되는 과정

P4는 디지털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고위험 복합 사례를 지속적으로 담당해 왔다. 지원 과정은 고위험 사례 접수와 위기평가에서 시작해, 재유포 대응·법률·보호조치 연계, 재접촉 위험 관리, 사후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반복적 순환 구조를 보였다. 일부 사건에서는 언론 보도와 기자 취재 요청, 지방의회 질의, 지자체의 행정적 확인 요구가 동반되며 상담자는 피해자 보호와 기관의 공적 책임 사이에서 다층적 판단을 수행해야 했다.

(1) 균열: 세계에 대한 전제의 동요

이러한 반복·미종결적 지원 과정 속에서 P4는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이 무섭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특정 사건의 충격이라기보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기본적 신뢰가 점진적으로 약화되는 경험이었다. 특히 제도적 대응의 한계를 반복적으로 목격하면서, 세계가 정의롭게 작동한다는 전제가 흔들렸다.

(2) 정박: 과각성과 보호 전략의 조직

균열 이후 P4는 만성적 긴장과 과각성을 경험하였다. 업무 시간 외에도 사건을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가해자의 재접촉 가능성을 예측하는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에 감당 가능한 개입 범위를 조정하고, 사례 선택과 역할 분리를 시도하는 방식으로 보호 전략을 조직하였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적 정지로 이해될 수 있다.

(3) 재향해: 판단 기준의 재형성

시간이 흐르며 P4는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과 젠더 권력 구조 속 문제로 재인식하였다. 외부 압력과 공적 책임의 중첩은 오히려 판단 기준을 재점검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그는 사건을 더 넓은 맥락 속에 위치시키며 정서 반응을 조절하고, 과잉 개입에서 선택적·조절된 개입으로 이동하였다.

(4) 통합: 존재론적 시야의 확장

통합 국면에서 P4는 모든 사건을 통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서사에 함께 머무르는 존재로서의 역할을 수용하였다. 이는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포함한 채 형성된 새로운 의미 체계였다.

사례3) P3, 보조사례: 신체화 기반 정박에서 조절 회복으로의 전환

P3은 특정 사건의 ‘내용’보다, 반복 노출 이후 몸이 먼저 반응하는 방식으로 대외외상을 경험하였다. 업무 중에는 기능을 유지했으나, 퇴근 후에도 긴장이 풀리지 않아 “갑옷을 입은 것 같은 각성 상태”가 지속되었고, 이는 정박 국면에서의 방어적 정지로 나타났다. 다만 시간이 지나며 P3은 과각성을 ‘문제’로만 보지 않고, 위험 신호를 읽는 신체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이후 불안 상승을 자각하고 호흡·거리두기·업무 경계 조절을 통해 반응을 낮추는 조절 전략이 조직되었고, 이는 재향해 국면의 ‘판단 기준 재형성’으로 연결되었다. 이 사례는 정박이 무능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위한 조정이며, 회복이 ‘소거’가 아닌 조절의 재조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P2와 P3, P4 외 참여자(P1·P3·P5·P6)의 서사에서도 ‘균열-정박-재향해-통합’의 경향적 시간구조는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국면의 강조점은 상이했는데, 정박은 P3에서 신체화·과각성과 같은 신체 기반 반응이 두드러진 반면, P1·P6에서는 업무 경계 강화와 개입 범위 조정 등 기능적 조정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통합 또한 P6은 한계 수용과 역할

경계 재정립에 무게가 실렸고, P5는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의미를 재구성(영성 포함)이 보다 전면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 구조적 국면의 공통 경험: 균열-정박-재향해-통합

(1) 국면1: 균열-세계 이해의 전제가 흔들림

참여자들은 피해자의 고통을 지속적으로 매개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침투를 넘어 세계의 안전성과 인간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경험을 보고하였다. 이는 단순한 충격 반응이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인식 틀이 전환되는 지점으로 나타났다.

“인간이 별거 아니구나… 세상이 무섭다.” (P4)

“예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어요.” (P2)

“수도자로서의 정체성만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한 인간으로 너무 괴로웠어요.” (P5)

(2) 국면2: 정박-침몰을 막기 위한 기능적 조정

균열 이후 참여자들은 과각성, 판단 혼란, 분노 확장 등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개입 범위를 재설정하고 거리두기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조정은 회피가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적 정지 상태로 나타났다.

“몸이 늘 각성돼 있었어요. 갑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 (P3)

“감당할 수 있는 사례와 아닌 사례를 스스로 정하게 됐어요.” (P6)

“중요한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적당히 해야지.” (P1)

정박은 반응 양식의 재조직이 시작되는 국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국면3: 재향해-판단기준의 재형성

일부 참여자들은 자신의 정서 반응을 인식·조절하고, 사건 중심 이해에서 구조적 이해로 관점을 확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잉 개입은 선택적·조

절된 개입으로 전환되었고, 역할과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재정립되었다.

“불안이 올라오는 걸 알아차리고, 내 안에서 조절해 가요.” (P1)

“여성의 삶이 가부장 제도 속에서 다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P2)

재향하는 판단 기준이 재구성되는 점진적 전환으로 나타났다.

(4) 국면4: 통합-고통을 포함한 의미 재구성

성장은 외상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고통을 포함한 상태에서 역할과 의미를 재정립하는 경험으로 드러났다. 참여자들은 한계를 수용하고, 상담자의 역할을 ‘의미를 매개하는 존재’로 재구성하였다.

“못 해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태도.” (P6)

“우주적 차원으로 해석하려고 했어요.” (P4)

“상담자는 스토리 텔러… 통찰로 재정의.” (P2)

성장은 긍정 정서의 증가라기보다, 취약성을 포함한 통합적 재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국면의 ‘변이’와 예외: 동일 구조 안의 차이

(1) 정박의 양상 차이

정박 국면은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나, 어떤 참여자는 신체화·과각성 중심으로, 다른 참여자는 분노 확장 혹은 관계 축소 중심으로 경험하는 등 반응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다.

(2) 통합의 깊이 차이

통합 역시 일률적이지 않고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일부는 역할 경계와 한계 수용에 초점이 있었고, 일부는 존재론적 의미틀의 확장으로까지 나아갔다. 이는 사례 밀도, 조직 지지, 개인적 성찰 자원 등의 맥락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구조는 고정된 단계의 반복이 아니라, 공통 흐름 속에서 서로 다른 깊이와 강조점을 보이는 경험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5. 결론 및 제언

1) 연구의 결론

본 연구는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이 어떻게 조직되고, 재해석·통합되며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의 경험은 ‘균열-정박-재향해-통합’으로 전개되는 경향적 시간구조로 나타났다. 균열은 단순한 정서적 충격이 아니라 세계의 안전성과 전문직 정체성의 전제가 흔들리는 인식적 전환이었으며, 정박은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적 조정의 국면이었다. 이후 재향해 과정에서 판단 기준과 개입 방식이 재형성되었고, 통합은 외상 이전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고통을 포함한 상태에서 의미와 역할을 재구성하는 경험으로 드러났다.

종합하면, 장기경력 상담자의 대리외상은 둔감화나 소진의 반대편에 위치한 단선적 성장이라기보다, 반복 노출 속에서 반응과 의미 체계가 재조정되는 과정적·통합적 경험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경험 구조를 제시함으로써, 여성폭력 피해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의 지속 가능성을 조망하는 해석적 틀을 제공하였다.

2) 이론적 함의

기존 연구가 대리외상(VT)과 대리외상 후 성장(VPTG)을 부정적·긍정적 결과로 병렬화하거나 성장 수준을 종속변수로 설정해 설명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두 경험을 시간 속에서 상호 침투적으로 전개되는 과정 구조로 제시하였다. 성장 국면은 외상 이후 별도로 도달하는 상태가 아니라, 균열과 정박을 통과하며 형성되는 통합적 재구성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경력 조건은 둔감화가 아니라 반응 양식의 재조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험 구조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3) 실천적 제언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정박 국면은 상담자의 기능 축소와 거리두기가 ‘회피’가 아니라 침몰을 막기 위한 조정으로 조직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조직은 이를 개인 역량의 저하로 오해해 추가 업무를 부과하기보다, 정박을 안전하게 통과하도록 사례 밀도·의사결정·지원 자원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조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사후 모니터링과 재접촉 대응 구간에서 상담자 개인에게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업무 분장·의사결정 권한·위기 대응 기준을 명문화한 팀 기반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지방의회·지자체 등 외부 압력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와 기관의 공적 책임이 충돌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 창구 일원화 및 상담자 보호 원칙(비공개 범위·기록관리·법률 자문 연계)을 포함한 매뉴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는 특정 지역 기관 소속 6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현상학 연구로, 통계적 일반화가 아닌 경험 구조의 본질 기술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결과는 보편적 단계 모형이 아니라 해당 맥락에서 도출된 분석적 구조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또한 회고적 면담 자료에 기반하였다는 점에서 시간성은 참여자의 서사적 재구성을 통해 포착되었다는 한계를 지닌다. 향후 연구에서는 경력 단계별 비교와 종단 설계를 통해 변화 구조를 보다 정밀하게 탐색하고, 조직 유형, 사례 밀도, 제도적 조건이 대리외상과 성장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권해수·김소라, 「성폭력 상담자의 대리외상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8권 제3호, 2006, 495-518쪽.
- 김인주·김도연, 「각각된 사회적 지지, 탈중심화, 삶의 의미가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대리 외상을 경험한 성폭력 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제16권 제4호, 2015, 23-45쪽.
- 박지영, 「한국형 이차적 외상스트레스척도(Secondary Traumatic Stress Scale)의 구성타당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3권 제4호, 2011, 33-57쪽.
- 신혜섭, 「가정폭력상담원의 스트레스, 대처전략과 직무요인이 대리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제1호, 2010, 45-61쪽.
- 안은주·김봉환, 「폭력피해자 지원 상담자의 대리외상 후 성장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제18권 제4호, 2017, 25-46쪽.
- 이미혜·성승연, 「상담자들의 대리외상: 개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3권 제1호, 2014, 109-137쪽.
- Giorgi, Amedeo, *The Descriptive Phenomenological Method in Psychology: A Modified Husserlian Approach*, Duquesne University Press, Pittsburgh, 2009.
- Herman, Judith L.,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Basic Books, New York, 1992.
- Pearlman, Laurie Anne & Karen W. Saakvitne, *Trauma and the Therapist: Countertransference and Vicarious Traumatization in Psychotherapy with Incest Survivors*, W. W. Norton, New York, 1995.
- Figley, Charles R., “Burnout and Secondary Stress,” in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Brunner/Mazel, New York, 1995, pp. 11-12.

- Manning-Jones, Sally, Ian de Terte & Christopher Stephens, “Vicarious Posttraumatic Growth: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Wellbeing*, Vol. 5, No. 2, 2015, pp.125-139.
- McCann, Irene L. & Laurie Anne Pearlman, “Vicarious Traumatiza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Working with Victims”, *Journal of Traumatic Stress*, Vol. 3, No. 1, pp.1990, 131-149.
- Tedeschi, Richard G. & Lawrence G. Calhoun,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Vol. 15, No. 1, 2004, pp.1-1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성평등가족부 산하 피해자지원기관에서 근무하는 10년 이상 장기경력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 6명을 대상으로, 대리외상 경험이 어떠한 구조로 조직되고 그 경험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재해석·통합되며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현상학적으로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Giorgi의 분석 결과, 상담자의 대리외상은 단일한 증상이나 소진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세계관과 전문직 정체성에 균열이 발생하고, 보호적 조정과 정박을 거쳐 점진적 재향해와 통합의 성장으로 재조직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기경력 상담자들은 외상에 둔감해지기보다 반응 양식이 조절·전환되었으며, 대리외상 후 성장은 외상을 포함한 상태에서 삶과 전문성을 재구성하는 통합의 경험으로 이해되었다. 본 연구는 대리외상과 대리외상 후 성장을 과정적·구조적 경험으로 제시하며, 상담자 지원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대리외상,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 대리외상 후 성장, 현상학적 연구, 장기경력 상담자

■ Abstract

Stories of Counselors Facing Pain: Vicarious Trauma and Growth Experiences of Long-Term Counselors for Surviv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Han, Yeong Sook / Hannam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how vicarious trauma (VT) is structured and transformed into growth in the lived experience of long-term counselors working with victims of violence against women. Six female counselors with over ten years of experience in government-affiliated victim support agencies in Korea participated in in-depth interviews.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findings show that VT was not merely burnout, but a process in which repeated exposure to survivors' suffering disrupted fundamental assumptions about the world and professional identity. Through protective adjustment and reorganization of response patterns, counselors gradually developed renewed orientation.

Vicarious posttraumatic growth (VPTG) emerged as an integrative reconstruction of meaning that incorporates suffering.

These findings conceptualize VT and VPTG as processual experiences and offer implications for sustaining long-term counselors.

Keyword • Vicarious Trauma, Counselors for Survivors of Violence against Women, Vicarious Posttraumatic Growth, Phenomenological Study, Long-Term Counselors

■ 부록

[표 4] 여성폭력 피해 상담자의 대리외상 후 성장 경험 연구결과표¹⁹⁾

의미단위	증심현상	본질현상
상상초월 폭력에 충격, 얼어붙음, 압도/반복적·장기적 외상 사건 노출/세상이 믿을 수 없다는 인식/문화구조적 위험 목격/재학대 순환 관찰	찢어진 지도위에 서게됨 (세계관 균열/안전감 붕괴)	
직간접위험 노출로 안전감이 무너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과 절망감 사회적 맥락에서의 외상 재경험		
가치관의 균열과 절망감		
안전(사람, 환경, 관계)에 대한 과각성/우연자극에 의한 재각성(트리거/플래시백)/위험 감지 강화, 위험 평가 상승/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함을 느끼지 못함/일상에서 과도한 안전 경계/외부압력으로 인한 과도한 긴장유지	멈출 수 없이 상시 가동되는 경계경보 (만성 과각성/ 위험평가 상승)	자신을 지 지대로 삼아, 타인의 파 괴된 삶의 빙산을 떠 받친 채 버 티는 존재 (균열: 세계 관과 역할 정 체 성 의 구조적 동요)
직업역할 과잉 침투/위기 상황에 대한 자기희생적 과몰입/상황에 대한 통제욕구/밤낮 없이 일에 매달림/강박적으로 공부와 성과에 집착		
결과에 대한 과잉 자기귀인		
사건 재경험에 따른 죄책감/피해자 회복에 대해 스스로 압박		
강박적 문제해결 욕구와 이로 인한 반복적·과도한 개입/자다가도 별떡 일어나서 일을 함		
자나 깨나 피해자 생각에 사로잡힘/구원자 스키마와 의존관계 형성/피해자 정서를 함께 느끼게 됨		

19) 본질 구조는 참여자 간 반복적으로 확인된 공통 의미를 통합한 분석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은유는 참여자 진술에 내재한 체험의 압축성과 시간적 전개성을 손상하지 않으면서 구조를 명료화하기 위한 기술적·분석적 장치로 사용되었다.

인간과 세상에 대한 실망/변하지 않는 세상에 대한 분노/일상화 · 만성화된 분노	분노의 렌즈로 세상을 접촉함 (분노 중심의 인지적 해석 틀 강화)	
가해자에 대한 분노/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보호자에 대한 분노		
도덕적 · 사회적 불의에 대한 분노로 견디기 힘들/피해자 보호 실패 인식에 따른 분노/피해자의 삶이 부당하다는 분노		
직업에 대한 회의감과 역할 혼란/역할수행과 자기정체성간의 괴리 경험/대응 실패에 따른 자책과 수치감 /자기비판적 내면대화, 수치감/이상과 현실 괴리/자기효능감 의심 /법적 성과와 삶의 회복간 괴리로 인한 혼란/미해결 감정의 반복(역전이, 투사)/가면을 쓰는 듯한 자기혼란	오작동하는 자기 판단의 나침반 (판단 기준의 혼란)	거센 파도 속에서 침몰을 막기 위해, 닻을 내린 채 정박하게 되는 존재 (정박: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어적 재조정 상태)
집중력 저하/판단·정보처리 약화/반복적 사고/인지적 혼란/정서적 무기력, 감각 둔화/분노로 감정 조절 대체		
사람 회피, 사회적 거리두기/정서적 경직과 고립/극심한 탈진 · 신체 증상/직무 회피	에너지 고갈로 방어 모드로 작동됨(소진에 따른 방어적 대처전략 활성화)	
외로움, 고립감, 감정표현 마비/정서적으로 경직되고 얼어붙은 상태	삶의 기능이 저전력모드로 전환됨 (심리·사회적 기능의 축소 및 위축)	
사람 회피/거리감/사회적 거리두기/정의감으로 인한 분노로 주변과 싸우게 됨		
탈진, 기진맥진, 수면 · 신경계 이상/면역 저하/ 신체 통증		
이분법적 인식/염세적 세계관		
특정 집단(남성)에 대한 일반화/세상과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염세적 세계관의 강화/사고 과잉, 인지적 과부하/감정 조절의 실패	경직된 인지 · 정서 조절 회로	

자기 돌봄과 회복력 상실 인식/직무회피와 거리두기/강제적 업무 분리/사직·중단을 통한 삶의 유지 선택		
관계·관심·생활영역의 점진적 축소/사회적 접촉 회피와 관계 악화 /업무트레스의 가족·일상으로의 전이/심리적 고립과 방어적 거리두기/관계적 단절을 통한 자존감 방어/‘은둔자 같다’는 고립감	외판셈처럼 접근이 차단된 관계 반영 (관계 축소/사회적 철수)	
인간적 고뇌와 번민의 심화 /피해자에 대한 통념과 신념 충돌로 인한 인지부조화/타인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비판하는 태도		
분노와 고통을 품은 채 세상을 불신함/관계맺음 자체에 대한 피로와 회의		
생존위협을 인식함/관계를 닫는 나’에 대한 자각의 시작/고립이 한계이자 보호임을 동시에 인식/감정융합의 위험을 자각함/근원적 취약성 인식/자기 돌봄 결핍에의 애도/역할 분리의 필요성 인식	거센 파도 속에서도 방향기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함 (자기조절 능력의 회복과 판단기준의 재형성)	다시 켜진 엔진으로 나침반을 따라 항해를 다시 시작하게 된 배 (재항해 : 전문성 재구성과 메타인지적 조절의 회복)
치유적 거리조절을 통해 경계 재설정/경계의 재설정		
감정과 인식방식을 인식·조절·해석/내면화된 편견과 인식을 수정함/공감의 성숙화(흡수→구분)/체계관점으로 확장하게 됨(행위자-구조-맥락)/실천 전략의 전환(행위자 상담→피해 맥락 이해)/무조건적 열정에서 신중함으로 전환/과잉책임감 완화를 시도함/신체화된 분노를 안전하게 방출함/소명과 직업 적합도를 재평가/성숙한 성과관을 가짐/정체성과 의미를 재구성(인지재구조화)		
자기보호와 개방의 균형을 회복/분노와 좌절, 비판에서 연민으로의 전환/적정 경계조절과 자기돌봄을 통해 내적 균형 회복/근원적 취약성에 대한 통찰/자기를 이해와 자기 수용/‘역할 이전의 한 인간’으로 자신을 인식함	취약함을 드러낸 채 관계를 조율함	

타인에 대한 연민과 이해의 폭 확장/선입견을 내려놓고 타인의 서사를 수용/관계에서의 화해 경험/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관계 태도 형성		
인간과 세상을 우주적 관점에서 조망/삶과 존재의 의미 재자각/고통의 재명명과 승화/사건을 초월적·영성적 의미로 재해석	고통의 점들을 연결해 의미를 그리기 시작함 (의미 재구성)	서로를 비추며 항로를 함께 넓혀가게된 항해자들 (통합: 외상을 포함한 존재적·전문적 통합의 구조)
영성과 가치 기반의 회복/역할을 넘어서 자기 개념의 통합/전문적 사명 기반의 성장		
피해자와의 만남 속에서 보상과 치유를 경험함/피해자의 회복, 인정, 감사가 나에게 돌아오는 경험/‘돕는 사람’에서 ‘함께 회복되는 존재’인 자신을 느낌	서로의 울림 속에서 함께 회복됨 (치유적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	
진정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로의 전환/수직적 전문가 위치에서 동반자적 실천자로 이동/소진유발 역할수행에서 지속 가능한 전문성으로 재구성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엄성의 가치 재확인 /감사경험을 통한 자신의 역할 재확인 / ‘옆에 있어주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인식함/후배 성장과 조직을 위한 마음으로 전환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됨 (공동체적 회복기제 형성)	
후배 성장과 조직 유지를 위한 헌신/개인 회복을 넘어 공동체 지속성에 대한 책임 인식/개인적 성장을 조직·현장으로 환류함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불안, 스트레스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단일사례연구

고 희 숙 · 이 하 랑 · 김 성 봉*

목 차

1. 서론
2. 연구 방법
3. 연구 결과
4. 결론 및 제언

1. 서론

현대 사회는 급속한 정보화와 경쟁 중심의 노동 환경 속에서 개인에게 지속적인 적응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직장인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은 불확실성, 경제적 부담, 대인관계 갈등, 직무 수행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며, 스트레스가 누적될 경우 불안, 우울, 긴장과 같은 부정적 정서가 강화된다.¹⁾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은 상황을 지각하고 자신의 자원과 역량이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를 평가하며 이러한 인지적 평가는 부정적 정서 경험과

* 고희숙(제1저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이하랑(공동저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김성봉(교신저자)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교수

1) Lazarus, Richard S., & Folkman, Sus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박영숙, 「성인 불안장애의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통합심신치유모델 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1쪽.

밀접하게 연결된다.²⁾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정적 정서 경험은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해할 뿐 아니라 조직의 성과 및 적응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

한편 불안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지속됨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적 증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⁴⁾ 직무 환경에서 경험되는 불안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상황을 해석하며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평가하는 과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⁵⁾ 이러한 스트레스와 불안은 개인이 추구하는 행복과 밀접하게 연결된 안녕감을 저해하며 전반적인 삶의 질과 만족도를 낮춘다.

Keyes(2005)는 안녕감을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감으로 구성된 다차원적 개념으로 제시하였으며, Diener(1984) 역시 안녕감이 삶의 만족과 긍정적 정서 경험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보고하였다.⁶⁾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안녕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보다 의미 있고 만족스럽게 인식하며 사회적 관계와 역할 수행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직장인의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경험되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불안을 낮추기 위한 개입이 안녕감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2) 하정희, 「스트레스 지각과 부정정서와의 관계 - 완벽주의와 인지적 평가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8권 4호, 한국상담학회, 2007, 1573-1592쪽.

3) 박지영, 「직무순환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 주관적 경력 성공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63-66쪽; 김령아·이봉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마음챙김 명상(MBSR)에 기반을 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EAP)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스트레스연구』 17권 2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09, 181-182쪽.

4) 박영숙, 앞의 논문, 1-3쪽.

5) 박지영, 앞의 논문, 7쪽.

6) Keyes, Corey L. M.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3, no. 3, 2005, pp. 539-548; Ed Diener,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1984, pp. 542-575.

마음챙김(mindfulness)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개인의 안녕감을 증진시키는 심리적 개입으로 주목받아왔다.⁷⁾ 마음챙김은 현재의 경험에 대해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인 주의를 기울이며 또렷이 알아차리는 과정으로 정의된다.⁸⁾ 이러한 마음챙김 명상은 스트레스와 우울을 완화하고 삶의 만족도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⁹⁾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마음챙김이 불안, 우울,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 정신건강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이 검증되었으며,¹⁰⁾ 직장 환경에서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소진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마음챙김 기반 개입의 활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¹¹⁾ 그러나 마음챙김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에 비해 직장인의 실제 삶의 맥락에서 경험되는 마음챙김 명상의 본질과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한 질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기존 질적 연구들 또한 고등학생,¹²⁾ 대학생,¹³⁾ 특정 종교 집단,¹⁴⁾ 초보

7) Bassam Khoury et al., "Mindfulness-based therapy: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33, no. 6, 2013, pp. 763-771.

8) 김교현,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그리고 지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권 2호, 2008, 285-306쪽.

9) 정유수, 「마음챙김 명상(MBSR)이 중년 남성의 스트레스,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박지원·이혜진, 「단기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이 노인의 마음챙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권 3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17, 489-510쪽.

10) 김봉구·김정호·김미리혜, 「명상-마음챙김-긍정심리 훈련(MMPT) 프로그램이 웰빙,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권 6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22, 931-961쪽; 홍혜정·박종규, 「비대면 마음챙김기반 인지치료(MBCT) 프로그램이 성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8권 3호, 한국임상심리학회, 2022, 457-476쪽.

11) 김령아·이봉건, 앞의 논문, 175-184쪽; 김동현·변상해, 「직장인의 심리적 소진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마음챙김의 조절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6권 4호, 2024, 165-180쪽.

12) 장영수, 「고등학생의 마음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BSR)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명상학회지』 1권 1호, 한국명상학회, 2010, 57-73쪽.

상담자,¹⁵⁾ 마음챙김 수행자¹⁶⁾ 등이 보고되었으나, 이러한 연구들 역시 특정 집단이나 수행 맥락에 제한적이었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기혼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호흡 명상과 바디 스캔을 적용한 개인사례연구와¹⁷⁾ 직장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상 기반 개입 경험을 질적으로 탐색한 연구가¹⁸⁾ 일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직장인의 정서적 변화가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단일사례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한편 코로나19의 확산은 비대면 상담 방식을 보편화시켰으며,¹⁹⁾ 이러한 방식은 공간적·시간적 제약이 적고 심리적 부담이 낮아 내담자의 자기개방과 상담 몰입을 촉진하는 긍정적 특성을 지닌다.²⁰⁾

-
- 13) 최정익·최운정, 「대학생의 일주일간 마음챙김 명상 수련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명상학회지』 12권 2호, 한국명상학회, 2022, 49-73쪽; 김경화, 「대학 교양수업에서 마음챙김과 자비 경험 탐색」, 『한국명상학회지』 15권 2호, 한국명상학회, 2025, 93-111쪽.
 - 14) 조한상, 「‘마음챙김’ 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8호, 한국실천신학회, 2024, 235-268쪽.
 - 15) 정혜윤, 「마음챙김 명상 집단상담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초보상담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16) 박성현·안희영, 「마음챙김 수행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 ‘불뚝’에서 ‘놓음’으로 향해가는 ‘마음챙김 살기’」, 『한국불교학회』 91권, 한국불교학회, 2019, 285-324쪽.
 - 17) 장금주, 「호흡 명상과 바디 스캔을 적용한 개인사례연구」, 『명상심리상담』 3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2009, 196-243쪽.
 - 18) 박금남, 「본노표출 내담자 사례 연구: 수용전념치료 적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2권 1호, 한국상담학회, 2017, 43-68쪽.
 - 19) 이윤희·김지연, 「대학생의 비대면, 대면 수업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면 형식 수업 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271-300쪽; 김선미, 「ADHD 성인 여성의 실행기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인지행동치료 사례연구」,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 6권 2호, 2024, 1-28쪽.
 - 20) 김은하·이은설·조예지, 「대학상담센터 내담자들의 비대면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2권 2호, 한국상담학회, 2021, 85-110쪽.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으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고 안녕감을 증진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경험에 주목하여 마음챙김 명상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와 그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단일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단일사례연구는 개인의 경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의미화되는지를 맥락적으로 탐색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직장인을 위한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의 실질적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향후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확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직장인의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경험과 그에 따른 변화 과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며,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참여 전·후, 직장인의 불안, 스트레스 및 안녕감은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장인의 경험의 본질과 변화 과정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불안, 스트레스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개인의 삶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 단일 사례연구(single case study) 방법을 적용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자가 관찰과 면담을 포함한 다각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자는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내의 실제 현상을 장기간 탐구함으로써, 사례에 대한 풍부한 묘사를 제공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 있는 주제들을 도출해낸다.²¹⁾ 이러한 사례연구는 개인의 경

험이 형성되는 맥락과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적합한 연구방법이다.

Yin(2018)은 사례연구를 특정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의 생애과정, 소집단의 행동, 조직과 관리 과정 등 복합적이고 맥락 의존적인 현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연구전략이라 설명하였다.²²⁾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단일사례연구 방법은 연구 대상의 내적 경험과 개별적 특성,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하다. 이는 개별 사례의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²³⁾

본 연구는 직장인의 마음챙김 명상 수행 경험을 개인의 고유한 삶의 맥락과 의미 구성 과정 속에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Stake(1995)의 해석적 질적 사례연구 접근²⁴⁾과 Yin(2018)의 체계적 사례연구 설계 원리를 절충하여 활용하였다. Stake의 접근은 참여자의 주관적 경험과 의미 해석에 초점을 두는데 강점이 있으며, Yin의 접근은 연구 절차의 구조화와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두 방법론의 장점을 통합하여 사례를 탐구하였다.

연구의 중심은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담자의 경험과 변화 양상에 대한 질적 분석에 두었으며, 분석의 다각화를 위해 프로그램 참여 전 · 후에 스트레스, 불안, 안녕감 척도를 활용한 양적 자료를 보충적으로 수집 · 분석하였다.

21)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13.

22)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2018.

23) 정명희 · 김영근, 「정서 처리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정서중심치료(EFT)의 적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8권 1호, 한국상담학회, 2023, 6쪽.

24) Stake, Robert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5.

1) 프로그램 구성

본 연구에서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마음챙김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참여 경험과 변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프로그램은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K-MBSR) 프로그램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이후 프로그램의 내용 타당도와 실행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 상담학회 수련감독자격자이면서 명상 전문가의 검토와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루어진 주요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1차적으로 구성한 10회기 프로그램을 8회기로 조정하였다. 이는 마음챙김은 8주의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으로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이완 효과를 나타낸다는²⁵⁾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1회기와 8회기는 사전·사후 검사 및 심층적 경험 나눔을 포함하여 90분으로 구성하고, 나머지 회기는 60분으로 구성하여 집중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둘째, 초기 구성에서 1회기에만 포함되었던 호흡 명상을 모든 회기의 도입부에 공통적으로 배치하였다. Kabat-Zinn(1998)등은 마음챙김 수행에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이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현재 순간으로 주의를 모으며, 이는 정서적 안정과 자기 치유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다.²⁶⁾ 이러한 호흡 명상의 배치는 명상 수행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셋째, 초기 구성에서 3회기에만 포함되었던 자비 명상을 모든 회기의 마무리 단계에 포함하도록 수정하였다. Neff(2003)는 자기 자비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돌보고 친절하게 대하는 태도임을 강조하였

25) 문진건, 「코로나19 일상의 우울과 불안을 다루기 위한 마음챙김 심리치유법에 대한 고찰」, 『마음공부』 2권,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2021, 14쪽.

26) Jon Kabat-Zinn, 김교한·김정호·장현갑 역,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학지사, 2017, 121-122쪽, 136쪽.

다.²⁷⁾ 이러한 정의는 개인이 어려운 상황을 보다 적응적으로 처리하는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애 명상이 참여자의 자기 자비,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긍정적 정서 수준을 유의하게 향상시키고, 스트레스와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고되었다.²⁸⁾ 또한 자기자비가 불안 감소와 스트레스 적응, 직무 소진 완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대학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²⁹⁾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비 명상의 빈도를 확대하여 전 회기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은 매 회기 동일한 기본 구조를 유지함으로써 수행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각 회기는 호흡 명상 → 주요 마음챙김 명상 → 자비 명상 → 경험 나눔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초기 1-2회기

초기 회기에서는 마음챙김에 대한 이해와 기초적 알아차림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1회기에서는 마음챙김 명상의 개념과 수행 태도를 PPT 자료를 활용해 안내하고, 사전 척도 검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초기 상태를 파악하였다. 이후 호흡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는지를 자각하도록³⁰⁾ 하였다.

27) Neff, Kristin.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vol. 2, no. 2, 2003, pp. 85-101.

28) 왕인순 · 조옥경, 「자애명상이 자기자비,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정서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권 4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11, 675-690쪽.

29) 박채연,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한국명상학회지』 9권 1호, 한국명상학회, 2019, 38쪽; 김나래·김지근(2021). 「20-30대 직장인의 조직 내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을 통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권 5호, 한국상담학회, 2021, 323-347쪽.

30) 배재홍·장현갑,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BSR-K)이 대학생의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1권 제4호, 한

2회기에는 먹기 명상을 통해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던 행동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도록³¹⁾ 하여 감각적 알아차림을 확장하였다.

(2) 중기 3-5회기

중기에는 신체 감각과 움직임 속에서의 마음챙김을 심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3회기에서는 바디 스캔 명상을 통해 신체 감각에 대한 주의 집중과 주의의 유연성을 기르도록³²⁾ 하였다.

4회기에는 정좌 명상을 통해 판단이나 해석 없이 마음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수용하는 경험³³⁾을 제공하였다.

5회기에서는 걷기 명상을 통해 움직임 속에서도 호흡과 신체감각, 정서와 사고를 통합적으로 알아차리는 경험³⁴⁾을 하도록 구성하였다.

(3) 후기 6-8회기

후기 회기에서는 바디 스캔, 정좌 명상, 걷기 명상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마음챙김 수행의 깊이와 지속성을 강화하였다. 반복 수행을 통해 참여자의 신체반응과 정서상태를 보다 세밀하게 인식하고, 자동적 반응 대신 알아차림에 기반한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8회기에는 사후 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명상 경험과 변화를 종합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참여자가 자신의 변화 과정을 통합적으로 성찰하도록 하였다.

모든 회기 말미에는 자비 명상을 포함하여, 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긴장과 자기비판적 태도를 완화하고 자신을 향한 친절과 수용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초반에는 기초적인 마음챙김 훈련(먹기 명상, 바디

국건강심리학회, 2006, 675쪽.

31) 장현갑, 『명상이 뇌를 바꾼다: 괴로운 뇌를 행복한 뇌로 바꿔 주는 마음 수련』, 불광출판사, 2019, 192쪽.

32) Jon Kabat-Zinn, 김교한·김정호·장현갑 역, 앞의 책, 168쪽.

33) 배재홍 · 장현갑, 앞의 논문, 676쪽.

34) Jon Kabat-Zinn, 김교한·김정호·장현갑 역, 앞의 책, 226쪽.

스캔, 정좌 명상 등)에 집중하며 몸 감각, 정서, 생각, 알아차림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후, 점차 연습이 충분해지면 걷기 명상, 정좌 명상을 통해 알아차림 능력을 키운다는³⁵⁾ 선행연구의 전개 방식과 일치한다. 이를 토대로 구성된 프로그램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개요

회기	시간	주요 내용	목적
1	90분	마음챙김 안내(PPT 제작), 연구 설명 및 동의, 사전 척도검사, 심층면담, 호흡 명상, 자비 명상	마음챙김 개념 이해, 초기 상태 파악, 집중 훈련 시작
2	60분	호흡 명상, 먹기 명상, 자비 명상	일상 행동의 의식적 경험, 감각적 알아차림 확장
3	60분	호흡 명상, 바디 스캔, 자비 명상	신체 감각에 주의 집중, 주의 유연성 강화
4	60분	호흡 명상, 정좌 명상, 자비 명상	판단·해석 없이 마음의 흐름 관찰, 수용 경험
5	60분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움직임 속 통합적 알아차림 훈련
6	60분	호흡 명상, 바디 스캔, 자비 명상	반복 수행을 통한 수행 깊이 강화
7	60분	호흡 명상, 정좌 명상, 자비 명상	수행 지속성 강화, 알아차림 기반 태도 형성
8	90분	호흡 명상, 걷기 명상, 자비 명상, 사후 척도 검사, 종합적 경험 나누기	변화에 대한 통합적 성찰

2) 연구자의 전문성 및 위치

본 연구자는 2011년 명상지도자과정 이수를 시작으로 ACT, DBT, MBCT, MBSR 전문과정을 수료하여 명상심리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였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2년간 요가 및 명상 방과후 수업을 지도한 경험이 있다. 이러한 10여 년 이상의 명상 및 상담 실무 경력은 질적 자료에 나타난 참여자의 미세한 심리 기제와 명상적 변화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분석적 토대가 되었다. 연구과정에서는 Stake(1995)와 Yin(2018)의 분석 절차

35) 문진건, 위의 논문, 14쪽.

를 준수하고, 명상 수련감독자의 자문을 통해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괄호치기(Epoche)’의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 회기 분석 전 연구자의 기대와 잠정적 해석을 연구일지에 기록한 후 자료를 검토함으로써 선이해의 개입 가능성을 점검하였다.

3) 연구참여자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성인 1명으로, 일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와 불안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며,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비대면 화상 플랫폼(ZOOM)을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연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대학을 졸업한 33세 남성으로 사무직 근무 경력 5년 차다. 참여자는 평소 대인관계에서 타인의 반응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상사와의 관계에서 긴장과 불안을 자주 경험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인식할 경우 강한 자기비난과 함께 우울감이 수일간 지속되는 패턴을 반복하였다. 또한 불안을 느낄수록 가만히 있기보다 무엇인가를 계속해야만 안심이 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를 스스로 통제하기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일상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이 피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전의 명상 경험은 온라인 영상 매체를 통해 몇 차례 접한 수준에 머물렀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단일 사례의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면담, 명상 수행 후 경험 기록, 연구자의 관찰 메모 등 다양한 질적 자료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전·후에 실시한 자기보고식 척도 자료는 질적 분석을 보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월 12일까지 총 8회기로,

주 1회 60분씩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으로 실시하였다(1회기 및 8회기 90분). 프로그램 진행 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줌(ZOOM)주소를 암호화하여 제공하였으며, 녹화나 녹음 등은 참여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진행하였다. 또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나 표현 등은 삭제하여 내담자의 자율성과 사생활을 존중하였다.

자료 수집은 프로그램 시작 전 · 후의 불안, 스트레스, 안녕감 척도를 포함한 자기보고식 설문지와 함께, 마음챙김 명상 경험과 변화에 대한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전사(transcription) 후 의미있는 단어에 코드를 부여하고, 범주화하며 패턴을 도출하였다.

연구자는 자료 수집 전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진행 과정, 자료 활용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참여자는 숙고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하였다. 수집된 모든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되었으며, 연구 결과를 기술할 때도 참여자의 익명성과 사적 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 아울러 명상 수행 중 심리적 불편이나 부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연구자-참여자 간의 개방적 소통 환경을 유지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의미와 변화를 참여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 분석 절차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자료분석의 이론적 틀은 Stake(1995)의 사례이해 중심 접근과 Yin(2018)의 체계적 분석 절차를 토대로 하였으며, 분석 과정 전반에 Lincoln과 Guba(1985)가 제시한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기준이 반영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마음챙김 명상 경험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하여, 분석 단위를 회기 단위의 경험 흐름으로

확장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는 1회기, 2~4회기, 5~7회기, 8회기로 구분하여 분석되었다.

자료분석의 첫 단계에서는 심층면담 전사 자료, 회기 중 관찰 기록, 참여자의 명상 수행 일지 및 회기별 문답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며 자료 전체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다음 단계에서는 자료를 의미 단위로 분절하여 개방 코딩을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에 드러난 경험을 가능한 그대로 반영하여 코드를 생성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자신의 생각이나 기대가 분석에 지나치게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 코드가 원자료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개방 코딩을 통해 도출된 코드는 유사성과 차이를 기준으로 다시 검토되었으며, 서로 관련 있는 코드들을 묶어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로 정리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났는지,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전·중·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코드를 재구성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범주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의 핵심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는 참여자의 삶 속에서 중요하게 나타나고 경험의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6)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

본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먼저 참여자 확인을 실시하여 분석 결과가 참여자의 실제 경험 및 의도와 일치하는지 검토받음으로써 해석의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상담 및 명상 전문가의 동료 검토를 거쳐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을 제어하고 분석의 객관성을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부터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한 연구 일지와 성찰 일지를 통해 감사 추적이 가능하도록 투명하게 관리하였으며, 면담 자료, 명상 일지, 양적 척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하는 자료의 다각화를 적용하여 결과의 신뢰도를 입체적으로 검증하였다.

7) 양적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의 불안, 스트레스, 안녕감에 대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실시 이전과 이후에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사전 검사 및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1) 지각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지각된 스트레스 측정을 위해 Cohen 등이 개발한 Perceived Stress Scale(PSS)를 박준호·서영석(2010)이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로 타당화한 척도를³⁶⁾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부정적 지각 5문항, 긍정적 지각 5문항의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고 긍정적 지각 문항은 역채점된다. 척도는 '전혀 없었다'에서 '매우 자주 있었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의 범위는 0~40점으로 총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해석된다. 박준호·서영석(2010)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부정적 지각 .77, 긍정적 지각 .74로 나타났다.

(2) 불안

본 연구에서의 불안척도는 Beck 등이 개발하였고 Kwon & Oei가 번안한 한국판 벡 불안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³⁷⁾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구성 되었으며 문항 구성은 0~3점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총점은 0점에서 최대 63점까지 측정될 수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Kwon & Oei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이었다.

36) 박준호·서영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10, 611-629쪽.

37) Kwon, S. M. & Oei, T. P. S. "Differential caus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6, no. 3, 1992, pp. 309-328.

(3) 정신 건강 안녕감

본 연구에서 안녕감 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eyes등(2008)이 개발한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MHC-SF)을 임영진 등(2012)이 한국판 정신적웰빙척도(K-MHC-SF)로 타당화한 척도를³⁸⁾ 사용하였다. 총 14문항이며 문항구성은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으로 정서적 안녕감 3문항, 심리적 안녕감 6문항, 사회적 안녕감 5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0점(전혀 없었다)에서 5점(매일)까지의 6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4문항의 합산 점수 범위는 0점에서 7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신적 안녕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임영진(2012)의 전체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며 정서적 안녕감은 .88, 심리적 안녕감 .90, 사회적 안녕감 .81로 나타났다.

3. 연구의 결과

본 연구는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직장인 1인의 경험을 단일사례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나타난 경험의 변화와 그 의미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탐색하였다.

1) 시간 순서에 따른 회기별 경험의 전개

참여자의 경험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초기 상태 및 명상 동기 → 명상 경험의 진전과 초기 변화 → 일상생활로의 확장과 자기조절 능력 향상 → 지속되는 어려움과 미래 적용의 흐름으로 전개되었다. 회기별 경험의 주요 내용은 [표 2]과 같다.

38) 임영진 · 고영건 · 신희천 · 조용래,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12, 369-386쪽.

[표 2]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회기별 변화 과정

회기	상위 범주	주요 경험 내용
1회기	초기 상태 및 명상 동기	지위 불안이라는 핵심적인 불안 멘탈이 강해지고 싶다는 동기 굳이 도움이 될까라는 의심
2~4회기	명상 경험의 진전과 초기 변화	신체 감각 인식 증가, 자비 명상에 대한 저항과 수용 불안 다루는 방식의 변화
5~7회기	일상생활로의 확장과 자기 조절 향상	습관 형성, 스마트폰 사용 변화, 불안 관리 방식의 다양화
8회기	지속되는 어려움과 미래 적용	관계 및 직장 내 불안, 변화의 인식 및 지속 의지, 명상의 한계 인식, 장기적 실천 의지 형성

(1) 초기 상태 및 명상 동기(1회기)

참여자는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시작 전부터 ‘지위 불안’이라는 핵심적인 불안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상사의 비난이나 업무 실수가 있을 때 심장이 조여드는 신체 반응과 함께 나타났다. “멘탈이 강해지고 싶다”는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굳이 도움이 될까?”, “이것을 한다고 바뀔까?”라는 의심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함께 내재된 저항감을 보여주었다. 참여자는 불안을 일시적인 정서 반응이 아닌, 자신의 성격이나 본질적 특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업무 상황에서의 긴장과 불안은 반복적으로 경험되어 왔으며, 참여자는 이를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문제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안이 올라올수록 스스로를 비난하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해야만 안심이 되는 패턴이 나타났다.

“불안한 게 싫어서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멈추면 더 불안해져요.”

첫 회기의 호흡 명상은 참여자에게 낯설고 불편한 경험으로 인식되었으며, 오히려 가만히 있는 동안 불안이 더 뚜렷해졌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기존의 회피적 대처 방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명상 경험의 진전과 초기 변화(2회기 ~ 4회기)

마음챙김 명상이 진행되면서 참여자의 명상 경험은 점차 깊어졌다.

첫째. 명상의 효과이다. 첫 회기에 호흡을 ‘잘해야 한다’는 수행적 태도에 집착하여 불편함을 느꼈던 것과 달리 차츰 호흡 명상 후 ‘머리가 맑아지고 명료해지는 느낌’, ‘불안이 사라짐’을 경험했다(2회기). 이는 명상 기법이 즉각적으로 참여자의 인지적, 정서적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회기가 진행될수록 명상에 대한 ‘익숙함과 편안함’을 느끼며 과도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임하게 되었다(3회기).

둘째. 신체적 인식의 증가이다. 먹기 명상을 통해 눈으로 보고, 코 끝에 건포도를 갖대 대고 냄새를 맡고, 혀를 통해 맛을 느끼고 씹으면서 입 안에 퍼져나가는 경험을 통해 신체 감각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2회기). 참여자는 아몬드 ‘주름진 모습’, ‘녹아서 물이 되는 느낌’, ‘달달한 냄새’ 등을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경험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인식의 증가는 불안을 사고 중심이 아닌 경험 수준에서 알아차리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신체적 인식에 대한 증가는 5회기의 걷기 명상에서도 이어진다. 걷기 명상을 통해 ‘발바닥의 차가운 감각’, ‘다리가 이동하고 멈추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하는 등 몸의 감각에 대한 인지가 향상되면서 움직임 속의 통합적 알아차림으로 확대된다.

셋째. 자비 명상의 어려움과 수용이다. 자비 명상 초반에는 “자신을 직면하는 것 같아 안 좋았다”고 표현하며 어색함을 느꼈다(2회기). 이는 평소 자신에 대한 비난이 심하고 자신에게는 과도할 만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을 나무라는 성격으로 인해 받아들이기 힘든 체험일 수 있었다. 그러나 3회기에서 “오늘 하루 고생했어”, “오늘 하루 버텨내줘서 고마워”와 같은 위로의 메시지에 편안함을 느꼈고, 4회기에서는 자비 명상을 통해 “괴로움이 날아가는 느낌”, “새로 태어난 느낌”을 경험하는 등 점차 자신을 수용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색한 것은 초기에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넷째. 불안 다루는 방식의 변화다. 여전히 업무 관련하여 불안(지위 불안, 예산 업무)을 겪었지만, 명상을 통해 ‘불안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효과’를 인지했다(4회기). 이런 효과가 지속되어 8회기에도 연결되어 불안할 때 ‘멍한 상태가 됨’을 인지하고 ‘10분 정도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음’으로써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중요한 변화이다. 이는 회피가 아닌 알아차림을 통한 잠시 멈춤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일상생활로의 확장과 자기 조절 능력 향상(5 - 7회기)

명상 경험은 참여자의 일상생활 패턴과 자기 관리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첫째. 습관 형성 및 만족도가 향상되었다. 다이어리 기록, 영어/한자 공부, 근력 운동, 책읽기 등 자기 계발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기 시작했다. “유익한 것을 꾸준히 실천 하다보니 삶이 정돈되는 느낌”(6회기)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 변화가 나타났다. 스마트폰 감옥 사용 등과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퇴근 후 하루 6시간 스마트폰 사용을 보고하였으나(1회기), 점차 ‘절제해서 2~3시간’사용하고 ‘재미를 위한 영상 보다는 강연, 의학/뇌과학 책’을 보는 등 사용 패턴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5회기). 이는 명상을 통해 얻은 주의력과 자기 통제력 향상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불안 관리 방식의 다양화되었다. 불안이 느껴질 때 ‘계속 걸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명상을 하든 책을 읽든’ 등 다양한 대처 방식을 시도하게 되었다. 특히 ‘산책’, ‘걷기 명상’, ‘자기 암시’, ‘책 읽기’가 효과적인 대처법으로 자리 잡았다(7회기).

중·후반부 회기에서는 명상 경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장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스마트폰 사용 감소, 산책과 같은 자기 돌봄 행동 증가를 보고하였다.

(4) 지속되는 어려움과 미래 적용(8회기)

프로그램 후반부와 마무리 시점에도 여전히 어려움은 존재했다.

첫째. 관계 및 직장 내 불안이다. 새로운 부서 이동(인사 발령)에 대한 ‘불안함’을 여전히 느끼고 있었고(8회기),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눈치 보는 것’, ‘실수에 대한 자기 비난’, ‘주말 근무 시 연차 사용의 어려움’ 등은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명상의 일시적 효과와 훈련의 필요성이다. “명상할 때 그때 뿐이고 불안한 상황이 닥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라고 언급하며, 명상이 불안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처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훈련이 안된 것’임을 인식했다.

셋째. 변화의 인식과 지속 의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는 ‘생활적인 면에서 개선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하며 삶의 만족도가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명상 프로그램을 ‘끝까지 해냈다’는 뿌듯함과 ‘명상을 스스로 해야겠구나’라는 의지를 보였다.

넷째. 향후 명상 적용 계획이다. ‘삶의 동반자’로서 명상을 인식하고, 차 명상(차를 마시며 혀의 감각, 물 끓이는 소리 등 집중), 걷기 명상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호흡 명상을 운동 마무리로 활용하는 등 일상 속에서 명상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2) 경험적 변화의 범주화

회기별 분석이 경험의 시간적 흐름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범주화 분석은 시간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경험의 핵심 의미 구조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범주화 과정에서는 심층 면담 전사, 회기 중 기록, 명상 수행 일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여 의미 단위를 추출하였다. 이를 다시 통합하여 참여자의 경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참여자의 경험은 네 가지 상위 범주로 정리되었다. 경험적 변화의 범주화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경험적 변화의 범주화

상위 범주	하위 범주	핵심 의미 단위
불안의 자각과 수용	신체적 반응 인식	심장이 조여드는 감각 인식, 불안을 ‘잠시 멈춤’의 신호로 이해
내면적 변화의 체득	자기 비난에서 자애로	자비 명상을 통한 자기 위로, 자기 수용적 태도의 형성
일상 자기 조절력 확장	생활 패턴의 선순환	스마트폰 사용 시간 단축, 운동 공부 등 자기관리 습관
지속적 실천 의지	명상의 동반자화	명상을 ‘일시적 방편’이 아닌 ‘삶의 동반자’로 인식, 장기적 훈련 의지 표명

범주 1. 불안의 신체적 자각과 수용적 태도로의 전환

초기에서 참여자가 불안을 통제 불가능한 신체 증상으로 인식하며 즉각적인 회피 행동을 보이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상사의 비난이나 업무 실수 상황에서 ‘심장이 조여든 느낌’과 함께 강한 지위 불안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작정 걷거나 계속 무언가를 해야만 안심되는 패턴을 보였다. 그러나 명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불안에 대한 인식 방식에 변화가 나타났다. 호흡 명상 후 ‘머리가 맑아지고 명료해지는 느낌’과 ‘불안이 사라짐’을 직접 체험하였으며(2회기), 이는 불안을 제거의 대상이 아닌 관찰 가능한 경험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8회기에서 불안이 올라올 때 과거처럼 회피적으로 행동하기보다 ‘10분 정도 아무것도 안하고 가만히 앉아 있음’을 선택함으로써 불편한 감정과 함께 머무르는 힘을 보여주었다. 이는 불안에 대한 회피적 방식이, 있는 그대로를 잠시 멈추어 알아차리는 수용적 대처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범주 2. 자기 비난에서 ‘자비’를 통한 자기 수용으로의 변화

참여자는 초기 자비 명상 과정에서 자신을 직면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어색함을 경험하였다. 자비 명상 중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어

색함을 느끼며 “자신을 직면하는 것 같아 안 좋았다”고(2회기) 고백하였으나 스스로에게 “오늘 하루 고생했어”, “오늘 하루 버텨내줘서 고마워”(3회기)라는 위로를 건네며 정서적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최종 변화에서는 자애 명상을 통해 ‘괴로움이 날아가는 느낌’, ‘새로 태어난 느낌’을 경험하며(4회기) 자신을 비판의 대상으로 보기보다 보호와 지지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태도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참여자의 정서적 회복력 형성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작용하였다.

범주 3. 일상 자기 조절력의 확장과 생활 양식의 재구성

명상 수행을 통해 형성된 주의력과 알아차림은 단순한 정서 완화를 넘어, 참여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관리하는 자기 조절 능력으로 확장되었다. 초기에는 퇴근 후 무기력하게 ‘하루 6시간 스마트폰’에 몰입하는 패턴을 보였으나(1회기) 점차 명상을 통해 확보된 주의 통제력을 바탕으로 사용시간을 ‘2~3시간’ 내외로 조절하고, 강연이나 뇌과학 책 읽기 등(5회기) 보다 의미있는 활동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다이어리 작성, 근력 운동, 영어 공부, 독서 등 능동적인 자기 관리 행동의 지속적 실천으로 이어졌다(6회기). 참여자는 “유익한 것을 꾸준히 실천 하다보니 삶이 정돈되는 느낌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6회기). 이는 명상 경험이 단순히 정서 완화를 넘어, 일상적 행동 선택과 생활 패턴을 재구성하는 자기 조절 능력으로 전이되었음을 보여준다.

범주 4. 실제적 한계 자각과 지속적 실천 의지의 내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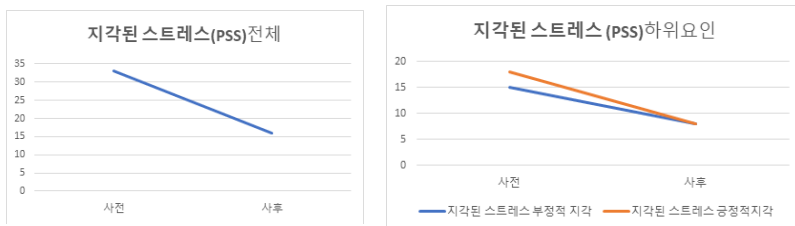
프로그램 후반부에서 참여자는 명상의 효과가 항상 즉각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하였다. 명상의 효과가 항상 즉각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님을 인식하고, 이를 지속적인 ‘훈련’의 과제로 받아들였다. ‘명상할 때 그 때 뿐이고 불안한 상황이 닥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감’이라며 실천 적용을 위해서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함을 깨달았다(8회기). 그런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명상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차 명상이나 걷기 명상을 일상 루틴에 포함시키려는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였다(8회기)

3) 양적분석결과

본 연구는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 참여 전·후의 변화를 보조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지각된 스트레스(PSS), 불안(BAI), 정신건강 안녕감(K-MHC-SF)척도를 사전·사후로 실시하였다. 본 양적 자료는 통계적 검증이나 일반화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질적 분석에서 나타난 변화 양상을 보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1) 지각된 스트레스(P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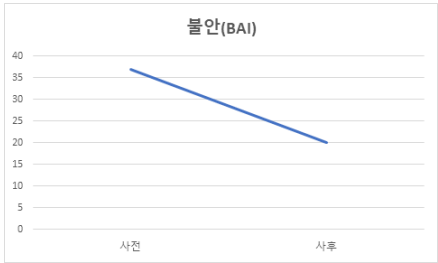
지각된 스트레스 전체 점수는 사전 검사 33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16점으로 뚜렷한 감소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하위요인 분석 결과, 부정적 지각은 사전 15점에서 사후 8점으로 긍정적 지각은 사전 18점에서 사후 8점으로 모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1). 이는 참여자가 스트레스 상황을 위협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완화되었을 뿐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전반이 조정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1] 지각된 스트레스(PSS) 점수 변화

(2) 불안(B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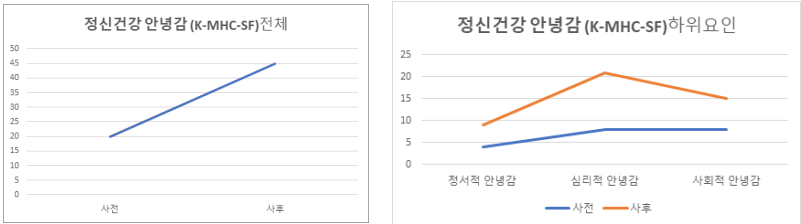
불안 점수 역시 사전 37점에서 사후 20점으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2). 이는 질적 분석에서 참여자가 보고한 불안 반응의 강도 감소 및 불안에 대한 거리두기 경험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림 2] 불안(BAI) 점수 변화

(3) 정신건강 안녕감(K-MHC-SF)

정신건강 안녕감(K-MHC-SF) 전체 점수는 사전 20점에서 사후 45점으로 크게 상승하는 변화를 보였다[그림 3],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안녕감은 사전 4점에서 사후 9점으로, 심리적 안녕감은 사전 8점에서 사후 21점으로 유의미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안녕감 또한 사전 8점에서 사후 15점으로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전 측정 결과 대상자는 정신적 안녕감은 총점 20점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에 해당하였으며, 이는 초기 면담에서 보고된 만성적 불안, 자기비난적 인지, 직무스트레스 경험과 일관된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심리적 안녕감 영역에서 가장 큰 증가가 나타난 점은, 마음챙김 및 자기연민 훈련 과정에서 참여자가 자신의 정서 상태를 보다 수용적으로 인식하고 자기비난적 사고를 완화해 나간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적 변화는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서 보고된 질적 경험을 보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림 3] 정신건강안녕감(K-MHC-SF) 점수 변화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불안, 스트레스 및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일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의 경험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안의 신체적 자각과 수용, 자기 비난에서 자비를 통한 자기 수용, 일상 자기 조절력 확장, 지속적 실천 의지의 내면화라는 네 가지 경험적 변화 범주로 구조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음챙김 명상이 개인의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하고 정서적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임을 보고한 국내·외 선행연구들과 일관된 흐름을 보인다.³⁹⁾ 특히 불안을 통제하거나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던 초기 상태에서 벗어나, 이를 신체적 신호로 알아차리고 ‘잠시 멈춤’을 통해 대응 방식이 전환한 경험은 Lazarus와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인지·대처 이론과 맞닿는다. 이러한 관점은 명상 훈련을 통해 ‘잠시 멈춤’과 같은 대응 전략을 경험함으로써,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지적 재평가가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또한 자비 명상을 통해 자기 비난이 완화되고 자기 수용적 태도가 형성된 경험은, 자기자비가 정서 조절과 심리적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Neff(2003)⁴⁰⁾의 연구를 질적으로 뒷받침한다. 특히 참여자가 경험한 ‘불안의 신체적 자각과 수용’ 및 ‘자기 비난에서 자비를 통한 자기 수용’의 변화 과정은 자애 명상이 자기자비와 정서 조절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한 선행 연구 결과⁴¹⁾와도 일치한다.

39) Baer, Ruth A. “Mindfulness training as a clinical interven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vol. 10, no. 2, 2003, pp. 125-143; 홍혜정·박종규, 위의 논문, 457-476쪽; 이수정, 「기질 및 성격 특성에 따른 비대면 마음챙김명상(MBSR)의 효과 차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58-60쪽; 이승일, 「마음챙김 기반 정신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43쪽.

40) Neff, op. cit., pp. 85~101.

41) 왕인순·조옥경, 앞의 논문, 675-690쪽.

본 연구에서 참여자는 초기에는 자비 명상에 강한 어색함과 저항을 경험하였으나, 반복적인 수행을 통해 자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는 정서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이는 기존 질적 연구에서 보고된 인식의 전환 과정⁴²⁾을 직장인의 불안 맥락 속에서 재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나아가 명상 수행을 통해 향상된 주의 통제력이 스마트폰 사용 감소, 자기계발 활동의 습관화, 삶의 만족도 증가로 이어진 변화는, 마음챙김이 단순한 정서 완화 기법을 넘어 일상적 자기 조절 능력과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질적 선행연구의 주장⁴³⁾의 단일사례의 질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마음챙김 능력을 기른다는 것이 곧 주의 에너지를 재조직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라는 Kabat-Zinn(2017)의 관점을 경험적 수준에서 뒷받침 한다.

한편 참여자는 명상의 효과가 일시적으로 느껴지며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즉각적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였으나, 이를 명상의 한계라기보다 지속적 훈련의 필요성으로 재해석하며 장기적 실천 의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마음챙김을 단기적 기법이 아닌 삶에 통합되는 지속적 훈련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기존 논의⁴⁴⁾와도 일치한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안녕감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그 변화가 감각 자각 - 자기 수용 - 행동 조절 - 장기적 실천 의지라는 경험

42) 정혜윤, 앞의 논문, 90쪽; 최정익 · 최윤정, 앞의 논문, 60쪽; 정귀연, 「마음챙김 명상 경험에 관한 질적 메타분석 = Qualitative Meta-Analysis of Mindfulness-Based Stress Reduction Meditation (MBSR) Experiences」, 『종교교육학연구』 71권, 2022, 211-231쪽.

43) 박현정, 「직장인을 위한 마음챙김 기반 성격강점 프로그램이 지각된 스트레스, 소진, 일의 의미 및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임정민, 「직장인의 사회불안과 이직의도의 관계: 마음챙김과 직무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44) 최정익 · 최윤정, 앞의 논문, 68-69쪽; 조영임 · 김미리혜, 「소진을 경험하는 중등교사의 명상·마음챙김·긍정심리훈련(MMPT)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명상학회지』 15권 2호, 2025, 23-49쪽.

적 경로를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됨을 보여주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의 효과 중심 논의를 넘어, 비대면 환경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단일사례연구로서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으나,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이 직장인의 불안 경험과 일상적 자기조절 과정에 어떠한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경험의 과정과 맥락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향후 연구에서는 동일한 분석 틀을 적용한 다사례 연구를 통해 변화 범주의 공통성과 차별성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3개월 또는 6개월 시점의 추적 연구를 통해 명상 효과의 지속성과 생활화 과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직장 내 실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명상 기제가 즉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심화 훈련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도 요구된다.

■ 참고문헌

단행본

장현갑, 『명상이 뇌를 바꾼다: 괴로운 뇌를 행복한 뇌로 바꿔 주는 마음 수련』, 불광출판사, 2019.

Creswell, John W.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2013.

Kabat-Zinn, J. 저, 김교헌·김정호·장현갑 역,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上』, 학지사, 2017.

Kabat-Zinn, J. *Full Catastrophe Living: Using the Wisdom of Your Body and Mind to Face Stress, Pain, and Illness*, Random House, 1990.

Kabat-Zinn, J. *Wherever You Go, There You Are: Mindfulness Meditation in Everyday life*, Hyperion, 1994.

Lazarus, Richard S., & Folkman, Sus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Stake, Robert E.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1995.

Yin, Robert K. *Case Study Research and Applications: Design and Methods*, 6th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2018.

논문

김경화, 「대학 교양수업에서 마음챙김과 자비 경험 탐색」, 『한국명상학회지』 15권 2호, 한국명상학회, 2025, 93-111쪽.

김교헌, 「마음챙김과 자기조절 그리고 지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3권 2호, 2008, 285-306쪽.

김나래·김지근, 「20-30대 직장인의 조직 내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을 통한 자기자비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2권 5호, 한국상담학회, 2021, 323-347쪽.

김동현·변상해, 「직장인의 심리적 소진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마음챙김

- 의 조절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6권 4호, 2024, 165-180쪽.
- 김령아·이봉건,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마음챙김명상(MBSR)에 기반을 둔 직장인 지원 프로그램(EAP)의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스트레스연구』 제17권 2호, 대한스트레스학회, 2009, 175-184쪽.
- 김봉구·김정호·김미리혜, 「명상-마음챙김-긍정심리 훈련(MMPT) 프로그램이 웰빙,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7권 6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22, 931-961쪽.
- 김선미, 「ADHD 성인 여성의 실행기능 증진을 위한 비대면 인지행동치료 사례연구」,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지』 6권 2호, 한국인지행동치료상담학회, 2024, 1-28쪽.
- 김은하·이은설·조예지, 「대학상담센터 내담자들의 비대면 심리상담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상담학연구』 22권 2호, 한국상담학회, 2021, 85-110쪽.
- 문진건, 「코로나19 일상의 우울과 불안을 다루기 위한 마음챙김 심리치유법에 대한 고찰」, 『마음공부』 2권, 원광대학교 마음인문학연구소, 2021, 5-36쪽.
- 박금남, 「분노표출 내담자 사례 연구: 수용전념치료 적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2권 1호, 한국상담학회, 2017, 43-68쪽.
- 박성현·안희영, 「마음챙김 수행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현상학적 체험연구 - '불뚝'에서 '농음'으로 향해가는 '마음챙김 살기'」, 『한국불교학』 91권, 한국불교학회, 2019, 285-324쪽.
- 박영숙, 「성인 불안장애의 질적 메타분석을 통한 통합심신치유모델 연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박준호·서영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판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권 3호, 한국심리학회, 2010, 611-629쪽.
- 박지영, 「직무순환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이 주관적 경력성공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3.
- 박지원·이혜진, 「단기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이 노인의 마음챙김, 스트레스, 우울, 불안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2권 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17, 489-510쪽.
- 박채연,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매개효과」, 『한국명상학회지』 9권 1호, 한국명상학회, 2019, 35-55쪽.

- 박현정, 「직장인을 위한 마음챙김 기반 성격강점 프로그램이 지각된 스트레스, 소진, 일의 의미 및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배재홍·장현갑, 「한국형 마음챙김 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MBSR-K)이 대학생의 정서반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11권 제4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06, 673-688쪽.
- 왕인순·조옥경, 「자애명상이 자기자비, 마음챙김, 자아존중감, 정서 및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권 4호, 한국건강심리학회, 2011, 675-690쪽.
- 이수정, 「기질 및 성격특성에 따른 비대면 마음챙김명상(MBSR)의 효과 차이: 스트레스, 불안, 우울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 이승일, 「마음챙김 기반 정신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이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직무소진, 직무몰입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5.
- 이윤희·김지연, 「대학생의 비대면, 대면 수업 참여 경험에 대한 인식: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대면 형식 수업 참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권 5호,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2022, 271-300쪽.
- 임영진·고영건·신희천·조용래, 「정신적 웰빙 척도(MHC-SF)의 한국어판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권 2호, 한국심리학회, 2012, 369-386쪽.
- 임정민, 「직장인의 사회불안과 이직의도의 관계: 마음챙김과 직무효능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3.
- 장금주, 「호흡 명상과 바디 스캔을 적용한 개인사례연구」, 『명상심리상담』 3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 2009, 196-243쪽.
- 장영수, 「고등학생의 마음챙김에 기초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명상학회지』 1권 1호, 한국명상학회, 2010, 57-73쪽.
- 정유수, 「마음챙김 명상(MBSR)이 중년 남성의 스트레스, 우울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7.
- 정명희·김영근, 「정서 처리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 정서중심치료(EFT)의 적용」, 『상담학연구: 사례 및 실제』 8권 1호, 한국상담학회, 2023, 1-30쪽.
- 정혜윤, 「마음챙김 명상 집단상담 참여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초보상담자의

-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조영임·김미리혜, 「소진을 경험하는 중등교사의 명상·마음챙김·긍정심리훈련(MMPT) 프로그램 참여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명상학회지』 15권 2호, 2025, 23-49쪽.
- 조한상, 「‘마음챙김’참여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88호, 한국실천신학회, 2024, 235-268쪽.
- 최정익·최윤정, 「대학생의 일주일간 마음챙김 명상 수련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명상학회지』 12권 2호, 한국명상학회, 2022, 49-73쪽.
- 하정희, 「스트레스 지각과 부정정서와의 관계 - 완벽주의와 인지적 평가의 매개 효과」, 『상담학연구』 8권 4호, 한국상담학회, 2007, 1573-1592쪽.
- 홍혜정·박종규, 「비대면 마음챙김기반 인지치료(MBCT) 프로그램이 성인의 지각된 스트레스,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8권 3호, 한국임상심리학회, 2022, 457-476쪽.
- Baer, Ruth A. “Mindfulness training as a clinical intervention: A conceptual and empirical review”, *Clinical Psychology: Science and Practice*, vol. 10, no. 2, 2003, pp.125-143.
- Bassam, Khoury et al. “Mindfulness-based therapy: A comprehensive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 33, no. 6, 2013, pp.763-771.
- Diener, E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vol. 95, no. 3, 1984, pp.542-575.
- Keyes, Corey L. M. “Mental illness and/or mental health? Investigating axioms of the complete state model of healt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3, no. 3, 2005, pp.539-548.
- Kwon, S. M., & Oei, T. P. S. “Differential Caus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vol. 16, no. 3, 1992, pp.309-328.
- Neff, Kristin. “Self-Compassion: An Alternative Conceptualization of a Healthy Attitude Toward Oneself”, *Self and Identity*, vol. 2, no. 2, 2003, pp.85-101.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직무 스트레스와 지위 불안을 경험하는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의 효과와 변화 과정을 탐색하였다. 참여자는 8회기 줌 기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자료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변화 과정은 불안의 자각과 수용, 자기 비난에서 자비를 통한 자기 수용, 일상 자기조절력 확장, 지속적 실천 의지의 네 가지 범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는 초기에는 불안을 회피하였으나, 명상을 통해 신체적 신호를 알아차리고 잠시 멈춤으로 대응 방식을 전환하였다. 또한 자기수용적 태도를 형성하고, 명상 수행에서 얻은 주의력과 자기조절 능력은 일상적 행동 변화로 이어졌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참여자는 명상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며 장기적 실천 의지를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이 직장인의 정서 조절과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 마음챙김 명상, 직장인, 스트레스, 불안, 안녕감.

■ Abstract

Effects of a Non-Face-to-Fac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on Anxiety, Stress, and Well-Being in an Office Worker: A Single Case Study

Ko, Hee Suk / Jeju National University

Lee, Ha Rang / Jeju National University

Kim, Sung Bong /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effects and change processes of a non-face-to-face mindfulness meditation program for a male office worker experiencing occupational stress and status anxiety. The participant completed an eight-session, Zoom-based program, an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a qualitative single case study approach. Analysis revealed that the process of change evolved through four interrelated categories: awareness and acceptance of anxiety, the transition from self-criticism to self-compassion, the expansion of daily self-regulation, and commitment to sustained practice. Initially, the participant perceived anxiety as an object of avoidance; however, through mindfulness practice, he learned to recognize it as a bodily signal and shifted his response pattern by pausing and observing rather than reacting. Moreover, he developed a self-accepting attitude, and the attention and self-regulatory skills acquired through meditation led to observable changes in daily behavior. By the conclusion of the program, the participant internalized mindfulness as a lifelong companion and established a strong intention for long-term practic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non-face-to-face mindfulness meditation can serve a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enhancing emotional regulation and overall quality of life among office workers.

Keyword • Mindfulness meditation, Office worker, Stress, Anxiety, Well-being.

■ 논문투고일:2026.01.29. ■ 심사완료일:2026.02.23. ■ 게재확정일:2026.03.16. ■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

최 보 람*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최근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 세대는 개인의 가치와 의사를 중시하는 특성을 보이며, 자기표현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청년 세대는 위계와 권위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와 달리 개인주의적이고 수평적인 가치관을 지니며,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보다 자유롭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특성을 보인다.¹⁾ 이들은 상명하달식 의사소통을 비효율적으로 인식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쌍방향 의사소통을 선호하는 경향을 나타낸다.²⁾³⁾ 이와 같은 세대 특성은 개인주의와 집단

* 목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특임교수

1) 예지은, 「신세대 이해와 조직관리」, 『학술연구발표논문집』,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09, 63쪽.

2) 위의 논문, 68쪽.

3) 진주화, “밀레니얼 세대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방식”, <LG Business Insight>, 2016.09.27.

주의 성향에 대한 연령별 차이 연구에서도 뒷받침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집단주의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⁴⁾⁵⁾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는 다양한 의견과 개성이 존중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니는 동시에 집단 내에서 구성원 간의 의견 충돌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특히 개인의 성향과 행동 방식이 집단 활동의 과정과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직무 환경에서는 이러한 세대적 변화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응급구조학과는 졸업 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팀 단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직무 특성을 지닌 전공이다.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판단과 정확한 역할 수행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 방식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⁶⁾⁷⁾⁸⁾ 응급의료 및 응급실 환경은 불완전한 환자 정보, 시간적 압박, 잦은 인수인계와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과 구성원 간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⁹⁾ 팀 기반으로 수행되는 업무 환경에서 팀의 성과는 개별 구성원의 역량뿐만 아니라 팀 내부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과 같은 과정에 의해 좌우되며¹⁰⁾, 특히 응급의료 환경에서 효과적인 팀

4) 한성열·안창일,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5권 1호,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90, 124쪽.

5) 김기연·신수진·최혜경,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권 3호, 가정과삶의질학회, 2003, 98쪽.

6) Emily Kilner & Lorraine A. Sheppard. "The role of teamwork and communication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vol. 18, 2010, pp. 128-130.

7) Simone Herzberg et al. "Association between measured teamwork and medical errors: an observational study of prehospital care in the USA", BMJ Open, vol. 9, no. 10, 2019, pp. 1-2.

8) P. Daniel Patterson, et al. "Measuring teamwork and conflict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ersonnel", Prehospital Emergency Care, vol. 16, no. 1, 2012, pp. 98-99.

9) Emily Kilner, Lorraine A. Sheppard, op. cit., pp. 127-129.

10) Eduardo Salas, Dana E. Sims & C. Shawn Burke, "Is there a 'Big Five' in teamwork?", Small Group Research, 2005, vol. 36, no. 5, pp. 556-557.

워크와 의사소통은 의료오류를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 핵심 요인이다.¹¹⁾¹²⁾ 최근 연구에서는 의사소통능력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전문적 수행능력과 직무 수행의 질을 향상시키는 핵심 역량임을 제시하며,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 전문적 수행능력 향상과 업무의 질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음을 보고하였다.¹³⁾

한편, 팀 기반의 의료 환경에서는 구성원 간 협력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구성원들 간의 관계갈등이나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은 팀의 의사소통과 협력을 저해하고, 효과적인 팀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팀 성과 및 환자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¹⁴⁾¹⁵⁾ 이러한 특성은 응급의료 현장과 같이 복잡하고 긴박한 팀 기반 환경에서 갈등관리 역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갈등관리유형이나 의사소통능력을 다룬 국내 선행연구는 주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임상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¹⁶⁾¹⁷⁾¹⁸⁾¹⁹⁾²⁰⁾ 이러한 연구들은 임상 환경에서의 갈등

-
- 11) 박귀화·박경혜,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의학교육논단』, 21권 1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19, 22-23쪽.
 - 12) P. Daniel Patterson, et al., op. cit., p. 98.
 - 13) Zahra Karimi, et al.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on professional performance and quality of work life of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taff: An experimental study in Iran",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vol. 74, 2024, pp. 4-6.
 - 14) Lindred L. Greer, et al. "Conflict in medical teams: opportunity or danger?", Medical Education, vol. 46, 2012, pp. 935-936.
 - 15) Carsten K. W. De Dreu & Laurie R. Weingart, "Task Versus Relationship Conflict, Team Performance, and Team Member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8, no. 4, 2003, pp. 744-746.
 - 16) 이임선·김창희, 「병원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 및 협력 간의 관계」, 『재활간호학회지』 20권 1호, 한국재활간호학회, 2017, 69쪽.
 - 17) 김세은, 「간호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0.
 - 18) 명성민, 「물리치료사의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권 2호, 2016,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23쪽.
 - 19) 김난경·조규영, 「수술실 간호사의 갈등관리 유형, 의사소통 능력 및 소진 간의 관계」,

관리 방식이나 의사소통능력이 직무 수행, 협력, 조직 적응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연구는 치위생과 및 간호학과 등 인력 양성 단계에 있는 전공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적 활발히 수행되어 왔으며,²¹⁾²²⁾²³⁾²⁴⁾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보고된 바 있으나,²⁵⁾²⁶⁾²⁷⁾ 다른 보건의료계열 전공 학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실정이다. 반면 갈등관리유형에 초점을 둔 연구는 보건의료계열 학생을 대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박진수(2014)가 현직 응급구조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다.²⁸⁾ 특히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을 함께 분석하고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검증한 국내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권 2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21, 771쪽.

- 20) 이현숙·김종경, 「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유형, 조직몰입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6권 4호, 한국간호행정학회, 2010, 488쪽.
- 21) Myong-Suk Shin, Ji-Hyoung Han, Ji-Min Hwang,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치위생과학회지』 21권 1호, 한국치위생과학회, 2021, 19쪽.
- 22) 정민·강희경, 「간호대학생의 갈등관리양식에 따른 자존감, 자기주장 및 대인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권 3호, 한국간호교육학회, 2014, 345쪽.
- 23) 박호경·유미,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적응 요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의 역할」, 『보건과 사회과학』 69권, 한국보건사회학회, 2025, 5쪽.
- 24) 이상연 외,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8권 2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24, 109쪽.
- 25) 장재형 외, 「임상현장실습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환자간의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6권 3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22, 47쪽.
- 26) 신지훈,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서 응급구조과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보건의료생명과학논문지』 12권 2호,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 2024, 615쪽.
- 27) 김현미·박경진,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28권 4호, 한국산업융합학회, 2025, 1073쪽.
- 28) 박진수, 「응급구조사의 역할갈등과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경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2014.

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가 주로 임상 종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한계를 보완하여,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두 변인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협력적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수준은 어떠한가?
2.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갈등관리유형 분포는 어떠한가?
3. 일반적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4. 갈등관리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에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1) 의사소통능력

Bochner와 Kelly(1974)는 의사소통능력을 목표를 형성하고 달성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 효과적으로 협동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황과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²⁹⁾ 즉 의사소통능력은 상대방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행동하고 상황에 맞게 반응하며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사소통능력은 단순한 언어 전달 기술을 넘어, 상호 이해와 관계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대인관계 역량으로 이해된다. 이에 대해 유현숙 등(2002)은 의사소통능력을 개인의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다³⁰⁾.

29)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3, 383쪽.

30) 유현숙 외,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2002, 23-24쪽.

의료 환경에서의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대인관계 상황보다 높은 복잡성과 위험성을 지닌다. 의료 현장은 제한된 시간 내에 불완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수의 전문 직종이 협력하여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환경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은 업무 수행의 효율성과 환자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³¹⁾³²⁾ 또한 팀 성과는 개별 구성원의 전문적 역량뿐만 아니라 팀 내 상호작용 과정에 의해 좌우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³³⁾ 박귀화와 박경혜(2019)의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팀 의사소통은 의료오류를 예방하고 환자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의사소통과 협력 역량은 의료 인력에게 요구되는 핵심 역량으로 강조하고 있다³⁴⁾.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사소통역량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음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Karimi 등(2024)은 병원 전 응급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의사소통기술 훈련이 전문적 수행능력과 업무와 관련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³⁵⁾. 또한 간호학생 및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의사소통 훈련이 의사소통기술과 관련 역량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며³⁶⁾³⁷⁾³⁸⁾, 이는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가 임상 현장뿐 아니라 인력 양성 단계에서도 확인

31) Emily Kilner, Lorraine A. Sheppard, op. cit., pp. 127-128.

32) P. Daniel Patterson, et al., op. cit., p. 1.

33) Eduardo Salas, Dana E. Sims, C. Shawn Burke, op. cit., pp. 555-560.

34) 박귀화·박경혜, 앞의 논문, 22-23쪽.

35) Zahra Karimi, et al., op. cit., p. 1.

36) Jeongwoon Yang & Sungjae Kim, "An online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 quasi-experimental study", PLoS ONE, vol. 17, no. 5, 2022, p. 1.

37) Seung Jae Kim et al.,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interprofessional communication education for medical students」, 『한국의학교육』 31권 2호, 한국의학교육학회, 2019, 139-140쪽.

38) Lina Heier, et al., "Interprofessional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to improve medical students' and nursing trainees' error communication-quasi-experimental pilot study", BMC medical Education, vol. 24, 2024, p. 1.

됨을 의미한다. 특히 Heier 등(2024)은 의사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팀워크와 역할 인식이 함께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여, 의사소통 교육의 효과가 개인 차원을 넘어 팀 차원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³⁹⁾.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의사소통능력이 개인의 성향이나 경험에 의해 고정되는 특성이 아니라,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개발 가능한 역량임을 뒷받침하며, 응급구조사 인력 양성 과정에서 의사소통 교육의 체계적 도입 필요성을 시사한다.

2) 갈등관리유형

개인이나 집단은 서로 다른 가치, 목표, 인식, 태도 및 역할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로 인해 대인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⁴⁰⁾ 갈등은 감정적 반응을 유발하고 주의집중을 방해하며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직무만족 및 직무몰입의 저하를 가져온다.⁴¹⁾ 하지만 갈등이 항상 조직이나 집단에 부정적인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과업과 관련된 갈등은 구성원들로 하여금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게 함으로써 정보편향을 감소시키고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⁴²⁾⁴³⁾ 따라서 갈등의 결과는 갈등 그 자체보다는 갈등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⁴⁴⁾, 이러한 맥락에서 개인이 취하는 갈등관리 유형에 대한 논의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39) Ibid., p. 5.

40) 이견협,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갈등관리방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7, 13-14쪽.

41) Lindred L Greer, et al., op. cit., pp. 935-936.

42) Karen A. Jehn,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the Benefits and Detriments of Intragroup Confli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0, no. 2, 1995, pp. 258-260.

43) Stefan Schulz-Hardt, et al., "Group Decision Making in Hidden Profile Situations: Dissent as a Facilitator for Decision 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1, no. 6, 2006, pp. 1081-1083.

44) Lindred L Greer, et al., op. cit., p. 941.

Thomas와 Kilmann은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취하는 행동 양식을 문제해결, 강요, 회피, 타협, 양보의 다섯 가지 갈등관리유형으로 제시하였다.⁴⁵⁾ 갈등관리유형은 개인이 자신의 주장과 타인의 요구를 어떻게 조율하는지를 반영하는 행동양식으로, 동일한 갈등 상황에서도 개인에 따라 상이한 대응이 나타날 수 있다.⁴⁶⁾

응급의료 현장은 다양한 전문직이 제한된 시간과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협력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팀 기반 업무 환경으로, 구성원 간 역할 인식의 차이, 판단의 불일치, 의사결정 권한의 경계 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⁴⁷⁾ 이러한 환경에서의 갈등은 개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느냐에 따라 팀 내 상호작용의 양상과 협력 수준에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 현장은 시간 압박과 업무 강도가 높아 갈등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개인이 취하는 갈등 대응 전략은 갈등의 완화 또는 증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reer 등(2012)은 의료 전문직이 팀 기반으로 협력하는 교육·훈련 환경, 즉 의료교육 공동체에서는 집단 내 갈등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효과적인 갈등관리 기술 훈련이 의료교육 과정의 핵심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⁴⁸⁾. 이는 갈등관리 능력이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개발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갈등 상황에서 개인이 어떠한 갈등관리유형을 보이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호작용 양상과 팀 기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갈등관리 역량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가 될 수 있다.

45) 박연호, 『조직행동론』, 박영사, 2000, p.322.

46) M Afzalur Rahim, "Toward a theory of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13, no. 2, 2002, pp. 217-218.

47) Emily Kilner & Lorraine A. Sheppard, op. cit., pp. 127-128.

48) Lindred L Greer, et al., op. cit., pp. 940-942.

3) 의사소통능력과 갈등관리유형의 관계

Rahim(2002) 및 De Dreu와 Weingart(2003)는 갈등관리유형의 선택은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 그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갈등관리유형을 일률적으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반응으로 보기보다는 상황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개인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⁴⁹⁾⁵⁰⁾ 이는 갈등관리유형의 선택이 갈등 상황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도를 조율하는 개인의 상호작용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은 의사소통능력과 갈등관리유형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토해왔다. 이임선 등(2017)과 김연종(2014)의 연구에서는 갈등관리유형에 따라 의사소통능력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며⁵¹⁾⁵²⁾, 이러한 연구들은 갈등관리유형이 개인의 전반적인 의사소통능력을 포함한 상호작용 역량과 관련된 행동 양식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⁵³⁾

3.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D광역시와 K지역에 소재한 2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의 적정 규모 산출을 위해 G*Power 3.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ANOVA 기준으로 효과크기

49) M Afzalur Rahim, op. cit., pp. 217-218.

50) Carsten K. W. De Dreu & Laurie R. Weingart, op. cit., pp. 742-743.

51) 이임선·김창희, 앞의 논문, 44-46쪽.

52) 김연종, 앞의 논문, 52-55쪽.

53) Michael A. Gross, Laura K. Guerrero, "Managing conflict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An application of the competence model to Rahim's organizational conflict styl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11, no. 3, 2000, pp. 200-203.

0.2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으로 설정한 결과,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는 220명으로 도출되었으며 탈락률을 고려하여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자료수집 방법은 본 연구자가 각 학과 책임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지도교수를 통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총 285부 중 불성실한 30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5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 7문항, 의사소통능력 15문항, 갈등관리유형 25문항, 총 4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은 허경호(2003)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⁵⁴⁾. 총 15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허경호(200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 이었고,⁵⁵⁾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 이었다.

(2) 갈등관리유형

갈등관리유형은 이견협(2007)의 설문지를 본 연구의 대상자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⁵⁶⁾ 문제해결, 강요, 회피, 타협, 양보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하위요인별 5문항씩 총 25문항이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각 하위요인의 평균 점수를 산출한 후,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유형을 해당 대상자의 갈등관리유형으로 분류하였다. 2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동일한 최고 점수가 나타난 경우에는 '혼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문제해결형, 강요형, 회피형, 타

54) 허경호, 앞의 논문, 395-396쪽.

55) 위의 논문, 394쪽.

56) 이견협, 앞의 논문, 93쪽.

협형, 양보형, 혼합형의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견협(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문제해결 .77, 강요 .74, 회피 .85, 타협 .81, 양보 .78 이었고,⁵⁷⁾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문제해결 .72, 강요 .68, 회피 .80, 타협 .68, 양보 .66 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jamovi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t-test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간 차이에 대한 사후검정은 Tukey 방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갈등관리유형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고, 집단 간 차이는 Tukey 사후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255명이었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학생이 58.0%(148명)으로 남학생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이 29.8%(76명)로 가장 많았다. 전공만족도는 만족이 80.4%(205명)으로 가장 높았고, 학점수준은 3.50-3.99 구간이 39.6%(101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3.00 이상이 전체의 과반수(74.5%)를 차지하였다. 실습경험은 없는 경우가 56.1%(143명)로 있는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회 임원이나 과대표 등 리더십 경험이 없는 대상자가 59.6%(152명)로 더 많았으며, 동아리나 동호회 등 단체활동 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79.6%(203명)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표 1].

57) 위의 논문, 65쪽.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96 ± 0.53 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 점수는 사회적 적절성(4.58 ± 0.72 점)이 가장 높았으며, 반응력(4.45 ± 0.70 점), 집중력(4.38 ± 0.69 점), 역지사지(4.36 ± 0.71 점), 잡음통제력(4.12 ± 0.82 점), 목표간파(4.11 ± 0.87 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리성은 3.43 ± 0.98 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대표 2].

3) 대상자의 갈등관리유형

대상자들의 갈등관리유형 분포를 살펴본 결과, 타협형이 33.3%(85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문제 해결형이 30.6%(78명), 혼합형이 21.6%(55명), 양보형이 9.0%(23명), 강요형이 1.2%(3명) 순으로 나타났대표 3].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	107	42.0
	여	148	58.0
학년	1학년	76	29.8
	2학년	53	20.8
	3학년	65	25.5
	4학년	61	23.9
전공만족도	만족	205	80.4
	보통	43	16.9
	불만족	7	2.7
학점수준	4.00-4.50	44	17.3
	3.50-3.99	101	39.6
	3.00-3.49	89	34.9
	2.99이하	21	8.2
실습경험	있다	112	43.9
	없다	143	56.1
리더십경험	있다	103	40.4
	없다	152	59.6
단체활동 경험	있다	203	79.6
	없다	52	20.4
전 체		255	100.0

[표 2]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구 분	평균(M)	표준편차(SD)
자기노출	3.85	0.94
역지사지	4.36	0.71
사회적 긴장완화	3.59	0.91
주장력	3.80	0.96
집중력	4.38	0.69
상호작용 관리	3.65	1.04
표현력	3.71	0.94
지지	3.83	0.91
즉시성	3.76	0.90
효율성	3.84	0.99
사회적 적절성	4.58	0.72
조리성	3.43	0.98
목표간파	4.11	0.76
반응력	4.45	0.70
잡음통제력	4.12	0.82
전 체	3.96	0.53

[표 3] 대상자의 갈등관리유형

유 형	빈도(명)	백분율(%)
문제해결	78	30.6
강요	3	1.2
회피	11	4.3
타협	85	33.3
양보	23	9.0
혼합	55	21.6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학년별 비교 결과, 1학년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3.74 ± 0.51 점으로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F=7.26, p<.001$). 또한 실습경험이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 점수는 4.08 ± 0.49 점으로, 실습경험이 없는 대상자(3.87 ± 0.54 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3.17, p=.002$)[표 4].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구 분		의사소통능력		t/F	p
		M	SD		
성별	남	4.01	0.53	1.33	.185
	여	3.93	0.53		
학년 [†]	1학년 ^a	3.74	0.51	7.26	<.001***
	2학년 ^b	4.03	0.55		
	3학년 ^b	4.09	0.48		
	4학년 ^b	4.06	0.51		
전공만족도	만족	3.99	0.50	1.27	.309
	보통	3.86	0.66		
	불만족	3.77	0.50		
학점수준	4.0-4.5	4.06	0.52	1.78	.152
	3.5-3.99	4.01	0.53		
	3.0-3.49	3.88	0.51		
	2.99이하	3.87	0.55		
실습경험	있다	4.08	0.49	3.17	.002**
	없다	3.87	0.54		
리더십경험	있다	3.95	0.51	-0.41	.683
	없다	3.97	0.54		
단체활동 경험	있다	3.99	0.54	1.78	.076
	없다	3.85	0.48		

** $p<.01$, *** $p<.001$

[†]a, b는 Tukey 사후검정 결과를 의미한다. 동일한 문자를 공유하는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5) 갈등관리유형별 의사소통능력

갈등관리유형별 의사소통능력을 분석한 결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3.17$, $p=.009$). 사후분석 결과, 타협형(4.05 ± 0.40 점)과 문제 해결형(4.04 ± 0.48 점)이 회피형(3.56 ± 0.38 점)보다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강요형, 양보형, 혼합형은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강요형은 다른 갈등관리유형에 비해 의사소통능력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였으나, 사례 수가 매우 적어 통계적 유의성은 확인되지 않았다[표 5].

[표 5] 갈등관리유형별 의사소통능력

구 분 [†]	N	의사소통능력		F	p
		M	SD		
문제 해결형 ^b	78	4.04	0.48	3.17	.009**
강요형 ^{ab}	3	3.47	0.64		
회피형 ^a	11	3.56	0.38		
타협형 ^b	85	4.05	0.53		
양보형 ^{ab}	23	3.89	0.40		
혼합형 ^{ab}	55	3.87	0.60		

** $p < .01$

[†]a, b는 Tukey 사후검정 결과를 의미한다. 동일한 문자를 공유하는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서로 다른 문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낸다.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의사소통능력은 평균 3.96점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보건의료대학생 및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비교할 때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⁵⁸⁾⁵⁹⁾⁶⁰⁾⁶¹⁾⁶²⁾⁶³⁾⁶⁴⁾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인 응

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의사소통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의사소통능력의 하위요인별 분석 결과, 사회적 적절성, 반응력, 집중력, 역지사지와 같이 대인 상호작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조리성 영역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⁶⁵⁾⁶⁶⁾⁶⁷⁾, 응급의료 및 보건계열 대상자들이 상대방의 반응을 인식하고 공감하며 상호작용 하는 데에는 강점을 보이는 반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논리적으로 구조화하여 명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의사소통능력은 학년과 실습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가장 낮은 의사소통능력 점수를 보였으며, 실습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실습경험이 없는 대상자보다 더 높은 의사소통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학년이 증가하고 현장 실습을 경험함에 따라 대인관계 상황에 대한 노출과 실제 의사소통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사소통역량이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와 동일한 변인을 중심으로 학년 또는 실습경험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차이를 직접적으로 보고한 선행연구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학업성취도,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되었고,⁶⁸⁾⁶⁹⁾⁷⁰⁾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나 의사소통기술 훈

58) Seung Jae Kim 외, 앞의 논문, 139쪽.

59) 김현마·박경진, 앞의 논문, 1076쪽.

60) 신지훈, 앞의 논문, 619쪽.

61) Myong-Suk Shin, Ji-Hyoung Han & Ji-Min Hwang, 앞의 논문, 21쪽.

62) 이상연 외, 앞의 논문, 112쪽.

63) 이임산·김창희, 앞의 논문, 72-73쪽.

64) 박호경·유미, 앞의 논문, 14쪽.

65) Seung Jae Kim 외, 앞의 논문, 140쪽.

66) 김현마·박경진, 앞의 논문, 1076쪽.

67) Myong-Suk Shin, Ji-Hyoung Han & Ji-Min Hwang, 앞의 논문, 21쪽.

련을 통해서도 의사소통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⁷¹⁾⁷²⁾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의사소통능력이 단기간에 형성되는 개인적 특성이라기보다 교육과 학습, 그리고 실제 현장 경험을 통해 발달할 수 있는 복합적 역량임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적인 대인 의사소통 교육과 더불어, 시뮬레이션 실습이나 구조화된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논리적 표현력 및 상황 설명 능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갈등관리유형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타협형과 문제 해결형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강요형은 매우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전문가 및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⁷³⁾⁷⁴⁾⁷⁵⁾⁷⁶⁾ 반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이견협(2007)의 연구에서는 강요형과 회피형이 높고, 타협형과 양보형이 낮았으며,⁷⁷⁾ 은재호 와 장현주(2012)의 연구에서는 타협형과 순응형이 높고, 협력형이 낮게 나타났다.⁷⁸⁾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갈등관리유형이 개인이 속한 직무 환경

68) 김현미·박경진, 앞의 논문, 1077쪽.

69) Myong-Suk Shin, Ji-Hyoung Han & Ji-Min Hwang, 앞의 논문, 23쪽.

70) 서요한,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 의사소통능력, 학업탄력성의 관계: 대학생활적응의 매개효과」, 『인격교육』 14권 4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20, 55쪽.

71) 신지훈, 앞의 논문, 615-622.

72) Jeongwoon Yang, Sungjae Kim, op. cit., p. 7.

73) 김세은, 앞의 논문, 20쪽.

74) 이임산·김창희, 앞의 논문, 74쪽.

75) 박진수, 앞의 논문, 18쪽.

76) 정만·강희경, 앞의 논문, 347쪽.

77) 이견협, 앞의 논문, 68-69쪽.

78) 은재호·장현주, 「조직내 갈등에 대한 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에 관한 연구: Thomas & Kilman 의 갈등관리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권 1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2, 12쪽.

과 조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계통 전반에서 갈등 상황 시 일방적인 주장이나 통제보다는 상호 협력과 절충을 중시하는 경향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갈등관리유형 분포는 향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협력적 역할 수행과 팀 기반 의사결정 환경에 적합한 특성이 교육과정 및 전공 특성 속에서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협형과 문제 해결형은 회피형에 비해 의사소통능력 점수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 해결을 모색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유형일수록 의사소통역량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보건의료 직종을 대상으로 한 김세은(2010), 이임선과 김창희(2017), 김난경과 조규영(2021)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전반적으로 일관된 경향을 보인다.⁷⁹⁾⁸⁰⁾⁸¹⁾ 반면 회피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의사소통능력을 보였는데, 이는 갈등 상황에서 의사소통을 회피하거나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는 경향이 의사소통역량과 부정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갈등관리유형이 단순한 행동 선택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의사소통능력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특성임을 시사하며, 의사소통능력과 갈등관리유형 선택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강경옥과 장립(2013)의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⁸²⁾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는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갈등관리 전략이 개인의 의사소통역량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기반

79) 김세은, 앞의 논문, 27쪽.

80) 이임선·김창희, 앞의 논문, 74쪽.

81) 김난경·조규영, 앞의 논문, 778쪽.

82) 강경옥·장립,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갈등관리유형 간의 관계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20권 3호, 한국청소년학회, 2013, 115-117쪽.

의사소통과 협력적 문제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피적 갈등 관리 전략보다는 문제 해결적·타협적 전략을 강화하는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결과는 응급구조학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집단에서 문제 해결형과 타협형과 같은 보다 적응적인 갈등관리유형이 나타난 점은 의사소통 교육이 갈등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전략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론 중심의 의사소통 교육뿐만 아니라 실습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갈등 상황을 경험하고 의사소통 전략을 적용해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제한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단면적 연구 설계로 인해 변수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일부 응급구조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응급구조학과 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셋째, 갈등관리유형 하위요인 중 일부의 신뢰도가 .70 미만으로 나타나 측정의 일관성에 제한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각 하위요인이 5문항으로 구성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연구에서는 문항의 재구성 및 요인구조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다 정교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일부 갈등관리유형, 특히 강요형의 사례 수가 적어 해당 유형에 대한 해석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과 대학을 포함한 표본 확대를 통한 반복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시뮬레이션 기반 갈등 상황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의 변화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단행본

박연호, 『조직행동론』, 박영사, 2000.

유현숙·김남희·김안나·김태준·이만희·장수명·송선영, 『국가 수준의 생애
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연구(Ⅰ)』, 한국교육개발원, 2002.

논문

강경옥·장립, 「한국과 중국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과 갈등관리유형 간의 관계 비교
연구」, 『청소년학연구』 20권 3호, 한국청소년학회, 2013, 103-127쪽.

김기연·신수진·최혜경, 「한국인의 세대별 가치관과 생활행동」, 『한국가정관리학
회지』 21권 3호, 가정과삶의질학회, 2003, 87-99쪽.

김난경·조규영, 「수술실 간호사의 갈등관리 유형, 의사소통 능력 및 소진 간의 관계」,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권 2호, 한국자료분
석학회, 2021, 771-786쪽.

김세은, 「간호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0.

김현미·박경진, 「응급구조학과 재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한국산업융합학회논문집』 28권 4호, 한국산업융합학회, 2025,
1073-1079쪽.

명성민, 「물리치료사의 대인관계능력 및 의사소통능력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1권 2호, 2016,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23-129쪽.

박귀화·박경혜, 「환자안전 교육에서 팀 의사소통과 전문직 간 협업」, 『의학교육
논단』 21권 1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2019, 22-30쪽.

박진수, 「응급구조사의 역할갈등과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직무만족도」, 경일대학
교 보건복지대학원, 2014.

박호경·유미, 「치위생과 학생의 임상실습적응 요인: 의사소통능력과 갈등해결전
략의 역할」, 『보건과 사회과학』 69권, 한국보건사회학회, 2025, 5-25쪽.

서요한, 「간호대학생의 학습참여, 의사소통능력, 학업탄력성의 관계: 대학생활적
응의 매개효과」, 『인격교육』 14권 4호, 한국인격교육학회, 2020, 45-67쪽.

- 신지훈,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서 응급구조과 학생의 의사소통능력, 공감능력, 환자안전 수행자신감에 미치는 효과」, 『보건의료생명과학논문지』 12권 2호, 한국의료정보교육협회, 2024, 615-622쪽.
- 예지은, 「신세대 이해와 조직관리」, 『학술연구발표논문집』, 한국인적자원개발학회, 2009, 59-71쪽.
- 은재호·장현주, 「조직내 갈등에 대한 공무원의 갈등관리유형에 관한 연구: Thomas & Kilman 의 갈등관리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1권 1호, 한국인사행정학회, 2012, 1-24쪽.
- 이건협, 「조직내 커뮤니케이션 유형과 갈등관리방식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2007.
- 이상연·박정희·윤병길·김용석, 「보건계열 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자기통제력, 대학생활적응이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8권 2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24, 109-118쪽.
- 이임선·김창희, 「병원 간호사와 의사의 갈등관리유형과 의사소통능력 및 협력 간의 관계」, 『재활간호학회지』 20권 1호, 한국재활간호학회, 2017, 69-78쪽.
- 이현숙·김종경, 「병원 간호사의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 유형, 조직몰입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6권 4호, 한국간호행정학회, 2010, 488-496쪽.
- 장재형·정예은·전소은·조근자, 「임상현장실습에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환자 간의 의사소통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6권 3호, 한국응급구조학회, 2022, 47-60쪽.
- 정민·강희경, 「간호대학생의 갈등관리양식에 따른 자존감, 자기주장 및 대인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20권 3호, 한국간호교육학회, 2014, 345-352쪽.
- 한성열·안창일,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5권 1호, 한국사회및성격심리학회, 1990, 116-128쪽.
- 허경호,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 척도개발 및 타당성 검증」,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한국언론학회, 2003, 380-408쪽.
- Carsten K.W. De Dreu & Laurie R. Weingart. "Task Versus Relationship Conflict, Team Performance, and Team Member Satisfaction: A Meta-Analysi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88, no. 4, 2003, pp. 741-749.

- Eduardo Salas, Dana E. Sims & C. Shawn Burke. "Is there a "Big Five" in teamwork?", *Small Group Research*, 2005, vol. 36, no. 5, pp. 555-599.
- Emily Kilner & Lorraine A. Sheppard. "The role of teamwork and communication in the emergency department: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vol. 18, 2010, pp. 127-137.
- Jeongwoon Yang & Sungjae Kim, "An online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program for nursing students: A quasi-experimental study", *PLoS ONE*, vol. 17, no. 5, 2022, pp. 1-12.
- Karen A. Jehn. "A Multimethod Examination of the Benefits and Detriments of Intragroup Conflict",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vol. 40, no. 2, 1995, pp. 256-282.
- Lindred L Greer, Ozum Saygi, Hillie Aaldering & Carsten K W de Dreu. "Conflict in medical teams: opportunity or danger?", *Medical Education*, vol. 46, 2012, pp. 935-942.
- Lina Heier, Barbara Schellenberger, Anna Schippers, Sebastian Nies, Franziska Geiser & Nicole Ernstmann. "Interprofessional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to improve medical students' and nursing trainees' error communication-quasi-experimental pilot study", *BMC Medical Education*, vol. 24, 2024, pp. 1-10.
- Myong-Suk Shin, Ji-Hyoung Han & Ji-Min Hwang, 「The Influence of Dental Hygiene Student's Communication Ability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치위생과학회지』 21권 1호, 한국치위생과학회, 2021, 19-27쪽.
- M Afzalur Rahim. "Toward a theory of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13, no. 2, 2002, pp. 206-235.
- Michael A. Gross & Laura K. Guerrero. "Managing conflict appropriately and effectively: An application of the competence model to rahim's

- organizational conflict styl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Conflict Management, vol. 11, no. 3, 2000, pp. 200-226.
- P. Daniel Patterson, Matthew D. Weaver, Sallie J. Weaver, Michael A. Rosen, Gergana Todorova, Laurie R. Weingart, David Krackhardt, Judith R. Lave, Robert M. Arnold, Donald M. Yealy & Eduardo Salas. “Measuring teamwork and conflict among Emergency Medical Technician personnel”, Prehospital Emergency Care, vol. 16, no. 1, 2012, pp. 98-108.
- Seung Jae Kim, Oh Deog Kwon, Kyae Hyung Kim, Ji Eun Lee, Seung-Hee Lee, Jwa-Seop Shin & Sang Min Park,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interprofessional communication education for medical students」, 『한국의학교육』 31권 2호, 한국의학교육학회, 2019, 135-145쪽.
- Simone Herzberg, Matt Hansen, Amanda Schoonover, Barbara Skarica, James McNulty, Tabria Harrod, Jonathan M. Snowden, William Lambert & Jeanne-Marie Guise. “Association between measured teamwork and medical errors: an observational study of prehospital care in the USA”, BMJ Open, vol. 9, no. 10, 2019, pp. 1-7.
- Stefan Schulz-Hardt, Felix C. Brodbeck, Andress Mojzisch, Rudolf Kerschreiter & Dieter Frey. “Group Decision Making in Hidden Profile Situations: Dissent as a Facilitator for Decision Qu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91, no. 6, 2006, pp. 1080-1093.
- Zahra Karimi, Fatemeh Darban, Samira Karimi & Enayatollah Safarzai.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on skills training on professional performance and quality of work life of pre-hospital emergency medical staff: An experimental study in Iran”,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vol. 74, 2024, pp. 1-6.

신문기사

- 진주화, “밀레니얼 세대에게 필요한 동기부여 방식”, <LG Business Insight>, 2016.09.27.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2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55부의 설문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도구는 일반적 특성, 의사소통능력, 갈등관리유형으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기술통계, t-test, ANOVA 및 Tukey 사후검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의사소통능력은 학년과 실습경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1학년과 실습경험이 없는 학생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갈등관리유형의 분포에서는 타협형과 문제 해결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강요형은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다.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타협형과 문제 해결형이 회피형에 비해 더 높은 의사소통능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갈등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상호 해결을 모색하는 갈등관리 전략을 사용하는 학생일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응급구조학과 대학생의 갈등관리유형에 따른 의사소통능력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응급의료 현장에서 요구되는 팀 기반 의사소통과 협력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응급구조학과 대학생, 의사소통능력, 갈등관리유형

■ Abstract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Conflict Management Styles among Paramedic Students

Choi, Boram /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aimed to examine differences in communication competence according to conflict management styles among paramedic students. A total of 255 responses were included in the final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self-report questionnaire consisting of general characteristics,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flict management styl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s, ANOVA, and Tukey post-hoc tests.

According to the results, communication competence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academic year and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with lower levels observed among first-year students and those without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Compromising and problem-solving styles were the most prevalent conflict management styles, and students with these styles demonstrated higher communication competence than those with an avoiding style.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ommunication competence varies depending on conflict management styles among paramedic students. The results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aimed at strengthening team-based communication and the collaborative competencies required in emergency medical settings.

Keyword • Paramedic students, Conflict Management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웰에이징을 위한 감염병 예방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의 효과 연구: 포커스 그룹 면담 분석*

임 효 남 · 김 광 환 · 강 경 희**

목 차

1. 서론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결과
4. 고찰
5. 결론

1. 서론

웰에이징(Well-Aging)은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니라, 노년기에도 건강과 기능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과 안녕을 지속하는 과정을 의미한다.¹⁾²⁾ 이를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개인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NRF-2020S1A5C2A04092504)

** 임효남(제1저자) 건양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김광환(공동저자) 건양대학교 병원경영학과 교수
강경희(교신저자) 건양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

1) Rowe JW, Kahn RL.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37 No.4, 1997, pp.433-440.

2) Depp CA, Jeste DV.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4 No.1, 2006, pp.6-20.

예방적 생활 습관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적 접근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³⁾

감염병 유행은 개인의 신체 건강 문제를 넘어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일상 기능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확진자와 격리자는 진단과 치료 과정의 불확실성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고립을 경험하며, 이러한 경험은 회복 이후에도 지속되는 심리적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이 보고되어 왔다.⁴⁾ 특히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생존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는 회복 1년 뒤에도 상당수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관찰되었다.⁵⁾

격리 경험은 감염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비감염자에게도 분노·불안·공포와 같은 정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 MERS 유행 당시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격리 기간 중 불안과 분노가 높게 나타났고, 격리 해제 이후에도 일부 정서 문제가 지속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⁶⁾ 이처럼 감염병 유행은 ‘감염 위험’ 자체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정서적 부담을 함께 동반하며 개인의 회복과 일상 복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신종 감염병의 재유행 가능성과 변이 발생이 반복되는 현실에서, 감염병 예방과 관리는 특정 시기의 일회적 대응이 아니라 일상에서 지속되어야 하는 건강행태로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3) Jee E, Bae JH.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Well-Aging Education Programs for Older Adul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55, No.1, pp.69-95, 2024.

4) Brooks SK, Webster RK, Smith LE, et al. "The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and how to reduce it: rapid review of the evidence." The Lancet, Vol.395 No.10227, 2020, pp.912-920.

5) Shin J, Park HY, Kim JL, et al. "Psychiatric Morbidity of Survivors One Year after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Korea, 2015."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58 No.3, 2019, pp.245-251.

6) Jeong H, Yim HW, Song YJ, et al. "Mental health status of people isolated due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pidemiology and Health, Vol.38, 2016, e2016048.

예방수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은 감염 확산을 줄이는데 그치지 않고, 과도한 불안과 오정보로 인한 혼란을 낮추는 데도 중요하다.⁷⁾ WHO는 위험소통과 지역사회 참여가 신뢰 형성과 행동 변화에 핵심이며, 인포데믹(과잉 정보 및 오정보) 대응 체계를 함께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다.⁸⁾

국내 연구에서도 예방행동은 단순 지식 수준만으로 설명되기보다, 주관적 규범이나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⁹⁾ 또한 감염관리 교육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교육이 지식 및 수행도 향상과 연관되는 경우가 다수였으나, 대상자 특성에 맞춘 교육 설계와 지속적 적용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¹⁰⁾ 더 나아가 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국내 감염관리 교육 연구에서도 교육 이후 감염관리 인식·태도·수행 개선이 보고되는 등, 교육의 구조화와 현장 적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축적되고 있다.¹¹⁾

그럼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이 평상시 체계적으로 제공되는 사례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며, 관련 연구 역시 대유행 이후

7) Zarocostas J. "How to fight an infodemic." The Lancet, Vol.395 No.10225, 2020, p.676.

8) World Health Organization. Managing the COVID-19 infodemic: Promoting healthy behaviours and mitigating the harm from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2020.

9) Moon JE, Song MO. "A Convergence Study about the Performance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of Hospital Nurses-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5, 2017, pp.117-125.

10) Kim YB, Yoon TH, Sohn AR. "Effects of COVID-19 knowledge, risk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s and preventive action practic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38 No.1, 2021, pp.25-36.

11) Lee MH, Song MS.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n Education Needs of Infection Control of Care Worker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2, 2021, pp.566-575.

에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예방 교육의 요구와 구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축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강한 노화를 지향하는 웰에이징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이 참여자의 인식과 실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탐색하였다. 또한 면담 결과를 토대로 웰에이징을 위한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교육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웰에이징 교육 프로그램(인생설계코칭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참여한 성인 중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10명으로 구성하였다. 참여자 선정은 연구 주제와 관련된 경험을 보유한 대상자에게 초점을 두는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자의 성별은 여성 6명(60.0%), 남성 4명(40.0%)으로 연령대는 50대 2명(20.0%), 60대 7명(70.0%), 70대 1명(10.0%)이었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2명(20.0%), 대졸 6명(60.0%), 대학원졸 2명(20.0%)이었다. 참여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본문에서는 참여자를 A~J로 표기하였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하고, 면담 내용의 녹음, 익명 처리, 자료의 비밀 보장, 연구 목적 외 사용 금지, 중도 철회 가능성을 안내하였다. 본 연구는 K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승인(KYU 2025-02-025-001)을 받은 후 수행되었다.

2) 자료수집 및 질문개발

자료수집은 온라인 포커스 그룹 면담으로 수행하였다. 면담은 2025년 10월 ZOOM을 사용하여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 녹음 자료는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

였고, 전사 과정에서는 발화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도록 원문 표현을 가능한 유지하였다. 전사 자료는 연구자가 녹음 파일을 재청취하여 내용 일치 여부를 점검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 처리 후 비밀번호로 보호된 저장 매체에 보관하였으며, 접근 권한을 연구자로 제한하였다. 면담 질문은 감염병 예방 교육의 효과, 교육 콘텐츠, 정보 습득 경로, 향후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질문 개발을 위해 관련 선행 문헌을 검토한 후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질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후 내용 타당도 확보를 위해 간호학 교수 2인과 보건복지학 교수 1인의 검토를 받았으며,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는 참여자의 응답 흐름에 따라 심화 질문 또는 추가 질문을 유연하게 제시하여 경험의 맥락과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도록 진행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분석을 위해 현장 노트와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의미 있는 내용을 발췌하였다. 발췌 내용에서 의미 단위를 도출한 후 유사한 의미 단위를 주제별로 범주화하고, 범주 간 관계를 비교·검토하여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참여자 확인(member check)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자 성찰 메모(reflexive memo)를 병행하여 연구자 편향을 최소화하였다.

3. 연구의 결과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의 효과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은 참여자들의 감염병 인식과 예방행동 실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예방수칙을 단순히 ‘인지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일상에서 반복적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강화되

었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기본 예방행동이 생활화되면서 위생관리 습관을 보다 의식적으로 유지하게 되었다는 내용이 도출되었다. 참여자 A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숙지하게 되었고, 이를 생활화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F 또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교육이 일상화되었다.”고 말해, 교육 경험이 지속적인 실천으로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감염병의 위험성과 전파력에 대한 이해가 구체화되었고, 유행 시기에만 대응하기보다 평상시에 지식을 갖추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참여자 D는 “*감염병 예방 교육은 정기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강조하였다.

교육은 실천 동기 강화와 확산에도 영향을 주었다. 참여자 C는 “*교육을 통해 공신력과 신뢰성이 생겼고, 그 결과 예방 규칙을 더 잘 지키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E는 “*주변에 전파하려는 의지와 실천이 생겼다.*”고 말해, 교육 효과가 개인을 넘어 가족·지인 등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아울러 참여자 H는 “*연속적인 교육으로 생활에 익숙해질수록 그 효과가 더 커진다.*”고 강조하였다.

2)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 콘텐츠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 콘텐츠는 ‘기본 수칙의 생활화’와 ‘실습 중심 학습’이 핵심으로 제시되었다. 참여자들은 성인 대상 교육에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반복 학습하고,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참여자 I는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칙을 숙지하게 되었고, 이를 생활화하게 된 것 같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F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교육이 여러 매체를 통해 소개되었고, 그 결과 일상화되었다.*”고 설명하였다.

교육 내용은 기본 수칙 안내를 넘어 주요 감염성 질환과 사전 예방 정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독감, 코로나

19, 폐렴, 대상포진 등 면역력과 관련된 질환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예방접종 등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참여자 A는 “독감, 코로나19, 폐렴, 대상포진 등 면역력과 관련된 질병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전 예방을 하게 된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G는 “교육을 받으면 감염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고, 건강관리와 전염병 예방에 더 신경 쓰게 된다.”고 말하였다.

실습 교육의 필요성은 여러 참여자의 의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 H는 “기초적인 손 씻기부터 마스크의 종류와 효과, 마스크 사용시간까지 이론보다 실습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시각 자료 활용을 통해 실천 동기를 강화할 필요도 제기되었다. 참여자 E는 “입을 가리지 않고 재채기나 기침을 했을 때 침이 튀는 거리를 영상으로 보여주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감염 경로에 대한 이해와 차단 전략을 교육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났는데, 참여자 J는 “감염 경로 사례를 분석하고, 경로 차단 방법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3)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보 습득 경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보를 공공기관과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확인하되, 디지털 매체 및 지역사회 채널을 병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공기관 기반 경로로는 정부·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안내 자료가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참여자 A는 “정부(보건복지부), 국영 방송, 신문, 지방자치, 보건소 등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F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소의 안내물을 참고한다.”고 말하였으며, 참여자 H도 “지역 보건소 및 공공기관의 캠페인을 통해 정보를 얻는다.”고 말하였다.

대중매체 기반 정보 습득도 빈번하였다. 참여자 B는 “각종 방송 매체, 특히 뉴스 보도를 통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보를 습득한

다.”*고 말하였다. 참여자 F는 “TV와 인터넷 등의 매체를 함께 활용한다.”고 말해, 매체 기반 정보 습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을 보여 주었다.

디지털·지역사회 기반 경로로는 스마트폰 안내 문자, 인터넷·유튜브, 생활권 홍보물 및 단체 활동이 함께 제시되었다. 참여자 C는 “스마트폰 문자나 인터넷 정보를 통해 정보를 받고, 아파트 게시판이나 거리 현수막을 보며 추가 정보를 얻는다.”고 설명하였다. 참여자 E는 “소속 단체의 일례회나 모임에서 일부 교육 시간을 통해 정보를 얻고, 유튜브도 함께 활용한다.”고 말하였다.

4)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 참여자들은 감염 예방 및 관리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자원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하여 참여자 B는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마스크나 예방주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예방접종 정책과 관련해서는 접종 자체의 확대뿐 아니라, 접종 이후 과정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참여자 F는 “코로나19 백신접종만을 강조하기보다, 접종 이후 감염이나 부작용에 대한 국가 지원이 더 확실해졌으면 한다.”고 강조하였다.

전문 인력 양성과 제도 기반 강화에 대한 요구도 확인되었다. 참여자 C는 “관·학 연계 지도사 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 지도사 배출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며, 감염병 관리사 자격증을 발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교육의 확산과 지속가능한 운영 측면에서는 정부·지자체의 협조와 전문 인력의 지역 확산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참여자 D는 “방역 관련 사업과 산업 확산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였으며, “감염관리 전문가를 양성하여 시·도

및 군 소재지까지 다양한 곳에서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참여자 J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지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해, 교육과 지원이 유행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고 평상시에도 유지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4. 고찰

본 연구는 웰에이징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이 참여자의 인식과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탐색하고, 성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이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설계될 때 효과적일 수 있는지를 도출하였다. 특히 기존 감염관리 교육 연구가 주로 의료종사자나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교육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웰에이징 프로그램 참여 성인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 경험과 인식을 질적으로 탐색하여 감염예방 행동이 건강한 노화의 일상적 건강행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해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참여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유행 시기 대응’으로만 인식하기보다 건강한 노화를 지지하는 일상적 건강관리의 한 축으로 이해하고 있었으며, 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을 넘어 생활 속 실행으로 연결될 때 의미가 커지는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감염관리 행동을 단기적 위기 대응이 아니라 웰에이징을 위한 지속적 건강행태로 재해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감염병 유행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남기는 영향은 신체 건강에 국한되지 않으며, 감염·격리 경험은 불확실성, 낙인, 고립, 죄책감과 결합하여 정서적 부담을 장기화할 수 있다. 특히 국내 MERS 생존자를 추적한 연구에서 회복 1년 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가 보고되었고,¹²⁾

12) Shin J, Park HY, Kim JL, et al. “Psychiatric Morbidity of Survivors One Year after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Korea, 2015.”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58 No.3, 2019, pp.245-251.

격리 경험 역시 격리 기간뿐 아니라 해제 이후까지 불안·분노가 지속될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¹³⁾ 이는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이 감염 위험을 낮추는 목적을 넘어, 과도한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완충하는 심리·사회적 안전망으로도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웰에이징의 핵심 개념이 단순한 질병 예방을 넘어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감염관리 교육은 이러한 통합적 건강 유지 전략의 한 요소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이 “평상시 지식 축적과 대비” 및 “시간이 지나면 경각심이 약화될 수 있음”을 언급한 점은, 유행기-비유행기 간 행동 격차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예방교육이 평상시에도 유지·재노출되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를 뒷받침한다.

교육 콘텐츠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핵심 수칙의 반복 학습과 생활화를 기본으로 제시하면서도, 단순 수칙 안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요구는 주요 감염성 질환과 사전 예방(예방접종 포함), 감염 경로 및 차단 전략 등 이해 기반 정보, 시각 자료 활용을 통한 위험 인식의 구체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구성은 성인 학습자가 자신과 연결되는 경험·사례·근거가 결합될 때 학습 동기와 적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¹⁴⁾ 특히 인포데믹 환경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오정보 교정이 행동 변화의 전제가 될 수 있는데,¹⁵⁾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상 자료를 통한 경각심 강화” 및 “근거 기반 정보 요구”는 교육이 예방지식 전달을 넘어 정보 문해력 (health/infodemic literacy)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13) Jeong H, Yim HW, Song YJ, et al. “Mental health status of people isolated due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pidemiology and Health*, Vol.38, 2016, e2016048.

14) Zarocostas J. “How to fight an infodemic.” *The Lancet*, Vol.395 No.10225, 2020, p.676.

15) World Health Organization. Managing the COVID-19 infodemic: Promoting healthy behaviours and mitigating the harm from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2020.

는 웰에이징 교육이 단순 건강정보 전달을 넘어 건강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감염병 예방행동 연구에서도 행동은 지식만으로 충분히 설명되기 보다,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행동의도 등 심리·사회적 요인과 결합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¹⁶⁾ 이는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 제시하는 “태도·규범·통제·의도·행동”의 구조¹⁷⁾와도 연결되며, 성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뿐 아니라 “왜 해야 하는가”와 “할 수 있다(자기효능감/지각된 통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될 때 실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웰에이징 맥락에서 재해석하여, 감염예방 행동이 노년기 건강 유지와 사회적 참여를 지속하기 위한 자기관리 행동의 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된다. 본 연구에서 ‘교육의 공신력과 신뢰성’이 실천을 뒷받침한다는 참여자 인식이 나타난 점은, 메시지의 내용뿐 아니라 전달체계의 신뢰가 행동으로의 전환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교육 방법 측면에서 참여자들은 이론 중심 전달보다 실습을 포함한 행동기술 학습을 강조하였다. 손 씻기 단계 실습, 마스크 종류·효과·착용 점검 등은 행동의 난이도를 낮추고 습관화를 촉진하는 대표적 접근이며¹⁸⁾, 본 연구에서도 반복 교육의 필요성이 함께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

16) Kim YB, Yoon TH, Sohn AR. “Effects of COVID-19 knowledge, risk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s and preventive action practic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38 No.1, 2021, pp.25-36.

17)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1991, pp.179-211.

18) Yang J, Park EC, Lee SA, et al. “Associations Between Hand Hygiene Education and Self-Reported Hand-Washing Behaviors Among Korean Adults During MERS-CoV Outbreak.” Health Education & Behavior, 46(1), 2019, 157-164.

내 감염관리 교육 중재 연구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에서 교육이 지식 및 수행도 향상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보고¹⁹⁾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장기요양 현장 등 취약한 집단을 돌보는 인력을 대상으로 한 국내 감염관리 교육 연구에서 감염관리 인식·태도·수행 개선이 보고된 점²⁰⁾은, 성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이 '지식-태도-행동'의 연속선에서 구조화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한다. 웰에이징 관점에서 이는 단기 변화보다 지속 가능한 건강행태 유지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정보 습득 경로는 공공기관(정부·보건소·공공 캠페인)과 방송·뉴스 등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하되, 안내 문자, 인터넷·유튜브, 게시판·현수막, 단체 모임 등 생활권 채널이 병행되는 양상으로 정리되었다. 이는 교육 홍보와 전달 전략이 단일 채널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공공기관 기반의 표준 메시지(근거·일관성·신뢰)와 디지털·지역사회 채널 기반의 반복 노출(접근성·도달률)을 연결하는 다채널 설계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에 대한 요구는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환경적 조건을 보여준다.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예방접종 지원은 감염 취약성과 건강격차를 줄이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예방접종 확대뿐 아니라 접종 이후 부작용·감염 등 사후 과정까지 포함한 지원 체계에 대한 요구는 '정책-교육-서비스'가 분절되지 않고 연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 또한 관·학 연계 지도사 교육, 자격 체계 제언, 전문 강사 양성 요구는 감염관리 교육을 개인 책임으로만 환원하지 않고 전달체계의 전문성·표준화·지역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는 웰에이징 관점에서 건강한 노화를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제도적 환경이 함께 지원해야 하는 사회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

19) Lee MH, Song MS. "A Systemic Review on Infection Control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5 No.11, 2024, pp.103-111.

20) Lee MH, Song MS.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n Education Needs of Infection Control of Care Worker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2 No.12, 2021, pp.566-575.

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의료·돌봄 현장에서 감염관리 교육과 훈련의 중요성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 개발·적용 연구 및 돌봄 제공자 대상 감염관리 교육프로그램 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어,²¹⁾ 지역사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역시 공공 보건체계와 연계하여 표준화·확산 가능한 형태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웰에이징 프로그램 참여자라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함이 필요하며, 온라인 면담이 대면 상호작용에서 포착 가능한 비언어적 맥락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감염병 예방교육을 웰에이징 맥락에서 재구성하고, 성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의 핵심 요소(기본 수칙의 생활화, 실습 기반 학습, 반복·재노출 교육, 다채널 전달, 지역사회 지원)를 참여자의 언어를 통해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감염관리 행동을 웰에이징을 위한 지속적 건강관리 전략으로 해석하고 교육 설계 요소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감염관리 교육 연구에 새로운 해석 틀을 제시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범주를 기반으로 표준화된 교육 모듈을 개발하고, 적용 전후 변화(지식, 자기효능감/지각된 행동통제, 실천도, 유지 기간)를 혼합연구로 검증하는 접근이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웰에이징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의 효과와 요구를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결과, 참여자들은 교육이 예방수칙의 생활화, 위험 인식의 구체화, 실천 동기의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육 콘텐츠는 손 씻기·마스크·거리두

21) Jeong SY, Kim OS, Kim K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fection Control Education Program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23 No.2, 2020, pp.158-166.

기 등 기본 수칙을 중심으로 하되, 주요 감염성 질환과 사전 예방(예방접종 포함), 감염 경로 이해와 차단 전략, 시각 자료를 활용한 위험 인식 강화 등 생활 적용형 요소를 포함할 필요가 있었다. 교육 방법은 이론 중심 전달보다 실습과 점검을 포함한 행동기술 학습이 강조되었으며, 단발성 교육이 아닌 반복·재노출 구조가 실천 유지에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인되었다. 정보 습득은 공공기관과 대중매체를 기반으로 하되 디지털·지역사회 채널이 병행되는 양상이었고, 이에 따라 교육 홍보와 전달은 다채널 전략이 요구된다.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지원, 예방접종 사후 지원을 포함한 자원 지원, 전문 인력 양성과 자격·전달체계 구축,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한 지자체 협력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웨이징 관점의 감염병 예방 교육은 유행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평상시에도 유지되는 반복·실습 중심의 생활화 교육으로 설계될 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교육 요소를 토대로 표준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사회 현장에서 적용·평가함으로써, 성인 학습자 특성과 생활 맥락을 반영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50 No.2, 1991, pp.179-211. DOI: 10.1016/0749-5978(91)90020-T.
- Brooks SK, Webster RK, Smith LE, et al. "The psychological impact of quarantine and how to reduce it: rapid review of the evidence." *The Lancet*, Vol.395 No.10227, 2020, pp.912-920. DOI: 10.1016/S0140-6736(20)30460-8.
- Depp CA, Jeste DV. "Definitions and predictors of successful aging: A comprehensive review of larger quantitative studies." *The American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Vol.14 No.1, 2006, pp.6-20. DOI: 10.1097/01.JGP.0000192501.03069.bc.
- Jee E, Bae JH.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Well-Aging Education Programs for Older Adul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55 No.1, 2024, pp.69-95. DOI: 10.16999/kasws.2024.55.1.69.
- Jeong H, Yim HW, Song YJ, et al. "Mental health status of people isolated due to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Epidemiology and Health*, Vol.38, 2016, e2016048. DOI: 10.4178/epih.e2016048.
- Jeong SY, Kim OS, Kim K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fection Control Education Program in Long-Term Care Hospital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Vol.23 No.2, 2020, pp.158-166. DOI: 10.7587/kjrehn.2020.158.
- Kim YB, Yoon TH, Sohn AR. "Effects of COVID-19 knowledge, risk perception,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preventive action intentions and preventive action practice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Vol.38 No.1, 2021, pp.25-36. DOI: 10.14367/kjhep.2021.38.1.25
- Lee MH, Song MS. "Integrated Literature Review on Education Needs of Infection Control of Care Worker in the Long-term Care Facilitie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ol.22 No.12, 2021, pp.566-575. DOI: 10.5762/KAIS.2021.22.12.566
- Lee MH, Song MS. "A Systemic Review on Infection Control Education Intervention Program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25 No.11, 2024, pp.103-111. DOI: 10.5762/KAIS.2024.25.11.103.
- Moon JE, Song MO. "A Convergence Study about the Performance of Healthcare-Associated Infection Control Guidelines of Hospital Nurses-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5, 2017, pp.117-125. DOI: 10.15207/JKCS.2017.8.5.117
- Rowe JW, Kahn RL.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Vol.37 No.4, 1997, pp.433-440. DOI: 10.1093/geront/37.4.433
- Shin J, Park HY, Kim JL, et al. "Psychiatric Morbidity of Survivors One Year after the Outbreak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in Korea, 2015."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58 No.3, 2019, pp.245-251. DOI: 10.4306/jknpa.2019.58.3.245.
- World Health Organization. *Managing the COVID-19 infodemic: Promoting healthy behaviours and mitigating the harm from misinformation and disinformation*. 2020.
- Yang J, Park EC, Lee SA, et al. "Associations Between Hand Hygiene Education and Self-Reported Hand-Washing Behaviors Among Korean Adults During MERS-CoV Outbreak." *Health Education & Behavior*, Vol.46 No.1, 2019, pp.157-164. DOI: 10.1177/1090198118783829.
- Zarocostas J. "How to fight an infodemic." *The Lancet*, Vol.395 No.10225, 2020, p.676. DOI: 10.1016/S0140-6736(20)30461-X.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웰에이징 프로그램 참여자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교육 경험과 변화 양상을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탐색한 질적 연구이다. 목적표집으로 선정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면담을 실시하고 전사 자료를 범주화하여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교육은 예방수칙의 생활화, 위험 인식의 구체화, 실천 동기 강화 및 주변 확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교육 콘텐츠는 기본 수칙 반복 학습과 함께 주요 감염성 질환 및 사전 예방 정보, 감염 경로 이해와 차단 전략, 시각 자료 활용, 실습 중심 학습이 요구되었다. 정보 습득 경로는 공공기관·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하되 디지털·지역사회 채널이 병행되었으며, 교육 활성화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 예방접종 사후 지원, 전문 인력 및 자격·전달체계 구축, 지역단위 확산을 위한 지자체 협력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웰에이징 맥락에서 성인 대상 감염관리 교육의 핵심 구성요소를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웰에이징, 감염병 예방, 감염관리 교육, 포커스 그룹 면담, 질적연구

■ Abstract

Effects of participation i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education programs for well-aging: A focus group interview analysis

HyoNam Lim / Konyang University
Kwang-Hwan Kim / Konyang University
Kyung-hee Kang / Konyang University

This study qualitatively explored the experiences of and changes resulting from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education among participants in a well-aging program. Using purposive sampling, ten adults were selected and engaged in online focus group interviews. The transcribed data were categorized to identify core theme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 education contributed positively to the internalization of preventive practices, the concretization of risk perception, the reinforcement of motivation for action, and the dissemination of practices to others in their social environment. Effective educational content required repeated learning of basic preventive measures, information on major infectious diseases and preemptive strategies, understanding of transmission routes and blocking methods, utilization of visual materials, and practice-oriented learning. Information acquisition pathways primarily involved public institutions and mass media, supplemented by digital and community channels. To further promote educational effectiveness, support for vulnerable groups, post-vaccination assistance, establishment of professional personnel and qualification/delivery systems, and collabo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for community-level dissemination were suggeste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pecifies the essential components of infection control education for adults within the context of well-aging.

Keyword • Well-aging,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Infection control education, Focus group interview, Qualitative research

■ 논문투고일:2026.02.01. ■ 심사완료일:2026.02.23. ■ 게재확정일:2026.03.23. ■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와 개선 방향에 대한 고찰

김 동 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분석
4.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개선방안
5. 결론

1. 서론

산업현장은 기계적·화학적·환경적 위험요인에 상시 노출된 공간이며, 근로자는 급성 외상과 직업성 질환 위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다¹⁾. 산업재해는 단순한 사고를 넘어, 영구적 기능 장애, 심리적 후유증, 직업 복귀 지연 등 장기적 결과를 낳아 개인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과 돌봄 부담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인식된다²⁾. 특히 외상성 손상에서는 응급의료 개입의 적정성과 개입 시점이 생존율과

*김동현(제1저자) 국립공주대학교 응급구조학과 석사 졸업

1) 최종국, 「건설근로자 안전보건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21권1호, 2025, 249-259쪽.

2) Lee, W.-T. 외, “Analyzing decline in quality of life by examining employment status changes of occupationally injured workers post medical care”,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 34, 2022, e17.

후유장애 발생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어 왔다³⁾.

외상 이후 응급처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이른바 ‘골든타임’ 확보는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이며, 이로 인해 산업현장의 응급의료체계는 의료 영역을 넘어 현장 안전과 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⁴⁾. 산업재해 발생 시 응급의료 대응은 일반적으로 초기 응급처치-현장이송-의료기관 치료로 이어지는데, 이 가운데 초기 단계는 전문 의료 인력이 도착하기 전 공백을 메우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⁵⁾. 이때 근로자 또는 관리자의 응급처치 역량은 손상의 중증도와 이후 치료 경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동한다⁶⁾.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응급대응 조직 구성과 대응 절차 마련을 의무화하고, 방재·대피·의료지원 등 기능별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 규모 사업장과 건설 현장에서는 인력·장비·관리체계의 제약으로 인해 응급의료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⁷⁾.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인력 부족, 응급처치 숙련도 저하, 응급 장비 미비, 비상 통신체계의 취약성은 초기 대응의 질을 낮추고 전문 의료 개입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한다⁸⁾.

이러한 한계는 산업재해 응급의료체계를 의료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으

3) Hewett Brumberg, E. K. 외, “2024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d American Red Cross guidelines for first aid”, *Circulation* vol. 150 no. 24, 2024, pp.519-579.

4) 조광제·장교식,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입법학 연구』 48호, 2021, 793-822쪽.

5) 신상도·김정연·김정순, 「사망재해 분석을 통해 본 사업장 응급의료 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 회지』 12권4호, 2022, 483-493쪽.

6) Sihvo, M., Hiltunen, L. & Kärkkäinen, T., “How to evaluate first aid skills after training: A systematic review”, *Scandinavian Journal of Trauma, Resuscitation and Emergency Medicine* vol. 30 no.1, 2022, Article no.56.

7) 이병림·최유정·유상열·최재욱,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재난정보학회』 18권3호, 2022, 507-519쪽.

8) 신상도 외, 앞의 논문, 483-493쪽.

로만 이해해 온 기존 접근의 제약을 보여준다. 응급의료 대응의 중심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체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⁹⁾. 즉, 산업현장의 응급의료체계는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 장치가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적·체계적 위기 대응 인프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¹⁰⁾.

한편 산업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과 채용 시 교육 등을 통해 안전·보건 지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 내용이 사고 예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외상성 손상 발생 시 요구되는 구체적 응급처치 역량 형성에는 한계를 보인다¹¹⁾. 반면 미국 OSHA 및 NIOSH, 유럽연합의 CE 기반 노동 안전 체계는 직군과 작업 위험도에 따라 요구 역량과 교육 내용을 보다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응급의료를 ‘현장 대응 역량’의 문제로 다룬다는 점에서 국내 제도와 대비된다¹²⁾.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산업재해에 대한 초기 응급처치 역량 강화, 사업장 규모·위험도에 따른 응급의료 자원 배치 기준 마련, 산업재해 대응 조직의 실효성 확보는 단순한 정책 과제를 넘어 산업사회에서 안전과 생명 보호를 어떻게 이해하고 조직화할 것인가라는 지식적·사회적 질문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업현장의 응급의료체계 구성과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위기관리 및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구조적 의미와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9) 정희다·김성현, 「초기 현장 대응을 위한 이동형 응급처치 모듈의 공간계획 기초 연구」, 『한국 의료복지건축학회』 31권3호, 2025, 47-58쪽.

10) 최우재, 「안전보건경영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29권4호, 2022, 87-106쪽.

11) 허경화·신인재,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발전과 전망」, 『한국산업보건학회지』 29권4호, 2020, 228-234쪽.

12) Hewett Brumberg, E. K., et al., op. cit. pp.519-579.

2. 이론적 배경

1) 응급의료체계의 개념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조직화된 체계로, 불의의 사건·사고나 질병으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현장에서 적절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고, 환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되어 전문적인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처치 단계와 병원 단계로 구분되며, 이 두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이 가능하다고 설명된다¹³⁾.

응급의료체계는 일정 지역 내에서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구되는 시설, 인력, 장비, 운영체계를 포괄적으로 조직화한 사회·의료학적 개념의 의료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여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현장 처치와 이송 중 처치, 병원 내 응급진료가 모두 포함되며, 응급상황 전반을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적 특성을 지닌다¹⁴⁾.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사고 접수와 상담, 현장 구조 및 처치, 의료기관 이송에 이르는 병원 전 단계를 공공적 응급의료서비스로 규정하고, 이를 응급환자 발생 시 제공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이해하고 있다¹⁵⁾.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은 의학적 측면에서는 응급의료의 범위를 병원 내부에서 병원 외부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보장과 복지제도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로, 국가적 차원에서 응급의료체

13) Sasser, S. M. 외, "Guidelines for field triage of injured patients: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Expert Panel on Field Triage, 2011", MMWR Recommendations and Reports 61(RR-1), 2012, pp.1-20.

14) Ahn, J. Y., Kim, S. H., Lee, J. H. & Choi, Y. H.,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60, 2022, Article No. 100982.

15) 김정현,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62권5호, 2023, 252-257쪽.

계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 보장 정책의 핵심 구성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¹⁶⁾.

보다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체계는 응급환자 발생 시 가용한 인력과 의료 인프라, 장비 자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신속한 대응과 이송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권역 단위 운영 구조를 의미한다. 응급환자 발생 후 현장에서 적절한 처치를 시행하고,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송하며, 최단 시간 내 최상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 출동 및 처치 인력과 병원 응급의료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¹⁷⁾.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 응급환자 이송업 등 응급의료체계의 주요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응급의료 제공의 범위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표 1>.

[표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주요 용어

용어	용어정의
응급환자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응급의료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 응급처치·및 진료 등의 조치행위
응급처치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응급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총칭
응급환자 이송업	구급차 등을 이용하여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업(業)

16) 조광제·장교식, 앞의 논문, 793-822쪽.

17) 중앙응급의료센터,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정의』, 국립중앙의료원, 2013.

2) 응급의료체계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는 이러한 국가적 책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핵심 수단 중 하나로 이해된다¹⁸⁾. 응급상황은 예측이 어렵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심정지, 급성 질환, 외상성 손상 등 다양한 형태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편적 위험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응급환자는 발생 시점부터 생존과 후유장애 여부가 짧은 시간 내 결정되는 시간 의존적 특성을 가지며, 이른바 골든타임 내 적절한 처치 여부는 예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⁹⁾.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 1인 가구 확산, 사회·자연 재난의 복합화, 해외 유입 감염병 확산 등 위험 요인의 증가는 응급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 차원의 필수 사회안전망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²⁰⁾. 이는 응급의료체계가 단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넘어, 국가의 재난 대응과 보건 정책 전반과 밀접하게 연계된 사회 기반 인프라임을 시사한다.

응급환자의 시간의존성 특성상 응급처치는 손상이나 질병 발생 현장에서 즉시 시작되어야 하며, 이송 과정에서도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후 병원에도 도착한 환자는 짧은 시간 내 여러 전문 분야 의료진의 개입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응급의료 인력, 응급시설, 의료장비, 의료정보가 유기적으로 연계·운용되는 체계적 시스템이 요구된다²¹⁾. 따라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서는 현장·이송·병원 단계 간 연계뿐 아니라 응급처치팀, 응급의료 정보센터, 응급의료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²²⁾.

한편 응급의료체계는 의료자원 배분 측면에서도 독특한 특성을 지닌

18) 조광제·장교식, 앞의 논문, 793-822쪽.

19) Hewett Brumberg, E. K., et al., op. cit., pp.519-579.

20) 김정현, 앞의 논문, 252-257쪽; 조광제·장교식, 앞의 논문, 793-822쪽.

21) Sasser, S. M., et al., op. cit., pp.1-20.

22) 김정현, 앞의 논문, 252-257쪽; 신상도 외, 앞의 논문, 483-493쪽.

다. 응급실은 다양한 질환군의 환자가 동시에 유입되는 집합 지점이지만, 응급환자의 회복에 필요한 최종 치료의 상당 부분은 응급실 외부에서 이루어진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실, 중환자실, 전문 진료과 등 다른 의료자원과의 연계가 요구되며, 이는 응급의료체계가 개별 시설 단위가 아닌 병원 내·병원 간 자원 연동을 기반으로 작동해야 함을 의미한다²³⁾.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응급의료는 순수한 응급의학적 문제를 넘어, 의료자원의 배치와 기능 분담, 역할 조정, 사회 안전망 구축, 비용과 효율성 문제를 포함하는 정책적·제도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분석은 단일 의료기관 중심의 진료체계 분석을 넘어, 국가적·지역사회적·제도적·재난 대응 체계라는 다층적 구조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²⁴⁾.

3) 응급의료체계의 구성요소

응급의료체계의 구성 요소는 사회적 요구와 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체계 운영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특정 요소가 보강되거나 강조될 수 있다. 응급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고 현장 또는 질병 발생 시 적절한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여 환자의 상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실시하며, 병원의 전문 의료진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망률과 불구율을 최소화하고 환자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데 있다²⁵⁾.

이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는 신속성, 기동성, 통합성, 안전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은 단계별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구현된다. 일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는 병원 전 단계, 긴급 통신체계, 병원 단계로 구성된다. 병원 전 단계는 구급차의 신속한 출동과 현장 도착, 현장 및 이송 중 적절한 응급처치,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적절한 이송 의

23) 조광제·장교식, 앞의 논문, 793-822쪽.

24) Kapucu, N. & Hu, Q., Network governance: Concepts, theories, and applications, 2020. pp.3-8

25) 김정현, 앞의 논문, 252-257쪽; 신상도 외, 앞의 논문, 483-493쪽.

료기관 선정으로 이루어진다. 병원 단계는 응급의료기관의 단계화 및 지역화를 통해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최종 진료기관이 적절한 질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두 단계를 연결하는 긴급 통신체계는 의료자원의 파견과 이송 중 의료기관과의 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로 기능한다²⁶⁾. 이와 같이 응급의료체계는 다수의 구성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이며, 각 요소의 기능과 연계 수준에 따라 응급의료서비스의 질과 효과가 달라진다²⁷⁾. 이러한 단계별 구성은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구조를 통해 구체화되며, 병원 전 단계의 최초반응자·응급구조사와 병원 단계의 응급전문간호사·응급의학의사로 이어지는 인력 체계는 서비스 연속성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다<표 2>.

[표 2] 응급의료인력(EMS provider)의 구성요소

응급의료 인력의 분류		주요업무
병원 전 단계		119긴급신고
최초반응자		응급구조사 도착 전까지 일차응급처치 수행
응급 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신고접수 및 전화상담, 현장처치, 이송업무
	2급 응급구조사	
병원단계		중증도 판정(triage), 전원 혹은 공공기관
응급전문간호사		협조서류의 준비, 응급 관련 교육의 강사, 응급 관련 전산업무
응급의학의사		환자진료, 의료지도, 교육, 연구, 평가, 관리 등의 업무
응급센터 근무 의료진		응급검사, 시술보조

※ 출처 : 중앙응급의료센터

26) Sasser, S. M., et al., op. cit., pp.1-20.

27) 박경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의 실효성 분석」, 『국립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6권3호, 2025, 373-401쪽; 최종국, 앞의 논문, 249-259쪽.

3.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분석

1)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개요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에게 일시적인 신체 손상에 그치지 않고, 영구적인 기능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 직업 복귀 지연 등 삶 전반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지닌다²⁸⁾.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응급의료 대응은 근로자의 생명 보호뿐 아니라 이후 치료 경과와 회복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²⁹⁾.

일반적으로 산업현장의 응급의료체계는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응급처치, 현장 내 또는 인근 의료시설로의 이송, 그리고 전문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단계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사고 발생 직후의 초기 대응 단계는 전문 의료 인력이 도착하기 이전의 공백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현장에 있는 일반 근로자나 관리자의 대응 역량이 손상의 중증도와 예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³⁰⁾.

이러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응급상황 발생 시 인력·시설·장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의료정보와 의료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적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³¹⁾. 특히 산업현장은 위험 노출이 반복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응급의료체계는 단발적 대응이 아닌 상시적 위기관리 체계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28) 이현주,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산업경영학회』 21권10호, 2023, 167-180쪽.

29) Kim, J., Lee, J., Park, S. & Choi, Y., "Effect of on-site first aid for industrial injuries on healthcare utilization after medical treatment: A 4-year ret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and Toxicology* vol.18 no.12, 2023, pp.1-10.

30) Hedberg, H., Svensson, A., Andersson, H., & Elmqvist, C., "Effects of an advanced first aid course or real-time video communication with ambulance personnel on layperson first response for building-site severe injury events: A simulation study", *BMC Emergency Medicine* vol.24 no.2, 2024, pp.1-11.

31) 조광제·장교식, 앞의 논문, 793-822쪽.

2)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법·제도적 구성과 운영 실태

국내 산업안전보건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을 담당하는 응급대응 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대응 조직의 구성과 기능별 역할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³²⁾. 이에 따라 산업재해 응급대응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을 통해 구성되며, 방재팀, 현장 대응팀, 대피 유도팀, 의료 지원팀 등 기능별 역할 분담을 전제로 운영된다. 그러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과 일부 중규모 사업장의 경우, 모든 기능별 대응 인력을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데 현실적 제약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는 1인이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실제 응급 상황에서 역할 과중과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현장 응급상황 발생 시 최초 발견자는 즉시 상황을 알리고, 응급대응팀과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비상 연락망이 가동되도록 한다.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는 보고를 받은 즉시 각 대응팀에 연락해 초기 대응을 개시하고, 전체 상황을 종합·조정한다³³⁾.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발생 개요, 피해 상황, 조치 내용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³⁴⁾, 이후 각 대응팀은 사전에 규정된 역할에 따라 대응을 수행한다<그림 3>.

32) 법제처, 『산업안전보건법』, 2025.

33) 산업안전보건공단, 『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 2023.

34) 행정안전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 북』, 2024.



[그림 3] 산업재해 응급대응팀 대응 절차

3)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한계: 자원과 인력 측면

산업재해 응급의료체계가 법·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사업장은 인적·물적 자원의 제한으로 응급 대응 절차를 표준화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를 지닌다. 특히 소규모 건설 현장은 안전관리자 배치 의무가 없거나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 응급처치 준비와 같은 초기 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³⁵⁾.

이러한 환경에서는 응급의료체계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더라도,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가 조직적·체계적 대응보다는 개인 중심의 임기응변적 대응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4) 산업현장 응급처치 교육 체계의 실태와 한계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는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이전 단계에서 수행되는 초기 대응 역량을 전제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와 현장 관계자의 응급처치 수행 능력은 응급의료체계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된다. 국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33조

35) 박영석·김준호·조성학, 「산업현장의 최초반응자 필요성에 대한 연구: 건설업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6권3호, 2022, 201-208쪽.

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제시되어 있다<표 3>. 그러나 해당 교육 내용은 안전 및 사고 예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응급처치 절차는 제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³⁶⁾. 반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교육 대상자와 직무 위험도에 따라 응급의료 대응 능력과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교육 체계가 ‘예방’에 상대적으로 무게를 두는 반면,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설계·평가하는 장치는 제한적임을 보여준다³⁷⁾.

[표 3]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가. 정기교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 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 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일부>

- 36) 최아름·황정호·김진아, 「수요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건학회지』 30권 4호, 2020, 364-375쪽.
- 37) 신동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가천대학교법학연구』 15권4호, 2022, 57-84쪽.

5)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한계

앞선 분석을 종합하면,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는 법·제도적 틀은 일정 수준 마련되어 있으나, 중소기업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인력, 자원, 교육 측면에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응급처치 단계에서의 대응 역량 편차와 교육 체계의 실효성 부족은 응급의료체계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가 제도적 장치로는 존재하지만, 현장 특성과 위험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운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실태분석 결과를 토대로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개선 방안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확인한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바탕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인력, 제도, 교육, 장비 및 인프라, 운영 연계성의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를 단일 제도나 교육 문제로 환원하기보다, 여러 구성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작동하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전제하고 요소별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은 응급의료체계를 인력·제도·교육·인프라의 상호작용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기존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³⁸⁾.

1) 인적 자원 측면의 개선: 최초반응자 중심의 현장 대응 역량 강화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은 사고 발생 직후 현장에서 대응하는 인력의 역량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실태분석 결과, 중소기업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부재 또는 업무 과중

38) 조광제·장교식, 앞의 논문, 793-822쪽; 박경돈, 앞의 논문, 373-401쪽.

문제가 지속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응급상황에서는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개인의 경험에 의존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을 담당할 ‘최초반응자(first responder)’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응급처치 역할을 기대하기 보다는, 공정·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 대응 인력을 지정하고, 이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최초반응자를 중심으로 한 인력 운용 체계는 응급의료 전문 인력의 상시 배치가 어려운 산업현장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응급의료 대응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산업현장에서 최초 대응 인력의 역량이 응급의료 대응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의 지적과도 맥을 같이한다³⁹⁾.

2) 제도적 측면의 개선: 사업장 규모를 고려한 응급의료 기준의 현실화

현행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응급대응 조직 구성과 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특히 1인이 복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현행 운영 방식은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반면, 실제 응급상황에서는 역할 과중과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장 규모와 위험도에 따른 차등화된 최소 응급의료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조직 구성을 요구하기보다, 필수 기능 중심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응급대응 조직의 구성 여부에 대한 형식적 점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의 작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제도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요구된

39) 박영석 외, 앞의 논문, 201-208쪽; Sihvo, M., et al., op. cit., Article No. 56.

다. 이러한 접근은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획일적 제도 적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등 기준의 필요성을 제시한 기존 연구와도 일치한다⁴⁰⁾.

3) 교육 체계의 개선: 예방 중심 교육에서 대응 역량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

산업현장의 응급의료체계는 초기 응급처치 수행 능력을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근로자 교육은 핵심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실태분석 결과, 현행 안전보건교육은 사고 예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상성 손상 발생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응급처치 교육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 중심의 무 시간 충족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손상 유형별·상황별 응급처치 대응 능력 강화에 초점을 둔 교육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추락, 골절, 출혈, 타박·둔상 등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 내용 구성이 요구된다. 또한, 교육 방식 측면에서도 시나리오 기반 실습, 반복 훈련, 모의 상황 훈련 등 체험형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의 판단력과 실제 수행 능력을 동시에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육 전환의 필요성은 기존 안전보건교육이 실제 현장 대응 능력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한 국내외 선행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⁴¹⁾.

4) 장비 및 인프라 측면의 개선: 접근성과 사용성을 고려한 현장 관리 강화

응급처치 장비와 의료 인프라는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물적 기반을 이루는 요소이다. 그러나 현행 관리 방식은 장비의 ‘비치 여부’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강해, 실제 응급상황에서의 접근성과 사용 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응급처치 장비는 단순 비치가 아니라, 위치의 표준화, 사용

40) 김정우, 「대·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비교 분석」, 『중소기업정책연구』 6권2호, 2021, 33-70쪽.; 이병림 외, 앞의 논문, 507-519쪽.

41) 최아름 외, 앞의 논문, 364-375쪽; Sihvo, M., et al., op. cit., Article No. 56.

방법의 시각화, 정기 점검 체계를 포함한 관리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현장이나 이동이 잦은 작업 환경에서는 이동형 처치 장비나 모듈형 응급처치 인프라 도입을 검토함으로써 현장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장비 운영상의 한계는 산업현장 응급의료 인프라 관리의 문제점으로 선행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⁴²⁾.

5) 운영 연계성 강화: 현장-이송-의료기관 간 정보 연속성 확보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효과성은 현장 대응, 이송 과정, 의료기관 치료가 단절 없이 연계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실태분석 결과, 현장에서 수행된 응급처치 내용과 환자 상태 정보가 이송 과정과 의료기관으로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이송-병원 단계 간 정보 전달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수행된 응급처치 내용과 환자 상태를 간단한 표준 기록 양식으로 정리하여 이송 과정과 의료기관에 전달함으로써, 진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복 처치나 정보 누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 연계 문제는 산업재해 응급의료 대응의 연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어 왔다⁴³⁾.

종합하면,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은 단일 요소의 보완이 아니라, 인력·제도·교육·장비·연계라는 구성 요소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초기 응급처치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 대응체계 구축은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핵심 과제로 평가된다. 이러한 체계 구성요소 기반 개선 방안은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를 의료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 체계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천적 응급의료체계로 재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42) 정희다·김성현, 앞의 논문, 47-58쪽.

43) 김정현, 앞의 논문, 252-257쪽; 신상도 외, 앞의 논문, 483-493쪽.

5. 결론

본 연구는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를 단일한 제도 또는 교육의 문제로 축소하기보다, 인력·제도·교육·장비 및 인프라·운영의 연계성이라는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통합적 시스템으로 보고, 그 운영 실태와 구조적 한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가 법·제도적 틀은 일정 수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구성 요소 간 불균형과 연계 부족으로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인력 측면에서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는 사고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을 담당하는 인력의 역량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사업장과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자의 부재 또는 업무 과중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 응급상황에서는 체계적인 대응보다는 개인의 경험과 숙련도에 의존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현장에서 최초반응자 역할을 명확히 하고, 핵심 대응 인력을 중심으로 한 운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로 제기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는 현행 산업 안전보건 관련 법·제도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응급 대응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복수 역할 수행을 전제로 한 조직 구성은 유연성을 제공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역할 혼선과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사업장 규모와 위험도를 반영한 최소 기준을 설정하고, 형식적 구비 여부보다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지'를 중심으로 점검·지원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 측면에서는 현행 안전보건교육이 사고 예방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요구되는 구체적인 응급처치 대응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손상 유형에 대한 실습 중심 교육과 반복 훈련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내용과 실제 대응 사이의 간극이 발생한다. 예방 중심 교육을 유지하되, 손상 유형별·상황별 대응 역량을 목표로 한 교육 모듈을 별도로 설계하고, 시나리오 기반 실습과 반복 훈련을 체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식이 요구된다.

넷째, 장비 및 인프라 측면에서는 응급처치 장비의 비치 자체보다 현장 접근성과 사용 가능성이 문제로 남는다. 장비 위치가 표준화되지 않거나 사용 절차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점검 체계가 미흡할 경우, 장비는 ‘존재’하되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따라서 장비 관리는 비치 여부 중심에서 벗어나 위치 표준화, 시각적 안내, 정기 점검과 교육을 결합한 관리 체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섯째, 운영 연계성 측면에서는 현장-이송-의료기관 단계 간 정보 전달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해 대응의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응급처치 내용과 환자 상태가 이송 과정과 의료기관에 체계적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중복 처치, 정보 재확인 등으로 인한 처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줄이기 위해 표준 기록 양식과 전달 절차를 마련하고, 현장과 외부 기관 간 협업을 전제로 한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요소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인력·제도·교육·장비·연계가 서로 맞물려 작동하도록 전체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를 의료기관 중심의 사후 대응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실천적 체계로 재인식할 필요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향후에는 산업현장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교 연구를 통해 구성 요소별 개선 전략의 효과를 검증하고, 교육·장비·연계 체계의 표준화가 현장 성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논문

- 김정우, 「대·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체계 비교 분석」, 『중소기업정책연구』 6권 2호, 2021, 33-70쪽.
- 김정현, 「우리나라 재난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 현황과 과제」, 『대한의사협회지』 62권 5호, 2023, 252-257쪽.
- 박경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단의 실효성 분석」, 『국립부경대학교 인문 사회과학연구소』 26권 3호, 2025, 373-401쪽.
- 박영석·김준호·조성학, 「산업현장의 최초반응자 필요성에 대한 연구: 건설업 산업재해를 중심으로」, 『한국응급구조학회지』 26권 3호, 2022, 201-208쪽.
- 신동윤, 「산업안전보건교육 제도의 운영 실태와 개선 과제」, 『가천대학교법학연구소』 15권 4호, 2022, 57-84쪽.
- 신상도·김정연·김정순, 「사망재해 분석을 통해 본 사업장 응급의료 실태 조사」, 『대한산업의학학회지』 12권 4호, 2022, 483-493쪽.
- 이병림·최유정·유상열·최재욱, 「소규모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재난정보학회』 18권 3호, 2022, 507-519쪽.
- 이현주, 「원직복귀 산업재해 근로자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산업경영학회』 21권 10호, 2023, 167-180쪽.
- 정희다·김성현, 「초기 현장 대응을 위한 이동형 응급처치 모듈의 공간계획 기초 연구」,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31권 3호, 2025, 47-58쪽.
- 조광제·장교식,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입법학연구』 48호, 2021, 793-822쪽.
- 최아름·황정호·김진아, 「수요자 중심의 산업안전보건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산업보건학회지』 30권 4호, 2020, 364-375쪽.
- 최우재, 「안전보건경영은 어디까지 와있는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기업경영학회』 29권 4호, 2022, 87-106쪽.
- 최종국, 「건설근로자 안전보건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재난정보학

회』 21권 1호, 2025, 249-259쪽.

- Ahn, J. Y., Kim, S. H., Lee, J. H., & Choi, Y. H., 「Definition and components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A scoping review.」 *International Emergency Nursing*, 60, 2022, 100982.
- Hedberg, H., Svensson, A., Andersson, H., & Elmqvist, C., 「Effects of an advanced first aid course or real-time video communication with ambulance personnel on layperson first response for building-site severe injury events: A simulation study.」 *BMC Emergency Medicine*, vol.24 no.2, 2024, p.1-11.
- Hewett Brumberg, E. K., Douma, M. J., Alibertis, K., Charlton, N. P., Goldman, M. P., Harper-Kirksey, K., Hawkins, S. C., Hoover, A. V., Leichtle, S., Kule, A., McClure, S. F., Wang, G. S., Whelchel, M., White, L., Lavonas, E. J., & on behalf of the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d American Red Cross., 「2024 American Heart Association and American Red Cross guidelines for first aid.」 *Circulation*, vol.150 no.24, 2024, p.519-579.
- Kapucu, N., & Hu, Q., 「Network governance: Concepts, theories, and applications.」 New York, 2020, p.3-8.
- Kim, J., Lee, J., Park, S., & Choi, Y., 「Effect of on-site first aid for industrial injuries on healthcare utilization after medical treatment: A 4-year ret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Occupational Medicine and Toxicology*, vol.18 no.12, 2023, p.1-10.
- Lee, W.-T., Lim, S.-S., Kim, M.-S., Baek, S.-U., Yoon, J.-H., & Won, J.-U., 「Analyzing decline in quality of life by examining employment status changes of occupationally injured workers post medical care.」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vol.34, 2022, e17.
- Sasser, S. M., Hunt, R. C., Faul, M., Sugerman, D., Pearson, W. S., Dulski, T., Wald, M. M., Jurkovich, G. J., Newgard, C. D., Lerner, E. B., Cooper, A., Mitchell, P. M., & McSwain, N. E., 「Guidelines for field

triage of injured patients: Recommendations of the National Expert Panel on Field Triage, 2011.」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 Recommendations and Reports, 61(RR-1), 2012, p.1-20.

Sihvo, M., Hiltunen, L., & Kärkkäinen, T., 「How to evaluate first aid skills after training: A systematic review.」 Scandinavian Journal of Trauma, Resuscitation and Emergency Medicine, vol.30 no.1, 2022, Article no.56.

인터넷 사이트

산업안전보건공단 - 현장 응급대응체계 원칙 및 관리지침,

<https://oshri.kosha.or.kr/extappKosha/kosha/guidance/fileDownload.do?sflhlTchnlgyManualNo=H-57-2023&fileOrdNo=2> 2026.02.26.

법제처 - 산업안전보건법,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2026.02.26.

중앙응급의료센터 - Emergency Medical Services System 정의,

https://www.nmc.or.kr/nmc/contents/egen_roles 2026.02.26.

행정안전부 -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 및 훈련 가이드 북,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Haj5jRu91dCI6Qck1NJUTZHH.node50?bbsId=BSMSTR_000000000012&nttId=107247 2026.02.26.

■ 국문초록

산업현장은 근로자가 급성 손상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공간으로,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의 응급의료 대응은 특히 중소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의 구조를 분석하고, 체계 구성요소 중심의 관점에서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력, 제도, 교육 및 훈련, 의료 장비 및 인프라, 운영 연계성의 다섯 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구조적 한계와 연계상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산업현장에서의 실질적 대응 역량과 체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통합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산업현장, 응급의료체계, 응급처치 대응, 산업재해, 체계 기반 개선

■ Abstract

Structure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Emergency Medical Systems in Industrial Sites

Kim, Dong Hyun / Kongju National University

Industrial workplaces expose workers to a high risk of acute injuries, making effective emergency medical systems in industrial sites essential. Despite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frameworks, on-site emergency response in industrial settings often lacks practical effectiveness, especially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study analyzes the structure of emergency medical systems in industrial workplaces and examines improvement directions from a system-based perspective. Focusing on five core components—namely, human resources, institutional arrangements, education and training, medical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nd operational linkage—the study identifies structural limitations and coordination gaps. The findings highlight the need for an integrated, site-oriented emergency medical system that enhances practical responsiveness and system effectiveness.

Keyword • Industrial workplaces, Emergency medical systems, First aid response, Occupational injuries, System-based improvement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위탁에 대한 기초 연구

채 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의 인식조사
4. 연구의 결과분석
5. 결론

1. 서론

최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다양하고 새로운 유형의 다중이용업이 출현하고 있으며, 대형화 및 밀집화된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때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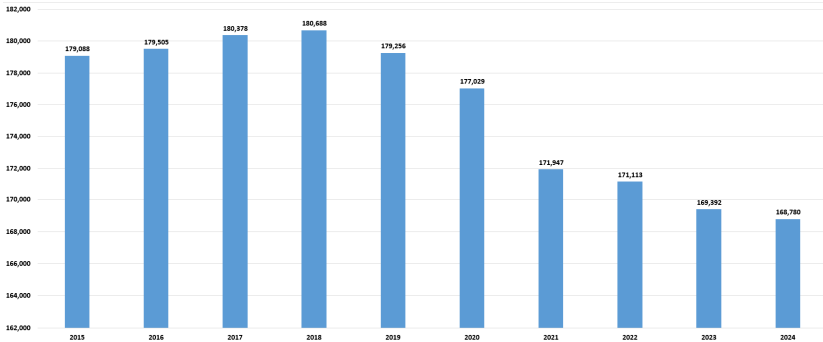
다중이용업은 휴게음식점,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의한 영업을 말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수는

*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부교수

1) 조영진·여은태·김인혁, 「화재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법의 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29권 4호, 2021, 249-267쪽.

최근 몇 년간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1> 다중이용업소 현황(2015~2024)

다중이용업소는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확대되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수반하고, 성별과 나이를 불문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기에 항상 화재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업소이다²⁾.

최근 안마시술소, 고시원, 전화방, 수면방, 실내골프연습장, 권총사격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방탈출카페업, 키즈카페업, 만화카페업 등 신종다중이용업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화재위험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고, 업소 특성상 고층화, 지하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룸(Room)의 형태로 내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복잡한 내부구조로 구획되어있다³⁾.

또한 다양한 실내장식물 설치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연소확대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상 문제점은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⁴⁾. 화재 등 재난 그 밖

2) 채진·우성천, 「다중이용업소의 효과적인 소방안전 개선방안」, 『Crisisonomy』 6권 3호, 2010, 30-44쪽.

3) 이재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권 3호 2022, 191-201쪽.

4) 하경룡·황의훈·최돈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권 4호, 2020, 87-93쪽.

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해 특별한 대책이 요구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2조(권한의 위탁 등)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령에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 미제정으로 법령 공백인 실정이다.

법률에서 소방안전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수요 증가에 따라 소방관서에서 민간위탁 없이 소집교육, 출장교육, 사이버교육 등 직접 수행하고 있어 소방관서의 교육업무 어려움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따라 교수인력·시설 등 조건 마련 후 기관·단체에 위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사자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 방식·내용·기관 선호 등 주요 기반 개선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위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의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업을 새로이 하려는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종업원은 그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⁵⁾.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교육을 받은 후에는

5) 김종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8쪽.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표 1> 참조).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표 1]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종류

종류	내용
신규 교육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수시 교육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규정을 위반한 다중이용업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영업주와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
보수교육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교육시간	4시간 이내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육수요

다중이용업소 안전교육은 신규 교육, 보수교육, 수시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음. 교육시간은 모두 4시간으로 구성되며, 교육방법은 모두 사이버 교육으로 수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과 활용)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교육 대상자가 구축된 사이버교육 시스템을 활용하여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준용하여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교육인원을 살펴보면, 1년간 총 교육인원은 80,545명이며, 신규 교육의 평균은 18,718명, 보수교육의 평균은 58,146명, 수시 교육의 평균은 582명이다(<표 2> 참조).

[표 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현황

구분	신규 교육	보수교육	수시 교육
2024	14,548	60,884	625
2023	18,413	63,958	629
2022	17,396	54,872	404
2021	18,810	60,726	475
2020	22,107	50,294	778
평균인원	18,254.8명	58,146.8명	582.2명

3)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의 소방안전교육 비용항목

교육비용은 교육 운영에 소요하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산정할 수 있다. 직접비는 강사 수당, 교육교재 제작비,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비 및 현장 실습비, 그 밖에 교육 관련 필요 경비와 같이 교육 운영 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공통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제반 인프라 구축 비용 등이 해당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의 소방안전교육에 드는 비용항목을 교육 형태별로 구분하면 <표 3>과 같다.

집합교육 및 출장교육의 강사비는 내부 인력 활용 또는 외부강사 초빙에 대한 비용, 교재비는 교재 개발비와 교육과정별 발생하는 교재인쇄비, 실습비는 교육 내용에 근거하여 실습의 적절한 차시에 대한 실습교육 비용이다.

사이버교육은 온라인 강의 콘텐츠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플랫폼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현행 사이버교육을 주관하는 한국소방안전원의 플랫폼을 활용하는 경우 플랫폼 구축비는 제외되지만, 플랫폼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표 3] 교육 형태별 소방안전교육 비용항목

교육 형태	교육 장소 및 특징	소요 비용항목
집합교육	소방관서⇨교육대상자 모집하여 정해진 일정과 장소에서 실시	강사비(내부/외부), 교재비(개발+인쇄), 실습비(완강기, 심폐소생술 등), 제반 운영비 등
출장교육	현장 방문⇨소방서 또는 교육기관이 방문 제공	강사비(내부/외부), 교재비(개발+인쇄), 교재 및 수업자료 배송 설치비, 현장 지원비 등
사이버교육	온라인⇨시간 장소 제약 없고 온라인 자율 학습	플랫폼 구축 및 운영비(인건비 포함), 콘텐츠 개발비, 플랫폼 유지보수 비용 등

※ 현행 집합교육 및 출장교육 특성상, 교육 장소 대여료는 포함하지 않음
 ※ 사이버교육 교재는 집합교육/출장교육과 동일 교재를 온라인으로 배포함

현행 사이버교육 콘텐츠는 총 6차시 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기 콘텐츠 개발비는 동영상 강의 강사비(강의 콘텐츠 설계, 원고 작성, 촬영, 송출 포함)와 전문업체 동영상 강의 제작비(촬영 및 편집, 영상 송출을 위한 제작비 일체, 스튜디오 대관료 포함)에 대한 비용이다.

전문업체의 스튜디오 촬영 및 편집을 통한 고품질 영상 제작에는 대략 2,000만원 예상된다. 사이버교육을 위한 강의 콘텐츠는 3년~5년 주기로 일부 또는 전체를 다시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종사자 소방안전교육의 인식조사

1) 설문조사 설계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전반에 대한 다중 이용업소 종사자(업주 및 종업원 등)의 화재안전 인식을 파악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인터넷 포털을 이용하여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에 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165명의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업주 및 종업원 등)가 설문에 응답했다. 본 연구의 표본 165명이 다중이용업주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참조하여 다양한 분야의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화재안전,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성,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적사항 등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대한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23.0 for Windows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수집된 자료의 분포 특성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을 실시하였는데, 수집된 자료의 전체적인 응답 경향과 분포 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평균값 분석을 통하여 전체 항목에 대한 빈도와 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산출했다⁶⁾. 그리고 데이터에 잘못 기입된 값이나 누락된 결측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 유용하며, 이는 다른 통계 분석 적용 전에 필수적인 과정이며, 특정 대상에게 치우친 연구 결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활용했다.

2) 설문의 구성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 방화문(비상문) 자동개폐장치의 인지,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인지 등, 다중이용업소 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소방안전교육의 방식, 소방안전교육 수행기관, 소방안전교육의 내용 등, 소방안전교육의 효과, 소방안전교육이 영업하는데 도움 등,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 2문항, 인적 사항으로 성별, 나이, 종사기간, 학력, 월 소득, 종사분야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통계학적 문항, 명목척도 질문, 주관식 질문 등을 제외하고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

6)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7, 613쪽.

도를 적용하여 5점 척도로 작성하였다. 설문의 구성 및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설문조사 내용

측정지표	설문내용
화재안전	관계인 및 종업원에 대한 체계적인 소방안전교육 필요성 방화문(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인지,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의 방식, 수행기관, 소방안전교육의 내용
교육효과	소방안전교육의 효과, 소방안전교육이 영업하는데 도움
개선방안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적사항	성별, 나이, 경력, 학력, 월 소득, 종사분야

3) 인구사회학적 배경

아래 <표 5>는 설문에 응답한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의 인구사회적 배경 분포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에 적절한 응답을 한 응답자는 총 165명이다.

분석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표본의 구성과 대표성을 파악하고, 이후 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응답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설문지 응답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유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중이용업소 종사자의 성별, 연령, 종사 기간, 학력, 월 소득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5>와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110명(66.7%)으로 여자 55명(33.3%)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업무 특성상 남성의 비율이 높을 수 있으며, 이는 특정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남성이 더 많이 근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55명(33.3%)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40대가 49명(29.7%), 50대가 37명(22.4%), 60대 이상이 17명(10.3%), 20대 이하가 7명(4.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40대, 50대가 주요 경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이 연령대가 많이 나타났다.

종사 기간별로는 5년 이상이 61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1년 이하가 28명(17.0%), 1-2년 미만과 2-3년 미만이 각각 26명(15.8%), 3-5년 미만이 24명(14.5%)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 졸업이 63명(38.2%)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고등학교 졸업 이하가 53명(32.1%), 전문대 졸업이 38명(23.0%), 대학원 졸업 이상이 11명(6.7%)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인구사회학적 배경

내용	분류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① 남자	110	66.7
	② 여자	55	33.3
	합계	165	100.0
연령	① 20대	7	4.2
	② 30대	55	33.3
	③ 40대	49	29.7
	④ 50대	37	22.4
	⑤ 60대 이상	17	10.3
종사기간	① 1년 미만	28	17.0
	② 1-2년 미만	26	15.8
	③ 2-3년 미만	26	15.8
	④ 3-5년 미만	24	14.5
	⑤ 5년 이상	61	37.0
학력	① 고등학교 졸업 이하	53	32.1
	② 전문대 졸업	38	23.0
	③ 4년제 대학 졸업	63	38.2
	④ 대학원 졸업 이상	11	6.7
월소득	① 300만원 미만	53	32.1
	② 300-500만원 미만	76	46.1
	③ 500-800만원 미만	21	12.7
	④ 800-1,000만원 미만	6	3.6
	⑤ 1,000만원 이상	9	5.5

월 소득별로는 300-500만원 미만이 76명(46.1%)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300만원 미만이 53명(32.1%), 500-800만원 미만이 21명(12.7%), 1,000만원 이상이 9명(5.5%), 800-1,000만원 미만이 6명(3.6%) 순으로 나타났다.

4. 연구의 결과분석

1) 화재안전에 대한 분석결과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6> 참조). 그렇다가 62명(37.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매우 그렇다가 51명(30.9%), 보통이다가 39명(23.6%)으로 응답하였다. 평균은 3.85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072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소방안전 교육의 필요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0	6.1	3.85	1.072
	② 그렇지 않다	3	1.8		
	③ 보통이다	39	23.6		
	④ 그렇다	62	37.6		
	⑤ 매우 그렇다	51	30.9		

방화문(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알고 있다가 134명(81.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모른다가 31명(18.8%)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81.2%는 방화문(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알고 있지만 18.8%는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표 7]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인지

변수	분류	빈도	비율(%)
방화문 자동개폐장치 인지	① 예	134	81.2
	② 아니오	31	18.8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8> 참조). 알고 있다가 134명(81.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모른다가 31명(18.8%)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종사자는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해 18.8%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표 8]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변수	분류	빈도	비율(%)
옥내소화전 사용방법	① 예	134	81.2
	② 아니오	31	18.8

2)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분석결과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적인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9> 참조). 비대면 교육이 84명(51%)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면 교육·비대면 교육 복합교육이 61명(37%), 대면교육이 20명(12%)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영업 등의 이유로 비대면교육을 선호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9]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방식

변수	분류	빈도	비율(%)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 방식	① 대면교육	20	12
	② 대면교육	84	51
	③ 혼합교육	61	37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을 어떤 기관에서 수행해야 교육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0> 참조). 한국소방안전원이 139명(42%)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방기관이 91명(28%), 다중이용업소 조합이 54명(16%), 위탁기관이 37명(11%), 기타가 9명(3%)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소방기본법」제40조

에 의해 설립된 소방안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소방안전원을 선호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복수응답).

[표 10]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수행기관

변수	분류	빈도	비율(%)
안전교육 수행기관	① 소방기관	91	28
	② 한국소방안전원	139	42
	③ 민간위탁기관	37	11
	④ 다중이용업소 조합	54	16
	⑤ 기타	9	3
	합계	330	10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교육에 대한 선호하는 내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참조). 화재예방 및 초기 인명대피 요령이 129명(2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가 117명(24%), 다중이용업 안전시설등의 점검방법이 106명(21%), 성인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이 74명(15%), 다중이용업 관련 법령이 69명(14%)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화재예방과 화재가 발생할 때 초기대응에 관한 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을 선호한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복수응답).

[표 1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선호 내용

변수	분류	빈도	비율(%)
안전교육 선호 내용	① 관련 법령	69	14
	② 피난방화시설	117	24
	③ 초기대응요령	129	26
	④ 응급처리	74	15
	⑤ 안전시설 점검	106	21
	합계	495	100

3) 소방안전교육에 대한 효과성 분석

최근에 받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2> 참조). 그렇다가 57명(34.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9명(29.7%), 매우 그렇다가 39명(23.6%)으로 응답하였다. 평균은 3.65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057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에 받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효과가 있는 긍정적인 평가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12]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성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안전교육 의 효과성	① 전혀 그렇지 않다	7	4.2	3.65	1.057
	② 그렇지 않다	13	7.9		
	③ 보통이다	49	29.7		
	④ 그렇다	57	34.5		
	⑤ 매우 그렇다	39	23.6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영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13> 참조). 그렇다가 51명(30.9%)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47명(28.5%), 매우 그렇다가 39명(23.6%)으로 응답하였다. 평균은 3.5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1.228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표 13]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영업 도움

변수	분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안전교육의 영업 도움	① 전혀 그렇지 않다	18	10.9	3.50	1.228
	② 그렇지 않다	10	6.1		
	③ 보통이다	47	28.5		
	④ 그렇다	51	30.9		
	⑤ 매우 그렇다	39	23.6		

4) 소방안전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조사하였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안전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으며, 체험·실무 중심 교육을 원하며, 이론·법령 위주의 교육은 지루하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 시간과 주기에 대해 과다·부족 모두 불만이 존재하며, 주기적·간소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인터넷 활용과 시스템 불편, 고령자·자영업자의 접근성 문제가 크다. 일부는 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 요구가 강하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개선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은 영상 조회 등으로 대체하고 핵심만 짧게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반복적이고 진부한 이론보다 실전 중심·체험형 교육을 선호한다. 최신 사례와 콘텐츠 개발, 법 위반 내용 안내 등 실무적 내용 강화가 필요하고, 모바일 오류 개선, 교육 접수·안내 체계화 등 편의성 보안을 요구한다. 교육 횟수·시간 단축과 간소화를 통해 현장의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

5) 소결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인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평균이 3.85로 나타나, 대체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의 방화문(비상문) 자동개폐장치에 대해 81.2%가 알고 있었다. 옥내소화전 사용방법에 대해 81.2%가 알고 있었으나 18.8%가 모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효과적인 방식에 대해 비대면 교육(51%)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대면과 비대면 복합교육을 37%가 선호하고 있었다.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교육 기관에 대해 42%가 한국소방안전원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선호하는 소방안전교육의 내용에 대해 화재에

방 및 초기 인명대피요령이 2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가 24%로 나타나 향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효과성에 대해 평균이 3.65로 나타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영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평균이 3.50으로 나타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문제점은 소방안전교육이 형식적이고 이론·법령 위주의 교육은 지루하다는 지적이 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개선사항은 실전 중심·체험형 교육을 선호하고, 최신 사례와 콘텐츠 개발, 법 위반 내용 안내 등 실무적 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크며, 영업장 구조 특성상 고층화·지하화·구획 구성, 가연성 내장재 사용 등이 복합되어 초기 대응 실패 시 대형화재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⁷⁾.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소방안전교육은 단순한 법정 의무를 넘어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은 교육 위탁을 허용하는 근거만 존재할 뿐,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 미제정되어 위탁기관 지정·시설기준·강사기준 등 핵심 요소가 제도화되지 못한 상태이며, 그 결과 소방본부 및 소방서가 교육을 직접 수행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교육 전문성·운영상 효율성·품질관리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법적·운영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 위탁의 법적 근거를 현실에 맞

7) 박종근,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 사각지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34권 3호, 2019, 89-95쪽.

게 정비하고, 위탁기관 지정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설문조사에서도 현장의 요구는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 방식에 대한 선호는 비대면(51%)과 대면·비대면 혼합교육(37%)이 압도적으로 높아 영업시간·근무형태·업종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콘텐츠 선호도 또한 이론 중심이 아닌 문제해결형(26%), 체험형·혼합형 콘텐츠(43%)가 다수를 차지하여, 기존의 법령·절차 위주 교육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무 중심 전환 요구가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 내용 측면에서는 초기 진압과 피난 중심의 핵심 행위 즉, 초기대응, 피난유도, 응급처치, 안전시설 점검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실제 화재가 발생할 때 생존 가능성을 좌우하는 기술·행동 역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적 반영 가치가 높다.⁸⁾

따라서 제도 개선 방향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도출될 수 있다. 첫째, 법·제도 기반 구축으로 전문기관 위탁, 기관 지정기준, 교육과정 승인제, 강사 인증제, 품질관리체계(QMS) 도입 등을 제도화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⁹⁾. 둘째, 교육과정의 실무성과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교육은 실습 중심, 보수교육은 비대면 및 혼합형을 허용하고, 수시교육은 위반 업소 대상 집중교육으로 분리하는 교육 모델 재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교육 인프라와 접근성 보완을 위해 모바일 기반 교육, 예약·수강 시스템 개선, 고령자·자영업자 접근 지원, 사례 기반 콘텐츠 개발 등 사용자 경험 개선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¹⁰⁾.

또한 설문 결과에서 교육 효과성 평균 3.65점, 영업 기여도 평균 3.50점

8) 김종하·고권현·김상희,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권 5호, 2014, 65-76쪽.

9) 김영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5권 2호, 2009, 10-21쪽.

10) 전병관·이성원,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탐색적 연구」, 『산업융합연구』 16권 4호, 2018, 27-32쪽.

이 나타난 바와 같이 교육의 효용은 이미 일정 수준 확보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향후 제도 전환 이후에는 단순 이수 확인이 아닌 성과평가 체계를 도입하여 콘텐츠의 최신성, 실습 참여도, 현장 적용도 등을 평가하는 성과평가 기반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이 형식적 이수 중심에서 벗어나 실질적 대응 역량 향상을 목표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적 측면에서는 다중이용업종 안전관리 수준 향상과 재난 대응 비용 절감 효과, 영업 현장에서는 안전역량 확보와 영업 리스크 감소라는 이중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단행본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법문사, 2017.

논문

김엽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5권 2호, 2009, 10-21쪽.

김종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대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산업과 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8쪽.

김종하·고권현·김상희,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작성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0권 5호, 2014, 65-76쪽.

박종근, 「신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 사각지대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안전학회지』 34권 3호, 2019, 89-95쪽.

이재욱,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사례 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 『문화기술의 융합』 8권 3호, 2022, 191-201쪽.

전병관·이성원, 「화재예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탐색적 연구」, 『산업융합연구』 16권 4호, 2018, 27-32쪽.

조영진·여은태·김인혁, 「화재예방을 위한 다중이용업소법의 제도적 개선방안」, 『법학연구』 29권 4호, 2021, 249-267쪽.

채진·우성천, 「다중이용업소의 효과적인 소방안전 개선방안」, 『Crisisonomy』 6권 3호, 2010, 30-44쪽.

하경룡·황의홍·최돈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방재학회논문집』 20권 4호, 2020, 87-93쪽.

■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현행 제도 및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사자 인식조사 결과를 통해 교육 방식·내용·기관 선호 등 수요 기반 개선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의 위탁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한다. 연구 결과는 첫째, 전문기관 위탁, 기관 지정기준, 교육과정 승인제, 강사 인증제, 품질관리체계 도입 등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둘째, 신규교육은 실습 중심, 보수교육은 비대면 및 혼합형을 허용하고, 수시교육은 위반 업소 대상으로 교육모델 재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모바일 기반 교육, 예약·수강 시스템 개선, 고령자·자영업자 접근 지원, 사례 기반 콘텐츠 개발 등의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주제어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육모델, 교육기관 위탁, 콘텐츠 개발

■ Abstract

A Study on Entrusting Safety Education to a Specialized Training Institution for Multi-Use Facilities

Chae, Jin /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ystem and operational status of fire safety training in multi-use facilities, as well as its challenges. Furthermore,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f employee perceptions, this study identifies demand-driven improvements, including training methods, content, and institutional preferences. Based on this, this study presents basic data for outsourcing fire safety training in multi-use facilitie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e following: First, institutionalization of outsourcing to specialized institutions, institution designation criteria, curriculum approval systems, instructor certific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a quality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Second, the training model should be redesigned to focus on practical training for new training, allow for remote and hybrid training for continuing education, and target non-compliant businesses with ongoing training. Third, the training model should include elements such as mobile-based training, improved reservation and attendance systems, accessibility support for seniors and the self-employed, and the development of case-based content.

Keyword • Multi-use facilities, fire safety education, education model, outsourcing to educational institutions, content development

■ 논문투고일:2026.01.15. ■ 심사완료일:2026.03.10. ■ 게재확정일:2026.03.19. ■

학생 교복비 지원 방법에 대한 인식도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세종시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김 창 길*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인식도 분석 및 논의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서론

교복(校服)은 학교에서 일정한 학칙을 정해 학생들에게 입히는 제복으로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가장 오랜 시간 착용하는 의복이다. 또한 교복은 같은 연령층, 같은 학교, 같은 목적 하에서 단체 행동의 통일을 이루고 그 안에서 개인의 역할을 지각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교복은 일반제복이 가진 목적, 기능 외에도 교육적 효과를 가져 의복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을 막고 의복을 통일함으로써 착용자의 신분을 명확히 인식하여 소속감과 공동 의식을 고취시켜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의도한다¹⁾.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고가의 교복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으며, 매년 학기 초가 되면 대학 등록금 이슈와 중고등학교의

*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조교수

1) 권수애, 『의복과 인체의 환경적응』, 교학사, 2003, 14쪽.

교복비 이슈가 학부모(학생) 부담경비로 언론에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일부 브랜드 교복업체들이 유명 연예인을 내세운 고비용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그 비용을 제품 가격에 전가하면서 학생 교복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문제로 연결되었다. 이에 따라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교육부)의 교복시장에 대한 정책 개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고가 교복 문제에 대한 첫 대응 조치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비교하여 공동 구매를 추진하는 “학부모 자율 공동구매제”를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였다.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교복 시장의 정부 개입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형평성 제고와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이라는 교육복지의 보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하였다²⁾. 시도교육청별로 2014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를 도입·정착시키며(2015년 전면 시행), 학교가 주도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표준 규격·품질을 관리하도록 체계를 갖추었다. 이 제도는 개별 구매 시 발생하던 과도한 브랜드·전용판매 문제를 완화하고, 평균 교복가격을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지역 차원에서는 무상교복이 보편적 교육복지의 상징 정책으로 확산되었는데 특히 2015년 경기도 성남시의 정책연구를 계기로 무상교복의 경제·사회적 효과(가계부담 경감, 학교문화·형평성 개선,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체계적으로 논의되었고, 이후 다수 시도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이 확대되었다³⁾. 이후, 2019년경을 기점으로 무상교복(현물 중심) 정책이 전국적으로 본격화되었고, 일부 시·도는 조례 제정 등으로 제도 기반을 강화하였다.

한편, 지원방식의 다변화도 중요한 역사적 흐름으로 현물 중심의 무상교복이 가격안정과 품질관리 측면의 장점을 갖는 반면(학교주관구매), 선택권 제약·행정부담 문제가 지적되면서, 현금·바우처 등 선택형 지원으로

2) 교육부, “교육부-교복 업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협약 체결 보도자료”, <https://link24.kr/6ByYMWd>, 2014.08.25.

3) 경기도 성남시, 「중학생(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 『성남시 맞춤형 정책연구』, 2015, 15-21쪽.

보완하려는 시도가 등장하였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2021학년도부터 ‘입학준비금’을 도입하여 교복·생활복·체육복·스마트기기 등 학생·학부모 수요에 따른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편안한 교복’ 정책과 교복 자율학교와의 형평 논란을 해소하려 하였다. 본 연구 대상지인 세종시교육청의 맥락에서도, 교복비 지원은 2018학년도(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부터 현물 무상교복비를 지원하였고, 2023학년도 무상 체육복 지원(2025학년도 13만원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2022.11.14.)하였다⁴⁾. 세종시교육청을 비롯한 타교육청에서도 현물지원의 장점(가격상한 통한 억제·품질관리)과 한계(품질 만족도·업무가중), 현금·바우처의 장단(선택권, 용도관리, 정산 등)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며 학생·학부모의 수요자 중심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시도교육청의 교복비 지원은 ①의무교육 단계 공공성 강화와 교육격차 완화 ② 학부모(학생)의 입학초기 교육비 부담 경감 ③ 학교문화의 형평성 제고라는 목적 아래 학교주관구매(현물) 방식에서 혼합·선택형(현금·바우처)으로 정책도구가 다 변화되어 온 역사적 경로를 형성해 왔으며, 세종시는 이러한 전국적 흐름 속에서 현행 체계의 강점을 유지하되, 수요자 선택권, 행정 효율, 정책 지속가능성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지원체계 정교화가 요구되고 있다⁵⁾.

시도교육청의 학생 교복비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복 지원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었다. 교육부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 도입(2014)을 위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선 재정적 측면에서는 교복비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이 수업 환경 개선이나 교육시설 확충보다 우선될 수 있는지에 관한 비용-편익, 교복비 지원에 따른 만족도 및 기회비용 논의가 제기되었으며,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복 착용률이 미미하고 만족도 또한 낮다고 판단하여 계속적인 재정 투입 여부의 불확실성과 이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실정이다⁶⁾.

4) 세종시교육청, “2025 학생 교복비 지원계획”, <https://link24.kr/7QNrEKU>, 2025.12.31.

5) 교육부, “행복한 교육 매거진”, <https://happyedu.moe.go.kr/>, 2025.12.31.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세종시교육청 관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가 세종시교육청 사례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기관(교육청)의 규모는 17개 교육청에서 학교수와 학생수가 가장 작으나 광역단위 교육청으로 중앙정부의 각종 정책을 파일럿 테스트하여 일반화하는데 최적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세종은 교복을 현물(학교 주관 구매)로 지원하면서도 체육복은 현금성(제로페이) 방식으로 지원하는 ‘혼합형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현물·현금성의 장단이 동시에 나타나는 정책 환경을 갖는다. 셋째, 교복비 지원이 세종시청 지원재원과 연계되는 구조적 특성상, 전달방식 변경 논의가 재정 지속가능성·성과관리와 결합되는 전형적 사례로서 분석 가치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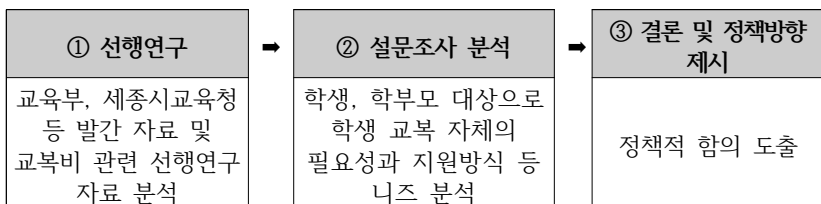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세종시교육청 교복비 지원정책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다음 연구 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복비 지원방식(현물지원과 현금성[바우처] 지원)에 대한 수요자 인식과 선호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현물지원에서 제기되는 브랜드·품목 선택권 제한에 대한 평가와, 현금성(바우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수요를 확인한다. 둘째, 학생의 교복 착용 실태와 태도를 분석한다. 즉, 실제 착용 빈도(착용률)와 함께 교복 착용의 필요성 및 만족도를 측정하여, 교복 착용이 갖는 교육적·생활적 의미를 점검한다. 셋째, 교복비 지원이 학부모의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 미친 영향을 인식 수준에서 확인한다. 이를 통해 지원정책의 체감 효과를 파악하고, 향후 전달방식 개선 논의의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방법으로 [그림 1]과 같이 선행연구를 통해 현물지원방식과 현금성 지원방식의 교복비 지원을 분석하고, 학생·학부모가 인식하는 교복비지원과 교복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선행연구는 교육부와 세종시교육청 발간자료와 교복 관련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하

6) 교육부, “교육부-교복 업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협약 체결 보도자료”, <https://link24.kr/6ByYMWd>, 2014. 08.25.

였으며, 설문조사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단위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인식도를 측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학교 현장에 적합한 교복비 지원방식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교복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형평·자율·공공성·지속가능성’이라는 시민적 가치가 충돌·조정되는 정책 이슈이다. 본 연구는 학생·학부모의 실제 인식을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교양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성(civic literacy)과 공공문제 해결 역량(데이터 기반 판단, 정책 대안의 비교, 공공재정과 형평의 이해)을 구체적 사례로 학습할 수 있는 실증 근거를 제공한다.



[그림 1] 연구 흐름도

2. 이론적 배경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학생 교복비 지원 관계 및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학생 교복비 지원 관계

본 연구의 목적인 교복비 지원체계·방법 개선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로 정의된다⁷⁾. 즉 국민의 전반

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사회복지서비스 개념과 비교 시 보편적·포괄적이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Gilbert와 Terrel은 4개의 분석틀을 제시하였다⁸⁾. 첫째, 배분(할당, allocation)으로 누가 혜택을 받을 것인가?,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에 대한 논의이다. 둘째, 전달방식(delivery system)으로 어떤 전달체계로 제공할 것인가? “현금, 현물, 바우처 등”이다. 셋째, 재원·재정(finance)으로 재원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공공재원(시청과 교육청의 분담 비율), 민간재원(이용자 부담, 기부·후원금 등), 기타 재원 방식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분석 틀 중에서 본 연구의 초점은 특히 두 번째 ‘전달방식’ 부분에 맞추어져 있다. 지금까지의 교복비 지원은 현물 형태의 급여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요구 등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 등 다양한 방식의 급여체계 도입을 고민하는 것이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고려해야 할 주요한 원칙은 다음과 같다⁹⁾. 첫째, 통합성의 원칙으로 이는 서비스 이용자의 복합적인 문제나 욕구 충족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서비스 제공 장소의 상호근접, 서비스 간 상호 유기적 협조와 연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둘째, 책임성의 원칙으로 전문적이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으로 서비스 품질에 관한 규정 준수, 이용자 불만 수렴 및 서비스 개선 모니터링 등이 포함된다. 셋째, 접근성의 원칙이므로 서비스 이용자가 장애 없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리적 위치에 있어야 하며, 이용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서비스 정보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넷째, 연속성의 원칙은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기간

7) 최상미·김아래미,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20, 89-95쪽.

8) 남찬섭·조성은·김기태·민기채·김수정,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지식공동체, 2020, 42-44쪽.

9) 황성철·정무성·강철희·최재성,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2014.

계속 제공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 시간적 연속성 외에도 조직 간 서비스의 연계 정도도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적절성(충분성)의 원칙으로 이는 이용자의 문제해결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 적절하거나 충분한 양과 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을 학생 교복비 지원 사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특히 책임성의 원칙 차원에서 본 연구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다. 즉 현재 지원되고 있는 교복비 지원 사업이 이용자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와 만족도를 체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향후 사업 추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될 수 있다. 또 교복비 지원 대상인 학생 당사자와 학부모 등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서비스의 지속적인 이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접근성 향상의 차원에서도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복비 지원 사업의 적절성과 충분성 측면에서는, 현재 지원체계에서 발생하는 교복비 지원의 품질과 지원 규모의 충분성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2) 측정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책임성·접근성·연속성·적절성/충분성)을 ‘교복비 지원’에 적용하여, 각 원칙을 설문 문항과 분석 변수로 조작화하였다. 구체적으로 책임성은 지원방식에 대한 수요자 만족(학생: 현물지원 만족도, 학부모: 현물지원 만족도) 및 운영과정에서의 불만 요인(자유서술/다중응답에서 나타난 선택권 부재·불친절·독점 등)으로 정의하였다. 접근성은 교복(현물)과 체육복(현금성/바우처)으로 분절된 구매·정산 절차에 대한 혼선 및 이용 편의 문제(특히 앱 기반 결제에서의 이해·이용 부담)로 정의하였다. 연속성은 전·편입(추가구입) 및 교환·A/S 등 사후관리의 지속적 제공 필요(재사용·물려입기 의사 포함)로 정의하였으며, 적절성(충분성)은 교복비 지원이 가계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인식(학부모 부담 완화 인식)과 지원구성(정장형·생활복·체육복)의 실사용 적합성(학생 착용 필요/불필요 사유)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교복비 ‘전달 방식’ 논의는 단순히 현물과 현금의 선호를 묻는 수준을 넘어, 위 원칙별로 서비스 경험(만족·편의·사후관리·충분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해석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2) 학생 교복지원비 지원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학생 교복에 대한 선행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 먼저, 학생 교복비 지원 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효용성에 대한 시도교육청 차원의 정책연구가 있으며, 다음으로 학생 교복 착용의 태도와 변형 행동 관련 선행연구로 구분된다.

먼저 학생 교복비 지원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 간 위화감을 완화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논의되어 왔다¹⁰⁾. 이 범주의 선행연구는 (1) 지원의 법·제도적 정당성, (2) 지원 집행의 전달체계(학교·지자체·업체) 설계, (3) 수요자(학생·학부모) 관점의 운영 내실화에 초점을 둔다. 첫째, 경기도교육연구원 정책연구는 성남시 중학생(신입생) 무상교복 정책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의 타당성(사회경제적 효과 포함)과 제도 설계의 쟁점을 함께 검토하였다¹¹⁾. 특히 이 보고서에서는 국가·지자체의 교육복지 의무(교육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무상교복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방식은 “현물 지급”과 “현금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되 현행 교복구매 구조(예: 학교주관구매)의 유형을 고려해 결정해야 함을 강조한다. 또한 집행 단계에서는 계약·지급 주체(학교/지자체/업체) 설정에 따라 법적·행정적 부담이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예컨대 공동구매 상황에서 지자체가 업체에 직접 지급할 경우 계약 절차 부담이 커질 수 있어 학교를 통한 지급 등 부담 최소화 방안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교복은행(중고교복) 연계, 지역 사회적경제조직 활용 등 ‘1회 지급’ 이후의 추가구입 부담까지 포괄하는 생애주기형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둘째, 교육복지우선지원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교복비 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2024.

11) 경기도 성남시, 『중학생(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5-21쪽.

사업(교복우사업 포함) 운영 과정 연구는 교복 지원이 취약계층 교육복지의 ‘사업 운영’ 맥락에서 어떻게 집행·조정되는지를 사례(면담) 기반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는 교복우사업이 시·도 자율사업으로 이양된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모델을 형성해야 하는 전환기에 학교·지역 단위의 미시적 운영 분석과 시사점 도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며¹²⁾, 면담조사를 통해 계획수립-추진체제-의사소통-프로그램 운영-연계협력 등 운영과정 전반을 정책 설계의 핵심 변수로 본다. 아울러 교복비 지원(교육복지) 사업이 학교 중심·지역사회 지원의 교육공동체 구축을 지향해 왔음을 상기시키며 교복비 지원체계 개선 논문에서는 ‘지원금’ 자체뿐 아니라, 학교·지역 협력 거버넌스와 전달·운영 역량을 함께 다루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¹³⁾은 “학생 교복비 지원 내실화”를 목표로 교복 착용·인식 및 지원정책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문헌 고찰·설문·면담 등), 교원 대상 설문 문구에서도 “교복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견 수렴을 명시한다. 특히 정책대안으로 지원 금액의 현실화, 교복+체육복 동시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현금성 포인트 필요성을 제언하는데 이는 지원대상·지원품목·지급수단을 묶어 ‘패키지형(교복+체육복)·선택형(현물/바우처)’ 전달체계로 발전시키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두 번째 교복 착용 태도·만족·변형행동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 범주의 연구는 교복비 지원의 “필요성”을 비용 부담 완화에만 두지 않고, 착용 만족·착용률·규정 준수·변형행동 등 학생 경험 변수를 통해 정책 성과를 설명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2024)은 착용률 저하 원인으로 디자인/매력 부족, 불편, 실용성 결여 등과 함께 정책적으로는 바우처·현금성 포인트 요구가 제기됨을 정리한다¹⁴⁾. 첫째, 의복추구혜택-교복착용

12) 김민희,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과정 사례 분석」, 『열린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2012, 170-175쪽.

1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교복비 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2024.

1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교복비 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2024.

태도-교복만족도 연구는 청소년기의 교복 만족이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전제로, 의복추구혜택 및 교복착용 태도가 교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¹⁵⁾. 이 연구는 교복 반대 이유로 “착용감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그 대안으로 원단·디자인·치수 개선 및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등 정책적 개선점을 제시한다. 즉 교복비 지원은 단순 현금 이전을 넘어, 품질·디자인·편의성 개선과 연동될 때 만족과 착용행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고등학생 의복 및 교복착용 태도 연구는 고등학생 762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 등을 통해 의복태도(예: 유행·모방, 몸매강조, 단정)와 교복착용 태도(예: 활동성, 안정감, 실용성)를 도출하고, 성별·학교유형 등 배경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였다¹⁶⁾. 이는 지원체계 개선 연구에서 “학생 집단의 이질성(학교유형/성별/성적 등)”을 고려해 교복 구성(디자인·활동성 중심 설계) 및 지원 방식(선택권, 품목 구성)을 설계할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셋째, 교복 변형행동 연구는 교복 변형이 미치는 영향과 인식을 탐구하며, 과도한 변형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보다 독립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¹⁷⁾. 경험자(20대) 82명 서술형 응답 분석 결과, 변형행동에 대해 긍정 인식(65.86%)이 부정 인식(34.14%)보다 높게 나타났고 영향력 측면에서는 교복 사이즈 축소의 일반화, 규정 실효성 저하, 선정적 광고 확산 등이 부정적 영향으로 정리된다. 또한 무조건적 제재는 갈등을 심화할 수 있어 합리적 기준 설정과 학생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는 교복비 지원체계가 ‘지급’에 그치지 않고, 착용규정·인권·생활지도·소통 구조와 함께 설계되어야 정책 효과(착용률·만족도)가 담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
- 15) 김하영·박명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추구혜택과 교복착용 태도의 관계 및 교복착용 태도가 교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3, 47-61쪽.
 - 16) 김주애, 「고등학생의 의복 및 교복착용 태도」,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제19권 제3호, 2013, 136-145쪽.
 - 17) 김장현,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영향력과 인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1호, 2021, 152-162쪽.

중·고등학생 교복 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비교 대상으로 교복 착용 실태와 만족도를 다룬 실증 연구로 정리된다¹⁸⁾. 또한 다수 문헌은 교복 변형 경험이 40% 이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며, 교복 변형에 대해 “개성 발현” 관점에서 학생 시각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경향을 제시하였다. 즉 ‘착용 실태·만족’ 연구는 지원체계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착용률 제고 및 만족도 개선의 평가지표(성과지표) 설계에 직접 연결된다. 이상의 내용을 [표 1]과 같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교복비 지원(정책)과 교복 착용 태도·인식에 대한 선행연구 요약

구분	연구 (저자, 연도)	핵심 결과·시사점 (지원체계 개선 관점)
교복비 지원 (정책)	이승준 외(2015)	- 법적 근거 하에 현물/현금 등 다양한 방식 가능하되 교복구매 구조 고려 필요 - 집행은 계약·지급 주체 설계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 학교를 통한 지급 등 부담 최소화 필요 - 교복은행 연계 등 추가구입 부담까지 포함한 ‘확장형 지원’ 제안
	김민희(2012)	- 시·도 자율 이양 이후 미시적 운영 분석 필요 - 전달체계 개선은 ‘운영역량·협력거버넌스’까지 포함해야 함(학교 중심·지역사회 지원 맥락)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2024)	- 지원금액 현실화 및 교복+체육복 동시구매 바우처/현금성 포인트 필요 - 착용 활성화는 학생·학부모 참여, 디자인·편의성 개선, 인식 개선 활동과 연동
착용태도/ 만족	김하영·박명자 (2013)	- 교복 반대 이유로 착용감 불편이 핵심이며, 원단·디자인·치수 개선 및 학생/학부모 의견 반영 제안 - 지원정책은 품질·편의성 개선과 결합될 때 효과 강화

18) 이지민·구영석·이정란,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한국의류 산업학회』 제11권 제5호, 2009, 55-66쪽.

	김주애(2013)	▸ 학생 집단 특성에 따라 중시 가치가 달라짐 ▸ 지원체계 설계에서 ‘집단별 수요(활동성/실용성 등)’ 반영 필요
	김장현(2021)	▸ 긍정 인식이 더 높음(65.86%), 부정적 영향(사이즈 축소 일반화·규정 실효성 저하·선정적 광고) 지적 ▸ 제재보다 합리적 기준·소통 필요
	이지민·구영석·이정란(2009)	▸ 후속 문헌에서 교복 변형에 대한 학생 시각이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근거 문헌군에 포함 ▸ 착용률·만족도 지표를 지원정책 성과평가에 연계 가능

3) 세종시교육청 교복비 지원 현황

세종시교육청은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모든 학습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핵심 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¹⁹⁾. 교육복지는 단순한 소득 재분배 차원을 넘어, 모든 학생이 존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육 환경과 필요 요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시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의 특징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동시 추구(모든 학생 대상이면서 사회적 배려계층을 우선 고려)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지원 체계 구축 △학교 현장의 자율성과 학생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며, 세종시교육청의 교복비 지원 정책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중·고 신입생과 전입생 전원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방향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학생 간 외형적 격차 완화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징적으로, 교복비를 344,550원(2025년 기준) 범위 내에서 현물로 무상 지원함과 더불어 체육

19) 세종시교육청, “2025 학생 교복비 지원계획”, <https://link24.kr/7QNrEku>, 2025.12.31.

복을 무상 현금성으로 구매비용(제로페이 방식, 2025학년도 기준 13만원)을 지원하고 있다²⁰⁾.

4) 타시도 교육청 및 국외 교복비 지원 사례

(1) 타시도교육청의 교복비 지원 현황

충남교육청의 교복비 지원은 그간의 현물지원이 학생·학부모의 브랜드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2026학년도부터 현금성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여전히 재원이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 재원으로 다양하여 기존 현물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학교주관 교복구매 제도를 도입하여, 2019년 무상교복 시행 이후 축적된 제도를 바탕으로 ‘획일적 정장형·일괄 지급’에서 선택·유연성·실용성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교복비 현물 지원의 틀을 유지하되 학교 자율성과 수요자(학생·학부모)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 6피스 교복 기본제공 형태에서 선호 빈도가 높은 품목 자율선택, 비정장형 생활복 중심의 선택 허용 등 실용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중·고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40만 원 상당의 학교 규정 단체복(교복·생활복·체육복 등)을 기존 현물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현물 교복비 지원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학생 선택권 제약, 품질 저하 등이 있지만 그렇다고 현물지원으로 전환할 경우 교복비 단가 상승의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기에 교복비 지원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현행 현물지원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의 경우 2020년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금성으로 교복비를 지원하였으나 정부의 교복비 인상을 상한제²¹⁾와 제도상 충돌로 현행 현물지원으로 전환한 사례도 있다. 이

20) 세종시교육청 누리집(www.sje.go.kr), 세종시교육청 2024년도 교복비 지원 결산 현황(11,248명 3,786,967천 원 지원, (중) 27교 5,887명 1,986,164천 원 (고) 23교 5,361명 1,800,803천 원.

2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전년 대비 교복비 인상률을 정하여 과도한 교복비로 인해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

상과 같이 시도교육청의 교복 개념의 범위, 지원방법 및 지원금액은 [표 2]와 같다.

[표 2] 시도교육청별 교복비의 범위 및 지원 금액 현황(2025년 기준)

시도 교육청	교복의 범위(근거: 각 시도교육청 조례)	지원 금액
세종	‘교복 등’이라고 지칭하여, 교복과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생활복 및 체육복 포함, 교복은 현물지원, 체육복은 현금성지원	교복: 30만 원 체육복: 12만 원
서울	교복비 1인당 30만원 범위내 현물지원, 교복비 지원 미선택하는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학용품 등 자물 구입	초: 20만 원 중·고 30만 원
부산	중: 교복 및 체육복이라고 지칭 고: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교복의 정의 불필요, 현물지원	30만 원
인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으로 개별 학칙으로 정함, 현물지원	31만 원
대구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음, 현물지원	30만 원
대전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음, 현물지원	30만 원
울산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음, 현물지원	30만 원
경기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음, 현물지원	40만 원
강원	교복은 학생들이 입는 단체복을 말하며, 체육복과 생활복을 포함, 현물지원	34.5만 원
충북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음, 현물지원	34만 원
충남	교복(동복·하복), 체육복, 생활복 포함, 중학생은 현금성지원	중: 32만 원 고: 시군별 상이
전북	학교규칙으로 정한 모든 단체복, 편안하게 입도록 정한 단체복, 현물지원	33.9만 원
전남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음, 현물지원	34.4만 원
경북	교복 개념에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음, 현물지원	20만원~30만 원
경남	생활복과 체육복을 포함하지 않음, 교복 미착용 시 일상복이라고 지칭, 현물지원	33만 원

※ 출처: 시도교육청 누리집 공개자료(2025. 10. 1. 기준)

(2) 국외 교복비 지원 현황

국외의 교복비 지원은 대체로 현금성(보조금·환급)과 현물형(교복·교재 무상 지급)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교복을 단독 품목으로 한정하기보다 체육복·학습활동비·교재비 등 ‘교육비 패키지’로 확장되는 경향이다. 특히 지원방식(현금/현물), 지원대상(보편/선별), 재원·운영주체(중앙정부/지방정부/학교/민간)에 따라 제도의 정책효과와 운영상 쟁점(형평성, 행정비용, 품질관리, 낙인효과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비교 검토의 의미가 있다. 먼저 영국의 웨일스 등 일부 지역은 저소득 가구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현금성 그랜트 방식을 운영한다²²⁾. 웨일스의 경우 2018년 기존 ‘교복그랜트’를 PDG-Access(현 School Essentials Grant)로 전환·확대하여, 교복뿐 아니라 체육복 및 학습활동 관련 비용까지 지원범위를 넓힌 바 있다. 지급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에 계좌이체 등 현금성 지원으로 제공하며, 학년별로 지원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관찰된다(예: 초·중등 다수 학년에 일정 금액, 중학교 신입학 학년에 증액 등). 또한 런던 타워햄릿츠 구(Tower Hamlets)처럼 지방자치단체가 School Clothing Grants를 운영하되 가구소득 기준(예: 연간 50,350파운드 이하 등)을 충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등, 보편지원이 아닌 선별지원 모델이 병존한다²³⁾. 이러한 현금성 모델은 가계가 체감하는 비용 부담을 직접 낮추는 장점이 있으나, 지원기준의 적정성(소득 경계선), 지원금액의 현실화, 정기적 단가 조정의 필요성이 제도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기된다. 싱가포르의 학교 기반의 현물형 지원을 대표하는 사례로, 교육부(MOE)의 Financial Assistance Scheme(FAS)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수업료 감면뿐 아니라 교과서·교복 무상 제공, 급식 및 교통 보조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²⁴⁾. 특히 교복은 학교 판매처 등을 통해 규격과 품질을 통

22) 영국 웨일즈 교복제도, “맨섬 부서 교육, 스포츠 및 문화”, <https://link24.kr/8Ixe9LN>, 2025.12.31.

23) 영국 런던 교복제도, “학교 의류 보조금”, <https://link24.kr/9iHhzwj>, 2025.12.31.

제한 상태로 현물 지급이 이루어져, 지원대상 학생의 가계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교복의 품질·착용의 통일성을 확보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방식은 현금성에 비해 사용처의 목적 합치성이 높고 품질관리 측면에서 강점이 있으나, 대상자 선정 및 배포·재고·교환 등 운영절차의 효율성이 성패를 좌우한다. 일본은 의무교육 단계(초·중)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就学援助(취학원조)’를 통해 학용품비, 수학여행비 등 수업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그중 ‘신입생 준비비(입학준비금)’를 활용해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 등 초기비용을 현금으로 보조하는 방식이 확산되어 있다(일부 지자체는 체육복·유도복 등 체육복장 비용까지 포함)²⁵⁾. 일반적으로 소득심사를 거쳐 월별 학용품비를 지원하거나, 입학준비금(예: 6만 엔대 안내 사례 등)을 환급·이체하는 구조를 갖는다. 즉 일본 사례는 중앙재원이 일부 보조되더라도 실제 설계·집행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분권형 현금지원의 성격이 강하며, 지역별 지원수준과 품목 범위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서울시교육청의 입학초기 일정 금액을 교복을 포함한 입학준비금 지원 형태와 유사하다. 마지막으로 호주는 공공재원 중심의 제도와는 결이 다른 사례로, 비영리단체인 The Smith Family 등이 저소득 가구 아동의 교육비 전반을 지원하는 방식이 알려져 있다²⁶⁾. 이 모델은 교복을 단독으로 특정하기보다 교복·교과서·학용품은 물론 방과후 멘토링 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현금성 지원에 가깝다. 따라서 교복비 지원을 교육복지 체계 안에서 어떻게 “다품목”으로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공공부문이 민간지원과 어떤 방식으로 연계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외 사례는 현금성 모델이 가계의 선택권과 즉각적 부담 경감을 강점으로 가지는 반면, 현물형 모델은 목적합치성과 품질·규격 통제를 통해 정책 일

24) 싱가포르 교복제도, “학교 의류 보조금”, <https://link24.kr/jb3yNa>, 2025.12.31.

25) 일본 교복제도, “문부과학성”, <https://link24.kr/5UJWozo>, 2025.12.31.

26) 호주 교복제도, “호주교육제도”, <https://www.education.wa.edu.au/home>, 2025.12.31.

관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또한 일본·영국 일부 지역처럼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지역 간 편차 관리가 중요해지고, 싱가포르처럼 학교 또는 정부가 현물 공급을 담당할 경우 공급·배포 체계의 안정성과 행정비용이 관건이 된다.

3. 인식도 분석 및 논의

본 연구는 2025년 세종시교육청에서 관내 학교의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복비 지원 관련 내부 통계 자료²⁷⁾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학생·학부모 대상 설문(내부 통계 자료)을 활용한 2차 자료분석(secondary data analysis) 연구이다. 즉, 기존 행정조사 자료를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기술통계 및 집단 비교를 수행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정책진단형 연구로 진행하였다.

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은 [표 3]과 같이 전체 학생 1,653명(남 794명 48.0%, 여 859명 52.0%)이며, 학부모는 696명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연구대상자 특성

학생(명)			학부모(명)		
남	여	계	중학교	고등학교	계
794(48.0%)	859(52.0%)	1,653(100.0%)	500(71.8%)	196(28.2%)	696(100.0%)

2) 교복 착용 필요성 및 이유

학생들은 교복 착용 필요 응답 44.4%(매우 필요 + 대체로 필요=735명)로 불필요하다는 응답 26.9%(대체로 불필요 + 매우 불필요= 446명)보다

27) 세종시교육청 소속 학생과 학부모 자체 조사 자료(세종시교육청 내부통신망을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기간: 2025. 9.-10, 조사대상: 중학생 1,311명 고등학생 342명 학부모 696명, 응답은 리커트 5점 척도)

17.5%p 높게 나타나 학생들은 교복 착용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 반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교복 착용의 중립 반응인 '보통'은 28.6%(472명)으로 나타났다. 교복착용 필요성 평균은 3.2이며 표준편차는 1.23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교복 착용 필요 이유에 대해 옷차림 고민 감소 34.7%(553명), 학교 소속감 형성 31.7%(505명), 경제적 격차 완화 15.6%(248명), 학생 안전확보 도움 10.7%(170명), 디자인 만족 5.5%(87명)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필요한 이유는 디자인 불만 26.6%(319명), 활동성 불편 26.1%(314명), 개성 침해 22.5%(270명), 계절 불일치 문제 20.0%(239명) 순으로 [표 4], [표 4-1], [표 4-2]와 같이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기본적으로 교복 착용 자체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기에 교복의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는 디자인(멋)과 편의성을 중시하여 기존의 정장형 교복에서 생활복 중심의 교복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분석된다.

[표 4] 교복 착용의 필요성

구분		응답자 수	⑤	④	③	②	①	평균	표준 편차
학생	남	794	130 (16.4%)	217 (27.3%)	250 (31.5%)	84 (10.6%)	113 (14.2%)	3.21	1.25
	여	859	127 (14.8%)	261 (30.4%)	222 (25.8%)	153 (17.8%)	96 (11.2%)	3.2	1.22
	계	1,653	257 (15.5%)	478 (28.9%)	472 (28.6%)	237 (14.3%)	209 (12.6%)	3.2	1.23

※ ⑤매우 필요 ④대체로 필요 ③보통 ②대체로 불필요 ①전혀 불필요

[표 4-1] 교복착용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필요 이유(중복 선택)

구분		빈도(명)	비율(%)
학생	학교 소속감 형성	505	31.7
	경제적 격차 완화	248	15.6
	옷차림 고민 감소	553	34.7
	학생 안전확보 등 도움	170	10.7
	디자인 만족	87	5.5
	기타	29	1.8
	계	1,592	100.0

※ 기타: 단정한 복장, 교칙준수, 학생통제, 학생신분 인식 등

[표 4-2] 교복착용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 중, 불필요 이유(중복 선택)

구분		빈도(명)	비율(%)
학생	활동성 불편	314	26.1
	계절 불일치 문제	239	20.0
	개성 침해	270	22.5
	디자인 불만	319	26.6
	기타	59	4.8
	계	1,201	100.0

※ 기타: 필요성 못 느낌, 품질 불만, 학생통제, 가격부담, 업체담합, 업체 불친절 등

3) 교복비 현물 지원 방식 만족도

학생들은 현행 교복비 현물 지원 방식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35% (매우 만족 + 대체로 만족=579명)이며, 불만족 응답은 12.6%(대체로 불만족 + 매우 불만족=208명)로 긍정반응이 22.4%p 높게 나타났다. 한편 중립적인 응답인 보통은 52.4%(866명)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복비 현물 지원방식에 대한 평균은 3.29이며 표준편차는 0.95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현 지원 방식인 현물지원 방식의 선호도가 높으나 일부 자유 서술 의견에서 언급된 '업체 독점', '불친절', '선택권 부재' 등의 문제로 현금성 지원(바우처)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교복비 현물 지원 방식 만족도

구분	응답자 수	⑤	④	③	②	①	평균	표준편차
학생	남	794 (12.7%)	177 (22.3%)	403 (50.8%)	58 (7.3%)	55 (6.9%)	3.27	1.01
	여	859 (10.9%)	207 (24.1%)	463 (53.9%)	62 (7.2%)	33 (3.8%)	3.31	0.9
	계	1,653 (11.8%)	384 (23.2%)	866 (52.4%)	120 (7.3%)	88 (5.3%)	3.29	0.95

※ ⑤매우 만족 ④대체로 만족 ③보통 ②대체로 불만족 ①매우 불만족

4) 교복 착용 빈도 및 교복 물려입기(재사용) 의사

학생 교복 착용 빈도는 한 학기(약 100일) 기준으로 '51일 이상' 착용한다는 응답이 57.5%(950명)로 가장 높고, 10일 이내는 7.2%(119명), 정확히 모름이 26.9%(443명)로 나타났다²⁸⁾. 학생들은 현금성 지원을 전제로 정장형 교복을 물려입을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모르겠다'는 응답이 46.8%(773명)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가 없다'는 응답 32.3%(그렇지 않다+매우그렇지 않다=536명), '의사가 있다'는 응답 20.9%(매우 그렇다+대체로 그렇다=346명) 순으로 나타났다. 교복 물려입기 의사에 대한 평균은 2.8이며 표준편차는 1.13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을 종합하여 보면 학생들은 교복(주로 생활복)을 학기당 50% 가량 착용하며, 새 옷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고, 다만, 20.9%는 정장형은 물려입기할 의사가 있어 ESG 측면에서 유의미한 수치로 보여진다.

[표 6] 교복 학기당 착용빈도

구분		응답자 수	51일 이상	31일~50일	21~30일	11~20일	10일 이내	정확히 모름
학생	남	794	438 (46.1%)	27 (45.0%)	19 (41.3%)	15 (42.9%)	65 (54.6%)	230 (51.9%)
	여	859	512 (53.9%)	33 (55.0%)	27 (58.7%)	20 (57.1%)	54 (45.4%)	213 (48.1%)
	계	1,653	950 (57.5%)	60 (3.6%)	46 (2.8%)	35 (2.1%)	119 (7.2%)	443 (26.9%)

[표 6-1] 교복 물려입기(재사용) 의사

구분		응답자 수	⑤	④	③	②	①	평균	표준 편차
학생	남	794	72 (9.1%)	105 (13.2%)	395 (49.7%)	97 (12.2%)	125 (15.7%)	2.88	1.11
	여	859	75 (8.7%)	94 (10.9%)	378 (44.0%)	150 (17.5%)	162 (18.9%)	2.73	1.15
	계	1,653	147 (8.9%)	199 (12.0%)	773 (46.8%)	247 (14.9%)	287 (17.4%)	2.8	1.13

※ ⑤매우 그렇다 ④대체로 그렇다 ③보통 ②그렇지 않다 ①전혀 그렇지 않다

28) 학생 면담에서 1학년의 착용빈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3학년은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착용빈도는 100일 기준으로 50여일 가량으로 답변(2025. 11.)

5) 교복비 지원과 교육경비 부담 완화 인식

학부모들은 교복비 지원이 현금성 지원(바우처)이 아닌 학교주관 교복(현물) 지원 방식에 대해 '불만족'이 27.9%('매우' 13.2% + '대체로' 14.7%)로 나타났으며, '만족'은 50.8%('매우' 15.8% + '대체로' 35.0%)로 만족이 22.9%p 높게 나타났다. 한편 보통은 21.3%로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교복비 현물 지원 만족도에 대한 평균은 3.25이며 표준편차는 1.26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비를 무상지원하고 있음에도 불만족이 27.9%는 의미 있는 갈등요인으로 분석된다. 또한 학부모들은 교복비 지원이 교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7.7%('매우' 68.4% + '다소' 29.3%)로, 무상 교복비 지원 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표 7-1]과 같이 보였다. 교육경비 부담 완화 인식 정도에 대한 평균은 3.66이며 표준편차는 0.55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비 지원 사업의 목표(가계 부담 완화)는 성공적으로 달성했으나, 실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학부모들의 만족도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표 7] 교복비 현물지원에 대한 만족도

구분		응답자 수	⑤	④	③	②	①	평균	표준 편차
학부모	중학교	500 (71.8%)	81 (74.3%)	178 (73.3%)	108 (73.0%)	70 (68.7%)	63 (73.9%)	3.29	1.25
	고등학교	196 (28.2%)	28 (25.7%)	65 (26.7%)	40 (27.0%)	32 (31.3%)	29 (26.1%)	3.16	1.29
	계	696 (100.0%)	109 (15.8%)	243 (35.0%)	148 (21.3%)	102 (14.7%)	92 (13.2%)	3.25	1.26

※ ⑤매우 만족 ④대체로 만족 ③보통 ②대체로 불만족 ①매우 불만족

[표 7-1] 교육경비 부담 완화 인식 정도

구분		응답자 수	④	③	②	①	평균	표준 편차
학부모	중학교	500 (71.8%)	351 (73.7%)	141 (69.1%)	6 (50.0%)	2 (50.0%)	3.68	0.52
	고등학교	196 (28.2%)	125 (26.3%)	63 (30.9%)	6 (50.0%)	2 (50.0%)	3.59	0.63
	계	696 (100.0%)	476 (68.4%)	204 (29.3%)	12 (1.7%)	4 (0.6%)	3.66	0.55

※ ④매우 도움 ③다소 도움 ②거의 도움 되지 않음 ①전혀 도움 되지 않음

6) 교복비 지원 방식 선호도

학부모들은 현 교복비 지원 방식인 '현물 지원'(46.5%, 325명)과 '현금성 (바우처) 지원'(51.5%, 358명) 방식의 선호에 있어 5%p 높게 현금성 지원이 [표 8]과 같이 높게 나타났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9%(13명)로 나타났다. 이는 교복비 지원 방식에 있어 현금성 지원과 현물성 지원에 있어 비등한 선호도를 나타낸 이유는 교복비를 현금성으로 지원 받을 경우 교복 브랜드 선택의 자율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지만 반면, 교복비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8] 교복비 지원 방식 선호도

구분		응답자 수	현물지원방식	현금성(바우처) 지원방식	모르겠음
학부모	중학교	500 (71.8%)	230 (70.8%)	260 (72.6%)	10 (77.0%)
	고등학교	196 (28.2%)	95 (29.2%)	98 (27.4%)	3 (23.0%)
	계	696 (100.0%)	325 (46.5%)	358 (51.5%)	13 (1.9%)

※ ④매우 도움 ③다소 도움 ②거의 도움 되지 않음 ①전혀 도움 되지 않음

4. 결론 및 정책적 함의

1) 결론

본 연구는 세종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교복비 지원 정책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관점에서 조망하되, 특히 ‘전달방식(현물·현금·바우처 등)’ 선택이 수요자(학생·학부모) 인식과 만족에 미치는 함의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배분(보편/선별), 전달방식(현금·현물·바우처), 재원조달 등 여러 차원에서 설계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 가운데 전달 방식의 적합성 논의를 중심에 두었다. 분석자료는 2025년 9~10월 세종시교육청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로 학생 1,653명(중 1,311

명, 고 342명)과 학부모 696명 응답(리커트 5점 척도)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교복 착용 자체에 대해 필요(44.4%)가 불필요(26.9%)보다 17.5%p 높게 나타나, 교복의 기본 기능에 대한 수용이 상대적으로 우세하였다. 교복 착용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옷차림 고민 감소(34.7%)’와 ‘학교 소속감 형성(31.7%)’이 핵심이었고, ‘경제적 격차 완화(15.6%)’, ‘학생 안전확보 도움(10.7%)’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불필요 이유는 ‘디자인 불만(26.6%)’, ‘활동성 불편(26.1%)’, ‘개성 침해(22.5%)’, ‘계절 불일치(20.0%)’ 등으로 정리되어, 교복 정책의 쟁점이 ‘착용 여부’보다 ‘디자인·활동성·계절 적합성’ 같은 체감 품질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교복비 지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지지가 매우 높았다. 학부모는 교복비 지원이 교육경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7.7%로 나타났으며, 이는 교복비 지원정책이 목표로 제시해 온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측면에서는 성과가 분명함을 시사한다. 다만, 정책 성과(부담 경감)와 서비스 만족(전달·운영 경험)은 동일하지 않았다. 학부모의 현물지원 만족은 ‘만족 50.8%’가 ‘불만족 27.9%’보다 높았으나, 불만족 비중이 적지 않아 운영과정의 개선 필요가 확인되었다.

셋째, 학생의 현물지원 방식 만족도는 ‘보통(52.4%)’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불만족(12.6%)’보다 ‘긍정(만족)’이 22.4%p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중립·유보가 큰 구조였다. 이는 현물지원이 가격상한·품질관리 등 제도적 장점을 가질 수 있으나, 수요자의 체감은 ‘무상’ 그 자체보다 ‘선택권, 서비스 경험, 품질 편차, 독점·불친절 등 운영 이슈’에 의해 크게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이용 행태 측면에서 교복 착용 빈도는 한 학기 기준 ‘51일 이상 착용’이 57.5%로 가장 높았으나, ‘정확히 모름’도 26.9%로 나타났다. 또한 교복 재사용(물려입기) 의사는 ‘보통(46.8%)’이 가장 높고 긍정 응답은 20.9% 수준으로, 제도적으로 재사용 체계를 설계할 경우 잠재수요를 실

천으로 전환할 여지가 존재한다. 종합하면, 세종시교육청의 교복비 지원은 보편적 교육복지로서 가계 부담 경감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나 이용자 만족을 제약하는 요인이 (1) 교복 자체의 디자인·활동성·계절 적합성 문제, (2) 현물지원 중심 전달체계에서의 선택권·서비스 품질·운영 투명성 이슈, (3) 재사용·순환 체계의 미성숙으로 정리된다. 또한 지원 방식 선호에서 학부모는 현금성(바우처) 51.5%, 현물 46.5%로 비등한 선호를 보여 향후 개선은 ‘현물지원이나 현금지원이나’의 이분법이 아니라 품질·편의성 강화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2)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교복비 지원이 이미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보편복지로 제도화된 상황에서, 정책목표(가계 부담 경감) 달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달체계의 질(서비스 경험)이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정당성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논의는 배분·전달방식·재원조달을 함께 살피되, 특히 현금성(바우처)와 현물지원 중 어떤 교복비 전달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가 이용자 선택권과 맞춤형 지원 요구의 확대 속에서 핵심 쟁점이 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 현장의 교복이라는 생활 문제를 공공정책의 용어(전달체계·책임성·접근성)로 전환하여 해석한 사례로서, 생활 속 공공정책 이해, 데이터, 합의 형성을 다룰 수 있는 정책자료가 될 것이다. 이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보편지원의 정당성은 유지하되, 갈등을 낮추는 ‘맞춤형 보완’이 필요

세종의 교복비 지원은 조례에 근거해 중·고 신입생과 전입생 전원에게 무상 교복을 지원하는 보편적 교육복지로 시행되고 있으며, 목적은 학부모 부담 경감·격차 완화·공공성 강화로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보편지원의 정당성은 97.7%의 부담 완화 인식 지지로 재확인되지만 동시에 전달과정

불만이 누적될 경우 보편복지의 수용성이 약화될 수 있다. 따라서 보편 지원의 큰 틀은 유지하되, ① 전입학과 체형 성장에 따른 교복 추가 구입 단가 관리에 대한 맞춤형 보완 ② 선택형 전달방식의 부분 도입 ③ 민원·모니터링의 정례화를 위한 교육청 차원에서 교복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 제언은 학부모 만족(‘만족’이 우세)과 동시에 ‘불만족’도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학생 응답에서도 ‘보통’이 과반인 점은 ‘재정 투입의 유무’보다 ‘운영 경험(품질·친절·선택권·사후관리)’이 수용성을 좌우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례적인 의견수렴·품질점검·민원 환류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전달체계의 책임성 강화와 연결된다.

둘째, 성과(부담 경감)와 만족(전달 경험)을 분리해 관리하는 성과관리 체계 필요

학부모는 교복비 지원이 교육 경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97.7%로 압도적 지지를 보였으나 동시에 현물지원 만족에서 불만족이 27.9%로 확인되어 ‘경제적 효과’와 ‘서비스 경험’이 분리되어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평가 지표를 ① 부담 경감(목표달성 지표)과 ② 전달체계 품질(만족·민원·교환·납기·친절·선택권 등)로 이원화하고, 연도별 개선 목표를 KPI화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책임성 원칙(불만 수렴, 서비스 개선 모니터링)을 교복비 지원사업에 내재화하는 방식이다.

셋째, 교복 ‘필요성’ 논쟁보다, ‘디자인·활동성·계절 적합성’을 정책 우선순위로 전환

학생들은 교복 착용 필요 이유로 ‘옷차림 고민 감소(34.7%)’와 ‘소속감(31.7%)’을 제시해 교복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불필요 이유로는 ‘디자인 불만(26.6%)’과 ‘활동성 불편(26.1%)’, ‘계절 불일치(20.0%)’가 핵심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교복비 지원체계 개선의 초점이 ‘지원금액’이나 ‘지급 여부’가 아니라, 교복 자체의 사용가치(편의성·활동성·계절 적합성)와 만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동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로 학생 만족도에서 ‘보통’이 52.4%로 과반인 점은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만족 전환 여

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복형 교복 확대, 계절별 구성 재설계 (하복/동복의 실효성), 소재·치수 체계 개선 등을 ‘지원체계’ 논의와 묶어 추진하는 것이 정책 효율성을 높인다. 이 제언은 학생들이 교복 착용을 ‘옷차림 고민 감소·소속감’ 등으로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불필요 이유로 ‘디자인 불만·활동성 불편·계절 부적합’을 높은 비중으로 제시한 결과에 근거한다. 즉 정책의 쟁점은 ‘착용 강제’보다는 ‘착용하고 싶은 교복’으로의 전환(디자인·활동성 개선)에 있다.

넷째, 현물 중심 체계를 유지하되, ‘선택권’ 확대를 위한 ‘혼합·선택형’ 모델 검토

세종시교육청은 교복비를 2025년 기준 344,550원 범위에서 현물로 지원하면서, 체육복은 현금성(바우처)으로 이미 혼합 구조를 이미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의 지원 방식 선호는 현금성(바우처) 51.5%, 현물 46.5%로 유사하다. 이에 따라 정책대안은 ① 현물지원의 장점인 가격인상 억제 효과와 품질관리 장점을 유지하되, ② 인증된 다수 업체/브랜드 풀(pool) 내에서 선택권을 부여하거나, ③ 일정 조건(예: 전입생, 추가구입·교환, 특수체형 등)에 한해 바우처를 허용하는 부분적 선택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는 ‘현물지원과 현금성 지원’의 이분법을 넘어, 갈등 요인을 낮추면서 정책도구를 정교화하는 접근이다.

본 연구는 세종시교육청 교복비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자료 중 학생·학부모 설문조사 결과 일부를 활용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교복비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조사 지역 확대와 조사대상으로 교직원의 의견을 추가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도 및 타당도, 성별 및 학교급별 차이를 t-test, ANOVA(분산분석)를 통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교복비 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2024.
- 경기도 성남시, 『중학생(신입생) 무상교복 지급 방안에 관한 연구』, 2015, 15-21쪽.
- 권수애, 『의복과 인체의 환경적응』, 교학사, 2003.
- 남찬섭·조성은·김기태·민기채·김수정, 『사회복지정책론: 분석틀과 선택의 차원』, 지식공동체, 2020, 42-44쪽.
- 최상미·김아래미,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20, 89-95쪽.
- 황성철·정무성·강철희·최재성, 『사회복지행정론』, 정민사, 2014.

논문

- 김민희, 「단위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과정 사례 분석」, 『열린교육연구』 제20권 제3호, 2012, 170-175쪽.
- 김장현, 「고등학생들의 교복 변형 행동에 대한 영향력과 인식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1호, 2021, 152-162쪽.
- 김주애, 「고등학생의 의복 및 교복착용 태도」, 『한국디자인문화학회』 제19권 제3호, 2013, 136-145쪽.
- 김하영·박명자, 「중·고등학교 학생의 의복추구혜택과 교복착용 태도의 관계 및 교복착용 태도가 교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3, 47-61쪽.
- 이지민·구영석·이정란, 「중고등학생의 교복착용 실태와 만족도 비교」, 『한국의류산업학회』 제11권 제5호, 2009, 55-66쪽.

인터넷 사이트

- 교육부, “교육부-교복 업계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협약 체결 보도자료”, <https://link24.kr/6ByYMWd>, 2014.08.25.
- 교육부, “행복한 교육 매거진”, <https://happyedu.moe.go.kr/>, 2025.12.31.
- 세종시교육청, “2025 학생 교복비 지원계획”, <https://link24.kr/7QNrEku>, 2025.12.31.
- 싱가포르 교복제도, “학교 의류 보조금”, <https://link24.kr/jb3yNa>, 2025.12.31.

영국 런던 교복제도, “학교 의류 보조금”, <https://link24.kr/9iHhzwJ>, 2025.12.31.

영국 웨일즈 교복제도, “맨섬 부서 교육, 스포츠 및 문화”, <https://link24.kr/8Ixe9LN>,
2025.12.31.

일본 교복제도, “문부과학성”, <https://link24.kr/5UJWozo>, 2025.12.31.

호주 교복제도, “호주교육제도”, <https://www.education.wa.edu.au/home>,
2025.12.31.

■ 국문초록

연구 목적은 세종시교육청 무상 교복비 지원정책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달방식(현물·현금성)의 적합성과 수요자 만족요인을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2025년 9~10월 학생 1,653명·학부모 696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리커트 5점)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은 교복 착용 ‘필요’(44.4%)가 ‘불필요’(26.9%)보다 높았으며, 필요 이유는 ‘옷차림 고민 감소’(34.7%)와 ‘학교 소속감 형성’(31.7%)이 중심이었다. 반면 불필요 이유는 ‘디자인 불만’(26.6%), ‘활동성 불편’(26.1%), ‘개성 침해’(22.5%), ‘계절 불일치’(20.0%)로 나타나 교복의 사용가치(디자인·편의성·계절성)가 핵심 쟁점임을 확인했다. 학생의 현물지원 만족은 ‘만족’ 35.0%, ‘보통’ 52.4%, ‘불만족’ 12.6%(평균 3.29)로 중립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는 교복비 지원의 부담 완화 ‘도움’이 97.7%로 매우 높았으나, 현물지원 만족에서 불만족(27.9%)이 확인되어 성과(부담 경감)와 전달경험(만족)의 분리 가능성이 나타났다. 또한 지원방식 선호는 현금성(바우처) 51.5%가 현물 46.5%를 소폭 상회하였다. 연구 의미는 학생 교복비의 보편지원의 성과를 유지하되, 생활복 중심의 품질·기능 개선과 선택권의 부분 확대, 책임성 기반 모니터링을 결합한 전달체계 고도화 필요성을 제시한 데 있다.

주제어 • 교복비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물지원, 바우처(현금성) 지원.

■ Abstract

A Study on Perceptions of School-Uniform Subsidy Delivery Methods and Improvement Measures: Focusing on the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 Case

Kim, Chang Gil / Mokw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ejong City Office of Education's free school-uniform subsidy policy from a social service delivery-system perspective and to identify the appropriateness of delivery modalities (in-kind vs. cash-like support) as well as factors influencing user satisfaction. For the methods, we analyzed survey data collected in September–October 2025 from 1,653 students and 696 parents using a five-point Likert scale. The results show that a higher proportion of students perceived wearing uniforms as “necessary” (44.4%) than “unnecessary” (26.9%). The main reasons for necessity were “reducing concerns about what to wear” (34.7%) and “fostering a sense of school belonging” (31.7%). In contrast, reasons for unnecessary uniform-wearing included “dissatisfaction with design” (26.6%), “discomfort in mobility” (26.1%), “infringement on individuality” (22.5%), and “mismatch with seasons” (20.0%), confirming that the perceived use value of uniforms (design, convenience, and seasonal suitability) is a key issu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 in-kind provision was distributed as follows: satisfied 35.0%, neutral 52.4%, and dissatisfied 12.6% (mean = 3.29), indicating that neutral responses constituted the majority. Parents reported an extremely high level of agreement that the subsidy helped reduce financial burdens (97.7%); however, dissatisfaction with the in-kind provision (27.9%) suggests a potential divergence between policy outcomes (burden reduction) and delivery

experience (satisfaction). In addition, preferences for delivery modality slightly favored cash-like vouchers (51.5%) over in-kind provision (46.5%).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oposing the need to advance the delivery system by maintaining the achievements of universal support while combining improvements in quality and functionality toward more practical daily-wear uniforms, a partial expansion of user choice, and accountability-based monitoring.

Keyword • School-uniform subsidy, Universal educational welfar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In-kind provision, Voucher (cash-like) support.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

: 사전지식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김 유 빈 · 김 혜 군*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설계 및 방법
4. 실증분석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인터넷과 모바일 기술의 발전은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정보 탐색과 소비 의사결정의 주요 플랫폼으로 부상시켰으며, 특히 뷰티(화장품·메이크업·스킨케어 등) 산업에서 그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SNS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라이브 커머스 등 다양한 콘텐츠 형태를 통해 소비자의 인지적 판단뿐 아니라 감정적·경험적 반응을 유도하며 기업과 소비자 간의 양방향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프로모션 믹스로 기능한다.¹⁾

* 김유빈(제1저자)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의류학과 토탈코디네이션전공 박사과정
김혜군(교신저자) 우송대학교 뷰티디자인경영학과 교수

1) Mangold, W. G. & Faulds, D. J., "Social media: The new hybrid element of

이러한 SNS 기반 소비환경에서 콘텐츠 경험이 소비자의 심리적 반응을 거쳐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환경심리학의 S-O-R(Stimulus-Organism-Response) 모형이 중요한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 S-O-R 모형은 환경적 자극이 개인의 내부 심리 상태를 변화시키고, 이러한 변화가 행동 반응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설명한다.²⁾ SNS 콘텐츠 역시 소비자에게 중요한 마케팅 자극으로 작용하며, 콘텐츠 경험을 통해 형성된 가치 인식이 구매 의도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디지털 마케팅 연구에서도 S-O-R 모형은 온라인 환경에서 웹사이트 디자인, 콘텐츠 경험, 소비자 행동 간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이론적 틀로 활용되고 있다.³⁾

최근 인스타그램(Instagram), 틱톡(TikTok), 유튜브(YouTube), 샤오홍슈(Xiaohongshu) 등을 중심으로 SNS 기반 뷰티 콘텐츠 소비와 커머스 활동이 급속히 확대되면서 소비자는 제품 정보, 사용 후기, 튜토리얼, 비교 리뷰,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구매 전 과정을 SNS 환경에서 경험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 환경에서는 실시간 상호작용이 소비자의 만족과 구매 전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⁴⁾ 또한 디지털 패션·뷰티 마케팅 활동은 SNS 상의 상호작용성, 정보 가치, 정서적 경험을 매개로 구매 의도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이러한 연구는

the promotion mix”, *Business Horizons*, vol.52, no.4, 2009, pp.357-365.

2) Mehrabian, A. & Russell, J. A.,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MIT Press, 1974.

3) Eroglu, S. A., Machleit, K. A. & Davis, L. M., “Atmospheric qualities of online retailing: A conceptual model and implic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54, no.2, 2001, pp.177-184; Parboteeah, D. V., Valacich, J. S. & Wells, J. D., “The influence of website characteristics on a consumer’s urge to buy impulsively”, *MIS Quarterly*, vol.33, no.1, 2009, pp.83-108.

4) Hwang, R. & Lee, M., “Korean fashion and beauty livestreaming commerce before and after COVID-19”, *Businesses*, vol.2, no.3, 2022, pp.339-354.

5) Mao, J., Xu, X., Han, J. & Ko, E., “The impact of digital fashion marketing on purchase intention”,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vol.37, no.1, 2025, pp.210-235.

SNS 콘텐츠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소비자의 경험적 소비 환경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또한 브랜드의 SNS 콘텐츠 특성이 소비자 참여와 브랜드 반응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⁶⁾

기존 연구는 주로 디지털 인플루언서의 신뢰성, 전문성, 매력도, 진정성 등 인플루언서 중심 특성이 소비자의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왔다.⁷⁾ 그러나 실제 SNS 소비 상황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대상은 인플루언서 개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콘텐츠 자체의 특성 또한 중요한 자극 요인으로 작용한다. 콘텐츠의 유희성, 진정성, 정보적 유용성 및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반응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⁸⁾

또한 SNS 뷰티 맥락에서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는 단순한 경제적 효익을 넘어 정보 신뢰성, 문제 해결성, 정서적 만족, 즐거움 등 복합적인 경험을 포함하는 평가로 이해된다.⁹⁾ 최근 연구

6) De Vries, L., Gensler, S. & Leeftang, P. S. H., "Popularity of brand posts on brand fan pages: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al media marketing",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26, no.2, 2012, pp.83-91.

7) 김유빈·최우정, 「SNS 패션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팔로워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팬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43권 제1호, 한국의류학회, 2019, 17-32쪽; Lee, J. A. & Eastin, M. S., "I like what she's #endorsing: The impact of female social media influencers' perceived sincerity, consumer envy, and product type",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vol.20, no.2, 2020, pp.76-91; Gomes, M. A., Marques, S. & Dias, Á., "The impact of digital influencers' characteristics on purchase intention of fashion products",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vol.13, no.3, 2022, pp.187-204.

8) Lou, C. & Yuan, S., "Influencer marketing: How message value and credibility affect consumer trust of branded content on social media",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vol.19, no.1, 2019, pp.58-73; 이수진·이유리,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SNS 정보전달 유형의 효과 - SNS 소비가치, 제품태도, 구매의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제47권 제6호, 한국의류학회, 2023, 996-1011쪽.

9) Zeithaml, V. A.,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vol.52, no.3, 1988, pp.2-22.

역시 SNS 마케팅 환경에서 지각된 가치가 구매 의도와 행동 반응을 설명하는 핵심 변수임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가 기능적 가치뿐 아니라 감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성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으며,¹¹⁾ 또한 소셜미디어 패션 인플루언서의 관계성이 지각된 감정적 가치를 매개로 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¹²⁾

그러나 기존 연구는 인플루언서 특성 중심 분석에 집중하거나, 콘텐츠 특성을 부분적으로만 다루는 경향이 있어 SNS 뷰티 콘텐츠의 다양한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가치 인식과 구매 의도를 설명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특히 콘텐츠 특성 중 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소비자의 사전지식(prior knowledge)은 동일한 콘텐츠에 대해서도 정보의 신뢰성이나 유용성에 대한 평가를 달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¹³⁾ 따라서 사전지식은 SNS 콘텐츠 특성이 지각된 가치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조절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
- 10) Wang, J., Ma, Y., Min, L., Geng, J. & Xiao, Y., "The impact of social media fashion influencers' relatability on purchase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emotional value and moderating role of consumer expertise", *Acta Psychologica*, vol.258, 2025, article no.105174.
 - 11) Sweeney, J. C. & Soutar, G. N.,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vol. 77, no. 2, 2001, pp.203-220.
 - 12) Wang, J., Ma, Y., Min, L., Geng, J. & Xiao, Y., op. cit., article no.105174.
 - 13) Bettman, J. R. & Park, C. W.,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phase of the choice process on consumer decision processes: A protoco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7, no. 3, 1980, pp.234-248; Park, C. W. & Lessig, V. P., "Familiarity and its impact on consumer decision biases and heurist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8, no. 2, 1981, pp.223-230; Maheswaran, D. & Sternthal, B., "The effects of knowledge, motivation, and type of message on ad processing and product judgm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7, no. 1, 1990, pp.66-73.

이러한 연구 공백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구매 의도 형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S-O-R(Stimulus-Organism-Response) 이론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특히 콘텐츠 특성 중 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 관계에서 사전지식의 조절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첫째, SNS 뷰티 콘텐츠 특성(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둘째, 지각된 가치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셋째, 소비자의 사전지식이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S→O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을 통합적으로 구조화하고, 사전지식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SNS 기반 뷰티 마케팅 연구의 설명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통해 SNS 환경에서 효과적인 뷰티 콘텐츠 전략 수립에 필요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2. 이론적 배경

1) S-O-R 이론과 SNS 콘텐츠 연구

본 연구는 소비자 반응을 설명하는 대표적 환경심리 이론인 S-O-R(Stimulus-Organism-Response) 모형을 이론적 기반으로 한다. S-O-R 모형은 환경적 자극(Stimulus)이 개인의 인지적·정서적 상태(Organism)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내부 상태가 행동적 반응(Response)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한다.¹⁴⁾

14) Mehrabian, A. & Russell, J. A., op. cit., 1974.

최근 SNS 마케팅 연구에서도 콘텐츠 특성, 소비자 인식, 행동 의도 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S-O-R 모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환경에서 웹사이트의 환경적 특성이 소비자의 정서적 반응을 통해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제시된 바 있다. 이러한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S-O-R 모형이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유효한 틀임을 보여 준다.¹⁵⁾

본 연구에서는 SNS 뷰티 콘텐츠의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유희성(playfulness), 진정성(authenticity), 유용성(usefulness)을 자극요인(Stimulus)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내부 평가를 지각된 가치(Organism)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러한 가치 인식이 실제 행동 반응인 구매 의도(Response)로 이어지는 구조를 검증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SNS 뷰티 콘텐츠 특성(S) → 지각된 가치(O) → 구매 의도(R)’의 경로를 중심으로, 자극-유기체-반응 간 인과적 연결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SNS 뷰티 콘텐츠 특성

사회관계망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라이브 스트리밍 등 다양한 형식의 콘텐츠를 매개로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정보 탐색과 소비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채널로 자리 잡고 있다.¹⁶⁾ 뷰티 산업에서 SNS는 제품 정보 제공뿐 아니라 사용 후기, 튜토리얼, 인플루언서 추천, 라이브 커머스 등 경험 기반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형성과 정서적 관계 구축을 촉진하는 주요 매체로 기능한다.¹⁷⁾

SNS 뷰티 콘텐츠는 단순한 기능 정보뿐 아니라 즐거움, 공감, 신뢰, 전문성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며, 이러한 속성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각된

15) Eroglu, S. A., Machleit, K. A. & Davis, L. M., op. cit., pp.177-184.

16) Mangold, W. G. & Faulds, D. J., op. cit., pp.357-365.

17) Hwang, R. & Lee, M., op. cit., pp.339-354.

가치와 구매 의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⁸⁾

최근 SNS 마케팅 연구에서는 브랜드 및 인플루언서 콘텐츠가 소비자 참여와 브랜드 관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콘텐츠의 정보성, 오락성, 상호작용성 등이 소비자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¹⁹⁾

선행연구에서는 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이 SNS 기반 인플루언서 및 브랜드 콘텐츠의 주요 구성 특성으로 반복적으로 제시되어 왔으며,²⁰⁾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을 네 가지 차원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S-O-R 관점에서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은 소비자 반응을 촉발하는 ‘자극(Stimulus)’으로 기능하므로, 각 특성의 영향은 지각된 가치 형성 과정(Organism)과의 연결 속에서 설명될 필요가 있다.

(1) 상호작용성

상호작용성(interactivity)은 이용자가 댓글, 좋아요, 공유, 메시지, 라이브 방송 참여 등을 통해 콘텐츠 및 제작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높은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에게 참여감과 관계성을 부여하며, 정보에 대한 관여도를 높이고, 브랜드 및 인플루언서에 대한 친밀감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²¹⁾ 이러한 경험은 콘텐츠 노출을 단순한 관람이 아닌 관계 형성 경험으로 전환시켜, 소비자가 해당 콘텐츠와 연계된 제품·브랜드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도록 만든다. 따라서 상호작용성이 높은 SNS 뷰티 콘텐츠일수록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각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18) Lou, C. & Yuan, S., op. cit., pp.58-73.

19) Ashley, C. & Tuten, T., “Creative strategies in social media marketing: An exploratory study of branded social content and consumer engagement”, *Journal of Advertising*, vol. 44, no. 1, 2015, pp.15-27.

20) 김유빈·최우정, 앞의 논문, 17-32쪽.

21) Lee, J. A. & Eastin, M. S., op. cit., pp.76-91.

(2) 유희성

유희성(playfulness)은 콘텐츠 소비 과정에서 느끼는 재미, 즐거움, 흥미 등의 정서적 반응을 의미한다. 뷰티 콘텐츠에서는 유머, 챌린지, 트렌디한 편집, 감각적 비주얼,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통해 유희성이 강화된다. 메시지 가치와 즐거움이 소비자의 긍정적 정서와 신뢰를 높인다고 보고하였다.²²⁾ Gomes 등(2022)은 디지털 인플루언서의 오락적·유희적 콘텐츠가 소비자 몰입과 구매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²³⁾ 유희성은 인지적 설득을 넘어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여 지각된 가치를 증대시키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NS 뷰티 콘텐츠의 유희적 특성은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각된 가치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3) 진정성

진정성(authenticity)은 콘텐츠가 상업적 목적만을 위한 과장이나 조작으로 인식되지 않고, 솔직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실제 경험에 기반한 정보로 받아들여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진정성은 인플루언서 및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고, 소비자의 방어적 태도를 완화하며, 관계 지속 의도와 구매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⁴⁾ 뷰티 콘텐츠에서 진정성은 솔직한 사용 후기, 장단점 균형 제시, 투명한 광고 표시 등을 통해 표현되며, 이는 소비자가 인식하는 가치와 감정적 반응을 강화한다. 따라서 진정성이 높게 인식되는 SNS 뷰티 콘텐츠일수록 소비자는 해당 콘텐츠와 연계된 제품·브랜드에 대해 더 높은 지각된 가치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4) 유용성

유용성(usefulness)은 SNS 뷰티 콘텐츠가 소비자의 실제 정보 탐색과

22) Lou, C. & Yuan, S., op. cit., pp.58-73.

23) Gomes, M. A., Marques, S. & Dias, Á., op. cit., pp.187-204.

24) 김우빈·최우정. 앞의 논문, 17-32쪽.

구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분 정보, 발림감·지속력 설명, 피부 타입별 추천, 가격 및 구매 경로, 비교 리뷰 등은 소비자 효용을 높이는 대표적 요소이다. 유용성이 높을수록 소비자는 시간과 탐색비용을 절감하고, 콘텐츠를 가치 있는 정보원으로 인식하여 긍정적 평가와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²⁵⁾ 따라서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와 구매 의도 형성에 기여하는 인지·실용적 기반이라 할 수 있으며, 유용성이 높은 SNS 뷰티 콘텐츠일수록 소비자가 인식하는 지각된 가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을 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의 네 차원으로 조작화하고, 각 차원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3)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perceived value)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 서비스 또는 관련 콘텐츠에 대해 지불한 비용(시간, 노력, 금전, 심리적 부담)에 비해 얼마나 충분한 편익을 얻었다고 평가하는지에 대한 전반적 인식이다.²⁶⁾ SNS 뷰티 맥락에서는 정보의 신뢰성, 사용 팁의 실용성, 엔터테인먼트, 공감과 신뢰, 자기표현 및 정체성 만족 등이 결합되어 “이 콘텐츠와 이 제품을 접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판단으로 나타난다.

최근 연구에서는 SNS 기반 마케팅 환경에서 지각된 가치가 구매 의도, 충성도, 추천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되고 있으며,²⁷⁾²⁸⁾ 특히 감정적·경험적 가치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SNS 뷰티 콘텐츠의 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은 이러한 지각된 가치를 구성하는 선행 요인으로 기능하며, 지각된 가치는 이후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식적 평가 요인으로 작용한다. S-O-R 관점에

25) Mangold, W. G. & Faulds, D. J. op. cit., pp.357-365.

26) Zeithaml, V. A., op. cit., pp.2-22.

27) Gomes, M. A., Marques, S. & Dias, Á., op. cit., pp.187-204.

28) Mao, J., Xu, X., Han, J. & Ko, E., op. cit., pp.210-235.

서 지각된 가치는 자극(SNS 뷰티 콘텐츠 특성)에 대한 소비자의 내부 평가 상태(Organism)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이후 반응(Response)인 구매 의도 형성으로 이어지는 핵심 경로를 구성한다.

4) 구매 의도

구매 의도(purchase intention)는 소비자가 특정 제품이나 브랜드를 구매하려는 주관적 의지와 미래 행동 가능성을 의미하며, 실제 구매 행동을 예측하는 대표적 지표이다.²⁹⁾ SNS 뷰티 환경에서 소비자는 인플루언서 콘텐츠, 리뷰, 튜토리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품 정보를 접하고,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다음에 구매 후보로 고려하겠다”, “해당 브랜드를 우선 선택하겠다”와 같은 행동 의도를 형성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인플루언서 특성과 SNS 콘텐츠의 신뢰성, 진정성, 메시지 가치, 즐거움은 구매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며, 지각된 가치가 높을수록 구매 의도가 강화된다.³⁰⁾ 따라서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이 형성하는 지각된 가치는 SNS 환경에서 뷰티 제품 구매 의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 설명 변수로 작동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콘텐츠 특성(S)’이 ‘지각된 가치(O)’ 형성 과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S-O-R 이론의 설명틀을 SNS 뷰티 소비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설계 및 방법

1) 연구모형 설정

본 연구는 자극-유기체-반응(Stimulus-Organism-Response: S-O-R) 이론의 틀을 적용하여, SNS 뷰티 콘텐츠의 주요 특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29)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1991, pp.179-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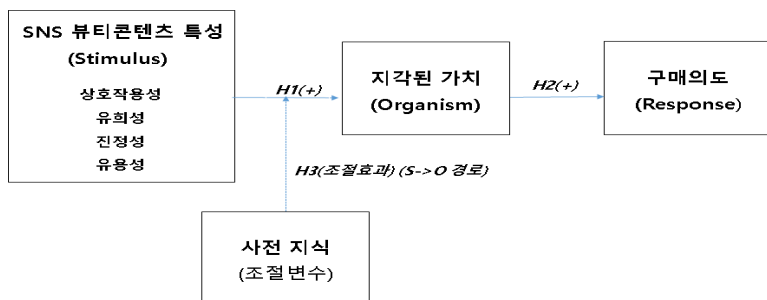
30) Lou, C. & Yuan, S., op. cit., pp.58-73.

가치와 구매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자극(S)은 SNS 뷰티 콘텐츠의 속성인 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으로 구성되며, 유기체(O)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소비자의 내적 평가 결과로서 지각된 가치로 정의된다. 또한 반응(R)은 소비자가 SNS를 통해 노출된 뷰티 제품을 구매하려는 의지인 구매 의도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자극(S)을 구성하는 네 가지 하위 요인이 지각된 가치(O)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러한 지각된 가치가 구매 의도(R)로 이어지는 구조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사전지식은 소비자가 보유한 뷰티 제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자기 평가적 지식 수준으로서,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조절변수로 고려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지각된 가치’를 S-O-R의 Organism에 해당하는 핵심 내적 평가변수로 설정하고, 가설(H1a~H2)의 직접 경로 유의성과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 관계에서의 조절효과(H3)를 중심으로 검증한다. 즉, 본 연구는 [그림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SNS 뷰티 콘텐츠 특성(S) → 지각된 가치(O) → 구매 의도(R)’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면서,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 관계에서 사전지식의 조절효과(H3)를 추가적으로 검토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설정된 본 연구의 개념적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1)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SNS 뷰티 콘텐츠는 상호작용, 유희적 경험, 진정성 있는 후기, 유용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 인식을 형성한다. 선행연구는 메시지의 가치와 신뢰도, 진정성, 오락성이 지각된 가치 및 정서적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다.³¹⁾

또한 S-O-R 관점에서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은 소비자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Stimulus)으로 작용하며, 소비자는 이러한 자극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각된 가치(Organism)를 형성한다. 즉, SNS 콘텐츠의 상호작용적 경험(참여·교류), 유희적 경험(즐거움·몰입), 진정성 인식(신뢰·진실성), 유용성 인식(정보 효용)은 소비자가 지불한 시간·노력 대비 편익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가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SNS 콘텐츠가 제공하는 정보적·정서적·관계적 편익이 소비자 평가(가치 인식)를 형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제시되며, 본 연구는 이를 뷰티 콘텐츠 맥락에서 네 가지 특성으로 구체화하여 검증한다. 이에 따라 다음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H1a.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b. 유희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c. 진정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H1d. 유용성은 지각된 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지각된 가치와 구매 의도

지각된 가치는 실제 구매 의도에 선행하는 핵심 요인으로, SNS 환경에서도 높은 가치 인식은 구매 의도 증가와 직결된다.³²⁾ 즉, 소비자가 SNS 뷰티 콘텐츠 및 관련 제품·브랜드에 대해 ‘시간·노력 대비 얻는 편익이 크

31) Gomes, M. A., Marques, S. & Dias, Á., op. cit., pp.187-204.

32) Zeithaml, V. A., op. cit., pp.2-22.

다'고 평가할수록, 향후 구매 또는 우선 고려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SNS 마케팅 연구에서도 지각된 가치가 행동 의도(구매·추천·재이용 등)를 설명하는 직접 선행요인으로 반복 확인되어 왔으며, 본 연구는 이를 '구매 의도'에 초점을 두어 검증한다. 이에 다음 가설을 도출한다.

가설 H2. 지각된 가치는 구매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사전지식의 조절효과

사전지식은 정보 처리 깊이와 설득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며,³³⁾ 뷰티 제품 관련 경험과 지식수준이 높은 소비자는 콘텐츠의 진정성·유용성·상호작용성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

Bettman과 Park(1980)은 소비자의 지식 수준이 정보 처리 전략과 의사결정 과정에 차이를 발생시킨다고 설명하였으며, Maheswaran과 Sternthal(1990)은 소비자의 지식 수준이 광고 메시지의 설득 효과를 조절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³⁴⁾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SNS 콘텐츠 환경에서도 소비자의 사전지식 수준은 콘텐츠 특성에 대한 평가와 가치 인식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에서 사전지식의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이 지각된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각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 H3. 사전지식은 SNS 뷰티 콘텐츠 특성(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3) Bettman, J. R. & Park, C. W., op. cit., pp.234-248.

34) Maheswaran, D. & Sternthal, B., op. cit., pp.66-73.

3) 변수 정의 및 측정

본 연구는 4장의 실증 분석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네 가지 주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측정하였다. 모든 문항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척도를 기반으로 SNS 뷰티 맥락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1) SNS 뷰티 콘텐츠 특성

본 연구에서 SNS 뷰티 콘텐츠의 특성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상호작용성(interactivity), 유희성(playfulness), 진정성(authenticity), 유용성(usefulness)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상호작용성은 댓글, 좋아요, 공유, Q&A,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와 콘텐츠 제작자 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정도를 의미한다.³⁵⁾

둘째, 유희성은 콘텐츠 소비 과정에서 이용자가 경험하는 재미, 흥미, 즐거움 등 긍정적 정서적 반응을 지칭한다.³⁶⁾

셋째, 진정성은 솔직한 후기, 실제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한 정보, 투명한 상업성 표기 등을 통해 이용자가 인식하는 신뢰 가능성을 의미한다.³⁷⁾

넷째, 유용성은 해당 콘텐츠가 제품 선택 및 구매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의 정도를 나타낸다.³⁸⁾

각 차원은 상호작용성, 유희성 및 유용성은 6문항씩, 진정성은 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네 요인이 명확히 도출되었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90 이상으로 나타나 측정 도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는 H1a~H1d에서 설정한 네 가지 콘텐츠 특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측정 체계와 일치한다.

35) Hwang, R. & Lee, M., op. cit., pp.339-354.

36) Lou, C. & Yuan, S., op. cit., pp.58-73.

37) 김우빈·최우정, 앞의 논문, 17-32쪽.

38) Mangold, W. G. & Faulds, D. J., op. cit., pp.357-365.

(2) 지각된 가치

지각된 가치는 응답자가 SNS 뷰티 콘텐츠를 통해 얻는 이익이 시간·노력·비용 대비 충분한지를 평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³⁹⁾ “투자한 시간에 비해 가치 있음”, “기대 이상 정보 제공”, “장점이 단점보다 큼” 등의 7개 문항으로 측정하였고, 단일요인 구조 및 높은 신뢰도($\alpha > .90$)가 확인되었다.

(3) 구매 의도

구매 의도는 SNS 뷰티 콘텐츠를 통해 소개된 제품 또는 브랜드를 실제로 구매하거나 우선적으로 고려하려는 심리적 의지로 정의하였다.⁴⁰⁾ “향후 구매 의향”, “우선 고려”, “콘텐츠를 보고 구매한 경험” 등을 포함한 6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단일요인 구조와 높은 신뢰도($\alpha > .90$)를 보였다.

(4) 사전지식

사전지식은 응답자가 뷰티 제품 및 관련 정보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는 지식수준, 친숙도, 비교·설명 능력 등으로 정의하였다.⁴¹⁾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일요인 구조와 높은 신뢰도($\alpha > .90$)가 확인되었고, 4장에서 조절효과 분석에 활용되었다.

4) 연구표본,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4장의 실증 분석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적용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측정 문항을 구성한 후, 2025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문항의 이해도와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둘째, 본 조사(2025년 12월 7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SNS를 통해 뷰티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구글폼(Google Form)

39) Zeithaml, V. A., op. cit., pp.2-22.

40) Gomes, M. A., Marques, S. & Dias, Á., op. cit., pp.187-204.

41) Park, C. W. & Lessig, V. P., op. cit., pp.223-230.

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총 351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64부를 제외한 28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셋째, SPSS 27.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통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탐색적 요인분석(EFA)과 Cronbach's α 를 통해 각 구성개념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이후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 연관성을 확인하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H1a~H1d, 단순회귀분석으로 H2,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H3(사전지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가설 H1~H3의 검증에 초점을 두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4. 실증분석 결과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은 총 287명으로, 성별은 남성 42.9%, 여성 57.1%로 여성 응답자가 다소 많았다. 연령대는 20대(28.6%)와 30대(32.1%)가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여, SNS 뷰티 콘텐츠의 주요 소비 연령층이 20~30대임을 보여준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자가 41.5%로 가장 많았으며, 전문대학 졸업(27.5%), 고등학교 이하(18.5%), 대학원(12.5%)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기술·생산직(19.5%), 사무·관리직(14.6%), 자영업(14.3%)이 다수를 구성하였고, 학생(13.6%)과 전문직(9.4%) 비중도 높게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3,000,000~4,000,000원 미만'이 25.8%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적으로 중위 소득층(2~5백만원 미만)이 약 70%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표본 분포는 SNS를 통해 뷰티 제품을 소비·활용하는 주요 집단이 20~30대 여성 중심의 중간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표본은 연구 목적과 부합하는 현실적 소비자 집단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 다만 본 표본은 온라인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응답자로 구성되어 자기선택 편의(self-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30대 및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후 결과 해석은 ‘온라인 기반 SNS 뷰티 콘텐츠 이용 경험자’라는 표본 특성을 전제로 논의한다.

[표 1] 표본의 인구 통계적 특성

N=287

항목	구분	빈도	비율(%)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23	42.9	직업	사무·관리직	42	14.6
	여성	164	57.1		자영업	41	14.3
연령	20대	82	28.6		전문직	27	9.4
	30대	92	32.1		판매·서비스직	22	7.7
	40대	53	18.5		전업주부	20	7.0
	50대 이상	60	20.9		학생	39	13.6
	고졸 이하	53	18.5		기타	21	7.3
학력	전문대 졸업	79	27.5	월평균 소득	2,000,000원 이하	29	10.1
	대학 졸업	119	41.5		2,000,000~3,000,000원 미만	62	21.6
	대학원	36	12.5		3,000,000~4,000,000원 미만	74	25.8
직업	기술·생산직	56	19.5		4,000,000~5,000,000원 미만	68	23.7
	공무원	19	6.6		5,000,000원 이상	54	18.8

2)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본 연구는 SNS 뷰티 콘텐츠 특성(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 지각된 가치, 구매의도, 사전지식 등 주요 변수들의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적합도 검증 결과, 모든 변수에서 Kaiser-Meyer-Olkin(KMO) 값이 .90 이상,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가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여 요인분석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항목의 요인적재량은 .684~.818 범위로, 기준치인 .4를 충분히 상회하였으며,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모두 .9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이는 제3장에서 제시한 변수 조작화 및 측정(상호작용성·유희성·진정성·유용성, 지각된 가치, 구매의도, 사전지식)이 실증적으로 타당하고 일관되게 측정되었음을 의미하며, 이후 가설(H1a~H1d, H2, H3) 검증을 위한 분석 전제조건을 충족한다.

(1)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의 타당성 및 신뢰도

SNS 뷰티 콘텐츠 특성에 대한 요인 분석결과, 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의 4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KMO = .964, Bartlett χ^2 = 5824.391(p < .001)로 분석 적합성이 매우 높았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77.452%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Cronbach's α 는 상호작용성(.935), 유희성(.938), 진정성(.937), 유용성(.929)으로, 모든 요인에서 높은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표 2]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 결과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 량	공통성	고유값	분산 설명력 (%)	Cron- bach's α
상호 작용성	뷰티 게시물에 '좋아요'·댓글 등으로 소통함	.714	.732	4.712	19.848	.935
	뷰티 콘텐츠를 다른 사람과 공유함	.769	.742			
	인플루언서·브랜드와 직접 소통 가능함	.758	.744			
	라이브방송·Q&A 등 양방향 기능을 활용함	.776	.789			
	SNS 이용자 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됨	.759	.775			
	정보·의견 교류가 신속하게 이루어짐	.787	.783			
유희성	뷰티 콘텐츠가 전반적으로 재미있음	.724	.743	4.638	19.537	.938
	콘텐츠 시청 과정이 즐거움	.772	.774			
	콘텐츠가 흥미를 유발함	.703	.748			
	콘텐츠가 긍정적 감정을 유도함	.758	.787			
	콘텐츠가 호기심을 자극함	.773	.769			
	표현 방식이 흥미로움	.768	.764			
진정성	인플루언서 후기 내용이 실제 경험 기반임	.726	.748	4.552	19.158	.937
	인플루언서 제품 정보가 신뢰할 만함	.751	.737			
	콘텐츠가 솔직하고 과장되지 않음	.818	.780			
	후기 표현이 정직하고 진실됨	.794	.806			
	전반적으로 콘텐츠에 진정성이 느껴짐	.785	.782			
유용성	콘텐츠가 제품 선택에 도움을 줌	.738	.742	4.526	18.909	.929
	새로운 뷰티 정보 습득에 유용함	.718	.752			
	실질적으로 유익한 정보가 많음	.796	.749			
	이전에 몰랐던 정보를 제공함	.812	.771			
	가격·성분 등 구체적 정보 제공함	.689	.691			
	이벤트·혜택 정보 제공이 유익함	.684	.689			
총 분산설명력: 77.452%, KMO = .964, Bartlett χ^2 = 5824.391 (p < .001)						

(2) 지각된 가치, 구매의도 및 사전지식의 타당성 및 신뢰도

지각된 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단일요인 구조로 수렴되었으며 KMO = .949, Bartlett χ^2 = 1604.562($p < .001$)로 분석 적합성이 확보되었다. 요인적재량은 .858~.885 범위로 모두 높았으며, 분산설명력은 76.119%, Cronbach's α 는 .947로 나타나, 구성개념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모두 확보되었다. 이는 SNS 뷰티 콘텐츠로부터 얻는 효용과 만족감이 소비자의 가치 인식으로 일관되게 수렴됨을 의미한다.

[표 3] 지각된 가치, 구매의도 및 사전지식의 타당성 및 신뢰도 분석결과

요인	측정항목	요인 적재량	공통성
지각된 가치	투자한 시간 대비 가치 높음	.883	.776
	노력 대비 가치 충분함	.858	.732
	기대 이상으로 유익함	.873	.762
	제품·브랜드의 전반적 가치 높음	.885	.779
	이익이 비용보다 큼	.868	.749
	실질적 가치가 있음	.868	.750
	전반적으로 가치 있다고 평가함	.859	.734
고유값 = 5.328 / 분산설명력 = 76.119% / Cronbach's α = .947 / KMO = .949 / Bartlett χ^2 = 1604.562 ($p < .001$)			
구매의도	SNS에서 소개된 제품 구매 의향 있음	.881	.773
	SNS에서 본 제품을 우선 고려함	.873	.761
	인플루언서 추천 제품 구매 경험 있음	.849	.717
	향후 SNS 제품 구매 의사 있음	.866	.748
	신뢰 인플루언서 제품은 고가라도 구매 고려	.889	.787
	제품·브랜드를 타인에게 추천 의향 있음	.860	.737
	고유값 = 4.573 / 분산설명력 = 76.218% / Cronbach's α = .936 / KMO = .927 / Bartlett χ^2 = 1274.663 ($p < .001$)		
사전지식	뷰티 제품 전반에 대한 지식 보유	.826	.674
	성분·기능 등 뷰티 정보에 익숙함	.838	.701
	주변보다 제품 정보를 더 잘 앎	.858	.734
	다양한 제품 비교·평가 가능함	.860	.733
	신뢰할 수준의 뷰티 지식 보유	.870	.755
	타인에게 제품 정보 설명 가능함	.882	.776
	고유값 = 4.421 / 분산설명력 = 74.119% / Cronbach's α = .927 / KMO = .923 / Bartlett χ^2 = 1162.804 ($p < .001$)		

구매의도 역시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KMO = .927$, Bartlett $\chi^2 = 1274.663(p < .001)$, 분산설명력 76.218%, Cronbach's $\alpha = .936$ 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모든 항목의 요인적재량은 .849~.889로 나타나, SNS를 통한 제품 노출이 소비자의 실제 구매 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입증한다. 특히 '신뢰 인플루언서의 제품은 고가라도 구매 고려' 항목이 가장 높은 적재값(.889)을 보여, 인플루언서 기반의 신뢰가 구매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사전지식 요인은 $KMO = .923$, Bartlett $\chi^2 = 1162.804(p < .001)$ 로 요인분석 적합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일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요인적재량은 .826~.882로 모두 높았으며, 분산설명력 74.119%, Cronbach's $\alpha = .927$ 로 신뢰도 역시 매우 우수하였다. 이는 응답자들이 뷰티 제품 및 성분에 대한 이해도와 비교·평가 능력을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사전지식 변수는 본 연구의 조절효과 분석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3) 상관관계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수(Pearson's r)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변수 간 상관관계는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상호작용성과 유익성 간 상관관계수는 $r = .707(p < .001)$ 로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진정성과 유용성 간에도 $r = .659(p < .001)$ 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또한 지각된 가치는 SNS 콘텐츠 특성 요인들과 모두 유의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으며($r = .583 \sim .649$, $p < .001$), 구매의도와도 유의한 상관($r = .633$, $p < .001$)을 보였다. 특히 유용성과 구매의도 간 상관($r = .674$, $p < .001$)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SNS 콘텐츠의 실질적 유용성이 구매 의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사전지식 역시 모든 변수와 유의한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r = .545 \sim .607, p < .001$), 이는 개인의 뷰티 관련 정보 숙련도가 SNS 콘텐츠 인식 및 구매의도와 통계적으로 관련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모든 상관계수는 .80을 초과하지 않아 변수 간 판별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변수 간 관계 방향성 측면에서 내적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후 회귀분석 및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통계적 전제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 상관계수 분석 결과

변수	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	지각된 가치	구매의도	사전지식
상호작용성	1						
유희성	.707***	1					
진정성	.625***	.639***	1				
유용성	.619***	.652***	.659***	1			
지각된 가치	.627***	.649***	.626***	.583***	1		
구매의도	.584***	.605***	.670***	.674***	.633***	1	
사전지식	.545***	.602***	.587***	.579***	.607***	.599***	1

* $p < .05$, ** $p < .01$, *** $p < .001$

4) 가설 검증 결과

본 절에서는 3장에서 제시한 연구모형 및 가설(H1a~H1d, H2, H3)에 따라 SNS 뷰티 콘텐츠 특성(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 지각된 가치, 구매의도, 사전지식 간의 관계를 단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요인분석과 신뢰도 및 상관계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 가설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S-O-R 모형에서 '지각된 가치'를 Organism에 해당하는 핵심 내적 평가변수로 설정하였으나, 분석 범위는 가설(H1a~H1d, H2, H3)에 따른 직접효과 및 조절효과 검증에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절의 해석은 제시된 직접경로와 조절경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1) 가설 H1a~H1d 검증 결과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의 네 하위요인(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을 독립변수, 지각된 가치를 종속변수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F = 90.458, p < .001$), 결정계수 $R^2 = .562$, 조정 $R^2 = .555$ 로, 네 가지 특성이 지각된 가치 변동의 약 55.5%를 설명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2.014로 잔차의 자기상관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고, 분산팽창지수(VIF)는 1.98~2.41 수준으로 다중공선성 문제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개별 효과를 살펴보면, 상호작용성($\beta = .182, t = 3.600, p < .001$), 유희성($\beta = .241, t = 4.388, p < .001$), 진정성($\beta = .268, t = 5.172, p < .001$), 유용성($\beta = .137, t = 2.612, p < .01$) 모두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정성과 유희성의 표준화 계수가 높게 나타나, 콘텐츠의 진정성 있는 표현과 유희적 경험이 지각된 가치 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가설 H1a~H1d는 모두 지지되었다.

[표 5]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값	VIF
		B	표준오차			
지각된 가치	(상수)	.514	.162		3.171**	
	상호작용성	.162	.045	.182	3.600***	2.15
	유희성	.215	.049	.241	4.388***	2.32
	진정성	.243	.047	.268	5.172***	2.41
	유용성	.128	.049	.137	2.612**	1.98

$R^2 = .562$, 조정 $R^2 = .555$, $F = 90.458$, $p < .001$, Durbin-Watson = 2.014

* $p < .05$, ** $p < .01$, *** $p < .001$

(2) 가설 H2 검증 결과

지각된 가치를 독립변수, 구매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한 단순회귀분석 결과는 아래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은 유의수준 .001 미만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 = 217.646, p < .001$), $R^2 = .433$ (조정 $R^2 = .431$)로 지각된 가치가 구매의도 변동의 약 43.3%를 설명하였다.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beta = .658, t = 14.757, p < .001$), Durbin-Watson = 2.031로 자기상관 문제는 없었다. 즉, SNS 뷰티 콘텐츠를 통해 높은 가치를 지각할수록 해당 제품·브랜드를 구매하거나 고려하려는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표 6] 지각된 가치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β	t값	VIF
		B	표준오차			
구매의도	(상수)	1.184	.168		7.048 ***	
	지각된 가치	.691	.047	.658	14.757 ***	1.00

$R^2 = .433$, 조정 $R^2 = .431$, $F = 217.646, p < .001$, Durbin-Watson = 2.031

* $p < .05$, ** $p < .01$, *** $p < .001$

(3) 가설 H3 검증 결과

가설 H3은 “사전지식이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라는 전제하에, 각 하위요인별로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을 통해 검증하였다. 모든 연속변수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 후 투입하였으며, 1단계에 콘텐츠 특성, 2단계에 사전지식, 3단계에 상호작용항(콘텐츠 특성 $\times$ 사전지식)을 투입하여 R^2 변화량(ΔR^2)과 상호작용 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성, 진정성, 유용성에서는 사전지식이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유희성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성 $\times$ 사전지식($\beta = .121, p < .01$), 진정성 $\times$ 사전지식($\beta = .139, p < .001$), 유용성 $\times$ 사전지식($\beta = .145, p < .001$)은 모두 유의한 정(+)의 상호작용을 보여, 사전지식이 높을수록 해당 요인들이 지각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 유희성 $\times$ 사전지식($\beta = .058, p = .158$)은 비유의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비자의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지각된 가치 간의 관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설 H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표 7] 사전지식의 조절 효과 검증 결과

A) 상호작용성 모형	지각된 가치								
	1st Step			2nd Step			3rd Step		
	β	P	VIF	β	P	VIF	β	P	VIF
상호작용성	.611***	.000	1.00	.404***	.000	1.39	.391***	.000	1.42
사전지식				.364***	.000	1.39	.353***	.000	1.41
상호작용성× 사전지식							.121**	.006	1.02
R ²	.373			.487			.502		
ΔR ²	.373			.114***			.015**		
B) 유희성 모형	1st Step			2nd Step			3rd Step		
	β	P	VIF	β	P	VIF	β	P	VIF
	.642***	.000	1.00	.429***	.000	1.52	.427***	.000	1.53
사전지식				.341***	.000	1.52	.339***	.000	1.53
유희성× 사전지식							.058(ns)	.158	1.01
R ²	.412			.497			.500		
ΔR ²	.412			.085***			.003(ns)		
C) 진정성 모형	1st Step			2nd Step			3rd Step		
	β	P	VIF	β	P	VIF	β	P	VIF
	.621***	.000	1.00	.404***	.000	1.48	.388***	.000	1.52
사전지식				.348***	.000	1.48	.334***	.000	1.50
진정성× 사전지식							.139***	.000	1.04
R ²	.386			.472			.492		
ΔR ²	.386			.086***			.020***		
D) 유용성 모형	1st Step			2nd Step			3rd Step		
	β	P	VIF	β	P	VIF	β	P	VIF
	.580***	.000	1.00	.338***	.000	1.50	.321***	.000	1.52
사전지식				.401***	.000	1.50	.286***	.000	1.51
유용성× 사전지식							.145***	.000	1.01
R ²	.336			.453			.473		
ΔR ²	.336			.117***			.020***		

* $p < .05$, ** $p < .01$, *** $p < .001$

5. 결론 및 제언

1) 연구결과 및 시사점

본 연구는 S-O-R 이론(Stimulus-Organism-Response)을 토대로, SNS 뷰티 콘텐츠 특성(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Organism) 및 구매의도(Respons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사전지식의 조절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287명의 SNS 뷰티 제품 구매 경험자를 대상으로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H1a~H1d 검증 결과, 네 가지 콘텐츠 특성은 모두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진정성과 유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호작용성(H1a), 유희성(H1b), 진정성(H1c), 유용성(H1d)은 모두 지각된 가치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어 가설 H1a~H1d는 모두 지지되었다. 이는 SNS 뷰티 콘텐츠가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신뢰 가능한 정보(진정성), 즐거운 경험(유희성), 실질적 효용(유용성), 참여·교류(상호작용성)를 통해 소비자가 콘텐츠를 “가치 있는 정보·경험”으로 평가함을 시사한다.

둘째,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약 43%의 설명력을 보여 구매의도 형성에 대한 핵심 설명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Zeithaml(1988) 및 후속 연구(Gomes et al., 2022; Mao et al., 2025; Wang et al., 2025)에서 강조된 ‘가치 인식의 행동의도 예측력’과 맥락을 같이하며, SNS 환경에서도 소비자가 인식한 가치가 구매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반임을 확인시켜준다. 따라서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셋째, 가설 H3 검증 결과, 사전지식은 상호작용성·진정성·유용성과 지각된 가치 간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유희성과의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가설 H3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이는 뷰티 관련 지식이 높은 소비자일수록 후기의 신뢰성(진정성), 정보의 실용성

(유용성), 소통 구조(상호작용성)를 보다 정교하게 평가하여 지각된 가치형성과의 관계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반면, 유희적 요소는 사전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비교적 유사한 방식으로 지각된 가치와 관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 전문성은 정보·신뢰 중심 속성에 대한 가치 평가에서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조절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SNS 뷰티 콘텐츠 설계 시 네 가지 특성(진정성, 유희성, 상호작용성, 유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전지식 수준에 따라 정보·신뢰 중심 속성(진정성·유용성·상호작용성)의 영향력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반면, 유희성은 상대적으로 집단 간 차이가 크지 않은 요소로 해석된다. 따라서 사전지식이 높은 집단에는 정보·신뢰 중심 전략을 강화하고, 사전지식이 낮은 집단에는 전반적 참여와 흥미를 유도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첫째,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87명을 대상으로 한 비확률 표본조사로, 표본의 자기선택 편의 및 특정 인구통계학적 구성(예: 20~30대·여성 비중 상대적 우세)에 따라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제약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확률표집 또는 패널 기반 표집을 적용하고, 성별·연령·소득·직업 등 집단별 표본을 균형 있게 확보하여 결과의 외적 타당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Instagram, TikTok, YouTube, Xiaohongshu) 및 콘텐츠 형식(숏폼/롱폼/라이브 커머스)별로 표본을 층화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SNS 뷰티 콘텐츠 효과의 맥락의 존성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수 있다.

둘째, 횡단적 자기보고식 설문자료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에 인과 추론에는 제약이 있으며, 향후 패널조사나 실험 연구, 디지털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콘텐츠 특성과 사전지식에 초점을 두었으나, 인플루언

서 특성·플랫폼 구조·브랜드 요인 등은 고려하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통합한 다층적 모형(예: SEM 기반 통합모형)을 통해 설명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요인분석(EFA)을 통해 측정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측정모형을 재검증하고, 측정동일성 검토 등 보다 정교한 검증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사전지식의 조절효과는 가치 형성 단계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지식 유형(제품·성분·메이크업·플랫폼 활용능력 등)을 세분화하여 어떤 지식이 어떤 콘텐츠 특성의 효과를 강화하는지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SNS 뷰티 콘텐츠 특성을 체계적으로 조작화하고, 지각된 가치와 구매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및 사전지식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학술적·실무적 기여를 제시한다. 학문적으로는 S-O-R 이론을 디지털 소비 맥락에 확장 적용하여 콘텐츠 자극과 소비자 반응 간의 인과적 연결 구조를 구체화하였으며, 실무적으로는 SNS 뷰티 콘텐츠 전략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김우빈·최우정, 「SNS 패션 인플루언서 진정성이 팔로워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 팬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43권 제1호, 한국의류학회, 2019, 17-32쪽.
<https://doi.org/10.5850/JK SCT.2019.43.1.17>
- 이수진·이유리,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SNS 정보전달 유형의 효과 -SNS 소비가치, 제품태도, 구매의도의 관계」, 『한국의류학회지』 제47권 제6호, 한국의류학회, 2023, 996-1011쪽.
<https://doi.org/10.5850/JK SCT.2023.47.6.996>
- Ajzen, I.,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Vol. 50, No. 2, 1991, pp.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
- Ashley, C. & Tuten, T., “Creative strategies in social media marketing: An exploratory study of branded social content and consumer engagement”, *Journal of Advertising*, Vol. 44, No. 1, 2015, pp.15-27.
- Bettman, J. R. & Park, C. W., “Effects of prior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phase of the choice process on consumer decision processes: A protocol analysi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7, No. 3, 1980, pp.234-248. <https://doi.org/10.1086/208812>
- De Vries, L., Gensler, S., & Leeﬂang, P. S. H., “Popularity of brand posts on brand fan pages: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al media marketing”,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Vol. 26, No. 2, 2012, pp.83-91.
- Eroglu, S. A., Machleit, K. A., & Davis, L. M., “Atmospheric qualities of online retailing: A conceptual model and implica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Vol. 54, No. 2, 2001, pp.177-184.
- Gomes, M. A., Marques, S. & Dias, Á., “The impact of digital influencers’ characteristics on purchase intention of fashion products”, *Journal of Global Fashion Marketing*, Vol. 13, No. 3, 2022, pp.187-

- 204, <https://doi.org/10.1080/20932685.2022.2039263>
- Hwang, R. & Lee, M., “Korean fashion and beauty livestreaming commerce before and after COVID-19”, *Businesses*, Vol. 2, No. 3, 2022, pp.339-354. <https://doi.org/10.3390/businesses2030022>
- Lee, J. A. & Eastin, M. S., “I like what she’s #endorsing: The impact of female social media influencers’ perceived sincerity, consumer envy and product type”,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Vol. 20, No. 2, 2020, pp.76-91.
<https://doi.org/10.1080/15252019.2020.1737849>
- Lou, C. & Yuan, S., “Influencer marketing: How message value and credibility affect consumer trust of branded content on social media”*, *Journal of Interactive Advertising*, Vol. 19, No. 1, 2019, pp.58-73. <https://doi.org/10.1080/15252019.2018.1533501>
- Maheswaran, D. & Sternthal, B., “The effects of knowledge, motivation, and type of message on ad processing and product judgment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17, No. 1, 1990, pp.66-73.
<https://doi.org/10.1086/208537>
- Mangold, W. G. & Faulds, D. J., “Social media: The new hybrid element of the promotion mix”. *Business Horizons*, Vol. 52, No. 4, 2009, pp.357-365. <https://doi.org/10.1016/j.bushor.2009.03.002>
- Mao, J., Xu, X., Han, J., & Ko, E., “The impact of digital fashion marketing on purchase intention”, *Asia Pacific Journal of Marketing and Logistics*, Vol. 37, No. 1, 2025, pp.210-235.
<https://doi.org/10.1108/APJML-09-2023-0946>
- Mehrabian, A. & Russell, J. A. , *An Approach to Environmental Psychology*, MIT Press, 1974
- Parboteeah, D. V., Valacich, J. S., & Wells, J. D., “The influence of website characteristics on a consumer’s urge to buy impulsively”, *MIS Quarterly*, Vol. 33, No. 1, 2009, pp.83-108.
- Park, C. W. & Lessig, V. P., “Familiarity and its impact on consumer

- decision biases and heuristic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Vol. 8, No. 2, 1981, pp. 223-230. <https://doi.org/10.1086/208859>
- Sweeney, J. C., & Soutar, G. N.,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Vol. 77, No. 2, 2001, pp.203-220.
- Wang, J., Ma, Y., Min, L., Geng, J., & Xiao, Y., "The impact of social media fashion influencers' relatability on purchase intention: The mediating role of perceived emotional value and moderating role of consumer expertise". *Acta Psychologica*, Vol. 258, 2025, Article 105174. <https://doi.org/10.1016/j.actpsy.2025.105174>
- Zeithaml, V. A.,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s-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Vol. 52, No. 3, 1988, pp.2-22.

■ 국문초록

본 연구는 S-O-R(Stimulus-Organism-Response) 이론에 근거하여 SNS 뷰티 콘텐츠 특성(상호작용성, 유희성, 진정성, 유용성)이 소비자의 지각된 가치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사전지식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SNS를 통해 뷰티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국내 소비자 28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후, 다중회귀 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콘텐츠 특성의 네 요인은 모두 지각된 가치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가치는 구매의도와 유의한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사전지식은 상호작용성·진정성·유용성과 지각된 가치 간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였으나, 유희성에서는 조절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가설은 부분적으로 지지되었다. 본 연구는 SNS 뷰티 콘텐츠 특성과 소비자 반응 간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사전지식 수준에 따른 콘텐츠 전략 차별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주제어 • SNS 뷰티 콘텐츠, 지각된 가치, 구매 의도, 사전지식, S-O-R 모형

■ Abstract

**The Effects of SNS Fashion Content
Characteristics on Consumers' Perceived Value
and Purchase Intenti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Prior Knowledge**

Kim, Yu Been/ Konkuk University
Kim, Hye Kyun/ Wooso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SNS beauty content characteristics—interactivity, playfulness, authenticity, and usefulness—on consumers' perceived value and purchase intention based on the Stimulus–Organism–Response (S-O-R) framework. In addition, the moderating role of prior knowledge was analyzed.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287 Korean consumers who had prior experience purchasing beauty products through SNS platforms. After confirming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instrument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the hypotheses were tested using multiple regress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all four content characteristics had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value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purchase intention. Furthermore, prior knowledge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nteractivity, authenticity, usefulness, and perceived value, whereas no moderating effect was found for playfulness. Thus, Hypothesis 3 was partially supported. These findings empirically ident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SNS beauty content characteristics and consumer responses, and suggest the need for differentiated content strategies according to consumers' levels of prior knowledge.

**Keyword • SNS Beauty Content, Perceived Value, Purchase Intention,
Prior Knowledge, S-O-R framework**

■ 논문투고일:2025.12.08. ■ 심사완료일:2026.03.03. ■ 게재확정일:2026.03.19. ■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 동향

: 2006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구를 중심으로*

김 태 연 · 남 태 훈**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결과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출산을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한국 고등교육 체계 전반을 뒤흔들며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전체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였으며, 2024년까지 급격한 감소가 나타났다. 이후 2030년까지는 유사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된다.¹⁾ 이와 같은 청년층의 인구구조 변화는

* 본 논문은 2025년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2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자지원사업(NRF-2023S1A5A8079065)과 2025년 전북대학교 연구기반조성비(29250002008)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김태연(제1저자), 전북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전북대학교 인간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남태훈(교신저자), 전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석사과정

1) 김한수,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성과 판단을 위한 재무지표와 모형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6권 2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22, 1-21쪽.

대학의 정원 미달과 재정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학 운영과 중·장기 발전 전략 전반에 있어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고등교육 국제화와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2004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²⁾ 2008년 유학생 10만 명, 2010년대에는 20만 명이라는 목표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2012년에는 국제교육품질보증제(IEQAS)를 도입하여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최근에는 유학생 수의 증가에 따라 Study Korea Project를 Study Korea 300K로 조정하고, 2027년까지 30만 명 유치와 세계 10대 유학 강국 진입을 목표로 대학-지자체-산업계 간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³⁾

정부의 Study Korea 정책은 단계적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고등교육 국제화 전략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초기 목표는 교육 브랜드 가치 제고와 아시아 교육 허브로서의 위상 확립에 있었으며, 이후 정부 초청장학생(GKS) 확대, 한국어능력시험(TOPIK) 국제화, 대학 국제화 역량 인증제 등을 통해 장기적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해왔다. 최근에는 괄목할 만한 양적 증가의 성과를 이룬 후, 기존의 Study Korea 정책을 Study Korea 300K로 확장하면서 질적인 면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역특화 유학생 유치, 산업연계형 교육과정, 졸업 후 정착 지원 등의 질적 고도화를 지향하는 정책의 방향성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고도화로의 이러한 변화는, 이후 유학생 정책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지속적이고 급격한 외국인 유학생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활 적응과 학업 지원, 진로 및 지역 정주를

2)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Study Korea 300K Project』, 2023.

3) 윤상진, “공부하러 한국 왔어요 -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 조선일보, 2024.09.05.

둘러싼 실제적 지원 체계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⁴⁾ 많은 선행 연구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언어 장벽, 학업 스트레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사회적 고립감,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 등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⁵⁾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례나 단편적 접근을 위주로 한 연구분석을 넘어,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괄하기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문헌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⁶⁾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그러나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연구 주제·방법·대상·학문분야별로 파편화되어 전체적인 연구 지형과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수의 연구들이 유학생의 적응과 학업 지원에 관한 내용에 치중해 있으며, 연구대상 역시 중국인, 그리고 4년제 대학 재학생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단편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키며, 일부 대상에 기반한 조사분석의 연구결과를 일반화에 제한점을 지닌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 동향과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의 분포와 변화 양상, 연구 방법론의 특징, 연구 대상의 포괄성, 그리고 학문분야별 접근 방식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 구조적 특성을 조망하고자 한다. 특히, Study Korea 정책 추진 시기와 맞물리는 연구 동향의 변화를 함께 분석함으로

4) 우소하·이창섭·서승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지원 방안: 사례연구를 통한 통찰」, 『지식과 교양』 통권 17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5, 299-319쪽.

5) 김세경,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권 2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 999-1010쪽.

6) 신동훈·김세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탐색」, 『교육학연구』 58권 1호, 한국교육학회, 2020, 333-381쪽.

써, 국제교육 정책과 학술 연구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탐색하고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한 학문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공백 영역을 명확히 식별하고, 향후 외국인 유학생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연구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연구 분야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수립과 외국인 유학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한국 대학교육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위치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고등교육에서 단순한 교육 수요자를 넘어, 대학 국제화와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999년 당시 2천명이 넘지 않았던 국내 유학생은 20년 후인 2019년 약 16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소 주춤하긴 했으나, 이후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이루어오고 있다.⁷⁾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재학생 대비 유학생의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곳도 많다.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대학의 정원 충원과 재정 안정화, 캠퍼스의 국제적 다양성 제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외국인 유학생을 단순히 내국인 학생의 빈자리를 채우는 보조적 대상이 아닌, 한국 고등교육 체계의 주요구성 요소로 재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시행된 정부 주도의 Study Korea 정책은 이러한 인식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온 대표적인 사례이다. Study Korea 정

7)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2024.

8) 고민경,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권 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22, 474-488쪽.

책은 유학생 유치를 통해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인적자원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하는 전략으로 발전해 왔다. 특히 IEQAS 도입 이후 유학생 교육의 질 관리가 강조되면서, 외국인 유학생은 단순한 수적 확대의 대상이 아니라, 교육 성과와 학습 경험의 질을 함께 고려해야 할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교육에서 가지는 제도적 위상이 변화함에 따라,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술 연구 역시 양적 확대뿐 아니라 연구 주제와 관점의 다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금까지 외국인 유학생 연구는 정책 변화와 대학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그 초점과 분석의 틀을 지속적으로 확장·조정해 왔으며, 이러한 흐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은 연구 동향 분석의 중요한 이론적 출발점이 된다.

2)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의 주요 흐름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유학생 수 증가와 더불어본격적으로 축적되기 시작하였다.⁹⁾ 초기 연구들은 주로 국내대학의 유학생 유치 전략, 혹은 지자체의 제도적 지원 현황 등을 다루었으며,¹⁰⁾ 점차 유학생들의 적응 경험과 학업 수행 과정에 대한 연구가 늘어났다.¹¹⁾ 이러한 연구들은 외국인 유학생이 겪는 언어적·문화적 어려움,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문제 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기여해 왔다.¹²⁾

한편, 2010년대 이후의 연구들은 유학생의 심리적 적응이나 학업 성취뿐 아니라, 진로 선택과 취업, 지역사회 정착, 사회적 통합 등 보다 확장된

9)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 분석·연구(IP2020-12)』, 2020.

10) 김세경, 앞의 논문, 999-1010쪽.

11) 박영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피드백 중심 Chat GPT 활용에 따른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 『지식과 교양』 통권 19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5, 457-484쪽.

12) 고민경,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권 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22, 474-488쪽.

주제로 관심을 넓히고 있다.¹³⁾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일시적 체류자가 아닌 잠재적 인적자원으로 인식하는 정책 기조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주제의 확장은 일부 영역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방법이나 연구대상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제한적인 경향이 지적된다. 이처럼 외국인 유학생 연구는 특정 주제와 집단에 대한 이해는 심화되었으나, 연구 지형 전체를 균형 있게 조망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고 지적되었다.

3) 연구동향 분석의 필요성과 분석의 관점

연구동향 분석은 특정 연구 분야에서 축적된 선행연구의 흐름과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방법론적 접근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개별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연구 주제의 집중과 공백, 방법론적 편중, 연구대상의 한계 등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정책 환경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외국인 유학생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 축적의 양적 증가만으로는 학문적·정책적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주기적인 동향 분석을 통해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축적되어 왔는지, 정책 변화와 연구 주제 간에 어떤 연관성이 존재하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외국인 유학생 관련 선행연구를 연구 시기, 연구 주제, 연구 유형, 자료수집 방법, 통계분석 방법, 학문 분야라는 분석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 틀은 외국인 유학생 연구의 구조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연구가 확장되어야 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3) 김세연·김보영·유영만, 「외국인 유학생 진로관련 연구동향 분석: 주제범위 문헌고찰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권 1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835-850쪽.

- (1)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의 시기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 (2)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의 주제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 (3)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의 유형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 (4)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의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 (5)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의 통계분석 방법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 (6)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의 학문분야에 따른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3.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KCI 등재지에 실린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들이다. ‘외국인 학생’, ‘유학생’ 등의 키워드를 사용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해 총 349편의 논문을 수합하였고, 주제나 유형 면에서 분석에 적절하지 않은 논문을 제외한 총 312편을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수집된 논문들을 게재연도, 연구주제, 연구유형, 자료수집방법, 통계분석방법, 학문분야 별로 분류하였다. 각 분야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시기

논문의 연구시기는 2006년부터 2025년까지 5년씩 묶어 연평균 논문수를 계산하였다. 각 해에 나온 논문들을 아래에서 제시한 ‘유치와 적응’, ‘학업지원’, ‘취업과 정주’의 3가지 연구내용으로 분류하여 각 분기마다 어떤 내용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는지 살펴보았다.

(2) 연구 주제

연구주제를 범주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대상 논문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고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3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주제는 ‘유치와 적응’으로, 유학을 선택한 동기와 한국에의 적응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두 번째 주제는 ‘학업 지원’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몰입과 성취의 영향요인, 대학과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취업과 정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후 진로에 관한 분야, 즉 취업이나 결혼, 정주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연구유형

본 연구에서 연구유형의 분류는 정혜순, 이병래(2014)¹⁴⁾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문헌 연구 및 혼합연구로 분류하였다. 먼저 양적 연구는 조사결과를 수량화하여 통계 처리함으로써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한 연구를 의미하고, 질적 연구는 조사자 대상 심층면접이나 직접 관찰을 통해 인간 행동에 담긴 맥락이나 의미를 찾는 연구를 의미하며, 문헌 연구는 선행연구, 보고서, 관련법령 등 다수의 문헌을 고찰하여 분석하고 평가하는 연구를 의미한다. 혼합연구는 이 중 두 가지 이상을 병용한 연구를 의미한다.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의 분석은 김태연, 정현심(2015)¹⁵⁾의 분석기준을 참고하여 질문지, 면접, 사례, 문헌, 다중측정으로 구분하였다. 한 연구에서 질문지와 면접을 모두 사용한 경우처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집방법을 함께 사용하였을 때는 다중측정으로 분류하였다.

(5) 통계분석 방법

통계분석 방법은 양적연구만을 대상으로 분류하였으며, 백경순(2013)¹⁶⁾

14) 정혜순·이병래, 「유아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 연구』 19권 3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4, 109-129쪽.

15) 김태연·정현심, 「영유아 기본생활습관 관련 연구동향」, 『한국보육학회지』 15권 2호, 한국보육학회, 2015, 109-128쪽.

16) 백경순, 「영유아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권 3호, 393-411쪽.

의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기술통계,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구조방정식으로 구분하였다. 만약 한 연구에서 연구문제별로 다양한 통계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주요 목적에 해당하는 마지막 연구문제를 검증하는 데에 사용된 분석방법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¹⁷⁾

(6) 학문분야

학문분야는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KCI)의 학술지 주제 분야에 따른 연구분야를 확인하고, 이를 학제간연구, 교육학, 간호학 등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방법

통계분석을 위해 IBM SPSS 25.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 분석을 위해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외국인 유학생 관련 논문 312편을 위의 분석 기준에 의해서 분류하였다. 연구 분석의 범주는 연구자간의 합의를 통해 초안을 잡고, 연구 분석 범주를 포함하여 자료정리와 구체적 분석들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그 후 선정된 분석 범주 및 분석틀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 논문 중 10편을 임의로 선정하여 예비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석 범주와 방법에 연구자 간 이견이 없었다. 분석한 자료는 빈도와 백분율로 제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1) 연구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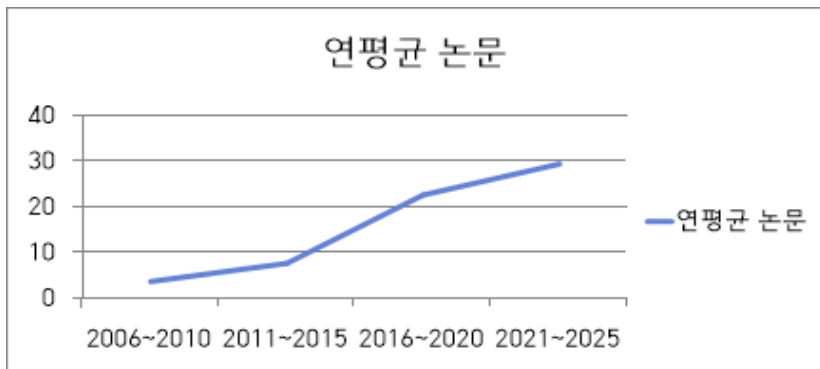
연도별 동향을 살펴보면,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논문은 5년 간 17편씩(연평균 3.4편) 게재되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5년 간 37편(연평균 7.4편), 2016

17) 김태연·정현심, 앞의 논문, 109-128쪽.

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112편(연평균 22.4편),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149편(연평균 29.2편) 게재되었다. 즉, 전체 분석 논문 중 최근 5년간 논문이 46.8%에 달할 정도로 급격한 양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 연구시기별 연구동향

	2006-2010	2011-2015	2016-2020	2021-2025	전체
5년간 게재수	17	37	112	149	312
연평균	(3.4)	(7.4)	(22.4)	(29.2)	(15.7)
비율	5.4	11.9	35.9	46.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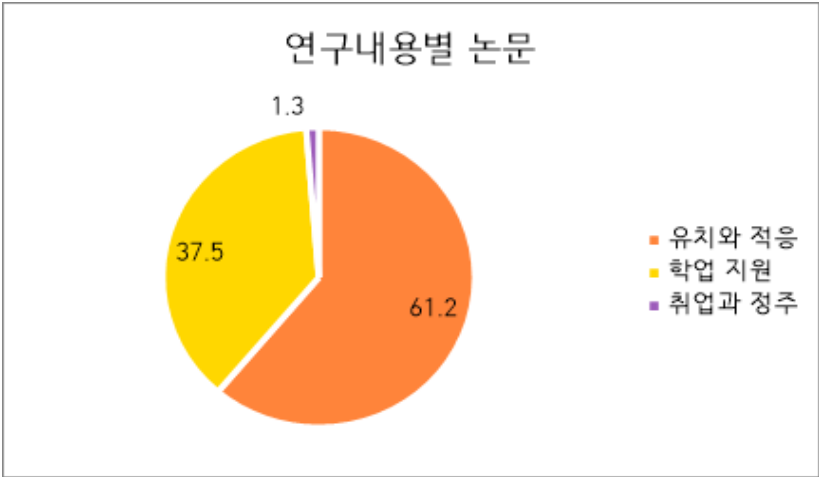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시기별 논문수 변화

2) 연구주제

연구주제별 비율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먼저 유학생의 유치와 적응에 관한 연구가 191편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학업지원 관련 연구가 117편이었다. 반면, 취업과 정주 관련 연구는 4편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연구가 유학생의 적응과 학업 관련 부분에 치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연구주제별 연구동향

	유치와 적응	학업지원	취업과 정주	전체
빈도	191	117	4	312
비율	61.2	37.5	1.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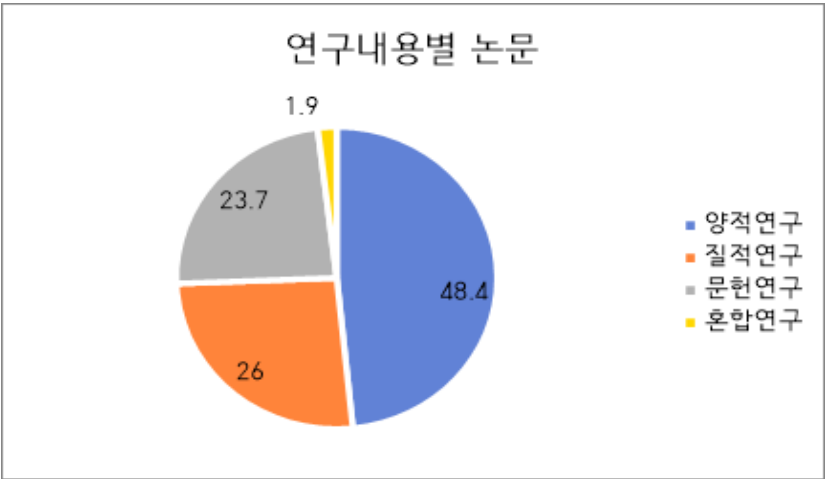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내용별 논문비율

3) 연구유형

연구유형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적연구가 151편, 질적연구가 81편, 문헌연구가 74편, 혼합연구가 6편으로 나타났다. 양적연구가 가장 많지만, 질적연구와 문헌연구도 비교적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 양적연구와 문헌연구 등을 병행하여 사용한 다각적 관점의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연구유형별 논문 수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	혼합연구	전체
빈도	151	81	74	6	312
비율	48.4	26.0	23.7	1.9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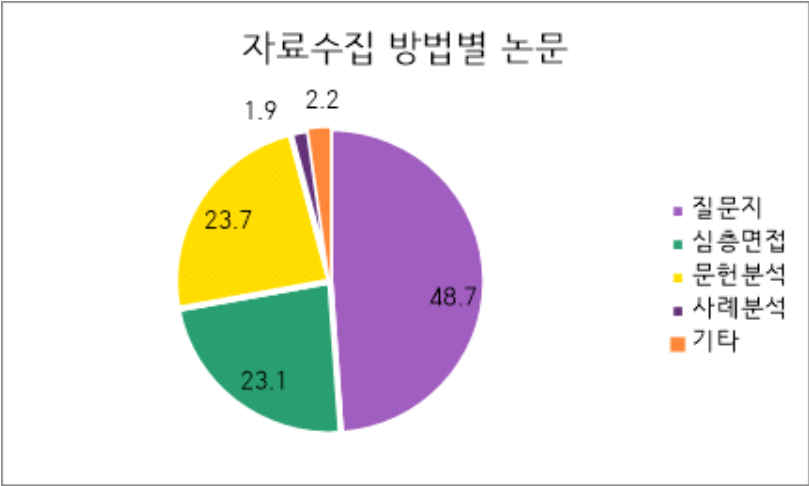
[그림 3] 연구유형별 논문비율

4) 자료수집 방법

자료수집 방법은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질문지를 이용한 방법이 152편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면접조사가 72편, 문헌 분석 74편, 사례분석 6편, 기타 7편 등이었다. 질문지법과 면접조사를 통한 자료수집이 가장 많았으며, 문헌분석이나 사례분석 등 다른 조사방법의 활용은 적은 편이었다.

[표 4] 자료수집 방법별 논문 수

	질문지	심층면접	문헌분석	사례분석	기타	전체
빈도	152	72	74	6	7	312
비율	48.7	23.1	23.7	1.9	2.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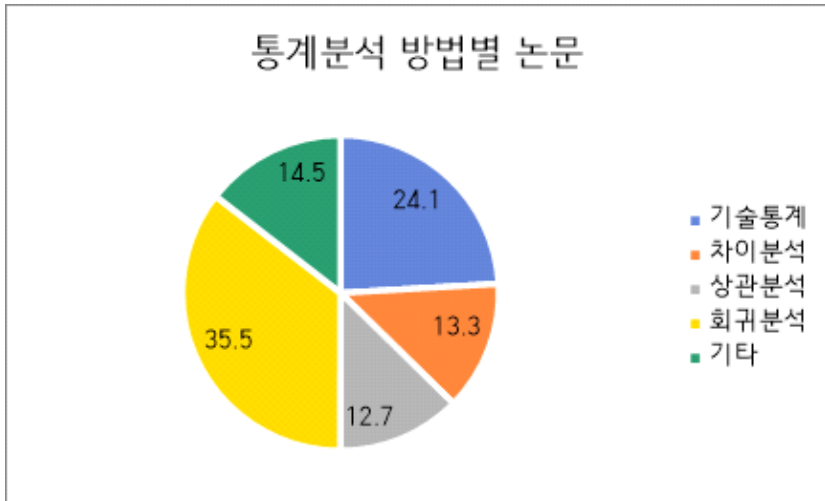
[그림 4] 자료수집 방법별 논문비율

5) 통계분석 방법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양적자료에 대한 통계분석 방법은, 분석대상 166편(100.0%) 중 회귀분석이 59편(35.5%) 으로 가장 많았으나, 그 외에는 기술통계 40편(24.1%) , 차이분석 22편(13.3%) , 상관분석 21편 (12.7%) 등으로 간략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구조방정식이나 군집분석, 다변량분석 등의 복합적 분석방식은 매우 적게 이루어졌다.

[표 5] 통계분석 방법별 논문 수

	기술통계	차이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기타	전체
빈도	40	22	21	59	24	166
비율	24.1	13.3	12.7	35.5	14.5	100.0



[그림 5] 통계분석 방법별 논문비율

6) 학문분야

학문분야 별로 논문 수를 살펴보면, 학제간 연구가 57편, 교육학 30편, 교과교육학 27편, 기타사회학 26편, 한국어와문학 17편, 기타인문학 14편 등으로 나타났다. 즉, 그간의 선행연구들이 특정학문분야에 치중하여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많은 연구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학 등에 기반을 둔 학제간 연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선행연구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선행연구들이 보이는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보완점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시기별로 살펴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Study Korea 프로젝트가

시작된 2009년 전후로 그 수가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¹⁸⁾ 저출산에 따른 내국인 대학 입학연령 인구 감소, 그리고 나아가 국가적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서 외국인들의 국내 거주 및 정주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지속적이고 다각화된 관련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둘째, 연구주제별로는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와 적응, 학업지원, 진로와 취업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다만, 분석결과 다수의 연구들이 유치적응과 학업지원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주로 교육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다.¹⁹⁾ 다만, 외국인 유학생의 유치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취업하여 정주하는 것인 만큼, 유치와 적응, 학업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진로와 취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후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진로선택과 취업, 정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4년제 대학 학생의 학업지원을 연구하고 있으나, 전문대학, 대학원생, 어학연수생, 지역 체류 유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집단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므로, 이런 분야에 대한 보완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반 가까운 연구들이 통계분석을 사용한 양적연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에 편재된 다른 연구주제들과 달리, 질적 연구나 문헌 연구도 상당한 비율로 고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연구방법을 병용하는 혼합연구도 나타나고 있다.²⁰⁾ 이는 유학생 관련 연구에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선행연구와는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

18) 고민경, 앞의 논문, 474-488쪽.

19) 주월량·민진영, 「외국인 대학원생 대상 연구 동향 분석 연구」, 『사고와 표현』 16권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3, 169-190쪽.

20) 이인혜,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혼합 연구」,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0, 275-308쪽.

다.²¹⁾ 연구유형과 연구주제를 연결하여 살펴보면, 주로 유학생의 유치나 적응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양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진 반면, 학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례분석이나 개인적 경험 분석 위주의 질적 연구가 많았다.

넷째, 자료수집 방법별로 살펴본 결과, 연구유형별 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양적 연구 분석을 위한 질문지 조사법이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로 번역하여 조사하는 경우가 많았다.²²⁾²³⁾ 이러한 방법은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번역된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에게만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이로 인해, 초기 많은 연구들이 중국, 혹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에 한정하여 조사를 진행했던 특징이 있다.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것은 심층면접을 통한 조사로, 이 방법 역시 초기에는 소통의 문제로 인해 특정 국가, 특히 중국인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와 더불어 학생들의 국적이 다양해지면서, 조사에 참여하는 통역원을 다양화하여 여러 국가의 사례를 함께 표집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늘어나고 있다.²⁴⁾

다섯째, 통계분석 방법별로는 응답자료의 빈도나 평균을 산출하는 기술통계, 혹은 집단 간 차이나 단순 영향관계를 살펴보는 정도의 기초적 분석에 그친 연구들이 많았다. 이는 최근 사회과학의 많은 연구주제에서 고급통계기법이 빈번히 사용되는 것과 대비되는 결과이다.²⁵⁾ 이러한 결과

21) 김세연·김보영·유영만, 앞의 논문, 835-850쪽.

22) 김민경,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 『청소년 시설환경』 13권 1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15, 7-16쪽.

23) 박영주, 앞의 논문, 457-484쪽.

24) 이윤주, 「중도탈락 귀한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4권 4호,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22, 141-168쪽.

25) 서보순, 「아동 돌봄 연구의 동향 분석」, 『영유아교육과정연구』 16권 1호,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2026, 1-26쪽.

는 조사대상인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사용 미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변인간 영향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주요변수를 측정하는 척도 세부 문항들에 응답해야 하는데,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유학생들은 양이 많은 질문지를 작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여섯째, 학문분야별로 살펴보면, 두 개 이상의 학문분야에서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학제간 연구가 가장 많았다. 초기 연구는 한국어교육학 등 교육 분야에서 시작되었으나, 이후 아동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국제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낮은 외국인 신입생들을 위한 교양교육 지원에 관한 연구 수요가 많았던 것이 학제간 연구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더 이상 드물거나 낮은 존재가 아니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학생 관련 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을 대변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관련연구들이 양적, 질적, 문헌연구 등 다양한 유형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나 다양한 분야의 학제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의 많은 수가 전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분석대상 연구 모두가 4년제 대학생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유학생 정주의 가장 큰 관건인 진로나 취업에 관한 주제가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은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는 KCI 등재지에 게재된 국내 학술지 논문만을 분석한 문헌연구라는 점에서, 외국인 유학생 연구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에만 국한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후에는 국내외 학술논문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유학생 연구에 대한 보다 폭넓은 연구 방향성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최근 한국 대학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 유학생들의 적응과 학업, 진로 등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봄으로써 그 특징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이루어질 후속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안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단행본

-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교육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 - Study Korea 300K Project』, 2023.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실태 분석·연구 (IP2020-12)』, 2020.
-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현황』, 2024.

논문

- 고민경,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탐색: 유학생의 다층적 경험과 정체성 이해를 위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8권 4호, 한국지역지리학회, 2022, 474-488쪽.
- 김민경,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과 행복과의 관계」, 『청소년시설환경』 13권 1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2015, 7-16쪽.
- 김세경,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권 2호,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 999-1010쪽.
- 김세연·김보영·유영만, 「외국인 유학생 진로관련 연구동향 분석: 주제범위 문헌 고찰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권 16호,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4, 835-850쪽.
- 김한수, 「학령인구 감소가 대학 재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성과 판단을 위한 재무 지표와 모형을 중심으로」, 『상업교육연구』 36권 2호, 한국상업교육학회, 2022, 1-21쪽.
- 김태연·정현심, 「영유아 기본생활습관 관련 연구동향」, 『한국보육학회지』 15권 2호, 한국보육학회, 2015, 109-128쪽.
- 박영주,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피드백 중심 Chat GPT 활용에 따른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 베트남 학습자를 중심으로 -」, 『지식과 교양』 통권 19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5, 457-484쪽.
- 백경순, 「영유아의 생활지도와 관련된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권 3호, 393-411쪽.

서보순, 「아동 돌봄 연구의 동향 분석」, 『영유아교육과정연구』 16권 1호, 한국영유아교육과정학회, 2026, 1-26쪽.

신동훈·김세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구 동향 분석: 시기별 연구주제 변화 탐색」, 『교육학연구』 58권 1호, 한국교육학회, 2020, 333-381쪽.

우소희·이창섭·서승범,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적응 지원 방안: 사례연구를 통한 통찰」, 『지식과 교양』 통권 17호,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5, 299-319쪽.

이윤주, 「중도탈락 귀환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유학 경험 연구」, 『글로벌교육연구』 14권 4호, 글로벌교육연구학회, 2022, 141-168쪽.

이인혜, 「외국인 학부 유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에 관한 혼합 연구」, 『한국어교육』 31권 4호,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20, 275-308쪽.

정혜순·이병례, 「유아 기본생활습관 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9권 3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14, 109-129쪽.

주월량·민진영, 「외국인 대학원생 대상 연구 동향 분석 연구」, 『사고와 표현』 16권 1호, 한국사고와표현학회, 2023, 169-190쪽.

신문기사

윤상진, “공부하러 한국 왔어요 - 유학생 20만명 첫 돌파”, 조선일보, 2024.09.05.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6년부터 이루어진 국내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의 방법이나 주제 등에 있어 편중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어 이후의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의 대상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KCI 등재지에 실린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연구 총 312편이다. 연구 결과,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논문은 2006년부터 2025년까지 급격한 양적 증가를 보이고 있었으며, 연구주제는 유학생의 유치/적응과 학업지원에 관한 부분에 치중되어 있었다.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연구가 고르게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질문지조사와 면접조사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통계분석 방법은 회귀분석이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는 기초통계, 차이분석 등 간략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특정학문분야에 치중되기보다는 많은 연구가 교육학, 인문학, 사회학 등에 기반을 둔 학제간 연구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학사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게 된 유학생들의 적응과 학업, 진로 등에 관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후 이루어질 관련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외국인 유학생, 스터디코리아(Study Korea), 연구 동향, 유학생 적응, 학업지원, 취업정주

■ Abstract

Research Trend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 A Review of Studies Published from 2006 to 2025

Kim, Tae-Yeon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Nam, Tae Hun /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examine research trends on international students in South Korea from 2006 onward and to identify imbalances or gaps in research methods and topics, thereby suggesting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The analysis covers 312 studies on international students published in Korea Citation Index (KCI)-indexed journals between 2006 and 2025. The findings indicate rapid quantitative growth in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s over this period, with research topics predominantly focusing on student recruitment, adaptation, and academic support. Quantitative, qualitative, and literature-based studies were conducted in roughly equal proportions, with questionnaire surveys and interviews as the most frequently used data collection methods. Regression analysis was the most commonly employed statistical technique, while other analyses were largely limited to descriptive statistics and difference tests. In addition, the results show that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s has been conducted primarily through interdisciplinary approaches grounded in education, the humanities, and sociology, rather than being confined to a single academic discipline. By providing a comprehensive overview of prior research on international students' adaptation, academic experiences, and career development, this study offers foundational data to inform future research in this field.

Keyword • International students; Study Korea Project; research trends; student adaptation; academic support; employment and settlement

■ 논문투고일:2026.01.31. ■ 심사완료일:2026.03.09. ■ 게재확정일:2026.03.23. ■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미국 치위생학 연구 동향 분석

: Journal of Dental Hygiene(2001-2025) 논문을 중심으로

고 유 정 · 유 지 수*

목 차

1. 서론
2. 연구설계 및 방법
3. 토픽 모델링 주제 분석 및 연도별 변화
4. 고찰
5. 결론

1. 서론

치위생학은 구강보건 증진과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학문 분야로 임상 실무와 교육과 정책 및 공중보건 영역에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¹⁾ 치과위생사 양성 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미국은²⁾ 1980년대 후반부터 치위생 실무의 독자적 이론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미국치과위생사협회(American Dental Hygienists' Association, ADHA)는 치위생 실무 표

* 고유정(제1저자) 목원대학교 SW교양학부 교수

유지수(교신저자) 구미대학교 치위생과 교수

1) 박수경·김남희,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치과위생사 직무 및 핵심역량 분석: 비임상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치위생학회지』 제25권 3호, 한국치위생학회, 2025, 241-253쪽.

2) 김형마·임순연·배현숙, 「미국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에 대한 고찰」, 『치위생과학회지』 제14권 3호, 한국치위생과학회, 2014, 276-286쪽.

준을 제시하면서 학문적 기반을 다졌고³⁾⁴⁾, 1927년에 Journal of Dental Hygiene(JDH)라는 학술지를 창간하여 치위생 실무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전문 학술지로 자리 잡았다.⁵⁾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분석하면 해당 학문 분야의 연구 주제 변화와 지식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기존의 치위생학 연구 동향 분석은 주로 논문 발행 연도, 연구설계 유형, 연구 대상, 키워드 빈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⁶⁾ 이러한 방식은 전반적인 경향 파악에는 유용했으나, 연구 주제 간의 잠재적 구조나 상호 연관성을 깊이 있게 규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특히 연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학제 간 융합이 활발해지는 현재 상황에서는 단순 분석만으로 학문적 흐름을 설명하기는 한계가 있다.⁷⁾⁸⁾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하는 토픽 모델링 기법이 학술 문헌 연구에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 모델링은 문서 집합에서 잠재된 주제를 확률적으로 추출하여, 연구 주제의 구조적 특성과 시간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⁹⁾ 이 방법은 여러 학문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치위생학 분야에서는 아직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JDH는 치위생

-
- 3) 조영식, 「치위생 과정 기반의 임상 치위생 교육과 실무」, 『치위생과학회지』 제11권 3호, 한국치위생과학회, 2011, 135-154쪽.
 - 4) Nichole L. Dicke, et al. "A Survey of Clinical Faculty Calibration in Dental Hygiene Program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9, no. 4, 2015, pp.264-273.
 - 5) Denise M. Bowen. "History of Dental Hygiene Research",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7, no. 1, 2013, pp.5-22.
 - 6) 김윤정·김수연·김선영,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치위생학 연구동향 분석: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의 비교」, 『한국치위생학회지』 제25권 1호, 한국치위생학회, 2025, 1-10쪽.
 - 7) 김윤정·노재희, 「Research trends in dental hygiene based on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한국치위생학회지』 제22권 6호, 한국치위생학회, 2022, 495-502쪽.
 - 8) 강용주·윤선주·문경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치위생과학회지 연구동향 분석」, 『치위생과학회지』 제18권 6호, 한국치위생과학회, 2018, 380-388쪽.
 - 9) Blei, D. M.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5, no. 4, 2012, pp.77-84.

학 분야에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 학술지로 2,000편 이상의 논문이 발간되었으며 구강건강과 치위생 분야의 교육 표준을 마련하고 임상 현장에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상 실무, 교육, 직무역량, 공중구강보건 등 다양한 영역을 다루며 국제 치위생 연구의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JDH 게재 논문을 분석하면 미국 중심의 국제 치위생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치위생 학술지를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선행 연구를 확장한 후속 연구로서¹⁰⁾, JDH의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국제 치위생학 연구의 주제 구조와 학문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중심이었던 기존 연구를 국제적 관점으로 확장하고, 치위생학 연구의 향후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설계 및 방법

1) 데이터 수집

Journal of Dental Hygiene(JDH)에 게재된 논문은 1946년부터 온라인 검색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향후 국내 연구(치위생과학회지)와 비교를 위해 동일하게 2001년부터 2025년까지를 데이터 수집 기간으로 선정하였다. 데이터 수집은 PubMed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초록이 포함된 논문으로 한정하고 키워드를 "J Dent Hyg[jour]"을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그 결과, 총 784편의 논문이 검색되어 Octoparse 웹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논문 제목, 발행일, 저자, 초록, 키워드, 발행번호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화하였으며, 이후 전처리 및 분석 과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였다.

10) 유지수·고유정,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치위생 학술 동향 분석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11호, 한국정보기술학회, 2025, 67-75쪽.

2) 텍스트 전처리

전처리는 데이터 정제, 용어 표준화, 불용어 제거 단계로 수행되었다. 먼저 텍스트를 소문자로 변환하고 소유격 표현의 아포스트로피를 제거하여 표기를 통일하였다. [표 1]과 같이 치위생 분야의 구강보건, 질환, 임상 관련 복합어는 병합하여 단일 토큰으로 처리하고 복수형은 단수형으로 변환하였다. 불용어는 일반 영어, 연구 방법, 설문 관련 용어 등 약 200개를 제거하였다. 전처리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위 빈출 용어를 여러 차례 검토하며 불용어 목록을 보완하고 복합어 병합 규칙을 정교화하였다.

[표 1] JDH 논문의 텍스트 전처리

구분	내용
복합어 병합	dental_hygiene_education, dental_hygienist oral_health, oral_health_education clinical_practice, patient_education periodontal_disease, early_childhood_caries
복수형 통일	children→child, teeth→tooth, patients→patient universities→university
불용어 제거	a, the, is, are, was, were, have, has, do, does study, method, result, analysis, sample questionnaire, survey, subjects, responses

3) 분석 방법

토픽을 분류하기 위한 분석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텍스트 벡터화, LDA 모델링, 모델 성능 평가, 토픽 분류, 시각화 단계로 이루어졌다.



[그림 1] 토픽 분류를 위한 분석 과정

텍스트 벡터화는 전처리된 데이터를 CountVectorizer를 사용하여 수치 벡터로 변환하였으며, 단어 단위(1-gram)로 분석하고 전체 문서의

50% 이상에 출현하는 과다 빈출 용어와 0.5% 미만(최소 3개 문서)에만 출현하는 희소 용어를 제외하였다.

LDA 토픽 모델링은 scikit-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으며, 토픽 수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같이 활용하였다. 먼저, 응집도와 혼란도를 계산하여 안정적인 구간인 토픽 수 7개와 8개를 후보로 선정 후 모델을 실행하여 토픽별 상위 키워드와 대표 문서 검토하고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8개로 결정하였다. 학습 방법은 batch 방식, 문서-토픽 사전분포(α)는 0.05, 토픽-단어 사전분포(β)는 0.01로 설정하여 학습하였다. 최대 반복 횟수는 60회로 설정하고 5회 반복마다 모델 성능인 Perplexity와 Topic Diversity 지표로 평가하였다.

모델 성능 평가를 확인한 결과, 모델의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Perplexity는 학습 반복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최종 1,881.06에서 수렴하였다. 이는 반복 학습을 통해 토픽 내 단어 결합 확률이 정교화되었음을 나타낸다. 토픽 간의 독립성과 변별력을 평가하는 Topic Diversity 지표는 상위 20개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0.856으로 산출되었다. 1.0에 근접한 수치로, 추출된 8개의 토픽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 학술적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토픽 분류는 학습된 LDA 모델을 통해 각 문서가 8개 토픽에 속할 확률 분포를 계산하였고, 각 문서는 가장 높은 확률값을 가지는 토픽으로 분류하였다. 각 토픽의 특성 파악을 위해 토픽-단어 분포에서 확률값이 높은 상위 20개 키워드를 추출하였으며, 각 토픽에서 문서-토픽 확률값이 가장 높은 상위 10개 대표 문서를 선정하였다.

시각화는 pyLDAvis 라이브러리를 통해 토픽 간 관계와 키워드 분포를 인터랙티브 형식으로 나타내었으며, 토픽별 문서 분포는 막대그래프로 표현하여 각 토픽의 비중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토픽 모델링 주제 분석 및 연도별 변화

1) 토픽 모델링 주제

토픽 모델링 분석 결과, JDH의 학술 동향을 대표하는 8개의 토픽을 도출하였다. 각 토픽별 주제와 키워드는 [표 2]와 같다.

[표 2] JDH의 8개 주요 토픽 및 핵심 키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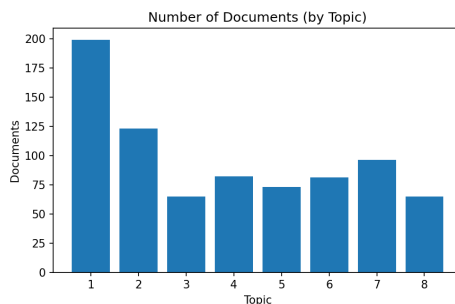
토픽 번호	토픽명	핵심 키워드
Topic 1	치위생 교육과정 및 역량 강화	program, education, faculty, dental_hygiene_education, learning, curriculum, degree, educational, course, online, skill, development, entry, directors, social, competency, cultural, teaching, profession, health_care
Topic 2	의료전달체계 와 협력 모델	provider, access, ipe, health_care, dentists, anxiety, oral_care, public, access_to_care, collaboration, literacy, interprofessional, covid, populations, clinic, workforce, dhs, preventive, racial, models
Topic 3	직업성 질환 및 건강관리	musculoskeletal, cancer, pain, screening, loupes, education, disease, symptoms, stress, professionals, osa, magnification, management, mental, burnout, risk, california, treatment, anesthesia, disorders
Topic 4	임상치주치료 및 고위험군 관리	periodontal_disease, instrument, scaling, risk, musculoskeletal, diabetes, calculus, treatment, sites, behaviors, older, hand, adults, surgical, population, term, periodontal_therapy, diameter, herbal, generation
Topic 5	구강암예방 및 전문 진료	hvp, service, cancer, ultrasonic, practitioner, prevention, motivational_interviewing, treatment, hearing, application, brief, oropharyngeal, lesions, bmi, recommendations, fluoride, depth, opc, advanced, training

Topic 6	건강행동 중재	self_efficacy, tobacco, behaviors, implant, behavior, risk, counseling, maintenance, education, behavioral, design, periodontal_disease, professionals, tobacco_cessation, intervention, disease, covid, nutritional, cigarettes, automated
Topic 7	소아 예방프로그램	child, caries, program, medical, fluoride, oral_care, parent, caregivers, examination, examinations, early, asd, wic, tooth, utilization, integration, quality, preventive, prevention, income
Topic 8	구강위생관리 및 임상 연구	plaque, gingival, floss, toothbrush, tooth, oral_hygiene, gingivitis, bleeding, treatment, hiv, manual, trial, adults, brush, daily, reduction, toothbrushes, bop, intention, social

토픽 1은 교육과정(curriculum), 학위 체계(degree), 교수법(teaching), 온라인 학습(online learning), 전문성(professional)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무분석과 학습성과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구조화하고, 전문직 정체성 확립과 치과위생사의 직무 확대에 부합하는 교육체계 구축 및 학위 체계의 고도화와 교수법 혁신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2는 전문직 간 협력(ipe), 취약계층(populations), 공공구강보건(public oral care), 인력 구조(workforce), 통합 진료 모델(models)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의료전달체계 및 협력 모델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 3은 근골격계 질환(musculoskeletal disorders), 통증(pain), 번아웃(burnout), 정신건강(mental health) 등의 키워드가 나타나 치과위생사의 반복적 임상 행위로 인한 직업적 질환과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4는 치석 제거(scaling), 치주치료(periodontal therapy), 당뇨병(diabetes), 노인(older) 등의 키워드를 통해 임상 치주치료 및 고위험군 관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토픽 5는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prevention), 동기부여 면담(motivational interviewing), 병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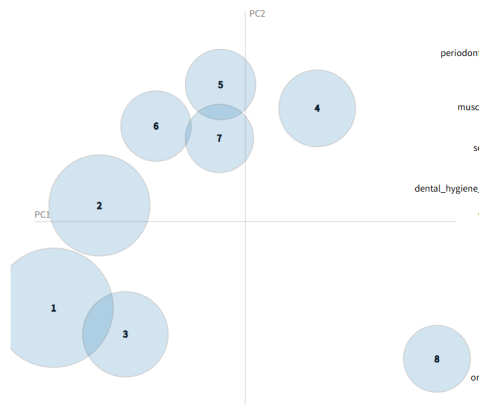
(lesions), 불소(fluoride), 초음파(ultrasonic)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치과위생사는 구강암 조기 발견 역량, 위험요인 평가, 금연 중재 및 전문적 스크리닝 체계 확립 등을 통해 암 예방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장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토픽 6은 자기효능감(self-efficacy), 담배(tobacco), 상담(counseling), 행동(behaviors), 중재(intervention), 유지관리(maintenance), 영양(nutritional)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치과위생사의 행동 변화 촉진 역량과 금연 상담을 중심으로 환자의 행동변화이론을 기반으로 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행동 중재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 7은 아동(child), 우식증(caries), 불소(fluoride), 구강관리(oral care), 부모(parent), 보호자(caregivers), 검진(examination), 조기(early), 자폐스펙트럼장애(ASD), 미국 보건 서비스(WIC), 예방(preventive) 등 소아를 대상으로 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8은 치태(plaque), 치은염(gingivitis), 치실(floss), 칫솔(toothbrush), 구강위생(oral hygiene) 등의 키워드가 포함되어 구강위생 관리 및 근거 기반 임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별 논문 분포를 분석한 결과, [그림 2]와 같이 토픽 1 치위생 교육과정 및 역량 강화 연구가 199편으로 가장 활발하고, 토픽 2 의료전달체계와 협력 123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토픽 3부터 8까지는 균등한 분포(60~100편)를 보여 다양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토픽별 논문 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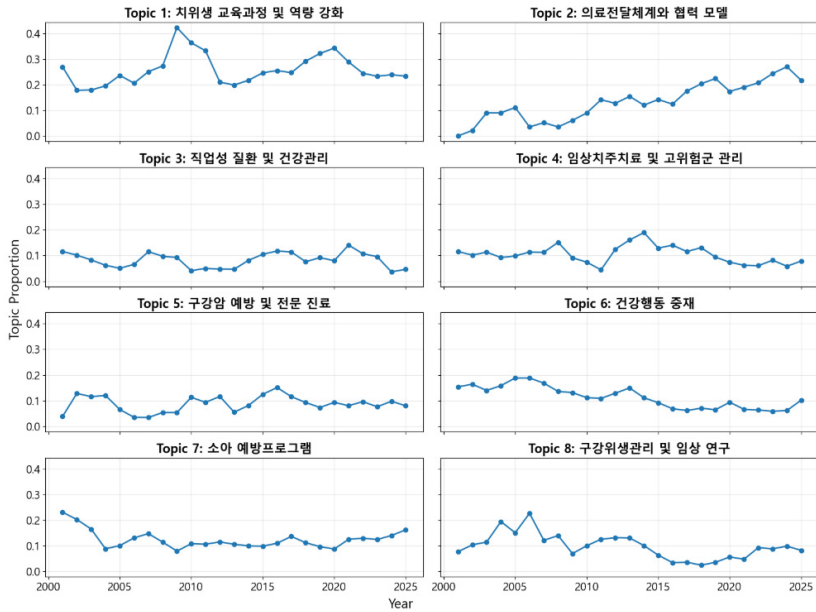
토픽 간 분포도를 확인하기 위해 시각화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각 원의 크기는 논문의 비중을 나타내며, 원 간의 거리는 토픽 간 주제적 유사성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토픽 4, 5, 6, 7은 근접하게 배치되어 있어 임상관리, 예방, 행동중재 연구가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토픽 2 역시 인접하여 의료전달체계와 예방·중재 연구 간 구조적 연계성이 나타났다. 반면 토픽1과 토픽3은 별도의 군집을 형성하여 치과위생사 교육, 역량 및 직업성 건강관리 영역이 하나의 독립적 연구 축을 구성함을 시사한다. 반면, 토픽8은 다른 토픽들과 떨어져 있어 구강위생 도구 및 임상 연구가 독립적인 주제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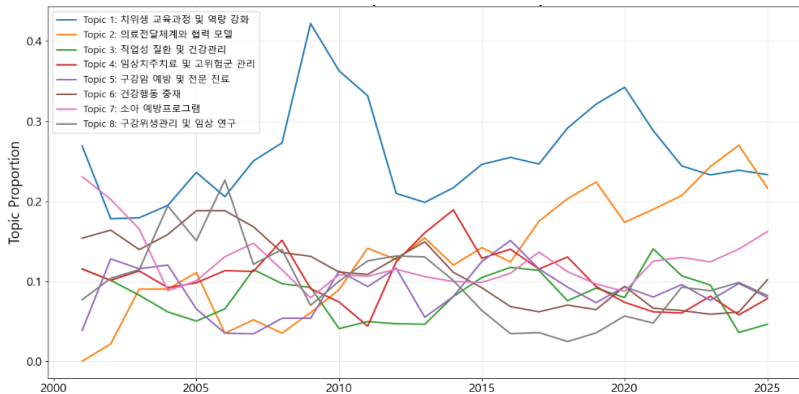
[그림 3] 토픽 간 거리 분포도

2) 토픽의 연도별 변화

본 연구는 JDH의 2001~2025년까지 연도별 토픽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연도별 상대적 비중을 계산하고,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3년 이동 평균법을 적용하여 [그림 4]와 같이 개별 토픽과 [그림 5]와 같이 종합 중첩 그래프로 출력한 뒤 비교 분석하였다.



[그림 4] JDH의 토픽별 시계열 변화(2001-2025)



[그림 5] JDH의 토픽의 종합 시계열 변화(2001-2025)

개별 토픽의 변화를 살펴보면, 토픽 1 치위생 교육과정 및 역량 강화는 전 기간에 걸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유지하며, 특히 2008-2010년경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이후 다소 변동은 있으나 최근까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치위생학 연구에서 교육과 전문성 강화가 지속적으로 핵심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픽 2 의료전달체계와 협력 모델은 2000년대 초반에는 낮은 비중을 보였으나, 2005년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2015년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어, 최근에는 주요 연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다직종 협력과 보건의료 전달체계 차원의 접근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토픽 3 직업성 질환 및 건강관리는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완만한 감소와 변동을 반복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직무 관련 건강관리 연구가 일정 수준 유지되면서도, 다른 주제 영역으로 연구 관심이 분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토픽 4 임상치주치료 및 고위험군 관리는 2000년대 후반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전반적으로 완만한 감소 또는 정체 양상을 보였다. 이는 임상 술기 중심 연구에서 환자 관리, 행동 중재, 협력 체계 중심 연구로 초점이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픽 5 구강암 예방 및 전문 진료는 전 기간에 걸쳐 큰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서, 중기 이후 점진적인 증가 양상을 보였다. 이는 치위생학 연구에서 전문 진료 및 고위험군 관리 영역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토픽 6 건강행동 중재는 초기에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였으나, 중기 이후 완만한 감소와 안정화를 거쳤다. 이는 행동 변화 중심 연구가 초기 확산 이후 다른 토픽들과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토픽 7 소아 예방프로그램은 2001년 이후 초기에 높은 비중을 보인 뒤 빠르게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변동을 유지하였다. 이는 연구 초점이 특정 연령집단 중심에서 보다 포괄적인 대상과 시스템 접근으로 이동하였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토픽 8 구강위생관리 및 임상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일시적으로 증가한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최근에는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는 도구, 술기, 처치 효과 중심 연구가 초기 이후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

음을 의미한다. 종합 중첩 그래프를 통해 보면, 시간 경과에 따라 치위생학 연구의 중심 주제가 예방 및 술기 중심에서 교육, 전문성 강화, 행동 중재, 의료전달체계 및 협력 모델로 점진적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확인된다. 특히 최근 시기에는 교육과 협력 체계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강화되면서,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임상 수행자에서 환자 관리 및 보건 의료 전달체계의 핵심 인력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4. 고찰

본 연구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대표 논문들을 분석하고 각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을 고찰하였다. 토픽 1은 치위생 교육과정과 치과위생사의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이다. 관련 논문을 분석해 보면 사회적 결정요인을 임상 교육에 통합하거나 리더십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학문적 정체성 형성 과정을 탐구함으로써, 치과위생사를 전문 보건인으로 성장시키려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교수·학습 방법 측면에서는 학습자의 임상 역량과 학습 몰입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뮬레이션, 에스케이프 룸(Escape room), 객관적 구조화된 임상 시험(OSCE)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 공동체와 SNS 활용 등 다양한 접근이 도입되고 있다.¹¹⁾¹²⁾ 또한 장애인 및 노인 대상 교육, 지속가능성 교육, 공감 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치위생 교육이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토픽 1은 치위생 교육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 전문직 정체성, 연구 및 리더십 역량을 통합적으로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11) Kathleen Sauze, et al. "Escape Rooms for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 A scoping review",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8, no. 6, 2024, pp.27-40.
- 12) Valerie K. Nieto, et al. "Utiliz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s (OSCE) as an Assessment for Clinical Competency and Licensure: A survey of dental hygiene director's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4, no. 6, 2020, pp.65-71.

토픽 2는 치과위생사를 중심으로 구강보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다학제 협력을 통해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이다. 본 토픽에 포함된 논문들은 학교, 지역사회, 요양시설 및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 중심 구강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자적 진료와 중간 단계 진료 제공자에 관한 연구는 치과위생사가 임상 보조 역할을 넘어서 예방 및 공공 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할 확장은 치과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의료 취약지역에서 예방 중심 구강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치과위생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보건 인력 간 다학제 협력과 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을 다룬 연구들은 팀 기반 진료가 환자의 의료 이용과 건강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¹³⁾. 이는 협력 기반 전달체계가 구강보건 서비스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면 토픽 2는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장과 다학제 협력을 기반으로 취약계층 중심의 예방적 구강보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접근성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연구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향후 구강보건 정책과 교육이 보건의료 전달체계 설계와 협력 역량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토픽 3은 치과위생사의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전략을 다루는 연구 영역이다. 치과위생사는 장시간 고정된 자세, 반복 동작, 비대칭적 작업 환경으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기 쉽다. 관련 연구들은 손잡이 방향과 작업 습관이 근골격계 질환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고하였으며¹⁴⁾, 학생과 임상

13) Jennifer R. Bagge, et al. "Dental Hygienists'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Collaboration Experiences: A survey of current behaviors and attitude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5, no. 4, 2021, pp.32-40.

14) Kristin R. Natali, et al. "The Relationship of Handednes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9, no. 4, 2025, pp.6-17.

가 모두에서 목과 상지 통증의 유병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치과위생사는 업무 강도, 감정노동, 감염 위험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번아웃에 노출되어 정신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¹⁵⁾ 종합하면 토픽 3은 치과위생사의 직무 특성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직업성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직업성 건강관리를 구축하려는 연구 흐름을 보여준다. 이는 향후 치위생 교육과 정책이 직업성 건강과 안전, 정신건강 관리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포함해야 함을 나타낸다. 토픽 4는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전신질환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고위험군의 맞춤형 관리 전략을 다루는 연구이다. 치주치료의 핵심인 스케일링과 기구 사용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룬다. 초음파 기구와 탐침의 치석 탐지 효율 비교, 다양한 초음파 기술의 치석 제거 효과 역시 임상 정확도 향상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다.¹⁶⁾ 동기강화면담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환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치주임상 치료 결과가 장기적으로 개선되는 결과가 나타났다.¹⁷⁾ 이는 환자의 건강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치료 결과에 주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준다. 고위험군 관리 측면에서는 당뇨병과 치주질환의 상호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보고되며, 치주 환자의 당뇨 관련 지식과 관리 행동에서 치과위생사의 교육적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노인 인구와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는 독립 거주 노인의 구강건강 상태, 요양시설 노인의 관리 실태, 장기요양 환경에서 치과위생사의 전문적 역할이 제시되었으며, 고령 인구에서는 치주질환이 전신건강 및 삶

-
- 15) Laurie V. Bercasio, Dorothy J. Rowe, & Alfa-Ibrahim Yansane.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among Dental Hygienists in California",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4, no. 6, 2020, pp.40-48.
- 16) Brian B. Partido, Chadleo Webb, & Michele P. Carr.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Calculus Detection Between Ultrasonic Inserts and an Explorer",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2, no. 6, 2018, pp.33-39.
- 17) Michelle C. Arnett, et al. "Longitudinal Impact of Brief Motivational Interviewing on Periodontal Clinical Outcomes and Patient Perceptions: A 3-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9, no. 3, 2025, pp.12-23.

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예방 중심의 관리 전략이 필요함이 강조되었다. 종합하면 토픽 4는 기구 및 술식 중심의 치주치료 연구와 함께, 환자 행동 변화, 전신질환 관리, 고령 및 만성질환 고위험군 관리까지 통합적으로 다루는 영역이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평가자, 건강행동 중재자, 만성질환 관리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토픽 5는 구강암의 예방, 조기진단, 환자 교육, 그리고 전문적 임상 중재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 영역이다. HPV 관련 구강암 예방 교육 및 의사소통 역량 강화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치과위생사의 HPV 관련 지식, 태도, 상담 수행 능력이 유의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⁸⁾ 특히 BMI를 활용한 HPV 상담 교육은 실제 임상에서 예방적 의사소통 수행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었으며¹⁹⁾, 이는 치과위생사가 예방 상담자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조기진단 영역에서는 구강 및 구인두암 병소의 특성, 최신 임상 지침, 병소 탐지 기술에 관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였다. 종설 연구들은 조기 발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형광 기반 병소 탐지 기술은 기존의 시진이나 촉진 방식보다 높은 민감도를 보일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또한 공격성 백반증, 국소 농양 등의 임상 증례 연구를 통해 병소 인지 능력과 전문적 의뢰 판단 능력이 치과위생사의 핵심 임상 역량으로 확인되었다.²⁰⁾ 종합하면 토픽 5는 HPV 기반 구강암 예방 교육, 조기 병소 탐지 기술, 불소 및 예방 서비스, 그리고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합적으로 포괄하

18) Cynthia L. Stull, et al. "Utilization of the HPV Brief Motivational Interviewing Skills-Based Training Among University of Minnesota Dental Hygiene Alumni",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9, no. 3, 2025, pp.24-37.

19) Connie Croffoot, et al. "Evaluating the effects of coaching to improve motivational interviewing skill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4, no. 2, 2010, pp.57-64.

20) Thomas P. Shopper, Robert B. Brannon, & William H. Stalker. "Proliferative verrucous leukoplakia: an aggressive form of oral leukoplakia",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78, no. 3, 2004, pp.1-6.

는 연구 영역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암 예방 상담가, 조기 진단자, 전문 중재 제공자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토픽 6는 치과위생사의 행동 변화 촉진 역량과 금연 상담을 중심으로 환자의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 중재, 유지관리 전략을 포괄하는 연구 영역이다. 본 토픽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상담자이자 건강행동 중재자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흡연 및 전자담배 관련 연구에서는 전자담배와 기존 담배 사용이 구강 및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으로 치주질환 위험 증가와 염증 반응 악화 가능성이 보고되었으며²¹⁾, 환경적 담배 연기와 치주질환의 연관성 역시 비흡연자에서도 치주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더 나아가 치과위생사의 금연 확대 연구에서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 금연 상담 수행 빈도가 증가함이 확인되었고, 자기효능감(self-efficacy) 중심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이 구강건강 행동 개선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²²⁾ 이는 치과위생사가 단순한 정보 제공자를 넘어 행동 설계자로 기능해야 함을 나타내며 생활 습관 상담 연구들은 이러한 역할 확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식생활 역량과 구강건강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영양 상담이 예방치과 서비스의 핵심 중재 요소임을 제시하였다²³⁾. 디지털 기반 행동 중재 연구는 향후 치과위생사의 상담이 대면 중심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임플란트 및 치주 유지관리와 행동 중

21) Amanda J. Abbott, et al. "Oral and Systemic Health Implications of Electronic Cigarette Usage as Compared to Conventional Tobacco Cigarett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7, no. 4, 2023, pp.21-35.

22) Alexandrina L. Dumitrescu, et al. "Predicting undergraduates' intentions to improve oral health behaviors: the importance of self-identity—a pilot study",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7, no. 4, 2013, pp.224-234.

23) Barbara Lohse, & Loren Masters. "Eating Competence and Oral Health in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ligible Population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3, no. 6, 2019, pp.42-50.

재의 결합이 중요한 영역으로 보고되었으며, 교육 영역에서는 학생 및 임상가의 상담 역량 강화 연구가 포함되었다. 토픽 6을 종합하면 흡연 및 전자담배 위험관리, 행동 변화 이론 기반 상담, 자기효능감 중심 중재, 영양·생활 습관 교육, 디지털 기반 자동화 중재, 임플란트 및 치주 유지관리 행동 강화, 그리고 전문 상담자 양성 교육을 통합적으로 포함하는 연구 영역으로 구조화되었다. 이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예방처치자에서 환자의 행동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건강 코치(health coach)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토픽 7은 소아를 대상으로 질병 치료중심에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로 재구조화하려는 연구이다. 최근 연구들은 보호자 문해력, 예방 인식, 사회경제적 요인, 의료 통합 환경을 핵심 변수로 설정하고 있다. 이 토픽에 포함된 연구들은 소아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가정·보호자 인식, 사회경제적 요인, 의료접근성, 예방 서비스 통합체계의 문제로 확장하여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 소아 및 보호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보호자의 구강건강 문해력과 우식증 인식 수준이 실제 진료 이용과 밀접하게 연관됨을 보고하였다. 최근 연구들은 의료-치과 통합(Medical-Dental Integration) 기반 예방 모델을 통해 소아 진료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전략에 주목하고 있다.²⁴⁾ 소아과 진료 현장에서 불소도포 및 구강검진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이 실제 예방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예방 중심 구강보건 체계 구축의 실증적 근거로 작용한다. 자폐스펙트럼장애(ASD) 아동 대상 구강관리 연구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은 치과 불안, 진료 협조도 저하, 보호자 부담이 높아 조기 예방 개입이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교육 및 진료 개선 연구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²⁵⁾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예방 프로그램 역시 중요한 영역으로

24) Melissa M. Sullivan, et al. "Associ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Caries, Feeding Practices and an Established Dental Home",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6, no. 5, 2022, pp.13-22.

25) Leah S. G. Spittle, Gail Apsley, & Marsha A. Voelker. "Autism Spectrum

실란트, Early Head Start 등은 소아 우식증 감소에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소아 구강보건이 개별 진료가 아닌 공중보건적 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토픽 7은 소아 우식증 예방을 중심으로 보호자 교육, 의료-치과 통합,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특수아동 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예방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다차원적 예방 연구로 판단된다. 이는 소아 구강건강 관리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 체계에서 예방 중심 건강관리 체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토픽 8은 구강위생 관리 및 임상연구에 관한 주제이다. 관련 연구들은 전동칫솔, 칫솔질, 치실, 구강세정기, 구강세정제 등 구강위생 도구의 임상적 효과를 검증하고 있으며²⁶⁾, 이는 구강위생 관리가 근거 기반 중재 전략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구강위생의 효과는 기계적 제거 능력뿐 아니라 개인의 수기 능력과 행동 특성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되었다. 행동 변화와 이행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문자메시지 개입과 보조구 사용이 치은건강을 개선 시킨 연구, 소비자의 정보 탐색과 구매 의도를 분석한 연구, 사회불안과 구강위생 상태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 등은 구강위생 관리가 생물학적 문제뿐 아니라 심리·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행위 건강 영역임을 보여준다. 또한 생애주기별 접근 연구인 노인 및 전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구강위생 관리가 전신건강과 밀접히 연관됨을 보고하고 있다. 요양시설 노인의 전문적 구강관리 효과를 분석한 연구와 고령자의 셀프 위생 특성을 다룬 연구²⁷⁾는 생애주기별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토픽 8은 구강위생 도구의 임상적 효과 검증, 개인의 행동 및 사회적 요인 분석,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 근거

Disorder: Techniques for Dental Radiographic Examination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4, no. 5, 2020, pp.40-47.

26) Deborah M. Lyle, J. G. Qaish, & R. Goyal. “Efficacy of Water Flossing on Clinical Parameters of Inflammation and Plaque: A Four-Week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6, no. 1, 2022, pp.15-26.

27) R. Constance Wiener, et al. “Hygiene Self-Care of Older Adults in West Virginia: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6, no. 3, 2012, pp.231-238

중심 실천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상 연구 주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치위생 학술지를 대상으로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한 선행 연구를 국제적 분석으로 확장한 후속 연구로서, 국내 중심의 연구 시각을 글로벌 치위생학 연구 흐름과 연결하는 데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국내외 치위생 학술지의 질적·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외 학술지 간 비교 분석 연구가 필요하며, 치과위생사 역할 확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및 정책적 기반 구축과 보건의료 전달체계·정책·의료·치과 통합모델 중심 연구의 구조적 확장 연구의 강화가 연구 방향으로 요구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Journal of Dental Hygiene(JDH)에 게재된 총 78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미국 치위생학 학술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미국 치위생학 연구는 임상 기술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육 혁신, 전문직 정체성 강화, 예방 중심 전달체계 구축, 직업성 건강관리, 근거기반 임상중재, 행동 변화 중재,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의료-치과 통합모델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각 토픽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임상 보조자에서 독립적 전문 보건인, 예방 상담자, 건강행동 중재자, 공공보건 인력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치위생학 연구가 치료 중심 구조에서 예방·중재·행동·근거기반 실천 중심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치위생학이 임상 기술 중심 학문을 넘어, 보건의료 전달체계·정책·행동과학·공중보건을 통합하는 전문 보건 학문 영역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역량 기반·행동과학·근거기반 실천 중심의 교육체계 개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치과위생사 역할 확장을 뒷받침하는 법·제도 및 정책적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보건의료 전달체계·의료·치과 통합모

델 중심 연구의 확장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미국 치위생학 연구가 전문직 정체성 강화, 예방 중심 보건 체계 전환, 근거 중심 실천 체계 확립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이루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치위생학이 보건의료 시스템 내 핵심 전문 학문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학문적·정책적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논문

강용주·윤선주·문경희,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치위생과학회지 연구동향 분석」, 『치위생과학회지』 제18권 6호, 한국치위생과학회, 2018, 380-388쪽.

김윤정·김수연·김선영, 「의미연결망 분석을 활용한 치위생학 연구동향 분석: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의 비교」, 『한국치위생학회지』 제25권 1호, 한국치위생학회, 2025, 1-10쪽.

김윤정·노재희, 「Research trends in dental hygiene based on topic modeling and semantic network analysis」, 『한국치위생학회지』 제22권 6호, 한국치위생학회, 2022, 495-502쪽.

김형미·임순연·배현숙, 「미국치과위생사의 전문직화에 대한 고찰」, 『치위생과학회지』 제14권 3호, 한국치위생과학회, 2014, 276-286쪽.

박수경·김남희, 「사회치위생학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치과위생사 직무 및 핵심역량분석 : 비임상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치위생학회지』 제25권 3호, 한국치위생학회, 2025, 241-253쪽.

유지수·고유정, 「LDA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치위생 학술 동향 분석 연구」, 『한국정보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11호, 한국정보기술학회, 2025, 67-75쪽.

조영식, 「치위생 과정 기반의 임상 치위생 교육과 실무」, 『치위생과학회지』 제11권 3호, 한국치위생과학회, 2011, 135-154쪽.

Alexandrina L. Dumitrescu, Carmen Duță, Carmen Beatrice Dogaru, & Bogdan Manolescu. "Predicting undergraduates' intentions to improve oral health behaviors: the importance of self-identity—a pilot study",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7, no. 4, 2013, pp.224-234.

Amanda J. Abbott, Yvette G. Reibel, Michelle C. Arnett, Nicholas Marka, & Miranda A. Drake. "Oral and Systemic Health Implications of Electronic Cigarette Usage as Compared to Conventional

- Tobacco Cigarett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7, no. 4, 2023, pp.21-35.
- Barbara Lohse, & Loren Masters. “Eating Competence and Oral Health in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Eligible Population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3, no. 6, 2019, pp.42-50.
- Blei, D. M.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vol. 55, no. 4, 2012, pp.77-84.
- Brian B. Partido, Chadleo Webb, & Michele P. Carr. “Comparison of the Efficacy of Calculus Detection Between Ultrasonic Inserts and an Explorer”,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2, no. 6, 2018, pp.33-39.
- Connie Croffoot, Kimberly Krust Bray, Marsha A. Black, & Anne Koerber. “Evaluating the effects of coaching to improve motivational interviewing skill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4, no. 2, 2010, pp.57-64.
- Cynthia L. Stull, Kelly Rogers, Keeley Flavin, Rachel Thelen, Michael D. Evans, & Michelle C. Arnett. “Utilization of the HPV Brief Motivational Interviewing Skills-Based Training Among University of Minnesota Dental Hygiene Alumni”,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9, no. 3, 2025, pp.24-37.
- Deborah M. Lyle, J. G. Qaqish, & R. Goyal. “Efficacy of Water Flossing on Clinical Parameters of Inflammation and Plaque: A Four-Week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6, no. 1, 2022, pp.15-26.
- Denise M. Bowen. “History of Dental Hygiene Research”,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7, no. 1, 2013, pp.5-22.
- Jennifer R. Bagge, Tammara C. Harbaugh, Iris G. Tabora, Melissa A. Aponte, Adriana Hakobyan, & Deborah L. Johnson. “Dental Hygienists'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Collaboration Experiences: A survey of current behaviors and attitudes”,

-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5, no. 4, 2021, pp.32-40.
- Kathleen Sauze, Karen K. Yee, Nazlee Sharmin, & Ava K. Chow. "Escape Rooms for Health Professional Education: A scoping review",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8, no. 6, 2024, pp.27-40.
- Kristin R. Natali, Susan J. Jenkins Lewando, Linda D. Boyd, & Jared Vineyard. "The Relationship of Handedness,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Among Dental Hygienist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9, no. 4, 2025, pp.6-17.
- Laurie V. Bercasio, Dorothy J. Rowe, & Alfa-Ibrahim Yansane. "Factors Associated with Burnout among Dental Hygienists in California",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4, no. 6, 2020, pp.40-48.
- Leah S. G. Spittle, Gail Apsley, & Marsha A. Voelker, "Autism Spectrum Disorder: Techniques for Dental Radiographic Examination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4, no. 5, 2020, pp.40-47.
- Melissa M. Sullivan, Denise C. McKinney, Deanne Shuman, & Qi Zhang. "Association between Early Childhood Caries, Feeding Practices and an Established Dental Home",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6, no. 5, 2022, pp.13-22.
- Michelle C. Arnett, Danna R. Paulson, Michael D. Evans, & Yvette G. Reibel. "Longitudinal Impact of Brief Motivational Interviewing on Periodontal Clinical Outcomes and Patient Perceptions: A 3-year follow-up study",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9, no. 3, 2025, pp.12-23.
- Nichole L. Dicke, Kathleen O. Hodges, Ellen J. Rogo, & Beverly J. Hewett. "A Survey of Clinical Faculty Calibration in Dental Hygiene Program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9, no. 4, 2015, pp.264-273.
- R. Constance Wiener, Bei Wu, Richard J. Crout, Brenda L. Plassman, Daniel W. McNeil, Michael A. Wiener, Elizabeth Kao, & Daniel J.

Caplan. "Hygiene Self-Care of Older Adults in West Virginia: Effects of Gender",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86, no. 3, 2012, pp.231-238.

Thomas P. Shopper, Robert B. Brannon, & William H. Stalker. "Proliferative verrucous leukoplakia: an aggressive form of oral leukoplakia",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78, no. 3, 2004, pp.1-6.

Valerie K. Nieto, Iwonka Eagle, Samantha Mishler, & Danielle Rulli. "Utiliz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s (OSCE) as an Assessment for Clinical Competency and Licensure: A survey of dental hygiene director's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Dental Hygiene*, vol. 94, no. 6, 2020, pp.65-71.

■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25년까지 Journal of Dental Hygiene(JDH)에 게재된 총 784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과 LDA 토픽 모델링을 적용하여 미국 치위생학의 구조적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미국 치위생학 연구는 임상 기술 중심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교육 혁신, 전문직 정체성 강화, 예방 중심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직업성 건강 관리, 근거 기반 임상 중재, 행동 변화 중재, 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의료-치과 통합모델로 연구 영역이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출된 8개 핵심 토픽은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임상 보조자 중심 구조에서 독립적 전문 보건인, 예방 상담자, 건강행동 중재자, 공공보건 인력으로 재구조화되고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었으며, 치위생학 연구 패러다임이 치료 중심 구조에서 예방·중재·행동·근거기반 실천 중심 구조로 변화되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 치위생학 연구의 구조적 변화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치위생학이 보건의료 시스템 내 핵심 전문 학문으로 정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학문적·정책적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치위생학 연구동향, 텍스트 마이닝, 근거중심 실천, 전문직 정체성, 예방중심보건의료체계

■ Abstract

**Analysis of Trends in American Dental Hygiene
Research Using Text Mining
: Focusing on Papers in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2001–2025)**

Ko, You Jung / Mokwon University
Yu, Ji Su / Gum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structural research trends in U.S. dental hygiene scholarship using keyword analysis and LDA Topic Modeling of 784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Dental Hygiene from 2001 to 2025. The results reveal a clear paradigm shift from a clinically skill-centered model toward an integrated research framework encompassing educational reform, professional identity development, preventive healthcare delivery systems, occupational health, evidence-based clinical interventions, behavioral change interventions, improved access for vulnerable populations, and medical–dental integration models. The eight core topics consistently demonstrate a reconfiguration of the dental hygienist’s professional role from a clinical assistant to an independent healthcare professional, preventive counselor, behavioral interventionist, and public health practitioner. These findings empirically substantiate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dental hygiene as a discipline and provide academic and policy-relevant evidence supporting its establishment as a core professional field within contemporary healthcare systems.

Keyword • Dental Hygiene Research Trends, Text Mining, Evidence-based Practice, Professional Identity, Preventive Healthcare System

■ 논문투고일:2026.02.06. ■ 심사완료일:2026.02.26. ■ 게재확정일:2026.03.16. ■

국내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EN 규격 성능시험기준 적용성 연구

: 소방펌프의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기준 중심으로

구 재 현*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방법
4. 실험결과 및 고찰
5. 결론 및 제언

1. 서론

1) 개요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기본규격」상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이하 ‘소방펌프’라 한다)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및 소방활동 등에서 물을 송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의 차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엔진의 힘으로 작동되거나, 자동차 차대에서 분리가 가능한 별도의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원심펌프(Centrifugal Pumps)이다¹⁾. 이러한 소방펌프의 특성 상 대유량을 효율적으로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압력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 구재현(제1저자)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1)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KFS)-1-0001-2023-01』, 2023.

국내의 경우, 최근 5년간('18. 10월 ~ '23. 10월) 국내 소방펌프 제조업체는 총 6개사로서 해외 수입업체의 비율이 높으며, 대부분 소방자동차 제조업체 수요에 부합하는 소방펌프 제품을 수입하여 장착·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소방펌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에 관한 KFI인정기준(이하 'KFI인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인증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²⁾

또한 KFI인정기준 상 국내에서 생산되는 소방펌프는 규정된 최대 방수량 2,800 l/min의 성능을 가지며³⁾, 2,800 l/min 이상의 대유량이 필요한 경우 EN 규격 등의 국외 선진 성능시험기준에 따라 제품 인증에 합격한 해외 수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외의 소방펌프 성능의 기술수준 동향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경우 NFPA 1901, 유럽의 경우 EN 1028 규격에 따라 성능시험 인증을 받고 있으며, 국내 성능시험기준과 비교하여 소방펌프는 대유량, 고압 조건으로 인증을 받고 있다⁴⁾. 특히 EN 규격의 경우 펌프의 특성곡선을 도시화하여 실효성 높은 성능 검증을 실시하므로, 소방펌프의 방수성능 및 효율 등의 주요 성능 분석을 위해 소방펌프의 토출유량 및 토출압력 등에 대한 성능 변화를 실험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현재 소방관서에서 사용하는 소방펌프의 경우, 소방청에서 고시하는 소방펌프의 기본규격(소방펌프(KFS)-1-0001-2023-01)을 적용하여 성능시험기준을 만족하는 합격 제품이 구입되고 있으며, 소방펌프의 성능시험기준은 방수 성능 및 효율 시험기준 등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⁵⁾. 이 기본규격에서 규정하는 성능시험기준의 항목들은 소방대원 및 제조업체 등의 관계자 수요 및 국외 선진규격 동향을 고려하여 대부분 EN 규격

2)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에 관한 KFI인정기준』, 2024.

3) 앞의 기준, [별표 1] 시험기준 및 방법.

4) 구재현·방창훈,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시험기준 분석 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6권 2호, 문화재방재학회, 2021, 77-82쪽.

5)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앞의 규격.

을 도입하여 개발되었다.

특히 소방펌프의 기본규격에서 주요 핵심 성능기준인 방수성능 및 효율시험기준의 경우, EN 규격의 시험기준을 도입하여 반영한 국내 최초의 소방펌프 시험기준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능시험기준을 국내 제품에 적용하여 도출한 성능검증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성능시험기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관련 실험적 연구 추진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EN 규격 성능시험기준 적용성 검토를 위한 실험적 연구로서, 국내 소방펌프 제품(규격 A-1급 원심펌프)을 시료로 이용하여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효율시험 성능시험방법에 따른 시험결과의 분석을 통해 EN 규격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방수성능의 경우 기본규격 상 흡입양정 3~7.5 m, 펌프규격 A-1급의 규정된 공칭토출압력 1~1.2 MPa의 시험조건에서 토출량이 방수성능 기준에 대한 만족 여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효율 시험의 경우 소방펌프 특성곡선을 도출하고 KS 규격에 따라 효율값을 산정하여 등효율 특성곡선을 도출 하였다.

이때 EN 규격을 반영한 소방펌프 기본규격을 적용하여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을 실시하므로, EN에서 규정하는 소방펌프 성능시험설비를 구축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보유의 소방펌프 성능 시험설비를 이용하여 방수·효율 시험을 5회 실시하여 재현성을 확보한 시험결과를 도출하였다.

2) 선행연구 분석 및 시사점

소방펌프의 방수성능 및 효율시험 성능 관련 선행연구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구본휴(2023)⁶⁾는 소화성능 유지를 위한 소방펌프의 자동 고장진단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는 소방펌프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 모델을 구

6) 구본휴, 「소화성능 유지를 위한 소방펌프의 자동 고장진단」,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2023, 1-146쪽.

현하여 소방펌프의 이상상태 검출과 정상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소방펌프 고장진단 모델을 개발하였다. 관리 모델 구현을 위하여 소방펌프 전동기의 정상 신호 및 이상 신호를 도출하여 소방펌프 고장진단을 위한 전류, 유량, 압력의 알고리즘을 구축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구재현 등(2021)⁷⁾은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 시험기준에 대해 목조문화재 대상의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목조문화재의 효과적 소화를 위한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특성을 분석하고, KFI, EN 규격 등의 국내·외 소방펌프의 성능시험기준 간 비교·분석을 통하여 작동시험, 성능시험, 압력시험 등의 시험기준 항목별 시험방법 등의 현황과 함께 성능시험기준의 도입여부를 검토하였다.

권용준(2022)⁸⁾은 현장대응력 향상 방안 수립을 위한 소방자동차용 고압펌프의 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소방대원이 고압펌프가 소방펌프차를 사용할 경우, 화재진압 시 고압펌프의 방수 특성에 대한 실증을 통해 고압방수에 따른 압력손실과 대응방안 등을 도출하여 소방대원의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김광섭(2013)⁹⁾은 소화설비용 펌프가압방식의 운전성능에 관한 개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펌프설치 시 공동현상 등 소화펌프 성능에 미치는 이상현상 요소들을 검토하여, 국내·외 가압펌프 설비의 설치 기준을 분석하였다. 이와 연계하여 펌프의 수명 및 성능의 영향 요인이 되는 저수조/펌프의 흡입배관 흡입구 등의 구조 및 상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영향 최소화 방안을 제안하였고, 저수조/펌프의 흡입배관 및 흡입배관의 구조/배치에 관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7) 구재현·방창훈,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시험기준 분석 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6권 2호, 문화재방재학회, 2021, 77-82쪽.

8) 권용준, 「소방자동차용 고압펌프의 특성 분석을 통한 현장대응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177쪽.

9) 김광섭, 「소화설비용 펌프가압방식의 운전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1-64쪽.

김유식 등(2011)¹⁰⁾은 회전용적형 펌프의 소방장비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고압으로 대유량 방수가 가능하도록 개발된 회전용적형 펌프의 방수성능을 기존의 원심펌프와 비교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회전용적형 펌프의 소방장비에 적용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비교 시험을 통해 고려한 인자들은 방수압력 및 송수거리에 따른 방수량을 분석하여 펌프의 흡입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남준석 등(2003)¹¹⁾은 소방펌프 원거리 능동제어 시스템의 회전속도에 따른 성능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화재 진압 시 열악한 현장환경 속에서 고 신뢰성의 기능 확보를 위한 관창, 결합금속구, 전선내장 소방호스를 개발하고 소방펌프와 접속을 통해 펌프로부터 수압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을 갖는 원거리 능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원거리 능동제어 시스템의 개발 전/후의 소방펌프에 대한 출력, 토크, 연료소비율의 성능의 우수성을 보여 주었다.

민세홍 등(2012)¹²⁾은 실증 연구를 통해 소방차 펌프의 방수성능 기준에 관한 재정립 방안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화재진압 현장에서 소방펌프의 방수성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분석하여, 소방펌프의 방수성능 기준을 재정립하는 연구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때 화재진압 시 사용하는 소방펌프 동작시간, 소방펌프 기본사용압력 및 최고사용압력, 소방호스의 크기, 소방호스 수량, 등을 검토한 후 소방펌프의 성능시험을 통해 시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민세홍 등(2013)¹³⁾은 실증 연구를 통해 소방펌프차의 고압방수를 위한

10) 김유식·노성왕·박종원·주종길, 「회전용적형 펌프의 소방장비 적용에 관한 연구」,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 71-75쪽.

11) 남준석·사광성호·이장원·이효선·김영호, 「소방펌프 원거리 능동제어 시스템의 회전속도에 따른 성능 비교 연구」, 『2003년도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3, 233-240쪽.

12) 민세홍·권용준, 「소방차 펌프의 방수성능 기준 재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6권 5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 85-91쪽.

13) 민세홍·권용준·박종덕, 「소방펌프차의 고압방수를 위한 중계방수방식에 관한

중계방수방식에 관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방수구의 개방 및 폐쇄 상태의 조건에서 소방펌프차 2대를 이용한 중계방수 시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2개 소방펌프차의 상호 다른 압력의 시험조건 속에서 최종 방수압력에 따른 압력변화를 비교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화재진압 시 중계방수 방식의 효과적 대응 활용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추진하였다.

민세홍 등(2016)¹⁴⁾은 초고압 용적형 펌프를 시료로 이용하여 체절운전시스템에 관한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용적형 펌프의 체절운전시스템 개발을 통해 고압 운전 조건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초고압 용적형 펌프의 체절시스템은 컨트롤러 프로그램 및 전자클러치 등으로 구성되며, 유체유동 해석 및 과속도시험 및 등을 통해 최적 성능을 확인하였다.

박성규 등(2004)¹⁵⁾은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소방펌프 성능특성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기법을 이용하여 소방펌프의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성능 특성 고찰 및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케이싱압과 효율을 고려한 적절한 회전수 선택이 임펠러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회전수가 높을때 유체는 임펠러 입구로 유입되면서 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진공상태가 되지만, 케이싱으로 빠져나가면서 다시 압력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박준용(2025)¹⁶⁾은 압력강하에 따른 소방펌프 성능유지를 위한 순차기동 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압력신호 회로방식에서 주펌프/예비펌프의 동시 기동되는 문제점과 함께 인터록 회로방식

실증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7권 1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 52-59쪽.

14) 민세홍 · 김초철 · 성기찬, 「초고압 용적형 펌프의 체절운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0권 2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6, 106-113쪽.

15) 박성규·노고섭·김운제,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소방펌프 성능특성 연구」, 『대한기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기계학회, 2004, 2011-2016쪽.

16) 박준용, 「압력강하에 따른 소방펌프 성능유지를 위한 순차기동 시스템 개발」,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1-73쪽.

의 주펌프/예비펌프의 성능결함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두 펌프의 동시 기동을 방지하고 순차기동하여 함께 운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압력신호 회로방식과 ‘성능위주설계’에서 제시한 인터록 회로방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안정적으로 소방펌프가 운전할 수 있도록 시퀀스를 설계하고 제어반을 새롭게 구성하여 현장에서 시스템을 적용 가능한 순차기동 회로방식을 개발하였다. 이와 함께 소방펌프 순차기동 시스템은 시퀀스 회로를 설계하여 제어반을 구현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방창훈(2023)¹⁷⁾은 소방펌프를 난접근성 문화재 화재대응에 적용하여 나타나는 작동특성 분석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소방자동차 접근이 어려운 문화재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효율적 소화를 위한 소방펌프의 작동특성을 분석하였다. 소방펌프와 소방호스 10본을 연결할 때, 토출압력과 선단 노즐방사압력의 비는 호스 직경 40A일 때 33.3~22.0%, 호스 직경 65A일 때 63.2~54%로 증가하였으며, 호스 구경이 클수록 호스 내부의 마찰로 인한 압력손실이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소방펌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회전수 범위는 2,000~3,500회로 도출하여 소방펌프 내구성 유지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윤해권(2024)¹⁸⁾은 소화펌프의 내진해석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진화재 사례 분석을 통한 내진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비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기준 검토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검증을 위한 내진설계기준 제정전 설치된 6가지 입형다단펌프 모델링을 구현하고 검증을 위한 지진하중의 크기 도출 및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구조해석 결과치로 구조부재 응력과 앵커볼트 반력은 펌프자중과 형태가 영향을 주고, 구조부재 변위량은 연결배관에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

17) 방창훈, 「난접근성 문화재 화재대응 소방펌프 작동특성 분석」, 『저널 국가유산』 8권 2호, 국가유산방재학회, 2023, 107-111쪽.

18) 윤해권, 「소화입형펌프의 내진해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1-49쪽.

였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에 설치된 펌프의 내진성능 검증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용택 등(2016)¹⁹⁾은 용적형 펌프를 추가한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용적형 펌프의 장점이 되는 소형화, 고압 및 대유량 방수 등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적형 펌프의 실험값과 비교하여, 실제 실험결과 기반으로 용적형 펌프의 인정기준 과정을 검토하였다. 특히 용적형 펌프의 효율이 65% 이상의 효율을 나타내면서 V-1, V-2, V-3급에 대한 용적형 펌프의 규격 기준을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관련 선행연구는 소방펌프의 자동 고장진단, 국내외 소방펌프의 성능시험기준 검토, 소방자동차용 고압펌프의 특성 분석, 소화설비용 펌프가압방식의 운전성능 개선, 소방펌프 원거리 능동제어 시스템 성능 검토, 소방차 펌프의 국내 방수성능 기준 재정립 검토, 소방펌프차의 고압방수를 위한 중계방수방식 검토, 초고압 용적형 펌프의 체절운전시스템 개발,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소방펌프 성능특성, 압력강하에 따른 소방펌프 성능유지를 위한 순차기동 시스템 개발, 난접근성 문화재 화재대응 국내 소방펌프 작동특성 분석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가 아닌 건축물 설치용 소방펌프에 대한 연구가 추진되었으며,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 관련 연구의 경우 국내 성능시험기준에 따른 방수시험 실시 및 펌프 성능 개선 등을 위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EN 규격을 도입하여 개발한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 기본규격과 부합하여 국내 소방자동차용 A-1급 소방펌프 제품을 이용한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을 통한 성능검증 연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본 연구결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었다.

19) 한용택 · 성기찬 · 민세홍, 「용적형 펌프를 추가한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0권 1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6, 104-110쪽.

2. 이론적 배경

1) 소방펌프의 방수 개념

소방펌프는 자동차의 차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엔진의 힘으로 작동되거나, 자동차 차대에서 분리가 가능한 별도의 엔진에 의해 구동되는 원심펌프를 말한다. 소방펌프는 대유량을 먼 곳까지 방사할 수 있는 압력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대부분의 경우 원심펌프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펌프는 임펠러의 원심작용에 의해 액체에 운동에너지를 부여하여 높은 곳에 양수하거나 또는 원거리로 방수하는 펌프의 기능을 확보하여야 한다²⁰⁾.

[그림 1]은 원심펌프의 방수 원리 및 PTO 접속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원심펌프는 공학적으로 임펠러(Impeller)를 회전시켜 액체에 회전력을 주어 발생하는 원심력을 활용한 펌프로서, 흡입관을 통해 임펠러 중심부에 들어온 액체는 날개(Vane) 사이를 통과하면서 회전력을 받아 압력이 증가하게 된다²¹⁾. 이때 임펠러(Impeller)의 회전운동에 의하여 펌프 내부에 진공을 형성시켜 유체를 흡입하고, 이를 토출하는 펌프로 토출량과 토출압력이 맥동하는 일이 없으며 항상 일정 유량을 얻을 수 있으므로, 사용범위가 매우 넓은 특성을 갖는다.

펌프에서 중심부의 물이 외부로 토출되는 경우 중심부는 압력이 저하되어 진공상태에 접근하고 흡수관의 물이 대기의 압력에 의해 임펠러 중심을 향해 흐르게 된다. 이러한 원리로 물은 연속적으로 펌프 작용을 받아 흡상, 압상되면서 토출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원심펌프의 흡입구가 임펠러의 중심에 위치한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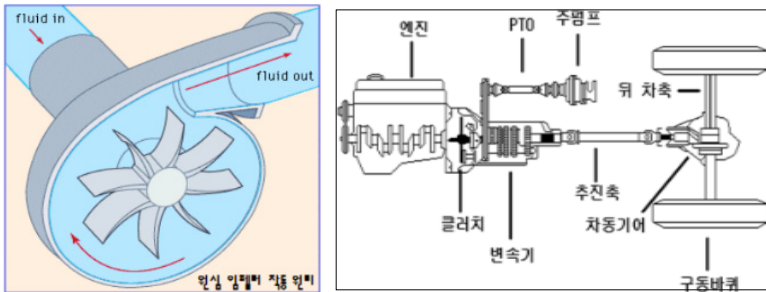
또한 소방펌프는 동력인출장치(Power Take Off, P.T.O)를 소방자동

20) 구재현 · 방창훈, 앞의 논문, 78-79쪽.

21) 백창선 · 이해평, 『소방장비』, 동화기술, 2016, 31-36쪽, 157-179쪽.

22) 앞의 단행본, 157-179쪽.

차의 변속기에 접속하여 엔진으로부터 발생된 동력을 인출하여 소방펌프를 작동시키게 된다²³⁾. 동력인출장치는 자동차 주행과는 관계없이 변속기의 부속기어에 공전기어를 접동시켜 동력 인출 성능을 가지며, 결과적으로 인출된



[그림 1] 원심펌프의 방수원리 및 PTO 접속위치

인출된 동력은 소방펌프의 추진축으로 전달되어 펌프 임펠러를 회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흡수된 물을 방수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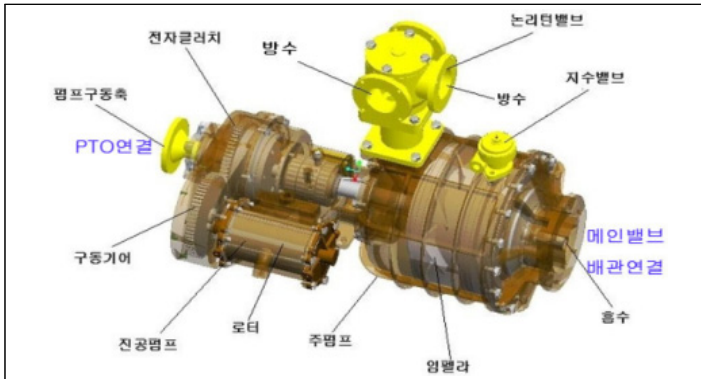
2) 소방펌프의 구조 및 작동원리

[그림 2]는 소방펌프의 구조 및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으로, 소방펌프는 주펌프, 진공펌프, 전자클러치, 지수밸브, 역류방지밸브 등의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주펌프는 펌프가 회전하여 물탱크에서 물을 흡수하여 방수구로 방수하는 기능이고, 진공펌프는 마중물장치로써 펌프배관 공기를 진공펌프에서 흡수하여 외부로 배출하여 진공압을 형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²⁴⁾. 특히 진공펌프는 소방펌프의 마중물장치로서 오일유에 의해 진공상태가 되고, 펌프 내에서 흡입측 공간의 공기를 흡입하면서 물을 흡입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이러한 방식은 진공의 효과가 우수하고 조작이 간편하며 신속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전자클러치

23) 앞의 단행본, 157-179쪽.

24) 앞의 단행본, 157-179쪽.

는 전기적 신호를 받아 자기장이 형성되어 자석처럼 클러치가 밀착되어 진공 펌프 기어를 구동하고, 지수밸브는 진공펌프가 진공작업을 할 때 작동하는 밸브로 진공펌프 내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차단시킨다. 역류방지밸브는 방수 구로 나간 물이 다시 펌프쪽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시키는 기능을 갖는다.



[그림 2] 소방펌프의 구조 및 구성요소

소방펌프는 1단계로 진공펌프가 작동되면 방수구, 흡수구, 펌프실내에 있는 공기가 지수밸브를 통과하여 진공펌프로 배출되며, 메인밸브를 통하여 흡입된 물이 펌프실 내부로 들어오고 진공이 완료되면 펌프 내 수압 센서가 동작하여 진공펌프 작동이 종료된다. 그 후 2단계로 주 펌프가 작동되어 물을 상부로 고압 토출시켜서 방수총 및 호스 등을 사용하여 물을 방수시키게 되며, 이때 압력변동 등에 따른 물 유동의 역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펌프 토출부에 역류방지밸브를 설치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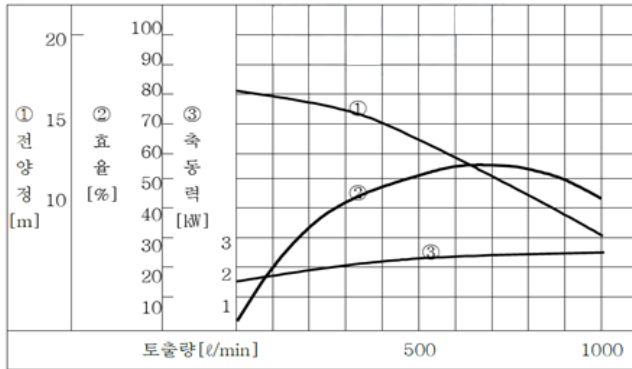
3) 소방펌프의 특성 곡선

[그림 3]은 소방펌프의 성능을 보여주는 특성곡선으로서, 펌프를 일정 회전속도 N rpm으로 운전하여 토출량 Q LPM의 변화에 대해 각각의 전양정

25) 앞의 단행본, 157-179쪽.

H m, 효율 η , 축동력 L kW의 변화를 하나의 선도로 표시하여 나타낸다²⁶⁾.

이러한 특성곡선은 펌프 임펠러의 회전속도에 따라 곡선 형상이 결정되며, 펌프의



[그림 3] 원심펌프의 특성 곡선²⁷⁾

선정 또는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방 펌프의 회전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토출 압력이 증가하면서 회전속도와 토출압력 간 비례 관계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펌프의 특성 곡선에서, 토출량이 증가할수록 전양정은 점차 감소되고, 효율은 최고점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며, 축동력은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²⁸⁾.

3.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방법

1) 시험방법

소방펌프의 방수성능·효율 시험은 국내 소방펌프 최대 제조사인 A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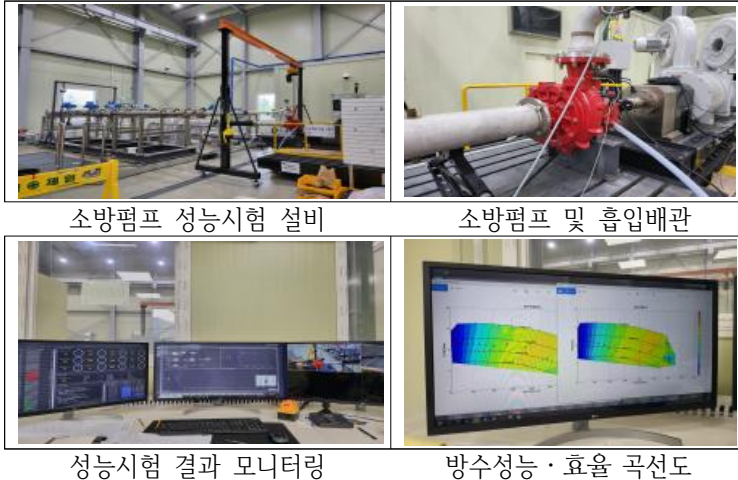
26) 김광섭, 「소화설비용 펌프가압방식의 운전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2-28쪽.

27) 앞의 논문, 17쪽.

28) 앞의 논문, 12-28쪽.

소방펌프 제품(A-1급)을 사용하여, 소방펌프 기본 규격에서 규정화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그림 4]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보유의 소방펌프 성능 시험설비 사진



[그림 4] 소방펌프의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설비

으로서,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라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설비이다. 이는 토크미터, 압력계, 유량계, 회전속도계 및 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수성능·효율 시험결과를 자동적으로 분석한다. 이 설비는 EN 규격의 규정된 사양에 따라 설계·구축되었으며,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시험기준·방법에 따라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을 통해 자동적으로 데이터 수집 및 시험결과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설비이다. 이때 회전속도계를 이용하여 소방펌프 임펠러의 회전속도를 측정하고, 소방펌프는 흡수구와 방수구에서 각각 압력계 설치를 통해 압력을 측정하며, 소방펌프 방수구에서 유량계를 이용하여 토출량을 측정한다.

(1) 소방펌프 방수성능 시험방법²⁹⁾

소방펌프 방수성능 시험방법의 경우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라 펌프규격이 A-1급인 경우 공칭토출압력(P_N) 1 MPa인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방펌프의 공칭회전속도(n_N)를 기준으로 다음의 3가지 주요 시험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첫째, 흡입양정($H_{S_{geo}}$) 3 m에서 공칭토출압력(P_N) 1 MPa로 방수하는 경우 토출량(Q)은 소방펌프 기본규격 부속서 B에서 규정된 공칭토출량(Q_N) 3,000 LPM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흡입양정($H_{S_{geo}}$) 7.5 m에서 공칭토출압력(P_N) 1 MPa로 방수하는 경우 토출량(Q)은 공칭토출량(Q_N) 3,000 LPM의 0.5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500 LPM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흡입양정($H_{S_{geo}}$) 3 m에서 토출압력(P)이 공칭토출압력(P_N)의 1.2배이고 소방펌프의 최대회전속도(n_0) 이하일 때 토출량(Q)은 3,000 LPM의 0.5배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500 LPM 이상이어야 한다.

여기서, 흡입양정($H_{S_{geo}}$)은 소방펌프가 물을 흡수하는 높이(m), 공칭토출압력(P_N , MPa) 및 공칭토출량(Q_N , LPM)은 소방펌프 기본규격에서 규정된 값, 최대회전속도(n_0)는 소방펌프 제조사에서 명시한 펌프 제1단 임펠러의 최대회전속도(rpm)이다.

소방펌프 성능 시험설비의 작동 순서는 유량 개폐밸브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및 소방펌프 진공 세팅 등의 설비 세팅, 성능시험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통해 시험데이터 안정화를 위한 시운전 및 방수성능·효율 시험 실시 및 시험데이터 뷰어 프로그램을 통한 펌프 특성곡선 및 등효율 특성곡선 도시화 등의 3단계 소방펌프 시험·분석이 실시된다.

29)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앞의 규격.

(2) 소방펌프 효율 시험방법³⁰⁾

소방펌프 효율 시험방법의 경우, 우선적으로 소방펌프 성능 시험 설비를 이용하여 보정 공칭흡입양정($H'_{S_{geoN}}$)에서 최대회전속도(n_0), 공칭회전속도(n_N)×1.15, 공칭회전속도(n_N), 공칭회전속도(n_N)×0.85의 4개 시험조건의 소방펌프 토출량(Q)에 따른 토출압력(P)의 변화를 나타내는 펌프 특성곡선을 도출한다. 이때 공칭회전속도(n_N)×1.15의 펌프 특성 곡선은 최대회전속도(n_0)×0.9 곡선 아래에 있을 경우에만 적용하며, 보정 공칭흡입양정($H'_{S_{geoN}}$)은 3 m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펌프의 효율값은 펌프 특성곡선의 각 값들을 이용하여 소방펌프의 수동력(L_Q)을 축동력(L_M)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되며, 동일한 효율 값을 도시화하여 등효율 특성곡선을 도출하여 소방펌프의 공칭회전속도(n_N), 공칭토출압력(P_N), 공칭토출량(Q_N)에 따른 해당 효율 값을 확인할 수 있다.

펌프의 효율은 KS B 6301(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의 시험 및 검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ta = \frac{L_Q}{L_M} \times 100 \quad (1)$$

여기서, η : 펌프효율(%), L_Q : 수동력(kW), L_M : 축동력(kW)으로서, 수동력(L_Q)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L_Q = \frac{1}{60 \times 10^3} \rho g Q H = 0.163 \gamma Q H \quad (2)$$

여기서, L_Q : 수동력(kW), ρ : 물 밀도 (kg/m^3), g : 중력가속도 9.8

30)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앞의 규격.

(m/s²), Q : 토출량(m³/min), H : 전양정(m), γ : 액체의 비중량(kg_t/m³)
 으로서, 전양정(H)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H = h_d - h_s + \frac{(v_d)^2}{2g} - \frac{(v_s)^2}{2g} \quad (3)$$

여기서, h_d : 기준면에서 환산한 토출 양정(m), h_s : 기준면에서 환산한
 흡입 양정(m), v_d : 토출 압력 측정 구멍 위치에서의 단면을 통과하는
 액체의 평균 속도(m/s), v_s : 흡입 압력 측정 구멍 위치에서의 단면을 통
 과하는 액체의 평균 속도(m/s)로서, 토출양정(h_d)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
 여 구한다.

$$h_d = \frac{10^6 G_d}{\rho g} + Z_d \quad (4)$$

여기서, G_d : 토출구 압력(MPa), ρ : 물의 밀도(kg/m³), g : 중력가속도
 9.80 (m/s²), Z_d : 압력계의 중심과 기준면의 수직 거리(m)이다.
 그리고 흡입양정(h_s)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h_s = \frac{10^6 G_s}{\rho g} + Z_s \quad (5)$$

여기서, G_s : 흡입구 압력(MPa), ρ : 물 밀도(kg/m³), g : 중력가속도 9.8
 (m/s²), Z_s : 압력계의 중심과 기준면의 수직 거리(m)이다.

토출량(Q)은 펌프가 단위시간당 방출하는 물의 양을 말하며, 유량계
 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Q = AV = \frac{\pi}{4} D^2 \times V = \frac{\pi}{4} D_s^2 \times v_s = \frac{\pi}{4} D_d^2 \times v_d \quad (6)$$

여기서, A : 토출, 흡입 배관 단면적(m²), D : 토출, 흡입 배관 지름(m),
V : v_d, v_s(m/s)이다.

축동력(L_M)은 토크미터를 사용하여 토크와 회전속도를 측정하여 계산한다.

$$L_M = 0.1047 \times \text{토크} \times \text{회전속도} \times \frac{1}{1000} \quad (7)$$

여기서, L_M : 축동력(kW), 토크(N·m), 회전속도(rpm)이다.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른 펌프 규격별 펌프의 효율은 EN 규격을 반영하여 제조사에서 제시한 값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화되어 있으므로 정량화된 기준값이 없다.

이에 따라, 기본규격이 개발되기 이전에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에 관한 KFI인정기준’에 따라 국내 소방펌프의 효율 시험기준이 65%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값과 비교하여 본 효율 시험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4. 시험결과 및 고찰

[그림 5]와 [그림 6]은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라 흡입양정 3~7.5 m 조건에서 소방펌프(A-1급)의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을 통해 도출한 펌프 특성곡선 및 등효율 특성곡선을 나타낸 시험결과이다. 이때 효율 시험을 통해 적용된 3개의 회전속도의 경우 최대회전속도(n₀)는 3,500 rpm, 공칭 회전속도(n_N)는 2,970 rpm, 공칭회전속도(n_N)×0.85는 2,524 rpm으로서,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라 공칭회전속도(n_N)×1.15의 펌프 특성곡선

은 최대회전속도(n_0) $\times 0.9$ 곡선 위에 있으므로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3개 회전속도 조건속에서 5회의 방수성능 시험을 통해 흡입양정 3 m의 경우 토출량 0~4,300 LPM 및 흡입양정 7.5 m의 경우 토출량 0~2,400 LPM에 따른 시험조건속에서 토출압력의 변화를 나타내는 펌프 특성곡선 및 등효율 특성곡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시험기준에 따라 공칭회전속도 2,970 rpm의 시험조건속에서 다음의 3가지 시험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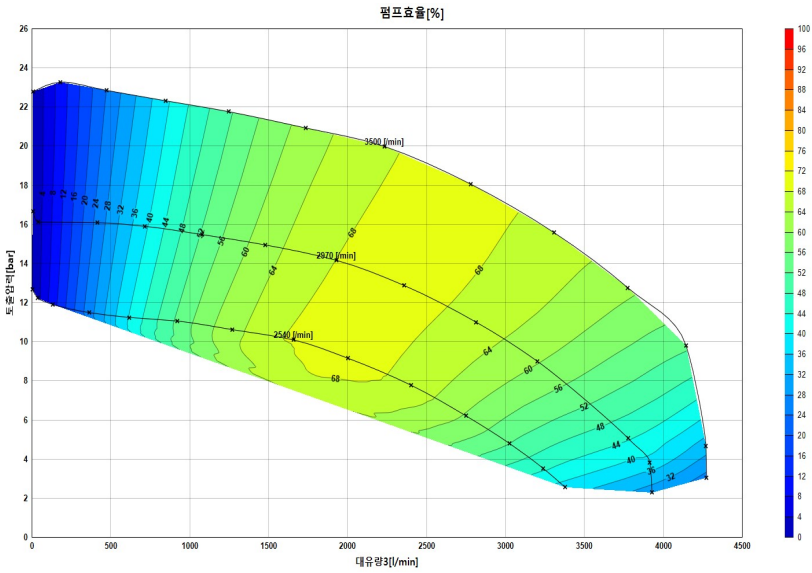
첫째, 흡입양정 3 m에서 공칭토출압력 1 MPa(10 bar)로 방수하는 경우 토출량이 3,022 LPM으로서, 공칭토출량 3,000 LPM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흡입양정 7.5 m에서 공칭토출압력 1 MPa(10 bar)로 방수하는 경우 토출량이 2,156 rpm으로서, 토출량은 공칭토출량의 0.5배인 1,500 LPM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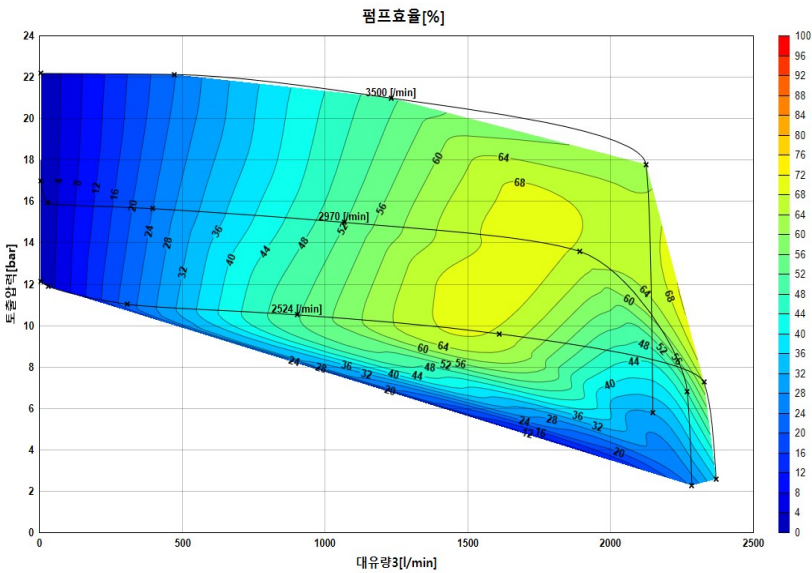
셋째, 흡입양정 3 m에서 공칭회전속도가 최대회전속도 이하로 나타났고, 토출압력이 공칭토출압력의 1.2배인 1.2 MPa에서 토출량이 2,580 LPM으로서, 공칭토출량의 0.5배인 1,500 LPM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표 1]은 [그림 5]의 펌프 특성곡선 및 등효율 특성곡선으로부터, 소방펌프 기본규격에서 규정된 효율 시험방법에 따라 흡입양정 3 m에서 공칭회전속도 2,970 rpm, 공칭토출압력 1 MPa(10 bar), 공칭토출량 3,012 LPM 조건을 기준으로

국내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EN 규격 성능시험기준 적용성 연구
: 소방펌프의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기준 중심으로 | 구재현



[그림 5] 흡입양정 3 m 조건의 소방펌프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결과



[그림 6] 흡입양정 7.5 m 조건의 소방펌프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결과

5회 시험을 통해 소방펌프 효율이 약 63~65%로 나타났으며 평균 효율이 64%로 분석되었다.

본 시험에 사용된 A사 소방펌프 제품의 경우 기존에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에 관한 KFI인정기준’에 따른 효율이 66.6%로 분석되어 효율 기준인 65% 이상을 만족하는 성능의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었다.

따라서 EN 규격을 반영한 소방펌프 기본규격 상 소방펌프 효율의 정량적 기준은 없으나,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른 평균 효율값이 KFI인정기준에 따른 평균 효율값보다 2.7% 낮게 나타났다. 이는 KFI인정기준과 소방펌프 기본규격에서 규정된 방수압력이 각각 0.85 MPa(8.5 bar), 1 MPa(10 bar)로서, 방수압력이 증가하면

[표 1]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른 효율 시험결과

소방펌프 효율(%)					평균 효율 (%)
1차	2차	3차	4차	5차	
64.53	63.73	62.76	64.06	64.43	63.90

토출량이 감소하므로 소방펌프 효율값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소방펌프 효율 성능이 낮아진 것이 아니라 EN 규격을 반영한 소방펌프 기본규격과 기존의 KFI인정기준 간 방수조건 등의 효율 시험방법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내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EN 규격 성능시험기준 적용성 검토를 위한 실험적 연구로서, 국내 소방펌프 제품을 이용하여 EN 규격을 반영한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라 소방펌프의 회전속도, 토출량 및 토출압력의 변화에 따른 소방펌프의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첫째, 흡입양정 3 m에서 공칭회전속도 2,970 rpm 및 공칭토출압력 1 MPa(10 bar)의 조건에서 방수하는 경우 토출량이 3,022 rpm으로서, 공칭토출량 3,000 LPM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흡입양정 7.5 m에서 공칭회전속도 2,970 rpm 및 공칭토출압력 1 MPa(10 bar)로 방수하는 경우 토출량이 2,156 rpm으로서, 토출량은 공칭토출량의 0.5배인 1,500 LPM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흡입양정 3 m에서 토출압력이 공칭토출압력의 1.2배인 1.2 MPa에서 토출량이 2,580 LPM으로서, 공칭토출량의 0.5배인 1,500 LPM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4)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시험방법에 따라 규정된 흡입양정 3 m, 공칭회전속도 2,970 rpm, 공칭토출압력 1 MPa(10 bar), 공칭토출량 3,012 rpm 조건에서 5회 시험을 통해 소방펌프 효율이 약 63~65%로 나타남에 따라 평균 효율이 64%로 분석되었다.

(5) 효율시험을 위한 방수조건 등의 시험방법 차이에 기인하여 KFI인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른 평균 효율값이 2.7%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제품의 방수성능 및 효율이 EN 규격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소방펌프의 성능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제품 품질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향후 고압 조건 하의 임펠러 마모 및 기계적 씼(Mechanical Seal)의 내구성 변화에 대한 후속 연구 추진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방대원이 소방 현장활동을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소방펌프 성능의 선진화 유도과 함께, 소방력 향상 및 대국민 인명·재산 피해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단행본

- 백창선·이해평, 『소방장비』, 동화기술, 2016, 31~36쪽, 157~179쪽.
소방청 소방장비 기본규격, 『소방펌프(KFS)-1-0001-2023-01』, 2023.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에 관한 KFI인정기준』, 2024.

논문

- 구본휴, 「소화성능 유지를 위한 소방펌프의 자동 고장진단」,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146쪽.
구재현·방창훈, 「목조문화재 화재대응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시험기준 분석 연구」, 『문화재방재학회 논문집』 6권 2호, 문화재방재학회, 2021, 77-82쪽.
권용준, 「소방자동차용 고압펌프의 특성 분석을 통한 현장대응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1-177쪽.
김광섭, 「소화설비용 펌프가압방식의 운전성능 개선에 관한 연구」,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1-64쪽.
김유식·노성왕·박종원·주종길, 「회전용적형 펌프의 소방장비 적용에 관한 연구」, 『2011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11, 71-75쪽.
남준석·사공성호·이장원·이효선·김영호, 「소방펌프 원거리 능동제어 시스템의 회전속도에 따른 성능 비교 연구」, 『2003년도 한국화재·소방학회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한국화재·소방학회, 2003, 233-240쪽.
민세홍·권용준, 「소방차 펌프의 방수성능 기준 재정립을 위한 실증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6권 5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2, 85-91쪽.
민세홍·권용준·박종덕, 「소방펌프차의 고압방수를 위한 중계방수방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27권 1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3, 52-59쪽.
민세홍·김호철·성기찬, 「초고압 용적형 펌프의 체절운전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

-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0권 2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6, 106-113쪽.
- 박성규·노고섭·김윤제, 「운전조건 변화에 따른 소방펌프 성능특성 연구」, 『대한기계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대한기계학회, 2004, 2011-2016쪽.
- 박준용, 「압력강하에 따른 소방펌프 성능유지를 위한 순차기동 시스템 개발」,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5, 1-73쪽.
- 방창훈, 「난접근성 문화재 화재대응 소방펌프 작동특성 분석」, 『저널 국가유산』 8권 2호, 국가유산방재학회, 2023, 107-111쪽.
- 윤해권, 「소화입형펌프의 내진해석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4, 1-49쪽.
- 한용택·성기찬·민세홍, 「용적형 펌프를 추가한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의 성능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30권 1호, 한국화재소방학회, 2016, 104-110쪽.

■ 국문초록

EN 규격을 반영한 소방자동차용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및 효율 시험기준에 대한 실험적 성능 검증 데이터베이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소방펌프 제품(A-1급 펌프)을 시료로 이용하여 국내 최초로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효율 시험방법에 따른 시험 실시를 통해 EN 규격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흡입양정 3~7.5 m, 공칭회전속도 2,970 rpm 및 공칭토출압력 1~1.2 MPa(10 bar)의 조건에서 방수되는 토출량은 2,156~3,022 rpm으로서,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방수성능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방펌프 기본규격의 효율 시험조건에서 5회 시험을 통해 소방펌프의 평균 효율이 64%로 분석되었다. KFI인정기준과 비교하여 소방펌프 기본규격에 따른 평균 효율값이 2.7%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시험방법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내 소방펌프 제품의 방수성능 및 효율이 EN 규격의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본 연구결과는 소방펌프의 성능시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소방펌프 성능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소방펌프, EN 규격, 성능시험기준, 방수성능, 효율

■ Abstract

A Study on the Applicability of EN Performance Test Standards for Fire Pumps Used in Domestic Fire-fighting Vehicles

: Focusing on Water Discharge Performance and Efficiency Test Standards

Ku, Jae-Hyun / Mokwon University

There is a severe lack of experimental performance verification databases for the water discharge performance and efficiency test standards of fire pumps for fire-fighting vehicles, reflecting the EN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the EN standards by conducting tests for the water discharge performance and efficiency test methods of fire pump standards for the first time in Korea using a domestic fire pump product. Under conditions of a suction head of 3–7.5 m, a nominal rotational speed of 2,970 rpm, and a nominal discharge pressure of 1–1.2 MPa (10 bar), the discharge rate was analyzed to be 2,156–3,022 rpm, which is analyzed to satisfy the water discharge performance standards. And, the efficiency of the fire pump was analyzed to be 64% through five tests under the test conditions of fire pumps standards. Compared to the KFI certification standards, the average efficiency value according to fire pump standards was 2.7% lower, which was attributed to differences in testing methods. Consequently, the water discharge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domestic fire pump products were found to meet EN standard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performance testing database for fire pumps and to enhancing the reliability of their performance.

Keyword • Fire Pumps, EN Standards, Performance Test Standards, Water Discharge Performance, Efficiency

논문투고 규정

제정 : 2018년 3월 1일

최근 개정 : 2026년 1월 2일

제1조(학술지 명칭)

- 1) 본 학술지는 『지식과 교양』이라 칭한다.
- 2) 본 학술지는 교양교육, 지식의 대중화, 교양 관련 이론, 학문간 통섭 등에 관한 논문을 발간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의 학술지 『지식과 교양』의 투고·편집 및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간횟수 및 시기) (2023년부터 적용)

- 1) 본 학술지는 연 3회 발행한다.
- 2) 본 학술지의 발행일은 3월 30일, 7월 30일, 11월 30일로 정하되, 편집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발간회수를 조정할 수 있다.
- 3) 학술지의 논문 접수 마감일은 매년 3월호 학술지는 1월 31일, 7월호 학술지는 5월 31일까지, 11월호 학술지는 9월 30일까지로 한다.
- 4) 본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일자(접수일자), 심사(수정)일자, 게재확정일자를 논문 마지막에 명기한다.

제4조(투고자의 자격과 연구윤리규정 준수) (2020.12.01. 개정)

- 1) 논문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 회원가입을 한 후 논문투고신청서와 윤리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논문투고자는 『지식과 교양』의 연구윤리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에 의거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5조(게재불가 논문)

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항에 속하는 논문이 투고되었을 경우 심사과정 이전에 투고를 제한할 수 있다.

- 1) 본 학술지의 논문주제 영역에 부합하지 않은 논문
 - 2) 학술지 및 간행물을 통해 이미 출판되었던 논문과 이와 유사한 논문
 - 3) 외국저서, 논문, 저널의 단순한 번역 논문
 - 4) 석·박사 학위 논문을 단순 축약한 논문
- ※ 석·박사 학위 논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보완, 발전시킨 논문의 경우 투고 가능하다. 단, 각주를 통해 그 사실을 반드시 사전에 적시해야 한다. 적시하지 않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투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 5) 이전 학술지 논문심사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을 내용의 수정을 가하지 않고 투고한 논문
 - 6) 이전 호에서 ‘게재철회’를 요청한 논문은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식과 교양』에 재투고할 수 없다.
 - 7) 게재확정 이후라도 이상이 확인된 논문의 경우, 연구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6조(논문투고 방법)

투고자는 원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 1) 논문투고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 ‘논문투고 안내’에 따라,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회원가입 후 직접 업로드한다.
- 2) 삭제
- 3) 모든 투고자는 온라인 논문투고 시스템(<https://lic.jams.or.kr>)에 ‘연구윤리서약서’ ‘저작권이양동의서’ ‘논문유사도검사결과서’ ‘논문원문파일(저자, 소속 삭제)’을 첨부해야 한다.
- 4) 원고마감 일자를 경과한 논문은 해당 투고자의 동의하에 다음 호의 투고 대상으로 삼는다.

제7조(투고자 논문작성 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의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야 한다.

- 1) 논문은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제7조 8)항) 기준 10매~20매 (국·영문 초록, 그림·각주 포함) 내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논문의 총 매수는 『지식과 교양』 논문편집양식 기준 25매(참고문헌, 초록 제외)를 초과할 수 없다. 기준 매수를 초과할 경우 쪽당 1만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한다.
- 2) 원고 작성 시 사용할 소프트웨어는 '한글2007' 이상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 3) 논문은 한국어·영어·기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다. 모든 논문에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제출해야 한다.
- 4) 원고는 논문 제목, 성명과 소속 및 직위, 목차,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및 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성명, 영문초록, 영문 키워드의 순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 5)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주저자(제1저자)와 부저자(교신저자, 공동저자 등)를 구분하여 주저자가 첫 번째로, 부저자는 두 번째 이후로 표기한다. 공동저자 모두 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 6) 참고문헌을 구비하되, 완벽한 서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논문 수록지의 해당 페이지를 명시해야 한다.
- 7) 투고자는 게재 확정 후에는 성명의 오른쪽 위에 별표 첨자를 붙이고
 각주란에 다음의 형식으로 투고자 정보를 표시한다.

소속기관	직위	투고자 정보
대학	교수, 강사	성명/ 대학명/ 직위(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등)
	박사 후 연구원	성명/ 대학명/ 박사 후 연구원
	학생	성명/ 대학명/ 과정(학부생, 석사과정, 박사수료 등)
유초중고 학교	교사	성명/ 학교명/ 교사
	학생	성명/ 학교명/ 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 기관명/ 직위(연구위원, 부연구위원 등)
기타기관	공무원, 사원 등	성명/ 기관명/ 직위
소속 없음	성인	성명/ 대학명/ 종별 학위 성명/ 전 소속/ 직위 성명/ 연구자(또는 시인, 소설가, 비평가 등)
	미성년자	성명/ 학교명/ 졸업(또는 수료, 중퇴 등)

- 8) 논문의 세부 편집양식은 『지식과교양』 논문작성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1)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2)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3) 삭제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4) 각 항목별 작성 방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논문제목 : 글자크기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

② 성명 : 글자크기 9.5, 진하게, 가운데 정렬(논문제목과 이름 사이
한줄 땀)

③ 소속 : 글자크기 9, 진하게, 가운데 정렬, 괄호 안에 소속을 명기

④ 소제목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왼쪽, 진하게

⑤ 본문 : 글자크기 10.5, 정렬방식 양쪽정렬

(5) 원고의 번호 붙임은 아래와 같이 한다.

- 1단계 : 1. 2. 3.
- 2단계 : 1) 2) 3)
- 3단계 : (1) (2) (3)
- 4단계 : ① ② ③

(6)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아래와 같이 한다.

① 영화/영상/웹툰 작품의 경우는 < >를, 문학작품, 논문의 경우는 「 」를, 단행본인 경우 『 』를, 음악관련 작품인 경우는 《 》를 사용한다.

② 강조 및 간접인용의 경우에는 홑따옴표 ‘ ’를,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겹따옴표 “ ”를 사용한다.

(7) 논문의 각주 작성 요령

① 각주는 본문의 하단에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외국어일 경우), 출판연도, 인용쪽수 등의 순서로 표기한다.

② 각주는 각 언어권 학술문헌의 일반적인 예를 따른다.

• **한국어 저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한바퀴, 2005, 78쪽.

• **한국어 논문(학술지 및 학위)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논문명」, 『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홍길동, 「교육연구의 궤적」, 『교양연구』 24집, 2009, 21쪽.

• **번역서인 경우** 다음의 순서로 작성한다.

저자, 번역자,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저자, 번역자, 「논문명」, 『저서명/학술지』권/호,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예) 잭 우드 저, 홍길동 역, 『교양교육』, 한바퀴, 2005, 8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저서는 이탤릭체로, 논문은 “ ”로 표기한다.

예) Jack Wood,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trans. Celia Britton. Annwyl Williams, Ben Brewster, and Alfred Guzzetti, London: HumanArts, 1982, p.23.

예) Kimberly Woods, “Social effectiveness: on some Asian College's education in the 1980s”, Education, vol. 30, no. 3, 1989, pp.51-65.

• **신문/잡지 기사**의 경우 작성자, “기사명”, <신문/잡지명>, 기사 날짜 순으로 작성한다.

예) 홍길동, “2000년대 대학교육 현황”, <교양일보>, 2011.05.21.

•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할 경우 사이트 명, 사이트 주소, 자료 확인 날짜순으로 표기한다.

예) 『지식과 교양』, www.mokwon.or.kr, 2011.05.21.

③ 중복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다음 표기의 예를 따른다.

• **한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위의 책, 위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위의 책(위의 논문), 21쪽.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앞의 책, 앞의 논문 이라 표기한다.

예) 홍길동, 앞의 책(앞의 논문), 21쪽.

- 영문(외국어)인 경우 바로 위의 주(註)에서 인용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때는 Ibid., 로 표기한다.

예) Ibid., pp.20-21. 또한 바로 앞이 아닌 그 앞의 주(註)에서 인용된 참고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저자명을 먼저 명기한 후 op. cit.,로 표기한다.

예) Michael, op. cit., p.21.

④ 참고문헌 작성요령 : 글자크기 9.5 (단, 제목은 10, 진하계)

-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 정보를 수록한다. 논문의 경우 전체 쪽수를 명기하고, 저서의 경우는 쪽수를 생략할 수 있다.
- 참고문헌은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영어, 외국어 순으로 작성하되, 단행본, 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사이트로 나누어 표기한다. 국내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서로, 영어 및 외국어 문헌은 저자 이름에 따라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영문(외국어) 서적**의 경우는 이탤릭체로 하고, 국문 서적은 『 』를 사용하고 학술지의 경우는 권, 쪽 수 순으로 작성한다.
- **참고문헌 작성 시** 다음의 예를 참고한다.

예) 김병정, 「영화 <혼자>의 롱테이크와 촬영기술 연구」, 『지식과 교양』8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2021, 25~47쪽.

예) 홍길동, 『교양교육의 역사』, 교양과 교육사, 2005.

예) Bergstrom, Joins. ed. "Human Arts: Culture and Society", Arts Histories,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pp.50-85.

예) Donald, Stephen. Questions of Liberal Art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예) Lacan, Jacques. "The mirror stage as formative of the function of the 'I'." In Ecrits: a selecti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 Norton, 1977.

⑤ 국문·영문(외국어)초록 및 국문요약문 작성요령: 글자크기 10.5 (단, 제목은 진하계)

- 국문초록은 논문의 전체요지를 500자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하고 국문으로 된 5개 이상의 주제어를 국문초록 다음에 반드시 첨부한다. 영문(외국어) 논문의 경우에도 국문 논문과 동일하게 국문 초록 및 국문 주제어를 명기한다.
-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해 작성한 원고는 본문의 언어 종류에 관계없이 영문 초록을 반드시 첨부한다. 단, 이때의 영문 초록은 국문 논문의 영문 초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또한 최소 1,000자 이상, A4 1매 내외의 분량의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한다.

(8) 기타 편집사항은 『지식과 교양』논문작성 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제8조(투고자 논문심사)

투고된 논문은 본 연구소의 논문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거친다. 단, 편집위원회가 기획, 의뢰한 논문의 경우 게재의 우선권을 부여하되, 일반논문과 동일한 심사과정을 거친다.

제9조(논문 수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논문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 요구일 10일이 지나도록 저자로부터 회신이 없으면 해당호의 논문게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2) 논문 심사를 통과한 논문은 편집규정에 근거하여 그 편집형식을 편집위원회에서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 3) 논문 제목은 1차 수정본 제출 이후로는 변경할 수 없다.

제10조(논문 책임)

게재 논문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

제11조(심사료와 게재료)

투고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비를 납부한다.

1)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비는 6만원으로 한다. 논문 심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지원논문 모두 동일하게 부과된다.

2)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구체적인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일반 논문 : 20만원

- 연구비 수혜논문 : 40만원

3)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영문초록 감수비 2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 논문편집양식(제7조 6항 참조) 기준보다 분량이 초과될 경우 소정의 추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제7조 1항 참조).

※ 투고자가 해당 논문에 대해 ‘게재철회’를 요청한 경우라도 심사 후 원고 ‘게재가 확정’된 경우 투고자는 ‘게재철회’와 관계없이 해당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저작권) (2021.11.01. 개정)

1) 게재된 모든 논문에 대한 ‘저작물의 이용’ 권한은 목원대학교(교양 교육혁신연구센터)에 위임한다.

2) 투고자는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다른 공동연구자와 함께 『지식과 교양』에 위임할 것을 '논문투고신청서'를 통해 사전에 서약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본 세부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사안별로 본 편집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제14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5)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6) (시행일) 본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논문심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0년 12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2023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에 투고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연구윤리규정 심사)

- 1) 본 『지식과 교양』의 논문 심사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구성하기 전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투고 논문의 영역과 게재의 적합성, 연구윤리규정의 준수 여부, 논문 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등을 검토, 해당 투고 논문의 심사여부를 결정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심사 및 판정)

- 1) 편집위원회를 통해 심사대상으로 확정된 투고 논문은 편집위원회와 편집위원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는다.
- 2) 심사위원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lic.jams.or.kr/co/main/jmMain.kci>) 내에서 심사할 논문을 확인하고 ‘연구윤리규정 준수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한다.

- 3) 투고자와 동일한 소속기관인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입력 또는 첨부해야 한다.
- 5)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을 심사서에 제시된 논문 평가항목을 참조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심사자 1	심사자 2	심사자 3	판정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가능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가능	게재불가	편집위원회 재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가능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6) 심사위원의 판정은 80점 이상 ‘게재가능’, 70점 이상 ‘수정 후 게재’, 60점 이상 ‘전면수정 후 재투고’, 59점 이하 ‘게재 불가’로 한다.
- 7) ‘전면수정 후 재투고’,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서에 평가 항목에 따른 구체적인 판정 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 8)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을 종합한 결과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당 호의 『지식과 교양』에 게재한다.
- 9) 기타 판정에 관한 결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제4조(이의 심사)

- 1) 논문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2)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게재불가’로 판정이 난 논문 투고자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 3) 이의 제기는 결과 통지 후 1달 이내에 접수되어야 한다.
- 4) 접수된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편집위원회에서 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통지한다.
- 5) 편집위원회가 이의를 인정하게 되었을 경우 변경된 평가 결과를 논문 투고자에게 1주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제반 절차를 바로 진행하도록 한다.

제5조(기타)

- 1)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지식과 교양』이 소유한다.
- 2) 논문의 심사 및 편집·출판, 온라인 제공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논의를 거친 후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3)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6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4)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1년 3월 1일 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지식과 교양』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을 준수한다.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에서 발행하는 『지식과 교양』에 수록되는 학술발표와 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 심사윤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우선해 따른다.

제2조(적용대상 및 서약)

- 1)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 및 학술운영위원, 논문 심사위원, 투고자는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서약서, 별첨 1, 2)
- 2) 『지식과 교양』의 편집위원회는 원고모집을 공고할 때 본 규정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고, 심사자는 심사를 승낙할 때 본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여야 한다.
- 3) 투고자는 논문 투고시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는 ‘연구윤리규정준수서약서’와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지인용색인(<http://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문헌 유사도 검사’ 서비스의 검증결과(KCI 문헌유사도 검사 종합결과 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3조(저자의 투고윤리기준 및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원고는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은 문서를 포함한 이미지 자료도 포함된다. 표절의 기준은 국가기관 혹은 아래의 기준을 따른다.

1) 표절 :

- (1)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 체계 등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의도적으로 자기 것인 것처럼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한다.
- (2)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부호 없이 원문 그대로 옮기거나 광범위하게 인용하는 경우
- (3) 가져온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내용 또는 분량에서 새로운 저작물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게 되는 경우
- (4) 타인의 연구계획서 및 기고된 논문에 대한 동료심사를 통해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아이디어 전체나 일부분을 그대로 또는 피상적으로 수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여 타인의 연구를 도용하는 경우

2) 위조 : 실험, 관찰 등의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3) 변조 :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마음대로 변형·삭제하는 행위

- (1) 수집한 원 자료의 내용을 결과를 왜곡할 의도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 (2)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 (3) 연구대상이나 연구방법 등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는 것
- (4) 임의로 표본을 자르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4) 중복 게재 :

- (1)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을 포함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 자료, 연구결과를 인용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학회지에 재수록하는 경우로, 사전에 해당 학술지의 허락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 (2) 대부분의 연구 결과가 같고 대부분 문장이 같은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 (3)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 박사 학위 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원고는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단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그 작성 경과를 반드시 저작물에 적시하여야 한다.

5) 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제1저자, 공동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 (2)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3) 논문의 저자 중 특수관계인(미성년 연구자, 논문 투고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으로서, 논문투고의 공동저자일 경우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6) 논문에서 저자는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나눈다.

-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저자의 역할을 표시하여야 한다. 연구와 논문작성에 있어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저자를 “주저자”로, 논문의 투고, 심사, 출간 과정에서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 혹은 운영위원회 등과 연락을 담당한 저자를 “교신저자”로 표시한다.

(2) 교신저자

- ① 교신저자는 논문투고 및 심사자와 교신하는 투고의 전 과정을 책임지는 연구책임자이다.
- ② 교신저자는 공동저자의 표시와 그 순서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지고, 저자 표시 순서에서 맨 뒤에 배치한다.
- ③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들에게 최종 논문을 회람하여야 하고 투고 사실을 알려 확인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심사 후 수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교신저자는 이를 공동 저자에게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저자(제1저자)

저자의 표시 순서에서 제일 앞에 두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연구의 주요 기여자이다.

(4) 공동저자

- ① 연구에 참여한 공동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 연구 수행 중 중요한 연구 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이다.
- ② 공동저자의 포함 범위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격히 기여한 자이다.
- ③ 공동저자의 표시순서는 연구에 참여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배치한다. 저자 표시순서는 교신저자 주도하에 참여한 저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젠더혁신정책)

투고자의 논문은 젠더혁신 정책에서 추천하는 가이드라인(<http://gister.re.kr>)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1) 논문은 생물학적 차이를 나타내는 성(sex)과 정체성에 관한 것이거나 정신적 혹은 문화적 구분을 나타내는 젠더(gender)를 구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2) 논문은 연구 참가자의 성, 젠더, 또는 둘 모두를 보고해야 하며,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성과 젠더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도 기술해야 한다.

- 3) 연구내용이 한쪽 성 또는 젠더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 저자는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예를 들면 전립선암) 그 이유를 논문 내에 합리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 4) 저자는 인종(race) 또는 민족집단(ethnicity)을 결정한 방법과 그 구분의 연 구상 필요성을 기술하여야 한다.

제5조(편집위원의 편집윤리기준)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심사에 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 2)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저작물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 및 심사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저작물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저작물의 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자의 심사윤리기준)

- 1) 심사자는 편집위원회가 심사 의뢰하는 저작물을 심사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하게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평가하는 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2) 심사자는 논문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이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자는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관계를 떠나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저작물을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자는 저자의 인격과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고,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또는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게재불가 또는 전면수정 후 재투고로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 3) 심사자가 투고된 저작물이 제3조의 각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편집위원회 및 제7조에 의한 윤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4) 심사자는 심사를 의뢰받은 사실, 심사대상 저작물의 모든 사항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작물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7조(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1) 본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과 교양』의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 및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사 5인 내외로 구성되며,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장이 그 위원장을 맡는다.
- 3)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6) 연구윤리위원회 연구윤리의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제재 조치에 관한 사항

- (3) 조사위원회 구성 및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 (4)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위반행위의 조사

제9조(위반행위의 조사 개시)

- 1)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본 규정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고 한다)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2) 위원장은 편집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 1) 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반행위의 입증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다만, 피조사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파기한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제11조(위반행위 조사의 기간)

- 1) 위반행위의 조사 기간은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실시한다.
예비조사는 제보 또는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며, 본 조사는 예비조사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 2)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는 만 5년으로 한다. 그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5년 이전의 위반행위라도 후속 연구의 기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가 5년 이내일 경우.
 -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12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신원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 2) 위반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준수하고,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인정되기 이전까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3)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등 조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기피, 회피)

- 1)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사 및 안전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조사 및 심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3)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진술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판정)

- 1) 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반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피조사 사실과 관련한 피조사자의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판정을 한다.

제4장 조사 이후의 조치

제1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 1) 윤리위원회가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부과하여야 한다.
 - (1) 본 규정에 위반된 저작물이 『지식과 교양』에 게재된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게재의 소급적 무효화 및 논문목록에서 삭제
 - (2) 향후 10년 이상 『지식과 교양』 투고 금지
 - (3)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지식과 교양』 및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 (4) 본 규정의 위반 사실을 한국연구재단에 통보
 - (5) 기타 윤리의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사안으로서 윤리위원회가 정하는 제재사항
- 2) 전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의 수록 권·호수,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한다.

제18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7조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재심의 결과 위반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지식과 교양』 학술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1조(개정)

본 규정은 『지식과 교양』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3)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2018년 3월 1일 제정
2022년 3월 1일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학술지 『지식과 교양』편집위원회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업무)

편집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지식과 교양』 투고 논문 심사 및 편집
- (2) 학술도서 기획과 편집
- (3) 기타 학술지 관련 업무
- (4) 본 연구소의 편집 관련 업무

제3조(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1)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센터장이 위촉한다.
- (2) 편집위원회는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 (3) 편집위원은 각 분야에서 대내외적 지명도가 높고 학술적 성과가 우수한 이로 하며,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이 고루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
- (4) 심사 및 편집 실무를 위해 약간 명의 조교, 연구원을 둘 수 있다.
- (5)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투고 마감 이후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을 위한 편집 회의를 개최하며, 심사가 일단락된 후 심사결과 판정과 학회지 편집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편집회의는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5조(결정 사안)

편집위원회의 주요 결정 사안은 다음과 같다.

- (1) 학술지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위촉
- (2) 투고 논문 심사결과의 검토와 판정
- (3) 논문 수정사항 확인을 통한 게재 여부 확정
- (4) 기타 학술도서 기획 및 심사 편집에 관한 건

제6조(규정준수 의무)

편집위원회는 학술지 심사 및 편집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학술지 발간 및 논문 투고 규정과 논문 심사 규정,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연구센터장: 민경식

◇ 편집위원장: 구진희

◇ 편 집 위 원 :

고혜영(서울여대), 객내정(배재대), 권용진(경성대), 김경래(한국교원대),
김광환(건양대), 김순정(성신여대), 김혜정(경인교대), 노은희(가천대),
배병윤(한라대), 변진이(경일대), 서유석(경상국립대), 원은석(목원대),
정옥희(전주교대), 조기웅(전북대), 조용림(목원대), 조준희(동국대),
최병진(제주대), 홍태한(전북대)

◇ 윤리위원장: 민경식

◇ 윤 리 위 원 :

서정일(목원대), 유경아(목원대), 이아람찬(목원대), 이철우(공주대),
이태화(고려대), 장영란(한국외대), 최혜진(목원대)

◇ 표지디자인: 현승훈

본 학술지는 목원대학교 학술연구지원에 의하여 발행되었음

지식과 교양 *Knowledge & Liberal Arts*

2026년 03월 30일 / 30 March 2026

2026 통권 제20호 / No. 20

발행인 민경식

발행처 목원대학교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담당 조교 박해인

발행일 2026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목원대학교 캠퍼스타운(1관)

103호 교양교육혁신연구센터 (우편번호 35349)

Tel 042-829-8198

E-mail kl@mokwon.ac.kr Homepage

<https://lic.jams.or.kr>

편집·인쇄처 ㈜칸디자인뱅크

전화 : 042-826-0291